확장판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이야기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사람과 사람을 잇다.

사전적 의미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을 '추천'이라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소개'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 책임이 따르는 '추천'은 '소개'보다 무게 있게 느껴지는 말이다.

'추천도서'라는 이름으로 책을 읽으며 펼쳐지는 삶의 수많은 가능성과 동기부여의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은, 사뭇 진지하게 책임을 지는 일임과 동시에 작은 소통의 첫걸음이다.

우연히 손길을 스치다 만난 책이 마음을 울리는 책이 되기도 하고, 찾는 책보다 그 옆에 있던 책에서 내가 찾는 정보나 나에게 필요한 문장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겉보기엔 나와 맞지 않는 책이라 여겼는데, 의외로 술술 읽히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와 같지 않을까.

ChatGPT로 대두되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 사유하는 행위를 더 소중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읽고 쓰고 이해하는 리터러시 능력[1]에 집중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역량과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2] 지식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과 사서 또한 역할변화와 존재가치를 고민하는 때다.

---

1) 멀티 리터러시 개념을 수용했을 때 리터러시는 '맥락과 문화적 관습을 포함한 모든 비언어적 요소를 망라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 송경진 지음, 《도서관과 리터러시 파워》. 정은문고. 2023. p.28.

2) 조병영 지음,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p.354.

도서관은 책의 성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장서에서 연결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소통공간을 확대하는 이유다.[중략] 캘리포니아의 맨해튼비치 공공도서관 계단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읽고, 쓰고, 배우고,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탐험하고, 운동하고, 놀고, 관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창작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묻고, 토론하고, 검색하고, 찾고, 쉬다." - 도서관 여행자[3)]

삶은 매일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도서관은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연의 공간이기도 하다.

사서는 도서관과 책, 독자 사이의 주선자로서 그 발견성에 마중물을 붓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만남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 힘을 키우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경기도사서서평단〉이다.

이 모임의 기록이 벌써 15번째 서평집이 되었다. 올해도 서평위원들이 함께 모여 만남을 주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만남의 기록을 남겼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연대한 그 소중한 시간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록된 서평과 추천도서들이 많은 곳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조용한 환대의 마음으로 내미는 손길을 만나보시라 권해본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3) 도서관 여행자 지음, 《도서관은 살아있다》. 마티. 2022. p.85.

차례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어린이 그림책 …… 10
어린이 문학 …… 100
어린이 비문학 …… 128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청소년을 위한 책 …… 138
일반 성인을 위한 책 …… 216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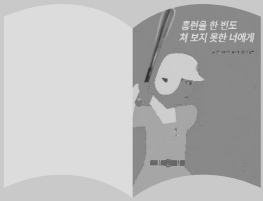
색인 858

도서명별…… 858
저자별…… 862
서평자별…… 866

어린이 그림책

어린이 문학

어린이 비문학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14마리의 이사하기	이와무라 카즈오	진선아이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9킬로미터	클라우디오 아길레라	뜨인돌어린이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건전지 엄마	강인숙, 전승배	창비	정지은	시흥시 능곡도서관
겨울이불	안녕달	창비	이선희	이천시 시립도서관
구름이	딜런 글린	나무말미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깜장이	다나카 기요	북뱅크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꿈같은 하늘 아래에	에런 베커	웅진주니어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나만 없어 토끼!	토베 피에루	블루밍제이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내가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히도 반 헤네흐텐	미운오리새끼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내가 예쁘다고?	황인찬	봄볕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네가 사라진 날	산드라 디크만	요요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노는게 좋은	전정숙	올리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다이빙	호아킨 캄프	노는 날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달그락 탕	이영림	웅진주니어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마음버스	김유	천개의 바람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반짝이는 섬	장준영	계수나무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별국	공광규	바우솔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붉은 신	오승민	만만한 책방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붉은 신	오승민	만만한 책방	장미란	하남시 미사도서관
비법: 하늘을 나는 법	전민걸	한림출판사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빌려준다고 했는데	가사이 마리	책읽는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빗방울 이야기	입 스팡 올센	진선아이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사라지는 것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비룡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라진 저녁	권정민	창비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사랑은 달아	박세연	난다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자마트	김유	천개의바람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색색의 꿈을 꾸고 싶다면	미셸 피크말	웅진주니어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선을 넘지마!	피야 린덴바움	베틀북	손정은	고양시도서관정책팀
시작의 이름	셀리 무어 토머스	소원나무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아빠와 차곡차곡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	책연어린이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에이해브와 흰고래	마누엘 마르솔	밝은 미래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여름의 루돌프	김성라	사계절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왜요?	린제이 캠프	배틀북	장미란	하남시 미사도서관
이 집은 나를 위한 집	마리 앤 호버맨	우리학교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자란다	심예진	노란상상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작은 조각 페체티노	레오 리오니	보림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	의자	한솔수북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태양왕수바	이지은	웅진주니어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하루거리	김휘훈	그림책공작소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콧	책읽는곰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홈런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너에게	하세가와 슈에이	천개의 바람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14마리 생쥐 가족이 숲속으로 이사합니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14마리의 이사하기

이와무라 카즈오 글·그림, 박지석 옮김 – 진선아이, 2022.

추천 대상: 유아
#동물을 좋아하고 이사에 호기심 있는 유아

이와무라 카즈오의 《14마리의 이사하기》는 1983년에 처음 출간된 14마리 시리즈 중 한 권이다. 14마리 생쥐가 숲속으로 이사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첫 장으로 책이 시작된다.

14마리는 다들 각자의 가방을 등에 매고 가는데 어른은 거기에 무언가 다른 짐이 더 있고 어린 것들은 좀 더 짐이 가벼워 보이며 아기 생쥐는 짐이 없다. 표정이나 자세도 제 각각이다. 지팡이를 짚는 생쥐, 안경 낀 생쥐, 장난치는 애기 생쥐, 박대기를 어깨에 대고 가는 생쥐 아가를 손에 잡고 가는 어른 생쥐 등……. 14마리가 언덕을 오를 때는 먼저 올라간 생쥐가 따라오는 생쥐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고 업혀 가는 아기생쥐도 보인다. 생쥐를 잡아먹는 족제비가 지나갈 때는 잡아먹힐까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기도 한다.

책은 32페이지인데 각 페이지의 그림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14마리 생쥐들이 개성 있고 귀엽고 천진난만하기 때문이다. 생쥐들은 숲속 깊은 곳의 살 곳을 찾아헤메다 밤을 맞게 된다. 결국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데 손을

꼭 잡고 자는 생쥐, 이불을 차고 자는 생쥐, 아직 잠을 못 이루고 눈을 뜬 생쥐, 모닥불 앞에서 당번을 서는 생쥐 등 자는 모습들도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다음날, 드디어 발견한 멋진 나무 밑동. 생쥐들은 힘을 모아 새집을 짓는다. 대나무를 옮기고, 부엌을 만든다. 할머니는 잠깐 쉬었다 하라며 차을 끓여 오고 셋째는 간식을 들고 온다. 집도 다리도 수도도 전부 완성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14마리 생쥐가족.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잠든 밤. 엄마 아빠는 촛불을 켜 놓고 차를 마시며 고요한 밤을 즐긴다.

각 페이지에는 그림에 대한 묘사와 질문도 가끔 있다. 질문의 답을 찾느라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된다.

"엉덩방아를 찧을 번한 건 누구죠? 맨뒤에서 힘차게 끈을 잡아당기는 건 누구죠? 구멍으로 얼굴을 내민 건 누구죠? 컵이 가족 수만큼 있나요? 저기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는 건 누구죠?"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독자는 그림을 열심히 관찰하며 줄거리를 따라가고, 앞쪽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독자가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14마리 시리즈는 그림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글은 한페이지 당 한 줄 정도만 구성된다. 그래서 독자들은 그림으로 줄거리를 익힐 수 있고 글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따라서 그림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해 낸다면 그만큼 보람된 작업이다. 가족이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면서 결속도 되고 동지애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아직 겪지 않은 유아는 이 책을 통해 이사라는 작업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인생에서 꼭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 그림이 수채화 풍이면서 세밀화로 생쥐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이고 낙엽, 시냇물, 돌다리 등 자연의 풍경을 따뜻하게 묘사하였다. 글과 그림이 구수한 숭늉처럼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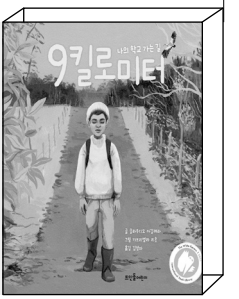
먼 길을 걸어 학교에 가는 세계의 아이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9킬로미터: 나의 학교 가는 길

클라우디오 아길레라 글, 가브리엘라 리온 그림, 김정하 옮김 – 뜨인돌어린이, 2022.

추천 대상: 초등 저학년부터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권리와 가치



모든 어린이들은 배움을 위해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지만 도로와 차량이 많지 않고 학교가 먼 곳에 있다면 어린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클라우디오 아길레라의《9킬로미터》표지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가방을 메고 졸린 듯 눈을 감고 길 위를 걷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나의 학교 가는 길'로 주인공이 새벽부터 집을 나와 학교까지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9킬로미터'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은 주인공이 자신의 걸음을 세보기도 하고 나비나 곤충을 관찰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가는 등 학교로 향하는 긴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이에게 9킬로미터는 굉장히 긴 거리라는 사실을 작가는 아이의 걸음걸이 수, 사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 등의 비유로 설명한다. 물리적으로 긴 거리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주인공의 등굣길에 감정을 녹여낸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인공의 '등교 걷기'는 어느 날은 쉽게, 어느 날은 어렵게 느껴진다. 날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모든 등굣길은 '하지만 언제나 제시간에 도착해요.'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에 꼭 가는 주인공을 독자와 작가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림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림만으로도 주인공의 학굣길, 즉 장난치고 강을 건너고 비를 맞고 친구들을 만나며 학교에 도착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앞면지에는 집에서 출발한 길이 있고 뒷면지에는 앞면지와 연결된, 학교까지의 길이 그려져 있다. 또 타이틀 화면 다음 페이지는 어둠 속에 불이 켜진 집 위로 부엉이가 날고 있는 그림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페이지는 학교 위로 따오기가 날고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렇듯 삽화가의 섬세한 배려는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더욱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독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이 책의 숨은 묘미는 책의 마지막 부분인 "9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새들"이다. 작가는 여기에서 주인공이 학교에 가면서 만났던 새들의 이름, 주요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멀고 먼 거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는 세계의 아이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케냐 등의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읽다 보면 평범한 우리의 등굣길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 칠레 출신으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다. "학교에 가려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이나 걸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수는 수천 명이 넘지요. 이 책을 쓴 작가들도 어린 시절 먼 거리를 걸어 다녔고요. 그 발자국들을 통해 우리 세계의 심각한 불평등을 기억했으면 해요. 누구나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건설하면 좋겠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제의 도서로 《우리는 학교에 가요》, 《학교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먼 학교 가는 길》 등이 있어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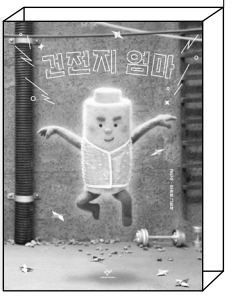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특별한 엄마

정지은 (시흥시 능곡도서관)

건전지 엄마

강인숙·전승배 글·그림 – 창비, 2023.

추천 대상: 유아, 일반
#전작《건전지 아빠》를 재밌게 읽은 아이에게
#가족들과 함께 읽으며 '가족애'를 느끼고 싶은 이에게



부부 작가 강인숙, 전승배는 전작《건전지 아빠》로 2022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 크로스미디어 부문 최종 후보작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동명의 원작 애니메이션은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가족영화 부문 '골든 게이트상', 9개국(프랑스·대만·벨기에·네덜란드·캐나다·미국·스페인·스웨덴·일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으며 작품성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건전지 엄마》는 양모 펠트로 인형을 만들고 그림책을 위한 세트를 별도로 제작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책으로 변신에 성공했으며, 속표지에는 원작 애니메이션 QR코드도 적혀 있어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모두 보며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건전지 엄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가방을 타고 등원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AA 건전지 엄마'의 하루를 보여준다. 건전지 엄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을 만들어 주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주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준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건전지 엄마는 쉬지 않고, 아이들 몸에 열이 나지는 않는지 건강을 확인한다. 건전지 엄마의 이러한 모습들은 엄마와 어린이집 선생님의 공통된 일상을 보여준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낮잠 시간, 건전지 엄마의 강인함과 특별함을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건전지 엄마의 놀라운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트리 전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건전지 엄마는 힘세고 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천장에 달린 화재경보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뛰고 올라가고, 위험을 감수하며 날아가는 모습들은 건전지 엄마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건전지 엄마 덕분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잠자고 있던 아이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안전한 하루를 마치고 선생님의 가방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전지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전지 아이들의 사랑으로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한다.

건전지 엄마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특성을 단적으로 모아놓은 존재다. 이 책의 면지에는 엄마를 떠올렸을 때 드는 아이의 생각이 적혀 있다. '우리 엄마는 못 하는 게 없어. 우리가 심심할 때나 아플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와.' 이렇게 아이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보살펴 주는 것이 엄마라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안다. 한 장 더 넘겨 보면 속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건전지야.' 이런 표현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어진다. '용감한 건전지'라는 비유가 엄마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용감한 엄마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한《건전지 엄마》에 이어 엄마 못지않게 사랑을 주는 아빠는 어떤 '건전지 아빠'일지 궁금하다면, 당장《건전지 아빠》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안녕달의 신작

이선희 (이천시립도서관)

겨울 이불

안녕달 글·그림 – 창비, 2023

추천 대상: 어린이, 성인
#겨울 이불 속에서 펼쳐지는 기발한 상상력의 세상을 알고 싶은 어린이에게
#유년 시절 겨울의 추억을 느끼고 싶은 어른에게

두꺼운 꽃무늬 솜이불 아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동그란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의 한쪽에는 귤이, 다른 한쪽에는 귤껍질이 가득 쌓여있다. 귤껍질은 신기하게도 곰, 거북이 등의 동물 모양이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표지만으로도 따스함이 물씬 느껴진다. 안녕달 작가의 신작 《겨울 이불》은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서 손이 노래지도록 귤을 까먹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든다. 면지에는 파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표지에서 아이가 덮고 있었던 이불 안감과 동일한 무늬다. 책장을 넘기는 것 자체만으로 이불 속 또 다른 세상으로의 진입인 듯하다.

작가는 전작 《수박 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와 같은 작품들에서 '사물 안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판타지 세계'를 담곤 했는데, 이번 《겨울 이불》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이어지고 있어 그림책을 읽는 내내 기발한 상상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곳곳에 유년 시절을 추억할 수 있을 만한 일러스트와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자투리 글귀도 눈에 띄어 숨은그림찾기 하듯 감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소복소복 하얀 눈이 쌓인 시골집,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집으로 돌아온 아이, 아이는 두꺼운 옷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는 가벼운 내복 차림으로 뜨끈한 방바닥에 펼쳐진 솜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불 속에서는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곳에서는 후끈한 열기와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찜질방 풍경이 펼쳐지고, 하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매서운 추위를 단숨에 녹여버릴 애정 어린 시선과 온기가 담겨있는 곳이다. 손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조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따스한 추억을 연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넘쳐흐른다.

특히나 이 그림책에서는 안녕달 작가 특유의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곶감과 시래기, 겨울 이불 속에서 꺼내는 밥 한 공기 등 부모 세대의 유년 시절에 나올 법한 소재가 섬세하게 다뤄져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때 그 시절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은 유년을 추억할 수 있다. 안녕달의 신작은 아이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으뜸이다.

"뜨끈한 온돌 방바닥에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차가운 식혜를 마시는 기분으로 이 책을 봐 주세요." 안녕달 작가의 소개말처럼 《겨울 이불》은 따스함이 넘치다 못해 뜨끈하고, 겨울철 추위에 노곤해진 몸을 쉬게 해줄 법한 그림책이다. 이와 더불어 겨울에 읽으면 더욱 좋은 그림책으로는 작가의 《눈아이》, 《눈,물》을 함께 추천한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아름다움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구름이

딜런 글린 글, 김세실 옮김 – 나무말미, 2022.

추천대상: 유아, 어린이
#비오는 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친구를 사귀며 사회성을 기르기 시작한 아이에게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고민하는 아이에게

구름이는 어딜 가든 비 때문에 모든 걸 젖게 만들어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이다. 그와 달리 밝고 따듯한 빛을 비춰 주는 태양이는 반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다.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수용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림책, 《구름이》를 소개한다.

딜런 글린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터이자 화가 그리고 작가이다. 생기 넘치고 순수한 그림을 그리며,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와 아메리칸 일러스트레이션 등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구름이》는 작가가 낸 첫 번째 그림책이다. 그림책 테라피스트 김세실 작가가 추천하고 번역하였다.

원작의 제목은 《Rain Boy》이며 표지에선 빨주노초파남보의 반원 모양으로 제목을 배치하여 마치 무지개(Rainbow)를 연상케 한다. 그림을 살펴보면 빛과 어두움의 대비가 돋보인다. 비를 내리는 구름이 때문에 수채화를 이용하여 촉촉하게 표현하였고 다양하고 강렬한 색감을 사용했다. 또한 마치 어린이가 그린 듯 자유롭고 천진한 그림체로 인물과 배경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아무도 구름이와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처음으로 가게 된 생일 파티에선 모두들 구름이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른다. 이러한 상황은 나와 다르다며 친구를 따돌리는 일이 흔해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친구들 때문에 속상한 구름이 때문에 비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비를 미워하는 대신 점차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다. 꽃과 풀을 더욱 싱그럽게 만들고 가족들을 집에 머물게 하여 돈독함을 불어넣는 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그러자 구름이는 다시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내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일깨우고 있다.

햇볕은 따듯하고 밝지만 계속되면 뜨거워진다. 비만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과 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구름이와 태양이가 함께하자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뜬다.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는 이 장면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할 때 더욱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 또한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을 발견해 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또한 고심해 보길 바란다.

나에게만 보이는 아이와 보낸 신나는 하루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깜장이

다나카 기요 글·그림, 김숙 옮김 – 북뱅크, 2022.

추천 대상: 유아부터
#나만의 비밀 친구를 갖고 싶은 이들에게
#벽장에서 보낸 신나는 모험

나에게만 보이는 비밀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린이의 비밀 친구를 다룬 다른 책인 존 버닝햄의 《알도》는 스테디셀러여서 많이 알려진 책이다. 이 책은 《알도》와 아주 색다른 분위기의 비밀 친구를 다룬 일본 작가의 책이다, 표지 그림에서 주인공에게만 보이는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검은 색 아이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깜장이'이다.

주인공은 깜장이에게 말을 걸고 그를 따라 들어간 집에서 차도 마시고 벽장에 올라가 함께 신나게 논다. 다시 밖으로 나와 아빠를 만나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주인공에게 자꾸 보이는 아이와 인사를 하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깜장이가 준 노란 꽃을 들고 나온 주인공이 퇴근하는 아빠를 만나는 장면에서 환상 속 모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가 경계 없이 연결된다.

왼쪽 면은 글, 오른쪽 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벽장 속에서 깜장이와 신나게 노는 이야기는 그림이 양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글은 간결하며 단순하다. 주인공

여자 아이가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글로 이끌어간다. “드르르 덜거덕! 드륵드륵 탁!”이라는 단순한 글에 오른쪽 면의 그림은 마루 창문을 여는 장면으로 그려, 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글과 그림이 조화를 잘 이루는 책이다.

작가는 단색 동판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 책을 번역한 김숙 선생도 책 제목을 짓는 데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작가와 번역가 모두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을 통하여 동판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여자 아이와 깜장이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흑백의 판화로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빈틈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색 바탕에 주인공과 깜장이를 그렸다가 벽장에 들어간 후는 검정색을 바탕색으로 표현하였다. 표지만 녹색을 사용했으며, 표지의 네모 틀처럼 그림은 사각 틀 안에 그려져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일본 그림책 중 그림을 통하여 일본식 집 구조도 함께 알 수 있는 책 중 하나이다.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의 골목, 정원, 집 안의 내부 구조, 가구, 벽장, 골목의 담장, 잡초 등 작가가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권윤덕 작가의《만희네 집》에서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자세히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제68회 소학관아동출판문화상, 제25회 일본 그림책상 대상, 제4회 나미콩쿠르 퍼플아일랜드상을 받은 책이다.

아이들아
가끔 하늘을 보며 살자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꿈같은 하늘 아래에

에런 베커 글·그림, 루시드 폴 옮김 – 웅진주니어, 2023.

추천대상: 유아 ~ 아동
#유아 아동 그리고 하늘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어른

하늘은 고개를 쳐들면 항상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하루에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쳐다봐 봤자 하늘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가끔 새나 비행기가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늘 쳐다보는 일이 별로 없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일기예보는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있고 별을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할 일도 없고 더군다나 먼 바다를 항해할 일도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늘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를 덮는 대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최종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아는 건 일기예보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정확할 수 있다.

《꿈같은 하늘 아래에》는 읽고 나면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고,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색깔을 살펴보게 된다. 자연은 책의 제목 그대로 꿈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하지만 일상에 지친 우리들은 하늘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나친다. 그렇지만 다행히 하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우리가 쳐다보길 기다려 준다. 우리가 고개만 들면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책에는 새벽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하늘, 빛을 받아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하늘, 이른 아침의 말끔한 하늘, 정오를 향해 달려가는 파란 하늘, 오후가 되어 서서히 변화하는 하늘, 노을빛을 받아 붉그스름한 하늘, 그리고, 어스름한 저녁의 하늘, 마지막으로 별을 품은 꿈같은 하늘을 다양한 색상과 문장으로 표현한다. 마치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알고 보니 이 책의 번역은 작곡가이자 가수인 루시드폴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인 에런 베커는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고 《꿈같은 하늘 아래에》를 포함하여 빛을 활용한 아트북 시리즈 3권을 출간했고 모두 루시드폴이 번역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림도 아름답지만 문장들도 따뜻한 감성이 넘친다.

책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곳곳에 셀로판지가 붙어 있어 전구나 형광등에 비춰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와 함께 손전등을 비춰보거나 하늘을 비춰보면서 실험해 보면 재미있을 듯하다. 이 책의 원제는 'one sky'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하늘 아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원제도 나름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데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일까? 조금 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 바꿔 붙인 제목도 마음에 든다. 다른 독자들도 두 가지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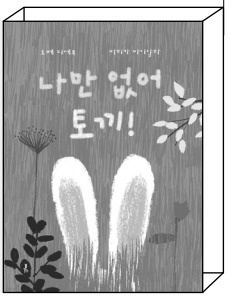
카야의 귀여운 거짓말!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나만 없어 토끼!

토베 피에루 글, 마리카 마이얄라 그림, 기영인 옮김 – 블루밍, 2023.

추천대상: 초등 3학년 이상
#혼자라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은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이 책에서는 카야와, 코테, 카르멘이라는 세 친구가 등장한다. 셋은 한 동네 친구들이지만 카야는 자주 혼자가 된다. 왜냐면 코테는 카르멘이 아프거나 못 놀 때만 카야와 놀아 주기 때문이다. 카야는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카야는 벽지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좋아야 한다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토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마음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카야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가슴 먹먹하게 느껴진다. 둘이 아닌 셋이 노는 친구 관계에서는 한 명이 소외되고 겉도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세 명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나만 없어, 토끼!》를 읽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카야의 귀여운 거짓말이 친구들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가짜 산토끼 발자국을 만드는 카야를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의

모습이 느껴졌다. 혹시 친구들이 카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따돌림하면 너무 슬플 거 같았는데……. 역시 아이들은 아이다웠고 거짓말인지 아니지 추궁하지 않았다. 토끼가 있건 없건 함께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세 친구들은 토끼를 기다리며 친해지기 시작한다. 오지 않는 토끼를 기다리며 함께 토끼 먹이를 가져다 놓으면서 서로서로 돕기까지 한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갈등도 있었지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극복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의 동화일까 궁금했었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 어린 카야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다. 또한 그림에서 느껴지는 북유럽 감성의 붓 터치감과 아이들의 머리색, 모양, 얼굴의 주근깨 등이 신선했으며 개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다루면서 순진무구한 감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친구 관계에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친구를 사귀면 좋을지 고심하는 초등 3학년 이상이 읽으면 좋을 듯하다. 친구사이에는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레 깨닫기를 바란다.

저자의 또 다른 책인 《꼬마 벌레들의 축구시합》과 일러스트레이터인 '마리카 마이얄라'가 그린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늑대와 정원사》, 《백만 억만 산타클로스》, 《내일은 크리에이터》라는 책도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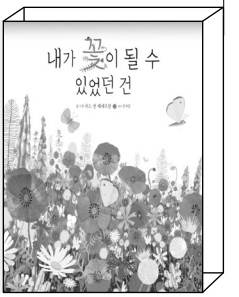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의 여정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내가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히도 반 헤네흐텐 글, 김여진 옮김 – 미운 오리새끼, 2023.

추천대상: 유아~아동
#씨앗이 발아되어 꽃이 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해할 때



지구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의 단세포가 동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씨앗이 발아하여 꽃이 되는 과정도 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씨앗을 옮겨 주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내가 꽃이 될 수 있었던 건》의 첫 페이지는 꽃이 시든 자리에 씨앗을 머금은 줄기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씨앗은 바람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동물이 먹고 배설할 수도 있다. 또는 콩처럼 톡톡 터져서 스스로 날아가기도 한다. 도꼬마리처럼 어딘가에 붙기도 한다. 수생식물의 경우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적당한 곳에서 발아하기도 한다. 이렇게 옮겨진 씨앗은 적당한 곳에 안착해야 제대로 발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햇빛이 중요하다. 광에너지는 식물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햇빛은 토양을 통과하여 씨앗의 발아를 촉진한다. 그 외 적당한 수분, 산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적당한'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다. 씨앗의 종마다 '적당한'의 의미는 제각각이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종들이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 부합하여 발아된 새싹은 또 얼마나 가냘픈가?

비록 새싹은 가냘플지 몰라도 뿌리는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신생아가 엄마에게 안기듯 대지를 부여잡고 있다. 가냘픈 줄기는 잎을 하나둘 틔운다. 어느 깜깜한 밤에 공처럼 웅크린 새싹을 신비롭게 묘사한다. 며칠 후 잠에서 깨어난 새싹은 환한 빛을 마주하게 된다. 따뜻한 햇빛은 마치 뽀뽀하듯이 새싹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

새싹은 무럭무럭 자라 꽃받침에 담긴 예쁜 꽃봉오리가 되고 곧이어 꽃받침이 떨어지면 조금씩 기지개를 켜다가 마침내 꽃이 활짝 피어난다. 꽃은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동생과 언니 오빠들도 만난다. 그뿐인가? 나를 둘러싼 친구들은 수없이 많다. 데이지, 꼬리풀, 민들레, 물망초, 패랭이꽃, 캐모마일, 제비꽃 등…….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물어본다. 나는 왜 여기 있어요?

엄마의 대답은 이렇다. 꽃은 세상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물한다. 모두가 꽃을 사랑하지. 그리고 우리는 꿀벌과 나비를 돌보고 그들도 우리를 도와줘. 꽃가루를 옮겨줘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게 해 준다.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뒤를 이어, 또 다른 씨앗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끝내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첫 페이지와 같다. 수미쌍관이랄까? 이는 자연의 이치와도 닮았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식물 생태계의 작동 원리이며 생존과 번식을 번복하는 생명체의 기본 원리를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예쁜 고민으로 찾은 '예쁘다'는 말의 본질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내가 예쁘다고?

황인찬 글, 이명애 그림 – 봄볕, 2022.

추천 대상: 어린이, 일반
#사춘기 아이들에게
#순수함을 되찾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따듯한 이야기와 그림책으로 작은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의 글쓴이 황인찬, 그는 시인이다. 그것도 스물둘에 등단하고 최연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다. 그림책을 보기 전 그가 시인임을 안다면 '시인이 그림책을?'이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단 호기심을 뒤로하고 그림책을 즐기는 보통의 방법에 따라 이 책의 글을 읽고, 그림을 보고, 눈을 감으면, 글이 시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펼쳐지고 시상이 그림과 함께 나타난다. 그렇다. 이것은 그림책이며 또한 '시'다.

대형서점 y사에서 운영하는 월간 채널 2022년 5월호, 황인찬 시인의 시집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학이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계속 품게 되면서 아동문학의 존재 방식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글을 그림책으로 쓰게 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친구와의 평범한 대화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올라 이 그림책이 시작되었고 그의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와 독자와의 대화를 시작한 것이리라. 문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내린 결론은 '문학은 잘 대화하는 일'이었기에 독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잘 대화하고자 이 그림책을 쓴 것이다.

'예쁘다'는 말은 "그러네."하고 짐짓 넘어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언어이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소년 '나'는 짝꿍 김경희가 "되게 예쁘다."며 주인공을 바라보고 무심코 한 말에 사로잡힌다. 소년은 생각한다. '예쁘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소년은 그 말이 주는 기분을 느낀다.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말한 것일지 스스로 묻는다. '나'의 외모를 살펴본다. 할머니의 사랑표현에 빗대어 본다. 계속 생각해보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노을을 보며 그 말의 본질에 조금은 다가간다. 그렇게 김경희에게 조금은 다가가 보려 한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창밖의 벚꽃을 보고 한 말임을 알았을 때 소년은 부끄러웠다. 교실을 뛰쳐나온 소년은 그 꽃나무를 보며 알았다. "예쁘다."는 말의 본질을. 그렇게 소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글자 단어로서가 아닌 '예쁘다'가 가진 말의 본질에 다가가게 된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말이 가진 본질을 잊은 채 그저 그런 감정과 그저 그런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예쁘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순수한 아이로서 겪은 세상의 모든 예쁜 모습들과 비교해보고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큰 울림을 준다. 글쓴이는 언어를 통한 내면과의 대화, 타인과의 언어적 소통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예쁘다"는 흔한 일상의 말을 가져와 문학으로 대화를 청하며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자 이 책을 쓴 것이리라.

이 책은 2022 서울국제도서전 SIBF 처음 만나는 책 〈여름, 첫 책〉 선정도서이며, 한국화를 전공한 일러스트레이터 이명애 작가가 그림을 채웠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따듯한 한국적 색채가 어우러져 어린이에게도, 순수함을 되찾고 싶은 어른에게도 하나의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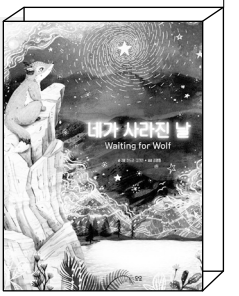
너는 나의 붙박이별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네가 사라진 날

산드라 디크만 글·그림, 김명철 옮김 – 요요, 2023.

추천 대상: 모든 연령
#친구, 가족, 반려동물 등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짐에 슬퍼하는 이에게
#헤어짐에 상심하는 이를 위로할 때



제인 오스틴(1775~1817)은 "우정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로를 향한 소통과 이해가 우정의 시작이라면 우정의 끝맺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네가 사라진 날》은 여우와 늑대의 우정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산의 정상에서 커다란 별을 바라보는 갈색 여우의 모습이 그려진 표지부터 심상치 않다. 차가운 듯하면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색감과 몽환적인 색채는 늑대와 여우의 행복과 슬픔을 교차하듯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를 읽기도 전에 늑대와 여우의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놀라운 그림은 자연의 모든 이상하고 멋진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 연필, 물감, 찰흙, 디지털 등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는 저자 산드라 디크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그림책은 다양한 색의 교차뿐만 아니라 해와 별 즉, 낮과 밤이라는 장면의 전환을 통해 늑대와 여우의 우정을 표현한다. 따뜻하면서도 환한 햇살 아래에서 놀이, 수영, 대화,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을 함께 보내고, 늑대가 없이 여우 홀로

은은한 별빛만이 감도는 밤을 맞이한다. 햇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정의 시작이라면 어두운 밤 별이 빛나는 담요를 품에 안으며 흘리는 여우의 눈물은 우정의 끝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늑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여우가 그리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우정의 종말을 표현하는 것일까? 그럴 리 있나,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매 순간이 우정의 진정한 끝맺음이다. 여우는 늑대가 남긴 말을 기억하며 다짐한다.

"그래, 삶은 정말 아름다워." 여우가 속삭였습니다. 더없이 완벽했던 늑대와의 마지막 날,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26)*

색과 장면의 대비를 통해 은유와 현실이 아름답게 표현됨으로써 여우가 늑대를 떠올리며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감정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하늘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 중에서 이름이 없는 별을 '잔별'이라고 한다. 북극성과 같이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을 '붙박이별'이라고 한다. 슬픔과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안의 그리움은 잔별이 아닌 붙박이별이 되는 것이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룬 책에 관심이 생겼다면 삶을 내려놓고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강아지의 특별한 여정을 다룬 《혼자 가야 해》(조원희, 느림보)와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씩씩해요》(전미화, 사계절)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상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노는게 좋은

전정숙 글, 김지영 그림 – 올리, 2022.

추천대상: 유아부터
#훈민정음의 모음 글자가 궁금한 어린이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 누구나 쉽게 글을 익힐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을 정도로 한글은 세계에서 우수한 문자라는 걸 인정받았다. 이 책은 한글의 옛 이름이면서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해 놓은 《훈민정음》의 글자 생성 원리를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전정숙 글작가는 오랜 시간 편집자로 일하면서 한글의 매력에 빠져 한글 자모 하나하나가 모두 캐릭터로 보이기 시작하여 이 이야기를 지었다고 소개한다.

이 책은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쉽게 풀어 쓴 그림책이다. 타이틀 화면 전에 " 훈민정음의 모음 기본 글자는 하늘과 땅, 사람을 각각 본떠서 만들었어요."라며 이 책 속에서 하늘은 둥근 모양, 땅은 가로인 직사각형, 사람은 세로인 직사각형을 사용했음을 먼저 알려준다. 책의 말미에는 "훈민정음의 모음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라는 소개가 있다. 훈민정음의 모음 글자는 모두 11개였으며,

어둡고 차가운 소리와 밝고 따뜻한 소리 등 상세하게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책 제목처럼 하늘이, 땅이, 사람이 잘 놀게 되었는지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와 세모와 네모와 동그라미와 마름모를 사용한 그림이 조화를 이뤄가며 전개된다. 땅이와 사람이는 한 동네 친구지만 서로 너무 달라 별로 친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늘이가 이사 오자 땅이와 사람이는 하늘이를 좋아하고 서로 놀고 싶어 한다. 하늘이는 땅이와 사람이가 서로 비슷한데 서로 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하늘이는 옆동네 자음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땅이와 사람이를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모이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라며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들며 노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림에는 13개의 자음이 등장하며, 파랑, 노랑, 분홍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김지영 그림 작가는《내 마음 ㅅㅅㅎ》으로 2020년 사계절 그림책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자음 "ㅅㅅㅎ"으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작가로 이 책에서는 모음을 가지고 한글의 원리를 재미있게 그림으로 풀어내었다. 이 외에 한글을 소개한 책으로《자연에서 소리로 배우는 훈민정음 ㄱㄴㄷ》,《아빠하고 나하고 한글 모음 배우기》,《코끼리가 수놓은 아름다운 한글》,《한글, 우리말을 담는 그릇》 등이 있다.《노는 게 좋은》 책과 비교하며 읽어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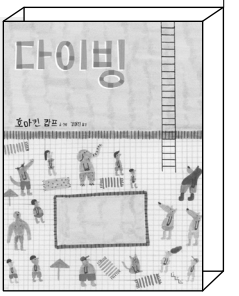
두려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다이빙

호아킨 캄프 글·그림 – 노는날, 2023.

추천 대상: 초등 저학년 이상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에게



《다이빙》이라는 도서는 '호아킨 캄프'가 지은 책으로, 저자는 2019년, 2023년 이탈리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2020년 이베로-아메리카 일러스트전의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가이기도 하다. 또한 2020년과 2022년도에 여러 국제 그림책상과 국제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그림책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세대나 성별, 계층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적 특성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을 '다이빙'이라는 주제를 통해 심각하지 않고 유쾌하게 그렸다. 무엇인가에 도전하기 전, 그 떨리는 마음을 다이빙대 끄트머리에 서 봄으로써 무섭고 아찔한 상황을 순수하게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이빙대에서 기다리는 다른 이들은 이런 주인공의 상황은 모르는 채로, 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이빙이 별 것이 아니고 주인공은 단지 겁쟁이로 비추어질 뿐이다. 주인공인 '영웅'에게는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다이빙대에서 편안한 집을 짓고 살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다 근사하게 공중제비 점프를 멋지게 성공하는 귀여운 상상도 한다.

다이빙대 위에 서 있을 때의 두려움을 수영장 속에 상어가 있다고 표현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멈춰 있는 시간의 흐름은 그의 발아래에 자라난 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 내면의 두려움은 그의 마음속에 사는 늑대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무척 기발하다. 누구나 도전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많은 어려움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일이야 말로 칭찬받을 일이다.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두려움과 망설임을 느낀다면, 이 《다이빙》이라는 도서를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초등 저학년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와 상황에 맞는 그림을 잘 구성하였다.

저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도전하는 자체를 응원하며 우스꽝스럽게 실패해도 중요한 점은 시간이 걸리는, '자신이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독자가 느끼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또한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인상적이다. 이 책은 특히 여름과 잘 어울리는 책으로, 책 속 면지는 타일이 보이는 푸른 물속을 그려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잘 표현하였다. 또, 곳곳에 유머러스한 요소들의 인물과 사물들이 눈에 띈다. 가족과 물놀이 갈 때 이 책을 가져가 읽는다면 더 재미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버스를 더 재미있게 타는 방법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달그락 탕

이영림 글·그림 – 웅진주니어, 2023.

추천 대상: 유아, 아동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읽을 그림책이 필요할 때

"아저씨, 곶자왈 가요?"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카메라를 든 소년이 버스에 오릅니다. 달달달 떨리는 버스 안은 무료하고 평화롭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만났습니다. 달그락, 앞바퀴가 넘어가더니 탕! 하고 뒷바퀴가 내려오며 승객들이 공중에 뛰어오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쏟아집니다. 얌전히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신나는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서커스 단원이 되고, 나란히 곱슬곱슬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들은 신나게 춤을 춥니다. 주인의 털실을 낚아채 신나게 공놀이를 즐기는 고양이 옆에는 쏟아진 누나의 사탕을 모두 받아 먹어버린 동생이 있습니다. 기사님은 "꽉 잡읍써"라며 또 한 번 턱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년은 곶자왈에서 잘 내릴 수 있을까요?

이영림 작가는 대구에서 태어나 국민대학교와 런던 킹스턴 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하였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그림과 이야기를 짓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차를 타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엄마가 "쿵!

덕쿵!"을 외치면 신이 나 엉덩이를 높이 껑충 뛰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흐릿해져 갈 무렵, 자녀가 차에서 재미있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모두의 어린 시절 한 켠에 자리해 있을 추억을 나누고 싶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순간을 환상적이고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다채롭고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여 흥겹고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탕!' 하고 뛰어오를 때마다 두 장의 페이지를 꽉 채우며 소란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글의 대부분은 '달달달달' 버스가 달리다가 '달그락 탕'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성어를 사용해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역동적인 움직임과 어우러지고 그림의 맛을 더합니다.

제주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두어 귤을 싣고 가는 트랙터를 만나고, "벨 눌릅써", "어디서 내려수꽈?" 같은 낯선 제주 방언으로 더욱 재미를 줍니다.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공중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할머니와, 처음이라 그만 내리고 싶어 하는 여행객의 대비가 돋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승객들이 가진 가지각색의 표정들이 눈에 띕니다. 세.밀한 표현력이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재미난 놀이 기구를 한 번 더 타고 싶은 것처럼 다시 첫 장을 펼치게 되는 책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즐길 수 있는 그림책으로 일독을 추천하며, 물에 관련된 다양한 의성어로 비 내리는 날의 이야기를 담은 재희 작가의 《쏴아아》 또한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삭막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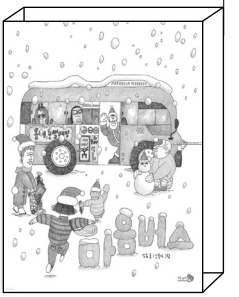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마음버스

김유 글, 소복이 그림 – 천개의 바람, 2022.

추천대상: 어린이, 일반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주변 이웃을 보고 인사할지 말지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이 넘치던 사회’였던 대한민국은, 옷깃만 스쳐도 분노하는 사회, 아파트 입구를 공유하는 매일 마주치는 가까운 이웃조차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번지는 사회, 같은 생활 반경을 살아가기에 길에서 가끔 마주쳤을 뿐 아무 원한도 없는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폭력이 존재하는 사회, 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조차 대상으로 일삼는 끔찍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또 마음의 문도 꼭꼭 걸어 잠갔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주변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이면서도 보지 않고 들리면서도 듣지 않는 무신경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책 《마음버스》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이웃이란 누구일까?”

국어사전을 보면 ‘이웃’을 아래의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1.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2.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로는 더 이상 진정한 이웃에 대해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대형서점 y사에서 운영하는 월간 채널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쓴 김유 작가의 첫 그림책 《마음 버스》〉 인터뷰를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진짜 이웃이란 '마음이 오고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야기하는 '마음이 오고 간 사람'은 무엇일지 궁금한 사람은 당장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달려가 그림책을 펼쳐보도록 하자.

그림책 《마음 버스》는 2023년 3월에 출간된 《사자마트》의 이야기 구조와 언어유희를 즐기는 김유 작가 특유의 클리셰를 공유하고 있다. 《마음 버스》와 《사자마트》의 책표지와 속표지, 그리고 버스 옆면에 그려진 정류장 노선 표시에서 사자마트를 볼 수 있듯이 두 그림책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 이를 모두 본 독자라면 반가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두 그림책이 동일하게 가진 사건의 발단이 되는 동물 친구들의 판타지적 이야기 요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익숙한 미소를 짓게 만든다.

독자들에게 개인주의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 버스와 마트에서 만나는 마을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자! 이제 추천의 글은 접어두고 그림책을 직접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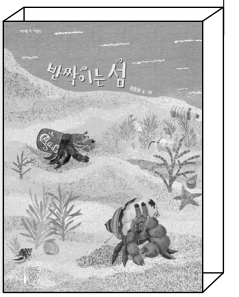
그 섬이 가까이에서도 아름답고 반짝일 수 있도록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반짝이는 섬

장준영 글·그림 – 계수나무, 2022.

추천대상: 영유아 이상 누구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반짝이는 섬》을 쓰고 그린 장준영 작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장준영 작가가 쓰고 그린 책으로는 《공룡알과 자동차》, 《나무 모자》, 《내 생일이에요》, 《소풍을 가요》, 《무슨 소리지?》, 《길이 있어》가 있으며, 그린 책으로는 《사랑을 나눠 준 사탕 할배》, 《우리 할아버지는 열다섯 살 소년병입니다》, 《해 뜰 때 한 일을 해 질 때까지》, 《고수머리 리케》, 《덤벼!》, 《메롱 박사》 등이 있다.

이 책의 표지는 《반짝이는 섬》이라는 책의 제목과 대조적으로 코카콜라 캔 속에 들어 있는 소라게와 생수병, 먹다 버린 음료수병 등이 뒹구는 바닷가의 모습이다. 책을 펼치면 구멍 난 조개껍데기 안의 소라게의 모습이 보인다. 햇살이 바스락거리고,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는 아름다운 섬. 그 섬의 바닷가 모래밭에서 삿갓 조개껍데기를 쓰고 있던 꼬마 소라게는 힘센 소라게들에게 밀려 구멍 난 소라 껍데기로 바꿔 쓰고 더 좋은 껍데기를 찾기로 한다.

모래밭엔 새집을 찾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신기한 껍데기를 쓴 게가 눈앞에 나타나자 마음이 급해진 소라게는 더 좋은 껍데기를 찾아가는데, 그때 "저기는 위험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막는 털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소라게가 드디어 도착한 곳에는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잔뜩 있었고 꼬마 소라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꼬마 소라게는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 마음에 드는 껍데기를 차지하지만,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또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진다. 아름다운 섬에는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점점 쓰레기가 늘어나고, 소라게들은 점점 사라진다. 멀리 보이는 섬은 햇살에 반짝이고 아름답기만 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쓰레기로 뒤덮인 섬에서 소라게 같은 해양 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쌓여가고 있고 그로 인해 해양 생물들은 피해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피해 생물이 소라게다. 플라스틱을 새로운 집으로 삼는 소라게는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페트병 등에 갇혀서 죽게 된다. 멀리서 아름답고 반짝이는 섬을 가까이에서도 아름답고 반짝이도록 하려면 우리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는 책이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생활 속 실천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은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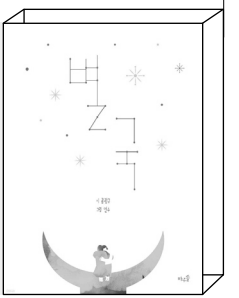
어머니의 별빛 사리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별국

공광규 글, 연수 그림 – 바우솔, 2023.

추천대상: 영유아 이상 누구나
#고래와 모험을 좋아하는 누구나



이 글을 쓴 작가는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동서문학 신인문학상에 당선된 이후 신라문학대상, 윤동주상 문학대상, 동국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고양행주문학상, 디카시작품상, 신석정문학상, 녹색문학상을 받았다. 자연친화적이고 호방한 시 〈담장을 허물다〉는 2013년 시인과 평론가들이 뽑은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됐다.

작가가 펴낸 시집으로 《대학일기》,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소주병》, 《말똥 한 덩이》, 《담장을 허물다》, 《파주에게》,《마음 동자》, 《윤동주》, 《구름》, 《흰 눈》, 《담장을 허물다》, 《할머니의 지청구》, 《엄마 사슴》, 《청양장》 등이 있다. 시 〈별국〉은 중등 국어2(좋은책신사고)에 실려 있으며, 2019년 호주 캔버라대학교 부총장 국제 시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림을 그린 연수는 얼핏 들여다보면 평범하지만 자세히 보면 색다른 그림책을 쓰고 그렸다. 쓰고 그린 책 《이상한 하루》로 2019년 황금도깨비상 대상을 받았으며, 쓰고 그린 책으로는 《이상한 동물원》, 그린 책으로 《할머니의 지청구》,

《나무가 좋아요》, 《지구의 일》, 《배를 그리는 법》이 있다.

하얀 표지에 '별국'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위에 반짝임, 초승달 위에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표지가 눈길을 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며 책을 펴니 우주 속의 달, 어둠 속의 달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달동네에서 손수레 위에 손전등을 매달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별국'이란, 멀덕국에 별빛이 들어가 있는 국이란 뜻으로 어머니의 가난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작가는 별국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빛이 가득한 어두운 밤 남루한 살림에 자식에게 멀덕국을 끓여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련하게 표현돼 있다.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그릇이 앉아 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 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치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가난과 어머니의 사랑과 그런 사랑을 느끼는 화자와 어머니의 슬픔이 그림과 간결한 시로 응축되어 가슴을 울린다. 어머니의 눈물을 '별빛 사리'로 표현한다. 별빛 사리는 눈물을 뜻한다. 가난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시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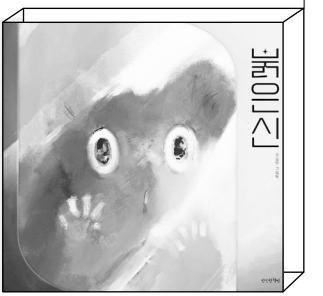
푸른 신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붉은 신

오승민 글·그림 – 만만한책방, 2022.

추천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서의 동물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어린이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오승민 작가가 참여한 책의 표지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 살 때부터 화가였다는 작가 소개는 삶이 곧 그림일 작가의 인생과 그가 그토록 수많은 책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작가로서 수많은 이야기에 당위를 부여해 온 그는 드물게 그림을 그리고 글도 써서 이야기를 지었고, 그렇게 파란 쥐 '꼬리끝'을 따라가는 그림책《붉은 신》이 만들어졌다.

무지개 끝에 하얀 배가 있다네. 병들고 아픈 동물을 기다리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신이 있다네. 죽음에서 삶으로 돌려보내 주는 붉은신이 있다네.

작고 연약한 꼬리 끝을 움직이게 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할아비 쥐'의 노랫말이다. 몸이 아픈 꼬리 끝은 아픔을 덜고자 '붉은 신'을 찾아 나서지만 뜻밖에 만나게 된 건 여러 동물이었다. 꼬리 끝이 붉은 신을 찾아 배회하는 공간은 '두 발'이 돌아다니는 위험하고 어두운 공간이고, 동물들은 모두 어딘가 이상하고 아프다. 이런 곳에서 꼬리 끝은 과연 붉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꼬리 끝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꼬리 끝이 만나는 동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물음표만 더해 주는 《붉은 신》은 '그림책'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 그만큼 그림이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힘이 대단하다. 그림으로 표현되는 동물의 표정과 상황, 공간과 환경은 이야기를 쫓아가는 독자들을 내내 들었다 놓았다 한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이 독자들의 눈앞에 나타날 때는 동물들이 갇혀 있던 공간, 그곳에서 동물들이 겪었을 고통과 대비되는 모습에 복잡한 심경이 되고 만다.

동물들의 기력 없는 모습, 생기를 잃은 눈을 잔뜩 본 후 책을 덮으면 무거운 마음이 된 채 이야기에 등장했던 동물들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동물이 무기력하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연히 동물들 앞에 나타났지만, 같이 붉은 신을 찾자고 외치고, 작은 풀꽃을 손에 쥐어 주던 '꼬리 끝', 간신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지만 이내 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하는 품위가 다정한 오랑우탄 '긴팔', 같이 지내던 무리 사이에서 홀로 고독한 행동을 실천한 '할아비 쥐'까지.

이처럼 극악의 상황에서도 동물들이 보여준 미덕은 인간을 부끄럽게 한다. 과연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당연했다면, 자신이 편안함을 누릴 때 더 약한 존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격할 용기가 부족했다면, 《붉은 신》이 우리를 숙연해지게 만들 것이다.

희망의 신은 붉은색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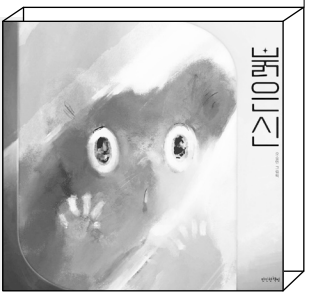
장미란 (하남시 미사도서관)

붉은 신

오승민 글·그림 – 만만한책방, 2022.

추천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전쟁같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 읽으면 좋을 책
#가볍지 않은 책을 읽고 싶은 사람
#동물 실험에 관심 있는 사람



《붉은 신》은 일러스트레이터 오승민 작가의 첫 단독으로 출간된 도서이다. 책을 쓰고 그린 오승민 작가는 거친 질감과 강렬한 색상을 중심으로《우주 호텔》,《나의 독산동》,《불량한 자전거 여행》 등 여러 유명한 책의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만 그려왔던 작가가 첫 그림책에서 파랗고 조그만 작은 쥐를 통해 그동안 하고 싶던 메시지를 뿜어냈다. 주제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무거워서 접하기 힘든 내용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연장으로 한 번쯤 생각을 일깨우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어린 왕자 같은 그림책이다. 그냥 한번 읽고 스쳐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어느 연령대가 읽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 유아기에 읽어도, 청소년기나 성인이 언제 읽어도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책을 오랜만에 만나 추천하고 싶다. 그림책이지만 그림도 읽듯이 보게 됨을 느낄 수 있기에 읽는다고 표현하고 싶다. 책을 한 번 읽고 바로 다시 한 번 읽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채 며칠 뒤에 다시 두 번을 읽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동물 실험과 동물권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꼬리 끝'은 한 개인으로 보인다. 자신이 힘들게 노력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님을 모른 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간다.

토끼는 약 때문에 자신이 사라짐을 느낀다고 말한다.

변형된 개구리는 이전의 개구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쩍 마른 개는 이곳에서 이제 도망치라고 말한다.

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며 위대하다고, 이곳에서 아주 잘 살아 있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랑우탄에게 우린 살아있다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꼬리 끝'. 그는 결국 오랑우탄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던 붉은 신을 만나게 된다.

그림책을 여러 권 접하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읽을 때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하게 만드는 책은 전 연령대에 추천하기 적합한 것 같다. 후에 다시 읽게 되면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책을 다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할아비 쥐'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휩싸여 그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 현대인은 주어진 목표에 매몰되어 열정이 지나치다 못해 붉은색이 되어가고 있다.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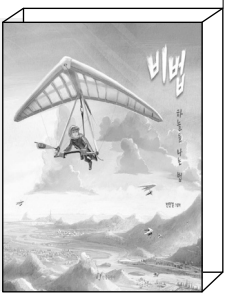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비법

전민걸 글·그림 - 한림출판사, 2023.

추천대상: 초등학생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삭바삭 갈매기》를 쓴 전민걸 작가의 신작이 출간됐다. 전작 《바삭바삭 갈매기》는 물고기를 먹던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 과자에 익숙해져 가는 상황을 다룬 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책을 읽고 난 독자라면 사람이 즐거움으로 던져 주는 과자가 과연 갈매기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전민걸 작가는 자연과 자연 속의 인간을 주로 다루는데 이번 신작에서도 그 경향은 여전하다. 대신,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다. 신작 《비법》은 행글라이더로 하늘을 나는 비법에 집중한다. 실제로 작가는 십 년 동안 100회 이상의 비행을 했고, 행글라이딩 선수로 대회에도 참가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늘을 나는 느낌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출판사에서 지식 그림책 전집에 포함할 정도로 작가는 하늘을 나는 방법과 과학 원리를 잘 다루고 있다.

중력이라든가 날개의 필요성, 해풍과 육풍의 이용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서 독자가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작가가 주목한 것은 ‘행글라이더’라는 하늘의 스포츠이다. 그는 복장과 각각의 부속품,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등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행글라이더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고자 했다. 독자들은 행글라이더가 생각보다 과학의 원리를 많이 응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출발이다. 책에서는 하늘을 나는 느낌을 ‘물에 첨벙 뛰어든 느낌’으로 표현한다. 책을 읽노라면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늘을 날고 있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가? 작가는 중반 이후 하늘을 높게 올라가는 방법을 다시, 쉽게,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덕분에 독자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늘을 날다 보면 구름도 만나고 독수리와 같은 새도 만나게 된다. 하루종일 하늘에서 놀다가 해가 기울고 새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행글라이더들도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작가는 이야기를 다 마친 후 페이지를 더 할당해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딩의 차이점, 행글라이딩 중에 진짜 새를 만날 수 있는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대회도 있고, 국가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등 행글라이딩에 관련 Q&A를 작성하고 답변해준다. 그림책 작가의 이색적인 취미 생활 또는 다른 직업이 이렇게 책의 소재로 쓰이니, 책을 읽는 독자로서는 부럽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였다. 특히나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되어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늘을 날고 싶어했던 그 누구나 하늘을 나는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한 책을 찾는 분들이 읽으면 매우 만족할 만한 책 일 아닐까 싶다.

작가는 이야기를 다 마친 후 페이지를 더 할당해 행글라이딩에 관련 Q&A를 수록해 놓았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딩의 차이점은? 행글라이딩 중에 진짜

새를 만날 수 있는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어떤 대회가 있고 이 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실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작가가 예상하고 직접 답을 달았다. 이 정도로 작가는 행글라이딩에 진심이고 또 전문적이다. 그림책 작가의 이색적인 취미 생활이 이렇게 책의 소재로도 쓰인다니, 책을 읽는 독자로서는 부럽기만 하다. 특히나 그림책을 읽으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어린 날의 소원을 이루는 듯하여 설레이기도 하다. 하늘을 날고 싶어했던 그 누구든, 혹은 하늘을 나는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한 책을 찾고 싶은 그 누구든 매우 만족할 만한 책이 아닐까 싶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친구와 싸우게 되었다면?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빌려준다고 했는데

가사이 마리 글, 기타무라 유키 그림, 김소연 옮김 – 책읽는곰, 2023.

추천대상: 유아부터
#친구와 오해로 인한 갈등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대부분 남자 어린이들은 공룡을 좋아한다. 어린이 책에 공룡이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공룡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공룡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 경혜원 작가의 그림책에는 공룡이 주인공으로 주로 등장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책에서 공룡은 '공룡도감'이라는 책으로 나온다. 뒷표지에 티라노사우르스, 스피노사우르스가 그려져 있고 착한 공룡인 트리케라톱스도 등장한다. 책을 매개로 남자 어린이들의 싸움 후 화해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표지 그림에 서로 화가 나서 떨어져 있는 남자 주인공을 사이에 적혀 있는 "빌려"라는 글씨는 색깔이 없다. 대신 "준다고"는 주황색으로 그려있다. 표지가 이 책의 주제와 이야기를 단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책 제목처럼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렌은 새로 산 공룡도감 책을 다이치에게 빌려준다고 하며 전달한다. 다이치는 렌이 책을 그냥 준 줄 알고 너무 좋아한다. 며칠이 지나도록 다이치가 렌에게 책을 돌려주지 않자 둘은 싸우고 그날 오후 공원에서 다이치는 렌의 책을 돌려받기로 한다. 다이치에게 건네 받은 책이

낙서투성이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어 렌은 너무나 화가 난다. 책은 그냥 공원 벤치에 남게 되고 비가 오자 다이치는 공원에 다시 와 우산으로 책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 주고 비를 맞으며 달려간다. 이를 계기로 둘은 다시 화해한다. 작가는 주인공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기분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슬플 때를 잘 표현하고 있다. 서로 화가 났을 때는 왼쪽에 렌의 얼굴과 오른쪽에 다이치의 얼굴을 양쪽 끝 쪽으로 배치해 화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게 그렸다. 화해하는 장면은 둘이 우산을 쓰고 앞쪽을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표현하였다.

친구와 싸워서 불편한 마음, 싸우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뒤돌아보고 다시 잘 지내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다. 어린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우며 공감이 가게 쓰여 있다. 글 작가 가시이 마리는 "아이들 마음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작가가 쓴 다른 책으로 《친구가 미운 날》은 새로 산 크레용을 너무 써 버린 여자 친구끼리의 이야기로 이 책과 주제가 비슷하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박정섭의 《짝꿍》, 이주희의 《너랑 친구 안 할래!》, 오카 슈로의 《카카와 뭉이》, 하세가와 슈헤이의 《가슴이 콕콕》 등도 함께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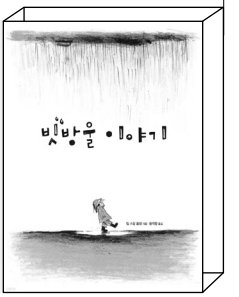
진주처럼 빛나는 빗방울!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빗방울 이야기

입 스팡 올센 글, 황덕령 옮김 – 진선출판사, 2022.

추천대상: 초등 저학년 이상
#비가 온 뒤 세상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읽기에 좋음



비 온 뒤 창밖을 내다보던 샬롯은 신기한 꼬마 빗방울 톡톡이와 툭툭이를 만난다. 꼬마 빗방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들의 흥미로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 준다. 빗방울이 어떻게 구름이 되고, 비와 눈이 되는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지 빗방울의 놀라운 여정이 펼쳐진다.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덴마크의 국제안데르센상 수상 작가 입 스팡 올센의 대표작 중 하나인《빗방울 이야기》는 궁금한 자연 현상을 상상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이 즐겁게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한다.

저자인 입 스팡 올센은 1921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으며, 2012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하기 전까지 작가이자 삽화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600여 권의 도서에 아름다운 삽화를 그렸다. 덴마크의 국민 동화 작가로 불리는 입 스팡 올센은 1972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국제안데르센상 화가상을 받았으며,《달님과 소년》을 비롯한 여러 작품으로 덴마크 문화부에서 수여하는 아동

도서상을 세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빗방울이 내려 어떻게 땅속으로 스며들고 움직이는지 재미나게 표현하고 때로는 감동스럽게 담아내기도 하였다. 사람처럼 눈, 코, 입과 머리카락, 안경도 쓴 모습도 그려 친근하고 천진스러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계절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게 겨울철 눈으로 변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준다.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놀이처럼 표현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것이 이 책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빗방울의 모습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묘사하여 더욱 생동감을 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림만 보고 있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잎사귀마다 진주가 방울방울 피어난 걸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풀과 클로버, 갈대와 메꽃을 진주로 예쁘게 장식해요. *(22)*

빗방울을 '진주 놀이'처럼 표현한 것이 참신하다고 느껴진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지고, 얼었다 녹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자연의 순환이 들어 있는 이 작은 그림책이 비 오는 날이면 자꾸 생각났으면 한다. 주변 현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6세부터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자연의 순환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하며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기에 추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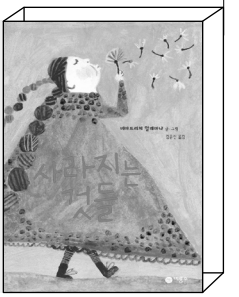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라지는 것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글·그림, 김윤진 옮김 – 비룡소, 2021.

추천대상: 유아부터
#일상을 보는 색다른 관점이 필요할 때
#엄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수없이 많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는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은 작가는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다. 표지의 그림에서 한 소녀가 민들레 씨앗을 불고 있는 그림이 먼저 눈에 띈다. 이 책은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장면이 나오고, 다음에 다른 장면이 나오며 짧은 글이 연결되며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사라진단다. 변하기도 하고, 휙 지나가 버리지."라는 문장이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사라지는 것들의 예로 잠, 상처, 음악, 벌레, 비눗방울, 눈물, 궂은 날씨, 낙엽, 머리카락, 아기 젖니 등을 소재로 사라지는 것들을 시적인 글로 설명한다. 이 중 사람의 감정 중 우울한 생각과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예를 든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글은 짧다.

이 책의 그림은 책 페이지마다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넘기면 사라지기 전과 사라진 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이하다. 첫 페이지 글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사라진단다. 변하기도 하고."라고 왼쪽 페이지에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은 특수용지에 새가 그려져 있다. 특수용지를 넘기면 왼쪽 페이지는 새가 날아가고, 손으로 가리키는 그림만 남아 있는 구성으로 "휙 지나가 버리지."라는 글이 나와 있다. 글과 그림이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그림책을 완성한다.

책의 마지막에는 사라지는 것들과 대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특수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거나 사라져.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영원히."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주제를 따뜻하게 전달한다.

그림책 중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책으로 김윤정의 《엄마의 선물》이 있다. 이 책은 《사라지는 것들》보다 판형이 크며, OHP 필름을 사용하였다. 특수용지로 책의 주제를 보다 잘 전달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책으로 《엄마는 언제 날 사랑해》(토토북), 《엄마의 가슴 속엔 언제나 네가 있다》(열린어린이)와 같은 책을 함께 읽어 보면 좋겠다.

뭐든지 주문되는 세상에서!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사라진 저녁

권정민 글·그림 – 한솔수북, 2022.

추천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사라진 저녁》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주변 환경을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특히 먹거리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사회문제를 다룬 동화이다. 이 책의 저자 권정민은 2021년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 청소년 부문 수상 작가이며, 쓰고 그린 책으로는 《엄마 도감》,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등이 있다.

저자는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심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핸드폰 하나면 있으면 뭐든지 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묻고 있다. 수많은 전염병 중에서 코로나19는 위력이 너무나도 컸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공존하고 있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 점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는 사람 관계의 단절로까지 생각되는 '비대면 문화(방식)'를 자리 잡게 했다.

저자는 인간 본연의 공존하는 사회를 다시 찾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 그림책을 쓴 것 같다. 첫 장부터 아파트 현관에 수북이 쌓인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와 배달 음식만 살짝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한다. 그리고 바삐 움직이지만, 표정을 알 수 없는 마스크 쓴 배달 노동자의 모습도 보인다. 코로나가 성행할 때 익숙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저녁으로 배달이 된다. 식당 주인의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메모와 함께 배달된 돼지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돼지를 숨기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고민 끝에 돼지를 직접 요리해 먹기로 한다. 돼지를 잡는데 필요한 기구, 장비, 인력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주문까지 마친다. 정작 돼지를 찾는 이 없이, 모두 파티 준비에 한껏 들떠 있다. 결국 화로의 불길이 솟아 스프링클러의 물이 쏟아져 파티는 엉망이 되고 돼지는 유유히 사라진다. 마지막에는 생닭이 배달 음식으로 오며 끝이 난다. 유머러스하고 통쾌한 결말이지만 그 속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작가 특유의 관찰력과 세심한 터치감도 돋보인다.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이 읽기에 무리가 없으며 코로나를 겪은 모든 세대가 읽기를 추천한다. 위에서 언급한 저자의 다른 책들도 함께 읽어보면 저자의 인물 표현 방법이 매우 재미있고 정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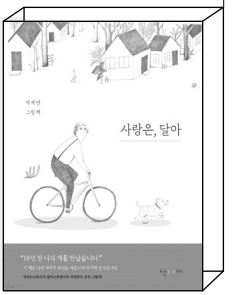
사랑하는 달에게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랑은, 달아

박세연 글·그림 – 난다, 2023.

추천 대상: 영유아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누구나
#키우고자 생각하는 누구나



《사랑은, 달아》를 쓴 박세연 작가는 한국과 영국에서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에세이 《잔》, 《토이》, 그림책 《밤이 깊었는데》를 펴내고 《해님네 집에 간 달님》등에 그림을 그렸다. 18살 달자, 9살 서겸이와 살며 틈틈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한밤중, 멀뚱히 벽지를 보며 한없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던 어릴 적 작가와, 작가를 쏙 빼닮은 작은 아이를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여백 많은 표지에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책 《사랑은, 달아》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어떤 내용일까? 사랑에 관한 것일까? 반려견에 관한 내용일까? 뒷표지에 '나와 달자에게 그리고 여행 떠난 달자의 친구들 콩이, 마리, 베비, 장군이, 미니, 구름이, 무탈이, 하루에게'로 이 글은 시작된다.

어느 날, 젠틀한 달 씨에게 갈 곳 없는 개 한 마리가 찾아왔다.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늦은 밤이었다. 달씨는 개에게 당분간만이라며 사소한 규칙 몇 가지를 일러준다. 오줌은 화장실에서만 쌀 것, 식물을 물어뜯지 말 것, 가구에 올라가지 말 것, 짖지 말 것. 그러나 개는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달 씨는 개를 아침에 산책시키면서도 당분간이라고 중얼거린다.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개 참 예쁘네요."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개가 예쁘다는데 왜 자신이 으쓱한지 그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시키면서 달 씨는 그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슬에 젖은 땅에서 나는 흙냄새도 좋고 바싹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도 좋고 낮의 색깔이 매일 달라지고 가만히 들여다 본 하늘은 밤에도 파랗다는 걸 개와 산책하면서 알게 된다.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랑이란 너와 속도를 맞추는 법, 너를 닮아가는 법, 나와 다른 너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내 규칙안에 너를 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작가는 매일의 햇살, 건강, 미소, 그리고 '너'라는 존재를 얻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간접체험하게 되었다. '개를 기른 것은 나인데 자란 것은 나입니다. 기르는 데 소질이 있었던 개는 나를 그럭저럭 쓸 만한 어른으로 키워줬어요.' 오랫동안 개와 함께 하고 싶고 그 고마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작가의 말도 감동적이다. 18년 동안 개와 함께 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작가는 글을 썼다. 간결한 그림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강하다. 이 가을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 모든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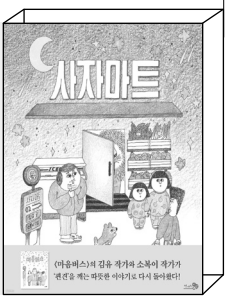
관상은 과학일까?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사자마트

김유 글, 소복이 그림 – 천개의 바람, 2023.

추천대상: 어린이, 일반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주변을 따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원하는 어른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고대인들로부터 이미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과 기호. 그것이 현시대까지 이어진 것이 그림책이라 생각하면 그림책에는 무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신화 인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고대인에게는 어디를 가나 통용되는 공통 기호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공통 기호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것이 그림이기에 그림책은 글쓴이의 마음을 모두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매체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1443년 12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의미를 가진 기호, 한글이 창제되었다. 한글의 재미있는 점은 글자의 구조가 초성, 중성, 종성 세 음절으로 이루어져 이 중 하나만 바꾸더라도 그 글자가 가진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출판사 아동문학상 대상으로 이름을 알린 글쓴이 김유 작가는 어린 시절 길거리의 간판에 쓰인 글자를 위와 같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글자 놀이'를 좋아했다고 한다. 작가의 그림책 두 권이 출간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바로 이 글자 놀이가 글 작가가 되는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김유 작가가 출간한 두 번째 그림책 《사자마트》의 이야기 구조와 언어유희는 그의 첫 번째 그림책 《마음버스》와 클리셰를 공유하고 있다. 언어유희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글자 놀이가 사건의 발달이 되고, 동물 친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따듯한 그림책을 만들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작가를 세종대왕은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사자마트의 '사자'는 주인 사자 씨의 이름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큰 마트 주인 '사자' 씨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자!'하고 마트에 많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트를 사자마트라고 이름 지었다. 하지만 '사자'를 닮은 외모 때문에 성격도 사자처럼 무서운 사람으로 매도되었다. 소문이 소문을 낳자 사자마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02동 아주머니만 가게 문을 슬쩍 열었다가 물건 사이로 비친 사자 씨의 사자를 닮은 외모에 놀라 사자마트 문을 닫고 가버렸을 뿐이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는 가게가 되어버린 사자 씨의 사자마트는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자마트의 운명이 어떻게 따듯한 이야기로 변할지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직접 책을 열어 확인해 보길 권한다.

독자들에게 개인주의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 버스와 마트에서 만나는 마을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그래야만 하는 이야기는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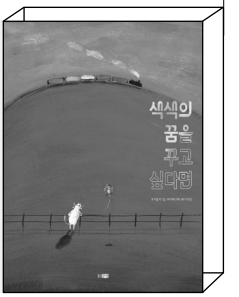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색색의 꿈을 꾸고 싶다면

미셸 피크말 글, 에릭 바튀 그림, 이세진 옮김 – 웅진주니어, 2022.

추천대상: 영유아 이상 누구나
#아름다운 색감과 일상을 소중히 느끼는 누구나



이 글을 쓴 미셸 피크말은 1988년까지 초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작사, 시나리오, 어린이 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1989년 《순진한 녀석》으로 프랑스 아동도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으며, 《사마니, 고독한 인디언》 등 현재까지 12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에릭 바튀는 리옹의 에밀 콜 대학에서 드로잉과 미술 전반을 공부하고, 1996년에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첫 작품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선보이며 일러스트레이터로 주목받았다. 1997년 프랑스 몽트뢰유 아동도서전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0년에는 알퐁스 도데 어린이 문학상, 2001년에는 BIB 대상을 받았다. 에릭 바튀가 지은 책으로는 《우리는 소중한 친구》, 《새똥과 전쟁》, 《공기처럼 자유롭게》, 《내일의 동물원》, 《배고픈 거미와 행복한 코끼리》 등이 있다.

책의 표지에 염소와 새가 초록으로 광활한 울타리 너머 기차를 쳐다보고 있는 표지부터 눈길을 끈다. 색색의 꿈은 어떤 꿈인지도 궁금해진다.

주인공 염소 당딘은 들판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들판의 풀은 보드랍고 달콤하고…. 무엇보다 싱그럽기 때문이죠! 이 고운 초록빛 들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딘은 못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지나가는 기차를 볼 때면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첫 페이지의 내용이다. 당딘은 현재 사는 것이 행복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한다. 그래서 색깔을 채집하는 새인 친구 마르탱을 불러 다른 곳도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색깔을 채집하는 새라는 표현이 독특하고 기발하다. 당딘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여행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레면서 길을 나선다. 초록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방이 시커메지기 시작한다. '검은색도 정말 멋지구나!' 잠든 도시의 밤도 화려하고 아름답다.

당딘은 밝은 달을 보고 또 다른 꿈을 꾼다. 새하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하얗고
하얗고
하얀 눈이
하늘에서 펑펑
쏟아져 내렸다.
온통 하얀 눈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당딘은 새파란 세상도 궁금해진다.

쨍하고 밝은
파란색
반짝반짝 빛이 나는
파란색
보랏빛이 비치는
파란색

맑고 깨끗한 하늘의

파란색….

노랑아, 반가워!

사막은 노란 모래가 출렁이는 또 하나의 바다다.

일곱 빛깔 무지개

마르탱이 당딘을 위해 준비한 노랑 파랑 빨강 검정 초록 하양

다양한 색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행복했다.

"초록은 정말 예쁜 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었어. 내가 사는 들판의 색이니까!"

여러 색색을 여행하고 나서 역시 내 집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같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색감과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 준 감동적인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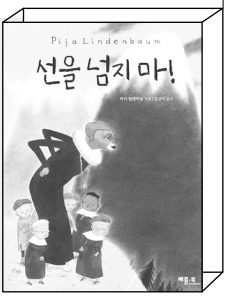
선을 넘어 자유의 세계로

손정은 (고양시 도서관정책팀)

선을 넘지마!

피야 린덴바움 글·그림, 김상미 옮김 – 베틀북, 2022.

추천 대상: 어린이, 초등(저), 초등(고), 청소년, 일반
#자립심을 키우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넘지마!》는 산을 오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아이들은 왜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일까? 산 속에는 네 채의 나무집이 있다. 빨간 창문 집에는 릴리벨 아이들이, 초록 창문 집에는 그린벨 아이들이, 작은 나무 집에는 '대장'이 산다. 이곳은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아무도 아이들을 등원시키거나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약 천 명쯤 되는 아이들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나무집 주변의 '선'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이 '선'은 '대장'이 만들어 둔 일종의 규율인데, 아이들은 이 선을 나가면 번개가 치거나 사자가 나타난다고 믿고있다.

릴리벨 친구들은 뛰놀고 노래를 부르고 편하게 하늘을 보며 쉴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 아이들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난 후 설거지도 해야 하고 릴리벨 친구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 릴리벨 친구들도 그린벨 아이들처럼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그린벨 아이들도 릴리벨 아이들과 놀고 싶지만 그런 것은 '대장'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매번 똑같은 일상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다는 것에 지친 릴리벨 아이들은 '대장'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그린벨 아이들과 옷을 바꿔입는다. 그리고는 서로의 일상을 통해 색다른 매력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들만의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이 책은 2021 스웨덴 스뇌볼렌 문학상 '올해의 그림책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작가는 억압과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었을까? 그 선을 넘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작가 피야 린덴바움은 1992 년《나의 개 부딜》이라는 도서로 뉴욕타임즈 '최고의 그림책'에 선정되었으며, 1993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이력을 가진 스웨덴 작가다. 작가가《선을 넘지마!》에서 그려낸 아이들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독특하면서도 신선하고 즐겁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아이들과 대장을 통해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지 느낄 수 있다.

현실 속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다양한 세계를 마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무엇이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공평한 것과 불공평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배려하며 살아야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은 '끝'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시작의 이름

셸리 무어 토머스 글, 멜리사 카스트리욘 그림,
이상희 옮김 – 소원나무, 2023.

추천대상: 유아, 청소년, 일반
#시작과 끝이 두려운 이들에게

저자 셸리 무어 토머스의 끝과 시작에 대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와 멜리사 카스트리욘의 몽환적이고 신비한 색감과 그림체가 어우러진《시작의 이름》. 이 그림책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조언을 따스한 말투로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시작과 끝을 겪게 된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과 끝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 책에는 그 해답이 담겨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고 씨앗은 꽃이 되고 달걀은 병아리가 되지. 씨앗의 끝은 꽃의 시작이야. 달걀의 끝은 병아리의 시작. 애벌레의 끝은 나비의 시작이지. 혼자의 끝은 함께의 시작. 복숭아 열매가 끝나면? 복숭아나무가 시작된단다. 그러니 끝을 두려워하지 말아. 끝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할 때 늘 만나는 순간이란다.

씨앗의 끝이 있어야 꽃이 피어나고, 달걀의 끝이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난다.

애벌레의 끝이 있어야 나비가 날 수 있고 혼자의 끝이 있어야 함께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끝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가올 끝과 이별에 지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 책에서는 끝을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조언이 담겨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의 끝보다는 시작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시작은 늘 서툴고 어색하다.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가끔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책의 조언처럼 시작과 끝은 우리 삶에 늘 만나게 되는 순간이기에 이를 너무 두려워하고 겁먹기보다는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작이 없으면 삶의 아무런 변화도, 기회도, 성장도 없다는 것을 새기고 좀 더 용기를 내어 보고자 한다.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함께 시작할 용기를 가져보자고 말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작과 끝을 겪어나갈 어린이들에게도 이 책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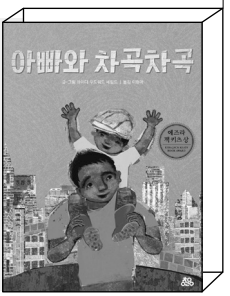
아빠와 차곡차곡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아빠와 차곡차곡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 글·그림,
이현아 옮김 – 책연어린이, 2022.

추천대상: 영유아 이상 누구나
#가족의 사랑과 차곡차곡의 실천을 해 보고 싶은 누구나



이 글을 쓰고 그린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는 첫 그림책인 이 책으로 에즈라 잭키츠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았고 그녀는 틈만 나면 다양한 질감의 사진을 찍는데, 이것이 이야기와 콜라주에 영감을 주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을 유난히 좋아하고 그 건물을 지은 강한 손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공상하기를 즐긴다.

옮긴이 이현아는 현직 13년 차 교사로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대표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 및 지도서를 집필했으며, 2018년 학교 독서교육 분야 교육부장관상과 제5회 미래교육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튜브 '현아비티'와 '읽고 쓰고 만드는 그림책 수업'을 비롯한 여러 강연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림책 한 권의 힘》,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을 썼고 《그림책 디자인 도서관》을 비롯하여 《위대한 깨달음》, 《눈이 바쁜 아이》, 《하품이 온다》, 《빨간 꽃을 찾은 너에게》를 우리말로 옮겼다.

제목부터 표지가 다 정감 가고 따뜻함이 느껴진다. 사진과 페인트의 콜라주

기법으로 이루어진 점도 특징이다. 구릿빛 피부의 아빠가 아들을 목마태우고 아이는 만세하고 즐거워하는 표지부터 눈길이 머문다.

꽃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아빠는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려는 아들에게 엄마는 사랑스러운 뽀뽀를 하는 장면으로 이 그림책은 시작한다. 참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다.

'우리 아빠는 힘이 세요.'
'벽돌 쌓는 일을 하시거든요.'
'아빠 팔은 돌처럼 단단해요.'

아이의 눈으로 아빠를 묘사하고 설명한다. 아빠 일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묻어난다. 단순히 벽돌 쌓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듯, 도시를 짓는다는 표현 역시 멋지다. 아빠와 아들은 닮았다. 아빠는 일할 때 손으로 하늘을 매만지고 아무리 높아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도 높은 곳이 무섭지 않고 아빠처럼 손으로 하늘을 만지면서 논다.

아빠와 닮은 점 또 하나는 '차곡차곡'이다.
아빠는 벽돌을 쌓아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나도 책을 읽어요. 한 권씩 한 권씩. 차근차근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아빠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
나를 데리러 와요

피곤해도 웃는 얼굴로

말이죠.

아빠 품에 안기면

햇볕을 쬐는 것처럼

마음이 따스하고 환해져요.

성실함과 기본, 가족 간의 사랑, 차근차근 노력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책으로 아이들이 어른을 닮아가며 배우듯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그림책을 통해 기본과 차근차근을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가족의 사랑과 기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는 책으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읽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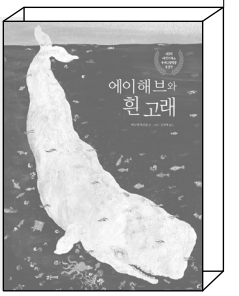
에이해브와 흰고래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에이해브와 흰고래

마누엘 마르솔 글·그림, 김정하 옮김 – 밝은미래, 2022.

추천 대상: 영유아 이상
#고래와 모험을 좋아하는 누구나



이 책은 허먼 멜빌의 소설《모비딕》을 모티프로 하여 마누엘 마르솔만의 상상과 유머가 더해진 그림책으로, 이 글을 쓰고 그린 마누엘 마르솔은 198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났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다 바르셀로나 EINA예술학교에서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뒤 2014년 모비딕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이해브와 흰 고래》로 에델비베스 국제그림책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박람회인 이탈리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2014년부터 4년 연속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7년《숲의 요괴》로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대상을 수상했다. 펴낸 책으로《에이해브와 흰 고래》,《숲의 요괴》,《뮤지엄》,《백주의 결투》,《거인의 시간》등이 있다.

이 책을 옮긴 김정하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 속 인물들과 세계를 좋아했다. 스페인 문학을 공부하고 스페인어로 된 어린이책을 읽고 감상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틈이 나면 동네를 산책하거나 오르간 연주를 한다. 옮긴

책으로 《에이해브와 흰 고래》, 《숲의 요괴》, 《숲속의 편지들》,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고장난 가족》, 《모조리 싹싹 머핀 삼촌》, 《어느 좋은 날》 등이 있다.

제3회 에델비베스 국제그림책상 수상작이기도 한 에이해브와 흰 고래는 표지와 책크기부터 흥미롭다. 깊은 바다에 아주 큰 흰 고래 꼬리만 일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흰 고래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은 피쿼드호와 그 배에 서서 생각에 잠긴 에이해브 선장의 모습이 보이고 붉게 물든 노을과 까만 해수면 사이로 흰고래의 일부인 꼬리만 나온 모습을 보고 있는 에이해브의 선장이 그려져 있다. 바로 앞의 흰고래를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네 삶과 닮아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에이해브가 실상은 가까운 곳에 있는 흰고래를 찾아 헤매는 내용이다.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낸터컷섬 지도가 나온다. 낸터컷섬은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또 한 장을 넘기면 에이해브의 자기 소개가 나온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바다에서 가장 뛰어난 고래 사냥꾼이야. 피쿼드호의 선장이며 낸터컷섬의 주민이지. 그냥 에이해브라고 불러 줘.'

신문에 흰고래가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고 단숨에 피쿼드호에 오른 에이해브. 고래를 잡느라 한쪽 다리도 잃었지만 고래를 만나려는 마음은 잃지 않았다. 고래를 만나려고 세찬 파도에 흔들리는 산에도 오르고 가라앉은 배에도 올랐다. 끝없는 안개 때문에 선실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허비한 적도 있다고 표현한 그림은 얼마나 힘들지를 보여 준다.

흰 고래를 찾으러 가는 길은 험난하다. 화산도 만나고 식인종들의 섬도 지나고. 마누엘 마르솔의 전작인 《숲의 요괴》처럼 거칠고 강렬한 색채와 크기의 대비,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크기와 색감으로 표현하는 기법, 세심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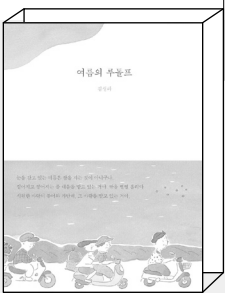
여름에 대한 찬사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여름의 루돌프

김성라 글·그림 – 사계절, 2023.

추천 대상: 어린이, 일반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머릿속이 복잡한 이들에게
#시골의 풍경이 그리운 이들에게 #여행을 가고 싶은 이들에게



주인공 '나'는 초여름의 제주 할머니 집에 방문한다. 에어컨이 없어서 덥지만 할머니와 이웃들이 '나'를 반기는 것을 위로로 삼는다. 물질을 하는 '나'의 할머니와 물질을 그만둔 순옥 할머니 등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성게를 깐다. '나'는 그림을 잘 그려서 시골집에 있는 큰 달력 뒤편에 제주 바다를 그리기도 하고, 할머니를 따라서 큰 물안경을 끼고 해녀 체험을 하기도 한다. 공원에서 할머니들의 가르침으로 스쿠터를 타고 제주를 한 바퀴 돌며 제주의 여름을 감상한다.

《여름의 루돌프》는 제주 출신 김성라 작가의 《고사리 가방》, 《귤 사람》에 이은 제주 3부작으로, 이번에는 제주 해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그득하다. 제주 해녀의 삶은 낯선 듯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의 할머니나 어머니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몸이 성하지 않아도 물질을 하거나 계절별로 여름엔 해녀 식당에 나가고, 가을엔 동백을 줍고 겨울엔 밀감을 따는 제주 할머니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부단히 몸을

움직이는 우리네 여성의 모습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순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간 주인공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준 걸까. 버스 정류장의 루돌프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 책의 묘미는 크게 3가지로, 부드러운 그림체 속 세세한 그림의 포인트와 말풍선 속 생생한 제주 방언, 시적인 여름에 대한 묘사이다. 중간중간 큰 그림으로 들어간 제주의 밤바다, 푸르른 해변, 폭풍전야의 동네, 수국이 잔뜩 핀 도로, 할머니의 북쪽 방의 햇빛 등 제주를 여행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풍경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풍경 속에 녹아든 제주 사람들의 따스함 또한 눈에 띄는데, 언뜻 들어서는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던 제주의 방언들이 말풍선 속에 둥둥 떠다닌다. 책 아래의 주석을 자꾸만 쳐다보게 만들어 쉬이 책장을 넘길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머릿속으로 제주 여름 여행을 상상하게 만든다. 말풍선 밖의 '나'의 말들은 찬찬히 풍경을 읊고 있다. 그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인데, 이런 표현으로 여름을 싫어하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설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은 더워서 가만히 있게 되는 계절이 아니라고.

눈을 감고 있는 여름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구나. 짙어지고 짙어지는 풀 내음을 맡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가만히, 그 바람을 맡고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이니까 여름도 움직인다. 초록이 뺨을 때리고 파랑이 출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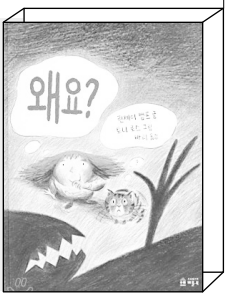
아이들의 질문, 그 후에 대해

장미란 (하남시 미사도서관)

왜요?

린제이 캠프 글, 토니 로스 그림 – 베틀북, 2018.

추천 대상: 영유아, 어린이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에게



아이가 자라는 시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린제이 캠프의 책《왜요?》를 읽게 되었다.

책, TV 및 미디어에서 아이들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은 저 '왜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물음에 어떤 어른이 어떻게 대답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발달에 영향이 있으니 항상 성의껏 고심해서 답해주라는 말은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도 부모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래, 그럴 거다. 아이는 성의 있게 키우는 것이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5살 아이가 머무는 우리 집에서는 정말 아이의 기상부터 잠들기 전까지 "왜요?" 만 듣게 된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그런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것 같다.

이 책의 작가는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원하는 의도를 책에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작가의 다른 책《한밤의 축제》에서는 더욱 상상력 있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이끈다. 그림 또한 이 책과 같은 작가로 흥미를 더한다.

아빠는 릴리가 "왜요?" 라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구나

너가 그러면 아빠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릴리, 그건 그냥 그런거야. 그냥 그런 거라고.

책 속에서 릴리의 아빠가 말하는 몇 구절은 나와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듯한 "왜요?" 도 대화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대답을 해 주려고 애쓴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만나는 다른 어른들까지도 말이다.

이 책은 아이가 "왜요?"를 말하는 하루 종일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 무슨 말만 하면 모든 것을 "왜요?"라고 받아친다. 그림도 너무나 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책의 그림은 모두 색연필로 그려졌는데, 그 때문에 부드럽고 다정한 기운이 잔뜩 들어있다. 표지 안쪽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왜요?"가 잔뜩 적혀있다.

아빠가 대답해주다 지친 모습을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장면, 외계인과 만나는 장면에는 정말 큰일이구나를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

뒷 표지 안쪽에는 외계인 말 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ㄱㄴㄷㄹ옆에 외계어를 적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증폭시킨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도 즐겁고, 모르는 아이도, 이제 글을 막 배워가는 아이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다.

어른들은 너무 당연한 일상을 묻는 아이가 귀찮고 자꾸 같은 말을 듣고 있어서 피곤하기까지 한데 아이는 아직 세상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왜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가끔, 너무 가끔이라 아쉽지만, 가끔은 정말 쓸모 있고 어른들이 생각해도 오! 라는 느낌표를 주는 질문일 때도 있다.

이 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아이의 다음 "왜요?" 질문에 긍정적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듣는 아이는 재밌거나 "왜요?"를 계속해도 괜찮구나. 아이의 자신감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책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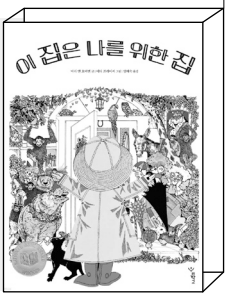
누구나 집을 가지고 있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이 집은 나를 위한 집

마리 앤 호버맨 글, 베티 프레이저 그림, 엄혜숙 옮김 – 우리학교, 2022.

추천 대상: 유아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 시 그림책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
#시 그림책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



글 작가 마리 앤 호버맨은 시인이며 비평가이다. 어린이책 작가로 유명한 그는 이 책으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하였다. 원작은 1978년 미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근래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판된 시 그림책이다. 그림을 보면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내용을 충실히 전하고 있는 책이다.

시의 글은 간결하고 운율이 있다. 첫 글 "흙더미는 개미, 개미의 집 / 벌통은 벌의 집 / 구멍은 두더지의 집, 생쥐의 집"으로 시작한다. 그 사이 내용은 집에 대한 비유를 곤충, 동물, 사람, 자연 등의 다양한 예를 들어 시적으로 표현한다. 장갑은 손의 집이고 복숭아는 복숭아씨의 집, 쓰레기는 언제나 세균들의 집 등과 같다. 마지막 문장은 "지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이라며 앞에 나온 모든 글을 아우른다. 사람의 집은 "이 집은 나를 위한 집"이라며 문장이 반복된다. 또한 글에서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물건이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유도하는 점이 독특하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는 다르지만 그림은 글의 내용을 세세히, 또한 상상력이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면 “네가 다른 것들의 집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물건이 너에게 집이 된다는 걸 말이야.”라는 글에 그림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을 들고 있는 야구장갑, 선물을 담은 상자, 햄스터가 있는 철장, 새끼를 품고 있는 캥거루, 접시에 담긴 음식, 바늘을 꽂고 있는 바늘꽂이, 물건을 담은 종이봉투 등과 같이 그림에서 전달하는 이야기 또한 놀랍다. 책 표지에 뒷모습으로 노랑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옆에 까만 고양이가 있는 그림은 이 책에서 반복되어 등장한다. 타이틀 화면, 내용 중간에 나오며, 글은 “내 외투는 내 몸의 집 / 내 모자는 내 머리의 집”으로 설명한다.

외국의 동시는 번역하였을 때 시의 묘미를 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책은 집을 소재로 시를 읽는 즐거움을 잘 전달한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으로만 연상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한 소재로 이렇게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집을 바라볼 수 있다는데 감탄할 것이다.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며 어떤 집들이 더 있을까? 대화하며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하고 놀라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책으로 로마나 로맨션이 글을 쓴《나는 본다》,《크게 적게 소곤소곤》,《움직이다》의 정보 그림책도 함께 추천한다.

2023 우수작 서평교육부문

우리의 성장 일기: 자란다, '잘한다'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자란다

심예진 글·그림 – 노란상상, 2022.

추천 대상: 유아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싶은 부모님에게
#아이의 일상이 궁금할 때

얼마 전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였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둘러싼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는 현재,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자란다》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림책 작가 심예진의 첫 번째 그림책인《자란다》는 저자의 아이와 또래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그림책이다.

특히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책의 독특한 구성 방식이다. 열여섯 아이의 성장 이야기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저자의 다음의 인터뷰 "서로 다른 고민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구성 방식을 선택해 보았답니다." 이런 저자의 인터뷰를 보면 책의 구성에는 저자의 치밀한 계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여섯 명의 아이가 표현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모습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다. 아파트 출입문의 숫자판에 손이 닿는 기쁨을 표현하는 아이를 시작으로 봄을 그린다. 텃밭의 식물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를 통해 여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독서왕을 꿈꾸는 아이의 독서 장면으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됨을 알려준다. 추운 겨울, 친구들과 놀고서 편의점에 라면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춥다고 움츠러드는 겨울 대신 즐거움을 가진 겨울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 이 책에서 표현된 다양한 그림 기법이다. 이는 중국 길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HILLS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저자의 이력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수채 파스텔과 수채물감, 색연필, 연필 등 다채로운 그림 도구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특히 수채 파스텔과 수채물감으로 따뜻한 색감을 표현함으로써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 온기를 느끼도록 한 작가의 섬세함이 느낄 수 있다. 이는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점에 담긴 정감을 포착한 것으로 부모님의 눈높이까지 고려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게다가 열여섯 아이의 성격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비율 등 다방면에 걸쳐 신경 쓴 것이 분명해 보이는 장면 구성은 이 책에 담긴 저자의 노력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란다'라는 책의 제목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과 함께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건네는 우리들의 한마디, '잘한다'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자가 들려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의 말을 들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생긴 독자들에게 꼬마 고양이의 자립과 성장을 다룬 《꼬마 키티 이야기》(2023, 현북스)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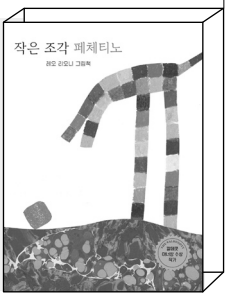
나는 누구의 한 조각일까?

박지원 (안성시 진사도서관)

작은 조각 페체티노

레오 리오니 글·그림 – 보림, 2023.

추천 대상: 영유아 이상
자아를 생각하는 누구나



《작은 조각 페체티노》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그림책 작가 레오 리오니의 작품이다. 리오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다음 1939년 미국으로 가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리오니는 콜라주, 마블링, 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단순한 그림으로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특기가 있었다.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들은 대개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꿈틀꿈틀 자벌레》, 《프레드릭》, 《헤엄이》, 《알렉산더와 장난감 쥐》는 어린이 노벨상이라는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작은 조각 페체티노》는 리오니의 첫 그림책 《파랑이와 노랑이》만큼 매력적이면서 구하기 힘든 작품에 속했다. 그러나 많은 독자의 요청 덕분에 재출간이 되었고 〈시카고 트리뷴〉이 '간결한 우화의 거장'이라 칭송했던 레오 리오니의 작품집은 다시 독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페체티노는 이탈리어로 '작은 조각'을 뜻하는데, 페체티노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덩치도 크고 용감하며 멋진 일을 척척 해내지만 작고 작은 페체티노는

틀림없이 자신이 누군가의 작은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누구의 작은 조각일지, 궁금해하며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는다.

페체티노는 달리는 친구에게 묻는다. "내가 너의 작은 조각일까?"

"나한테 한 조각이 모자란다면, 내가 어떻게 달릴 수 있겠니?"

페체티노는 힘센 친구에게도 묻는다. 힘센친구는 "나한테 한 조각이 부족하다면 내가 어떻게 힘셀 수 있겠니?"

헤엄치는 친구가 물위로 올라왔을 때에도 페체티노는 그렇게 묻는다

"나한테 한 조각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헤엄칠 수 있겠니?"

페체티노는 산위에 있는 친구를 향해 올라간다

"내가 너의 작은 조각일까?"

"나한테 한 조각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산을 오를 수 있겠지?"

해답을 찾지 못한 페체티노는 지혜로운 이를 찾아가 해답을 듣는다.

"쿵쾅 섬에 가 보렴"

페체티노는 거친 바다를 건너고 건너 흠뻑 젖고 지친 몸으로 쿵쾅 섬에 도착하고 나서 조약돌 산을 오르고 내려가고 또 오르고 내려가면서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데굴데굴 구르면서, 온몸으로 부딪치고 나서 해답을 찾는다.

아무리 스스로가 작아도 온전하다는걸. 다른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걸.

간결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은 감동적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온전한 자아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리 작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강한 울림을 준다. 길지 않은 글로 큰 메시지와 감동을 주는 그림책이다.

까칠이 고양이의 캠핑 이야기!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

의자 글·그림 – 한솔수북, 2022.

추천 대상: 초등(저)
#캠핑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이들

작가 '의자'의 그림책《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는 호기심 많은 고양이 '루이'가 캠핑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예쁜 분홍색 캠핑카에 짐을 잔뜩 싣고 운전하는 루이는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마치 주말이면 일상을 벗어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텐트 치고 즐기는 '캠핑족'처럼 행동한다.

루이는 각종 야생 꽃과 곤충, 벌레들이 있고 작은 동물들이 있는 풀숲을 신나게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물속에 잠깐 몸을 담그기도 한다. 보통 고양이들은 물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루이는 헤엄까지 못 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루이의 모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물속에서 나와 털을 터는 장면은 저자가 생동감 있게 그렸는데, 고양이의 습성이나 특징을 아주 잘 살려낸 것처럼 보인다. 다리 한 발로 얼굴을 닦는 모습까지도 세세하게 표현하였다.

자작나무 숲에서 루이는 해먹에 누워 달콤함 단잠을 자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맛본다. 자연과 함께 편안하게 스며든 루이를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풀리는 것 같다. 대리만족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자연에서는 때로는 비도 오는데, 루이는 텐트 안으로 비를 슬기롭게 피한다. 때론 강가에 앉아 낚시까지 하며 서두르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마치 독자들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독자들이 주인공 고양이 '루이'에 감정이입을 하면 자연을 실컷 누비며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다양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로 풀숲의 각종 곤충과 야생 꽃을 그려 최대한 실제 캠핑의 디테일을 살리고자 했다. 만약에 캠핑을 떠난다면, 이 책을 함께 가져가길 추천한다. 루이와 함께 책 속의 괭이밥, 하늘마리, 개망초, 섬초롱꽃, 달맞이꽃 등 다양한 풀꽃들과 박각시, 고추좀잠자리, 여치, 물잠자리, 넓적사슴벌레, 홍줄노린재 등 재미난 이름의 곤충들을 만나보는 재미가 한층 배가될 것이다.

저자의 또 다른 루이 시리즈,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를 읽어보면 고양이 '루이'가 참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고양이의 취미 이야기라는 색다른 표현 방식을 선택하고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재치 있는 그림과 글로 구성하였으니, 재미가 없을 수 없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이 이 두 책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배우고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안녕?!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하루거리

김휘훈 글·그림, -그림책 공작소, 2020.

추천대상: 초등 전학년. 노인
#옛날 어린이들의 질병과 치료방법이 궁금할 때
#친구가 힘들어할 때
#편안한 그림으로 마음의 휴식을 갖고 싶을 때

이 책은 한줄 한줄 글을 읽다 보면 독자가 마치 전래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해 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듯하다. 책의 내용은 노는 것이 일인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도 죽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큰집에 더부살이하며 밤낮 일만 하는 절름발이 순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다. 매일 일만 하는 순자가 언젠가부터 하루거리에 걸려 죽고 싶다고 말하자 또래 애들은 순자가 죽을 수 있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 도와준다. 죽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처음에는 섬뜩할 수도 있으나, 순자의 하루거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이 알려준 묘안들이 죽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하루거리란 요즘 말로 말라리아, 옛날 말로는 학질이라는 병이다. 장년이 된 나조차도 하루거리란 말이 생소하여 "하루거리가 밥 한 끼를 의미하는 한 끼 거리의 다른 표현인가?" 라는 무지한 생각까지 했다. 병명도 생소하여 나도 몰랐던 시간상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이해할까? 또한 죽고 싶다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아이들이 다양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보는 내용에 대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비록 경험해 보지 못한 옛날이야기를 한장 한장 그림을 보고 책을 읽다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열심히 살려는 어린 순자에 대한 연민과 순자를 도와주려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그림책 마지막 구절에 실린 "다행이지 뭐야 너 죽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니?"라는 글귀에서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엿보여 코끝이 찡해졌다.

이 책은 김휘훈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으로 작가는 할머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4년간 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었다고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낮은 채도의 수묵화로 그려져 단아함과 은은함이 한국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표정들이 책의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좋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그림책답게 그림으로 반전이 되는 물음표를 독자에게 던진다는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보이는 책 뒤편 작가의 말 아래 그려진 아이들과 책의 뒤표지 아이들의 모습과 구도가 똑같다. 그러나 아이들의 옷차림은 다르다. 하나는 과거의 아이들 옷차림으로, 또 하나는 현재 아이들 옷차림으로 차이를 두어 "순자처럼 오늘날에도 보호받지 못해 죽고 싶어 할 아이들이 없을까?"라고 작가가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듯하다.

또한 작가는 책 뒤표지에 현재의 아이들 그림과 더불어 순자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글도 써두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별일 없는 거지? 이따 갈게. 우리 또 같이 놀자!'와 같은 말로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순자를 위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안녕한 건지,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과거의 어린이들 모습과 그 시절, 병이 났을 때 쓰던 민간요법을 엿볼 수 있어 어린이들은 물론 어릴 적 모습을 추억할 만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읽어보면 공감이 될 것이다.

더운 여름에는 수박의 전설을 찾아서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태양 왕 수바 : 수박의 전설

이지은 글·그림 – 웅진주니어, 2023.

추천 대상: 유아, 초등저학년
#여름을 그림책과 즐겁게 보내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k-팝에도 그림책에도 음식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눈에 여럿 보인다. 가요에 팥빙수, 냉면 등의 노래가 있듯이 그림책에는 《수박수영장》을 선두로 《수박》, 《풀잎 국수》, 《꽁꽁꽁아이스크림》 등 여름을 대표하는 그림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태양 왕 수바》는 《팥빙수의 전설》, 《친구의 전설》 등을 쓴 이지은 작가의 신작이다.

이지은 작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화를 쓰는데 탁월한 작가로 동화 내용 자체가 유머스럽고, 그림체가 동글동글 사랑스러워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저자의 책 중 《이파라파냐무냐무》는 2021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유아 그림책 부분 대상 수상작으로 털숭숭이와 마시멜로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파라파냐무냐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국제도서전에서 한 해 동안

출간된 전 세계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내용·디자인·창의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2015년 전 부문에서 한국 그림책이 입상했으며, 2023년도에도 네 작품의 수상하면서 한국의 그림책 위상을 높이고 있다.

《태양 왕 수바》는 작가의 세 번째 전설 시리즈로 '수박'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전설 시리즈에서 등장한 할머니가 《태양 왕 수바》에도 여전히 인정 많고 털털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수바'가 등장한다. 누가 봐도 수박이지만 본인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보살피는 용이라고 한다. 둘머리 용의 욕심에 날개를 잃은 용은 할머니에게 날개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하늘나라의 용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어설픈 수바는 고난과 시련만 겪는다. 결국 할머니의 지혜로 수바는 날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수바는 용의 보물을 할머니께 주고 간다. 수바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보물을 꿈꾸던 할머니에게 준 용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용의 보물은 독자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이라고 주장하는 태양왕 수바의 2% 부족한 행동들과 그에 반해 평범한 할머니가 수바에게 날개를 찾아주는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되기에 그림책을 읽는 과정은 즐겁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설은 예전부터 믿기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었으니 말이다.

《태양 왕 수바》를 즐겁게 읽은 독자라면 이지은 작가의 전작을 읽어보거나, 여름을 포함한 계절 그림책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발간되어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작은 몸짓과 미소로 할머니가 남긴 것들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 책읽는곰, 2023.

추천 대상: 영유아, 어린이, 초등(저), 일반
#조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노란 비옷을 입은 손자와 머리에 두건을 쓴 할머니가 손잡고 꽃과 풀이 무릎까지 들어찬 뜰을 걷고 있다. 하늘의 뿌연 빛과, 인물과 꽃송이의 하얀 윤곽선이 눈부시다. 둘 사이의 다정함, 초록빛 자연의 풍성함에 어릴 적 한두 번은 보았을 법한 할머니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조던 스콧과 시드니 스미스가 만든 첫 그림책《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캐나다 시인 조던 스콧의 자전적인 이야기이다. 말을 더듬는 아이가 학교에서 '매끄럽고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해 느껴야 했던 좌절과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성장기가 감동을 주었다.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치는 거친 강물과, 아빠와 아들의 강한 심리적 연대를 시드니 스미스는 힘 있는 그림으로 전달했다.

그들의 두 번째 책《할머니의 뜰에서》도 기대한 대로 조던 스콧의 시적인 글과 시드니 스미스 특유의 그림을 통해 따뜻한 추억담을 들려준다. 하지만 이들 조손 간의 추억은 좀 특별하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2차 대전의 고난을 겪고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어가 서툴렀던 할머니 바바('할머니'를 뜻하는 폴란드어)와 말이 어눌했던

손자는, 말이 아닌 눈빛과 손짓, 웃음과 촉감을 통해 마음 깊이 교감했다. 작가의 언어적 특성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는 더욱 공감을 자아내는 지점이다.

작가는 전쟁과 배고픔, 이민자로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바바의 삶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고, 그런 바바를 많이 사랑했다. 늘 함께하던 지렁이 줍는 일을 아직도 아이들과 하고 있는 것은 할머니를 기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와의 추억은 오히려 언어를 통한 게 아니라서, 그때의 풍경, 날씨, 냄새 같은 배경과 함께 더 깊이 손자의 몸에 새겨졌을 것이다. 어른의 사려 깊은 보살핌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도 다시 되새기게 된다. 이민자의 후손이었고 말을 더듬었다는 작가의 배경은 이렇게 작가에게 특별한 창작의 토양이 되어 준 것 같다.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은 전작과 같이 윤곽선 없는 투박한 수채로, 어떤 장면은 눈코입도 없이 뭉툭하게, 어떤 장면은 주름의 음영까지 자세하게 그려진다. 마치 우리 기억이 어떨 때는 모호하고 어떨 때는 분명하게 남는 것처럼. 하얀 물감으로 부옇게, 때론 눈부시게 표현되는 빛이 그 시절 기억의 찬란함을 아쉽게 전달하는 듯하다. 그림책 말미, 할머니의 편안하게 미소 짓는 주름진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그는 2021년 케이트그린어웨이상 수상작 《괜찮을 거야》를 쓰고 그린 작가이기도 하다.

행복했으나 돌아갈 수 없어 더 안타까운 어릴 적 추억으로 잠시 독자를 데려가 주는, 더불어 그 안에 삶의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결핍이 녹아들어 여운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가진 아이나 그것이 이미 오래전 기억이 된 어른이나, 저마다의 특별한 감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홈런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너에게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홈런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너에게

하세가와 슈에이 글·그림 – 천개의 바람, 2021.

추천 대상: 초등학생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아이들

사회에 나가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마음으로 군에서 전역하고 나와보니 막상 이룰 수 있는 게 없던 시절, 어린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파란 표지의 그림책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림 자체는 거칠고 투박한 느낌으로 일본 특유의 느낌이 담겨있는 그림책이지만, 그런 부분이 야구라는 소재에 더 어울리고, 매력적이게 다가온다. 표지의 야구선수 방망이부터 인상 깊게 다가오는 책이다. 방망이를 주의 깊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보이고, 선수의 눈빛은 강렬하다. 마치 홈런을 꽝꽝 쳐낼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4번 타자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과 달리 제목은 '홈런을 한 번도 쳐보지 못한 너에게'이다. 제목부터 반전으로 시작되는 그림책이다.

2 대 4로 지고 있는 6회 초 1아웃 주자는 1, 3루이다. 홈런을 치면 역전하지만, 안정적인 건 스퀴즈로 한 점이라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감독의 선택은 힘껏 치라고 하지만, 나는 병살타로 이번에도 같은 팀에게 졌다. 시무룩해 하던 그날 저녁 심부름 길에 우연히 센 형을 만났고, 센 형은 시합에서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홈런을 치고 싶다는 나에게 뜻하지 않은 깨달음을 준다. 한 번도 홈런을 쳐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홈런을 칠 수는 없다, 유명한 선수들도 꾸준히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이룬 성과라는 말에 시무룩하게 포기하려는 나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 해보지 않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라는 말로, 자신감을 준다. 그렇게 나는 홈런 한 방이 아닌 안타를 먼저 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림책은 끝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한번에 큰 성공을 이룰 수는 없고 작은 성공을 이루는 과정이 반복되어야만 큰 성공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만 보이면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기보다는 큰 목표를 잡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어른들도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 상실감이 크다. 아이들은 오죽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 큰 성공,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 작은 성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려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 좌절하는 아이가 있다면 함께 읽으면서 다독여주면 읽어보자. 그러면 아이가 작은 목표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야구에 대한 흥미와 배경 상식이 있다면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이 그림책

어린이 문학

어린이 비문학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사계절	김은아	안양시 박달도서관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사계절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기소영의 친구들	정은주	사계절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내 친구가 마녀래요	E.L.코닉스버그	문학과지성사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	권삼중	키큰도토리	문정희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리루다네 통일밥상	박경희	한솔수북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무적말숙	김유	책읽는곰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복수의 초짜	임근희	책읽는곰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비밀전학	정란희	현암주니어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전경남	그린북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윤초옥 실종사건	전여울	사계절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하하 자매 떡집	김리리	비룡소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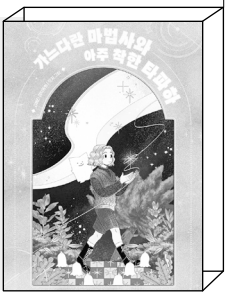
나에게도 마법 같은 (가느다란) 힘이 있어!

김은아 (안양시 박달도서관)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글 – 사계절, 2023.

추천 대상: 어린이, 성인
#다른 사람, 생명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어린이
#감수성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성인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라는 책의 제목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우선, 이 제목은 한글의 자모 순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에서 따왔을 것이고,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는 이 책의 주인공일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보통 주인공에 대해 표현할 때 '가느다란' 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위대한', '최강' 같은 멋진 수식어가 붙어야 이야기가 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아주 착한'도 좀 그렇다. 마법 판타지 소설에서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훌륭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주 착하면 '고난과 역경이 오지 않아 마법사는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것만 같다.

이 책은 이와 같이 기존 판타지 소설 설정에서 조금 엇나가 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을 유발한다. ''가느다란'의 의미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는데, 친절하게도 책 첫 문장에 설명이 있다. '가느다란 마법사는 가느다랗지 않다. …… 그런데도 왜 가느다란 마법사인가 하면, 가느다란 마법을 쓰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가느다란 마법이 뭔데… 하면서 책을 읽다보면 훌렁훌렁 페이지가 넘어간다. 아, 가느다란 마법은 눈에 들어간 눈썹을 빼내거나, 손에 박힌 가시를 뺄 때 쓸 수 있구나. 오, 마법사는 민들레 씨앗 같은 가느다란 힘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마법을 배울 수 있었구나.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마법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산대? 타파하는 언제 등장하는 것일까?' 하며, 읽는 내내 물음표의 연속이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다. 톡톡 튀는 작가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가느다란 마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된다. 아이의 터진 가방을 꿰매주고, 먼지 뭉치같이 작은 것들의 이야기와 작은 소망을 들어 주는 것들이 마법이라면. 그러나 이 마법들은 쉬워보여도 결코 쉽지 않다.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는 터진 가방을 알아챌 수 있는 세심함, 타인을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배우기는 어렵다. 가느다란 마법사가 마법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듯 다정한 마음을 공부해야 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테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다정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마법학교 참고서 같다. 부디 작가가 남은 상상력 주머니를 털어 이야기를 길게길게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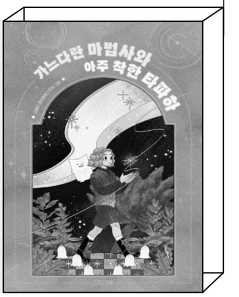
천천히 발견하는 ‘가느다란’ 마법의 매력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글, 모차 그림·사계절, 2023.

추천대상: 어린이, 초등(중)
#이야기의 순수한 재미에 빠지고 싶은 사람에게
#글자가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재생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전엔 반드시 제목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를 천천히 한 번, 빠르게 또 한 번 소리 내어 읽어봐야 한다. 이 중얼거림은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는 주문 같은 것이 되니 말이다. 연보라색으로 은은하게 얼룩진 표지의 웨이브단발 주인공은 마법사란 단어와 함께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를 떠올리게 한다. 단 가느다란 마법사는 먼지나 실, 빨대처럼 ‘가느다랗고 작은’ 것들을 마법의 재료로 삼아 작은 모습을 한 작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이 차이가 ‘스케일’의 차이로 치부되지 않는 것은 개개의 개성과 특징이 존중받는 요즘의 경향 덕이겠다.

작가 김혜진은 《집으로 가는 23가지 방법》, 《일주일의 학교》 같은 최근작들 외에도 〈아로와 완전한 세계〉 시리즈를 쓴 한국형 판타지 아동문학 작가로 소개된다. 땅에서 약간만 발이 뜬 상태라고 할까, 웅장하지 않아서 현실감 있는 판타지라 아이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도 당연히, 당면한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그들에게 익숙한 배경과 소재 안에서 개성을 존중하는 열린

조언으로 답해 나가는 저자의 어법이 이 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가느다란 마법사는 갓 졸업한 마법학교를 아직 그리워하는 풋내기 마법사다. 작은 것들을 살피느라 길을 잘 잃는 그는 헤매지 않기 위해 그린 마을 지도에 고양이가 누운 자리와 들리는 피아노 소리 같은 것들만 기록해 역시나 길을 잃는다. 그다지 착하지 않은 종이-책 '타파하'는 투덜거리면서 길을 이끌고, 누군가에게 쓸모 있고 싶어 이용당하길 잘하는 먼지 뭉치 '쓸모'는 때때로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너와 하나로 묶이는 이름을?"

"안 그러면 넌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스미듯 글씨가 사라졌다가 필요한 정보를 띄워주는 종이-책, 납작해졌다 부풀었다 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먼지 뭉치와의 기발한 버디 케미는 판타지에서 빠질 수 없는 기대 요소다. '서리'가 무시무시한 악당이었던 이번 모험 이후에도 이 사소하고 따뜻한 히어로의 여정은 이어질 예정이다.

'영상의 시대'라 해도 무리가 없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높이 대접받는다. 상대적으로 책의 '이야기'는 영상의 원작이 되어서야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만화 같은 이런 그림체의 시리즈라 하면 요사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캐릭터 만화책들에 놀란 가슴에 의심 섞인 실쭉한 눈으로 뒤적이게 된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이야기'로부터인 경우가 십상이다.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와 문장,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진 마법사, 넘쳐흐르는 상상력의 산물을 담은 이 책은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을 북돋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슬픔을 가르쳐 주세요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기소영의 친구들

정은주 글, 해랑 그림 – 사계절, 2022.

추천 대상: 어린이
#죽음과 애도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이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한다. 커다란 상실감을 안고 일상을 마주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죽음은 삶과 맞닿아 있기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쩐지 아직 서투르다. 어른도 어려워하는 일을 어린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는 아직 죽음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단 아이들이 충격을 받거나 힘들어할까 노심초사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아무도, 어디에서도 아이들이 상실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기소영의 친구들》은 어린이들이 죽음이라는 낯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시해주는 작품이다. 정은주 작가는 창작 이전에 《친구들: 숨어 있는 슬픔》이라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의 친구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네가 가족이라도 되냐는 핀잔을 듣고 어른들 몰래 장례식을 찾았다는 한 아이의 말에 가슴을 쾅 때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이 충격을 계기로 작가는 사별의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 어른들 사이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아이들이 부디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슬퍼하지 않길 바라며.

채린이는 교통사고로 소영이가 부모님과 함께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반장이었던 채린이는 어색한 기분으로 국화 꽃다발을 가져와 소영이의 책상에 올려두지만,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러다 소영에게 고마웠고 미안했던 일들을 비롯한 많은 추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며, 소영이의 부재를 체감하고 서로를 위로한다. 자신만 알고 남에게 무신경하던 채린이는 다른 이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며 감정적으로 한층 성장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나누는 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슬픔이나 상처는 그저 빨리 벗어나고 잊어야 할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슬픔이나 상처야말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봐요. 물론, 잘 헤아려 주고, 위로해 줄 때 말이지요." *(출처: 사계절 작가 인터뷰)*

작가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죽음과 애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직시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의 이별이 다가온다면, 가족이 함께 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세 아이가 만나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름날의 아름다운 동화 《여름이 반짝》 또한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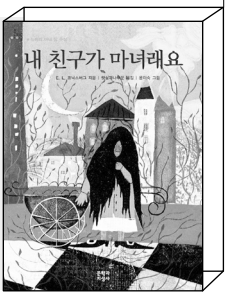
제니퍼와 힐러리 에즈라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내 친구가 마녀래요

E.L.코닉스버그 글, 윤미숙 그림, 장미란 옮김
– 문학과 지성사, 2000.

추천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학기 초 교실 안 낯선 환경에 놓인 초등학생



청교도의 낡은 가죽 구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속옷, 긴 속치마를 입은 제니퍼는 어느 날 엘리자베스와 처음 만납니다. 새로 이사 온 엘리자베스에겐 친구가 없었고, 학교에서 유일한 흑인 학생인 제니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자기주장이 강한 엘리자베스와 매사에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제니퍼에게 학교 친구들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린 책, 《내 친구가 마녀래요》는 제니퍼와 엘리자베스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뛰어난 외모와 성격 그리고 성적으로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특별한 아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공부와 놀이를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모두 모여 한 학급을 이루며 생활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과 적응을 위한 시간은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하루 대부분을 함께 지내야 하는 아이의 생각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른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를 '심술쟁이'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까다로운 아이'로 어른들이 단정 지었던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도와줍니다. 저자 E.L 코닉스버그가 발표한 이 작품은 1968년에 발간되어 기존의 어린이 문학과 다른 캐릭터들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 친구가 마녀래요》와 《클로디아의 비밀》은 동시에 뉴베리상 후보에 올라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않는 어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만난 두 친구.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들이 함께 가졌던 꿈과 화해의 과정은 읽을수록 깊이 빠져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내 친구가 '마녀'라는 설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선에서 묘사되는 제니퍼의 진실은 이야기를 더할수록 혼란스러워서 아이들이 주인공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추리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과정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이 책에서, 엉뚱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어린이들과 이들을 애정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녀와 마녀가 되는 과정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사랑스러운 도서입니다.

꼬비가 알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문정희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 : 꼬비와 함께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법

권삼중 글, 현숙희 그림 – 키큰도토리, 2022.

추천 대상: 초등(저), 도서관 사서(교사)
#자녀에게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자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도서관 이용교육을 위한 사전 읽기 자료

도깨비는 머리에 커다란 뿔, 어깨에는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맨 모습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상의 존재이다. 그런 도깨비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학교도서관에 나타났다. 꼬비는 도깨비 마을에 살고 있는 도깨비 대왕의 아들이다. 꼬비는 어느 날 우연히 도토리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물건을 가지고 마을 도깨비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마냥 신기한 꼬비는 도서관에 가서 다른 책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책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이야기, 지식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란다."

"인간은 책과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에 간다는 이야기구나."

집으로 돌아온 꼬비는 책을 자신의 방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아빠인 도깨비 대왕에게 들통이 난다. 불행하게도 이 책은 도깨비 대왕이 금지한 책이었다. 꼬비는 매번 아빠를 화내게 하는 자신은 대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며 잠시 도깨비 마을을 떠나 인간 세계에 가기로 결심한다. 가출한 꼬비가 다다른 인간

세계는 학교도서관이다.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는 권삼중 작가가 쓴 동화책이다. 작가는 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서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책이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얼핏 보면 주인공 꼬비는 뿔도 없고 방망이도 들고 있지 않아 인간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도깨비 특유의 뾰족한 송곳니와 뾰글머리를 하고 있어 상상 속 도깨비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꼬비의 모습은 마치 '개구쟁이', '까불이', '어린 악동'을 연상케 해 왠지 모를 친근함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이 책에서는 꼬비가 도깨비 마을을 떠나오면서 가져온 감투와 안경이라는 소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깨비 안경은 책수레, 바코드 리더기, 대출, 반납, 한국십진분류(KDC), 청구기호 등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소재인 반면, 도깨비 감투는 책을 숨기려는 아이와 책을 못 고르는 아이의 마음 읽기를 통해 올바른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전체 분량은 100쪽이 조금 넘지만 대신 글자 크기가 크다. 책 내용의 80% 이상이 삽화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초등 저학년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이야기 장과 장 사이에 도서관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한 '깨비깨비 뚝딱! 도서관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도서관에서 자녀에게 도서관에 대한 사전 이해자료로의 활용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저학년 대상의 도서관 이용법 교육 시 사전 읽기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도서관 사물들을 표현한 앞표지의 일러스트와 학교도서관 내 구성된 공간을 표현한 책 뒤표지의 일러스트는 매우 유용한 도서관 이용법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도깨비 이외의 외계인과 박쥐를 주인공으로 한 박미숙, 최향숙 작가의 《도서관에 간 외계인》, 브라이언 라이스 작가의 《도서관에 간 박쥐》도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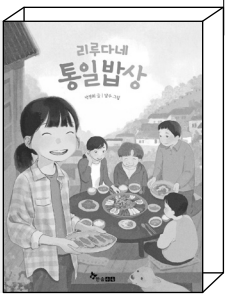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리루다네 통일밥상

박경희 글, 남수 그림 – 한솔수북, 2021.

추천대상: 어린이
#탈북 청소년의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탈북청소년들의 스피커'라 불리며 탈북청소년들을 만나 읽고 쓰는 일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온 작가가 바로 박경희 작가이다. 박경희 작가는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박경희 작가가 남북 음식의 다름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이 동화에서는 통일밥상, 환상촌, 남남북녀의 결혼, 남과 북의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루다의 엄마는 한국에 온 후 많은 도움을 받아 대성이의 아빠와 가정을 이룬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한국에 도착한 루다는 꿈에 그리던 엄마를 만나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상황이 낯설고 늘 외롭다. 철부지 같고 생각 없어 보이고 식탐이 많은 대성은, 북에서 온 루다와 투닥거리면서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남매가 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루다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유기견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성을 쏟는다. 외로움을 달래는 루다만의 방법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운영하는 음식점 서울 옥류관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손님들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옥류관의 음식에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손님은 나날이 줄어간다. 장사로 돈 많이 벌어서 잘살아 보겠다는 부부의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같은 일이 일어난다. 북한에 계시던 할머니가 기적처럼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통일 가족이 된 것이다. 솔직하기로 유명한 할머니는 음식 맛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작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루다와 대성에게 수시로 잔소리를 하지만 한국에서 맞게 된 자유로움에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옥류관의 저조한 판매량에 걱정을 하다가 본인이 직접 발 벗고 나선다. 북한식 음식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장을 담그면서 옥류관을 일으키신다. 식당 이름도 '환상촌 통일밥상'으로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 루다와 대성도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식당에 손님도 붐비기 시작하는데…….

한가로운 주말, 온 가족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통일전망대로 나들이를 간다. 북에서 온 가족은 고향땅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쪽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

이 책을 통해 탈북 청소년의 고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리루다네 가족에게 투영시켜 보면서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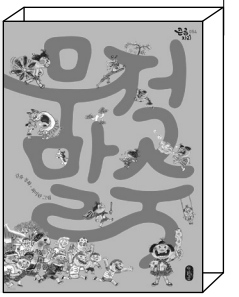
어린이의 전형적인 군상을 유쾌하게 풀어낸 나와 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무적말숙

김유 글, 최미란 그림 -책 읽는 곰, 2021.

추천대상: 어린이
#배꼽 잡고 웃고 싶은 모든 어린이에게
#책 읽는 습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떼고 독서를 막 시작할 어린이에게



아이들에게 책 속의 이야기는 무한한 상상 속 세계와 익숙한 현실 사이 어딘가에 있다. 아이들은 창작 동화를 바로 앞 동네 철수의 이야기, 혹은 뒷동네 영희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에 이 동화는 결코 누군가가 만들어 낸 허무맹랑한 세계가 아니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딘가 살고 있고 곧 만나게 될 친구들이기도 하다. 이 주인공들은 때론 나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때론 옆집에 사는 친구 철수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에 아이들에게 동화는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렇기에 동화 속 주인공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지, 어떻게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라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서는 입버릇처럼 "엄마! 나도 ○○처럼 될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경험했을 것이다. 어떠한 콘텐츠를 보든지 아이들은 배운다. 그러하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화 작가들의 사명은 실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유 작가의 큰곰자리 시리즈 창작동화는 이러한 면에서 동화책 작가들의 모범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겁보만보》는 2015년 큰곰자리에서 출판한 큰곰자리 시리즈 중 하나이다. 겁이 많은 아이 만보가 사건을 통해 당당한 아이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만보의 이야기 속에 잠시 등장하는 말숙이의 이야기가 6년 만에 이어져 《무적말숙》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만보와는 반대로 누구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겁 없이 당당한 여자아이 말숙이가 사건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이다. 《겁보만보》를 재미있게 읽은 독자들이라면 《무적말숙》이 출간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궁금증으로 호기심을 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말숙이의 친구로 등장하는 '고미'의 이야기 《백점백곰》이 올해 2023년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 실로 아이들의 군상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김유 작가 특유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리즈에 나타나는 장치인 세 고개 넘기 클리셰는 각각 독특하게 진행되면서도 서로 닮아 있기에 독자들은 더욱 이야기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책을 보는 아이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배꼽 빠지게 깔깔거리고 뒹굴며 마음껏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사라진다. 어느새 아이가 스스로 주변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 명작을 읽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웃음 포인트를 잘 알고 표현한 이 책을 선물하여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조금이나마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한다.

영원한 초짜는 없다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복수의 초짜

임근희 글, 남수 그림 – 책읽는곰, 2021.

추천 대상: 초등(고)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해 보며 상황 속에 자신을 대입해 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동화집《복수의 초짜》는 아동문학 작가 임근희 작가의 단편 동화 5편을 엮은 것으로, 표제작 〈복수의 초짜〉를 포함해 어린이의 일상과 감정을 세심히 살핀, 초짜와 달인이 두루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임근희 작가는 2009년 어린이동산 중편 동화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2011년 푸른문학상 공모에서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했고,《곧 재능 교환이 시작됩니다》,《도둑 교실》등 꾸준하게 어린이문학 작품을 발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아동문학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작품집의 여러 매력 중 '복수의 초짜'라는 표제는 가히 환상적이다. 타이틀롤을 거머쥔 진모가 알게 되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제목이 주는 어감의 귀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입에 착 달라붙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리고 남수 작가의 그림으로 생생히 표현된 '초조하고 못마땅해 보이는 진모'가 책 표지에 등장한 이상, 독자들은 얼마나 답답한 복수의 초짜가 등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5편의 작품에는 짜증을 유발하고, 서툴고, 미운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성격의 어떤 부분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일견 못나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도 당장 자신을 낮추고 속상해할 일은 아닌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5편의 작품 속 어린이들에게 누구보다도 진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며 성장의 실마리를 남겨 준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겪은 속상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어찌할지 모르겠는 일도 결국 초짜와 달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헤쳐 나가고, 이 과정에서 운 좋으면 얼추 한 단계 성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보여 주며 작가는 상대방이 있기에 자기 자신이 입체적인 인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따뜻함을 담아 말해 주는 듯하다.

한편 '달인'의 면모를 보여 주는 어린이들은, 난데없이 '어린이'를 '초보'라는 뜻의 접미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게 무안을 줘 버린다. 그들은 어린이라서 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님을, 능숙하고 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색내지 않고도 의지가 되어주는 강인함을 보여 주며 의도하지 않게 증명해 낸다.

5편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후에 이어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방향으로 끝을 맺는다.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이 맺는 관계는 또 얼마나 변화무쌍할지 이들의 나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그려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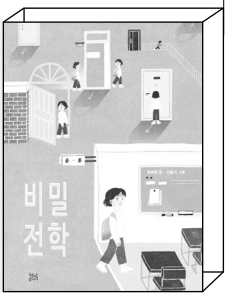
웃음 목록 ○○번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비밀전학

정란희 글, 신슬기 그림 – 현암주니어, 2022.

추천 대상: 어린이, 일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가정 폭력의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가정 폭력의 실태를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이들에게



'비밀전학'. 처음 듣는 단어였다. '비밀'이란 말이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단어로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마법을 부리는 아이의 비밀스러운 전학이란 뜻이 아닐까 추측하며 책장을 넘겼다. 첫 페이지를 마주하자마자 창작동화인 만큼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걱정 마. 네가 여기로 온 건 아무도 모를 거야. *(7)*

가정 폭력으로 엄마와 동생이 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가게 된 학교였다. 폭력을 행사한 '아빠'라는 남자를 피해 조심스럽게 학교를 옮긴 것이다. 전에 다니던 학교도, 전에 살던 곳도, 지금 사는 곳도 모두 비밀이어야 하는 아이. 아이는 내내 웃지 않는다. 그동안 아이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짝꿍 진우에게도 폭력으로 멍든 엄마를 생각하면 웃어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웃음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집도 잃었다. 엄마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주어진 모든 것들에 6개월짜리 유통기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쉼터가 딱 6개월간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천진난만하게 또래 아이들과 장난치며 환한 웃음을 지어야 할 아이에게 아빠의 폭력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괴물이었고, 아빠를 피하려고 모든 것이 비밀이어야 했던 아이가 그나마 속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행복을 찾고 난 후 웃어줄 사람들의 목록 덕분이었다. 목록은 이런 식이다. 《웃음 목록 13번 교장 선생님에게 웃어주기》. 이 목록을 만들려고 주인공 다미가 마음먹을 때마다 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에게 쉼터가 들킬까, 또 친구들에게 쉼터에 사는 게 알려질까 피 말리는 상황에 놓인 아이의 마음속에 이처럼 13명의 따뜻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도 웃음 목록 번호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전학이란, 가정 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갈 때 아동 학대 행위자,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수를 늘리려는 지자체의 세금 퍼주기식 정책보다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사회적 시설과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죽어간 아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선으로 배려를 실천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희망사항, 이런 선생님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전경남 글, 지우 그림 – 그린북, 2021.

추천 대상: 초등 저학년
#전학생들에게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선생님과 상담하고싶은 어린이들에게

책의 앞뒤 표지에 글도, 그림도 많다. 언뜻 보면 표지의 그림이 산만해서 이 작가는 그림으로 줄거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도 싶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뒤표지에 '여러분 곁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나요?'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어떤 선생님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증으로 책에 절로 손이 가게 되는 질문이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선생님과 연관된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전경남 작가의《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는 바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를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좀비놀이〉, 〈선생님 강아지는 깜지〉라는 세 이야기로 나누어 풀어간다.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에는 초등 2학년 진이가 감옥에 간 엄마에 대한 상담을 선생님에게 신청하는 내용이다. 진이의 사연만으로도 독자들은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증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어려운 상담에서 과연 선생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음 〈좀비 놀이〉는 바닷가 근처 학교에 다니며 자연과 함께 지냈던 시아가 전학을 온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학을 가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아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돌출행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힘겨워한다. 그때 시아의 선생님은 화를 내는 대신 슬기롭게 시아를 도와준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선생님 강아지는 깜지〉는 선생님네 강아지를 잃어버려 모두들 함께 찾아나서는 이야기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강아지 깜지 이야기만이 아니다. 강아지를 통해 작가는 기억력이 없어진 할머니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노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이고 싶다는 할머니 선생님의 마음은 교사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선생님 모습을 이해하게 만든다. 게다가 '어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책의 내용이 짧은 에피소드 세 개로 각기 구성되어 집중력이 약한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려견, 좀비 놀이에 관한 이야기라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 보인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책 표지의 그림이 책의 제목인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의 내용으로만 그려져 세 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책 표지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표지 그림에라도 다른 에피소드들을 반영했더라면 더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전경남은 제4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며, 그림을 그린 지우 작가는 판화 전공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주목받는 두 사람이 모여 만든 이 책은 우수 작가를 지원하는 2020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예전의 엄근진(엄격,근엄,진지)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선생님 상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좋은 선생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님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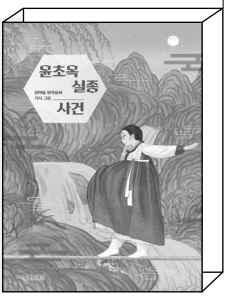
외줄타기를 선택한 아이들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윤초옥 실종사건

전여울 글, 가지 그림 – 사계절, 2023.

추천대상: 초등 고학년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윤초옥 실종 사건》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삶보다는, 남들과 다른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도전하는 세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 한이해, 윤초옥, 홍단은 각기 신분이 달라,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시대적 배경이 양반과 천민 등 신분이 엄격한 상황에서 태어났기에 아이들은 주어진 신분과 고정관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신분, 고정관념을 깨고 책 속 구절처럼 '제 정신이 아닌 이들끼리 세상 무너질 일을 같이 하자'며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내용이다.

책이 처음은 열세 살 윤초옥이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와 집안의 유모 운산댁과 함께 절에 기도를 올리러 가던 중 산적에게 납치되어 실종되는 일로 시작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독자들은 아마도 제목처럼 조선시대판 추리소설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실종 사건의 내용은 그 후 언급되지 않고, 실종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내용으로 열세 살 사내 아이 한이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해의 아버지는 사당패 리더 격인 꼭두쇠로 줄타기 꾼이다. 이해는 아버지처럼

줄타기 꾼의 업을 이어받아야 되지만, 줄타기보다는 담장이라는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얼굴을 꾸미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이해는 자신의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얼굴이 바뀌는 게 흥미롭고 좋지만, 이해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시대의 관점에서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기에, 이해가 화장을 한 모습을 본 이모같던 주모가 낯선 눈빛으로 본다는 것을 느껴 충격을 받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에 뛰쳐나가 찾아간 서낭당에서 남장을 한 기묘한 분위기의 초옥 아가씨를 만나게 된다. 이해는 사내아이지만 담장에 흥미를 갖고, 양반 아가씨 초옥이는 이해가 하는 줄타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둘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한다. 초옥이가 줄타기를 이해에게 배우는 대신 이해는 초옥 아가씨의 담장 도구들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또 다른 몰락한 양반의 딸 홍단이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 견습 기녀로 입문해 거문고 예인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데.

홍단이가 양반인 초옥의 줄타기가 한낱 장난처럼 여겨져, 초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줄타기 시범을 보인다면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초옥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세 아이의 꿈은 어찌 보면 시대를 거스르는 꿈일 수도 있다. 지체 높은 양반 초옥이 천하다고 인식된 사당패의 줄타기를 하고, 여자들이 하는 화장인 담장을 사내아이가 하고, 화류계라고 천하게 생각되었던 기녀가 되어 거문고 장인이 되는 일들은 열세 살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에는 다소 모험처럼 보인다.

책을 다 읽고 나니, 표지에 그려진 외줄을 타는 초옥이처럼 이해와 홍단이도 각 자의 외줄을 타야하는 모험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책의 한 구절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추리소설만큼 쫄깃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초등 고학년들이 읽으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작가 전여울은 대산대학문학상 동화부문을 수상한 뒤 동화작가로 등단한 젊은 작가이다. 독서의 달 행사로 전여울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했는데 젊은 작가님이 풋풋한 진심이 아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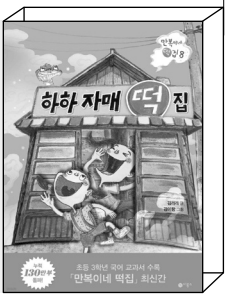
웃음을 불러오는 신기한 떡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하하 자매 떡집

김리리 글, 김이랑 그림 – 비룡소, 2023.

추천대상: 초등 저학년
#형제·자매 사이가 나빠진 친구들에게
#웃음을 잃은 친구들에게



《하하 자매 떡집》은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으로 8번째로 출간된 책이다. 《만복이네 떡집》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과 행동을 툭툭 내뱉고 마는 만복이가 신비한 떡집을 만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준 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책이기도 하다. 《만복이네 떡집》 후 출간 계획이 없던 작가는 독자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10년 만에 《장군이네 떡집》을 발간하고, 연이어 《소원 떡집》, 《양순이네 떡집》, 《달콩이네 떡집》, 《둥실이네 떡집》, 《랑랑 형제 떡집》, 《하하 자매 떡집》을 차례로 집필한다.

《하하 자매 떡집》은 사이가 좋았던 언니 수하, 동생 보하의 이야기로 웃음을 잃었던 자매를 예전처럼 사이좋게 하기 위해 떡을 만드는 꼬랑지와 왕구리의 이야기이다. 혼자 떡을 만들기 위해 바빴던 꼬랑지를 위해 《랑랑 형제 떡집》부터 삼신할머니는 왕구리를 보내준다. 왕구리는 꼬랑지가 만든 떡을 무사히 배달하기 위해 고양이의 괴롭힘에도 버티내고, 거센 빗줄기에도 쓰러지지 않는 등 고군분투한다.

떡집에서 꼬랑지가 만들어 내는 떡도 눈길을 끈다. 이번 책에 등장한 떡은 사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예쁜 꼬리떡"과 웃음이 멈추지 않는 "웃기떡", 미래가 보이는 "밀전병" 등 3가지 종류이다. 세 가지 떡 모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떡을 작가가 조사해서 인용한 것으로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 또 책을 읽는 독자 모두의 침샘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런 맛있는 떡을 바로 먹을 수 있다면 동화가 아니다. 각각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달달한 추억",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 "떡을 먹고 달콤한 꿀잠" 등의 마지막 비법 재료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이 필요한데 하하 자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웃음을 얻는 데 난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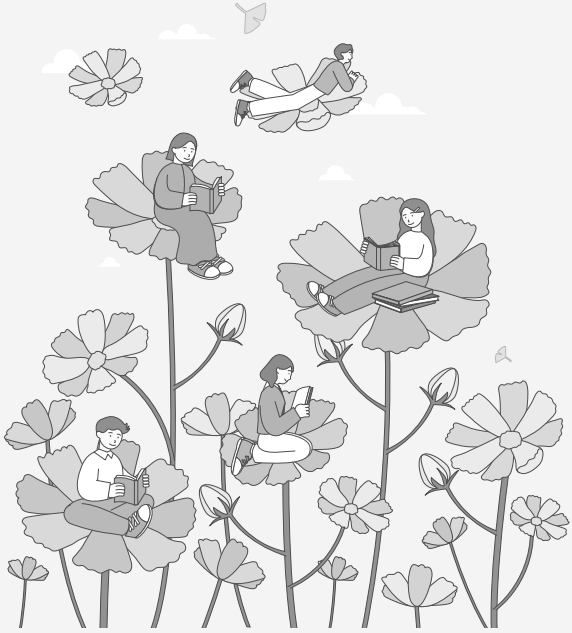
전작들에서 작가가 주인공이 결핍이나 상처를 보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야기 또는 주인공과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면《랑랑 형제 떡집》부터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다룬다. 그래서 이 책을 초등 저학년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같이 읽기를 슬며시 추천한다. 이 책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은 후속작이 또 나올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한 떡집 간판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책은《만복이네 떡집》부터 시작하여 시리즈로 출간되었지만 어느 편부터 읽어도 이야기가 재미있고 아이들이 읽기도 쉬어 초등 저학년 어린이부터 읽기를 적극 추천한다.

어린이 그림책

어린이 문학

어린이 비문학

끝없는 우주 이야기	에드비제 페출리 외	아울북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법 따라 나이 따라	이순혁	사계절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상처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김윤나	북라이프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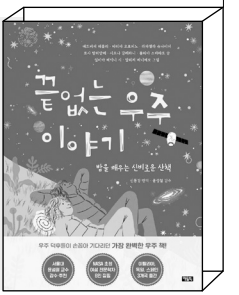
밤하늘로 떠나는 다정한 우주 산책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끝없는 우주 이야기: 밤을 깨우는 신비로운 산책

에드비제 페출리 외 글, 알리체 베니에로 그림 – 아울북, 2023.

추천 대상: 어린이, 청소년
#최신 천문학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알고 싶을 때
#생활 속 과학을 배우며 가족 또는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우주, 은하수, 빅뱅, 블랙홀. 굳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들이다. '은하수'나 '별자리'는 왠지 낭만적이고 친근한데, '천문학'이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독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책《끝없는 우주 이야기》를 소개한다. 초등학생인 주인공은 오래전 언니와 약속한 대로 밤 산책을 떠난다. 언니는 천체물리학자로서 동생에게(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자에게) 별을 관찰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제 구름 없이 맑은 밤, 하늘을 보고 누운 자매의 눈에 끝없는 우주가 펼쳐진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데, 6명의 공동 저자가 모두 이탈리아의 여성 천문학자라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모든 페이지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이해를 도와주고 곳곳에 감성적인 시가 적절히 등장하여 눈높이를 맞춰주는데, 이들 일러스트레이터와 시인 역시 이탈리아 여성이다. 저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순수한 호기심과 궁금증, 탐구 능력 등을 잘 이끌어 내며 세심하고 자연스럽게 우주의 세계로 인도한다. 또한 과학의 역사에서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지 못했던 뛰어난 여성 과학자들도 소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자매가 별 관찰을 시작으로 빅뱅, 빛, 은하, 블랙홀, 태양계 등을 차례로 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용어와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독자가 궁금해할 사항을 골라내서 알려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준다. 어려울 수 있는 '빅뱅이론'은 풍선에 점 찍고 불어보기로, 달의 한쪽 면만 보이는 현상인 '동주기자전'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돌아보기로 쉽게 설명한다. 그 밖에도 생활 속에서 함께 해볼 수 있는 놀이가 여럿 소개되어 있는데,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놀이는 감수자인 윤성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감탄한 명쾌한 방법이다.

현재의 천문학과 우주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쉽고 재미있어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은 물론 어른들도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다. 우주에 대해 더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한 안내도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선정한 2023년 상반기 올해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주에는 시간의 비밀과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 새겨져 있어."(11)라는 언니의 말을 점점 이해하며 질문을 쏟아낸 동생은 "과학은 참 멋져! 어떤 질문을 하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잖아."(191)라며 다시 질문을 이어간다. 끝없이 이어지는 우주 이야기, 가족 또는 친구와 다정하게 산책하며 즐겨보기를 권한다.

모두가 알아야 할 밥이 될 법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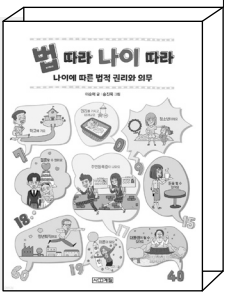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법 따라 나이 따라: 나이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

이순혁 글, 송진욱 그림 – 사계절, 2023.

추천대상: 초등 고학년, 청소년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려줄 때
#나이에 따라 알아야 할 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할 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름 괜찮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든다. 어른들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들도 나이별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에 관한 내용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0살부터 14살까지, 2장은 15살부터 19살까지, 3장은 20살 이후, 4장은 법의 구조와 법 조항 원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태아인 0살부터 70살까지 인생을 나이별로 구성하였다. 또, 내용은 주로 줄글로 표현하였으나 내용 중간중간 삽화로 쉽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나이에 따른 범죄 처벌 절차를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은 어린이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권리에 따른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했다.

이 책의 돋보이는 서술 방법은 나이별로 알아야 내용을 책의 상단에 관련법을

언급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사례 등을 확장해 그다음 페이지에 설명한 점이다. 어린이들은 법에 저촉될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그 생각이 무지한지 알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나이별로 알아야 할, 지켜야 할 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 학부모가 알아야 내용도 서술되어 있어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다만, 작가가 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그림과 예시를 부가하여 한 점은 돋보이나, 아무래도 법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소 어렵기도 하기에 속도감 있게 읽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읽고 바로 습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요즘 방송이나 대중매체를 보면 촉법소년, 청소년 범죄 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읽어 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눠 보고 어른이 부연 설명도 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 보인다.

저자 이순혁 작가는 한겨레신문사 기자로 기자 생활의 절반을 경찰팀과 법조팀에서 보낸 경력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독자로서 신뢰감이 간다. 이 책은 '반갑다 사회야 시리즈' 31번째 도서이다. '반갑다 사회야 시리즈'는 사회 현상과 용어를 다룬 특화된 도서인데, 지역과 사회에 관심이 생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과 촉법소년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할 청소년에게 유익한 책으로 추천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똑똑한 말하기로 나와 친구의 마음 지키기!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상처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김윤나 글, 유영근 그림 – 북라이프, 2023.

추천대상: 초등 저학년 이상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만약,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떨까?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같이 보이는 데 학교에 간다니, 부모의 마음은 학교생활의 기대감보다 걱정스러움이 앞설 것이다. 학교에서 혹여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친구들하고는 잘 사귀고 수업 시간에는 잘 따라갈지 우물가에 아이를 보낸 것처럼 말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면, 친구들 사이에서 괜한 갈등을 일으키면 어쩌나 염려된다. 반대로 평소에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잘 참는 아이라면, 기가 센 아이들에게 밀리지는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 책에는 친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상황 59가지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이 에피소드들을 '상처 주는 말' 10가지 주제로 묶여 있는데 상황별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만화가 그려져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사실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잠깐! 이럴 땐 이렇게 말해 볼까?'를 읽으면서 화내지 않고, 참지 않고, 울지 않고 똑똑하게 할 말 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다.

아이에게 현명한 말이 안 나와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는 이 책의 부모님 가이드 '내 아이와 똑똑하게 대화하기'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능력은 친구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말을 잘 못해서 힘들 때가 있듯이, 올바른 말하기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상처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이란 책은 아이와 부모가 같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이다.

부모는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고 아이는 그런 부모에게 존중과 배려의 표현들을 자주 들으며 성장해야 내면의 구심력이 커진다. 현명한 부모 밑에 현명한 자녀가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부모는 아이에게 똑똑한 말을 많이 경험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통 상담가'이자 '마음연구소 소장'인 저자의 언어 및 말에 관한《말 그릇》,《리더의 말 그릇》,《슬기로운 언어생활》이란 책도 함께 읽어보면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가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책

일반 성인을 위한 책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10대를 위한 나의 첫 건축 수업	대니얼 윌킨스	시프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1의 들러리	김선희	소원나무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	케이틀린 도티	사계절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극복하고 싶지 않아	김혜정 외	마음이음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정유정	비룡소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	타니아 로이드 치	별숲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느티나무 수호대	김중미	돌베개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다이브	단요	창비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예바 스칼레츠카	생각의힘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꽃님	우리학교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장 뤽 포르케	서해문집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드림레코드	이혜린	다림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마리오네트의 춤	이금이	밤키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도나 바르바 이게라	위즈덤하우스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벼랑	이금이	밤티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붉은 무늬 상자	김선영	특별한 서재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사라진 소녀들의 숲	허주은	미디어창비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공주영	주니어태학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소희의 방	이금이	밤티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양아치의 스피치	네온비	문학동네	안여진	화성시 늘봄이음터작은도서관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	마쓰모토 도시히코	우리학교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황효진	창비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어쩌다 시에 꽃혀서는	정연철	위즈덤하우스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위대한 철학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	이준형	빅피시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저스트 어 모멘트	이경화	탐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질라래비 훨훨	김종록	다슬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청소년 비건의 세계	박소영	휴머니스트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치도	주니어RHK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클로버	나혜림	창비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페퍼민트	백온유	창비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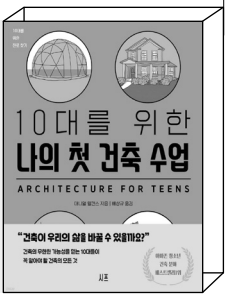
꼭 알아야 할 건축의 모든 것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10대를 위한 나의 첫 건축 수업

대니얼 윌킨스 글, 배상규 옮김 – 시프, 2021.

추천대상: 청소년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은 청소년에게



《10대를 위한 나의 첫 건축 수업》을 쓴 대니얼 윌킨스 작가는 미국 건축가 협회 준회원이자 왕립예술학회 회원, 조지아공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공공시설 설치 작업, 대지 조사 작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진행하는 경력 있는 전문가이다. 이 책은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전문가의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건축가를 꿈꾸는 10대들을 위한 건축 입문서로 아마존 청소년 건축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할 정도로 매력적인 도서이다. 이 작품은 기술과 창의성, 공학, 심리학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건축이라는 분야의 청소년을 위해 쓴 입문서이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건축학의 세계로 초대, 2장은 건축가가 건물을 지어가는 방법, 3장은 건축가가 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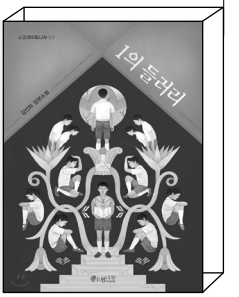
장은 건축가가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5장은 건축에 대한 교육과정 및 진로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서의 구성을 통해서 건축을 구성하는 구조, 기능, 경제성, 예술성, 지역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건축이라 생각하는 일인 주거 및 산업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과 경관, 도시계획 등 다양한 건축 분야와 건축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글로만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혁신적인 건축물들을 건축가가 스케치북에 그린 듯한 매력적인 그림을 통해 설계의 진행 과정과 건축물을 보여 준다. 또한, 건축의 의미를 주거에서만 찾지 않고 건축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쉽게 보여 주고 있다.

건축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병실이 부족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공공 작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임시 병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 사무공간 등 건물의 공간 계획도 새로이 고안했다고 한다. 이처럼 건축가는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을 위해 건축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고려하며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유명한 건축가들의 업적을 알 수 있고 현직 건축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건축가들이 어떠한 목적과 이상을 건축물에 녹여냈는지 들여다 보면서 미래의 건축가가 될 청소년들이 건축의 세계에 대해 꿈을 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건축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삶의 풍경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건축이라는 매력적인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안내서이다.

유령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1의 들러리

김선희 글 – 소원나무, 2019.

추천대상: 청소년, 성인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조명한 글을 읽고 싶을 때

《1의 들러리》는 청소년의 가려진 문제를 조명하는 '소원라이트나우' 시리즈의 세 번째 청소년 장편소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학급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계급과 아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현실 문제를 담아낸 소설이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1, 박잉걸은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의 주범이지만 돈과 권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급 내에서 자신의 말을 잘 따를 들러리를 무리에 포함시켜 친구라는 이름과 권력을 사용하여 그를 누르고, 오로지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들러리를 시켜 악행을 저지른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학교에는 암묵적으로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 중심지에 사는 아이들은 귀족,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은 노예나 천민 계급에 속한다. 노예가 되면 주인을 위해 허드렛일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일에 동원된다. 소설 속 잉걸은 경찰과 선생님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같은 반 친구 동욱에게 대리 봉사활동을 시키고 과거엔 호민에게 절도를 시키고 뒤집어 씌워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매년 거금의 발전기금을 내는 부모 덕분에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모두 풀려난다. 동욱의 대리 봉사활동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대리봉사활동임을 밝혀낸 동욱은 결국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하고 박잉걸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이후 1의 들러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같은 반 친구이자 죽은 호민의 친구 기수는 '유령'이라는 소설을 써서 잉걸의 비리를 폭로한다. 학교 아이들은 도서관에 숨겨진 '유령'을 읽고 잉걸이 저지른 범행들을 알게되며 그를 비난한다. 학교 측에서는 잉걸의 부모의 압박으로 사건이 더 드러나지 않게 단도리하지만, 아이들은 수업거부를 하고 기수는 자신이 '유령'을 썼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사건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 ***진실은 가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거짓과 벌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180)*

이 소설에서 나오는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것도 들러리들의 반란이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들러리들의 반란을 사회에서 외면해선 안 된다.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이 세상을 확 바꿀 수 없으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에 마침표를 찍었다던 작가의 말과 같이, 이 소설에서 드러난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소설을 통해 변화되길 바라 본다.

언젠가 죽을 여러분, ‘죽음’에 이렇게 다가가 봐요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
죽음과 시체에 관한 기상천외한 질문과 과학적 답변

케이틀린 도티 글, 이한음 옮김 – 사계절, 2021.

추천 대상: 초등(고), 청소년, 일반
#‘아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죽음 분야에 대입할 때 적당한 책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1318 교양문고는 사계절 출판사가 펴내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 시리즈이다. 철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 ‘교양’이라 불릴 만한 인류 지식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13세부터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그 분야에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어른이 읽을 책으로도 훌륭하다. 그중에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생활교양적 접근’이라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저자 케이틀린 도티는 화장터 운영자, 시신 운구 기사로 일하며 수천 구의 시체를 마주했고 세계를 돌며 장례 풍습을 조사해 왔다. 그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바꾸고 죽음의 ‘경이로움’을 알리고자 하는 장례지도사다. 이 책은 어린이 친구들이 던진 ‘죽음과 시체’에 대한 질문에 저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체의 부패 과정, 평범하거나 그렇지 않은 시체 처리법, 내 시체 앞에서 고양이나 개가 취할 행동 등 기발한 아이들의 질문에 과학적 지식과 재미난 농담을 섞은 답변을 달아놓았다.

눈길을 잡아끄는 책 제목은 “내가 죽으면 고양이가 내 눈알을 파먹을까?”라는

자극적인 질문에서 끌어낸, 독자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적 전략일 것이다. 고양이가 억울할 법한 이 제목은 장례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더불어 시종일관 유쾌하게(때로 불쾌할 수도) 난무하는 농담이 글에 담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저자만의 방식일 것이다. 저자소개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한 아이의 추락사를 지켜보았고,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제대로 파고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짓궂은 농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시체 전문가라고 해서 아이들이 죽음에 갖는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어린이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저자는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자세히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자는 또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는데, '왜 장례지도사 따위가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되었다고 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죽음과 시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뒷부분의 긴 참고문헌 목록, 무엇보다 저자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열정은 이 책이 충분한 과학적 검토와 성실한 탐구를 거친 저작임을 알게 한다.

장례와 시신 처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즐거운(?) 덤이다. 물과 수산화칼륨을 사용해 시신을 녹여 뼈대만 남기는 '수화장'은 화장보다 환경에 더 좋으며, 그 물이 하수구로 버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할아버지 한 컵 드세요!"와 같은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다. 책 뒷면의 광고문구는 이렇다. "언젠가 죽을 여러분, 이리 모여 봐요!" 죽음이 삶처럼 자연스러워지는 데는 철학뿐 아니라 실용적 접근 또한 유용함을 이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극복하고 싶지 않아

김혜정 외 글 – 마음이음, 2022.

추천 대상: 청소년, 일반
#주변에서 장애인을 한 번이라도 마주친 모든 이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시력이 멀쩡하고, 말하고 듣는 것도 문제없으며, 양팔을 휘두르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도 그저 쉽게만 느껴질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마주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장애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온의 아이들》, 《모나크 나비》 등을 집필하고 출판문화진흥원 우수청소년 저작상을 수상한 김혜정, 《마지막 히치하이커》로 한낙원과학소설상을 수상한 문이소, 《편의점 가는 기분》 등을 집필한 박영란, 《의자 뺏기》로 살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박하령, 《문밖에 누군가가》 등을 집필한 황유미, 총 다섯 명의 작가들이 모여 장애인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내며 독자들이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5개의 단편 중 표제이기도 한 〈극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단편에는 청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교내 힙합 동아리에 소속된 지형이는 어느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된다. 예능 프로그램의 피디는 청각 장애를 가진 지형이가 무대에 올라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을 연출하길 원한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동아리의 학생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지형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촬영 도중 실수를 해서 빈번히 촬영을 중단하게 만든다. 평상시였다면 매끄럽게 흘러나왔을 가사도 턱 막힌 듯 나오지 않자 지형이는 무대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한다.

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떠오른 생각을 곧바로 말로 옮기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남들에게는 쉬울 이 모든 과정이 청각 장애를 가진 지형이에게는 너무 어렵다. '과연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지형이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하지만 지형이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대에 올라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두의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써 나가며 지형이는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낸다. "극복하고 싶지 않아!"

이 책은 장애와 청소년을 주제로 한 앤솔로지로, 앞서 소개한 〈극복하고 싶지 않아〉 외 장애와 역차별의 역설을 보여주는 〈금을 긋다〉, 외계인의 존재로 장애에 대한 역지사지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402호에 이사 왔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가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끼리의 방식〉, 옆집에 사는 식물인간 소녀를 마주치며 생기는 해프닝을 달룬 〈준미의 사람〉까지 총 5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나와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편협한 시각에서 깨어나고 싶은 사람들,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극복하고 싶지 않아.'라고 마음속으로만 소심하게 외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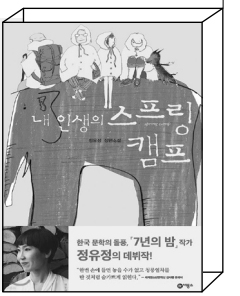
내 안의 '고래'를 찾아 떠나는 모험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정유정 글 – 비룡소, 2007.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의 모험을 꿈꾸는 사람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의 저자 정유정(1966~)은 명실상부 현대문학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작가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7년의 밤》, 《내 심장을 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인간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로 문학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믿고 읽는 작가로 사랑을 받고 있다. 작가는 특이하게도 문학이나 문예 창작을 전공하지 않고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 출신이다. 대학 시절 국문과 동기들의 숙제를 대신 써 주면서 문학적 갈증을 풀었다는 저자는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는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이야기는 1986년을 배경으로 열다섯 살 김준호가 엄마의 재혼을 쓸쓸하게 지켜보면서 시작된다. 민주화 운동에 연루되어 실종된 아버지,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일주일 뒤에 수원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현실도 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하건만 단짝 친구

규환이가 갑자기 전남 무안에 간다고 폭탄선언을 한다. 규환이 형은 운동권 중심인물인데, 4달째 행방이 묘연한 참이었다. 규환이의 임무는 주환이 형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지만, 규환이가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준호에게 막중한(?) 임무가 전해진다.

열다섯 살, 엄마의 재혼으로 심란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던 사춘기 소년 김준호에게 낯선 곳으로의 모험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엄마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 머물기로 했던 옆집 할머니에게 하얀 거짓말을 하고 규환이가 일러준 대로 막걸리 트럭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준호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줄줄이 나타난다. 그 불청객들은 동네 부잣집 도련님 승주, 동네 미치광이 개장수의 딸 정아, 개장수의 충견 루즈벨트와 정체불명의 노인이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멤버들은 시한폭탄 같은 루즈벨트를 데리고 이런저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며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준호는 무사히 주환이 형을 만나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

이 소설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로 보는 내내 가슴을 졸이면서 읽게 되는 흡입력 있는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대 배경으로 분위기가 종종 어두워지지만 고난에 대처하는 등장인물들의 기지로 소설은 유쾌한 소년 만화처럼 내내 활기차다. 작가 특유의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문체는 이 소설에서도 여지없이 빛난다.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비단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번쯤 자기 안의 '고래'를 찾아 훌쩍 떠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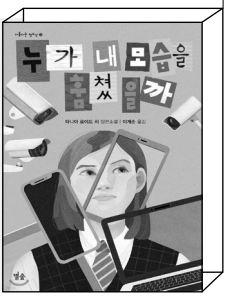
‘사회적 안전과 사생활’,
두 가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다룬 성장소설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

타니아 로이드 치 글, 이계순 옮김 – 별숲, 2020.

추천대상: 청소년
#‘사회적 안전’과 ‘사생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친구들의 우정이 주는 감동은 보너스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는 별숲 출판사의 아름다운 청소년 시리즈의 23번째 소설이다. 사회적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필수화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녹여낸 작품이다. 이미 사회에 대중화된 인식으로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청소년 소설 특유의 우정, 사랑, 배신 등의 요소를 흥미롭게 배치하여 재미 요소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 뱅크시’의 예술을 끌어들여 내용과 구성의 신선함도 배가하였다.

이야기의 무대는 미첼 영재중학교다. 이름 그대로 영재중학교인 만큼 개인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학교다. 주인공 도미니카는 미술 분야의 재능을 인정받아 이 학교에 입학하였다. 수학 천재 산비, 인기 아역 탤런트 출신인 홀든과 베스트 프렌드이다.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베로니카에게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진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뒤집어 입은 셔츠를 제대로 입기 위해 옷을 벗었던 게 교내

감시카메라에 촬영이 되었고, 그 영상이 유출되어 학교 게시판에 뿌려진 것이다. 도미니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그렇게 침범된 사생활이 악용되어 누군가를 지옥으로 떠밀 수도 있다는 것도. 베로니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비판적 내용이 담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활동으로는 효과가 미비했고, 그마저도 곧 꼬리를 밟히게 된다. 결국 베로니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학부모와 언론에 폭로하기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주제가 뚜렷하고 갈등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소설적 재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치가 많이 깔려있어 지루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친구가 보여 주는 우정은 충분히 감동적이기도 하다. 다만 적대적 관계였던 아이들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작스레 한 무리로 편입되는 부분은 매끄럽지 않게 느껴져 아쉬운 부분이다.

소설의 작가 '타니아 로이드 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 교지에 발표한 시를 읽고 팬이 되어 준 어머니와 친구들 덕분에 작가를 꿈꾸게 되었다. '독에 관한 50가지 궁금증'에서 '놀라운 속옷의 역사'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대표작인《섀도우 워리어》는 ALA의 아멜리아 블루머 프로젝트 리스트에 올랐으며,《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는 몽테뉴 메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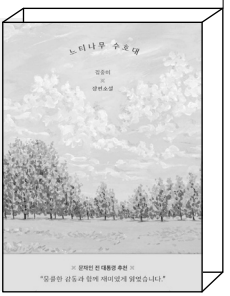
‘조용한 환대’가 필요한 시대의 아이들에게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느티나무 수호대

김중미 글 – 돌베개, 2023.

추천 대상: 청소년
#거스를 수 없는 다문화의 물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신은 멜팅 팟(melting pot)의 힘을 믿나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대포읍은 쇠락해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언제부터인가 몽골, 중국, 네팔, 베트남 등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 다문화의 힘으로 지켜진 고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원래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었다. 특히 주인공인 도훈이는 외국인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할머니로 인해 엄마와 생이별하게 된다. 그래서 도훈이는 다문화라는 말이 싫다. 그 말이 주홍 글씨와 같이 느껴진다. 그런 도훈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500년 된 느티나무 홍규목의 속이다. 홍규목은 일종의 자아를 가진 신비한 나무다. 그(그녀)는 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본체인 나무 안의 공간으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들여보내 위로하기도 한다. 도훈이 말고도 예은, 수영, 윤성, 금란 등의 또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저마다의 상처를 홍규목의 보살핌을 통해 치유한다. 그런데 그런 홍규목에게 큰 위기가 닥친다. 마을이 재개발 되면서 홍규목이 서 있는 자리에 아파트 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규목은 끝장이다. 그럴 수는

없다! 아이들은 홍규목을 지켜내기 위해 레인보우 댄스 크루를 결성한다. 댄스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홍규목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할 계획인 것이다. 과연 아이들은 계획대로 홍규목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중미의 소설《느티나무 수호대》는 홍규목이라는 신비한 등장나무를 통해 생태계의 중요성과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에 대해 경계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다. 작가는 홍규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아이들의 분투를 그려냄으로써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민족을 고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작가는 그 실마리를 홍규목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제시한다. 아이들은 홍규목 안에 새로운 친구가 와도 전혀 놀라거나 의아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반가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등장을 받아들인다. 바로 '조용한 환대'다. 그들을 당연한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말을 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이 작품은 김중미 소설가의 최근작이다. 김중미 소설가는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87년부터 인천 만석동에서 '기차길옆공부방'을 열고 지역 운동을 해 왔다. 지금은 강화로 터전을 옮겨 농촌 공동체를 꾸려 가며 '기차길옆작은학교'의 큰이모로 살고 있다. 동화《괭이부리말 아이들》,《꽃섬 고양이》, 청소년소설《모두 깜언》,《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곁에 있다는 것》, 에세이《꽃은 많을수록 좋다》, 강연집《존재, 감》등을 출간한 바 있다. 과거 작품들에서도 김중미는 착하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을 주목한 바 있다. 김중미 작가는 그들을 연민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번 작품에서도 이러한 김중미 스타일은 지속되고 있다. 서로를 긍정하면서 단단해지는 공동체의 세계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 소설은 좋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인간 소녀'와 '기계 소녀'의 아름다운 여정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다이브

단요 글 – 창비, 2022.

추천 대상: 청소년
#기계'에도 '마음'이 있다면 과연 인간과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단요 작가의 《다이브》(2022)는 창비청소년문학 시리즈의 111번째 작품이다. 《다이브》는 2057년 홍수로 물에 잠긴 한국을 배경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쓸만한 물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소녀 '선율'과 기계 인간 '수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모든 희망이 물속에 잠겨버린 디스토피아 속에서, 십 대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2057년. 이상 기후와 세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곳곳이 바닷속에 잠기는 비극이 일어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원도 같은 고도가 높은 곳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에 잠겨버린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콸콸 쏟아지던 깨끗한 물과 같은, 당연하게 느껴지던 일상마저 모두 수몰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존해 나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면 물속에 들어가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서 건져 오는 것인데, 이야기의 주인공 선율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물꾼이다.

노고산 공동체의 유일한 물꾼이기도 한 선율은, 어느 날 한때는 친했지만, 지금은 앙숙이 되어버린 옛 동료 우찬과 시비가 붙어 '누가 물속에서 더 멋진 물건을 가져오는가?'를 두고 내기를 한다. 내기에 지면 물꾼 일에 꼭 필요한 장비를 뺏기게 되어버린 수호는 무리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우연히 잠들어 있는 기계 인간 수호를 발견하게 된다. 수호를 깊은 잠에서 깨워낸 선율과 수호는 일종의 계약을 맺는다. 수호는 선율이 내기에서 이기도록 도움을 주고, 선율은 수호의 잃어버린 4년의 기억(혹은 데이터)를 찾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두 주인공의 여정이지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 여러 설정을 통해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수호'라는 기계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잃어버린 4년의 기억의 정체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건강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소설의 작가 단요는 아직 작품이 적은 만큼 정보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이라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즐겨 쓴다'고 쓴 스스로의 소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존재 의미'에 관한 많은 고민과 탐구를 하는 작가인 듯하다. 《다이브》(2022)외에도 마카롱 출판사의 《인버스》(2022)를 펴냈으며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를 통해 제3회 박지리 문학상을 받았다.

2023 우수작 서평교육부문

전쟁에 대한 67개의 기록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예바 스칼레츠카 글, 손원평 옮김 – 생각의힘, 2023.

추천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
#전쟁의 잔혹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앞다투어 이 전쟁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도 잠잠해져 우리는 이 비극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이자 어린이의 눈으로 쓴《안네의 일기》를 읽으며 자란 어른들은 국가 간의 갈등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경험은 반복됩니다. 현대의 안네 프랑크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소녀 예바 스칼레츠카의 일기《당신은 전쟁을 몰라요》슬프고도 진실된 67개의 기록을 통해 독자는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예바가 사는 동네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직전까지 일기장에는 생일 잔치에 대한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살 소녀의 일기장에는 두려움, 괴로움,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반 친구들과 나누는 단체채팅방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은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침착한 어른들의 안내에 따라 서로 도와가며 하루하루는 버티는 모습은 2023년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더욱 끔찍합니다. 예바의 피난길을 글을 통해 따라가다보면 우리가 왜 전쟁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지,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전쟁'이면서 동시에 '공감'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들은 예바의 여정을 통해 나의 안전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백미는 표지에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답게 피어난 해바라기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잠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자의 행복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 읽기 전, 읽은 후 표지 그림과 예바의 긴 여정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입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어린이)에 대해 무심히 객관적으로 묘사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작가가 끌어안은 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을 겪은 예바에 대한 그의 무한한 애정이 글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눈에서 바라본 전쟁과 피난, 그리고 정착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가 겪지 않았어도 되는 아픔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바는 전쟁 초반에 피난길에 올랐기에 이 글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책 중간에 '폭사'를 묘사한 글귀와 폐허가 된 전쟁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책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글쓴이(12살)와 비슷한 또래들이 읽는다면 어른들의 감상과는 별개로 멀게만 느껴졌던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오늘을 우리 어른들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예나들이 어른이 되는 때, 그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기 바라며 이 아픈 책을 추천합니다.

‘사랑해’란 말속에 감추어진 이야기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꽃님 글 – 우리학교, 2023.

추천 대상: 청소년, 일반
#십 대들의 사랑과 관계 맺기 방식을 알고자 할 때
#좋아하는 마음과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것의 차이
#가스라이팅에 관해 알고 싶을 때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로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꽃님 작가는 《죽이고 싶은 아이》,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름을 훔친 소년》 등 꾸준히 청소년 소설을 발표하였다. 간결하면서 몰입도가 큰 그의 작품은 등장인물이 십 대 또래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언어와 시선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흔히 십 대들의 사랑은 마냥 풋풋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듯 보이는 관계라도 밑바닥에는 끝없이 갈망하고 집착하는 지독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주인공 해주를 통해 그리고 있다. 해주의 ‘좋아하는 마음’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과 달리 위태롭고 안쓰럽다. 작가는 이 뒤틀린 마음이 이제 막 좋아하는 마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십 대들을 어떻게 상처를 내고 할퀴는지 아프게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한밤중 저수지에서 가지런히

놓인 소녀의 흰 운동화가 발견되고, 함께 있던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라진 소년 해록과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소녀 해주. 둘 사이에 얽힌 의문과 의심을 걷어내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다. 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뒤틀린 마음과 상처를 긴장감 넘치게 그려냈다.

이꽃님 작가의 책에는 반전이 있어 유독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큰 것 같다. 독자들은 이번 작품에는 생각지 못한 반전의 실마리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끝까지 독자들을 집중시킨다. 반전의 반전이 생기면서 결말이 급작스럽게 다가온다. 치밀하게 짜인 전개와 달리 생각지 못한 결말은 독자를 당황하게 하는데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마무리를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십 대들의 심리와 문화를 드러낸 외모 꾸미기와 인스타, 즉석 사진 찍기 등 세밀한 섬세함을 잘 살려냈다. 이렇게 책은 사건 및 관련된 인물의 묘사가 이어지면서 성인 독자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청소년 독자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무거운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몰입을 끌어내지만, 인간 본성의 선함보다 이면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내는 작가의 노력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책은 문제를 부각은 시켰으나 원만한 해결이나 사랑에 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 책을 독서 동아리에서 함께 읽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깊이 읽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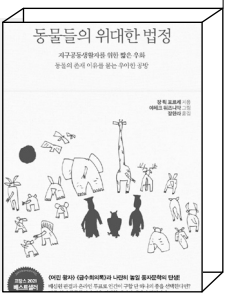
우리만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동물 친구들을 돌아봐 주세요.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장 뤽 포르케 글, 야체크 워즈니악 그림, 장한라 옮김 – 서해문집, 2022.

추천 대상: 아동, 청소년
#생태계 질서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이들에게
#전 지구적인 시야로 세계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딱딱한 논설문이 아닌, 동물들의 입을 빌린 우화로 환경문제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은 르몽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유명 신문의 추천서를 받았으며, 프랑스에서 2021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 책이다. 르몽드사는 이 책에 ' 동물의 존재 이유에 대한 위대한 스케치'라며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작가는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던 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들 수는 있다. '인간이 살고 고민하기에도 바쁜 현대 시대에서 인간 외의 생물도 생각해야 한다니?'와 같은 오만한 생각 말이다. 지성과 지혜를 가진 존재는 유일무이 인간뿐이라고 르네상스 시대가 선포한 이래로 우리는 인간을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존재이자 군림자'로 생각해 왔으며 인간에게 있어 동물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존재였다.

이 인간 위주의 사견에 갇힌 우리의 사고를 깨는 데서 이 작품은 시작한다. 우리의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로 생태 질서가 무너진다면 인간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봐도 동물은 더는 부수적인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 준다. 꿀벌은 꿀을 채집하러

여러 꽃들과 새를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앉은 꽃을 수분해 준다. 이를 통해 꽃은 열매를 맺고, 씨앗은 퍼뜨려져 지구의 생태계는 널리 보존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지성을 지닌 존재다. 작중 동물이 말한 표현대로 인간은 '지성을 갖춘 우세종'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마음대로 파괴를 일삼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작중 동물들은 자신의 쓸모를 변호하다 인간이 도리어 작중 생태계라는 세계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에 선 자는 멸종위기종인 그들이지만 마치 인간도 법정에 서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그들의 입장은 인간이 자신의 오만을 떨쳐버리고 자연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찰마저 준다.

작중 동물들은 자신들을 변론하며, 인간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생태계는 지구 전체를 뜻한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기 바쁘다. 동물은 그저 지나가다 보이는 멋진 존재이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물처럼 취급하면서 말이다. 아니다, 우리가 쓰는 살충제, 그들의 터전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준다. 지구는 마치 연쇄적인 쇠사슬처럼 매듭을 맺고 이어져 있어 하나가 허술해질 시 다른 종에 연결된 매듭마저 끊어진다. 수천 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 속 이야기를 심각하게 전개하다가, 동물이 변론을 하다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전혀 경우에 수에 넣지 않은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통해 유머를 섞어 작품을 전개한다. 우리는 생태계 전체와 공생하고 있다. 당장 건물에 들어서기만 해도 매미가 목을 우렁차게 울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세상이다. 인간 외 다른 종족의 존재에 대해 마음 쓰고 그들의 삶을 고찰하는 시간을 지니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미래를 생각하는 넓은 시야를 지니고 싶을 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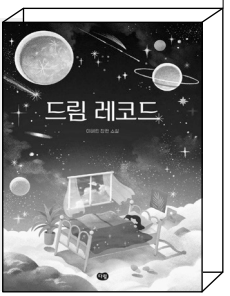
동은이가 아닌 세상의 모든 '가은이에게'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드림 레코드

이혜린 글, 다림 –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은 청소년들에게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본 시청자들에게



최근 화제가 되었던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루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드라마 속 주인공은 마치 현실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듯 통쾌한 복수극을 완성시킨다. '더 글로리'를 본 시청자들이 소설 《드림 레코드》에서 학폭 가해자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책장을 그만 덮길 바란다. 이 소설은 복수극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의 학폭 피해자들과 피해 가족들이 겪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특정 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꿈'이라는 매개체로 하여금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 글쟁이 아내 오해나는 어릴 적부터 글쓰기 상을 휩쓸며 신인문학상에 당선된 필력이 뛰어난 동화 작가이다. 첫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해나는 '신선한 이야기와 거침없는 필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작가'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감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 세상은 작가 오해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고 해나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할 자신이 없어 고민하던 시기, 꿈속에서는 환상적인 글의 소재가 될 아이디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뿐, 꿈에서 깨어나면 그 장면들을 기억할 수 없었다.

"하, 꿈 내용만 기억할 수 있으면……." *(13)*

해나의 푸념을 들은 자상한 남편 한태오는 유명한 회사의 연구개발팀으로 일하는 뇌과학자였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만 관심을 보이는 회사 시스템에 이골이 났던 태오에게 아내의 한마디는 식어버린 그의 가슴에 도화선을 당기기에 충분했고, 7년을 연구한 끝에 꿈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학폭 피해자인 가은이는 학교 3층에서 떨어져 단기 기억상실을 진단받으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수사에 난항이 이어지게 되었다. 가은의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태오의 회사 '드림 레코드'를 찾게 된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누군가가 상처 입은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어른임이 밝혀지기에 이 이야기가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우리 현실을 닮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 오히려 현실이 더 참혹할지 모른다. 최근의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야 학교 관계자나 어른들의 잘못된 대처로 피해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실태가 곪아 터져서야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가은이에게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그날을 함께 꿈꾸어 보자고 마음속으로 외쳐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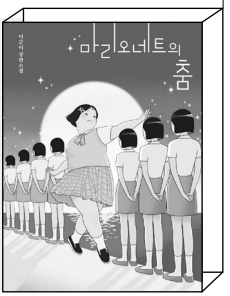
끊어진 마리오네트의 줄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마리오네트의 춤

이금이 글 – 밤티, 2022.

추천 대상: 청소년, 일반
#한국이 만들어 놓은 교실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마음



어린이청소년문학 작가인 '이금이' 작가는 1984년 단편 동화《영구랑 흑구랑》으로 새벗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금이 작가는《유진과 유진》을 시작으로,《너도 하늘말나리야》3부작 등으로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소년 작품을 펴내었다. 그 밖에《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알로하, 나의 엄마들》등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장편소설로 작품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중이다. 작가는 2007년 소천아동문학상, 2012년 윤석중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국제 한스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한국 후보로 지명이 되기도 하였다.

이 도서의 이야기는 '봄이'가 사라지고 담임 선생님 앞으로 도착한 종이 묶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아이의 글은 사라진 '봄이'를 주인공으로 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여 주고 있다. 봄이와 외국 생활 후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무단결석을 하기까지 반 아이들과 봄이 사이에 일어난 일과 감정, 속마음, 즉 봄이와 얽힌 것들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편견과 상대적 우월감, 소속감, 배척 등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라는 배경 아래에서의 청소년의 심리를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이 《마리오네트의 춤》은 초판인 《우리 반 인터넷 소설가》가 출간된 지 12년 만에 개정 작업을 해서 새롭게 펴낸 작품이다. 작가는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쟁과 성공의 기준 아래에서 한국 청소년의 생활, 쳇바퀴처럼 집, 학교, 학원이 반복되는 청소년의 삶이 마치 마리오네트의 삶과 닮았음을 보여 주고 싶은 것 같다. 줄을 끊고 세상으로 나아간 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한국 사회의 청소년과 넓은 의미로 한국 사회의 고정 관념과 통념에 갇혀 있는 어른들 또한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아이들을 조종하려 드는 인형사인 동시에 세상의 통념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줄을 끊고 나가 버린 봄이는 자신만의 춤을 출 수 있을까?

특히 위의 문장에서 어른들 또한 자신을 옭아매는 줄을 끊고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봄이처럼 용기를 내 줄을 끊고 나간다는 것은 이미 고정관념과 통념에 매여 있는 어른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회의 고정관념과 통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기를 응원하며, 쉽고 재미있게 읽기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달라서 아름다운, 기억해야 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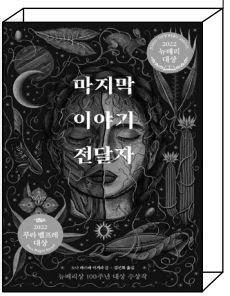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도나 바르바 이게라 글, 김선희 옮김 – 위즈덤하우스,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1984', '멋진 신세계', '기억전달자'를 좋아하는 사람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 사회에 인간의 삶은 지금과 무엇이 다를지 궁금한 사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같은 실존적 의문에 답함으로써 지금을 더 충실히 살고 싶은 사람



2022년 뉴베리 대상과 푸라 벨르페 대상을 받은 이 작품은 도나 바르바 이게라의 두 번째 저작이다. 미국 작가에게 주어지는 저명한 아동문학상 뉴베리상과 라틴계 어린이 도서 작가에게 수여하는 푸라 벨프레 상을 탔다는 점은 작품의 배경과 성격을 미리 설명해 준다.

'기억전달자'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눈 감은 소녀의 얼굴이 태양, 달, 토끼와 뒤섞인 검푸른 표지가 독자의 호기심을 이끈다. 짧은 저자 소개에서는 저자의 민속학 지식을 언급하는데, 책 속에 가득 담긴 스페인계 미국인들의 전통과 신비롭고 환상적인 옛이야기는 이 소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혜성 충돌로 인류가 멸망을 앞둔 2061년. 거주 가능한 행성 '세이건'으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 허가를 받은 수백 명 남짓의 인간 중 하나인 페트라는 고작 13살 생일을 이틀 앞둔 소녀다. 할머니와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과 이별하기는 너무나 싫었지만 "지구에서 마지막 물잔을 받아 들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기분"으로 우주선에 오른다. 지구에 남은 할머니와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을지 상상하는 장면은 가슴을 저릿하게 한다.

과학자인 어머니, 아버지, 일곱 살 동생과 함께 페트라는 세이건까지 여행하는 380년 동안 긴 잠을 자게 된다. 세이건에서 지구인들의 거주지를 '재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늙지 않아야 하고, 잠든 사이 '모니터 요원'은 세대를 거듭하며 그들과 우주선을 보살핀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불안한 예감대로 모니터 요원들은 '콜렉티브'에 의해 장악된다. 떠나기 전날 뉴스에서 '새로운 국제운동'으로 소개된 콜렉티브들의 주장은 모든 인간의 '일치'였고, 과거의 삭제였다.

콜렉티브는 인간에게서 기억을 지움으로써 갈등으로 가득한 과거를 지웠고, 다른 생각 없이 모두 '일치'시키기 위해 소수만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했다. 차이와 다름에서 오는 비효율과 혼란을 제거하자는 이념은 언뜻 명료해 보이지만, 지구 위 수억 명의 인구 중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므로 실현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해도 결과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들은 필요에 따라 우주선의 승객들을 깨워 기억을 지우고 그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했다. 세이건에 도착 후, 잘못 프로그램되어 기억이 살아있는 페트라는 안 그런 척 지시대로 콜렉티브를 위해 봉사한다. 그 모든 이주 계획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쿠엔토'(이야기)로 지구의 기억, 이야기를 잃지 않으려 용감한 계획을 진행한다. 이야기의 힘, 인류의 조상과 아름다운 자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힘으로.

기억 없이는 살 수 없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가족은 결코 존재하지도 않는다.

페트라의 꿈은 할머니와 같은 이야기 전달자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굳이 이를 정정해 준다. 결코 자신과 같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전달된 이야기는 스스로의 것으로 바뀌어 다음 세대에 전달될 거라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내게는 감동적이었다.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변함없더라도 현재를 사는 전달자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상징을 담는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창조라는 생각이 든다.

지구에서 주인공 페트라가 살았던 뉴멕시코주는 역사적으로 스페인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곳이다. 음식과 문화에 관련된 많은 단어가 스페인어로 쓰여 각주로 뜻풀이된다. 그중 '쿠엔토'는 주인공이 그 전달을 삶의 사명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단어로 이 이야기의 주제인 '사랑'과 '기억'을 상징한다. 가족의 추억과 민족적 전통에 기반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얻은 사랑과 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어린이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477쪽에 달하는 양과, 사건의 중요한 순간마다 배치된 주인공의 꿈속 상징들을 보통의 초등 고학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겠다는 우려에서, 읽기 수준이 높은 고학년을 포함한 청소년을 독자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984》나 《멋진 신세계》처럼 다가올 미래에 닥칠지 모를 암울함을 훌륭히 그려낸 소설들이 아이들에게 권하기는 어려운 소재를 담은 아쉬움을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로 달랠 수 있었다. SF이든 아니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 줄 새로운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위기감을 넘어 위로를 해주는 환경서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글,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2022.

추천 대상: 일반, 청소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적 환경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2021년 6월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다. 인천항만공사 주최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1)의 기조연사로 '기후변화가 재난인 것만은 아니며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개회식 기조연설을 맡은 클라인은 캐나다 출신 작가 겸 언론인으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변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클라인은 기후 정의 조직인 더 리프의 공동설립자이며 2016년에는 언론과 저술 활동을 통해 인권과 평등에 기여한 공로로 시드니 평화상을 받았다. 행동하는 환경운동가로 세계 포럼이나 강연 등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 100에 그가 집필한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라는 저서가 선정되었다.

환경 관련 출판된 도서를 읽다 보면 기후변화의 현장만 나열하다 보니

디스토피아적 관점만 있어 무력감을 종종 느낀다. 그러나 이 책이 그런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기존건물이나 신축건물에 에너지와 물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하여 변화하여 지을 것.

2. 산업과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제조 방식에 지원할 것.

3. 전력망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여, 그 원천으로 얻은 친환경 전기는 적정요금으로 공급할 것.

4. 고속열차, 대중교통에 온실가스 방출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등, 운송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혁할 것.

5. 태양광 전지판은 강력한 자연재해로 전력이 파괴된 상태에서도 가동 가능한 전지에서 희망을 찾을 것.

6. 환경에 활발한 관심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받아 제도 안에서 활동을 펼칠 것.

이런 다양한 해결책이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1776년 와트에 의해 새로운 증기기관이 사업에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이 채취주의 자연관을 가지면서, '지구를 생명의 어머니이자 주인으로 여겨 존경심, 심지어 경외심까지 품은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논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생각이 되었다.

뉴질랜드 왕거누이강을 끼고 사는 마오리족은 강에 법적 인격을 인정받았다. 왕거누이강이 법률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다. 미국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이로쿼이족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지금 살아 있는 세대뿐아니라 앞으로 올 일곱 세대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철학을 계승해 왔다고 한다.

또 19세기 중반 미국 뉴 잉글랜드의 자연에 묻혀 살았던 헨리데이비드 소로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대지는 죽어 있는 무력한 흙덩어리가 아니다. 영혼을 지닌 유기체이다.'라는 관점에서 자연과 상생하는 관점을 지켜왔다. 상생을 이끌 뛰어난 리더는 아직 없지만 다시금 강력한 녹색 지도자와 함께할 날이 오리라 본다.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억제할 탄소 감축 목표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임무가 되어 간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기 전에 우리 시대에서 모든 노력으로 위기로 가는 지구 시계를 멈춰야 할 때이다. 이 책은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서와 다르게 위기와 경각심만을 나열하는 도서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여러 행동 대안을 제시함으로 실천적 희망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독자에게 각성과 위로를 모두 선물해 주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이에 이 책을 추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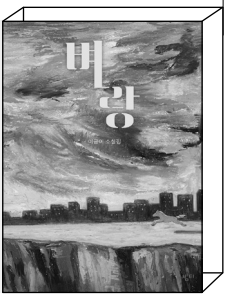
벼랑 끝에 서 있는 청소년들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벼랑

이금이 글 – 밤티,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우리 곁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속을 볼 수 있는 도서



《벼랑》이라는 도서는 이금이 작가의 첫 청소년소설집으로, 각각 독립된 다섯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금이 작가는 어린이청소년문학 작가로 1984년 단편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 새벗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유진과 유진》을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펴내고 있다. 이 작가는 2007년 소천아동문학상, 2012년 윤석중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국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한국 후보로도 지명이 되었다.

미래를 위해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여, 아득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벼랑》이라는 작품이다. 이 도서는 〈바다 위의 집〉, 〈초록색 말〉, 〈벼랑〉, 〈생 레미에서, 희수〉, 〈늑대거북의 사랑〉이라는 총 5가지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물들은 어떤 관계로든 연결되어 있다. 벼랑 끝에서 혼자인 것 같은 외롭고 절망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즉,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은 〈다바 위의 집〉에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은조 이야기, 〈초록색의 말〉에서는 목표를 위해 달려왔으나, 문득 그 길을 이탈하고 싶은 욕망을 깨달은 이진 이야기, 〈벼랑〉에서는 사람이 너무도 괴로워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택을 한 난주 이야기, 〈생레미에서, 희수〉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길을 가다 주체적인 희수를 만나 혼란을 겪는 현우 이야기, 〈늑대거북의 사랑〉에서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 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를 얻은 민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과 연결, 관계만 보아도 이금이 작가는 청소년 문학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작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나 이 도서는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나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문화나 생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청소년들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변했지만, 그들의 걱정과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작가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균열을 어른의 잣대로 바라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도록 인도해 주고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되어가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붉은 무늬 상자

김선영 글 – 특별한서재,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말’이 갖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폭력성에 관하여

《붉은 무늬 상자》는 특별한 서재 출판사의 청소년 문학 시리즈 27번째 작품으로서 2022년 6월에 출판되었다. 김선영 작가는 2004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밀례’로 등단한 후 ‘시간을 파는 상점(자음과 모음)’, ‘내일은 내일에게(특별한 서재)’, ‘무례한 상속(다림)’ 등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위로의 글을 써 왔으며, 특히 상처받은 등장인물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데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야기의 주인공 ‘벼리’는 산골에 있는 ‘이다 학교’로 전학한다.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었기에 시골에서 요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벼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엄마와 아빠는 원래 집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우연히 눈에 띈 은사리 폐가가 엄마의 마음에 쏙 들면서 계획에도 없던 현지 생활이 결정된다.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폐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사를 통해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다. ‘유난이다’ 싶으면서도 ‘벼리’는 군말하지 않고 엄마를 도와 폐가를 수습한다. 그러다 폐가 한구석에서

붉은 무늬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강여울'이라는 소녀의 다이어리가 있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여울이를 좋아하던 어느 전학생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끔찍한 소문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여울이가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벼리는 분노했고, 또 후회했다. 처음 전학을 왔을 때 자기에게 친절하게 굴었던 '세나'에게 냉정하게 굴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세나'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다. 벼리는 뒤늦게 용기를 내 보기로 한다. '여울'과 '세나'의 일 모두 바로잡으려 한다. 과연 '벼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적진을 향해 무작정 뛰어드는 '장수의 용기'와 같이 장렬한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러한 '작고 진정한 용기'가 모이고 모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또한 '말'이 갖는 '폭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계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오면 형체도 없이 흩어지지만, 그래서 더 무서울 수 있다. '실체'도 없이 살아남아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잘 다듬는 것' 그것도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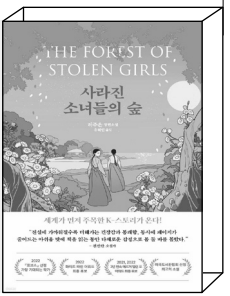
‘제주의 몽환적 분위기’가 담뿍 담긴 휴머니티 어드벤쳐 미스터리 활극!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사라진 소녀들의 숲

허주은 글, 유혜인 옮김 - 미디어 창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뼈아픈 역사마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진정한 K-청소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간이라도 지켜야 할 선과 예의는 있는 법!



1426년 조선, 제주의 어느 절벽 아래에서 서현이라는 여자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 제주 목사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고 시신을 매장해 버린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수사관 민제우는 이 사건을 미심쩍게 여긴다. 자신의 딸들인 민환이와 민매월이 그 절벽 인근의 숲속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됐는데, 동생인 매월이가 숲속을 거니는 흰 가면의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민제우가 갑작스럽게 진급을 하여 제주를 떠나게 된다. 민제우는 어쩔 수 없이 사건에서 일단 손을 떼지만, 곧 다시 돌아와 사건을 재수사한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의 연속이다. 일단 시신을 조사할 방법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부족했다. 활용할 자료라고는 증언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말이 크게 달라져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민제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13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렇다면 범인이 아직도 제주에 남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매월이는 그 범인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다. 매월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제우는 이 사건을 해결해 진범을

잡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제우가 다시 제주로 돌아온 이유였다. 하지만 민제우는 곧 사라져 버린다. 13명의 소녀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런 민제우를 찾기 위해 남장을 하고서 환이가 제주도로 들어온다. 과연 환이는 아버지를 찾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13명의 소녀가 사라진 이유와 진범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페미니즘의 시각을 떠나서 바라보아도 역사 속에 고스란히 자국이 되어 남아 있는 여성들의 고통을 마음 아프게 느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한 고찰 등 많은 메시지도 던져 준다.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즐기는 동시에 그 메시지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소설을 쓴 허주은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랐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했다. 장편소설 《벼의 침묵》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붉은 궁》을 연이어 발표하며, 2022년 포브스가 가장 기대되는 작가로 선정하는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굳건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은 15세기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두고, 제주의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미한 미스터리 소설이다. 허주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특유의 색채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2022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 화이트 파인 어워드, 2021~2022년 에드가 앨런 포 어워드에 최종 후보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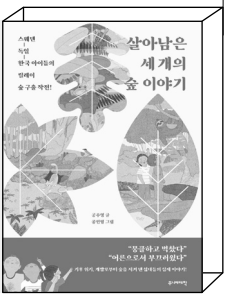
함께 사랑하고 지키는 숲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공주영 글, 공인영 그림 – 주니어태학, 2023.

추천대상: 일반
#숲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자녀와 함께 숲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은 숲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취향에 따라 또는 사는 곳에 따라 숲을 자주 찾는 분들도 있고, 숲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숲에 대한 애정은 다르지만,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에 또한 함께 지구를 살아가는 생명체를 위해 숲이 꼭 필요하고, 보존되어야 함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외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직접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스웨덴, 독일, 한국 각 나라의 아이들이 숲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모여 숲을 지켜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1987년 스웨덴 아이들은 코스타리카 숲을 구합니다. 2007년 독일 아이들은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으로 기후 위기에 맞섭니다. 2019년 한국 아이들은 제주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 시대별, 지역별 숲 구하기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공주영 작가는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으려면 숲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으며《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3편의 논픽션은 주인공 또래의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숲의 중요성을 알려 줍니다.

아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하나예요. 숲을 구하는 것이 미래를 구하는 것이다!

1987년, 스웨덴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숲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숲 살리기 목표 하나로 연극, 전시회, 플리마켓, 어린 나무 심기 등으로 500만 달러 모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모금액으로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숲 2만 3천 에이커의 숲을 사고 '영원한 어린이의 숲'으로 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으로 코스타리카라는 한 나라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산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숲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2007년, 독일 펠릭스 핑크바이너는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친구들에게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제안합니다. 3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은 1조 그루의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이며 숲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는 지구를 위한 일이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야!

그건 어른들 일이잖아. 아이들이 꼭 나서야 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무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해. 미래에 살 사람들은 바로 우리고.

2019년 한국 제주,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숲, 곶자왈. 제주의 허파이며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의 소중한 생명 숲입니다. 어느 날 곶자왈에 동물원이 건립된다는 현수막을 발견하고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아이들과 선흘리 주민들이 나서서 제주도청에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결국 숲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자연체험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동백동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선흘초등학교 아이들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 제주 도지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제주도는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숲을 지키기 위한 세계 아이들의 릴레이 숲 구출 작전이 우리 한국에서 좌절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지유 박사의《기후 변화 쫌 아는 10대》도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기상과 기후 지식 전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기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기후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 나갑니다. 10대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어른들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일찍 철든 아이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소희의 방

이금이 글 – 밤티, 2021.

추천대상: 청소년
#《너도 하늘말나리야》를 읽고 소희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독자에게

《소희의 방》의 작가인 이금이 작가는 어린 독자들을 위한 '밤티 마을' 3부작, 청소년이 품은 상처를 이야기하는《유진과 유진》,《너도 하늘말나리야》 등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모든 계층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 밖에 50여 권의 청소년 소설 등의 작품을 출간하였지만, 아직 작가에게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며 독자들이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작가이다. 그만큼 그녀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어린이 청소년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한국 후보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인물이라고 한다.

《소희의 방》이라는 작품은《너도 하늘말나리야》의 출간 이후 한 중학생의 질문인 "달밭마을을 떠난 소희는 어떻게 됐어요?"라는 질문으로부터 탄생하게 된 성장소설이다. 이 작품은《너도 하늘말나리야》의 세 청소년 중 하나인 소희가 단둘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달밭마을을 떠나 서울 작은집을 거쳐 재혼한 친엄마와 엄마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소희에서

윤소희로 살게 되면서 이전과는 너무 다른 풍족한 삶을 살게 된 소희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엄마와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고, 남동생의 증오심, 새아버지의 폭력으로 불편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 가출까지 하게 된 소희가 어떻게 엄마와 새아빠, 동생에게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여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아이들이 일찍 철들 필요가 없음을, 아이들은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은 제 나이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 중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가 많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소희의 방》에서의 소희가 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전 편인 《너도 하늘말나리야》의 어른스러운 소희가 아닌 보다 더 역동적이고 흔들리는 마음, 욕망, 반항 등을 표출하는 모습, 너무 일찍 철들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열다섯의 진정한 소희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는 작든 크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가정 폭력은 청소년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른들의 변명으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화하려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병이 들어가고 참고 참으며 가슴에 큰 아픔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통해 부모와 어른, 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모습을 청소년에게 보여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작품이다.

마음을 전하기 좋은 방법, 말하기

안여진 (화성시 늘봄이음터작은도서관)

양아치의 스피치

네온비 글, 김인정 그림 – 문학동네, 2023.

추천 대상: 일반, 청소년
#10대의 풋풋한 사랑 고백 이야기를 보고 싶을 때
#말을 잘 하고 싶은 모든 청소년, 성인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 습관을 알려주고 싶을 때

요즘 기사를 보면 MZ세대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온다. 또한 사흘, 금일 등 한자어 및 표준어를 잘 모르고, 속어를 주요 대화 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떠올려 보면 나 또한 입에 벤 비속어, 유행어가 적지 않고 항상 사용하는 비슷한 단어들을 돌려가며 사용한다. 이 책의 저자는 글작가로 일하면서 많은 속어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표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경험과 반성을 담아《양아치의 스피치》에서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말 잘하게 되는 비법과 과정을 스토리화했다.

주인공 '이솔'은 전형적인 10대 남학생이다. 10대에 가장 많이 쓰는 은어들로 점철된 단어로 대화를 하는 이솔은 학교 현장학습에서 우연히 본 '송이도'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도는 은어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학생이었고, 같은 말을 사용해야 말이 통할 수 있기에 일주일 안에 15분 동안 은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사귀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주인공은 서점에서 말하기 개발서도

읽고 친구들의 특징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써보기도 하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머릿속에 맴도는 말을 정리하는 방법도 깨우친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이솔은 머릿속에만 맴돌던 이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스피치"를 하며 사랑도 이루고 말도 잘하는 아이가 된다.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돋우는 이 책은 소위 학교 '인싸'라고 불리는 소년이 사랑에 빠지면서 언어 습관을 바꿔가는 로맨스 웹툰이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찾아보고 노트에 정리해 가면서 주인공은 말하는 방법을 터득해나간다.

내 머릿속의 서랍장. 들어 있는 게 많아도 생각 정리가 안 돼서 꺼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릿속에서 편지를 쓰듯 떠올려 보고 말하자. 누군가와 얘기할 땐 일일이 글로 적어 볼 수 없으니까. 긴 문장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짧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여러 말이 동시에 떠올라 긴장하고 당황해서 생각이 엉킨대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장 어울리는 말을 하자. 아무도 빨리 말하라고 닥달하지 않을 테니까. 아나운서가 말하듯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자.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단어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등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 주인공이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 고민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통해 독자 또한 언어 습관에 대해 돌이켜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길 바라는 청소년, 말을 잘하고 싶은 성인 등 말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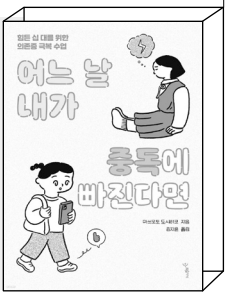
더 이상 남 일이 아닌 청소년 중독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

마쓰모토 도시히코 글, 김지윤 옮김, 우리학교,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중독에 빠져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중독을 이해하고 싶은 어른들에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독이라고 하면 암암리에서만 일어나는 일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쉽게 중독 관련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기에 더 이상 남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독은 의존증이라고도 하며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증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담배, 카페인 음료, 일반 의약품 등 섭취하는 것 외에도 게임이나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까지도 중독될 수 있다.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의존증을 경험하는 연령대의 폭도 넓어져 10대 청소년들도 중독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의존증을 겪고 있다고 하면 소위 불량한 학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독이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담배나 술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의존의 대상은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특정 부류만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의존증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쓰모토 도시히코의 《어느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학생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쓰모토 도시히코는 정신과 의사로서 일본의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 연구소 약물의존 연구부 부장을 맡고 있으며 의존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책을 쓰고 강연을 한다. 저서로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 《약물 의존증》 등이 있다.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은 총 7장으로 구성하며 의존증의 구조와 역사, 의존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내담자 보호를 위해 변형을 하였으나 실제 상담 사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독자는 더욱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도움받고 싶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상담처 정보와 질의응답코너도 수록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중독에 빠지게 된 청소년들에게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에서는 다른 것에 의지를 해야만 버틸 수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일지 헤아리며 응원과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울고 싶을 만큼 분하거나,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적당히'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략]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어깨를 바짝 추켜올리고 이를 악물고 있다면 조금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중략]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만드는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편안하고 살기 쉬워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는 십 대에는 힘든 게 당연하고 저자 또한 십대에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 힘듦을 회피하기 위해 중독에 빠지게 되었어도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위로를 더한다.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를 통해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당사자를 비난하기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의존증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이 책이 내 삶을 조금은 바꿀지도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황효진 글 – 창비, 2023.

추천 대상: 청소년, 일반인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발견하고 싶은 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찾고 있는 분

우리는 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말한다. '질풍노도' 쉽게 말하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확실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이라는 의미다. 혼란의 시기인 청소년기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황효진의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는 질풍노도의 정의, 즉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같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위로를 건네고자 기획된 책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고, 나는 왜 나일까 괴로워지는 날도 있다. 이런 답이 없는 답답한 상태가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청소년들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고민에 대한 강력한 해결을 바라며 이 책을 펼쳤다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진 않는다. 다만 작가는 청소년기를 미리 겪은 사람으로서 본인의 경험과 책, 드라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민을 '공유'한다. 고민에 빠진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님을 감각 하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기획

의도이다.

"어려운 고민을 함께하는 길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책 속 인물들의 이야기도 빌렸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을 질투하고,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저자는 본문을 읽기 전 '마음 발견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도록 책의 구성을 짜놓았다. 이 테스트에 응한 독자들은 결과에 대한 해당 본문을 먼저 찾아 읽을 수 있다.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 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을 수 있게 구성한 작가의 배려가 인상적이다. 책의 본문은 주제별 구성,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주로 하는 고민인 진로, 재능, 우정, 사랑, 경제력(돈) 등에 관한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내 몸과 함께 사는 법〉, 〈우리 집의 비밀〉과 같이 소제목이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답을 일러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나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쩌면 그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문이라고, 그러니 고민을 나눠 보자고 말을 건네는 일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고민이 마술처럼 "짠!"하고 단박에 해결되진 않는다. 직업을 가진 어른이라도 일하는 내내 '이게 맞아?' 하며 끝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과 우정, 관계에서 오는 고민을 어른이 돼서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 없이 내면의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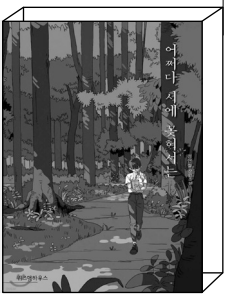
상실에 건네는 '시'의 힘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어쩌다 시에 꽂혀서는

정연철 글 – 위즈덤하우스,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소설과 시가 함께한 종합선물상자 같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



아동 청소년 문학가이자 시인인 정연철(1973~)은 경상남도 함양군의 두메산골에서 자라났다. 마을에 같은 학년의 또래가 없어 홀로 학교에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친구들 대신 숲에서 풀, 나무, 꽃, 곤충, 새 등 자연과 어울린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잃은 청소년이 자연과 시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어쩌다 시에 꽂혀서는》을 쓰게 된다.

《어쩌다 시에 꽂혀서는》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오랫동안 가족을 방치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아파하는 '겸이'가 외할머니집을 떠나 이사한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한 시집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 과정에 '시'가 큰 역할을 한다. 소설 속 겸이가 읽는 시와 짓는 시를 통해 독자는 겸이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따라갈 수 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시를 받아들였고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떨 때는 시를 감싼 분위기가, 어떨 때는 시 한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고 가슴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시는 가슴기 기능도 갖추고 있어 메마른 가슴에 가랑비를 뿌리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었다. (48)

이 구절처럼 '적절한 습도'라는 표현을 통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뽀송뽀송한 겸이의 마음의 상태를 독자는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극 중에서 등장하는 '숨숲'이란 공간은 겸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삶이 고단해 한숨을 쉬러 오는, 그러다 보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숲, 숨을 쉬는 숲, 숨을 쉬게 하는 숲이라는 뜻처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겸이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극 중 겸이가 읽는 시를 독자도 함께 읽는 소소한 재미도 함께한다. 예컨대, 96면에서 겸이가 함민복 시인의 「가을」이란 시 "당신 생각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를 읽고 "나는 엄마 생각을 발갛게 켜 놓은 채 곯아떨어졌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깊이를 더함을 보여준다.

겸이는 시를 통해서만 위로받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낸 동갑내기 투포환 선수인 은혜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것과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특히 다음의 구절을 통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자고, 지금을 견디면 보다 나은 내일이 올 거라며 겸이와 독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근데 가벼운 거 백날천날 들어 바라. 근육이 생기나. 무거운 거 힘들게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기다. 마음도 마찬가지대이.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 봐야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기 생기서 나중에 더 큰 고통도 너끈하게 버티 낼 수 있는기다. 알긋나? 사람들 제2의 인생을 산다 그카잖아. 그런 기 어디 있노.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무조건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내일이 있다. (112)

어쩌면 우리는 우리만의 '숨숲'을 찾아 헤매는지도 모른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숨숲이 되어줄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의 말대로 '매번 다른 떨림과 울림으로 위안을 주는' 시를 통해 자신이 발견한 시가 주는 특별한 울림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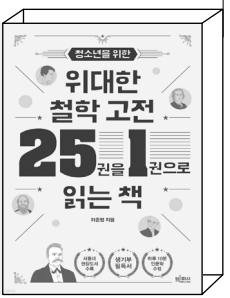
시작의 이유가 뭐든, 철학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위대한 철학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

이준형 글 – 빅피시,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인
#철학 관련 지문 읽기가 어려운 청소년
#고전 철학 일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



철학(哲學)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과,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 한다. 뜻풀이를 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간과 세계에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고민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이는 물론 어른이 되어도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위대한 철학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은 주 독자층은 청소년이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원전 4세기에 지어진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부터 1975년에 지어진 피터싱어의 《동물 해방》 등 고전 철학 25권을 1권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5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25편을 각 주제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의미 있는 철학 고전〉이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포함 총 5편의 작품이 담겨있다.

두 번째 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 용기 있는 철학 고전〉이고 루소의《에밀》을 포함 총 5편의 작품이 담겨있다. 세 번째 주제는 〈지금 우리 사회 문제에 답을 주는 통찰력 있는 철학 고전〉으로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을 포함 총 5편의 작품이 담겨있다. 네 번째 주제는 〈후대 철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가치 있는 철학 고전〉으로 하이데거의《존재와 시간》을 포함 총 4편이 담겨있다. 마지막 주제인 〈철학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불멸의 철학 고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4명의 철학자의 대표 작품이 담겨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철학을 어려워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라고 한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철학책을 쉽지만 깊이 있게 핵심만 뽑아 정리했기 때문에 하루 10분이면 교과서 수록 도서와 생기부 필독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논술 및 입시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 책을 통해 만난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 교양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인생 지침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천히, 절대로 조급하지 않게 꼭꼭 씹어가면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철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려웠던 문제와 지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들의 생기부나 입시에 필요한 철학을 요약한 도서라 이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듯 무슨 이유로 이 책을 골랐든 철학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간략하게 정리된 철학 입문서로는 나쁘지 않은 책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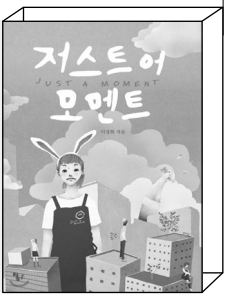
오늘도 '땀' 흘리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의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저스트 어 모멘트

이경화 글 - 탐, 2011.

추천대상: 청소년
#'체면', 그것이야 말로 모든 관계를 망치는 암적 존재다
#'달과 6펜스'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것!



이 소설의 주인공 시은이는 말 그대로 '평범'한 소녀다. 가정 형편도 평범하고, 외모도 딱히 두드러지지도 않고, 성격도 무난한 고등학생. 그것이 시은이가 갖고 있는 표면적 정체성이다. 하지만 시은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학원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다. 남의 시선과 체면을 중시하는 엄마는 시은이에게 '절대로 우리 집이 망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시은이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런 처지를 모르는 친구 혜연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 덕분에 시은이는 졸지에 외톨이가 된다. 모든 사정이 다 괴롭지만 당장 수중에 막대 사탕 하나 사 먹을 만한 푼돈도 없는 주머니 사정 역시 만만치 않다. 어쩔 수 없이 시은이는 난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저스트 어 모멘트'라는 조금은 이상한 이름의 된장찌개 집. 그곳에서 난생 처음 힘이 드는 육체 노동을 하고, 처음 보는 동료들과의 손발을 맞추고 따뜻한 연대를 느끼면서 그녀는 조금씩 성장해간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10년 초반의 최저 시급은 4,100원대. 현재의 9,160원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야기 속의 사장은 그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속이고 회유한다. 너무나도 부당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시은에게는 없었다. 시은뿐만이 아니다. 사장에게 속아 뼈 빠지게 일하고도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본 지배인 오빠는 물론이거니와, 사장님 앞에서 할 말 다하는 똑똑한 소희 언니조차 그런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유일하게 그런 현실에 맞섰던 것은 시은이와 동갑인 '정훈'이다. 그는 말한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의 문제'라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위해 1인 시위마저 불사했던 정훈은 사장에게 돈을 받고 당당하게 일을 그만둔다. 그리고 가게에 남은 시은에게 사장은 '저스트 어 모멘트는 청소년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식당입니다'라는 홍보문을 가게에 붙이도록 지시한다. 과연 그녀는 '주급' 과 '자존감'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할까? 가게 이름과는 달리 절대 시은의 인생에서 절대 '저스트 어 모멘트'가 될 수 없었던, 소설 속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힘찬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 소설의 작가 이경화는 본인이 운영하는 작은 동네 책방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청소년 소설을 써 냈다. 대표작으로 《나의 그녀》, 《장건우에게 미안합니다》, 《성스러운 17세》, 《진짜가 된 가짜》, 《지독한 장난》 등이 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은 AI》로 2019년 제9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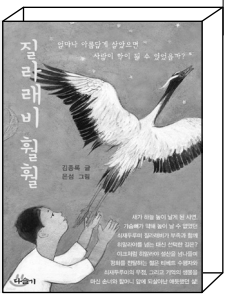
쇠재두루미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어리석음'과 '화해의 가능성'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질라래비 훨훨

김종록 글, 은섬 그림 - 다슬기, 2019.

추천대상: 청소년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 남들과 다른,
새롭고 낯선 길을 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면!



《질라래비 훨훨》은 히말라야산맥을 넘나들며 겨울을 나는 쇠재두루미의 눈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우화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질라래비는 전설의 비행 고수 가문에서 태어난 어린 쇠재두루미다. 하지만 질라래비는 천성적으로 용골돌기(고공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슴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도저히 히말라야산맥을 넘을 수 없었다. 히말라야산맥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월동지로 날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여 질라래비의 아빠는 어린 딸을 위해 특훈을 시켜 용골돌기를 발달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녀는 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저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즐겨했다.

> ***왜 모두가 하늘 높이 날아야 하고 똑같은 길을 가야만 하나요? 난 높이도 안 날 거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어요!*** *(25)*

하지만 그냥 두면 질라래비는 얼어 죽을 운명.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공기오염이 심해 오래전부터 발길을 끊었던 동남방 경로로 월동지를 정하게 된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이 없어서 용골돌기가 발달하지 않은

질라래비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할머니가 함께 남는다. 그렇게 말괄량이 소녀와 지혜롭게 늙어가는 할머니의 아주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이 소설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작가이자 인문학자인 김종록의 작품이다. 그는 이십대 때부터 만주벌판과 바이칼, 알타이, 카일라스, 히말라야 등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콘텐츠 작업을 해왔다. 2018년 《금척》, 2006년 《소설 풍수》 등의 책을 썼다. 작가의 삶과 다른 글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쇠재두루미들은 인간과 인간의 문명을 온통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 ***인간적이라는 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걸 가리켜. 저희들끼리 정해놓은 법이나 도덕조차 안 지키고 뭉개는 걸 인간적이라고 하더라고.*** *(176~177)*

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면 작가는 인간과 타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도 가능하다는 꿈을, 그 바람을 소설 속에 담고 있는 것 같다. 자연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유용한 인공의 공유. 그 가능성의 열쇠는 '무례하지 않을 것' 즉, '타 생명을 향한 배려'라는 점을 작가는 강조한다. 더불어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어른 쇠재두루미로 자라나는 질라래비의 모습을 통해 어린 세대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질라래비 훨훨, 질라래비 훨훨' 질라래비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는 비단 그녀에게만 향한 것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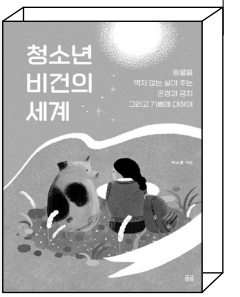
지구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담다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청소년 비건의 세계 : 동물을 먹지 않는 삶이 주는 곤경과 긍지에 대하여

박소영 글 – 휴머니스트, 2022.

추천대상: 초등(고), 청소년, 일반
#자연과 동물에 무해하고픈 이들에게
#동물과 환경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하고픈 이들에게
#비건이 무엇인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비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얼까? '범상치 않은 개성', '대단한 의지' 또는 '건강에 안 좋고 쓸모도 없는 공연한 허세'까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론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일 것이다. '비건'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이렇게 전혀 쉽지 않은,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두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 '비건'의 의미, '비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세상을 잘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동물을 먹지 않는 삶이 주는 곤경과 긍지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라는 부제에서 짐작된다. 비건은 동물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는 사람이며, 그로 인한 곤경도 잦지만, 자기 삶에 자신의 의지로 선을 긋고 그를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갈수록 크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머리말의 제목처럼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비거니즘에 막 입문하려는 독자가 용어에 부담을 느끼거나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일찍 포기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표현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현재 청소년이거나 청소년 시절부터 비거니즘을 실천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이 추구하는 비거니즘의 모양은 각기 다르다. 다만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통점'을 가졌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거니즘이지요. 비거니즘의 모양이 한 가지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생활 습관에 맞는, 자유로운 비거니즘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한 비건 지향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저자는 "완벽한 비건 한 명보다 불완전한 비건 99명이 동물권 증진이나 기후위기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목표를 불완전한 비건, 느슨한 비건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에 맞추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동물'에서 분리한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주체로 보지 않고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는 데 반대하기 때문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생명을 가진 대상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은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넓어지게 됨을 이들은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분명 조금 나아질 것이다.

저자가 비건의 확산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육식'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라 비건 지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빼놓을 수 없는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비중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축산업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 더더욱 점진적인 변화, 완벽하지 않은 수많은 비건 지향인에 의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겠다.

이 책은 비건이 된 이유 외에도 현시대가 갖는 동물 단백질 신화, 채식이라면 뭘 먹지에 대한 걱정, 채식할 권리를 위한 노력, 지속하는 기쁨 등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해 준다. 무엇보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사려 깊은 어휘와 문장을 써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비건'은 그저 하나의 취향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동물성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신념이 더 강하게 들어간 표현이라고 한다. 여느 사람들과 섞여 같은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소속감을 버려야 하고, '식물도 살아있는데 왜 먹냐?' 같은 짓궂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비건'의 길에 공연히 들어서길 고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건에 호감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비거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입문서로 권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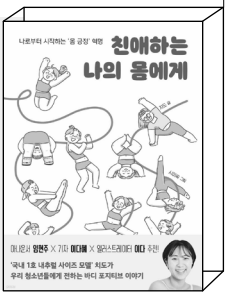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치도 글, 시미씨 그림 – 주니어RHK,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바디 포지티브가 궁금한 이들에게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해본 적이 있는 이들에게



치도의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는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자기 몸 긍정주의)가 주제인 도서로 어렸을 적 자신의 몸을 미워한 저자가 점점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과연 바디 포지티브가 무엇이기에 저자는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나다워질 수 있었을까?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를 읽으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저자인 치도는 한양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과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 에세이 《몸의 말들》(공저)과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다》가 있다.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살찌면 투명인간〉, 〈사랑의 출발은 나로부터〉, 〈나의 다이어트 연대기〉, 〈운동, 너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변화〉,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삶의 길을 고쳐 닦다〉이다.

각 장의 순서는 저자가 '외모 지상주의자'이던 시절 열등감을 가졌던 대상으로

구성했다. 인간관계, 사랑, 패션 등등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몸과 관련지어 생각했던 저자는 내 외모가 더 나아진다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살을 빼야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달라지는 저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와 함께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에서 말하는 바디 포지티브는 단순히 '내 몸은 소중하다'라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바디 포지티브란 신체 크기, 모양, 피부색, 성별 또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으로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덧붙여 인간은 손끝에 있는 지문 하나조차도 모두 다른데 하물며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외모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예쁘고 잘생겨야지만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며 한탄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인공을 양보하는 셈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몸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위해 행동한다면 내 삶의 주인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딜 가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들이 미치도록 부럽고 질투 났었어. 예쁘고 날씬한 그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어 놓고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생각했지. 타인이 왈가왈부하는 말들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놓기도 했어. 하지만 깨달았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왜 저 삶은 내 것이 아니지.' 생각했다는 걸. 네 인생의 장르는 너야. 주인공도 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야. [중략] 그럼에도 무언갈 계속하면, 결국 무언가가 되어 있더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한탄하는 데만 시간을 쓰면 결국엔 스스로를 미워하는 '행인1'이 될 뿐이야.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막막하게 느껴져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는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기에 우리는 훨씬 쉬우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길로 가야할지 알려 주는 지도 같은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와 함께 나의 몸과 화해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떼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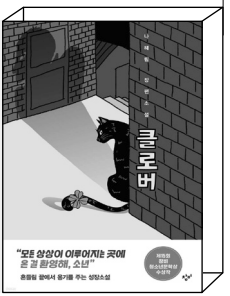
‘맘에 들지 않는 삶’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클로버

나혜림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걷어차버릴 수는 없는 인생에 대하여’
#응달에서도 꼭 꽃을 피워내는 ‘클로버’와 같은 삶을 닮고 싶다면



나혜림 작가의 《클로버》는 제15회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희영의 《페인트》, 백온유의 《유원》, 손원평의 《아몬드》 등 훌륭한 청소년 소설 작품을 배출해낸 창비 청소년문학상 시리즈인 만큼 ‘작품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된 줄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 주인공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삶에 맞서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큰 축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주인공 ‘현정인’의 ‘자율 의지’, 혹은 ‘주체성’을 들 수 있다. 정인이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다. 아빠는 기억조차 전혀 없고, 그나마 약간 기억이 있는 엄마는 야쿠르트 배달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그 후로는 그저 삶을 걷어차 버리지 않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그런 정인이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다. 그것은 아직 어린 정인이 견뎌내기에는 그야말로 ‘혹독’ 그 자체다. 유일한 가족은 경제력도 없고 몸이 자주

아픈 할머니뿐이다. 마땅한 친구 하나 없는 것도 서러운데, 금수저인 '태주'라는 녀석은 이유 없이 정인이를 괴롭히며 자존심을 박박 긁기 일쑤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길거리의 파지를 주워야 하는 일상은 지긋지긋하고, 정인이가 좋아하는 '재아'와의 '현실적, 그리고 복합적 차이'는 정인의 마음을 무겁게만 만든다. 무엇보다 정인이네 가족의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은 정인의 '내부'이기도 하고 '외부'이기도 한, '악마의 유혹'이다. 순결한 영혼을 타락시켜 그 맛을 취하는 취미를 가진 악마 '헬렐'은 검은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서 정인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정인에게 달콤한 유혹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과연 정인이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포기하게 될까? 아니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나혜림 작가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신인급 작가로서 단편소설 〈달의 뒷면에서〉로 '항체의 딜레마'에 참여하였고, 《클로버》로 제15회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라고 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심이 느껴지는 젊은 작가의 앞으로의 밝은 행보가 기대된다. 작품 속에서 커다란 여운을 주는 문장 두 가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걷어차 버리고 싶지 않아. 기억도, 삶도, 세상도. *(196)*

만 가지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하나도 안 따지고 살겠어요. 만에 하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놓칠 구천구백구십구 개의 가능성 사이에서 내 식대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겁게 엉기는 공기와 상쾌하게 개운한 여름 향기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페퍼민트

백온유 글 – 창비, 2022.

추천 대상: 청소년, 일반
#절망의 상황에 작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
#자신이 어떤 누구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매일 학교가 끝나고 병원으로 가서 식물인간인 엄마를 돌보는 열아홉 살 시안의 일상은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 희망과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감싸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들로 채워진다.

그렇게 비눗방울을 따라 뛰어가다,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손바닥과 무릎에서 피가 흐르자 나 대신 해원이 울상을 짓는다.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 쓸린 상처를 확인하더니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네, 약 바르면 금방 낫겠네. 나는 울지 않는다.

환상과 같은 비눗방울을 따라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 느껴지는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처럼, 약 바르면 금방 나아지듯, 누워있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비눗방울처럼 환상이 되어 조금씩 현실과 멀어져 현재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고 약 바르면 금방 나을 듯이 시안의 삶이 조금씩 덤덤해진다. 그렇게 시안은 울지 않는다.

미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매일같이 엄마가 좋아하던 페퍼민트 차를 우렸다.

시안은 식물인간이 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 엄마가 좋아하던 페퍼민트 차를 매일 우려 입가를 적셔 자극해 준다.

식물인간이 되어 몸에 갇혀있는 듯한 엄마의 모습처럼 어느새 시안의 반복되어 무뎌져 가는 일상에 내려앉은 하루하루에 어린 시절 함께 한 해원과의 만남은 페퍼민트의 차가 미각을 깨우듯 반복되고 무미건조하던 하루를 조금씩 변화하게 했다.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6년 전 '프록시모' 바이러스 전파의 슈퍼 전파자였던 시안의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동네 친구 해원의 가족, 시안과 다르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해원과의 만남은 잃었던 삶의 시선과 무뎌졌던 감정을 함께 가져왔다.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원망스럽기도, 부럽기도, 부끄럽기도 한 감정들이 일렁인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감당하고 좁은 시선으로 걸어가던 시안에게 그리고 해원에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에게서, 지금 감당해 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진다.

어른들도 감당해내기 어려워 그 순간, 그 상황에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지만, 아이들은 작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준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갑자기 마법처럼 좋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작고 소중한 작은 희망과 밝은 빛을 내는 그 용기는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있던 삶에 발걸음을 내디뎌 조금씩 나아가 성장하는 힘을 가져다준다.

그때, 누군가의 숨결 같은 바람이 등을 떠밀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늘을 벗어나 한걸음,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따뜻한 페퍼민트 차를 입에 머금어 따뜻하고 개운한 여름 향기의 용기를 마음에 담아본다.

청소년을 위한 책

일반 성인을 위한 책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신익수	생각정거장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부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메이븐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300개의 단상	세라 망구소	필로우	김보라	화성시 태안도서관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	아울북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은경	아워미디어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8일째 매미	가쿠다 미쓰요	Media2.0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가나출판사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FBI 사람예측 심리학	로빈 드리크, 캐머런 스타우스	코리아닷컴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GV빌런 고태경	정대건	은행나무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ICS 정화와 소통 : 영혼의 매트릭스	이영현	렛츠북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지와인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손재일, 전기영	21세기북스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가능한 불가능	신은혜	제철소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거의 모든 IT의 역사	정지훈	메디치미디어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거의 정반대의 행복	난다	위즈덤하우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거인의 노트	김익한	다산북스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결혼기담	아키요시 리카코	대원씨아이	이정인	화성시 목동이음터도서관
경우 없는 세계	백온유	창비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이소연	다산북스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고래	천명관	문학동네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고양이를 버리다	무라카미 하루키	비채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공감의 시대	제러미 리프킨	민음사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공공디자인 시대	김주연	스리체어스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공룡의 이동경로	김화진	스위밍꿀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공부의 기술	이상욱	웅진지식하우스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개빈 프레터피니	김영사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그곳은 따뜻한가요	윤여준	쥬쥬베북스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그렇게 죽지 않는다	홍영아	어떤책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이나가키 에미코	엘리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창비	조연수	김포시 마산도서관
글로벌 거지 부부	박건우	태일소담출판사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글쓰기는 처음이라	안광국	빨간소금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김미리	휴머니스트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두란노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기묘한 괴담하우스	사와무라 이치	북플라자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빌 맥과이어	양철북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	김경일	김영사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김경일	저녁달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꽃들의 말	장 프랑수아 샤바	오후의 소묘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꿀잠의 과학	김유겸, 이유진, 최승홍	위즈덤하우스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끝내주는 인생	이슬아	디플롯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하재영	휴머니스트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박건우	길벗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문요한	해냄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박중철	홍익출판미디어그룹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나도라키의 머리	사와무라 이치	아르테	백송이	가평군 청평도서관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부크럼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강형근	흐름출판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비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양정무	사회평론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	박승준	청아출판사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내 아이를 위한 정화	이영현	렛츠북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내 일로 건너가는 법	김민철	위즈덤하우스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우리학교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다산초당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너의 하루가 따숩길 바라	고은지	북라이프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전한길	21세기북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넬라의 비밀약방	사라 페너	하빌리스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눈의 무게	크리스티앙 게-폴리캥	엘리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다윈지능	최재천	사이언스북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다정소감	김혼비	안온북스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디플롯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당신께	오지은	김영사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더퀘스트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더퀘스트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엘 코시마노	인플루엔셜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명	문학동네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마이클 슈어	김영사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더티워크	이얼 프레스	한겨레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덕질로 인생역전	대학내일20대연구소	중앙북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어크로스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도서관은 살아있다	도서관여행자	마티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도파민네이션	애나 렘키	흐름출판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황금부엉이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황금부엉이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돈의 사이클	이재범	위즈덤하우스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또 못 버린 물건들	은희경	난다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라틴어 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랑과 나의 사막	천선란	현대문학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럭키	김도윤	북로망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크리스토스 H. 파파디미트리우	랜덤하우스코리아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마음의 지혜	김경일	포레스트북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김선호	서사원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마침내 운전	신예희	애플북스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마케터의 글쓰기	이선미	앤의 서재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마흔에 읽는 니체	장재형	유노북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메이븐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만지고 싶은 기분	요조	마음산책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다산책방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	마스다 미리	티라미수 더북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매일을 헤엄치는 법	이연	푸른숲	최다원	포천시 가산도서관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국일미디어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	수오서재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몸과 삶이 만나는 글, 누드 글쓰기	고미숙 외	북드라망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물 만난 물고기	이찬혁	수카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글항아리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후카모리 후미코	In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밀림의 연인들	김달리	안전가옥	손정은	고양시 도서관정책팀
밑바닥	조 R. 랜스데일	황금가지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모모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수업	박원갑	메이트북스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	다비드 디옵	희담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백명 버튼	김동식	위즈덤하우스	차정아	파주시 중앙도서관

백의 그림자	황정은	창비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번아웃세대	곽연선	스리체어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베싸육아	박정은	래디시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베이비 박스	융	바람북스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별것 아닌 선의	이소영	어크로스	최다원	포천시 가산도서관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	윤혜자	몽스북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부의 인문학	우석(브라운 스톤)	오픈마인드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다산북스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불안을 넘어설 용기	크리스토프 앙드레	더 퀘스트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	생각지도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빅씽킹	도널드 트럼프, 빌 쟁커	서울문화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뼛 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골드버그	한문화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사건	아니 에르노	민음사	천지영	前 화성시 늘봄이음터작은도서관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양지열	이론과실천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랑을 담아	에이미 블룸	문학동네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사물에게 배웁니다	임진아	휴머니스트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사장학개론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삶과 맞닿아 있는 도서관의 힘	강상도	북랩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박찬국	21세기북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삼국기밀	마보융	CNTV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안진흥	지오북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정이현	문학과 지성사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위에	미디어숲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생에 감사해	김혜자	수오서재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백승	알에이치코리아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섬의 애슐리	정세랑	미메시스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세계의 말들	구로다 류노스케	유유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세상 끝의 카페	존 스트레레키	클레이하우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이희인	바다출판사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데이원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소년을 읽다	서현숙	사계절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숫자로 일하는 법	노현태	인플루엔셜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푸른숲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신지	잠비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정광하, 오남도	차츰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시나리오 쓰고 있네	황서미	씽크스마트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시와 산책	한정원	시간의 흐름	김보라	화성시 태안도서관
식물산책	이소영	글항아리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식물의 방식	베론다 L. 몽고메리	이상북스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신의 카르테 1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싯다르타	헤르만 헤세	문학동네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아! 팔레스타인	원혜진	바이북스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아끼는 날들의 기쁨과 슬픔	이건해	에이치비프레스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아무튼, 산	장보영	코난북스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아무튼, 현수동	장강명	위고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종기	은행나무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아자젤	아이작 아시모프	열린책들	이정인	화성시 목동이음터도서관
아주 사적인 여행	양주안	알에이치코리아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김설	위고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아트인문학 여행:스페인	김태진	카시오페아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 잡학상식	온스토리 편집부	온스토리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마음산책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어디에도 없는 아이	크리스티안 화이트	현암사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어른의 문장력	김선영	더 퀘스트	최미혜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어른의 중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	월북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동수	알에이치코리아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엄마를 절에 버리러	이서수	자음과 모음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엄마와 딸 여행이 필요할 때	한명석	사우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에니어그램의 지혜	돈 리차드 리소, 러스 허드슨	한문화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에이징 솔로	김희경	동아시아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크리스티안 노스럽	한문화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여행의 시간	김진애	창비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역행자	자청	웅진지식하우스	권정구	시흥시 중앙도서관
연결지능	에리카 다완, 사지-니콜 조니	위너스북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예민함이 너의 무기다	멜로디 와일딩	위즈덤하우스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예수아 채널링	파멜라 크리베	정신세계사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	그림에다	위즈덤하우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오늘도 수영	아슬	애플북스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	권은순	북커스	최미혜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오색 찬란 실패담	정지음	알에이치코리아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푸른역사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김아미	민음사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	안소정	앨리스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왓칭 1	김상운	정신세계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왓칭 2	김상운	정신세계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다산북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요가 숲 차	신미경	위즈덤하우스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용과 지하철	마보융	현대문학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	이윤호	도도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	웅진지식하우스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김이삭 외	한겨레출판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	매리언 네슬, 케리 트루먼	현암사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김승섭	동아시아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우연하고도 사소한 기적	아프리카 윤	파람북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우울할 땐 뇌과학	앨릭스 코브	심심	백송이	가평군 청평도서관
운을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쓰토무	알투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울트라 셀프	이리앨	다산북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웰씽킹	켈리 최	다산북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유연함의 힘	수잔 애쉬포드	상상스퀘어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유태우 교수의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유태우	김영사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은유	김영사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음의 방정식	미야베 미유키	문학동네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라곰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라곰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리틀타네(신가영)	웅진지식하우스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다빈치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연수	문학동네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 도서관
인간수업	민현기 외	Book Insight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민	사회평론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일놀놀일	김규림, 이승희	웅진지식하우스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일잘잘: 일 잘하고 잘 사는 삶의 기술	김명남 외	창비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창비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자본주의의 적	정지아	창비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다산책방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잘 자고 잘 먹는 아기의 시간표	정재호	한빛라이프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장안 24시	마보융	현대문학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백정연	유유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	부키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휴머니스트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저만치 혼자서	김훈	문학동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저주토끼	정보라	래빗홀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전국축제자랑	김혼비·박태하	민음사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전현수	불광출판사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원지	상상출판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위즈덤하우스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조화로운 부	제임스 아서 레이	라이온북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지식노마드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죄와 벌 1,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민음사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김영사	구진영	파주시 중앙도서관
지니, 너 없는 동안	이은정	이정서재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채소는 따뜻하게 먹습니다	쓰쓰미 히토미	좋은생각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천 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쌤앤파커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다산초당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철학자의 걷기 수업	알베르트 키츨러	푸른숲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첫 집 연대기	박찬용	웨일북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청춘의 독서	유시민	웅진지식하우스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문학동네	김은미	이천시 시립도서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문학동네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칵테일, 러브, 좀비	조예은	안전가옥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콜센터의 말	이예은	민음사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클라우드 머니	브렛 스콧	쌤앤파커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탱크	김희재	한겨레출판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퇴근 후 1시간 은퇴 수업	허윤	미다스북스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특별한 한국인	박영규	웅진지식하우스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동아시아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파친코	이민진	인플루엔셜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풀하우스	메이브 빈치	문학동네	정지은	시흥시 능곡도서관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다산책방	김경욱	구리시 토평도서관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다산북스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피아노 시작하는 법	임정연	유유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하쿠다 사진관	허태연	놀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책방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곽재식	위즈덤하우스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해외생활들	이보현	꿈꾸는 인생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허허 동의보감 1-2	허영만	시루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형사 박미옥	박미옥	이야기장수	김은아	안양시 박달도서관
형사 박미옥	박미옥	이야기장수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이하레아카라 휴렌,조 비테일	판미동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호흡의 기술	제임스 네스터	북 트리거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서 싫다	이혜린	프레너미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화가가 사랑한 바다	정우철	오후의 서재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회사버리고 어쩌다 빵집 알바생	개띠랑	루리책방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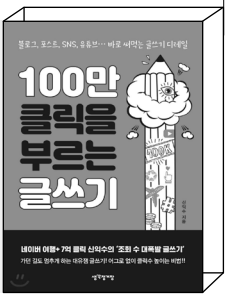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글쓰기가 궁금하다면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신익수 글 – 생각정거장, 2019.

추천대상: 일반
#조회수를 폭발시키는 글쓰기가 궁금한 사람에게



책을 읽고 강의를 듣다 보면 실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출판했고 강의 자체가 본업인 사람들이 제법 많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 '가짜'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간과 돈만 날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좌절감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에도 항상 저자가 실제로 성과를 낸 사람인지를 꼭 확인한다. 그런 확인 작업을 거쳐 신익수의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를 선택했는데 이 책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이 책의 저자는 '뇌즙을 짜가며' 누적 클릭 수만 7억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생산해 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보통 성과가 아니다. 네이버 여행 주제판을 맡아 3년간 3만 660개의 콘텐츠를 생산해 냈다. 양도 양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콘텐츠당 2만2천회가 넘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책에는 지난 3년간 저자가 직원들과 함께 매주 회의를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책은 그런 것이다.

책에는 누군가의 고민, 노력 그리고 도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책의 가격은 가치에 비해 정말 저렴하다.

말랑말랑하고 부담 없는 글쓰기 비법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가 있다. 그런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처절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다. 오로지 실제로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는 글쓰기에만 집중한다. 글쓰기 자체가 밥벌이이기 때문에 선택받기 위한 꼼수도 가득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좋다. 저자가 작가라고 멋있는 척 안 해서 더 좋다.

솔직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쓴다고 해도 글이라는 것은 독자가 외면하면 그만이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들인 노력들은 저자 본인만 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 올라오는 글들은 누군가가 클릭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조회수 2만의 엉망인 글이 조회수 10인 명칼럼보다 가치가 높다. 일기를 쓰려면 혼자만 볼 수 있는 일기장에 쓰면 된다. 대중들을 향해 쓰는 글은 조회수가 그 글의 가치를 결정한다. 씁쓸하지만 사실이다.

멋있어 보이는 글쓰기들은 정말이지 별로다.

이외수의 글쓰기 공중부양 노하우나 박종인식 기자의 글쓰기, 이문열식 우아한 만연체에는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 그냥 쓰는 사람만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문장이 형편없고 질 낮은 콘텐츠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글은 남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하는 선택만 남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상적인 글쓰기가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나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책이 좋다. 많은 사람이 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용에 대한 칭찬이면 더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봐야지 칭찬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내 글을 누군가가 욕해도 괜찮다. 욕한다는 건 읽었다는 거니깐. 읽지 않았다면 욕할 일도 없다. 관심이 있으니까 욕도 하고 그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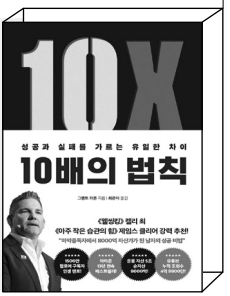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법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글, 최은아 옮김. – 부키. 2022.

추천대상: 일반
#부와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공의 원리와 방향을 찾고자 할 때



Who가 나에게 묻는다.

who: 성공이 뭐냐?

나: 성공은 경제적 안정, 가족, 행복, 영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everything else.

성공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책을 읽을 이유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 책은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성공이 우리의 의무이라고도 한다. 또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고 한다. 이 책에는 '운이 성공을 낳는 게 아니라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 아주 새로운 말은 아니었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좋았다.

세상은 참으로 독하다. 그리고 성공하려는 자,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는 자에게 세상은 더 독하다. 그래서 10배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그랜트 카돈은

강조하고 있다. 현재 독자가 무언가 결핍과 실패의 벽 앞에 놓여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또 나약했던 자신을 과거형으로 묻어두고 싶다면 10배의 법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주선이 발사체에서부터 대기권을 뚫을 만한 에너지를 뿜으며 올라가듯 처음부터 파괴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사고력과 행동력으로 움직이는 동력을 쓰라고 격정적 언어로 계속 전달하는 것이 낯설고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랜트 카돈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는 한계가 없고, 또 매우 풍성하다는 말이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져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설정 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이며 그것은 다시 순환하며 또 발전한다.

열정적 에너지를 쉬지 않고 내뿜는 저자 그랜트 카돈은 세계적 세일즈 트레이닝 전무가로서 기업가이자 부동산 투자가다. 그가 국제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도 그의 탁월한 사고력과 행동력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마케팅 인플루언서로, 또 경영인의 멘토가 되기까지 TV방송이나 뉴스,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일링, 전화, 10권 이상의 출판, 칼럼 등 정상적인 활동력을 초월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금융, 투자 전문 강연가이자 기업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와 OCD(강박장애)를 극복했다. 그러면서도 7개 기업, 운용 자산 25억 달러, 순자산 3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가 된 것을 알게 되면, 마치 21세기의 리더들의 리더이며, 과거의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칭기스칸을 보는 듯하다. 켈리 최, 제임스 클리어, 브라이언 트레이시 등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랜트 카돈의 초기 저서인《일등이 아니면 꼴찌다》란 책도 대단한 성공 열정을

녹아 있어서 독자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훔치고도 남을 것이라 예상된다.

성공의 길에 들어서기 전, 나를 아낀다는 주변사람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라, 뱁새가 황새를 쫓으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등 '현재 만족하라' 혹은 '두려움'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위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일단 조언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라. 그리고 '아무 것도 전념하지 않다가 실망하기보다 꿈과 목표를 향해 전념하다가 실망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해라.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표를 축소할 수는 없다. 매일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되며 선명하게 하고, 또 목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결국 지칠 줄 모르는 행동력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숙달해 나가야 한다.

작가의 열정이 전달되어 이 책을 권하게 되었지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듯하다.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독자의 삶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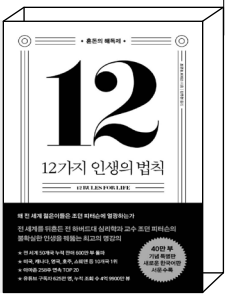
더 나은 삶을 위한 12가지 조언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조던 B. 피터슨 글, 강주헌 옮김 - 메이븐,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삶이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책



토론토대 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뽑은 조던 B. 피터슨 교수의《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저자가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올리며 시작되었다. 쿼라에서는 누구든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다. 독자는 마음에 드는 대답에 추천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에는 비추천을 누른다. 이 과정을 통해 좋은 답글은 위로 올라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그렇지 않은 답글을 아래로 내려간다.

쿼라에 저자가 올린 삶의 귀감이 되는 법칙과 격언은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12개를 추리고 다듬어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발간 이후, 전 세계 50개국 누적 판매 600만 부를 돌파하고, 아마존 차트에서 258주 연속 TOP 20에 머물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 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도 들르지 않는다. 나머지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아 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 보자. 이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강아지에게는 처방대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인다.

이 책의 2장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에서는 왜 우리가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자는 우리가 자기 몸과 마음의 결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한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벌한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인간은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되며,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 의욕적이고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험난한 인생이라는 바다를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자의 인생에 대한 지혜와 조언이 담겨 있다.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시련의 반복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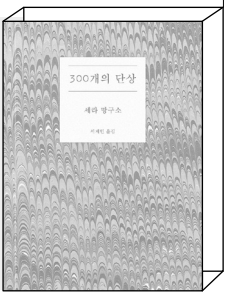
짧지만 깊이 있는, 예리하지만 서정적인 300개의 삶에 대한 단상

김보라 (화성시 태안도서관)

300개의 단상

세라 망구소 글, 서제인 옮김 – 필로우,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긴 글은 부담스럽지만 무언가 읽고 싶을 때
#자아와 타인, 창작, 욕망, 삶의 아이러니에 관한 단상을 듣고 싶을 때



'디테일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흥미로워지는 건 아니다.' *(32)*

그러나 이 글은 서평이므로 디테일을 조금 늘어 놓아 보겠다. 《300개의 단상》은 아포리즘 형식의 글 모음집이다. 아포리즘(aphorism)의 사전적 정의는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이다. 대체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글 형식이다. 명언이나 격언, 속담처럼 교훈이 내재되어 있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 세라 망구소의 단상들이 전통적인, 진리나 교훈이 기저에 깔린 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아포리즘'과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300개의 단상》이 작가의 일상을 기반으로 한 에세이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 작가의 삶, 육아 경험, 투병, 타인, 글쓰기에 대한 고민과 갈망 등 내밀한 기록들이 쌓여 있다. 실제로 겪어 본 사람이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뼈 있는 농담 같은 문장들로 가득하며, 이들은 직선의 교훈보다는 유연한 공감, 냉소,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 창의적이고 솔직한 단상집은 독자의

가치관, 경험 등 개인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읽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라 망구소는 왜 짧은 글을 300개나 모아 책으로 만들었을까? 책의 마지막, 옮긴이의 말이 작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라 망구소는 미국의 시인, 소설가이며 회고록 작가이기도 하다. 작가의 첫 책은 《쇠락의 두 가지 유형》으로 희소병으로 병상에 누워 9년 동안 투병한 시기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옮긴이 서제인은 이 책을 읽은 후 작가가 쓰는 행위를 통해 망각에 저항하며, '무'로 변해버릴지도 모르는 – 삼키기에는 압도적인 –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망각에 대항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편집자는 출산, 육아 등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짧은 글 형식이 어떻게든 글을 쓰려는 '투쟁'으로 느껴졌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의견 모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잘 설명한다.

'이 글들이 책에 실리게 되면 세월과 악천후에 마구 흩어진 폐허의 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내가 있었다.' *(97)*

'나는 요약이 불가능한 글을 좋아한다. 핵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압축할 수 없는, 쓰인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글을.' *(66)*

위 문장들처럼 글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쓰였으며 그래서 쉽게 읽힌다. 그러나 작가의 삶과 버무려지고 정제된 글들이므로 가볍지만은 않다. 삶의 순간순간을 섬세하게 잡아내고, 삶을 아름답게 혹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긴 글을 읽기는 싫지만,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 《300개의 단상》은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책은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라 들고 다니며 시시때때로 펼쳐 보기 좋다. 표지는 서양식 제본을 할 때 자주 쓰이는 마블지로 장식했다. 서양에서는 보통 소중하거나 가치 있는 책을 가죽과 마블지 등의 재료를 사용해 아름답게 제본하여 보존하곤 한다. 표지로 쓰인 마블지의 켜켜이 쌓인 무늬가 세라 망구소의 시간을 차곡차곡 담은 단상집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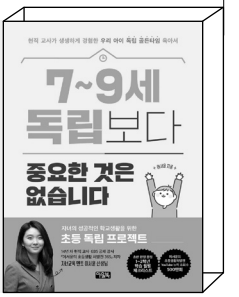
자녀의 첫 독립을 응원합니다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 글 – 아울북, 2023.

추천대상: 일반
#내 아이의 첫 독립을 응원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길잡이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독립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부모의 품에서 첫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가정에서 나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사회생활을 배운 우리 아이들. 7~9세 시기에는 비로소 부모의 품을 벗어나 인생 독립의 첫 단계를 밟습니다. 보육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학교에 다니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7~9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신가요?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통해 자녀의 독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이서윤 저자는 14년 차 현직 교사, EBS 공채 강사이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365》와 《수상한 미래에 접속하였습니다》 등 20여 권의 책을 쓰고, 다양한 교육 관련 방송에 출연하여 초등 부모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서는 인생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마음 독립,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인 생활 독립, 그리고 학습

독립. 이 세 가지의 독립으로 아이들은 인생 독립을 이룹니다.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마음 독립은 아이에게 자존감, 자율성, 정서 조절력, 긍정성, 끈기 이렇게 다섯 가지의 마음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강한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는 '마음'이 중요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마음이 건강해야 하지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하다. 그러니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힘'을 키워 주는 것이다. 마음의 힘이 바로 '마음 독립'이다.

생활 독립은 평생 가져갈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습관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스스로 일정 관리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만들 때,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경쟁력의 원천을 두고 사람을 나눌 때 북-스마트(book-smart)한 사람과 스트리트-스마트(street-smart)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북-스마트는 말 그대로 '책으로 세상 정보를 많이 배운'이라는 의미이고, 스트리트-스마트는 '세상 물정에 밝은'이라는 의미다. 즉 공부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사람은 북-스마트라고 할 수 있고, 공부보다는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스트리트-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분법으로 딱 잘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도 눈치가 빠르고 청소나 심부름도 잘하는 소위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도 잘 살 것 같은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공통으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그런 아이들은 스트리트-스마트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 독립은 다음과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공부력은 절제력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력을 키워 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첫째,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울 줄 안다.

둘째, 공부한다.

셋째, 공부한 것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린다.

넷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계획한 것을 다시 공부한다.

마이클렌 다우클레프의《아,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도 함께 읽어보면, 자율적인 아이와 단단한 부모를 위한 첫걸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최종 목표는 내 아이의 성공적인 독립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를 응원합니다!

X세대와 Z세대에 낀대가 아닌 미래를 좌우할 80년대생 학부모에 관한 보고서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은경 글 – 아워미디어, 2023.

추천 대상: 일반, 학부모
#대한민국의 허리, 80년대생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

요즘 뉴스에서 교권 하락에 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강남 소재의 한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극성스러운 민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학생, 교사-학부모간 마찰은 예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서 정답을 100% 맞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요즘 시대의 학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는 15년 동안 초등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자녀교육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5년 동안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한 이은경 작가가 쓴 책이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70년대생 학부모와 책과 영상을 통해 만난 80년대생 학부모,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요즘 학부모에 대한 토로로 시작된 이 책은 이전 학부모들과 다른 80년대생 학부모들의 달라진 가치관, 교육관, 경제관, 자아상 등 면면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1,88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한 챕터마다 교육, 부동산, 플랫폼, 트렌드, 자동차, 자기 계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 봤던 세대는 X세대, 90년대생, MZ생 등이다. 80년대생은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낀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인터넷 활용 1세대, 3저 호황기에 태어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고학력 세대, 선진국 진입 첫 세대' 등의 특징을 가진 80년대생은 현재 직장과 사회에서 중간관리자급으로 '낀대'의 포지션을 살려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영리하게 꾀하는 세대"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책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허리가 된 현재 30~40대의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일하는 방식, 돈, 취향, 자아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미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란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내 아이에게 바라는 배려, 쏟아지는 교육 정보 홍수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는 학부모, 집 대출은 있지만 제대로 된 영어를 위해 영유에 돌진하는 학부모, 맞벌이, N잡러, 영끌, 꼰대와 MZ사이에 있는 80년대생, 인플루언서와 모방 소비, 비소비와 재활용의 대명사 당근마켓, 텐포켓, 신흥부자, 마켓컬리, 반려동물, 덕질, 여행, 자동차와 같은 취향, 자아를 위한 계발 등 80년대생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세대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생의 대한 비판을 기대했다면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 세대에 관해 알고 싶었던 독자라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사실주의에 가까운 책이므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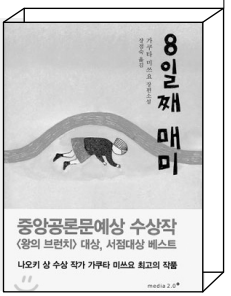
우연과 운명의 어긋난 만남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8일째 매미

가쿠다 미쓰요 글, 장점숙 옮김 – Media2.0, 2009.

추천대상: 일반
#여성주의 소설에 흥미가 있는 사람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20살의 평범한 대학생 에리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녀는 16년 전에 아버지의 불륜 상대에게 납치를 당했었다. 에리나는 3년 동안 그녀와 함께 있다 가족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가족의 치부로 인해 가족들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다. 타인에 의해 인생이 어긋난 에리나는 원망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괴로운 하루를 이어가다 어느 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지구사를 만나게 되는데…….

《8일째 매미》의 작가 가쿠다 미쓰요(1967~)는 문학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자 번역가이다. 2005년 《대안의 그녀》로 나오키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8일째 매미》는 그녀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평론가들이 손꼽는 작품으로 가족의 의미와 모성,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잘 묘사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에리나를 납치한 기와코는 에리나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지만 그녀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좀처럼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남자와 자신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그의 아내……. 남자를 믿고 자신의 아기를 지웠지만 그 후유증으로 그녀는 다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거기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벼랑 끝에 몰린 그녀는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려고 찾아간 그 남자의 집에서 에리나를 데리고 나오게 된다. 기와코는 그 뒤로 폐가와 여성공동체, 섬 등을 전전하며 에리나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려 발버둥치지만 애초에 잘못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이 함께할 장소는 없었다. 매미의 수명은 7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쩌다가 8일째에도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매미에 대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이 소설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가족(家族)은 사전에서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된다. 기와코와 에리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모녀지간이었다. 기와코는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 이상으로 에리나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에리나는 후에 이런 기억 때문에 기와코에 대한 애증으로 괴로워한다. 이 둘을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둘이 함께 보낸 3년도 가족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한다. 혈연으로 묶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서로 아껴주는 생활 공동체.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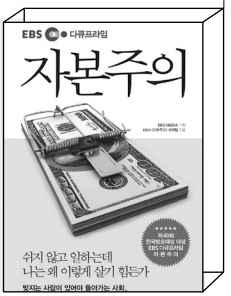
《8일째 매미》는 사건 3부작 시리즈의 하나이다. 만약 이 소설을 재밌게 읽었다면 《언덕 중간의 집》, 《종이달》도 읽어보길 추천한다. 특히 《종이달》은 최근 김서형 배우를 주연으로 한 웹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우연한 일을 계기로 인생이 뒤바뀌게 된 여성과 가족의 이야기를 이보다 잘 그려내는 작가가 있을까. 여성주의 작가인 가쿠다 미쓰요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우리가 몰랐던 자본주의의 숨겨진 비밀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글 – 가나출판사, 201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현대의 핵심인 자본주의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냈다고 호평받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 방송을 책으로 엮어낸 결과물이다. 2013년도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은 제목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진 돈과 대출금, 이자, 부동산 가격 등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가 이렇게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는 궁극적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실전에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경제적 위험에 빠뜨리는 자본주의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살아남는 실질적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제작을 총괄한 정지은 PD는 이전에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와 책으로 이미 실력을 입증한 제작자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다큐는 자녀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책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같은 제작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수준과 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실제로

〈아이의 사생활〉로 정지은 PD팀은 한국PD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을 수상했고 이후 〈자본주의〉로는 한국방송대상 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 10여 개의 상을 수상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는 출간된 지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2장은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3장은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4장은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5장은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이다. 이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제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편이다.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사회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상의 돈을 빌려주면서 시중에 도는 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 아주 놀랍고도 재미있다. 그래서 우리네 물가는 떨어질 수 없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열심히 현금만 모아 저축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알려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는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

이 구절은 책의 목적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돈이 흘러가는 구조와 원리를 모르면 누구나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돈의 흐름은 어떤지 은행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왜 반복되는지를 꼭 알고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부 또는 재테크 등 경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쉽고 효과적인 입문서로 추천한다.

당신의 행동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FBI 사람예측 심리학:
FBI 행동분석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람을 읽는 기술

로빈 드리크, 캐머런 스타우스 글, 고영훈 옮김 - 코리아닷컴, 2020.

추천대상: 일반
#인간관계와 행동 예측에 관심 있는 사람들

《FBI 사람예측 심리학》은 전 FBI 특수요원이자 FBI 행동분석센터장인 로빈 드리케의 저서이다. 저자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병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후, 1997년부터 미국연방수사국인 FBI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수십 년간의 FBI 행동분석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해 예측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신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우리가 FBI처럼 생각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사기꾼을 분별해 안정되고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바로 당신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는 책이다.

이 책의 본문은 35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신호'의 두 파트로 나뉘어 있다. 파트 1에서는 행동 예측 프로그램을 고안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파트 2를 통해 행동 예측의 여섯 가지 신호와 구체적인 단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독자들이 행동 예측 프로그램을 익히기를 바랐다. 일반적인

반응과 더불어 위기 상황의 경우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본문의 사례 중 흥미로운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9.11 테러 당시, FBI 수사관이었던 그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곧 건물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뛰어 들던 동료와 두려움으로 인해 슬그머니 사라지는 동료를 저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나는 그들이 보여 주려 한 모습으로만 그들을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이유가 그들이 겸손해서든, 비밀이 있어서든, 혹은 부끄러워서, 또는 단지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든 말이다. 나는 존과 레니가 보인 용기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가진 많은 덕목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순식간에 달라진 대혼돈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14)*

위와 같이 내용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행동 예측의 필요성과 기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낸다. 저자의 커리어 자체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직업이라는 점과 긴박하게 흘러가는 여러 사례들이 몰입감을 자아낸다. 동맹, 관계지속성, 신뢰성, 행동패턴, 언어,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6가지 신호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성질을 서술하는 점도 흥미롭다.

성실함은 종종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A업무에 능숙하지 않아도 B업무를 배정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업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성실함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 성실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성실한 사람이 부족한 역량을 극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175) (다섯 번째 신호 : 신뢰성)*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춘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한다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긴 마음도 결국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단서가 드러나곤 한다. 어떻게 상대를 예측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꿈꾸는 이들에게 건네는 빛나는 응원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GV빌런 고태경

정대건 글 – 은행나무, 2020.

추천대상: 일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표를 좇다 좌절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작가 정대건은 혼자 고립되어 절망에 빠진 시기에 누군가 자신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소설《GV 빌런 고태경》이 탄생했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여 시사회나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에도 자주 참여했던 작가는 감독에게 난감한 질문을 골라 던지는 소위 'GV 빌런'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연을 상상해 본 경험을 책의 소재로 삼았다고 한다. 이 작품은 2020 한경신춘문예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작가의 소설로는 〈아이 틴더 유〉, 〈급류〉 등이 있다.

조해나는 서른셋의 영화감독이다. 마지막 작품이 처참히 실패하며 커리어가 바닥을 찍지만 새로운 영화는 2년째 찍지도 못하고 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한 가닥 남은 열정도 소진되어 가는 중에 자신의 영화를 주제로 한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영화의 치부를 찌르는 질문만 던지는 중년의 아저씨 고태경을 만나고, 항상 극장에 상주하는 'GV 빌런'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재미있는 그림이 될 것이라 직감하여 그를 설득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다.

두 사람은 촬영을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거리감을 좁혀 나간다. 조해나의 카메라를 통해 고태경이란 인물을 재조명하여 점점 그를 응원하게 된다. 늦깎이 감독 지망생이지만 수백 번 시나리오를 퇴고하고, 영사기사로 일하고, 상영작을 빠짐없이 보며 연구하는 등 고집스럽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나 역시 어중간한 재능을 가졌다며 스스로 '루저'라 여기면서도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런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외로운 길을 걷는 이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비춘다.

> ***누군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웃거나 미워하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소와 조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값싼 것이니까요.*** *(241)*

꿈과 열정이란 단어가 허상을 쫓는 듯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 보았다면 두 인물의 서사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끝부분 고태경의 대사를 통해 다른 이의 상황과 노력을 함부로 폄하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목격자 없이 묵묵히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무언가 이루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모색해 보게 하는 책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며, 꿈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 읽어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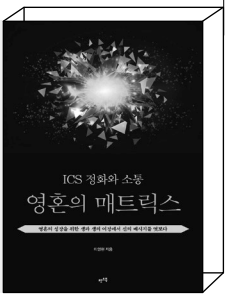
굳은 마음 너머로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ICS 정화와 소통: 영혼의 매트릭스

이영현 글 - 렛츠북, 2023.

추천대상: 윤회에 대하여 궁금한 독자
#아무리 해도 일이 꼬일 때, 내려놓기 힘들 때



뭐라고 하면서 이 책 '영혼의 매트릭스'을 읽어도 좋을 만하다고 소개할까요. 먼저, 60~64 쪽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로 울컥해지면 이 서평을 덮고 이제 진짜 독자 스스로 가슴으로 책 페이지를 넘길 것입니다.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억만겁을 살아왔다고 하면 윤회를 빼 놓을 수 없겠지요.

무엇이 계속해서 돌고 돌든가요.

기억과 그것에 얽힌 감정들과 만났던 사람들과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피드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경험들이 계속 돌고 돌았을까요. 결국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시스템이 돌고 돌았던 걸까요. 이 책《영혼의 매트릭스》에서는 정화와 소통을 위해서 삶이 윤회의 길에 놓여 있으며 이 순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들려 줍니다.

보통 정화하면 청소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기억과 감정을 씻어서 제로상태로 깨끗하게 돌려 놓는다 합니다. 소통은 보통 나와 주위 사람들과 이해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내면의 존재와의 통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내면 존재와 어떻게 무엇으로 통한다는 걸까요. 작가 이영현은 자신을 샘플로 소개하며 그녀의 잠재의식인 케오라와 소통하게 된 계기와 그 내면 소통을 통해서 삶의 변화의 결과값들을 보여 줍니다.

이영현 저자의 또 다른 저서로는 네이버 블로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10여 년 운영하여 엮은 《내 인생의 호오포노포노》가 있으며, 현재, 그녀의 블로그는 'ICS정화와 소통-영혼의 메트릭스'까페로 이어져서 멤버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 아이를 위한 정화》,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나는 왜 호오포노포노가 안 되는 걸까?》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의 전통 정화의식인 호오포노포노를 계승하고 '우니히피리 내면아이 실천법' 저자인 이하레아카레 휴렌 박사의 세미나에 참석한 10여 년 전의 경험으로부터 내면 소통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ICS 정화와 소통 레벨 1~3까지 체계를 세우고 최면과 접목시킨 것이 그녀의 업적입니다. 타임슬립을 통한 최면 치료 전문가이기도 한 그녀가 행한 치료의 기록들은 독자들에게 분명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의 메트릭스》 전반에 걸쳐서 이영현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 사이의 언어 소통같진 않지만 텔레파시와 같은 의사소통으로 우주의 잠재의식을 만나 온 자신의 성장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세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들려줌으로서 폭 그녀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그녀가 개최하는 세미나와 최면세션을 받고 싶은 열망이 가득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잠재의식은 심층의식의 정보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며 올바른 삶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성취할 수 있다면 삶은 기적 그 자체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이 음식이라면 얼마나 군침흘릴 먹거리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 서평을 쓰는 저도 잠재의식에 쑥맥이면서 내면에 속삭여 봅니다. "너의 이름은?" 나랑 친해지자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성비 짱인 정화방법을 배우고 내면 여행을 떠나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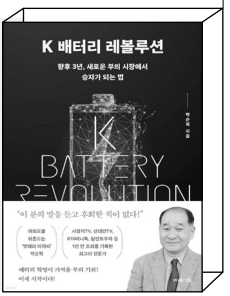
향후 3년 승자가 되는 법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글 – 지와인, 2023.

추천대상: 일반
#한국의 배터리에 대해 입문할 수 있는 쉬운 경제책으로
배터리와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추천



《k-배터리 레볼루션》의 저자인 박순혁은 일명 '밧데리 아저씨'라 불리는 대한민국 배터리 사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데이터와 직접 조사한 팩트로만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을 전망하고,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는 전문가라고 한다. 그는 1995년부터 대한투자신탁의 경제관련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여 30여 년을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인 금양의 IR(주식 및 투자 관련 홍보 전문가)을 맡으면서 한국의 배터리 사업을 유튜브와 방송, 기고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한국의 배터리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 도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에는 K 배터리의 기초 지식과 현재 배터리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역사,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배터리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초격차 기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한국 배터리의 전망, 이 산업에 대한 5가지 거짓과 진실, 향후 과제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어려운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미래 전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본서이기에 《K-배터리 레볼루션》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차전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기본서로 추천할 수 있는 도서이기는 하나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등 특정 기업만을 소개하고 극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의문이 들고 또 불안감이 느껴지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차전지에 대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진입하는 초보자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특정 기업을 소개하며 향후 부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과 투자는 무엇이 이유가 되었든 나 자신의 선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을 통해서 이차전지에 대한 개념과 투자, 향후 미래 가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의 발판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책이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이 책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더 많이 공부하고, 후회 없는 선택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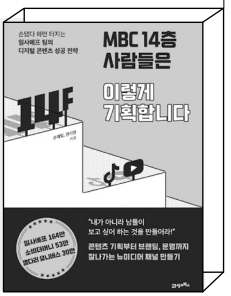
보여 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닌,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손재일, 전기영 글 – 21세기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생생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제작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을 때



뉴스,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알고리즘에 이끌려서라도 '14F 일사에프' 채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운영하는 일사에프, 소비더머니, 별다리 유니버스 채널은 총 구독자 수 280만명(2022년 12월 기준)을 보유한 만큼 영향력과 화제성이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튜브 콘텐츠를 성공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는 MBC D.콘텐츠제작2팀의 손재일 팀장, 전기영 차장이 그들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달린 4년간의 치열한 과정을 담은 책이다.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작했던 여러 코너를 예로 들어 채널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전략을 말해준다. 실패도 여러 차례 수반되었지만 경험을 통해 습득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알려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콘텐츠의 성공 조건들을 친절히 설명한다. 많이 보는 것,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타겟 구독자에 대한 이야기 등 콘텐츠를 만들 때 섬세하게 고려하고 실행할 만한 팁들을 알려준다. 마지막 파트는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레터 런칭, 애플리케이션 개발, NFT판매 등 일사에프팀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 준다.

다만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동영상을 포함해 대중에게 콘텐츠를 평가받는 직업에 종사 중이라면 이 말에 많이들 공감할 것이다. 마치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가 진리를 마주했을 때처럼, 이 말은 지금도 나를 숙연하게 만든다. 남들이 보고 싶어 할 콘텐츠를 찾기 위해 회의는 계속됐다.

책 속 문장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싶고, 보여 주고 싶은 것보다는 보는 사람이 궁금할 만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한층 더 깊게 읽힐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콘텐츠 진출기라면 큰 고민과 실패 없이 일이 수월하게 풀렸을 것만 같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때는 유튜브가 이미 블루오션이 아니었기에, 후발주자인 채널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에 공감이 될 것이다. 유튜브 성공을 위한 각종 팁과 비결은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일사에프팀처럼 직장인의 입장에서 회사의 콘텐츠를 조금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작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실천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진심인 독자들에게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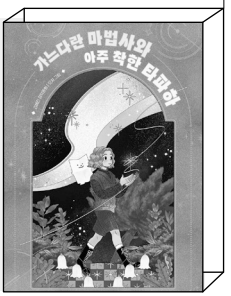
1년에 딱 하나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가능한 불가능

신은혜 글 – 제철소, 2022.

추천대상: 일반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
#식어버린 열정을 끌어올리고 싶은 직장인



자기 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자기 계발의 대가로 유명하다. 이런 그가 창안한 '3년 공부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는 '3년을 주기로 한 분야의 공부를 하면 그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다'고 저서인《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말한다.

《가능한 불가능》의 저자 신은혜는 현역 카피라이터이자 에세이 한 권을 펴낸 작가이다. 이력을 한 줄로 담을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인물이지만《가능한 불가능》을 읽고 단번에 '피터 드러커'가 떠올랐다. 저자에게서 피터 드러커에 견줄만한 비범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비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온 것을 일 년에 하나씩 도전하기. 그리고 무려 9년 동안 지속하기!" 이것은 평생에 걸쳐 3년에 한 분야씩 섭렵한 피터 드러커와 같은 종류의 비범함이 아닌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자는 이루고 싶은 것이 'TV 광고 온에어

시키기', '광고제 입상하기'인 한 해의 꿈마저 업무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신년이라고 다를 바 없는 일상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모든 직장인의 일상일 테다. 작가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며 친구를 설득한다. 꿈, 목표 이런 단어에 콧방귀를 뀌며 심드렁한 친구를 겨우 설득해 진행된 '할 수 있어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걸린 내기는 이렇다. 본인이 평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 한 가지를 이뤄낸 사람에게 50만 원 주기.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놀랍게도 9년 동안이나 이어진다. 저자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꿨을까. 운전, 영어, 피아노부터 하와이에서 살기, 수영, 책 출간까지 도전한 장르도 스펙터클하다. 그는 자신의 도전기를 우주복 헬멧만 쓰면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우주비행사 '히비토'의 삶에 빗댄다.

'히비토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나는 다시 우주복 헬멧을 쓸 수 있다'라는 경험을 얻기 위해 일단 선글라스부터 써 본다. 다음에는 마술사 모자, 다음에는 다이버 고글, 다음에는 풋볼 헬멧을 써 보며 한 발짝씩 우주복 헬멧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중략]

작게나마 무언가를 해낸 경험들이 다음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운전을 해낸 경험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한 경험이 영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영어를 배운 경험이 퇴사하고 하와이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 모든 경험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서점에는 자기 계발서가 넘쳐난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책, 습관에 관한 책, 위대한 목표 세우는 법 등등. 대부분의 자기 계발서는 눈앞에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 꼭대기에 있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일 년에 딱 하나,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한다. 작가의 현실 경험담은 유수의 훌륭한 이론들보다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이면 '아, 정말 딱 하나, 하나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는커녕 일상을 지켜내는 것도 버거워졌다. 오랜만에 집어 든 '도전기'가 너무 비장했더라면 도전이라는 단어는 또다시 어딘가에 처박아 놨을 것이다. 이 책을 만나 다행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또는 식어버린 열정을 끌어올리고 싶은 직장인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3년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시작의 계기가 무엇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 내가 도전했던 경험만이 내 삶에 남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도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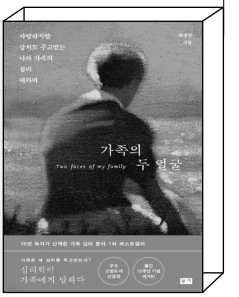
죽(이고 싶)도록 사랑하는 나의 가족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글 – 부키,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서로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은 가족심리학과 교수의 저서로 당시 생소했던 가족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린 책으로 평가된다.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 테라피'라는 부제처럼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곳이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가족의 모습을 조명하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4부로 '1부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다'는 유·아동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후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가정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2부 배우자 선택의 숨은 이유'에서는 어린 시절의 감정적 상처가 배우자 선택에 장해요소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 준다. '3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은 가족 희생양, 가족 착취 등 여러 형태의 문제 가족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인 '4부 행복한 가족의 비밀'에서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맺는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였는가는 평생 우리의 관계 맺음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가정은 아이들을 따스하게 보살펴주는 곳이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 불행한 가족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현한다. 불행한 가족관계의 대물림인 것이다.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음에도 왜 어린 시절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 힘든 인생살이를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에 저자의 답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풀지 못한 가족 간 갈등의 고리를 다시 한번 풀고자 하는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갈등의 고리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직면'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감정적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억압, 부인, 퇴행 등 여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이들 방어기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게 하는 임시 수단에 불과하기에 자신이 어떤 이유로 감정적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가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다툼이 반복되는데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이 책을 읽고 그 관계의 행동 패턴을 복기해 보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기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일 것 같다. 모든 해결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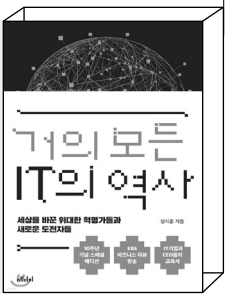
세상을 바꾼 새로운 생각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거의 모든 IT의 역사

정지훈 글 – 메디치미디어, 2022.

추천대상: 일반
#IT 영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궁금할 때
#그동안 나를 거쳐 간 컴퓨터와 핸드폰이 생각날 때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분석, 사이버 보안, 증강현실 등 단순 사무 업무 차원의 개념을 넘어 의료, 교육, 미디어, 예술, 교통 등 인간의 실생활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정보검색을 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추천받고 언어를 번역하고 자동차를 운전한다. 인간관계, 처세와 같은 수준이 높은 고민에도 서슴없이 조언을 구한다.

불과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각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MP3, 휴대폰, 인터넷 통신기기를 하나로 합친 '아이폰'을 세상에 들고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IT의 혁신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우리는 바둑으로 이세돌 기사에게 승리를 거둔 알파고를 봤다. IT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인류의 생각과 생활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IT 발전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유발 하라리는 "미래는 역사의 연장"이라고 했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사라진 IT의 역사와 그 속의 사람들을 공부하면 미래에 불어올 IT의 흐름을 감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는 단순하게 IT 산업의 역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IT 산업의 발전과 변화 그에 속한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결단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책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실제로 전 세계 IT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성장했는지 설명한다. IT 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교양서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정지훈 교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융합이라는 가치를 두고 저술, 강연 등 오랜 활동을 해왔다.

이 책은 8개의 챕터와 스페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IT 발전의 시작인 개인용 컴퓨터의 출현,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의 발전, 인터넷으로 촉발된 웹 산업의 확장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아이폰이 불러온 스마트폰 혁명,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까지 20세기와 현재 IT 산업을 상징하는 사건과 흐름을 보여 준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 창업자와 경영자들의 생각과 철학, 논쟁이 흥미롭다. 스페셜 챕터에서는 동아시아 IT의 역사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IT 역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 일본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우리나라 IT 산업의 위치를 살펴본다. 이 책은 수많은 기술과 기업, 경영자들을 소개해주지만, IT가 주시하는 근본적인 관심은 하나로 모인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23)*

IT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위해서이다. 인간에 대한 고민과 예측이 없는 IT 기업은 결국 사라졌다. 돈, 직업적 안정성, 일반적인 자유 시장경제 논리로 IT 산업에 접근하는 기업도 실패의 쓴맛을 봤다. 오늘날 성공한 IT 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과 공유, 소통, 개방, 창의력,

실패에 대해 관대함을 가지고 출발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IT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IT에 달려 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이 IT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IT산업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도 크게 바뀌어 갈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 올바른 변화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낯선 행복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거의 정반대의 행복

난다 글 – 위즈덤하우스, 2018.

추천대상: 일반인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후 삶이 궁금하신 분
#일과 육아, 육아와 일 현실 일상이 궁금하신 분

두 사람이 만나 연애와 결혼을 하고, 결혼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절엔 '비혼주의',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로 한 부부)과 같은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혹 자신이 이런 선택을 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물어오면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 시대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 '2023 합계 출산율 0.7명'은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은 이제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삶의 방식,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거의 정반대의 행복》을 쓴 작가는 생활 웹툰인 《어쿠스틱 라이프》의 작가이기도 한데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상생활을 재미있고,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내 인기를 끌었다. 《어쿠스틱 라이프》가 일과 연애 그리고 결혼 후 신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냈다면 《거의 정반대의 행복》 이 책은 작가의 첫 에세이이다. 책 구성을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 그리고

딸아이가 세 살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간중간 이야기에 어울리는 간단한 그림이 있어 에세이 치곤 꽤 긴 분량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다. 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임신과 출산을 마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낳고 책임지는 과정의 어려움과 여자로, 작가로, 엄마로 살아가며 일상에서 발견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낯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날 임신테스터에서 옅지만 확실한 두 줄을 발견하고, 모자 속에서 토끼가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며 아이는 찾아왔다. 마감과 함께 태어난 아이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을 주었지만, 육아의 현실 역시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다. 험난했던 모유 수유, 남편과 발맞춰 육아를 해나가는 것, 거기에다 만화 연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할 일들로 넘쳐났다.

지각변동에 가까웠던 아이의 등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을 찾아갔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알아가며 "혼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새록새록 느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처럼 "행복하면 너무 행복했고 힘들면 너무 힘들었던" 초보 엄마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아이가 없던 시절도 여전히 그립지만, 누구 앞에서보다 아름답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나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것.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반대로 연애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 어떠한 결정이 더 나은, 올바른 결정인지 말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달리 연애를 통해, 결혼을 통해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같은 달라진 일상에 맞닿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낯선 행복을 찾길 바랄 뿐이다.

일상의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거인의 노트

김익한 글 – 다산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인생 기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느새 2023년의 절반이 흘러간다. 연초에 산 다이어리는 몇 장 쓰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고, 별다른 인생의 성과나 발전 없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냐는 푸념만 늘어놓는 것이 남 일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명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지만 지나온 날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가 기록의 부재 때문이지 않을까 싶을 때 바로 《거인의 노트》를 권하고 싶다.

저자 김익한은 현재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기록학회장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명실공히 '기록'의 전문가로서 저자는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세 가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거인의 노트》에서는 기록을 통해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거인의 노트》는 1부 〈기록하는 인간〉, 2부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 3부 〈거인의 다섯 가지 기록법〉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기록의 힘을 알려주고 '나'를 파악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2부를

통해 정리되지 않고 산발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지 설명한다. 또 정리한 것을 쉽게 꺼내 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특히 3부는 응용편으로 공부, 대화, 생각, 일상, 일까지 삶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소개하며 핵심만 간단하게 기록하는 다이어리 작성법을 강조한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과 자기화 그리고 기록, 이 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선형 성장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이렇듯 저자는 누구든 생각하기, 그것을 기록하기, 기록을 돌아보기라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슨 일에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모호하던 것들이 명확해지며, 기록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과정에서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기록은 재능이 필요 없으며,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어 많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특히 자기계발과 성장에 열정적이지만 기록을 놓치고 있던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에는 기록이 낯선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하다. 추상적인 자기계발서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인생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무언가 부족해 쿼텀점프를 해야만 하는 기분이 들었다면 그 공허했던 자리를 채워줄 도구가 바로 '기록'이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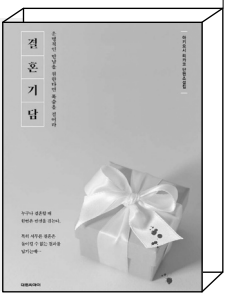
결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을까? - '결혼을 향한 네 가지 이야기'

이정인 (화성시 목동이음터도서관)

결혼기담: 운명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아키요시 리카코 글, 장혜영 옮김 – 대원씨아이, 2021.

추천대상: 일반
#미스테리, 추리, 공포물등 장르소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마음이 싱숭생숭한 사람
#최근 결혼식을 마친 사람



5월이 되면 특히나 많은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5월의 신부'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날씨가 풀리고 가장 화창한 시기인 5월에 축제를 벌이던 젊은이들이 결혼으로 이어지곤 했다는 설이 있다. 5월 핑크빛 가득한 시기를 맞아 이곳저곳 결혼 소식을 듣다 보면 마음 한 켠에 봄이 찾아오는가 싶어 설레는 사람들이 있다. 아키요시 리카코의 소설《결혼기담》은 이러한 기류에 찬물을 끼얹기 충분한 책이다. 공포소설 아닌 공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부제에서부터 '결혼하려면 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결혼기담》은 결혼을 향해 달려 나가는 네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요즘 20대, 30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결혼을 애타게 갈구하는 소설 속 주인공들에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쓰인 이 소설은 읽다 보면 같은 유교문화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어 일맥상통하는 면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에피소드인 〈결혼 활동 매뉴얼〉은 '결혼 상대로 여우 같은 여자와

곰 같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좋냐'는 고전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 계획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결혼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짧고 간결하게 쓰여 있어 술술 읽히는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작가는 결혼을 추천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인지 결혼을 비추천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인지 점점 헷갈릴 정도다.

작가 아키요시 리카코는 《성모》, 《유리의 살》 등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서 전작 중에서 《암흑여자》는 만화와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작가의 주요 장르는 미스터리물이고 특히나 충격적인 반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역시 《결혼기담》에서도 작가 특유의 독특한 반전 요소가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독자들은 결혼과 기이함이라는 묘한 결합에 매료되다가 각 에피소도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 소설의 의미는 단지 재미와 반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결혼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에게 결혼 고민, 배우자 고민, 서로의 가치관에 너무 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빨간 마스크 귀신처럼 말이다. 가끔은 숨돌리고 머리를 식히고 싶다면, 유쾌하게 지난 결혼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한때의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단,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은 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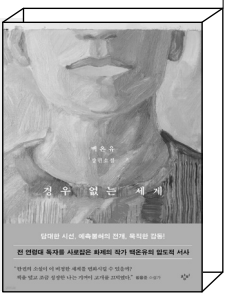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경우에 대한 이야기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경우 없는 세계

백온유 글 – 창비,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아물지 않은 상처 그대로 어른이 된 이들에게



어른이면 누구나 청소년 시절을 지나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는 청소년 시기, 그만큼 정신적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그 역할을 하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청소년들은 수많은 방황 끝에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상황상 나쁜 일에 휩쓸리기 쉬워지고, 결국 안정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어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 놓은 책을 소개합니다.

《경우 없는 세계》는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유원》, 《페퍼민트》 등 청소년 소설 분야에서 믿고 읽는 작가로 자리 잡은 백온유 작가입니다. 10대 시절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된 주인공 '인수'가 우연히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인 가출 청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던 자신의 10대 시절을 들여다보면서 소설은 시작됩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같이 못 살지만 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꼭 오겠다고 했어.

경우가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할 때마다 나는 그 마음에 훼방을 놓고 싶었다. 내가 나쁜 의도로 던진 질문에 경우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얼마간 괴로워한다는 느낌이 들면 야릇한 기쁨을 느꼈다.

인수는 거리의 생활을 하며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허기를 달래던 중 경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경우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질투하고, 경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인수.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오해하면 어떡해. 내가 소년원 간 사실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엄마가 나랑 살아주겠어? 나한테 착하게 살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가. 그래야 데리러 올 거라고. 결국 오지는 않았지만."

경우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불신을 입 밖으로 꺼냈다. 경우가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호소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출 청소년이 모이는 공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 경우와 인수 그리고 가출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괴로워하고 또다시 방황 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견고했던 경우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조차 깨지게 됩니다.

며칠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간 곳은 다시 '우리집'이었다.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 통증처럼 느껴지는 허기, 쏟아지는 잠,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돌아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곳에서 홀로 잠들었다.

인수가 바라는 것은 내 편이 있는 따뜻한 '우리집'입니다. 거리의 인수에게는 가출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가 '우리집'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리의 인수, 경우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집'을 가진 청소년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온유 작가의《유원》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유원》은 여섯 살 때 비극적인 화재 사건에서 살아남은 주인공 유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날 화재 사건에서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언니 대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11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자신을 구하다가 몸도 인생도 망가져 버린 이웃에 대한 증오와 연민, 방황의 시간 속에 다가온 친구 수현 등 다양한 감정과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들을 담은 소설입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유원을 통해 청소년 시절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하고 뒤늦게나마 치료받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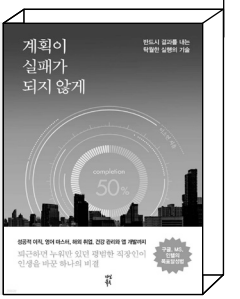
구글의 OKR을 내 삶으로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이소연 글 – 다산북스, 2021.

추천대상: 일반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방황하는 모든 사람
#매번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무기력과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저자 이소연은 미국계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과거 일본 소니에서 7년 넘게 재직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업무와 회사 문화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다가 심각한 번아웃이 왔다. 퇴사를 할 수도 쌓아 온 경력을 뒤엎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변화의 씨앗이 되어준 것이 이 책의 핵심, 바로 구글의 목표 달성법 OKR과 프로젝트 관리법이다. 명확한 목표를 구축하고, 목표를 향한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OKR의 방식은 사그라든 줄 알았던 의욕을 저자에게 다시 찾아주었다.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에서 설명하고 있는 OKR은 '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와 핵심 결과'의 줄임말로 인텔에서 고안하고, 구글이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목표 달성법이다. 이 개념은 꽤 직관적인데 'Objectives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목표, 'Key Results 핵심 결과'는 그 목표를 성취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의미한다. OKR은 비서를 두고 있는 CEO나 유명인, 귀찮은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력가를 위해 설정된 목표관리법이 아니다.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쉽고 간편한 목표관리법이다. 저자는 직장 업무에서 필요한 사례뿐 아니라 내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적용 예를 알려주며, 상세하고 친절하게 OKR에 대해 설명해 준다.

책에 나온 예시 중 하나인 독서 활동 프로젝트를 보자. 만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책 10권을 완독하고 감상문을 블로그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정확한 기간과 결과물을 정의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을 쪼갠다. 10권을 읽는 데 필요한 시간을 9일로 잡고, 하루는 감상문을 쓰는 시간, 책 한 권이 대략 400 페이지라면 하루에 50페이지 읽어나가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핵심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40퍼센트의 여유 시간을 추가로 포함한다. 최악의 계획이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해서 전체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회고와 평가다. 객관적, 주관적으로 목표 달성 점수를 주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 주는 바로미터가 되어준다. 계획하고 수행하고 측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시 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나는 도서관에서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용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두꺼운 책을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두께에 압도되어 선뜻 읽지 못했던 책도 일정 분량으로 쪼개서 읽기 시작하면 누구나 완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큰 목표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 책은 이 작고 평범한 진리를 상기시키며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작가는 말한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하며, 매번 열정을 쏟아 무언가에 세게 부딪혀 크게 진보를 이끌어 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인간이 다시 퇴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책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방황하는 모든 사람, 매번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무기력과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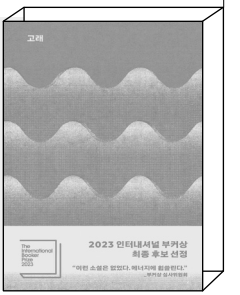
세 여인의 고래와 같은 삶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고래

천명관 글 – 문학동네, 2014.

추천대상: 일반
#다소 충격적이지만 과감한 필체로 보여주는 파란만장한 세 여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 볼 수 있는 소설



《고래》라는 소설은 문학동네 한국 문학전집 중 제19권으로,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의 수상작이다. 이 책을 저술한 천명관이라는 저자는 우연한 계기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다양한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2003년에 《프랭크와 나》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그다음 해인 2004년에 장편소설 《고래》가 문학동네 소설상에 당선이 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기존 작가들의 작품 틀로는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문단을 술렁이게 했다고 한다. 그의 개성적인 출발은 '21세기 새로운 가족의 초상화'를 보여준 《고령화 가족》에서부터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굵직한 한국 현대사를 보여준 《나의 삼촌 브루스 리》까지 그만의 입담과 탄탄한 서사로 인정받았다. 그가 바로 19년 만에 영국 '부커상' 후보에도 오른 《고래》의 작가인 천명관이다.

이 소설은 1부 부두, 2부 평대, 3부 공장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노파-금복-춘희'로 이어지는 세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소 충격적이지만 파급력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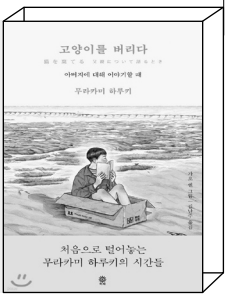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세 여인의 삶을 단순 글이라는 장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이야기해 주고 있어 보는 독자로서는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일 것으로 생각한다. 1부와 2부에서는 어느 산골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에서 평대로 도시를 옮겨 다니며 기업가로까지 성공하는 금복의 삶과 그녀와 인연을 맺은 다양한 인물들과의 삶, 그녀의 변화하는 감정들까지 그려내고 있다. 그러다 3부에서 금복의 딸인 춘희가 감옥을 나온 뒤 금복의 폐허가 된 벽돌공장에서 홀로 생존하며 살아가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어 보여 주고 있다.

고래 출간 이후 근 20년간, 파격적이고 화려한 글로 출간된 많은 한국소설이 있지만 천명관 저자의 고래에서 구사한 표현과 문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다. 그가 풀어내는 여인들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으며 표현 또한 거침없고 적나라하게 하여 밤잠을 설친 적도 있다. 그만큼 그의 작품 속에서 모든 등장인물이 살아있는 '고래'처럼 생동감 있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보고 있는 듯 밀도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에 오른 작품인 만큼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된다. 비록 이러한 이슈로 읽어본 작품이지만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웅장하게 움직이는 고래처럼 우리 삶에 훅하고 들어오는 소설이고, 그 속에서 인물들의 서사와 삶을 바라보며 저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작고 평범한 추억이 알려 주는 많은 것들에 대해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고양이를 버리다

무라카미 하루키 글, 가오 옌 그림, 김난주 옮김 – 비채, 2020.

추천대상: 일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찾고 싶을 때

《고양이를 버리다》는 유명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으로 부제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고 작게 적혀 있다. 사실 이 부제가 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교토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연극과에서 공부했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1982년 《양을 둘러싼 모험》으로 '노마 문예신인상'을,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다니자키준이치로상'을 수상했다. 1987년에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을 발표하여 하루키 신드롬을 낳았다. 1994년 《태엽 감는 새 연대기》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고, 2005년 《해변의 카프카》가 아시아 작가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다. 2006년 체코의 '프란츠카프카상'을, 2009년 이스라엘 최고 문학상인 '예루살렘상'을, 2011년에는 '카탈루냐 국제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45개 이상의 언어로 50편 이상의 작품이 번역 출간된 명실상부한 세계적

작가로, 2009년에는 《1Q84》로 제2의 하루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샐리드를 좋아하는 사자》 등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를 비롯해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시드니!》, 《무라카미T》 등 개성적인 문체가 살아있는 에세이 역시 소설 못지않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과 함께한 《후와후와》, 카트 멘시크의 그림과 함께한 《버스데이 걸》, 이우일의 그림으로 선보인 《양 사나이의 크리스마스》 등 늘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최근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출간했다. [출처: 교보문고 참조]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업한 책으로 작가의 아버지 무라카미 지아키의 일생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노년기 등을 시간순으로 작성하였으며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하게 다루고 있어 그의 가족사를 알고 싶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라면 꽤나 흥미를 자아낼 책이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와 어린 시절 해변가에 고양이를 버리러 갔다가 고양이가 아버지와 무라카미 하루키보다 더 먼저 집에 도착했던 일을 회상하며 글을 시작하는데 내용을 읽으며 고양이를 정말 버린 것이 아니어서 나를 포함 다소 안심이 되는 독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의 역사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도 지루해질 수 있기 마련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편안하게 쓰여 있어 역시나 작가의 노련함이 엿보인다.

어느 가정이나 제각각 고민이 있을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또한 이 글을 쓰기 전 작가는 몇 번이고 군대에 입영해 참전한 아버지에 대해 알아볼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주하기 힘든 현실을 직면하게 될까 고민했던 점, 자신의 대학과 전공을 못마땅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기 전 오랜 기간 아버지와 절연했던 이야기 등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하루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가족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 멋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작가는 이 글이 픽션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형태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의견을 드러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방어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예를 들어 참전 중 군대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아버지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문장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참전한 군인이 비폭력주의자로 있는 것이 왠지 현실적이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런 점들을 빼면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듯 펼쳐지는 에세이에 역시나 하루키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장점도,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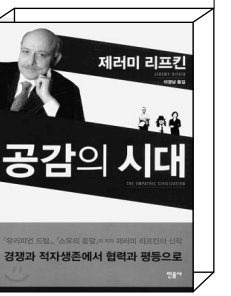
지구를 향한 공감과 위로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공감의 시대

제러미 리프킨 글, 민음사, 2010.

추천대상: 일반
#세계 경제, 사회,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는 식견을 갖고 싶은 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시장경제, 사회전반,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궁금한 이
#시간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러미 리프킨은 2015년《엔트로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엔트로피》는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류가 마주할 재앙을 경고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어 발간된《노동의 종말》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도래할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저서《소유의 종말》에서는 소유에서 나아가 접속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변화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그의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식견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리프킨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명에 대해 접근할 때, 지구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물질이 열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때 변화된 온도를 열량으로 나눈 값으로 쓸 수 없게 된 에너지'라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반문명론자들이 이에 지지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구환경을 고려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래서일까? 마치 우리 등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하다. "함께 지구를 지켜내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사실, 너무나도 두꺼운 책의 크기에 압도되어 선뜻 선택하기 주저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책상에 오래 두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보면 어떨까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호모 엠파티쿠스'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생물학적 진화에 관한 감성적 해석,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 인류 여정의 의미를 재고하며'를 4개의 타이틀로 정리한다. 그리고 2부는 '공감과 문명'이라는 키워드 아래 고대 신학적 사고와 가부장적 경제, 국제 도시 로마와 기독교의 발흥, 중세 말의 산업혁명과 휴머니즘의 탄생, 근대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사고, 포스트모던의 실존적 세계에 담긴 심리학적 의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부는 '공감의 시대' 라는 타이틀로 세계적 공감의 정상을 향한 등정, 지구촌 엔트로피의 심연, 분산 자본주의 시대의 여명, 즉흥적 사회에서의 연극적 자아, 절정에 이른 경제의 생물권 의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시간을 누려야 할 개인은 어느 때보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 사회는 말한다. 세대 간의 간극은 서로의 이해를 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 속에서의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표출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적기'라는 것은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고, 그 결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나 인간 본성에 대한 검토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을 향한 공감과 위로의 시선에서 나아가 지구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더 나아가 문명의 붕괴를 막고 지구를 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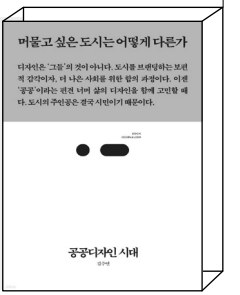
시민의 행복을 담는 도시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공공디자인 시대

김주연 글 – 스리체어스, 2023.

추천대상: 일반
#공공디자인이 궁금한 이들에게
#디자인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과연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네와 같은 투자성의 도시가 아닌, 진짜로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공공디자인 시대》는 정말로 내가 도시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좋은 책이다. 도시계획이 철저히 이뤄진 서양과는 달리, 개발되기 급급했던 동양의 도시들은 개발되고 나서야 도시 속 특별함을 더해줄 공공디자인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럼 이제껏 개발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 ***도시 침술이란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특별한 기억을 담은 공원 벤치 같은 작은 요소를 통해 도시 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최소한의 개입'을 뜻한다. 나는 항상 도시의 아픈 부위에 침을 한 대 놓아 낫게 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워왔다.*** *(28)*

저자는 건축가 출신 레느레르 시장이 강조한 '도시 침술'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한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시 설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볍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저자는 크게 제도, ESG, 시민, 배려, 방지, 재생, 정서 7가지의 침술을 통해 어떤 디자인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7가지의 침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에 정해진 제도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기존의 도시 공간을 재해석하여 활용하며 도시의 디자인을 바꾸는 제도 침술, 둘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침술, 셋째, 도시가 주체가 되어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시민 침술이 있다. 또 넷째, 우리에게 이내 익숙해진 사거리 그늘막과 횡단보도의 장수의자와 같은 작지만 영향력 있는 배려 침술, 다섯째, 슬럼화가 일어난 구역의 디자인을 바꿔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지 침술, 여섯째, 오래된 건물의 역사성을 재해석하여 활용하는 재생 침술, 마지막으로 일곱째,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딩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어필하는 정서 침술 7가지의 침술에 대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공디자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시민들을 위해 섬세한 도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에서 공공디자인이 시작된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도시 속 배려심이 깃든 디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때 공룡이 머물던 곳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공룡의 이동 경로

김화진 글 – 스위밍꿀, 2023.

추천대상: 일반
#누군가를 좋아했던 추억을 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공룡의 이동 경로》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소설집《나주에 대하여》를 쓴 김화진 작가의 신간 소설이다. 이전 작품《나주에 대하여》를 접하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단순히 각각의 단편소설인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두 번째 단편을 읽으며 '연작소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공룡의 이동 경로》는 등장인물 주희, 솔아, 지원, 현우 네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소설이다.「사랑의 신」의 주희,「나의 작은 친구에게」의 솔아,「나 여기 있어」의 지원,「이무기 애인」의 현우 네 사람은 어쩌다 마주친 인연으로 '되기 전 모임'이라는 글쓰기 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모임이 만들어지고 지원의 모임 탈퇴 선언으로 인해 마지막을 맞이한 후의 이야기까지, 이 소설은 네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담백하게 나열한다.

주희는 모임 구성원인 현우, 솔아, 지원 각각을 자신이 관찰한 각자의 이유로 좋아한다. 그런 주희는 삶에 사랑이 그득해 보이지만 동생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첫눈에 지원이 마음에 든 솔아는 어느 날 문득 모임에 나오지 않는 지원을

그리워하고, 지원이 새겨준 트리케라톱스 문신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원은 우울증을 앓던 친구를 잃고 광주로 떠나게 된다. 현우는 연인인 주희가 태평한 척하지만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곁에서 묵묵히 연인을 보듬어 주려 한다. 네 사람이 보여 주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을 보고 있자면, 저마다의 어설픈 사랑 속에 녹아든 다정함과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든 지나가 옛날을 되돌아보게 된다.

주희는 네 삶에서 뭔가 삭제할 수 있다면 뭘 뺄래? 하고 물었을 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없다고 대답했다. [중략] 그게 내 거야. 주희는 말했다. 삶을 편집할 순 없어. 묵묵히 봐야 해.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프지만. 한번 아픈 곳이 계속 아플까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겠지.

아플 때도 주희는 강하기도 했다. 그 사람이 원래 지니고 있던 태도가 아프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168)*

굳건해진 주희를 포함한 네 사람의 사랑은 상처가 났다가 시간으로 덧대어 아물기도 한다. 마치 솔아의 팔뚝에 새겨진 공룡이 다채로운 색을 띠다가 사라진 것처럼. 작은 공룡 문신같이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는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한때의 강렬한 아픔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일을 생각해 보게 한다.

완벽한 복습을 만드는 1/4/7/14 공부법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공부의 기술

이상욱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21.

추천대상: 일반
#입시의 힘든 시간을 인내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진학, 취업, 자격취득 등 단기간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고싶은 이들에게
#엄마, 아내의 자리에서 아들과 남편을 긴 안목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책을 뒤적이다 에필로그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에 시선이 먼저 닿았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독자에게 메일을 받고 그를 만났고 또 응원한다는 저자의 사연에 진하게 마음이 동요되었다. 도서관에 진열된 책은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읽었고 청소년인 두 아들이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후기를 들려 준 후에야 비로소 책을 읽게 되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 나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10년 차 의사가 된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삼시 세끼를 먹듯 습관처럼 공부하고 있다. 물론 이제는 수험생처럼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빡빡한 목표를 세운다거나 일상을 모두 내팽겨치고 파고들어야 할 정도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공부에 몰입하던 그 시절을 복기하곤 한다. 내가 지나온 순간의 기억은 나를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게 공부하며 스스로 배우고 익혔던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공부에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시험 합격이나 원하는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후회 없이 치열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덤빌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이유이자 노력의 의미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를 준비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키운 건 8할이 노력이었다, 당신의 노력은 왜 실패했는가, 꿈꾸지 않는 자는 이룰 수 없다, 자신을 이기는 공부 습관의 힘, 어떤 불안도 이겨내는 힘 페이스 조절, 알파벳도 모르던 20대 은둔형 외톨이의 도전까지를 싣고 있다. 다음 2장은 '합격을 향한 똑똑한 노력은 따로 있다' 아래 합격을 위해 버린 자세, 합격을 부르는 기본 자세, 지속 가능한 공부 습관, 계획의 기술, 반복이라는 노력, 하루 2시간 공부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나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다'에서 쪼개기, 반복, OUT PUT 기술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공부 자존감을 지키는 마음 습관'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안감을 넘어 결심하고 노력을 실행하라고 권면한다.

다시 찾아온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부모님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1년을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에 대해 말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목표를 가지고 1개월 단위로 시간을 나누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든 이미지가 눈에 띈다. 또 책장을 넘기면 '1년 목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6개월 계획을 1개월 단위로 쪼개고 다시 1일 단위로 나누어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것이야말로 실천의 팁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긴 안목으로 두 아들의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엄마들과 공유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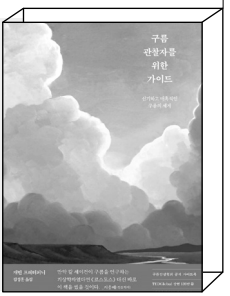
전지적 구름 관찰자 시점

랑윤지 (파주시 적성도서관)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개빈 프레터피니 글, 김성훈 옮김 – 김영사, 2023.

추천대상: 일반
#구름 관찰을 좋아하거나 구름과 함께 사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신기하고 매혹적인 구름의 세계가 궁금한 이들에게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다른 모든 생명체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살지만, 인간에게만은 눈을 별들을 향해 돌려 하늘을 볼 수 있는 얼굴이 주어졌다"라고 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편해지곤 하는데 '구름 명상'이라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의 저자 개빈 프레터 피니는 2005년에 구름감상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고 있다. 전 세계 5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구름감상협회 사이트(www.cloudappreciationsociety.org)에는 회원들이 올린 멋진 구름 사진이 가득하다. 그가 구름을 주제로 강연한 TED Global 강연은 130만 조회수를 넘겼으며, 관련 저서로는 《구름수집가의 핸드북》, 《날마다 구름 한 점》,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가 있다.

저자는 구름이 불길한 운명을 상징한다는 인식을 바꾸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구름감상협회를 만들고 구름에 관한 모든 것을 책에 담았다. 과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예술 작품이나 신화, 뉴스 등에서 접했을 법한 구름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책 따위가 팔리겠어?”라는 편견을 깨고 이 책은 영국에서만 20만 부 넘게 팔리며 화제를 모았다.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는 구름 감상을 사랑하는 작가가 구름을 잘 관찰할 수 있게 안내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구름을 향한 저자의 노력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모닝글로리를 보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 저자의 열정이 인상적이며 구름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책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구름감상협회 구름관찰자 졸업시험’도 수록되어 흥미로움을 더한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구름의 경이로움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구름을 식별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는 점이다. 구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소재인 ‘구름’을 관찰법, 역사, 사진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점도 신선하다. 이를 통해 나의 구름 취향을 알 수 있으며, 구름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구름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멍하게 있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불멍, 물멍, 구름멍 등 이른바 ‘멍 때리기’가 유행인 요즘《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를 탐독하며 별자리 찾듯 오늘의 내 하늘에는 어떤 구름이 떴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볼 핑계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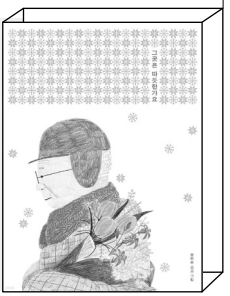
홀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느 노인의 편지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그곳은 따듯한가요

윤여준 글 – 쥬쥬베북스, 2023.

추천대상: 영유아, 어린이, 초등(저), 초등(고), 청소년, 일반
#독거노인들에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



다양한 지식과 상상,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밀듯이 밀려든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이 발생하는 정보에 대해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누군가의 편협한 정의에 편승하여 성급히 결론지어 버리고는 이리저리 휩쓸려 표류하는 일을 반복하고 만다. 하루가 지나고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 유입되는 또 다른 정보와 현상으로 인해 과거의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거짓과 진실이 만들어 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하루를 겨우 살아낸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계에서도 나타난다. 다양한 형태의 제본, 종이의 재질, 색감 그리고 눈에 띌 만한 제목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출판계 전반의 노력은 가히 천태만상이다. 현상을 스스로 정의하지 못한 채 생각과 표현의 자유라는 전제 아래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책들이 아무렇게나 도서관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 번에 뚝딱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얇은 노트 정도의 두께에 또 그런 노트

같은 재활용 종이를 활용한 이 책은 한겨울을 상징하는 눈의 결정으로 무늬를 채우고 우리네 할아버지처럼 흔히 말하는 군밤 장수 모자를 쓴 노인이 책 표지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는 묻는다. "그곳은 따듯한가요?"

주인공은 우리네 평범한 할아버지다. 눈이 오는 겨울의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 아침이 그를 깨운다. 침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블라인드를 가지런히 올린다. 어젯밤 침소에 가져다 둔 물컵을 들고 방을 나선다. 정갈한 아침을 먹고 양치하며 거울을 바라본다. 화분에 물을 주고 관상어에게도 밥을 주고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신문을 읽고 가지런히 놓은 후 TV를 본다. 그러고는 집을 나선다. 요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고 장을 본다. 귀갓길에 튤립꽃 한 다발을 산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화병을 채운다. 일기를 쓰고 깊어 가는 겨울밤의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 책은 글이 없기에 작가가 의도한 바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림으로 가이드하고 있으나 책을 해석하는 데는 독자의 생각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그림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치 정보의 홍수 속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물어다 준 나뭇잎과 같은 신선함을 더하는 그림책이라 하겠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정갈하고 가지런하며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모든 곳엔 그의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운 이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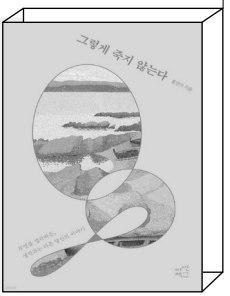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한 고민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그렇게 죽지 않는다

홍영아 글 – 어떤책, 2022.

추천대상: 일반
#죽음이 궁금한 이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가족이 있는 이들에게
#웰다잉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병원 24시〉 등의 다큐멘터리 방송작가 홍영아가 취재를 위해 병원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쓴 책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직전 쓰는 의료비가 평생 써온 의료비의 2배가 되는 점과 말기 암 환자의 항암제 사용량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하며, 과연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책을 시작한다.

> ***코나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고요, 숨은 폐로 쉬죠. 폐는 음압 상태, 즉 진공 상태인데, 그 폐를 둘러싼 근육을 우리가 확장하고 축소하면서 압력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압력의 차이로 인해 외부로 뚫린 구멍, 코나 입으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61)*

저자와 인터뷰한 간호사를 통해 숨을 쉬는 방법마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상황 속에, 책 속에 나오는 일화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죽음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막연하게 무병장수하며 잠자다가 죽게 되는 식의, 모두가 바라는 죽음이 아닌

주변에서 볼 법한 죽음으로 육하원칙을 고려하며 상상해 보면 현실 속 죽음이 더 잘 와닿게 된다. 내가(누가) 생각보다 이르거나 늦게(언제) 집이나 병원, 요양원(어디서)에서 죽음을(무엇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보다 이르거나 늦게 맞이하게 될 경우, 장례 절차의 문제에 차질을 빚게 되어 유가족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나를 간병하는 이들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타인에게 나의 간병을 맡기게 되지만, 이 또한 오래 지속되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둘러싼 세세한 상황들 속에 무수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우린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고찰 없이 삶의 다른 관문들보다 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평상시 생각해 보지 않은 죽음의 순간들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를 미리 헤아려 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책에서 접한 사례들만 봐도 우리의 삶 속엔 무수한 죽음이 있는데 그에 비해 너무 무신경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죽음의 순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갑자기 닥쳐올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더 죽음의 의미를 굳건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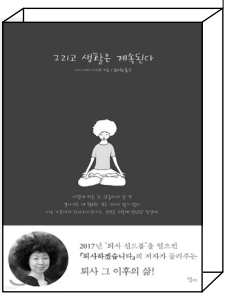
집을 비웠더니 삶이 풍족해졌다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이나가키 에미코 글, 김미형 옮김 – 엘리, 2018.

추천대상: 일반
#소비주의 생활에 회의적인 분들께
#미니멀리즘에 관심있는 분들께
#환경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궁금한 분들께



'쓸쓸한 생활'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책은 저자가 전기를 쓰지 않고 생활해 온, 실험적인 나날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나가키 에미코는 2017년《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이다. 50세에 철밥통이라는 아사히신문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을 담은 책으로, 지위와 월급에 얽매였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명의 SBS 스페셜에 출연해 미니멀리즘 인생관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알렸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 도호쿠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지진의 여파로 인해 후쿠이 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근처 주민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저자는 이때 당연하게 사용했던 전기의 편리함이 사실 여러 희생과 위험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전기 없이 생활하는 '개인적 차원의 탈원전 계획'을 시작한다.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모든 전자제품을 버리기까지 일상의 매 순간을 독특하고 유쾌한 태도로 살아낸다.

탕파(뜨거운 물을 넣는 난방도구)만으로 겨울날 추위와 고군분투하고, 나무통에 보관한 밥과 말린 채소절임만으로 식사를 하는 등 혼자만의 쓸쓸한 노력을 지속한다. 그러다 작가는 그런 수고스러운 생활에서 뜻밖의 커다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 계절의 흐름과 바람, 햇빛 같은 자연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한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번뇌 없이 소소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운다.

이 책은 전기 없이 사는 게 좋다며, 극단적인 방법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다. 작가는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사면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거야'라는 메시지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비와 물건에 의존하고, 서로 비교하며 사치를 부리는 세태가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삶의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게다가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 환경이 끊임없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아무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필요한 것이 되어갔다.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세상에 넘쳐났고, '왠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에 사람들은 사도 사도 멈출 줄을 몰랐다.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

작가는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가볍게 다루어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소비주의의 이면을 재조명하여 개인과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요즘의 소비문화에 지쳐있는 사람, 미니멀리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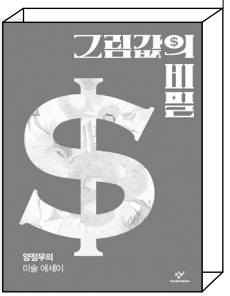
자본이 미술을 만났을 때

조연수 (김포시 마산도서관)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예술가와 후원자 관계에 대해 궁금할 때
#미술 시장에 관심 있을 때



최근 한국 미술 시장이 뜨겁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급부상한 MZ세대 콜렉터의 등장을 비롯해 세계 3대 아트페어로 알려진 프리즈 서울이 지난 2022년부터 한국 시장에 진입했다. 이러한 관심 속에 올해도 다양한 전시회와 아트페어가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미술 시장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값의 비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차이나는 클라스',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술사를 애정 있게 소개하는 양정무 미술사학자가 과거부터 현재의 미술 시장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를 안내한다.

이 책은 예술의 자본화 혹은 자본의 예술화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미술 거래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술은 돈과는 무관한 순수의 영역 같아 보이지만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자 이 책의 특색은 자본의 영향력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아트딜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술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자본주의와 얽힌 예술, 즉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유한 후원자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자본과 예술가의 삶 등을 세밀하게 다룬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가문이자 문화의 꽃을 피워낸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물론 기업가형 예술가 뒤러, 천재 레오나르도 다비치, 빛의 화가 렘브란트, 해바라기의 화가 반 고흐, 셀프 마케팅에 능했던 루벤스를 비롯해 미술 시장의 블루칩이었던 인상주의 화가들까지, 저자는 역사 속 예술과 예술가,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장에는 실질적으로 미술 투자를 하는 이들을 위해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은 두 번 태어난다. 화가의 손에서 한번, 그리고 컬렉터의 품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난다.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화가의 몫이지만 그림의 성장은 컬렉터의 품속에서 이뤄진다.

프롤로그의 문장처럼 예술 작품 감상 자체도 좋아하지만 이를 넘어 미술 투자 및 컬렉팅에 관심 있을 때, 미술 소유에 있어서 독특했던 콜렉터나 예술가와 후원자 사이에 얽힌 사연이 알고 싶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궁금할 때, 사람들이 주식이 아닌 미술품에 투자하는지 궁금할 때 이 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미술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면 동일 저자의《벌거벗은 미술관》,《난처한 미술이야기》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다. 예술품 콜렉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싶다면 이소영 작가의《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도 살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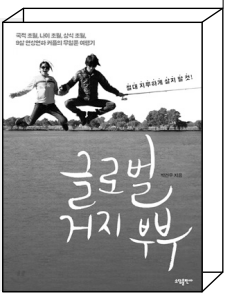
누구보다 부요한 글로벌 거지 부부 이야기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글로벌 거지 부부

박건우 글 – 태일소담출판사, 2014.

추천대상: 일반
#가진 게 적으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틀에 박혀 재미없고 지루하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보게 된 여행 유튜브, 영상미도 뛰어나고, 멘트도 깔끔하다. 함께 다니는 일본인 아내는 무척 유쾌해 보는 내내 기분 좋게 한다. 아내보다 9살 어린 한국인 남성은 세 권의 책도 냈다. 이 부부가 궁금해서 책을 찾아 읽어 보았다. 세 권의 책 중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책《글로벌 거지부부》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 부적응자'와 '일본 활동형 히키코모리'가 태국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 후 국외를 떠돌며 일어난 일화들로 가득하다.

이 책은 아내인 미키를 만나기 전 저자의 삶을 그린 프롤로그와 아내와의 만남, 여행의 시작, 그리고 세계 속을 걷는 세 명의 여인을 소개하는 에필로그로 구성된다.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우여곡절 많은 삶의 매력과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고등학생 때 퇴학을 당하고, 교도소에 다녀오면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걸린 일, 밴드 생활과 이대에서 식권을 판매하면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20대 젊은이의 삶에는 치열함과 열정이 녹아 있고

한편 드라마틱하다. 2005년 탈퇴한 밴드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음악방송에서 성기 노출 사고로 전국을 뜨악하게 만든 바로 그 밴드였다고 한다. 아내인 미키를 만나기 전의 삶을 '뜬구름잡이의 26년 청춘 누아르!'로 표현한 것은 제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남편 못지않게 일본인 아내도 만만치 않다. 아내는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의 청혼을 수락한다. 인사하러 간 한국의 시아버지 댁에서 "장래에 나를 모시고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시아버지에게 "싫은데요. 둘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답하는 이가 아내 미키다. 솔직하고 내숭 없는 아내 미키의 매력은 책 곳곳에 나타난다. 참으로 특이하면서 매력적이고 사랑스런 부부다. 이런 부부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여행기이면서 깊은 울림을 주는 자서전이자 모험기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찍은 생생한 현장을 담은 많은 사진이 있어서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세계여행을 꿈꾸는 자들이나 가진 것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틀에 박혀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저자는 절대 지루하게 살지 말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저자의 다른 책 대만 도보 여행기인《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와《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를 같이 읽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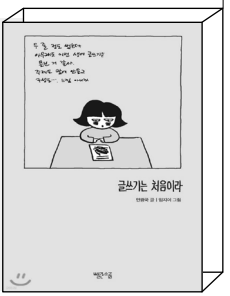
처음 만나는 글쓰기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글쓰기는 처음이라

안광국 글, 임지이 그림 – 빨간소금, 2018.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글을 써 보고 싶은 사람
#글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을 즐겨 읽는 사람치고 글을 쓰는 일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첫 문장을 적을 때쯤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지…….'라며 좌절에 빠지는 것도 보통의 일이다. 글을 쓰는 것은 재능의 영역이지만, 그 재능의 영역에 해당하는 글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도 없고, 도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글쓰기는 재능의 영역보다는 노력의 영역의 끝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의 한 방법을 아래의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글쓰기는 처음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지은이는 안광국 작가이다. 저자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 후 고전 번역을 공부하고, 서점과 출판사를 경영하다 사교육 현장에서 국어, 독서, 논술을 지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초심자를 위한 책을 썼다. 또 다른 저서로는 시집 《꽃이 떨어진 자리》, 《보성 차밭에서》, 공저로 환경을 다룬 《얀이 들려주는 하늘에서 본 지구 이야기》, 《얀이 들려주는 지구의 미래》 등이 있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임지가 그림작가의 삽화로 글쓰기에 처음

부딪힌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하며 글 쓰는 부담을 가벼운 웃음으로 넘기게 해 준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1부는 '마음가짐이 필요해'로 글을 쓰는 용기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2부 '글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는 본인이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3부 '나만의 안목을 얻는 방법'에서는 경험, 관찰, 독서, 사색을 통해 안목을 얻는 방법을, 4부 '글쓰기를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에서는 글을 쓰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5부 '일상에서 꾸준히 글쓰기를 실천하자'에서는 내가 쓰는 글은 내가 가진 일상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운동과 닮은 점이 참 많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것도 그렇다. 분명한 것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갑자기 실력이 늘 수 없다는 점이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고 하루하루 글을 써 보길 바란다.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면 분명 어느새 예전과는 다른 부담감과 실력으로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이 책과 더불어 읽을 만한 책으로는 대림북스에서 나온《최고의 글쓰기 연습법, 베껴 쓰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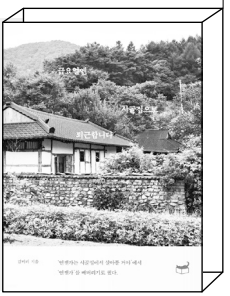
일상에 지친 당신, 안식처가 있나요?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김미리 글 – 휴머니스트, 2022.

추천대상: 일반
#일상에 지쳐 치유가 필요할 때
#새로운 안식처를 찾고 싶을 때



일상에 지친 당신, 안식처가 있나요?

이 책의 저자는 시골집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매주 주말, 시골집에서의 힐링으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누구나 일상에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위치를 유지하려고 또는 발전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자신을 문뜩 돌아보게 된 날, 당장이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라는 책 제목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골집! 어쩌면 이 책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저자는 이커머스 MD로 일하며, SNS에 서울과 시골집에서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사소하지만 꾸준함을 가지고 시골에서의 금, 토, 일 일상을 공유하고 시골집에서의 사계절을 담았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진, 일상의 소소함을 담은 사진, 순간의 낭패와 수습을 담은 사진, 이웃 할머니와 브런치를 담은 사진들로 일상을 공유하고, 시골집의 마당에 찾아오는 사계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에서 나아가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방법을 상세히 공유해 줍니다. 로망과 현실을 둘 다 담아 저자처럼 나만의 새로운 안식처를 찾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니 내내 김치전 생각이 났다. 장독에서 묵은지를 꺼내와 김치전을 부친다. 여유 있게 만들어 옆집에 나누러 갔더니, 김치전을 받으시고는 부추전을 내미신다. "통했네. 양짝 다 김치전이면 어쩔 뻔했어."

처음 시골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겪은 시행착오, 불편함과 낯선 느낌에 힘들었다가도 순간순간의 공감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서로에게 곧 익숙해집니다.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이웃 간의 정, 마을주민들 간의 정을 나눕니다. 시골에서 나누는 정, 그리고 시골에도 내 사람이 생깁니다.

어디서인가 하루하루를 여행처럼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해진다는 구절을 읽은 적 있다. 5도 2촌 생활*(일주일에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에서 사는 생활)* ***을 시작하고부터는 늘 여행하는 마음이다. 서울에서 보내는 닷새 동안은 주 이틀이, 시골집에서 보내는 이틀 동안은 서울에서 보내는 닷새가 여행처럼 느껴진다. 집에서 집으로 떠나는 아주 익숙한 여행.***

매일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당신,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짐 정리가 필수입니다. 가벼운 짐으로 떠나는 여행의 시작, 매일이 여행이 된 저자는 자신의 물건에 자신을 소유 당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건에서 해방되고 욕심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골집을 찾아다닐 즈음 저자는 견디기 힘든 순간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나의 일상, 나의 일, 나의 관계, 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견디기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순간 도시에서 멀어져 고요한 시골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나뭇잎이 춤추는 소리, 함께 체온을 나누며 사는 이웃, 가족의 숨소리에 안정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떠나기로 다짐한 당신에게, 《농촌 생활 교과서》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 자급자족으로 일구는 시골 생활을 통해 실체 없는 노동에 우울한 우리에게 자연은 실체 있는 기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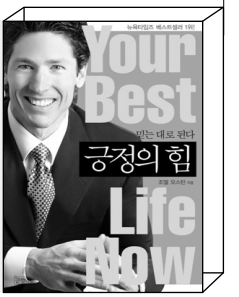
우리 인생의 목적은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글, 정성묵 옮김 – 두란노, 2005.

추천대상: 일반
#이 시대를 사는 사명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이 책이 2005~6년도에 출판되었으니, 따지자면 오래된 책이다. 그런데 내용은 최신 내용이다. 항상 책은 내가 읽는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며, 내용 또한 내가 받아들이면 제일 최신의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긍정의 힘》이란 책은 출판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책으로 기억한다. 표지는 웃음이 자연스럽고 시원한 파란 눈의 젊은 남성이 작가 조엘 오스틴이다. 이 사람은 미국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더 목사로 소개된다. 하도 잘 웃어서 '웃는 목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그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닦달하지도, 소리치지도 않는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 희망과 자기 계발에 관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한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조엘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에 의해 1959년 휴스턴의 한 버려진 사료 가게에서 탄생했다. 이후 레이크우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존 오스틴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성도가 약 6,000명으로 늘었다.

조엘 오스틴은 다섯 형제 중 넷째로, 방송 사역에 만족하며 살던 조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단에 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엘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했고, 이후 조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다. 조엘은 레이크우드 교회를 네 배로 키웠으며, 미국 전역에서 방송을 타는 조엘 목사의 영향력은 미국 안방의 95%와 전 세계 150개국을 찾아갔고, 미디어 리서치는 지역별 평균 시청률에 근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방송으로 선정했다. 200만 부가 넘게 팔린 이 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1부가 6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1. 비전을 키우라, 2.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3.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4.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5.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6. 베푸는 삶을 살라, 7. 행복하기를 선택하라'로 되어 있다. 많은 성공학 서적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복의 근원이며,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7가지 범주 내에서 자연스럽고 확신 있게 설명되고 있어 무척 쉽고 또 흥미로웠다. 작가의 풍부한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에세이를 읽다 보면 설교 같지 않지만, 우리의 성공을 누구보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신선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반성과 힘을 얻게 된다.

특히 3장의 생각과 말의 힘, 4장의 과거 망령에서 벗어나기는 공감이 되는 단락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말은 주술적 언어의 힘'이 있다고 항상 긍정적 언어를 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다.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는 4가지가 있는데 놓친 기회,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신뢰, 해버린 말이라고 한다.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해버린 말을 긍정의 언어로 돌려 하기를 권한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지는 않는가?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다. 풀어 말하면 앞으로의 희망, 소망을 파괴할 뿐이다. 따라서 죄책감은 과거의 감정이니 놓아주고 삶의 교훈으로 삼아 완전히 잊어버려라. 얼마 전 유튜브에서 50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가 없는 3가지 중에 '짐이 되는 과거', '직책', '착한 얼굴' 등이 있었다. 잊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작가는 그러면서 긍정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좋은 소식이 있다. 열정의 불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붙일 수 있다. 부부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말이다. *(319)*

역시 동기부여가 답다. 하느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내게 에너지를 준 책이기에, 주변에 좌절하거나 재기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공포술사의 기묘하고 상식적인 복수극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기묘한 괴담 하우스

사와무라 이치 글, 남소현 옮김 – 북플라자, 2022.

추천대상: 일반
#일상의 억울함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싶은 분
#기묘한 이야기와 괴담을 즐겨 읽는 사람에게

기묘함과 괴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소설 《기묘한 괴담 하우스》는 일본 장르문학 중 공포·추리소설의 대가인 사와무라 이치의 최신작이다. 사와무라 이치(1979-)는 어릴 때부터 괴담과 호러 작품을 좋아하였으며 2012년에 《보기왕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제22회 일본 호러 소설 대상에서 수상을 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예언의 섬》, 《아름답다 추하다 당신의 친구》, 《시시리바의 집》, 《즈우노메 인형》 등의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현재 탄탄한 호러 소설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기묘한 괴담 하우스》는 '사이비종교, 집단따돌림, 파파라치, 요양원의 폭력, 친구에 대한 질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낯선 대상이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상이 무서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더욱 소설에 몰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집은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는데 그 각각의 제목은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사람', '구원과 공포', '아이들의 세계', '기묘한 괴담 하우스', '파파라치', '모르는 사람', '공포술사'

이다. 이 단편들의 공통된 줄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를 숨기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원한을 가진 상대방이 공포술사에게 복수를 의뢰하자 무서운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구조 자체는 간단하지만 각각의 단편들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놓을 수 없다는 몰입감이 이번 소설집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작품에 수록된 단편 중에 특히 '구원과 공포'의 경우 가난한 자를 등쳐먹는 사이비종교 단체인 '마나 리가야'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몸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모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삶에 희망이 없던 엄마는 세이라라는 힐러를 만나고 사이비 교주 '마나 리가야'를 통해 오라를 주입한 각종 아이템을 사며 사이비에 서서히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점점 변하는 엄마를 두려워한 딸은 공포술사인 케이코를 부르게 된다. 공포술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마나 리가야'를 망하게 하고, 관련된 이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에 사이비를 비판하던 딸은 새로운 빛의 교주로 변신하게 된다. 이 소설의 중요한 반전은 사이비종교에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가 다시 사이비종교의 교주로 변모하는 장면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에서 독자들은 반전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흥행을 일으킨 가운데 사와무라 이치의 '기묘한 괴담 하우스'도 비슷한 주제로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 영상이 아닌 이야기 자체의 힘에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 복수하고 싶은 당신에게, 책을 읽은 후 등골의 오싹함을 느끼고 싶은 당신에게 일독을 권한다.

환경운동 실천을 위한 첫걸음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빌 맥과이어 글, 이민희 옮김 – 양철북, 2023.

추천 대상: 일반
#여름휴가를 위한 두껍지 않은 한 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후 관련 상식이 필요하다면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기후 위기가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던 차에 만난 책이다. 저자 빌 맥과이어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지구 물리학과 기후 위험 분야 명예교수이고 신기후연구소의 공동책임자이다. 《세계 종말 안내서: 당신이 알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 《거인을 깨우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진, 쓰나미, 화산을 유발하는가》 이외에도 기후 공학의 실패를 다룬 소설 《하늘 씨앗》을 쓰기도 했다.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 회의 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의 공약을 모두 실천한다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이 1.8~1.9도에 그치겠지만 가능성은 극히 적음을,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은 섭씨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추세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14퍼센트 가까이 늘어 10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가드레일이 확실히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저자는 기후 붕괴라는 암담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붕괴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인가, 그러한 온실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가 주는 포근한 느낌 대신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와 '기후 붕괴(climate breakdown)'를 쓰겠다고 서두에 밝힌다.

책 표지에 소개되고 있는 원서명 '온실지구(Hothouse Earth)'는 기온이 매우 높아 극지방에 얼음이 없던 과거의 지구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저자가 말하는 온실 지구는 열대지방에서 50도가 넘는 살인 더위가 일상화되거나 겨울이 사라지고 여름이 계속되는 온대지방, 북극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놀랍지 않은 세상을 의미한다.

저자는 최근 기후 변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지구 가열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빙실과 온실 상태를 반복한 지구의 46억년 역사를 정리하였다. 다음 안정적이었던 지구의 기후가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를 밝혔다. 그리고 폭풍, 홍수, 산불, 가뭄, 물 부족 등 지구 가열화가 미칠 여파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학기술이 미래의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빠트리지 않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나아가 저자는 말미에서 기후변화를 맞딱드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맺는다.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그 사회가 구성원과 생태계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지구 가열화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지기 전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략)*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 그 양에 따라 부의 축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국가 경제의 성공 여부는 국내총생산 GDP로 측정하며 이는 순전히 국가의 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빈부 격차, 환경문제, 탄소 배출 감축량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한가지 방법은 질적 조정 GDP 지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는 구성원과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자명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사회의 평가영역이 경제적 또는 물리적인 성장과 발달에 머물렀던 시선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분리수거 등 친환경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자!

심리학 수업 듣기? 아니 읽기!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
: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상의 과학

김경일 글 – 김영사, 2023.

추천대상:일반
#심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은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드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의 12번째 책으로 '심리학'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적혀있듯 《어쩌다 어른》, 《세바시》, 《요즘책방: 책 읽어 드립니다》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저서이다. 이 책은 불가사의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심리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자꾸 불안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언까지 작은 실천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심리학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가득 담겨 있다.

이 책의 본문은 170페이지 분량으로 '심리학이란 무엇일까?'와 '판단과 결정의 심리학', '심리학과 나', '심리학과 사회'의 4부로 구성되었다. 작고 얇은 책에 다채로운 심리학 연구를 담아 심리학 교양수업을 듣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과연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을 실험하는 걸까?

실험이란 끊임없는 가설 검증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그리고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한다. 그것이 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물론 하나하나의 실험만 놓고 보면 철학적 사고 및 결론에 비해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실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높은 기둥이나 벽을 이루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모아놓은 티끌들을 쌓아서 태산에 한 번 도전해보자 *(8-9)*
(프롤로그)

특히 인상 깊은 점은 저자가 마치 심리학 교양수업 강의를 진행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문체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인용한 프롤로그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작가는 처음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하듯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쉽고 편하게 소개한다. 이어 심리학이 철학에서 분리된 계기와 심리학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 강연자로도 일컬어지는 작가 특유의 강연방식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방식이 말하는 듯한 강연식이고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강연을 보고 듣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된다.

심리학 소개로부터 시작해 기존의 유명한 연구와 시사점을 통해 심리학이 연구 목표에 대한 깊이를 점진적으로 더해가는 구성이 독자 친화적 흐름을 끌어낸다. 뒤로 갈수록 현대 사회 문제에 관한 서술과 그 환경 속 개인의 접점을 찾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 자체에 대한 입문서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게 서술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코로나시대', '후회와 만족의 상관관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와 같은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주제에 대한 명쾌한 결과를 제시하는 점도 이 책의 큰 장점이 된다.

사회에 불안감이 커질수록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커진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수많은 연구자가 쌓아온 지식과 결과를 하나씩 익혀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심리학 분야의 입문서로는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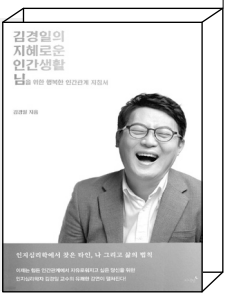
꼭 읽어야 하는 인간관계 지침서

오세원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님을 위한 행복한 인간관계 지침서

김경일 글 – 저녁달, 2022.

추천대상: 일반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원하는 이들에게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은 〈어쩌다 어른〉, 〈세바시〉, 〈요즘책방: 책 읽어 드립니다〉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저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강연자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수많은 강연을 진행하는 저자는 어려운 심리학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쉽게 전달해 왔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강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인 '인간관계'에 대해 예리하게 파헤치고 스트레스 없이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모색한다. 심리학 연구자의 저서인 만큼 단순한 말로 위로하기보다 우리가 고민하는 인간관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본문은 253쪽 분량으로 '타인에 대처하는 자세'와 '온전한 나로 서기', '한발 더 나아가기'의 삼부로 구성되었다. 각 부분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멘탈 강해지는 법'과 같은 부제를 설정하여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을 말합니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일종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252-253)*

본문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각 챕터들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케이스스터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의 심리', '나를 정말로 무시하는 사람 알아보는 법',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잘 소통하는 법'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은 독자의 몰입을 높이고, 추후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독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만큼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모두 다르기에 이 책에도 모든 이에게 통하는 정답은 실려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연구된 최신의 성과를 담은 지침서를 찾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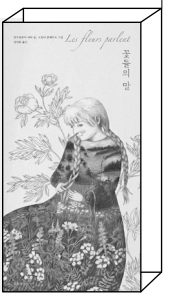
봄을 수놓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야기 정원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꽃들의 말

장 프랑수아 샤바 글, 요안나 콘세이요 그림, 김지희 옮김
– 오후의 소묘, 2021.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아름다움을 곁들인 이야기에 푹 빠지고 싶은 청소년



《꽃들의 말》은 오후의 소묘 출판사의 책으로 출판사의 소개처럼 작고 짙은 온기를 담은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이 책은 장 프랑수아 샤바가 글을 쓰고 요안나 콘세이요가 그림을 그렸다. 특히 요안나 콘세이요는 2018년 노벨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추크와 함께 작업한《잃어버린 영혼》으로 볼로냐 라가치 상을 받은 작가로 유명하다.

요안나 콘세이요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현재는 프랑스에서 거주 중이며《잃어버린 얼굴》,《까치밥 나무 열매가 익을 때》,《바다에서 M》,《아무에게도 말하지마》 등의 작품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글을 쓴 장 프랑수아 샤바는 프랑스 소설가로 파블로 네루다 대학에서 올해의 독자상을, 발랑시엔의 청소년 도서 황금상, 어린이 잡지 쥬부킨의 탐탐상 등을 받았으며 쓴 글로는《할머니의 비밀》,《감옥에서 쓴 편지》,《두 번째 탄생》,《왕의 보물 상자》가 있다.

이 그림책은《꽃들의 말》이라는 제목처럼 자줏빛 꽃, 하얀 꽃, 붉은 꽃 총 세 가지의 꽃을 소재로 한 단편들을 읽어볼 수 있다. 각 이야기와 그림책에서

나오는 꽃들의 꽃말을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이야기가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인공들의 성격과 눈앞에 그려지는 섬세한 배경 묘사, 시적인 표현들은 요안나 콘세이요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잘 어우러진다. 요안나 콘세이요는 연필과 색연필을 사용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채도가 낮은 그림들을 책의 곳곳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그림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꽃들의 말》의 튤립, 패랭이꽃, 작약의 세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튤립이 금전적 가치가 있던 시절 '모브'라는 매혹적인 꽃을 개발한 식물학자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을 소유할 때 벌어지는 일을 그렸고, 두 번째, 강자로 태어난 아이와 약자로 태어난 아이가 곰이라는 시련을 함께 겪을 때 일어나는 우정의 반전을 썼다. 마지막으로 작약은 아름답지만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아이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따뜻한 남자아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어 술술 읽히지만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것, 진정한 강함의 의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의 상징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읽고 나서도 한참 여운이 남는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손만 뻗으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우정과 사랑을 소재로 아름답게 그려내는 작품은 손에 꼽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이 그림책의 아름다움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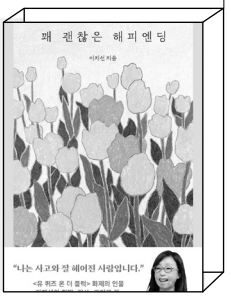
다시 쓰는 해피엔딩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글 – 문학동네, 2022.

추천대상: 일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중이신 분
#어둠을 지나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다. 누군가는 어려움이 찾아온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 하다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외부에서 찾으려 하다 남을 탓하기도 한다.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원인을 찾는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객관적으로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작가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언젠가부터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불편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 대신 작가는 '사고를 만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글을 쓰고 나면,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지난주보다 나아진 것들을 기록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 희망의 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조금 거리를 두게 했다.

사고를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총 세 권의 책을 낸 작가는 '글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글쓰기를 통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또 어떤 일로 즐거운지, 새로이 무엇에 감사하는지 등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문장으로 흘려보냈다고 한다. 또 글을 쓰다 보면 그전까지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글을 쓴다고 해서 마법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을 기록하고, 객관화하면서 어제보단 오늘 나아진 것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려움으로부터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한다.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직면한 어려움과 조금 떨어져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관찰한 후 묘사하는 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묘사하며 '실체'가 보이는 개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해결 가능한 실체가 있는 선명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간다. 작가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일어났던 그 나쁜 일에 대해, 내가 그리는 나의 미래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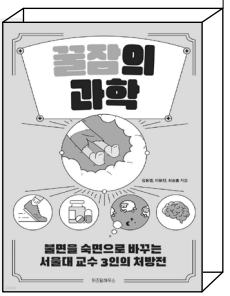
잠에 대한 모든 것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꿀잠의 과학

김유겸 외 글 – 위즈덤하우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수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사람은 왜 잠을 자야할까? 하루 24시간 중 적어도 5시간 이상을 가만히 누워있는데 써야 한다는 건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사실 잘 때도 움직임이 없을 뿐이지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해서 저장하느라 바쁘다. 이외에도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김유겸, 이유진, 최승홍의《꿀잠의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수면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교수 세 명이 함께 저술한《꿀잠의 과학》은 총 4개의 장으로 각각 〈당신은 잘 자고 있습니까〉, 〈수면부족이 우리 뇌를 위협한다〉, 〈운동 루틴이 잠과 삶을 바꾼다〉, 〈수면과 불면, 그 사이 어딘가를 헤매는 당신에게〉로 되어있다.

수면장애의 종류부터 한국인 특성에 맞춘 상황별 맞춤 운동 처방까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궁금할 수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까지 수록하고 있기에 수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인용해 보았다.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입니다. 이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극단적인 아침형과 저녁형의 경우 저녁형에서 아침형으로, 아침형에서 저녁형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략] 사람마다 생체시계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것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신체활동 패턴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억지로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던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만약 수면 패턴을 무리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원대로 돌아간다고 하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고려하여 맞는 방식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것이다.

《꿀잠의 과학》에서는 수면이 부족했을 때 뇌에 끼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잠이 부족할 경우 작게는 전화를 잘못 받거나 메일을 엉뚱한 상대에게 보내거나 하는 자잘한 실수부터 크게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잠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서 수면은 인간에게 피로 회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잠은 뇌신경계와 정서의 안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기만 해도 기억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화와 치매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꿀잠의 과학》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들'에 대하여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끝내주는 인생

이슬아 글, 이훤 그림 – 디플롯,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수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짧고 재미있으며 어렵지 않은 책을 읽고 싶을 때

고등학생이던 때에 국어 선생님이 수필을 읽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나이에 수필을 읽으면 가치관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뒤 대학생이 되어 일본 유명 소설가의 수필을 읽고 매료되었던 것을 돌아보면 그 당부는 대체로 맞았던 것 같다.

소설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태양까지 날아가게 하는 문학이라면 에세이는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배경, 인물과 줄거리는 놀라울 만큼 특별하지만,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다가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에세이는 작가의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 현실의 소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에세이의 매력이면서 위험한 부분이다.

이슬아 작가는 2018년 월 1만 원의 구독료를 내면 월 20편의 글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독형 에세이인 〈일간 이슬아〉라는 전무후무한 수필작품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 후 작가는 소설, 서간문, 인터뷰집, 칼럼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있으며, 또한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다.

작가의 수필집은 일상의 순간에서 건져 올린 반짝이는 순간들로 가득하다. 이를테면 강연회에서 만난 할머니의 '오래오래 글을 써 달라'는 부탁에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오래오래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29)" 눈시울이 벌게지는 부분에서 작가의 다정하고 선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작가의 눈을 통해 보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정하고, 여리며 선량하다.

또한 작가의 관찰력으로 생활 속에서 포착한 생생한 순간의 표현을 읽는 즐거움도 있다. 글을 읽고 있노라면 '맞아! 나도 이런 적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싶은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 작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님이 '꼭 혼내는 표정으로 그러나 다정하게 수십 명의 어린이를 챙기는' 모습과 같은 묘사는 언뜻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표현이 갖는 특별한 느낌과 힘이 있다. 이슬아 작가의 수필을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는 다정함, 포용, 연민, 건강함, 선량함 같은 것들이다. 작가의 수필을 읽고 있노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아침밥을 든든히 먹은 기분이다.

수필이 가진 힘의 성격은 소설의 그것과 다르지만, 그것만큼 강력하다. 즐거운 수필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수필은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만약 이 작품을 읽고 수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 요네하라 마리, 시오노 나나미의 수필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멋진 수필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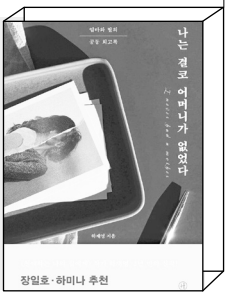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잘 모르는 엄마를 기록하다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하재영 글 – 휴머니스트, 2023.

추천대상: 일반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딸에게
#딸과 소통하고 싶은 엄마에게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는 하재영 작가의 신작이다. 그는 2020년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로 논픽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신작은 어머니의 서사를 기록한 것에 작가의 페미니즘적 견해를 덧붙인, 어머니와 딸의 '공동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의 제목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I never had a mother)"는 에밀리 디킨슨이 편지에 썼던 유명한 문장이다. 이 선언은 모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여성적 힘'을 선포하고, 어머니의 시대를 넘어서면서 자신을 낳은 여자의 분신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작가의 신념으로 읽힌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는 어머니의 삶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존재가 '엄마'일 수 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엄마의 방'이지만 그 어느 곳도 오롯이 '엄마의 독립된 공간'이 될 수 없었던 삶, 그 지점이 '엄마'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뻗어 나왔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모든 딸과 어머니, 모든 자식과 어머니의 삶에 맞닿아 있다. 지나온 삶을 읊조리듯 내뱉는 어머니의 담담한 내레이션과 그 삶을 이해하려는 딸의 해석이 교차하면서 뜨거운 교감은 시작된다.

평생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신만은 지키려고 노력했다(64).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개인적 포부나 의식의 변화는 숨겨야 했고, 집 안팎에서 노동해야 했으며, 노동의 목적은 당연하게 '스위트홈'으로 귀결되어야만 했다.

가부장제 체제에 갇혀 '어머님의 식사'가 인생 최대의 화두이고 책임이었던 어머니. 종속적 관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고부관계. 페미니즘적 언어로 고부관계를 언급하고 재구성하는 일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작가의 복잡한 심정이 행간에 잘 드러난다. 작가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도 납작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과연 이해할 수 있을' 사이에서 서성이는 작가의 심정을 '페미니즘'이라는 틀에 가두어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있는 모성 신화의 기본값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어머니가 있다. 그중에는 물론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도 존재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딸에게 끝없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가 있고,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어머니가 있고,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어머니가 있다 (127).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미워하고 사랑하고'의 무한 반복이다. 가장 가깝지만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이기에 이 기록이 더욱 가치 있다. 내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결을 하나씩 들춰내 보고, 거창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고요하게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최소한 "내가 슬픈 건 엄마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가 아니야, 추억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을 때야.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라,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235)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어머니의 '책 읽기'는, 타인으로부터 훼손당하고 모욕당하지않기위해딸이선택한'읽고쓰기'라는행위를설명하고이해하는열쇠가 된다.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딸이 낭독해 준 문장들(한정원 시인의 산문집 《시와 산책》 중 〈추운 계절의 시작을 믿어보자〉), 딸이 아팠을 때 어머니가 읽어준 책 속 문장들(레베카 솔닛의 회고록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을 통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 이 책의 압권이다.

"나는 네 덕분에 또 조금 성장한 것 같다."(263)라는 어머니의 고백이, 작가로 하여금 어머니의 서사를 기록하는 필경사가 되어 보기로 결심하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말하고 듣고 마주해보자.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어머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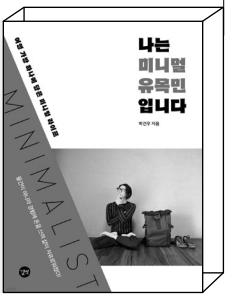
행복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법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나는 미니멀유목민입니다

박건우 글 – 길벗출판사, 2022.

추천대상: 일반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더니 상상의 폭이 영장류의 뇌를 하나 더 끼운 것처럼 늘어'나고, '시야는 파충류처럼 넓어졌다'고 고백하는 작가가 있다. '미니멀유목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나는 미니멀유목민입니다》의 저자인 박건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책답게 책의 크기도 손바닥만하게 아주 작다.

이 책은 미니멀유목민의 탄생기, 미니멀라이프 실천법, 미니멀리스트 유랑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는 미니멀유목민의 탄생기에서 국제결혼, 산티아고 순례길, 대만 도보 일주를 통해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게 될 훌륭한 밑거름을 쌓았다고 한다. 미니멀라이프 실천법에서는 의류, 필기구류, 책, 전자제품, 화장품, 디지털 파일, 추억의 물건들과 이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고거래, 무료나눔, 양도, 처분, 분리수거 등 실천하기가 어렵지 방법은 어렵지 않은 다양한 이별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20세부터 80세까지 60년간 하루 10분을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다고 한다. 시간으로 따지면 총 3,680시간, 무려 153일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려내다 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저자는 미니멀리스트는 '물질'이 아닌 '경험'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뭐든 버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한다. 소유를 통한 행복이 크다면 물건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물건, 인간관계, 경제 활동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과 있어도 안 쓰는 물건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비우는 일을 통해 자존감이 상승한다고 하니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미니멀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애정 결핍, 시기심,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존감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니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하다. 물건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자존감이 상승하고 환경 보호로도 이어지는 것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이라면 누구라도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다.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와 경제 활동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 불필요한 물건과 이별해야 할 날을 미리 마주하는 것은 건강 관리만큼이나 현명한 노후 대비'라고 말하는 저자의 말도 추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저자의 미니멀한 여행을 소개한 책, 《글로벌 거지 부부》와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도 함께 읽어보면 유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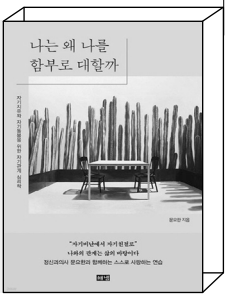
나에게 친절하세요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자기치유와 자기돌봄을 위한 자기관계 심리학

문요한 글 – 해냄, 2022.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자기 비난과 자책의 악순환에 갇혀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심리학



정신과 의사 문요한은 25년간 많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고통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희생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세운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을 위한 이 책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풀어 해석하고 이를 위한 처방을 제시한다.

책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 존재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또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고 자란 어른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이다. 상담을 통해 만난 사람들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내적 어려움을 자세하게 풀어놓아 독자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치유를 위한 자기돌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통합적 심리 치유와 자기돌봄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굿바이 게으름》을

비롯해 《이제 몸을 챙깁니다》, 《여행하는 인간》, 《오티움》, 《관계를 읽는 시간》 등의 책을 펴냈다. 그의 저작들은 자기 이해와 치유, 관계 회복에 관한 일관된 통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처 난 마음은 건강한 마음과 작동방식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찾아오는 수치심은 자기부정으로 이끄는 독성이 강한 감정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창피해하고 덮어버리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의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해법은 자기를 이해하고 삶의 동반자로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자기돌봄이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3장의 〈의지할 중간 대상이 필요하다〉였다. 저자는 안식년 여행을 통해서 자연이 얼마나 치유적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젊은 시절 산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훈련소였는데 중년이 되어 만난 산은 나를 품어주는 엄마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이라는 큰 품을 가진 존재가 공동 치유자로 참여하고 있는 걷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다. 우리는 다양한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특정한 자아상에 집착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 마음에 드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모두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스스로 가혹하게 대하고 후회하는 이들, 자기 비난과 자책의 악순환에 갇혀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체성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기나 인생을 돌아보는 중년기의 독자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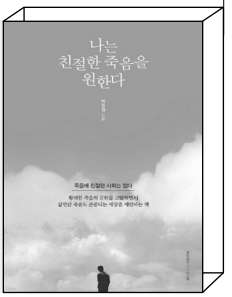
삶의 완성으로서의 좋은 죽음에 대하여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박중철 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연명 치료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병원에 요란하게 코드 블루 사이렌이 울리면 의료진들은 급히 뛰어와 빗물처럼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면 그제야 탈진한 몸을 벽에 기대며 성스럽고 고된 의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삶으로 다시 끌려오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면 그때도 이 장면이 숭고해 보일까? 오늘날 한국에서 자연스럽고 고통 없는 죽음이 가능한 것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의사인 저자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병원과 요양원에서 많은 황폐한 죽음을 목격한 저자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이 책에서 묻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대다수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 급격한 도시화와 건강보험의 확대로 병원에 입원하여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고 사망 후에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흔한 죽음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의 죽음

문화는 개별화, 범속화, 의료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환자 본인에게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 의료 속에서 환자의 죽음은 계속 유예되고, 가족들은 환자의 치료비 때문에 감당 못할 빚을 지게 된다. 노년을 보내는 요양원에서도 비극은 반복된다. 요양 시설은 더 높은 의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맥 영양과 급식관 인공 영양을 선호하며 질병과 노화로 인해 면역은 약해졌으나 인공 영양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몸은 세균에게 최고의 배양지가 된다. 그로 인해 응급실과 요양 병원을 반복해서 오가며 고통 속에 질질 끄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나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저자에 따르면 존엄사와 같이 개인이 '불가피한 경우'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무분별한 연명 의료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며,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 책 끝부분의 "마지막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오늘날의 죽음 문화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

인간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고, 의학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는 이야기의 완성을 지켜 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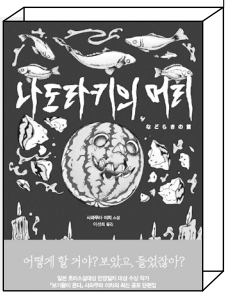
무섭지만, 어딘가 다정한

백송이 (가평군 청평도서관)

나도라키의 머리

사와무라 이치 글, 이선희 옮김 – 아르테, 2023.

추천대상: 일반
#일상 속에서 작은 스릴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에 여운이 남는 호러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일본 호러 소설을 읽는 사람들에게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작가를 묻는다면 열 명 중 다섯 명쯤은 아마 사와무라 이치를 꼽지 않을까.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와무라 이치는 이미 꽤 인기 있는 작가다. 데뷔작인 《보기왕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즈노우메 인형》, 《시시리바의 집》등 영능력자 히가 자매 시리즈가 줄줄이 출판되고 그 외의 장편까지 다양한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 그만큼 작가의 글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을 보다 응축시켜 또렷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나도라키의 머리》이다.

《나도라키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공포 단편집이면서, 작가의 작품 세계관의 중심인물인 '히가 자매'의 과거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스핀오프 작품이기도 하다. 단편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몹시 훌륭해 그의 다른 작품을 보지 않은 독자도 이 한 권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물론 작가의 팬이라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는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장편을 잘 쓰는 작가는 단편이 허술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혹은 그 반대로 단편을 잘 쓰면서 장편에서는 힘이 빠지는 경우도

제법 있다.) 사와무라 이치는 아니다. 이 작가는 단편도 장편도 잘 쓰는 작가다.

표제작인 〈나도라키의 머리〉를 포함 총 6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품 전부에서 작가의 강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사와무라 이치의 호러가 다른 작가들의 호러와 다른 점은 작가의 시선이다. 예전부터 호러라는 장르는, 하나의 일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와 죽음, 공포와 비명이 난무하는 그 특성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소재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당연히 약자를 향한 폭력성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사와무라 이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룬 〈술자리 잡담〉, 집단의 단결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낸 비극을 그린 〈학교는 죽음의 냄새〉,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비명〉 등, 그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뚜렷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기존 호러에서는 흔히 느낄 수 없는 어떤 윤리성이다. 조금 촌스럽게 말하면 사회파 호러소설이라고 해야 할까. 호러라는 매니악한 장르를 쓰면서도 작가로서의 사회 참여를 포기하지 않는 그의 재능, 혹은 강한 의지에는 독자로서 그저 감동할 뿐이다.

작가의 기존 작품이 마음에 든 독자라면 이번 책도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혹은 호러소설의 비윤리적인 잔인함이 영 맘에 들지 않았던 독자에게도 얼마든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나의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것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글 – 부크럼, 2020.

추천대상: 일반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연습,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에세이스트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소개한다. 이 책은 21세기 자존감 스테디셀러로 불리며 현재 누적 판매량 10만 부를 돌파,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

정영욱은 부크럼 출판사의 대표이자, SNS 구독자 20만의 스타 에세이스트로 다양한 베스트셀러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편지할게요》, 《밥 한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잔 뜻입니다》 등을 출간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은 저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자기계발 도서로 삶의 지향점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 치중되어 있는 이들에게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했다. 현재 저자는 출간하는 책마다 개성 있는 제목과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에세이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고 버텨내며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하며 자책하곤 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이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두며,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려고 노력해 보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남의 시선에 집중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해 보자. 이런 연습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다.

나에게만 집중한다고 해서 결코 이기적이거나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타인의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다. 타인에 시선에 흔들려 나 자신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나를 나아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임을 깨닫고 나의 가치를 다시 알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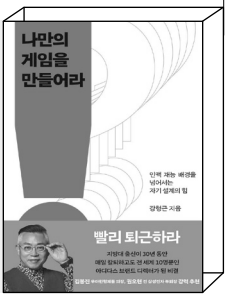
삶의 변화를 만나는 이들에게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강형근 글 – 흐름출판, 2022.

추천대상: 일반
#취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삶의 어느 자리에서 성공이 목마른 이들에게
#자기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 표지에는 저자 강형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시 퇴근을 30여 년 동안 지키면서 전 세계에 10명 밖에 없는 아디다스 브랜드 디렉터가 된 마케터이자 매출 300억에 불과하던 아디다스를 1조 규모로 키워낸 선봉장. 현재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경영, 조직, 비즈니스 모델, 개인 역량 전략을 연구하는 HK&COMPANY 대표이다. 그러던 그가 2000년 영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첫 사표를 던진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유학 중 회사의 요청을 받고 1년 만에 돌아와 2002년 한일월드컵 공식 스폰서였던 아디다스의 마케팅과 언론 홍보를 이끌었다. 이후 다섯 번의 월드컵과 다섯 번의 올림픽 마케팅을 진두지휘한다. 또한, 아디다스의 마이런 프로그램 런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오리지널스 브랜드의 흥행을 이끌며 한국 시장에서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던 나이키를 매출로 꺾는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2019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마주하고 두 번째 사표를 던진다.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데 이보다 더 매력적인 작가 소개가 있을까? 어느 상황이라도 무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저자가 소개하는 경험을 나의 이야기로 어서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여는 글 '빨리 퇴근하라'를 시작으로 닫는 글 '오늘도 변신을 꿈꾼다'로 책을 마무리한다. 1장 '내가 주도하는 판을 만들자' 에서는 인맥, 재능, 환경보다 중요한 자기 설계의 기술을 안내한다. 이어 2장 '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핵심 인재가 되는 단계별 성장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3장 '기준을 높여라'에서는 계획만 하고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셀프리더십을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4장 '나의 습관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에서는 6F, 즉 가족(family), 친구(friend), 부부(finance), 건강(fitness), 돈(finance), 자유(freedom)를 잘 관리하여야만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닫는 글을 옮겨 적으며 나를 포함하여 변화를 준비하는 이들의 건승을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빌어본다.

내 열정의 근원인 오너십, 변화 앞에 두려움 없이 덤볐던 도전정신, 자리에 대한 보람보다 성장에 대한 보람을 더 크게 생각했던 점, 회사의 성장에 맞춰 미리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한 것 등이 나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앞서 준비하는 것, 그게 나도 회사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정체된 채 회사의 성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직함이 아니라 나 자체로 성장하려 애쓴 결과, 강형근이라는 브랜드가 개발됐다. 나 자신이라는 브랜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21세기 평생 현역의 시대에 큰 자산이다. 나를 수식하는 회사의 이름과 직급을 빼고 남은 자신의 이름 석 자가 갖는 가치를 생각해야만 한다. [중략] 항상 스스로의 기준을 높이고 그것에 맞춰 단련하고 바꿔 나가려다 보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꾸준한 노력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 세상의 변화를 널리 알리는 일은 더없이 흥미롭고 보람차다.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패배자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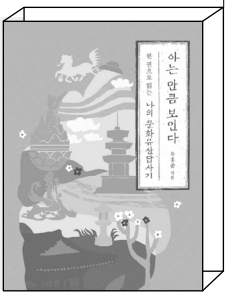
서울,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1: 서울편(3)

유홍준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싶을 때
#깊이와 재미, 역사적 통찰을 갖춘 서울 이야기
#서울을 살다 간 그때 그 사람들이 궁금할 때



전국에 답사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술사학자 유홍준의《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1; 서울 편》은 명불허전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1993년 초판 발행 이후 인문학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리즈를 그의 독자들은 새로운 편이 나오길 손꼽아 기대한다. 그리고 새 책이 발간되면 책장에 소장하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덕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편은 전국을 돌고 돌아 '서울 토박이'인 유홍준 님의 고향인 서울의 체험적 답사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서울 편 1, 2권을 시작으로 2022년에 3, 4권이 출간되었는데 굳이 3권을 고른 이유는 북촌과 서촌, 인사동을 유독 좋아하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다.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에 처음 나온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은 이 책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문장이다. 유홍준 작가의 고향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광화문 옆 서촌 주변의 유적과 유래는 태어난 이후 줄곧 30여 년간 이곳에서 지낸 나에게 무척 가깝게 다가왔고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는 서울을 깊이 바라보는 안목을 심어 주었다.

특히 북촌 한옥에 관한 이야기가 새로웠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코스인 북촌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대규모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인이 서울로 대거 입성해 주택지가 부족해지자 조선인 사업가 정세권이 1929년 현상공모를 통해 도시형 개량 한옥을 선정하고 가회동 필지를 사들여 1930년대에 대량으로 한옥을 건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한옥마을이 오래된 전통가옥이 아니라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현실을 개량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통을 변화시킨 것임을 알게 됐다. 북촌의 형성 과정은 우리 근대화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준다. 개화사상이 이곳에서 꽃피었고, 갑신정변이 이곳에서 모의되었으며, 3·1운동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이끈 이들이 이곳에 거처를 정했다.

표지는 인왕산 기차바위, 치마바위 사진인데 몇 년 전 땀을 흘리며 올라갔던 곳이라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저자의 친절하고 해박한 설명과 더불어 게재된 사진은 자연스레 눈길이 가닿아 얼른 서울 구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이 책은 서울 곳곳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역사와 문학, 예술의 도시로 채웠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 준다. 이름을 들으면 역사책이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어딘가에 그들의 체취와 고뇌가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저자는 이번 서울 편을 통해 '서울을 움직인 힘은 바로 서울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문화와 예술, 역사가 가득한 서울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만보자 유홍준이 한 발 한 발 걸어서 체험한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를 읽고 서울을 둘러본다면 지금껏 보이지 않던 서울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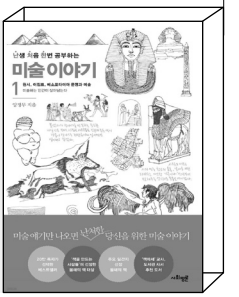
책으로 감상하는 내셔널 갤러리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내셔널 갤러리 특별판

양정무 글 – 사회평론, 2023.

추천대상: 일반
#내셔널 갤러리 전시를 봤거나 볼 예정인 사람
#미술사에 흥미가 있는 사람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내셔널 갤러리 특별판》의 작가 양정무(1967~)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이다. 그는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등 다수의 미술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그가 쓴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1~7권은 누적 판매수가 30만 부에 이른다. 양정무 교수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술사를 풀어내는 강좌로 여러 단체와 방송에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내셔널 갤러리 특별판》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전시기간: 2023.06.02.~2023.10.09.)에 발맞춰 집필되었다. 이 전시는 한영수교 140년을 기념하며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서양 미술 거장들의 르네상스부터 신인상주의 시대의 명화 52점을 한국에 전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내셔널 갤러리

특별판》은 전시를 보기 전에는 배경지식을, 보고 난 후에는 전시의 여운을 더 길게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가 위치한 트라팔가 광장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전시를 보러 가는 것 같은,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탄생 비화와 더불어 숙명의 라이벌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의 경쟁, 새로 지어진 박물관 건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까지 미술 외에도 역사와 건축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유학 시절 도서관보다 박물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미술관, 박물관 가이드를 가장 재미있게 하는 학생으로 유명세를 치렀다는 작가의 일화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에 전시된 그림뿐만 아니라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소개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보통 그림에 관련된 도서들은 그림과 시대 배경이 간략하게 서술되기 마련이지만, 이 책은 희대의 반항아라고 불렸던 카라바조에 대한 단락에선 그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된 일화를 설명하고 카라바조가 그렸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 준다. 다만 8명의 화가만 실려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전시의 중심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레드 보이'에 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던 독자들은 조금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분명 같은 그림 속에서도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권력자의 연출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부를 쌓은 안토니 반 다이크,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윌리엄 터너, 그리고 다른 화가들의 나머지 이야기도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작지만 큰 역할, 호르몬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

박승준 글 – 청아출판사, 2022.

추천대상: 일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궁금한 이들에게

인간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은 혈액 1밀리리터당 10그램으로 아주 극소량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생애에 걸쳐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60여 종이 넘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간과 신장 등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르몬은 인간의 성장과 노화, 사랑과 이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호르몬의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하다면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를 통해 호르몬이 인체를 무대로 보여 주는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해 보도록 하자.

저자인 박승준은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 교수로 재임 중이며 성장호르몬의 대사적 조절 기전, 시상하부의 식욕 조절 인자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은 호르몬의 중요성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집필한 도서이다.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상샘 호르몬,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일상에서 호르몬이 끼치는 영향과 호르몬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도 함께 알려준다.

호르몬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만한 내용을 일상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 준다. 개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는 개와 고양이의 옥시토신 수치를 비교하여 그 답을 알 수 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나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며 상대방에 대한 유대와 결속을 느끼게 하여 애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다. 개와 고양이가 주인과 놀이를 한 후에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개는 57% 증가했고 고양이는 12%가 증가했다고 한다. 결과만 보면 개가 고양이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두 동물 다 인간에게는 소중한 친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처럼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는 궁금증도 해결하고 전문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인이 뱃살이 더 늘어난 이유,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등 비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체중 증가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저자의 다른 저서 《비만의 사회학》, 《비만이 사회문제라고요?》 등도 함께 일독을 권한다.

우리 몸은 호르몬을 적재적소에 분비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면 쉽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조절하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에서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과 안정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할 방법도 함께 수록하였으니 앞으로 호르몬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싶다면 더욱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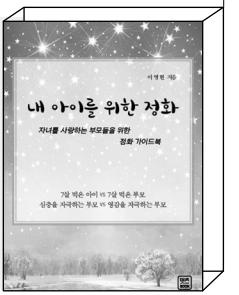
거울아 거울아 내 자식은 누구니?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내 아이를 위한 정화

이영현 글 – 렛츠북, 2016.

추천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말 잘 듣지 않는 아이의 훈육 방법이 궁금할 때



《내 아이를 위한 정화》는 엄마 작가 이영현의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 스스로가 가장 현명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힘 또한 내면에 있음을 알고 인생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이다.

저자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정화와 소통을 통해 변하기 시작한 자신의 기적같은 스토리를 다른 부모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바쁜 독자들을 위해서 책의 마지막 부분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핵심요약이 적혀 있으니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의 훈육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은 정독해 보길 바란다.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딱, 우리 안에 있는 만큼을 비춰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해 낸 것과 같다. 자식 또한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식 또한 부모의 자원으로 탄생한 창조물 아니던가? 그러므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창조물을 훈육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부모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바로잡을 정화의 방법이 필요할 바로 그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자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저자가 10여 년간 실행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본 정화 방법인 '미용고사'-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쓰고 있는 생각과 말!

인간 내면의 자원인 생각과 말의 영향은 곧 감정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그 인생에 드러난다. 부모와 자녀도 그것들로 존재하고 소통한다. 그러나, 서로의 거칠어진 생각과 비틀어진 말로 힘겨워진 감정과 모난 행동은 곧 부모와 자녀의 인생에 거센 파도를 치게 만든다. 이런 과정으로 소통이 서로 안 되니 훈육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때 짧은 순간들이지만 자주 계속 이 '미용고사'란 생각과 말의 사용으로 출렁이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가라 앉힐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비틀어지고 거칠어진 말과 행동들을 부드럽게 순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각자의 순화된 생각과 감정으로 주고 받는 상호 간의 소통이 어떨 것 같은가?

각자의 순화된 말과 행동으로 주고 받는 상호 간의 소통은 어떨 것 같은가?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미안의 말들은 저절로 정화 당사자의 내면의 자원을 정화하게 되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현실로 변화될 수 있다. 아름다운 언어가 당연스럽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같다.

부모의 내적 자원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비로소 긍정적인 의도의 관찰자가 된다. 그럴 때 부모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며 자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은 쉽게 돌아설 수 없을 것이다.

저자가 확신하는 것은 부모의 '미용고'의 내적 정화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에너지 탯줄로 이어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녀에게 딱 맞는 기회와 방법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부모 자신에게는 물론이다.

저자 이영현은 정화와 소통 방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딸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아파트, 해외캠프, 학교에 전학도 가고, 저자 자신은 온라인 카페를 열고 최면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그러니, 저스트 두 잇! 사랑합니다 ○○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 보는 것부터 해 보자! 부모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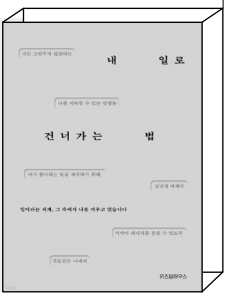
슬기로운 나의 회사 생활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내 일로 건너가는 법

김민철 글 – 위즈덤하우스, 2022.

추천대상: 직장인
#갓 승진한 팀장님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까짓 회사 관두자 하고 퇴사 생각이 가득 찰 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어쩌다 보니 막내 카피라이터에서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고 18년간 SK텔레콤, 네이버, LG전자, 일룸, SK에코플랜트 등의 광고 캠페인을 담당했다. 또 어쩌다 보니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하루의 취향》, 《치즈: 치즈 맛이 나니까 치즈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책을 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일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며 이왕 하는 일, '즐겁게 오래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크고 작은 용기를 내며 다짐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일'을 통해 '내일'로 건너가는 법에 대한 작가의 경험과 성찰을 보여준다.

저자는 프롤로그에 「나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직장에서 매일의 절반을 회사에 바치고, 월급을 받는 것의 일의 전부가 아니고, 나를 지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키우는 일도

병행한다. 바로, 나를 키우는 것을 나의 본업으로 삼자는 다짐을 한다. 진급하고 팀장이 되면서, 진급이란 단어보다는 이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업무의 성격은 확연히 달라졌지만, 저자는 오히려 팀장이란 역할이 본인에게 더 맞고, 어떤 팀장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하여 저자는 독자의 팀장님이 되어 어떻게 일에 집중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준다. 우선 일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내 일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일을 밀도 있게 처리하여 여섯 시 칼퇴근한다. 팀 안에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심어 주어 '우리 팀'이라는 소속감을 이끈다. 회의의 원칙을 만들어 누구나 부담 갖지 않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책임도 팀이 공동으로 진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팀장이 진다.

덧붙여 팀장에 대한 고찰도 이어진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좋은 팀장 되기, 패배가 연속적으로 겹쳤을 때 팀원들이 실패에 내재화되기 전에 분위기 쇄신하기, MZ라는 단어로 후배들을 규정하기보다는 '후배라는 이름으로 매 순간 나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들'이라 자랑하기, 팀원들의 딴짓에서 새로운 미래가 피어날지 모르니 응원해주기, 그리고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최적의 우리 팀을 위해 계속 나아가기 등 팀원 모두 성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퇴사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퇴사 예정자이며, 60대 이후에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자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상이 독자의 미래를 조금 더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회사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추천사가 쓰여 있듯이 일하며 믿으며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투명인간이 된 비행소년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글 – 우리학교,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비행소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성인, 청소년에게

최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죄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정하는 법정의 자리에 천종호 판사가 있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범의 판결을 내리는 소년 법정의 판사로, 호통 판사로 더 유명하다. 이 책은 그가 만난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들이 처벌 이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보듬어 줄 사회와 안식처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들이 저지른 죄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옛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몫을 해 내기 위해 그 아이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사회가, 국가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함께

보살피고 보듬어야 하는 건 아닐까 싶다.

'무엇이 그리도 죄송하단 말이냐.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네 죄가 아닌데…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란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외로운 네가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우리가, 어린 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지 못한 우리가,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우리가…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 없이 세상에 남겨진 아이가 배울 수 없어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질타할 수 있을까 싶었다. 배움의 기회를 보듬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안내해 줘야 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비행소년은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뿐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모르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세상의 뾰족한 눈길이 모두 비행소년에게 쏠립니다. 그 눈길 어디에도 호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으로 살게 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한다.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마음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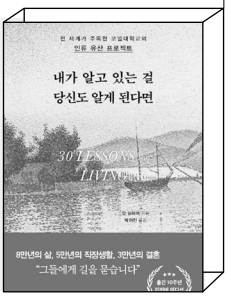
정답을 안다면 알려줘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글, 박여진 옮김 – 토네이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및 성인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인생에 아는 답이지만 확신이 없을 때



현대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 꼰대, 고집, 불통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존중의 대상, 연륜, 지혜로움의 이미지였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한 내용으로, 동양에서는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집안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노인을 지혜로운 존재, 현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코넬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는 인간의 삶과 가치를 연구하면서 노인이란 존재에 대해 주목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들이 쌓아온 세월에서 지혜를 찾고자 했다. 현자들이 이룩한 세월은 80,000년, 50,000년의 직장생활, 결혼 생활을 이어온 30,000년, 3,000여 명의 자식을 키워낸 세월 속에서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길을 찾고자 했고, 경험에 주목했다.

노인과 칼 필레머 교수가 주목한 경험은 왜 중요할까? 아무리 백날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살았던 과거와 현재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육아·인간관계·후회·행복한 삶들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주제에 대해 노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의 답은 주제에 따라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조언은 바로 "현재", "지금"이다. 노인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하라고 한다.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을 내일이 아닌 지금 하라고 한다. 내일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 오늘의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일까? 지금 행복하면 내일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에 쓰이는 아까운 에너지를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분명 지금의 내가 달라지고, 미래는 더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아는 답일 수 있지만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에 답을 알고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먼저 겪은 노인들의 경험으로 우리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다.

노인들은 경험으로 무엇이 되었든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수한 세월을 살아온 세월 속에서 노인들이 남겨준 지혜의 유산이자 가르침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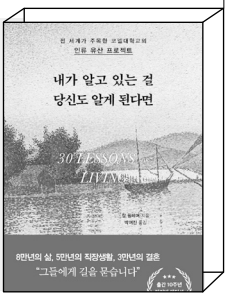
인생의 선구자들이 말하는 30가지의 조언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글, 박여진 옮김 – 토네이도, 2012.

추천대상: 일반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2011년에 출간된《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은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포스트' 등 글로벌 언론과 석학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자 칼 필레머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이자 사회학자로 인간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2006년 칼 필레머 교수는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해 '코넬대학교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노인들의 지혜가 우리 삶에 놓인 고비들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5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각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책에는 그가 만난 노인들이 들려주는 행복에 이르는 법, 삶을 살아가는 법 등 삶에 대한 많은 조언이 담겨있다.

조언 하나,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와 핵심적인 가치관이 비슷한가'

이다. 인생 선구자들은 결혼 후, 배우자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외친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조언 둘, 포기하지 마라! 평생 해야 할 일이다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끈기가 중요하다.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던 인생 선구자들 중 대부분은 한두 번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일에 종사했다. 그러다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아 안착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조언 셋,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건강한 식이요법, 운동, 금연이다. 병은 쾌락의 이자다. 형편없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흡연은 우리를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훗날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할 뿐이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 노년을 받아들이는 방법 등 알찬 인생을 위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인생 선구자들의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똑같이 고민했고 그것을 극복해 왔다. 당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혹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여기에 담긴 다양한 노인들의 진심은 당신에게 해답을 줄 뿐만 아니라 위로와 마음의 여유 또한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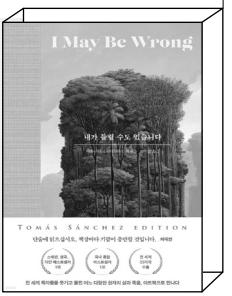
내가 다 알지는 못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다정하자.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글, 박미경 옮김 – 다산초당, 2022.

추천대상: 일반
#다정하고 상냥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싶은 이들에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저자인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삶을 지나왔던 사람이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라 정해진 학기 내에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제가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에 취업해 임원진 자리에 올랐다.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돌연 사직서를 낸다.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는 건 깨달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고 그는 한 암자에 들어가 푸른 눈의 스님이 된다.

그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사직서를 내고 은자로 기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작가의 이력을 읽고 드는 의구심에 그는 그가 살아온 삶으로 그 이유를 말해 준다. 그는 몰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서양에서는 흔히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용어를 삶이 만족스러울 때 쓰고는 한다. 그는 사람이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사람은 늘 비어 있고, 허전하고, 빈 공간을 채울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니 그는 나 자신을 의식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존재이니 그

시각, 그 순간, 내 존재와 내면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얼핏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날 일과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 그중 우리는 오늘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과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나 자신을 잃기 쉽다. 작가는 나 자신을 바로 보라고 말한다. 나는 다음에 이번 차선을 놓치지 않아야 지각을 면할 수 있으니 서두르자. 오늘 당장 처리할 일감을 어떻게 되도록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미래에 감당해야 할 생각이 현재를 차지한다. 작가는,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을 둔중하게 하니 현재에 충실히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한다.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삶에 큰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바른 자세로 배웠기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저자의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다. 그러다가도 책을 읽어나가니 저자가 설파한 삶의 문구를 포용할 수 있었다. 저자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열린 자세로 두며, 세상에서 알려진 정보로부터 배움을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말했다. 숲속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이다.

그가 들려준 삶의 에세이를 인상 깊게 읽었다면, 장구한 자연을 그려낸 삽화가에게도 마음을 기울이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는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 에피소드를 상징하는 삽화를 책 속에 두었다. 우리는 침착하고 잔잔한 그림을 보며 그가 들려준 에피소드를 감명 깊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삽화는 토마스 산체스가 맡았다고 한다. 그는 남아메리카 최고의 화가이며, 잔잔하고 평온해 인간을 인간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자연의 모습을 주로 그렸다. 녹음이 핀 자연, 쉼을 찾을 때의 자연, 일상 속 도회지를 뒤로하고 녹지로 떠났을 때, 푸른 녹음이 너울처럼 파도치며 흐름이 마음에 기거한 평온함을 찾는 그 시간 말이다. 마음을 의식하는 자세, 우리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림을 보고 싶을 때는 토마스 산체스 작가의 그림을 추천한다.

너의 마음이 따숩길 바라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너의 하루가 따숩길 바라:
마음에 약 발라주는 '힐링곰 꽁달이'의 폭신한 위로

고은지 글 – 북라이프, 2022.

추천대상: 일반
#현재 생활에 지쳐버린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인스타그램 '심리치료사가 그리는 힐링곰 꽁달이'에 관계, 감정, 인생, 사랑, 자존감 등의 주제로 힐링툰을 연재하고 있는 심리치료사 고은지 저자의 에세이다. 이 작품은 저자의 인스타툰 중에서도 심리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반응과 지지를 얻었던 57꼭지와 미공개 만화를 함께 담았다. 아동심리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전문 심리치료사인 작가가 그린 만화와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의 본문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자존감, 인생, 감정, 관계, 사랑, 외로움, 일상, 공감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꼭지별로 묶어놓았다. 작가가 창조한 캐릭터 '힐링곰 꽁달이'와 다양한 고민을 가진 캐릭터들의 대화를 바라보면 어느새 나의 고민과 언젠가 들어보았던 누군가의 고민을 떠올리며 쉽게 몰입할 수 있다. 본문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언제나 '괜찮아'와 '너 자체로 충분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익숙한 '힐링에세이'의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각 사연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캐릭터의 대사는 본 저서가 다른 작품과 구분되는

명백한 특징이다.

저는 왜 항상 실수만 하고 배우는 것도 이렇게 거북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업무에 적응하는 게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가 잦아서 거북이 같다고 느끼는구나,

그럴 수 있어. 거북이여도 괜찮아. 거북이는 땅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가장 빠른걸.

자기에게 불리한 땅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북이의 노력만으로

거북이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제 열심히 노력한 널 더욱 아껴줘

전 항상 완벽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자신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절 완벽주의라며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전 그들이 이상한걸요.

항상 완벽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구나.

그럴 수 있어. 완벽하고 싶어도 괜찮고 항상 잘하고 싶어도 괜찮아.

그 모습의 나를 사랑해 줘 그거면 충분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연은 개인사부터 직장생활을 넘어 세대 갈등까지 저자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현 사회의 다양한 고민 주제와 갈등 사연이 담겨 있다. 위에 인용한 사연과 같이 어떤 사연에도 위로와 독려를 건네주는 것이 책의 모든 사연을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결론이 항상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점에서 얼핏 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을 저자가 미리 예측했을까? '그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모두 경험하는 고통이다', '우리세대는 더욱 열악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과 위로 또한 본문에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문장을 전달하는 곰돌이 캐릭터의 덤덤한 표정과 표현이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져 준다.

억지로 감정을 이끌어 내거나 일부러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감성 글귀에 지쳤다면 특별한 의도 없이 덤덤한 곰돌이 캐릭터의 표정으로 문장을 건네는 이 책을 읽어보길 바라며, 책의 마지막 문장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너의 하루가 따숩길 바라,

진심으로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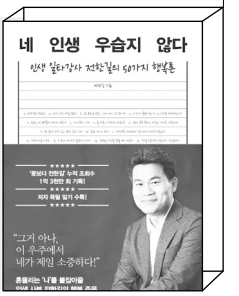
미래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전한길 글 – 21세기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최근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봤다면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사' 과목에서 존재감이 클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험생에게는 하나의 아이콘 그 자체라고 봅니다. 저도 한국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전한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결과까지 좋았으니 참 기억에 남는 강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간하자마자 읽어보니 역시 전한길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들은 생각은 '상당히 스마트하다'였습니다. 저는 사실 전한길 강사님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큰 실패도 겪었고 해서 자기 고집이 세거나 정신력만 강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꽤나 합리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며,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건 그게 정말 중요해서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한해에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합격했을 때 대우가 그리 좋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인력풀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자의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한 것이 '공무원 시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무원'이 꿈이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좌절을 겪은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한데 공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은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기세'라는 것이 생길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신적인 부분인 수험생활 내내 강조합니다. 기세에서 눌리면 이미 시험에서 진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어차피 한번쯤은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만만한 '시험'이란 건 없습니다. 그것도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시험이라면 말이죠.

책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지금의 전한길을 만든 '전한길 합격생 필기노트'가 탄생하게 된 사연이 나오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처음 노량진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너무 무명이어서 아예 오프라인 종합반 수업 기회 자체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 종합반 수업 기회를 얻지 못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당장에는 돈도 못 벌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한길이라는 강사의 '파이팅 스피릿'이 나옵니다. 신세 한탄하거나 술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못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학생 한두 명만 앉혀놓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 촬영에 집중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전한길

합격생 필기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고 합격생 필기노트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저자의 '발악'이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길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일독을 할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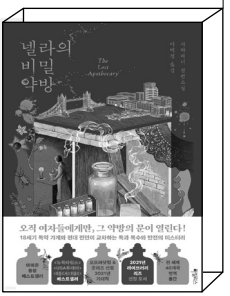
작은 병이 쏘아 올린 운명의 화살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넬라의 비밀약방

사라 페너 글, 이미정 옮김 – 하빌리스, 2022.

추천대상: 일반
#18세기 영국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예로부터 독살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살인 방법의 하나였다. 독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독살범의 70%가 여성이라고 하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기소된 독살범들의 대다수는 스물에서 스물두 살 사이의 엄마와 아내, 하녀였다고 한다. 범행동기는 고용주에 대한 불만, 거슬리는 배우자나 연인 제거 등이었다고 하니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넬라의 비밀 약방》의 저자 사라 페너는 어쩌면 식상한 소재인 여성, 독살이라는 소재로 더없이 매력적인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녀는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길버트 작가의 강연을 들은 뒤 감동을 받아 온라인 글쓰기 수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넬라의 비밀 약방》은 그녀의 데뷔작으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40개국에 번역되었다.

소설은 18세기의 넬라와 엘리자, 현재의 캐롤라인 세 명의 여성의 시점이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넬라는 여성들을 돕는 약방을 운영했던 엄마의 뒤를 이었지만, 그녀의 약방은 뒤편에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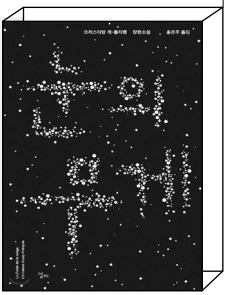
공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넬라의 아픈 상처와 관련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랑했던 연인의 배신이 계기가 되어 넬라는 여인들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주기 시작한다. 분명 넬라의 약방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가여운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넬라의 잘못 제조된 약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넬라의 이런 생활은 어느 날 바람난 배우자의 상대를 죽이려고 한 클라렌스 부인의 하녀 엘리자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넬라와 엘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캐롤라인은 10년 차 결혼기념일 며칠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다. 결혼을 기념하러 영국 여행을 계획해 놓았던 그들의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캐롤라인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혼자 영국에 간다. 그녀는 우연히 '머드라킹'(강에서 진흙을 뒤져서 역사적인 골동품을 찾는 행사) 가이드를 만나 템스강에서 작은 병을 하나 발견한다. 그녀는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남편의 청혼으로 그 꿈을 접고 가족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병에 어쩐지 호기심이 생겼고 가이드인 알프 총각의 도움을 받아 대영도서관의 게이너를 소개받는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의 등장으로 캐롤라인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소설의 매력적인 부분은 작은 약병을 매개로 세 사람의 인생이 촘촘하게 얽히게 된다는 점이다. 작가는 18세기를 살았던 넬라와 엘리자, 현재에서 두 사람의 존재를 추적하는 캐롤라인을 그물처럼 엮어서 우리에게 던진다. 세 사람은 각각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선을 그은 사람은 영영 다가가기 힘든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던가요?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눈의 무게

크리스티앙 게–폴리캥 글 – 엘리, 2020.

추천대상: 일반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타인을 긍정하는 희망어린 이야기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낯선 이방인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따사로운 이야기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크리스티앙 게- 플리켕은 다양한 장편소설을 쓰며 창작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작가이다. 그는 평단과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다수의 문학상을 보유한 작가라고 한다. 문단과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가는 인간의 공감대에 파고들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분히 인간애적인 시선에서 사람을 고찰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우리 인간의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파한다.

고독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우리 주변에 많은 타자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데도 왜 우리는 삶이 고독하다고 느낄까? 환한 빛, 창문 새로 들어오는 소리, 우리가 나누는 타자와의 대화 소리. 상대가 없이는 난점에 부딪히는 일상 속 사연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의 대로변에 서 있으면서 때로 충족되지 않는 고독감을 느낀다.

그는 도시화된 소리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해 준다. 아주, 깊고, 아득하고, 절대 친해질 수 없을 듯한 이방인과 몇 달 내내 같은 방을 쓸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라고. 작품에 나온 표현대로, 어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굶주린 밤이 육식동물 같은 눈덩이들을 떨어뜨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방인과 머무를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폭설은 내 진로를 방해한다. 다리 상태 역시 온전치 않아, 이방인이 해주는 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방인은 우리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으며, 그는 장작과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위해 나를 억지로 맡은 것이다. 나와 혈연 및 지연인 관계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 나를 맡지 못했다.

작가는 주인공이 마주하는 고독을 무척이나 쓸쓸하고 씁쓸하게 묘사한다. 그의 책을 읽으며 장 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 떠올랐다. 낯선 방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셋이 갇힌다. 셋은 서로의 성장배경, 사회적 환경,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셋이 있는 방에는 거울이 없고, 세 명은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모인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에게 관심이 생긴다. 말을 나누다가 의견이 엇나가 갈등에 부딪히고, 성격상 맞는 사람과 어긋남이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세 명의 방은 상대를 증오하는 말과 원성이 가득하다. 사르트르가 타인을 지옥이라고 말한 철학관이 책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말처럼 세상은 오로지 밑바닥 없는 늪이기만 할까. 우리는 고독에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다. 낯선 이방인과 잘 들지 않는 난로에 대해 시답잖은 말을 던지고, 매일 내리는 눈을 두고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농담거리를 말한다. 눈의 무게에서 주인공과 이방인은 점차,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고립된 상황에서 보이는 것이 서로이니 각자를 살피는 데에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연을 지녔고, 어떤 삶의 자세로 이 고독 어린 시간을 견디려 하는지 서로를 관측하면서 등장인물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맨 뒤 페이지에 독자분들이 남긴 평론대로, 이 소설은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연대를 보여주고, 인간을 안도하는 긍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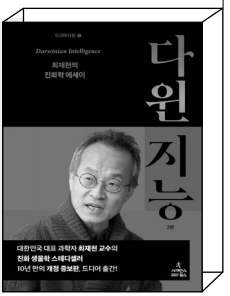
우리는 공감하고 협력할 때 생존할 수 있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다윈지능

최재천 글 – 사이언스북스, 2022.

추천대상: 일반
#태초의 시대 인간과 생명의 출발점이 궁금할 때
#살다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때



'통섭'이라는 개념 아래 지식이 융합하고 있다. 통섭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을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로 나와 있지만, 요즘은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초학문적 연구를 일컫는다. 과학철학, 진화경제학, 문화과학 등 이 낯선 이름의 학문은 기존 연구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미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젠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은 바야흐로 지식이 융합하는 통섭의 시대이다. 이 통섭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160여 년 전 지구를 들었다 놓은 다윈의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이론인 진화론이 왜 통섭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은 진화론이 인간을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된 융합의 산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생각을 바꿔놓았지만, 그만큼의 오해 또한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적자생존'을 잘못 파악해 제국주의, 식민지배, 파시즘을 탄생시켰다. 자연선택, 성 선택 등 진화론의 원리들은 오늘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화생물학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 온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통섭'이라는 학문용어를 일반사회에 알리고 있다. 그는 과거 민법이 규정한 부계혈통주의가 생물학적으로 모순임을 증명, 헌법재판소로부터 호주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진화론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이루어 낸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이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다윈이 밝힌 진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계의 생물 개체들은 다른 형태, 생리, 행동을 보인다.(변이)

2. 일반적으로 자손은 부모를 닮는다.(유전)

3. 개체들은 먹이 등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경쟁)

4.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자연선택)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진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진화론은 발표된 이후 160여 년간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 진화론은 당당히 이론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 과정에서 학자들의 격렬한 논쟁과 수많은 실험의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적자생존'으로 대표되는 진화론에 대한 오래된 오해들을 풀어 준다. 진화는 향상된, 바람직한 생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전적 형질이 변화하는 것뿐인 것을 자연의 수많은 진화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 세계에 언제나 '최고', '일등'인 인간은 없으며 조상으로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하루하루 환경에 적응해 생활하며 자손에 조금 변화된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진화'라는 사실도 알려준다.

《다윈지능》은 일반 사람들도 진화론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놓았다. 생물, 유전, 자연선택 등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더라도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수월하게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 진화의 무목적성을 설명하는 "눈먼 시계공", 인간은 유전자 번식을 위한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알이 닭을 낳는다" 등의 재미있는 표현도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전자를 섞어왔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분화된 진화의 산물이다. 모든 생명은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새삼 생명의 평등함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은 이 순간까지 결코 혼자 진화해 오지 않았다. 가혹한 지구의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경계를 넘어 오랜 시간 유전자가 섞이고 변화해 왔다. 유전자처럼 우리의 의식구조와 지식 세계도 담을 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기 위한 협력과 공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윈의 진화론이 설명해 주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이제는《다윈지능》을 만나 볼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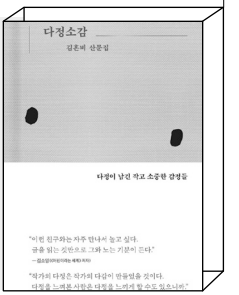
일상의 다정들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다정소감

김혼비 글 – 안온북스, 2021.

추천대상: 성인
#가벼운 글을 읽고 싶을 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전국축제자랑》과 같은 남다른 주제를 가진 에세이스트 김혼비 작가의 《다정소감》은 '다정다감'을 장난스레 비튼 말이다. 동시에 저자가 다정들에서 얻은 작고 소중한 감정의 총합을 뜻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저자가 느꼈던 다정과 관련된 일화를 담은 《다정소감》을 읽다 보면, 저자의 특이한 이력에 놀라고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이 궁금해진다.

《다정소감》에서 저자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들과 진지한 생각들을 재치 있고 유쾌한 어조로 풀어낸다. 그리고 독자가 평소 생각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식에 관하여'에서 드러낸 저자의 가식에 대한 관점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말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가식'을 저자는 절대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다.

혹시 나 자신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견디기 힘든 날이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가식적이라고 비난해서 모멸감을 느낀 날이 있는가? 괜찮다. 정말 괜찮다.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눈 밝은 내 자아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내 '가식의 상태'를 들키고 말았지만,

나는 지금 가식의 상태를 통과하며 선한 곳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 가식을 부리는 사람이 그곳에 닿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척'한다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떳떳하지 못하고 다시 찜찜한 구석도 있지만, 그런 척들이 척척 모여 결국 원하는 대로의 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가식은 가장 속된 방식으로 품어보는 선한 꿈인 것 같다. (64)

남에게 충고를 안 함으로써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믿지만,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꼰대가 되어가는 걸 모르고 사는 것. 나는 이게 반복해서 말해도 부족할 만큼 두렵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입맛에 맞는 것들로만 만들어 낸, 투명해서 갇힌 줄도 모르는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이제 거기서 잠깐 나와보라고, 여기가 바로 출구라고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75)

또한, 저자의 '꼰대'에 관한 생각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 인간관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주변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인 위로와 위안 대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다정들도 감동적이지만, 저자의 생각이 담긴 글이 흥미롭고 대체로 공감이 간다. '김혼비'라는 사람이 궁금해지게 만드는《다정소감》을 무더운 여름날 가볍게 읽을 에세이를 찾고 있는 독자에게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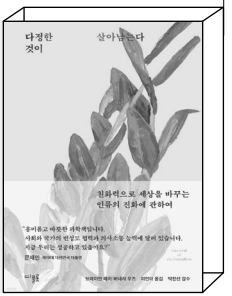
우리 인간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글, 이민아 옮김 – 디플롯,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인간과 동물들이 더 큰 사랑과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한국어판은 2021년 7월 출간 이후 한국 독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2022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헤어 박사는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한국인들에게 여러 해 동안 큰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독자들은 '따뜻함'이라는 감정과 만나게 된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는 '아직도 성악설과 성선설 사이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정연한 논리로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은 참 오랜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자기 가축화(self-domestication)'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친화력은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가축화 연구를 통해 우리 종의 초강력 인지능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 가축화 가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우리 종의 경향을 극복하는 해법으로의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자기 가축화 연구를 통해 친화력이 동물들의 인지능력,

특히 협력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근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음을 밝혔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 즉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동물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마음 이론이 적용된다.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두 눈을 마주치고 다정한 목소리를 낼 때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즉, 동작과 목소리를 통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은 협력적 의사소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마음 이론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협력적 의도를 이해하는 일이 호모 사피엔스의 모든 능력이 발달하기 위한 기초라면, 그 능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진화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아주 중요한 일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5)*

마음 이론에서 발생하는 아주 섬세한 능력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틀린 믿음(False Belief) 능력(111)이다. 이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잃기 전까지는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지능력 중 하나인 '자제력'이 우리 삶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자기 가축화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극도의 자제력을 지녔던 것은 우리 종뿐이다. 이 과정을 겪으며 감정반응을 더욱 억제함으로써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123)*

친화력 상승이 자기 가축화 징후를 촉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핵심은 발달이다. 발달 속도나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몸체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발달 기간의 연장 여부에 따라 협력적 행동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발달 패턴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노보, 침팬지 등의 동물에서도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종에게 일어난 친화력 선택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 종이 보노보처럼 전반적인 포용력만 강화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종은 집단 구성원의 정의를 확장시킨다(158). 즉,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을 그냥 참고 견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다(159)는 점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다.

친화력이 우리 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가 더 똑똑해졌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두 생각 사이에 놓여 있는데, 사회적 관용이 높아지면서 인지능력, 특히 의사소통 및 협력과 관련한 기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165).

타자에게 친절한 우리 종의 특성은 보노보와 일치하지만, 사람의 경우 이 친절함은 특정 타인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집단 정체성을 토대로 타인을 판단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사랑이 정체성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187)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다. 이러한 본성을 함께 예측하고 개발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에는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겠다.

가장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 인종, 성 정체성이 섞인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다. 이 다양성이 사람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며, 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이끌고 사회의 관용을 강화시킬 것이다(280). 도시는 서로 다른 배경과 다양한 관점 및 경험을 지닌 삶들이 자유롭게 섞여 생각을 교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큰 규모의 집단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종이다(283). 서식지가 바뀌어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관용을 베풀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연구와 분석과 관찰 끝에 세상에 나온《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읽은 독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이 지구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인간과 동물들이 더 큰 사랑과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다정함이 승리의 전략'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독자들은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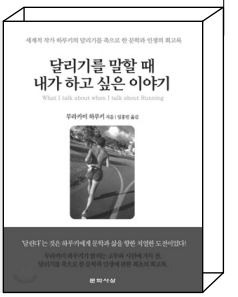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힘, 달리기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글, 임홍빈 옮김 – 문학사상, 2009.

추천대상: 일반
#글을 쓰는 업을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이어 나가고 싶은 독자
#달리기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독자



책과 가깝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낯설긴 어려울 만큼 일본의 대표 작가인 그는, 문예지 〈군조〉 신인상에 원고를 응모한 것을 계기로 1979년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며 《무라카미 T》,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등 많은 책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현재 2023년 9월에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출간되어 그의 명성을 다지고 있으며, 다년간의 외국 생활을 통해 번역가로서도 활동해 왔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소설 집필 활동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달리기를 주제로 쓴 에세이이다. 그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뒤 체력을 유지할 방도로 달리기를 선택한 후 줄곧 뛰어왔다.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은 2009년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드러내지 않는 작가가 데뷔 30년이 흐른 뒤에 쓴 최초의 회고록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있어 '계속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온 것을 글로 담았으며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2005년 여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쓴 글이다. 96년도에 쓴 글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한 일종의 '회고록'으로 읽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철학'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해도, 어떤 종류의 경험칙과 같은 것은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누구나 공통적으로 잘 응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라는 인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달리기를 통해 배운 것들 속에 범용성이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독자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든 그의 집필 활동과 달리기를 통한 꾸준한 정신력, 체력 관리 등에서 뚜렷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작가 하루키를 누군가는 타고난 소설가라고 할 테지만, 본인 스스로는 재능이 넘치는 소설가 타입이 아니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뛰어난 결과물 뒤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노력이 있다. 하루키의 문학적 성취, 그를 뒷받침한 달리기가 바로 그것임을 바로《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스스로를 정비하고 단련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어떠한 축을 만들어 보고 싶은 소설가와, 목표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달려 본 이들에게 더욱 진한 감동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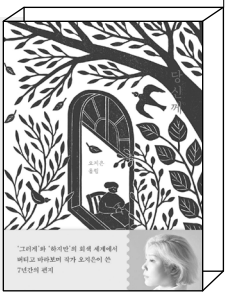
갈 곳 없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주는 위로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당신께

오지은 글 – 김영사, 2023.

추천대상: 일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당신께'는《익숙한 새벽 세시》,《마음이 하는 일》의 저자이자, 홍대 인디음악계의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작가가 자신의 글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이 적힌 편지에 대한 답장을 띄우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2016년 첫 편지를 쓰기 시작해 2022년까지 7년 동안 자신의 글과 음악을 사랑하는 독자와 리스너들에게 띄운 스물일곱 통의 편지를 엮었다.

작가는 편지의 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갈 곳 없는 마음의 편지라는 부제와 '당신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받는 이가 정해지지 않고 누구나가 편지의 수신인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다. 보통의 에세이 형식과는 다르게 편지라는 형태기 때문에 독자 개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일상생활 또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과 거기에서 느낀 생각을 일기처럼 써 내려간 글이라서 내용이 두서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실제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많아서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편지라는 형식에서 주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처음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는 편하게 쓴 편지처럼 느껴지지만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법한 일에서도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사람과 삶에 대한 규정을 찾아내곤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이를 먹은 사람, 현명한 사람, 시야가 넓은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사람마다 어른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요.

저는 '매사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른 같습니다. 흑과 백의 세계를 지나 각자의 입장, 상황, 복잡함 속에서 조개처럼 입을 다물게 되는 사람이 어른 같습니다.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흑과 백의 세계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64~65)*

위의 내용처럼 어른이란 무엇일까라는 무거운 내용이지만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냥 편지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저자의 고민에 공감하며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읽을 수도 있다.

이 '편지-책'의 수신자는 저자 오지은의 글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오지은의 팬을 포함하여 어렵지 않은 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편해도 너무 편한 자본주의 삶이 가속노화를 부른다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글 – 더퀘스트, 2023.

추천대상: 일반

'안티에이징'이 화두인 세상이다. 최근에는 항노화를 뜻하는 '안티에이징(Anti-Aging)'에서 나아가 좀 더 자연스러운 노화의 개념인 '슬로우 에이징(Slow-Aging)'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슬로우 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좀 더 '천천히 늙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듦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삶의 사이클이지만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 책은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슬로우 에이징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의 이동성은 엄청난 방해를 받았고 최소화되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동선은 짧고도 협소해졌다. 이동량이 줄어든 반면에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목과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에 따른 체중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 되었고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동하면서 운동하는 삶,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삶,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삶이

노화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동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한 것과 더불어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외부 활동의 제약 때문에 실내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 계층의 증가로 치매 발병률이 높아졌고, 비자발적으로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했다. 신체를 돌보는 일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았다.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이 균형을 유지할 때 가속노화는 지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 충전소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책 모임을 통해 다독임과 격려와 응원을 주고받는 것 또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항노화 요법들이 난무하고 건강 보조식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에게 맞는 영양소와 요법들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자신의 체질과 성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 규칙적인 질병 관리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과 더불어 우아하면서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시스템 밖으로 튕겨져 나온 뒤의 삶은 모두에게 두렵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길들여진 삶, 익숙한 삶이 갑자기 맞닥뜨린 새로운 삶 앞에 위축되곤 한다.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삶을 재편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노년을 함께 즐기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벗'이라고 하겠다.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곁을 내어주면서 노년의 삶은 무르익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 경제적 안정이다.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이다.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저자가 '경제적 자산을 유지하는 것 역시 신체기능이나 마음건강의 내재 역량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257)고 주장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나이듦의 디폴트 값을 '불안, 우울, 고통'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긍정 모드로 전환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면 좋을 듯하다.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글 – 더퀘스트, 2023.

추천대상: 성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

에세이집《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의 저자 정희원은 전문 에세이스트가 아니라 노년내과 전문의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노인 복합 질환, 노인 만성 질환, 약물 조화 클리닉, 시니어 통합 내과 등의 진료 과목을 맡고 있다. 그는 본업을 방송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해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다수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책 역시 자신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출간되었다. 독자들은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함과 더불어 노화에 대한 이해, 노화 방지의 방법 등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나이 먹지 않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저자에 의하면, 느리게 나이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느리게 나이 먹기 위한 필수요소 네 가지를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운동, 마음 건강, 질병 관리, 덜어내기이다. 사실 이 네 요소가 좋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는 당연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 책의 특별한 점은 네 가지 요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생활 습관이 왜 노화와 관련이 있는가를 철저히 다양한 실험, 통계,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현대사회의 조건이 노화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기계나 교통수단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로 인해 하루에 20km를 걷도록 설계되고 진화된 인간의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을 움직일 필요 없는 환경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데 팬데믹 3년을 경험하면서 배달앱 사용, OTT 영화 보기, 재택근무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점점 줄어들면서 노화 현상은 심화하게 되었다. 노화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노년층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요즘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도파민에 대해서도 한 챕터를 할애하여 설명한다. 그 챕터의 제목은 〈'쾌락중독'은 어떻게 몸을 망가트리는가〉이다. 끊임없이 자극을 쫓고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공허감을 느끼는 삶. 저자는 이러한 삶이 마약에 중독된 삶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결국 개인의 삶이 망가지며 사회는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저자가 머리말에 남긴 인상적인 말,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구절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탄성이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막 다룬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쌓인 긴장과 비틀림은 결국은 내 몸의 일부로 굳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업을 제외한 활동(청소, 요리, 걸어서 출퇴근 등)들을 모두 외주화하여 남은 시간은 부업을 하거나 강한 쾌락을 얻는 데 쓰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모두 회피하려고 한다.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생활 습관들로 인해 우리들은 화난 중년을 맞게 되고 결국 아픈 노년으로 돌려받게 된다.

책을 읽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둘 다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됨을 깊이 깨닫게 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선순환이 시작되도록 자신을 관리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장기간 돌봄의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나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와 후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은 일독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촉진하는 삶이다.

어쩌다 킬러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엘 코시마노 글, 김효정 옮김 – 인플루엔셜, 2023.

추천대상: 일반 성인
#가벼운 소설을 보고 싶을 때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는 데뷔작《니얼리 곤》으로 에드거 상 영어덜트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고, 국제스릴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작가 엘 코시마노의 신작이다. 로맨틱 스릴러 작가인 주인공 핀레이 도너번은 어쩌다 킬러가 되어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핀레이는 전남편이었던 스티븐이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과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보육하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스티븐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성공한 작가가 아닌 핀레이는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계약한 소설의 선금을 받기 위해 출판사 에이전트를 만나러 간다. 그 식당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그들의 대화를 오해하고 킬러라고 생각하여 핀레이에게 살인을 의뢰하는 쪽지를 남긴다.

핀레이는 5만 달러라는 거액의 살인 청부 의뢰금을 두고 망설인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미행하던 와중, 어쩌다 보니 남자의 숨이 끊어지고 만다. 이 남자를 자신의 베이비시터인 베로와 함께 숨기고 본의 아니게 임무에

성공한다. 어쩌다 킬러가 된 핀레이는 이 사건을 소설로 각색하여 거액의 계약을 따 내게 된다. 남자는 마피아와 관련된 인물이었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서서히 사건은 더 커지게 되며 핀레이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수사에 뛰어들게 된다.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는 개성 있는 캐릭터와 우연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아낸다. 한 번 읽기 시작한 뒤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와 숨겨진 장치들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읽게 된다. 어쩌다 킬러가 된 주인공은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지만, 어쩌다 보니 그 사건들을 해결하게 된다. 자칫 소설이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번역이 깔끔하고 내용도 흥미진진해 속도감 읽게 읽을 수 있다.

코미디, 로맨스, 스릴러, 미스터리가 모두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우리에게 확실한 재미와 웃음을 준다. 또한 스릴 있고 매번 긴장하게 되는 사건들로 이어져서 금방 읽을 수 있다. 초반에는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고,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 소설 말미에는 이 소설이 시리즈로 연재될 것임이 암시된다. 이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생생한 장면들과 캐릭터 강한 인물들은 영상화하여 드라마로 제작해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더운 여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찾고 있는 독자에게 이 소설을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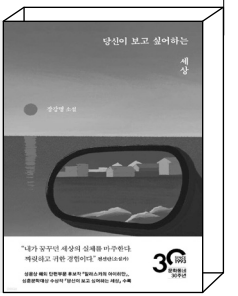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명 글 – 문학동네, 2023.

추천대상: 일반
#SF소설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소설을 통해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방송 출연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가들이 있다. '알쓸범잡2', '요즘 책방' 등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더욱 높인 장강명 작가는 그중 하나다. 대학시절 하이텔에서 소설을 연재하고, 인터넷 잡지 '월간 SF 웹진'도 운영하는 등 직업으로서는 기자로 먼저 활동하였지만 문학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그는《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표작으로는《한국이 싫어서》,《재수사》,《당선, 합격, 계급》등이 있다. 2023년 7월에 출간된《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STS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학문 분야) SF 장르로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만한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이 반영된 사회 모습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책은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었다. 심훈문학대상 수상작인 표제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는 인공지능 기기 '옵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세계가 등장한다. 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끼리 크루즈선에 모여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뒤이어 나오는 단편들 역시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통해 사회에 필요할 수도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 한편, 불편한 현실이 함께 닥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 준다.

당신들은 현행 증강현실 규제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법을 어겼죠. 아동복지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 2항,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중략] 지난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십오 세 이하 아동을 과도한 증강현실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재판부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 주는 증강현실 속에서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동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짚어 주는 것을 보고 과학기술 발전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과 함께할 근미래 현실을 기자 출신답게 날카롭게 보여주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그의 통찰로 이루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어렵지 않은 책으로 접근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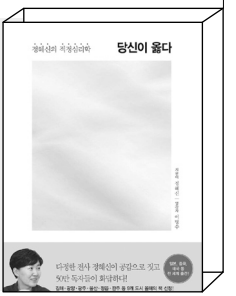
진정한 공감의 모든 것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당신이 옳다

정혜신 글 – 해냄출판사, 2018.

추천대상: 일반
#공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모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공감'처럼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도 흔치 않을 것이다. 공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공감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공감에 관한 정혜신의 책, 《당신이 옳다》가 반가운 이유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양한 트라우마 현장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터득한 심리 치유에 관해 자신만의 이론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반복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이 그 답이라고 한다. 공감의 실체를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전문가를 찾지 않고도 치유 받고 치유해 주며 살 수 있다며, 저자는 해부학자처럼 공감을 낱낱이 펼쳐 보여준다.

저자는 우리가 왜 아픈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진정한 공감의 실체, 경계를 세우고 방해물을 넘어서는 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진정한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는지를 엿보는 것은 감동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망하는 소식을 자주 접하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공감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감정적 교류다. 공감은 둘 다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지는 황금분할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공감이다.

나와 너를 지키고 자유로워지는 지점을 찾는 진정한 공감이 요즘 학교 현장에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 6장의 공감 실전에서 보여 주는 다양한 사례 중, 학교에서 상처받은 딸아이의 마음을 만나주고 온몸으로 딸에게 사과한 후 선생님을 만나 앞으론 그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울컥했다. 이렇게 제대로 공감할 줄 아는 학부모만 있어도 교사들의 사망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텐데…….

공감하면서 살고 싶으나 공감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유익하다. 다양한 사례와 대화를 통해 공감하는 법을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바이블과도 같은 이 책은 2019년 청소년이 직접 추천하는 추천도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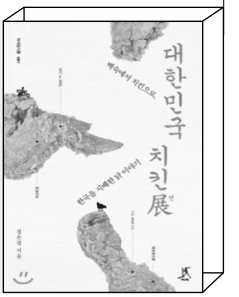
내가 먹는 치킨은 어디서 왔는가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대한민국 치킨展

정은정 글 – 따비, 2014.

추천대상: 일반(성인)
#치킨을 자주 먹는 사람
#치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



치킨!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고이거나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식생활에 친숙한 메뉴이다. 하지만 그 치킨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정은정은 농업인의 딸로 태어나 농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고, 농촌에 대한 주제로 라디오방송과 팟케스트에 출연하며, 신문에 칼럼을 쓰고, 4권의 저서가 있는 농촌사회학 연구자이다.

이 책은 총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치킨은 어떻게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나'에서는 프라이드 치킨(Fried Chicken)의 시작부터 변화 과정, 우리나라에 들어온 계기, 단순한 프라이드 치킨에서 오븐치킨, 숯불구이와 불닭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여러 치킨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 '치킨집 사장으로 산다는 것은'으로 우리나라에 난립하고 있는 각종 치킨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의 팍팍함과 우리가 먹고 있는 치킨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준다. 세 번째 파트, '치킨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잘나가는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다던가,

스포츠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치킨 세일링 포인트에서부터 조류독감과 치킨과의 관계, 치맥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매대 안쪽의 내용을 알려 준다. 네 번째 파트 '대한민국 치킨약전 1'에서는 백숙에서 치킨까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치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서술하며, 다섯 번째 '대한민국 치킨약전 2'는 이 책의 핵심으로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킨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고 얼마나 우리나라스러운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해 준다.

> ***...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맛있게 먹고 그걸로 끝인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 또한 맛의 지옥에 갇힌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고통을 치맥으로 달래다 결국 치킨집 사장님의 삶에서 내 미래를 간 보고 있는 중이지 않은가. 오늘 한 마리의 치킨과 한 잔의 맥주가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73)*

이렇게나 작은 치킨, 거리마다 있는 편의점, 동네마다 있는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 하나하나에도 우리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일수록 우리 사회 전체를 투영하고 있으며, 이런 작은 규모로 전체를 보는 것을 '미시사'라고 한다. 이 《대한민국 치킨展》은 치킨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책이며 치킨을 즐기는 우리들로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미시사의 또 다른 멋진 책으로 로버트 단턴이 지은 《고양이 대학살》이라는 책도 읽어보길 권한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순 없을지라도

김주미 (고양시 화정도서관)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마이클 슈어 글, 염지선 옮김 – 김영사, 2023.

추천대상: 일반
#윤리학, 철학에 관한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을 읽어보고 싶은 독자

윤리적 딜레마가 가득한 철학 도서라면 쉽게 손이 가지 않지만, 저자가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 의 PD라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 마이클 슈어는 미국 NBC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등을 제작했으며, 미국 텔레비전 산업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2번 수상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은 그의 프로그램들처럼 진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가벼운 질문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굿 플레이스'를 제작하면서 윤리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그는, 토드 메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책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

책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 '아주 오래된 철학의 고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한 서양 윤리학의 세 가지 주요 이론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2부 '좋은 사람이 되기는 아직도 어렵다'에서는 1부의 내용을 받아들여 좀 더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에 맞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3부 '슈퍼 인간 되기'에서는 가장 벅찬 난도의 이야기들이 쏟아지지만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스스로 답변을 내리는 과정을 돕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로 우리는 기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범한 질문을 마주한다. 그때마다 옳고 그름의 이치를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윤리 이론을 활용할 수는 없다. [중략] 순수이성을 토대로 한 보편 법칙 같은 복잡한 사상이나 공리주의자의 다층적 쾌락·고통 계산 같은 것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면 안 될까?

'아이폰 새로 샀구나? 멋있네. 그런데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와 같은 책 속 수많은 질문은 질문을 마주할 때마다 한결같이 머뭇거리게 만든다. 책의 원제(How to be perfect)처럼 완벽해질 순 없지만, 마이클 슈어는 '다시 시도하라. 그리고 다시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라는 말처럼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말한다.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는 종종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철학 수업의 끝은 언제나 물음표로 남아있다. 저자는 많은 탐구와 고민 끝에 여러 철학 이론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토록 원했던 답변을 나름대로 시원하게 내어 준다. 그렇게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쓴 글이 여타 철학책과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자신에게 부가되는 온갖 도덕적 의무들에 지친 이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게 해 줄 것이며, 스스로 도덕적 기준이 높은 독자들에게도 그동안의 윤리적 피로감을 조금은 씻게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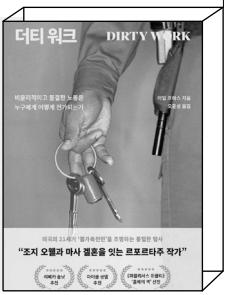
비윤리적이고 불결한 노동에 대한 탐사보고서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더티워크

이얼 프레스 글, 오윤성 옮김 – 한겨레, 2023.

추천대상: 일반
#우리사회의 구석진 모습에 대한 반성에 동참하고 싶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은 미국의 작가이자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얼 프레스(Eyal Press)가 쓴 책이다. 그는 1997년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가 자국민 인권 탄압을 묵과하고 군사 지원을 도모한 정황을 폭로하여 그 공로로 제임스 애런슨 저널리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에 소개된 그의 다른 책으로는 평범한 이들이 권위에 저항하는 모습을 추적한《양심을 보았다(Beautiful Soul)》가 있다.

이 책 표지의 "비윤리적이고 불결한 노동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더티 워커에게 빚진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웃소싱하는 더티 워크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이 노동의 불평등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한다"라며 추천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 '교도소 담장 안에서'에서는 교도소 정신병동 재소자를 관리하고 상담하는 교도관의 이야기와 교도소라는 노동 환경과 지역사회와 교도관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추적한다.

그리고 플로리다주를 배경으로 공공보건의 문제를 형사처벌 또는 민간 영역에 떠넘겨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만을 지적한다. 두 번째 파트 '드론 화면 너머'에서는 전쟁에서 드론 영상을 분석하고 표적암살을 돕는 전투원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특히 '가난과 폭력의 상관관계' 장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드론 전투원이 되었으나 부서진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헤더와 그의 기지 앞에서 반전 시위를 하는 블로메의 삶이 비교된다.

세 번째 파트는 '도살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급증하는 닭고기 소비량으로 쉴 새 없이 닭 머리를 제거하는 도살장 이주 노동자의 삶과 정육 산업을 돌아본다. 미국의 도살장과 정육 공장은 대부분 미등록 멕시코계 이민자와 흑인이 다수이다. 주문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1분에 65마리씩 닭을 갈고리에 건다. 이로 인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결국은 도살장이라는 노동 환경은 우리 인간이 동물을, 그리고 노동자를, 자본주의가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유한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현대 사회의 뒤편으로'에서는 석유시추선 생존 노동자와 그의 가족 이야기,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테크업계의 악습,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테크 산업에 얽힌 문제들을 꺼내 놓고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더티 워크 역시 보이지 않는 계약의 산물이다. 이 계약은 더티 워크를 용인하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더티 워크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없도록 보장한다. 인종차별 계약과 마찬가지로 더티 워크의 계약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더티 워크가 눈에 띄거나 눈앞에 들이밀어질 때도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힘을 원인으로 들먹일 수 있다. 그러나 틀렸다. [중략]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부터 가장 취약한 시민을 어디에 감금할 것인가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내린 결정의 산물이다. 우리가 더티 워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드러낸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승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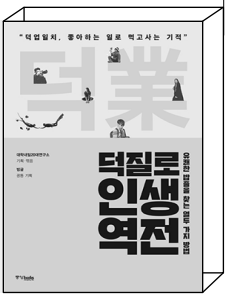
밥벌이의 재발견: 덕업일치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덕질로 인생역전

대학내일20대연구소 엮음 – 중앙북스, 2016.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인
#취미가 직업이 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본업을 찾고 싶은 분



'좋아하는 일도 결국 업이 되면 똑같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은 이야기한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생계를 위한 직업은 이와 별개로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연결하긴 어려운 일일까? '예, 아니요.'로만 답하긴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이 질문에 신선한 대답을 한 작가가 있다. 바로 이슬아 작가다. 이 질문에 그녀는 '좋아하는 일도 업이 되면 힘들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낫다'라고 답변했다. 발상의 전환이다.

《덕질[1]로 인생역전》. 이 책의 기획 의도는 개성과 다양성이 역사상 가장 보장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메말라 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은 '철없는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다양한 선택'을 하고, '철없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덕업일치를 이뤄내 밥벌이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덕업일치를 불가능으로만 보지 말라고 알리기 위함이라 한다.

《덕질로 인생역전》은 덕업일치를 이뤄낸 12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덕후를 하며 연예부 기자가 된 사람, 대기업 그만두고 오너 셰프가 된 사람, 다이빙 덕후에서 다이빙 가게 사장이 된 사람, 패션과 사진이 좋아 사진을 찍다 사진작가가 된 사람, 카페 아르바이트생에서 커피대회 심사위원이 된 사람, 문과 출신인데 앱 개발자가 된 사람, 연애 스토리 덕후에서 연애 칼럼리스트가 된 사람, 에디터에서 책방 주인이 된 사람, 여행 덕후에서 지역 브랜딩 전문가가 된 사람, 기록을 좋아하다 사진과 영상이 업이 된 사람, 본업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창업을 하는 사람, 음악 덕후에서 연예기획사 부사장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덕업일치는 어쩌면 판타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내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적당히 운이 맞아떨어져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본다.

처음엔 뭐든지 재밌다. 하고 싶어서 뛰어든 일이니까. 그런데 길게 가려면 본인이 선택한 업을 자신에게 짜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경영에서의 디테일까지 갖추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운이 맞아떨어져 덕업일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진리가 있듯 언젠가 덕업일치를 이뤘다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 순간이 올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순간이 왔을 때 삶의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덕업일치의 최종 완성이 아닐까 싶다.

---

1)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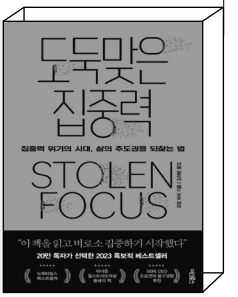
내 집중력은 누가 가져갔을까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글, 김하현 옮김 – 어크로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요즘 들어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집중력 위기를 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며 성인의 평균 집중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집중력이 부족한 것은 개인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으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중력을 앗아가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누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걸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요한 하리의《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 하리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콩고 내전과 두바이의 인권 남용을 보도하여 영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뽑은 '올해의 저널리스트'에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글을 기고했고 저서로는《비명의 추격: 약물 전쟁의 처음과 끝》,《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등이 있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도둑맞은 집중력》

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몰입의 손상〉, 〈잠들지 못하는 사회〉, 〈소설의 수난 시대〉, 〈딴생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말해주는 것〉,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산만함에 불을 지피다〉, 〈작고 얄팍한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을 처음으로 목격하다〉,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잘못된 ADHD 진단〉,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이 있다.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현대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져 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연구는 물론 실리콘 밸리의 관계자부터 빈민가의 인물까지 조사한다. 그 결과 12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과 테크 기업의 의도적인 개입, 독서의 기피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과 관련된 테크 기업의 행태를 뽑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후 인간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다.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인들 혹은 모르는 사람과도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고, 여러 미디어 앱을 순회하며 하루 종일 스크롤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을까? 그 속에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기업들이 어떤 앱을 만들 때 이용자가 빠져나오기 힘든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거나 끝없이 내려도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등장하게 해서 많은 이용자를 붙잡아 두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기업에 맞서 개인이 알아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까.

트리스탄은 기술을 둘러싼 생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 상원에서 증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제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화면 반대쪽에는 우리의 자제력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240)*

《도둑맞은 집중력》은 집중력을 잃어가는 현상을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돈을 버는 기업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등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기에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만 너그러워져도 괜찮을 것이다.

이처럼《도둑맞은 집중력》을 통해 개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던 집중력의 위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집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산만해져 가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오늘은《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어 보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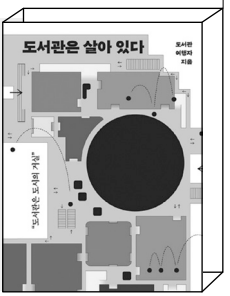
도서관은 살아 있고 진화한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도서관은 살아 있다

도서관여행자 글 – 마티, 2022.

추천대상: 일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분
#도서관의 발전을 고민하는 분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



《도서관은 살아 있다》의 저자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다년간 사서로서 일한 경력이 있다. 책을 읽어 보면 도서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질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일했고,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을 돌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는 저자의 약력이나 경력에 나와 있는 실적 또는 수치 같은 것이 아니고, 저자가 도서관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용자들을 대하며 일해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서술한 글을 읽어 보면 마음으로 느껴질 것이다. 한마디로 도서관에 관한 정책이나 담론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부딪히며 체감한 것들을 적은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배려할지, 도서관 공간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사서와 이용자들의 도서관에서의 일상은 어떤지, 코로나19 동안 미국 공공도서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등이다. 특히 시애틀 중앙도서관의 주요 이용자가 노숙인이고 도서관

측에서 노숙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업, 법률, 주거 정보에 대해 지원했으며, 심지어 샤워 시설이나 쉼터도 안내했다고 한다. 건립 초기부터 노숙인이 이곳의 주요 이용자임을 고려했다고 하니 실로 놀랍다.

소음에 관대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인상 깊다. 도서관이 모든 소음을 너그럽게 받아 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소음에 관대한 점은 부럽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어린이 이용자는 신체 및 정신적 발달 단계상 도서관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어려운데, 억지로 아이들에게 정숙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해지길 바라는 사서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히 바른 자세로 책을 봐야 한다면 도서관을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엄마와 도란도란 책을 읽으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음방이라도 따로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책의 성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도 무릎을 치게 한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랭크스는 "나쁜 도서관은 장서를 쌓고 좋은 도서관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위대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는 도서관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지혜를 얻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외에도 각 주제에 대해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부분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술했고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기에 술술 읽히는 수필 같은 책이다. 뿐만 아니라 책의 뒷부분에 '도서관여행자의 서재' 파트를 만들어 좋은 책을 소개해 준다. 사서가 쓴 책, 도서관에 관한 문학책들, 도서관 동물 이야기, 애서가와 장서가의 필독서, 도서관 덕후를 위한 영화 등은 도서관 관련 추천 도서의 백미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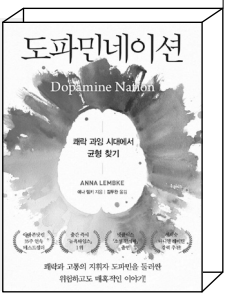
행복해지고 싶다면? 고통을 느껴라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도파민네이션

애나렘키 글, 김두완 옮김 – 흐름출판, 2023.

추천대상: 일반
#현실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도파민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키 박사는 중독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로 이 책은 그녀가 2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중독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간의 뇌, 중독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애나 렘키는 스탠퍼드대학교의 의과 교수이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의료정책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 편이 넘는 글과 논문을 발표한 초엘리트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그런 그녀도 멈추기 힘든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적인 행동이나 일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의 해결도 개인의 의지력, 인내심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중독 문제를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특정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마약, 자극적인 각종 음식, 게임, 쇼핑, 도박, 음란 문자, 각종 SNS 등 중독물질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모든 이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에 중독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바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책에 따르면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 우리의 뇌의 저울은 한쪽으로 더 빨리 더 많이 기울어진다. 하지만 저울은 다시 수평상태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의해 우리는 쾌락을 강하게 느낄수록 그에 따른 고통 또한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더욱 중독 대상에 매달리고, 중독 대상으로 인한 쾌락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쫓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강한 중독에 빠져들고,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고통을 직면하라고 말한다. 중독 대상들은 피로한 현실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지만 지나치면 삶을 망가트린다. 행복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피로한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로부터 도피해 쾌락을 찾는 대신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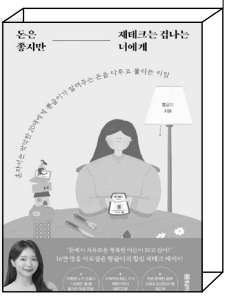
MZ 맞춤형 재테크 필독서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글 – 황금부엉이, 2023.

추천 대상: 일반
#재테크가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들
#재테크를 시작해보려 하는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막막한 MZ세대 청년들을 위해 재테크 유튜버 뽕글이(가) 나섰다.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의 저자 뽕글이는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재테크를 시작해 25살에 내 집 마련, 그것도 아파트 매수에 성공했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이 겪어온 재테크 시행착오와 다양한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누적 조회수 천만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요즘 많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재테크. 수많은 재테크 정보와 책들 속에서 뽕글이의 힐링 재테크 에세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재테크를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결과만이 중요한 '극한의 재테크'가 아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재미의 재테크' 방법을 전수한다. 해내야 하는 숙제 같은 재테크는 사람을 금세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가 '재미'에 있는 것처럼 내용 역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재테크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술술 읽어나갈 수

있다. 또한, 흥미 뒤에 숨은 '위안'의 요소가 이 책의 또다른 특색이다.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모았어야지", 이런 주변의 말에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들에게 저자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준다.

책의 1장은 저자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와 재테크의 필요성, 방향성에 대해 말한다. 2장부터는 실질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먼저 재테크 기반을 위한 절약 노하우를 담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가? 소소하지만 모이면 절대 적지 않은 뽕글이만의 절약 팁들이 있다. 잘만 사용하면 득이 되는 신용 카드 혜택부터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알뜰폰 요금, 이 외에도 기프티콘을 활용한 절약 방법까지. 이후 3장은 저축에 대한 조언을 다룬다. 어떤 통장에 어떻게 얼마를 저축하는 게 좋을지 감이 안 온다면? 뽕글이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줄 것이다. 4장, 5장, 6장은 기본적인 절약과 저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생겼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돈 버는 방법이다. 즐겁게 더 버는 N잡 노하우, 주식, 부동산의 기본적인 설명과 실제 저자의 재테크 방법을 솔직하게 담았다.

현대사회에서 재테크는 필수로 여겨지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저것 해야 한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마 다른 책에서는 듣지 못할 다양한 앱과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MZ 세대 맞춤형 절약 및 투자 방법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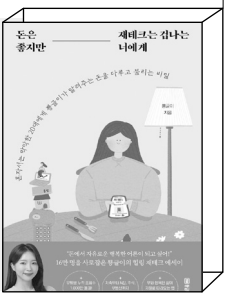
어서 와,
재테크는 처음이지?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글 – 황금부엉이, 2023.

추천 대상: 일반
#상황별 추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2030에게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든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한번 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작고 소중한 내 월급만으로 독립, 결혼, 노후 등등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온 건 저축밖에 없던 이들에게 재테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큰 벽처럼 느껴진다. 처음 보는 경제용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쏟아져 나와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 기존의 관련 책들을 참고해보아도 (이미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주식을 하라거나, 부동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많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도서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2030 재테크 초보자 맞춤형 도서'인 뽕글이의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자인 뽕글이는 어린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재테크에 일찍 눈을 떠 25살이라는 나이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독자들은 본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구성은 모두 7개의 소주제, 즉 '재테크의 문을 두드리다', '저축에 속도를 붙여줄 소비 줄이는 노하우', '저축도 이제는 똑부러지게!', '즐겁게 더 버는 N잡 노하우', '나의 주식이야기', '부동산과 친해지기', '이 모든 건 훗날의 내가 더 잘살기 위한 거니까'로 되어 있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머저 저축과 소비통제에 대한 설명을 전체의 1/4에 걸쳐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중시하는 이유는 시드머니를 모으고 소비를 조절하면서 투자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기에 먼저 기본부터 잡아갈 수 있게 하는 작가의 배려가 다음과 같은 구절에 드러나있다.

재테크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부터 하겠다는 건, 이제 막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이 오자마자 고중량 스쾃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기본적인 준비 없이 고중량 스쾃에 매달리면 오히려 크게 다쳐서 치료비만 더 들어가죠. [중략] 재테크도 처음부터 극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책 전반에 걸쳐 참고하기 좋은 도서는 물론,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활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재테크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론과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다.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두려운 일이고 더욱이 재테크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에 더욱 어렵게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일상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잘 나누지 않아서 배울 곳도 마땅치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걸 알려주고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니 학교 다닐 때 모르는

문제를 친구가 알려주는 것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한 재테크 공부의 여정에 이 책은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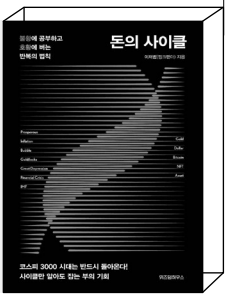
순환하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경제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돈의 사이클

이재범(핑크팬더) 글 – 위즈덤하우스, 2022.

추천대상: 일반
#대공황부터 지금까지의 세계의 경제 흐름이 궁금한 이들에게



이재범의 도서 《돈의 사이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유명한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한다.

>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12)

여기서 '돈의 흐름과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경제 또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며 일정한 사이클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경제 사건을 알아둔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돈의 사이클》을 저술했다.

《돈의 사이클》은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공황〉, 〈잃어버린 30년〉, 〈대침체〉, 〈흥망성쇠〉까지는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경제 사건의 배경과 그에 관련된 나라별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돌고 도는 경제〉에서는 환율과 금리에 관해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인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전망해야 하고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맺는다.

《돈의 사이클》에서는 대공황, 외환위기, 버블 경제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등장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요소의 연결성을 함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일본의 버블 경제 파트를 가져와 보았다. 패전 후 황폐해진 일본이 곧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에 견줄 만한 나라가 되었지만, 갑자기 불황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본은 불황을 겪기 전에 얼마나 부유했는가? 1980년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50대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기업이었고, 넘쳐나는 부를 소비하기 위해 각종 명품과 예술품을 사들여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이 경매에 나왔을 때도 일본인이 낙찰받았다. 게다가 달러가 강해지고 엔화가 약해지며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제품의 수출은 끝도 없이 늘어가는 데에 반해 미국은 계속되는 수출 적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플라자 합의를 맺어 의도적으로 달러를 약화시켜 수출을 늘리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엔화는 1주 만에 무려 8.3퍼센트나 폭등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버블이 생기게 되고 후에 소멸하면서 장장 30년간의 기간 동안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배경을 모른 채 플라자 합의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단어를 처음 접했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돈의 사이클》은 버블경제의 전후 사정과 각 나라의 입장까지 풀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처럼《돈의 사이클》은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돈 모으는 방법을 알려 주는 도서는 아니지만 '경제'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그 반향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서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돈의 사이클》을 통해 경제가 지나온 길을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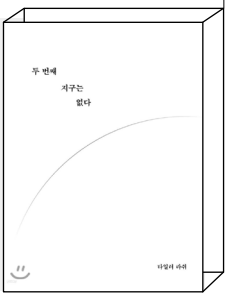
빼앗긴 미래, 인류는 더 이상 없다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글 – RHK, 2020.

추천대상: 일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뉴스와 인터넷 기사 등에서는 연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염수는 흘러 흘러 태평양 그리고 수년 안에 우리 앞바다인 동해, 서해, 남해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인간들에 의해서 오늘도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나 다음 세대에게 조금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오염, 기후 위기 등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입담 좋은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여러 방송에 등장하는 인기인이며 2016년부터 WWF(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송인 타일러는 알아도 기후 위기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WWF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타일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새로운 도전이면서 독자에게는 익숙한

방송인이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는 전문적 이야기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어제 나온 뉴스의 토픽을 지인에게 전해 듣는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의식할 때부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람에 꿈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얼마 안 된 일이다. 꿈이란 현실이 아니라서 꿈이다. 이루기 힘들어서 꿈이다.

저자는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바람에 '꿈'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바라지만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일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은 저자에게서 독자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답변을 이 책은 조금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문제의 핵심이다. 경제 활동의 외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말이다.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과 막대한 치료비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저자의 이런 지적은 명확하고 현실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그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당장의 편리와 이익 앞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배제는 훗날에 막대한 치료비와 대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우리에게서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의 경고는 인류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는 호소로 들립니다. 빼앗긴 미래에 더이상 인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얻고 싶다면 《최종 경고 : 6도의 멸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최종 경고 : 6도의 멸종》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언급된 책 《6도의 멸종》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6

도의 멸종》은 기후에 관한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생하게 담은 책입니다. 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전면 개정판이 나온 이유는 독자 그리고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더 이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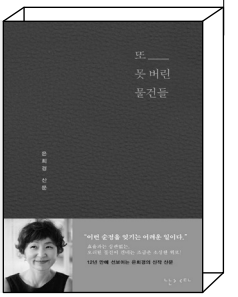
추억을 불러오는 물건에 관한 단상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또 못 버린 물건들

은희경 글 - 난다, 2023.

추천대상: 일반
#추억이 깃든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소설가로 유명한 은희경 작가가 12년 만에 신작 산문《또 못 버린 물건들》을 출판했다.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시대에 못 버린 물건에 관한 책이라니 왠지 아이러니하지만, 글을 읽으면 작가가 왜 못 버리고 애지중지하게 되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작가는 코로나 시기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집안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리는 하지 못하고 물건에 깃든 지나간 시간들과 재회하게 되는데, 함께한 시간과 삶의 궤적이 스며 있어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은 스물네 편의 글로 재탄생되었다.

스물네 편의 포문을 여는 물건은 술잔이다. 작가가 전업주부로 살던 시절, 집안에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제각각인 술잔을 다섯 개 놓았다고 한다. 제각각인 술잔이 남루한 삶의 모습 같아서, 등단 후 첫 번째 책의 인세로 여섯 잔의 맥주잔 세트를 샀다. 작가에게 술잔 세트는 호사의 시작으로 여겨졌던 거 같다고 고백한다. 더불어 음주에 진심이라는 작가의 글귀는 읽는 독자에게 웃음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주부이자 소설가인 작가가 못 버린 물건에는 여러 살림 도구들이 등장한다. 감자 칼, 구둣주걱, 솥밥 등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게 된 감자 칼이 어머니날의 단골 품목이라 놀라워했지만, 감자 칼이 인류의 삶에 공헌한 아름다운 공산품 중 하나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것을 은근슬쩍 인정한다. 구둣주걱을 평소 애용하지만 코끼리의 상아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만남이라 생각하고, 솥밥을 근면한 삶에 비교하는 건 아마 소설가라서 가능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작가는 가족과 지인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들도 나열한다. 그중에 특히 부모님의 청첩장과 돌아가신 엄마가 끼던 반지에 관하여 쓴 산문은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는 일을 슬프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글귀와 함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가슴을 울렸다.

앞서 이야기한 물건 말고도 다양한 물건들이 등장한다. 작가로서 자주 다루는 물건, 여행지에서 사 온 물건, 패션에 관한 물건, 달리기에 관한 물건, 그리고 반려동물인 고양이까지 무생물에서부터 생물까지 다양한 물건의 범주가 등장한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과 함께 풀어놓은 에피소드는 작가의 일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소설가라서 왠지 차분하고 내성적일 것으로만 생각한 작가의 모습은 실제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즉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삶에서도 소설의 소재를 찾아내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평소 궁금했던 소설가로서 작가가 가진 모습을 가감없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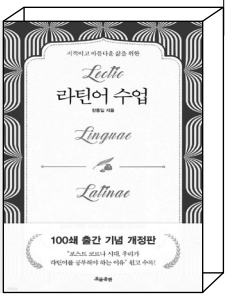
인간에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라틴어 수업

한동일 글 – 흐름출판, 2017.

추천대상: 일반
#라틴어와 로마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인문학 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의 이력은 한국에서 유일무이하다. 그는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면 구사하기 힘들다는 라틴어는 물론 기타 유럽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은 5~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라틴어 수업》은 저자가 로마에서 1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서강대학교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강의한 '초급·중급·라틴어' 수업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수업 첫날 24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강의는 두 번째 학기에서는 67명으로 늘어났고 이후부터는 매 학기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옆 대학교, 일반 청강생들뿐만 아니라 학점 교류가 되지 않는 다른 지역 대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와서 듣는 명강의가 되었다.

책 제목만으로는《라틴어 수업》의 접근 장벽이 높은 것 같다. 라틴어라는 단어가 주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어쩐지 쉽게 책장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파피루스가 연상되는 베이지색의 클래식한 분위기의 책 표지에는 책 제목만이 단정하게 쓰여 있을 뿐이지만 제목 위에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이라는 짤막한 소개 문구가 눈에 띈다. 책 내용은 소개 문구처럼 라틴어 수업이라기보다는 인문학 수업에 가깝다. 물론 라틴어에 대한 수업도 진행되지만,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유럽 역사나 인생, 철학, 고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 강의였지만 일반 청강생들도 많았던 것 같다.

저자는 라틴어가 얼마나 수학적인 언어인지부터 시작하여 나이나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어에 비해 평등을 전제로 하는 라틴어의 수평성에 관해 얘기하면서 '언어는 사고의 틀'이라고 말한다. 라틴어의 수평적인 성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어지고 나아가 로마 대제국을 이룬 로마인들의 사고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수업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역사, 철학으로 이어져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마지막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된다.

가장 좋은 것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는 최대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되, 그것이 지나갈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지금을 살면 됩니다. 힘든 순간에는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분노를 잠시 내일로 미뤄두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죠.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죽은 자가 간절히 바란 내일이었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조차도 유구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275)*

요즘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라틴어 수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가진 지적인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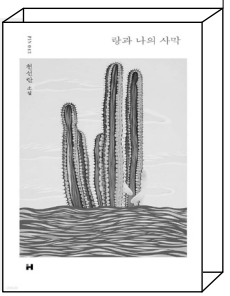
그리움이라는 감정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랑과 나의 사막

천선란 글 – 현대문학, 2022.

추천대상: 성인
#SF소설을 읽고 싶을 때



월간 〈현대문학〉의 특집 지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 중 하나인 천선란의 《랑과 나의 사막》. 이 책은 전쟁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가 기능이 정지된 채 사막에 파묻혀 있던 로봇 '고고'에게 생명을 준 인간 '랑'이 사망하자 랑이 가고 싶어 했던 과거로 가는 땅을 찾아 고고가 홀로 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 ***만들어진다는 건 분명한 목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도 없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렇기에 목적을 다할 때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은 계속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랑이 말했다. 그 말은 목적을 다하면 꺼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10)*

로봇 고고의 목적은 랑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로봇은 주인과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과거로 향하는 벽을 향해 간다. 중간중간 다른 이들을 만나며, 혹은 로봇을 만나며 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랑과 나의 사막》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모든 것을 상실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고고의 여정처럼 주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일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겐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살리를 따라가면 내 몸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있고, 살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 살리를 따라가면 나는 후회할 것 같다. 그리움 속에. 그리움은 시효가 기니까. 어쩌면 내가 움직이는 한 영원히 달라붙겠지. 끈적하게. *(139)*

랑을 다시 만나면 이야기해주고 싶다. 내가 만난 사막에 대해. 너를 만나기 위해 걸어온 나의 사막에 대해. 그렇게 늙어가는 랑의 곁에서, 조금씩 망가져 가는 내 몸으로 이야기하겠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랑과 시간이 맞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한다. 이번에는 너와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랑을 떠올리며,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간절하게. *(144)*

《랑과 나의 사막》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건조하지만 따뜻한 이야기이다. 수많은 SF소설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물음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로봇 고고는 결국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다.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지 《랑과 나의 사막》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메마른 사막의 풍경에서 감정을 간직한 채 점점 망가져 가며 앞으로 걷는 고고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비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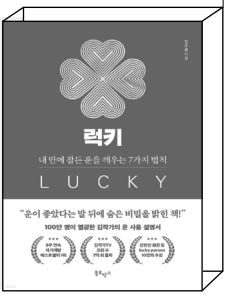
‘운이 좋았다’는 겸손이 아닌 사실이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김도윤 글 – 북로망스, 2021.

추천대상: 일반
#일이 잘 안 풀리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성공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갈망할 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나고 싶을 때



며칠 전 서점 진열 판에 놓여 있던《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이치가 있는데, ‘삶은 교과서처럼 살아지지 않지만, 성취하면 교과서 혹은 전설이 된다는 것이다.’ 첫째, 결과로 검증된다. 성공의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성공한 결과가 말해 준다. 참으로 성공을 갈구한다. 옛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성실하라. 그러면 성공한다’고 하나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듣고 자란 세대는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회사에 갔다. 일자리가 넘쳐났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 시대, 어디쯤에서는 통용되는 진리다. 성실과 근면으로 공부 잘하면 성공했다.

그러나 요즘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다. 따라서 위 말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렸다. 지금은 어쩌면 ‘운칠기삼’이라는 단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7할의 운에 3할의 기술이 따라주어야 성공을 이룬다. 이 책은 그런 점에 무게를 두고 럭키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생각한다.

급여 생활자로서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과 노력 대비 주변 사람에 비해 뒤처졌다면, input 대비 output인 만족하지 않다면, 시작점으로 돌아가 점검이 필요하다. 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운은 무엇인가, 운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경제적 현실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등.

김도윤(1982~) 작가는 자기 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로 구독자 87만 명(2021년 기준), 2022년 11월 기준 150만 명의 고정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이다.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해 오며 전문 인터뷰어로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공모전 17관왕,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유튜브 젊은 부자들〉, 〈엄마는 괜찮아〉,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인사담당자 100명의 비밀녹취록〉, 〈최후의 몰입〉, 〈기획에서 기획을 덜어내라〉 등이 있다.

김 작가가 말하는 운을 부르는 7가지 법칙의 첫 번째는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속도;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네 번째, 루틴; 일상에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다섯 번째, 복기;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가?. 여섯 번째, 긍정; 최악의 상황에도 일지 말아야 할 것. 일곱 번째, 시도;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운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운의 역설이 공감할 만 했다. 1.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면 성공했어야 한다.(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실력이 부족한 초기에 운이 들어올 틈이 더 많다. 운은 성공한 이후가 아니라 성공 이전에 크게 작용한다. 3. '운이 좋았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겸손이 아닐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솔직함이다.

운의 경로는 천성(유전)적이거나, 시대(환경)적 운, 관계적 운, 개인적 운(자신이

행동으로 횟수를 늘려 운을 만드는 경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파도(운)는 늘 존재하는데 파도(운)에 올라타는 것은 기본기(성실로 실력)를 다지며 관찰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에 편승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이 왔다고 해도 올라타지 못하고 낙방하거나 놓치고 침몰하기 쉽기 때문이다.

성실히 일해 왔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희망의 통로로 삼아 운을 찾아 떠나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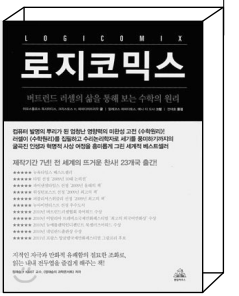
진리를 찾아 떠난 영웅의 모험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로지코믹스: 버트런드 러셀의 삶을 통해 보는 수학의 원리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외 글,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외 그림,
전대호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청소년
#철학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로지코믹스(Logicomix)》는 버트런드 러셀의 생애를 통해 '진리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미판의 부제 'An Epic Search for Truth'를 '버트런드 러셀의 삶을 통해 보는 수학의 원리'라고 번역한 것이 아쉽다. 이 책은 단순히 수학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버트런드 러셀이 누구이길래 그의 삶을 통해 진리 탐구의 길을 엿볼 수 있을까?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은 수학자이자 철학자, 논리학자, 사회운동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문학가이기도 하다. 러셀은 어린 시절 우연히 가문의 정신병 내력을 알게 되면서 불확실성의 바깥에 절대적인 이성과 확실성의 세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는 기하학의 공리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품고 '논리학을 통해 완전무결한 수학의 토대'를 찾고자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다.

모험의 과정에서 러셀은 광기에 사로잡힌 논리학자를 만나기도 하고 힐베르트, 괴델 등 천재 사상가들과 마주치기도 하고, 제자이자 동료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러셀 자신이 '이 책을 빠짐없이

읽었다고 확신이 드는 인물을 단 한 명 만났다'고 밝힌 《수학원리 Principia Mathematica》를 화이트헤드와 10여 년에 걸쳐 집필하기도 한다. 논리와 비논리, 이성과 광기, 전쟁과 평화, 사상의 모순 등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완전무결한 수학적 토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평생에 걸쳐 도전한 러셀의 삶의 여정은 경이로움을 넘어 숭고함까지 느껴지게 한다.

《로지코믹스》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위대한 목표를 추구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리기에 만화만 한 게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만화를 따라가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러셀과 사상가들의 고뇌가 자연스럽게 내면에 스며들면서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엔 감동과 함께 철학적 질문을 곱씹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우리가 버트런드 러셀의 삶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수학의 원리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원리일지도 모르겠다. 진리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삶에서 하나의 절대 공식의 적용은 불충분하다는 것.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러셀은 자신의 강연을 들으러 온 청중들에게 묻는다.

"지금 딜레마에 직면한 여러분을 위해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의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자신만의 답을 말할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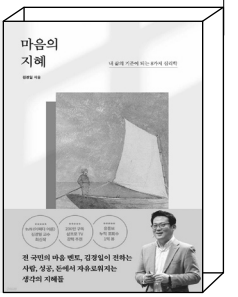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심리학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마음의 지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

김경일 글 - 포레스트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의 지혜》는 tvN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우뚝 선 김경일 교수의 저서이다. 저자는 이 책 《마음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모아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냈다. 또 본문을 통해 20년 넘게 인지심리학자로 살아오면서 탄탄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내향적인 성격이 고민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부자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언제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까요?'처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에 대해 김경일 교수만의 유쾌함과 심리학자로서의 섬세함을 버무려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공감과 조언을 건넨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저자의 단단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 책의 본문은 약 390페이지 분량으로 앞서 설명한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 키워드에 대한 지혜를 서술한 후 마지막인 '그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친다. '열심히 사는 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강의 중인 저자의 구어체를 그대로 적어놓은 듯한 특유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인상 깊은 점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치 저자의 강의를 듣는 듯한 문체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저자의 여러 저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의 특징으로 100여 페이지의 짧은 책부터 이번 저서와 같은 약 400페이지 분량의 저서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 강연자로도 일컫어지는 작가 특유의 강연방식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들어보는 느낌을 주면서 독자의 몰입을 돕는다. 또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학자와 연구자로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상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원이 문제입니다'와 같은 일련의 꼭지들은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고, 결론부터 말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전개방식은 독자의 속도감을 높힌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고칩니다. *(25)*

김경일 교수는 강연과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저자로 유명세와 더불어 저서의 내용도 일부 비슷한 맥락의 결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의 중복이 억지로 분량을 차지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꾸준히 고민이 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수요가 있는 일상의 주제이다. 본문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옳고 그름이라는 정의가 꾸준히 새로 정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과 행복에 대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환경이 이어지는 지금, 거대한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느라 지쳐버린 이들에게 본 저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상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전해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길고 긴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게임을 즐기듯 나의 인지와 행동, 상대의 마음을 깨우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위대한 인간은 못되더라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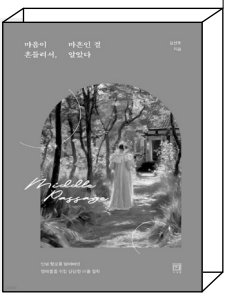
엄마들을 위한 단단한 마음철학!

엄정란 (시흥시 군자도서관)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김선호 글 – 서사원, 2022.

추천대상: 성인
#인생 항로를 잃어버린 엄마들을 위한 위로와 마음 처방을 담음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 같다. 자녀와 남편을 위해 애를 쓰며 가정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치 엄마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로 인내와 희생이라는 감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 마흔에 이른 엄마들을 위로하는 책이다.

저자는 자녀교육 아동심리 전문가이자 작은형제회 수사였으며, 가톨릭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수도원을 떠나 초등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 심리를 어루만지고, 엄마들을 상담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김선호의 초등 사이다〉를 통해 '아이들 속마음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및 심리 관련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아이가 이른 사춘기에 들어서는 초등 엄마들에게 마흔쯤 자신의 인생 항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흔들림과 갈등을 인지하고(제1장 인지하기), 자신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제2장 내면 살피기).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세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제3장 직면하기). 마지막 장에서는, 마흔 공감 토크인 엄마들을 위한 긴급 솔루션을 제시한다. 내 자녀가 나(엄마)에게 왜 화를 내고 왜 힘들게 하는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예로 들며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책을 읽는 과정 중 가장 공감이 되고 막혔던 가슴이 펑 뚫린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초등 저학년을 지나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를 어쩌지 못해 고민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제 상담해 주는 조언자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

엄마인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고 단순히 그 시기 엄마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엄마인 나를 사랑하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등 자녀와의 대화 태도나 고민이 많은 엄마, 엄마이자 '나'인 위치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고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엄마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도 쉼과 위로를 주므로 내 자신을 마주 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뭔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저 내 자신을 위해 가만히 있어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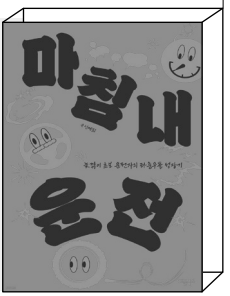
초보 운전자 좌충우돌 성장기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마침내 운전

신예희 글 – 애플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운전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장롱면허인 이들에게
#초보운전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들에게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다. 초보(初步)의 사전적 정의는 처음으로 내딛는 걸음,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의 그 처음 단계나 수준을 말한다. 새로운 것에는 언제나 설렘과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데 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운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낯선 영역일 수 있다.

《마침내 운전》은 개성과 위트 넘치는 문체로 사랑받는 신예희 작가가 생생하게 전하는 좌충우돌 운전 성장기로 저자가 40세에 운전을 처음 시작해 초보 운전자가 도로에서 맞닥뜨리는 진땀 나는 위기의 순간들을 실감이 나게 담았다. 점차 향상하는 운전 실력과 함께 자신감을 얻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저자는 '력 중의 력, 기동력'을 강조하며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자 에세이를 집필하였다. 초보 운전자만 느끼는 모든 종류의 심장 떨림을 이야기하며, 숨 막히는 그 순간, 차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긴장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순간의 기억들을 담았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부 '엑셀 페달은 어느 것인가요?', 2부 '좌충우돌, 모든 것이 험난한 도전', 3부 '서서히 느끼는 도로의 민낯', 4부 '작은 공간이 선물한 나의 세상',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목차만 보면 정보성 글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정보보다는 운전이라는 주제로 재밌게 풀어낸 에피소드 위주로 전개된다. 동네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편안하고 재밌는 문체 덕분에 읽는 내내 많은 공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 비 오는 날엔 조심해서 좌회전하라는 뜻인 줄 알았다는 참신한 상상력과, 하이패스를 시원하게 그냥 패스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 해결은 덤으로 읽다 보면 비운전자는 그저 재미있을 것이고, 운전자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아련한 추억에 젖어들 것이다.

나 역시도 면허가 없을 때는 면허만 있으면 어디든 다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처음 면허 따는 것도 무섭고, 본격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더 무섭다. 언제든 마음먹은 곳을 가는 것이란 단시간에 되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기에,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이 책의 내용은 커다란 위안을 준다. 점차 성장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신예희 작가에게 더 관심이 있는 이들은 팟 캐스트 밀림의 왕 Ep.51 운전을 미룬 그대에게 with 신예희작가(2023.7.20.), 영혼의 노숙자 Ep.263 내가 마흔 살에 운전도 해냈는데 뭘 못하겠어?(2023.6.4.), 여둘톡 Ep.14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2022.10.24.)도 함께 청취해 보기를 추천한다.

모든 글쓰기는 설득의 글쓰기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마케터의 글쓰기

이선미 글 – 앤의서재, 2022.

추천대상: 일반
#배워서 바로 써먹는 글쓰기가 궁금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업무는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 글을 제대로 쓰지 않고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를 참고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써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마다 막막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쓰다 보면 어떻게든 완성은 된다. 글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기한이 촉박하여서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뒤따른다.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한번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대충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글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혼자 보고 만다면 그건 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글을 제대로 쓰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선미의 《마케터의 글쓰기》이다. 저자는 글쓰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길 일하는 사람들의 실무적으로 쓰는 글은 문학적인 글쓰기와는 다르게 배워서 나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 작성 같은 실용 글쓰기는 창작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조합하고 나열하는 방법론에 가깝다. 보도자료, 이메일, 보고서 등 거의 모든 글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저자는 그 '원칙'을 습득하고 익히면 누구든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의 핵심은 '설득'이다. 우리가 일하면서 쓰는 거의 모든 글을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만 알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만큼 허망한게 없다. 잘 가공하고 상품화해서 전달하는 평범한 '정보'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강조하는 글쓰기의 핵심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상대방'과 '배려'다. 일하면서 쓰는 모든 글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가 쓰는 글에 상대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연스레 좀 더 읽기 쉬운 글을 쓰게 되고, 좀 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야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글쓰기라는 것은 제대로 익히고 갈고 닦는다면 직장인에게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써먹을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글쓰기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처음 쓰는 종류의 글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가 잘 정리된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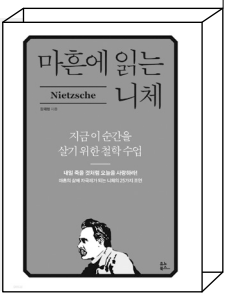
신은 이미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마흔에 읽는 니체

장재형 글 – 유노북스, 2022.

추천대상: 일반
#당연했던 익숙함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



내 인생은 겉보기와 다르게 여전히 불안하다.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를 살았지만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섣불리 도전했다가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난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 프리드리히 니체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라며 나의 뒤통수를 쳤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흔히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린다. 평생 망치로 바위를 깨부수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정면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함께 주위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낙마 사고, 뇌수막염, 각종 신경 질환 등 그는 젊었을 때부터 늘 '비극'에 대해 탐구해 왔다. 신의 죽음, 니힐리즘, 초인, 힘에의 의지, 아모르 파티 등 니체의 세계관은 삶을 사랑하기 위해 고통마저 받아들이려는 니체의 노력이다.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대표인 장재형 작가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니체 전집》을 수없이 읽으며 니체를 연구했다. 그는 니체의 철학은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깝다며 니체 철학에서 중요한 2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대한 《니체 전집》을 정리했다. 작가는 니체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와 솔직하게 공유하며 니체의 철학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마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서 니체는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의 섭리에 의해 자신의 삶을 규정지어 왔지만 그 신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신은 죽었다"라며 인간은 궁극의 모습인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초인은 인간 너머의 인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넘어선 인간이다. 우리는 초인처럼 지금의 나를 넘어선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가'에서는 자신을 찾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이며 본인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주사위가 던져진 그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

제3장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는 우리 인간은 기존의 생각으로 세웠던 목표와 지향점을 잃게 되며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자유정신'이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가?'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변화한다. 마지막 제4장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에서는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할 것을 주문한다. 고통스러운 삶마저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항상 상승하는 삶을 살 것을 권유한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진정한 고통은 우리를 삶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줄 것이다.

우리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다. *(18)*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 위에 화산을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24)*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천국'에 없다. 행복은 고통뿐일지라도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20대와 30대에는 수많은 일을 하느라 다소 권태로운 삶을 살았더라도, 40대는 그것들과 섬광처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니체와 함께 나 자신을 좀 더 탐구해야 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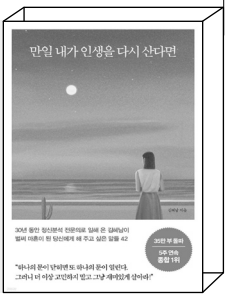
정신분석 전문의가 알려 주는 인생의 비밀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글 – 메이븐, 2022.

추천대상: 일반
#인생의 큰 고비를 넘고 있는 분,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마흔세 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정신분석 전문의가 쓴 글이다. 저자는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움직여 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리는 파킨슨병을 20년 가까이 앓고 있으면서 터득한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 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 그럴 때 그런 상황에 휘둘리면 나락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행복에 관한, 그리고 마음 수양에 관한 책은 정말 다양하게 출간되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글은 더욱 의미가 있다.

저자가 앓고 있는 파킨슨병같이 서서히 몸 상태가 나빠지는 병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그런 와중에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려고 하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새긴다. 그리고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부모님의 삶의 흔적들이 자신을 통해

손주들로 이어지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과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 성찰했겠는가? 그러니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고 싶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책은 제1장에서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읽어보면 정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완벽할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법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나같이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새겨들어야 할 글들이다.

제2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미처 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을 알려 준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해 주는 글이다. 제3장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 파킨슨병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했는지, 이미 진단받은 병을 수용하고 병과 함께 잘살아 왔는지를 알려 준다. 제4장 '마흔 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은 마흔 살이 넘은 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공감되고 배울 점들이 많다. 제5장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서는 이미 저자는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일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에필로그로 공개하고 있다.

아마도 20대와 30대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다. 만약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젊은 나이에 비해 고생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매우 지혜로운 분일 것이다.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인생 선배가 알려 주는 값진 교훈이니 배우는 자세로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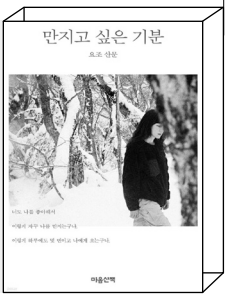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만지고 싶은 기분

요조 글 – 마음산책,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인
#어떤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고 싶은 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겪어 우울했던 경험이 있는 분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며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는 것, 학교에 가고 일터에 나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엔 별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던 일상 속 요소들을 제약받았다. 코로나19가 다방면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조차 바꿔 놓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가 마침내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이젠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요조는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에선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근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대담함과 실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리듬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냈고,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임경선

작가와 함께 교환 일기라는 다소 특이한 형식으로 일과 사랑, 여행, 돈, 자유와 같은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머리글을 읽고 목차를 천천히 살펴보고서야 왜 이런 제목이 붙였는지 조금 이해가 가고, 완독 후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책 속 내용은 사람, 동물, 물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만짐'에 대한 생각을 적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만짐'의 행위가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생각과 이 같은 직관적인 의미의 만짐만이 아닌 지나간 엄마의 육아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애틋함과 사랑, 고양이와의 눈맞춤을 통해 느꼈던 교감의 순간과 음악을 듣고 밝음 또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순간까지도 '만짐'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 뮤지션이 노래를 불러도, 듣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뮤지션이 노래를 불러도, 듣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춤을 추면서도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활어처럼 날뛴다.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이 가진 몸 안의 끝없는 우주로 떠나, 살고 싶고 죽고 싶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차라리 쓰레기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주인공의 생기를 획득한다……. 그곳에서 음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키운다. 아무것도 아닌 밥 한 공기가 우리를 이만큼 키웠듯이.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의 일상과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을 받았던 지난 3년,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은 분명 무언가 달라진 일상일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만져 보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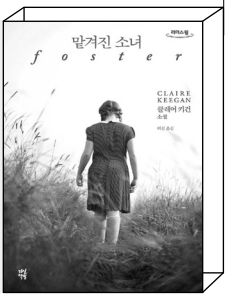
맞잡은 손의 온기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글, 허진 옮김 – 다산책방, 2023.

추천대상: 성인
#애정과 관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때
#사춘기 소녀의 복잡한 심리 상태의 변화가 궁금할 때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1828~1910)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불행에 이유가 있다면 불행을 극복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맡겨진 소녀》는 이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아일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방치되듯 자라온 소녀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의 먼 친척 부부에게 여름방학 동안 맡겨지면서 벌어지는 한 달여의 여정을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 작가'라는 명칭에 걸맞게 특유의 간결하고 간결한 문장을 조합해서 간결한 장면을 그려낸다.

저자 클레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1999년 첫 단편집인《남극》으로 루니 아일랜드 문학상과 윌리엄 트레버상을 수상하였고, 두 번째 작품《푸른 들판을 걷다》로 에지 힐상을 수상하였으며, 네 번째 작품《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오웰상(소설 부문)을 수상하였다.

킨셀라 부부와의 만남은 소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의 결별이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의 짐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지도 않고 도망치듯 떠난다. 목욕을 하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소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집 뒤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30)*

낯선 집에서 느낀 감정이 샘물을 통해 드러난다. 낯선 곳에 남겨진 아이. 그 장소가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 아이. 작가는 애정과 관심을 호들갑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듯, 스케치하듯 아이와 킨셀라 부부의 일상을 담백하게 보여 준다. 소녀는 킨셀라 부인과 집안일을 하고 그런 소녀에게 아저씨는 쿠키를 슬쩍 건넨다. 매일 우편함까지 달려가는 소녀의 기록을 재며 내일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겠다며 격려하는 아저씨의 말은 부모님과 자매들의 무관심에 시들어 가던 소녀의 자존감을 성장시켜 주었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68)*

아저씨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부정이 소녀에게 스며들었으리라, 킨셀라 아저씨에게도 잊고 있던 부정이 깃들었으리라. 달 밝은 밤 아래 길 위에서 그 둘은 부녀가 누려야 할 첫 교감을 나누었다.

《맡겨진 소녀》는 소녀의 시점에서 부모님과 살아온 세상과 킨셀라 부부와 머무른 세상을 담백하게 보여준다.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삶은 흑백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떠한 소리도, 흑과 백을 제외한 다른 색이 없는 세상이었다. 소녀는 킨셀라 부부와 함께하며 비로소 세상에는 이다지도 많은 소리와 색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맡겨진 소녀》를 통해 서로가 맞잡은 손의 온기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 보자. 그냥 그 정도로만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일상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

마스다 미리 글, 이소담 옮김 – 티라미수더북, 2023.

추천대상: 일반인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제약을 경험해 보신 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독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다. 누군가는 독립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떠올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막연한 걱정과 불안을 떠올릴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자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사람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일상을 채워 나가는 자유로운 삶. 후자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삶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독립'이라는 새로운 생활로 떠나고 싶은 마음과 익숙한 공간,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기분.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의 저자인 마스다미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글과 만화로 표현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수짱 시리즈가 있다. 이 시리즈는《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아무래도 싫은사람》,《수짱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발간됐으며 수짱이라는 평범한 주인공의 일, 사랑, 결혼, 노후와 관련된 이야기 담고 있다. 수짱 시리즈 외에도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는 작가가 고향인 오사카를 떠나 갓 도쿄에 상경해 독립생활을 시작하던 20대를 때를 떠올리며 그 시절 경험했던 일들과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일상에 크고 작은 제약을 받던 일들을 떠올리며 작성한 글들이 담겨 있다.

도쿄역까지 엄마를 배웅했다. 엄마를 태운 신칸센이 떠나자 눈물이 차올랐다.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흘러넘쳤다. 쓸쓸해서 흐르는 눈물은 아니었다. 나를 걱정해서 찾아와 준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에 감정이 북받쳐 쏟아진 눈물이었고, 그 증거로 밤이 되자 씻은 듯이 쏙 들어갔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 생활. 어디에도 못 가잖아. 부모님도 친구도 만날 수 없다. 참았던 것이 한 방울 두 방울씩 한 잔을 가득 채웠는지, 그날 밤 마지막 한 방울이 된 '목욕수건' 때문에 넘치고 말았다.

나를 믿고 '독립'이라는 새로운 생활로 떠나고 싶은 마음과 익숙한 공간,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적응했던 도쿄 생활에 크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에 관한 이야기와 코로나를 겪으며 느꼈던 일상 속 제약들과 그 속에서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이야기…….

마스다미리 작품의 공통점을 키워드로 뽑자면 그 키워드는 '일상', '공감', '위로'라는 단어일 것이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 가족 간의 소소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우리누나》,《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씨 댁》 시리즈를 읽어보길 권장한다. 분명 위로와 공감을 받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로 살아가는 법

최다원 (포천시 가산도서관)

매일을 헤엄치는 법

이연 글 – 푸른숲, 2022.

추천대상: 일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반복되는 실패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스물아홉 살이 되자마자 수영을 시작했다. 그래봤자 아직 힘껏 발을 차는 연습을 하고 있는 초보다. 그래서였을까. 파란 표지에 눈을 감고 수영하는 사람이 그려진 이 책에 눈길이 갔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수영을 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이 책 속의 주인공은 ‘전구’의 이미지를 따왔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영원할 것처럼 찬란히 빛나다가 죽는 점이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책은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스물일곱 살 작가 ‘이연’의 투쟁이 담겨 있다. 3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평생 하지 않던 운동도 시작한다. 시작하기에 가장 부담이 없는 운동으로 ‘수영’을 떠올린 작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영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서 삶의 추진력을 얻게 된다. 최대한 숨을 참고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수영장 바닥의 푸른 타일을 바라보며 고독의 밑바닥을 주시한다. 그러면서 천천히 힘을 뺀다. 슬픔은 슬픔대로,

막연함은 막연함대로 마주한다. 그러자 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험을 한다. 이 장면에서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무 비장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야.'

MZ세대라고도 불리는 현시대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만히 앉아 쉬고 있으면 등 뒤로 나를 제치러 달려오는 무수한 경쟁자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또 하는 수 없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한다. 뭐라도 될 준비를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지라도. 이 책의 작가이자 주인공인 '이연' 또한 그러한 스물일곱을 보냈고 나 역시 그랬다. 우리나라에서 취업 준비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인공에 쉽게 이입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녹아있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이 다른 세대들보다도 청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청년들이 마주하는 취업난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퇴사 한 주인공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해 성공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결말로 끝나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주인공이 반복한 삶에 대한 사유는 읽는 이로 하여금 여러 생각할 점들을 던진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살아가며 한 번쯤은 꼭 마주하고야 마는 그런 질문들 말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진정으로 내가 되는 일인가?', '죽고 난 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를 설명하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 등. 책을 읽으며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답하려 애쓰면서 어쩌면 독자들은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될 거야.' 주인공이 서두에서 읊조리는 한마디다. 마음 한구석에 이 한마디가 계속 맴도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책의 저자가 아닌 나로부터의 대답을.

건강 회복을 위한 맨발걷기 지침서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글 – 국일미디어, 2022.

추천대상: 일반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무병 장수를 목표로 개인과 가정의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 내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자 박동창은 오랜 세월 금융계에 몸담았다가 은퇴 후 폴란드에서 깨달은 '맨발 걷기' 효과를 계도·계몽하고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모산에서 시작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과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를 창립한 후 실천하고 있는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코로나 기간 발간된 이 책의 출간에 앞서 저자는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과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을 통하여 국내에 맨발 걷기 전도사로 알려진 바 있다.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인류건강 최초의 발제: 맨발 걷기, 제2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체계, 제3장 접지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가?, 제4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5가지 천연 치유제,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맨발 걷기 혁명이 그것이다.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언제든 맨발로 선 땅으로부터 땅속의 자유전자가 넘실대며 우리의 몸 안으로 오른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은 맨발을 타고 몸 안으로 올라와 우리 몸속에 쌓인 만병의

근원인 양(+) 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일거에 중화시킨다.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되고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현대 문명병들이 치유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는 우리 혈액 속 적혈구의 표면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의 서로 밀어내는 힘인 제타전위를 올려준다. 자연스럽게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따라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진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심혈관질환, 뇌 질환 등이 예방되고 치유되는 소이이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아데노신삼인산)의 생성이 촉진된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로부터 전자를 받아 ATP가 생성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땅속에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신발을 벗고 땅 위에 맨발로 서면 그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는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와 ATP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맨발로 걸으면 더욱더 활력이 넘치게 되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으로 충전되는 이유다. 더 나아가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서 우리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시키며 천연의 신경안정 작용을 한다. 맨발로 걸으면 꿀잠을 자게 되고 불안, 초조, 과민현상 등으로부터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다.

맨발 걷기의 효능과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한 자료로 책 표지에서 한의학박사 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 추천사가 도움이 될 듯하다. 어렵지 않게 유튜브에서 '맨발 걷기'를 검색해도 저자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 맨발로 걸을 곳이 있는지 우리 사는 동네를 유심히 돌아보아야겠다.

물리학적으로 우주는 '강력·전자기력·중력' 네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에서는 전자기력이 불균형해질 때 질병 상태가 되고 모든 치료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며 접지(接地)는 큰 도움이 된다. 선조들은 봄에 모래찜으로 지기를 보충해 왔고, 정통치법에 접지를 가하여 효율을 높여가는 의료인이 늘고 있다. 이 책은 건강의 길에서 좋은 도반(道伴)이 될 것이다.

나는 진료할 때 모든 환자에게 맨발 걷기를 권하는데 특히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의 각종 난치병 환자들에게 강력히 권유한다.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월등히

단축하고 재발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매일 임상 현장에서 목격하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난치병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맨발 걷기의 이론과 실제의 정수가 담긴 이 책을 꼭 읽고 맨발 걷기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권한다.

한의학의 '양유여 음부족' 이론과 상통하는 맨발 걷기를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이론화하여 책을 발간하고 만성병 퇴치에 헌신하는 저자 박동창 박사를 임상한의사로서 응원하고 축하드린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맨발 걷기를 통한 무량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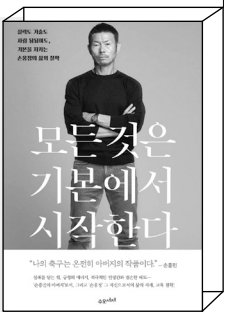
손흥민 부자(父子)의 담박한 삶의 가치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 글 – 수오서재,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축구선수 손흥민 부자(父子)의 이야기가 궁금한 이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삶의 기본에 대한 생각과 고찰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은 이 책을 읽고 이와 같은 소감을 남겼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월드클래스 선수는 왜 본인의 성공을 모두 아버지의 공으로 돌렸을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의 저자 손웅정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전 축구선수, 현 축구감독으로 축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이다. 평소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담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더불어 〈유퀴즈〉에 출연한 손웅정의 모습은 다소 무서웠던 이미지와 달리 겸손하고 위트있는 모습으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축구선수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지도자로서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빚어낸 신념과 철학이 담겨있다. 손웅정은 가난도 막을 수 없던 축구에 대한 의지, 은퇴 후 녹록하지 않던 시절 이야기,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연구하고 개발한 훈련법, 손흥민과 함께 독일과 영국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생각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찰 등을 이야기한다. 손흥민은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가 늘 강조하신 생각들을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책은 총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가 붙인 세부 제목들은 모두 인생에서 필요한 단어들이다. '성찰, 집념, 기본, 철학, 기회, 감사와 겸손, 행복'으로 나뉜 목차에서도 기본을 중시하는 저자의 스타일이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와 축구보다 인성을 먼저 중시'하였으며 세 번째는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하는 삶'이다.

"담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9)*

이렇게 저자는 담박한 삶을 추구하고 '기본'을 가장 중시한다. 자신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축구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여긴다. 책을 읽다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기본기를 다루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기본기가 필요할까? 이전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기본은 건너뛰고 목표만 성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논란 없이 월드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삶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손흥민의 함부르크 청소년 유스 시절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화려한 듯 보였던 이면에 고생을 딛고 성장해나간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고 이를 통해 손흥민 부자를 더 이해하고 멋진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축구를 매개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태도를 전달하는 책'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녀의 행복이다. 아들에 대한 애정과 손흥민이 왜 월드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방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이들에게는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앎과 수용의 미덕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몸과 삶이 만나는 글, 누드 글쓰기

고미숙 외 글 – 북드라망, 2022.

추천대상: 성인
#책으로 힐링받고 싶을 때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살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들로 알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점쟁이의 입을 빌려 올해는 이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출신도 알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신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지만 신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

자신이라는 인생의 책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글로 내놓을 때 자신을 버리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객관적인 자신을 보면서 현재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조금은 다르게 열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은 아주 고유한 한 인격체의 절대적 가치다.

이 책을 든 여러분은 너무나 어려워할 것이다. 너의 책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는 주문 때문에 이 책을 읽기가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 개운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자주 욱하고 치미는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모른 채로 어디선가 주워들은 숨 크게 쉬기를 한다거나 어설픈 명상 한 조각을 실행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의 제목은 누드 글쓰기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쓰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누드라는 단어처럼 발가벗기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자신의 과거를 더 들어가서 자신의 사주를 확 까서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검열해 보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몸의 상태와 비교해 보고 그 내용을 글로 써 보고 객관화시켜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철저히 바라보게 함으로써 삶을 개선해 보겠다는 아주 적나라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조금 재미있게 적고 있다.

여기서 사주를 내 첫 숨과 더불어 이마 위에 찍힌 바코드로 표현한다. 그걸 읽어 낼 수 있는 기술을 역학이라고 한다. 개인의 역사에 대한 비평-진정한 앎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자신을 까발릴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주를 논하므로 필히, 운명이란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진솔한 개운법이 있기에 이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운명의 개척이 시작될 수 있으며, 기꺼운 마음으로 고생-시절 인연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 희열과 통증, 합과 충을 온전히 몸으로 감당하고 매듭짓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마법적인 치료를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에서야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다니!

요즘 사람들이 흔히 주고받는 MBTI보다 사주역학이 더 흥미롭지만, 사주역학이 음지의 어려운 학문으로 전락하다 보니,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사주이야기를 요즘 트렌드인 글쓰기에 접목한 점이 이 책의 가치라 생각한다. 또한, 책 속의 이 한마디는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들의 삶, 내가 살아온 동선, 내 운명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그 둘과 얽혀 있는 그 운명에 대해서 쓰는 일,

내 운명이자 부모님의 운명이기도 한 서로 얽혀 있던 운명의 고리'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어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내 사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본적 앎을 깨우쳐 부모님과 나, 형제들과 나의 인연들을 알아보고 싶어졌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느낄 것이다. 여러분과 베프, 여러분과 연인, 여러분과 악연의 그 누군가와의 절절한 인연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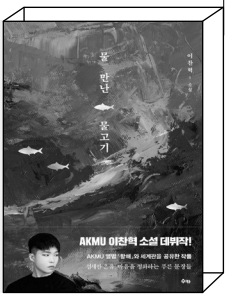
악동뮤지션의 예술적 영감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물 만난 물고기

이찬혁 글 – 수카, 2019.

추천대상: 일반
#악동뮤지션의 '항해' 앨범의 깊은 이야기가 궁금한 이들에게
#아티스트 이찬혁의 예술과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 궁금한 이들에게



《물 만난 물고기》는 천재적 감성을 가진 아티스트 AKMU(악동뮤지션) 이찬혁이 집필한 소설로, 2019년에 발매한 '항해' 앨범의 모티브가 된 책이다. 수록곡 '물 만난 물고기'와 동명으로, 음악을 통해 녹여 내고자 했던 메시지와 세계관의 확장판이다.

'항해'라는 앨범의 노래들이 어떤 생각으로 탄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며, 대중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소설에 담겼다. 이찬혁 작가는 삶의 가치관과 평소 가진 예술에 대한 관점을 음악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야기하고 싶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한다. 세상을 향해 물음을 던지며, 소중한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빛나는 삶의 순간은 어떤 것인지를 담아냈다.

특히 자유에 대한 갈망,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은유적으로 드러나는데, 그의 가치관, 삶과 음악적 고민과 성찰이 고스란히 묻어난 책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가 아닌, 군대에서 자기계발 시간에

직접 집필한 소설이라는 점도 인상 깊다.

책의 표지는 바다 속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시원한 파란색이며 본문 속 글자도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소설의 감상 포인트는 책의 소제목들이 앨범의 수록곡 제목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목차가 앨범의 수록곡 제목과 같이 Freedom, 달, 뱃노래, 물 만난 물고기, 고래, 작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소년 '선'과 바다를 사랑한 소녀 '해야'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읽는 내내 노래나 시를 읽는 느낌이 들어 독특하고 철학적이기도 하다. 음악 속에 추억이 담겨 있기에, 음악이 없으면 서랍을 많이 사야 한다는 독특한 표현 등 몽환적이면서도 이찬혁 작가만의 감성이 듬뿍 담겨 있으며, 곳곳에 검정색으로 적힌 노래 가사가 음성 지원되어 책의 분위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 ***음악이 없으면 서랍 같은 걸 엄청 많이 사야 될 거야. 원래는 음악 속에 추억을 넣고 다니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추억도 새로 산 서랍 속에 넣고는 겉에 '작은 별'이라고 쓴 테이프를 붙여놓아야 할걸. 아마 번거롭겠지. 근데 그럴 필요까진 없어. 우리에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는 아주 큰 서랍이야. 우린 먼 훗날 바다 앞 모래 시장에 걸터앉아서 오늘을 떠올릴 수도 있어.*** *(52)*

《물 만난 물고기》의 가장 큰 묘미는 단연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책에서 주는 설명으로도 충분히 상상은 가지만, 음악과 함께 들으면 더욱 확실한 메시지와 시너지를 느낄 수 있다. '항해' 앨범을 함께 들으며 AKMU의 바닷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유영을 하길 바란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들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글 – 글항아리, 2023.

추천 대상: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소수자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요즘은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SNS에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SNS 스타가 된 반려동물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달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동물 방치 및 유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동물에게 가해를 가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N번방처럼 동물을 학대한 모습을 공유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위험한 사회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가에 대해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 박주연은 사람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을 가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물 권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재조명한다. 동물을 보호하는 장치인 '동물보호법'의 현재와 개정된 법에 대해 분석하고 일상 속 동물이 겪는 폭력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사례를 들어 언급한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육방식, 실험 절차와 사냥, 동물원의 비윤리적인 현실 등 인간이 동물을 소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 ***사람들에게 분노하던 원숭이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그가 분출하던 감정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인간은 좁은 곳에 갇혀 더위와 추위, 외로움과 싸울 수 없다. 심지어 그 모습이 타자의 눈요깃거리가 된다? 더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때 그 원숭이는 펜스로 달려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은 언어, 즉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인간이 그들의 언어가 되어줘야 하는 이유다.*** *(156)*

저자는 원숭이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이므로 동등하게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울림이 있는 글귀로 짚어낸다. 이렇게 저자는 동물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고안되어야 할 장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동물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물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이들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당장 내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하는 일상, 육식을 지양하는 식습관 등 저자는 자신이 직접 실천한, 동물을 위하는 일상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며 동물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든, 인간이 동물의 생존권리를 빼앗을 수 없고 동물의 존엄성을 지켜야 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구상에 같이 공존하는 존재에 대해 인간이 과연 통제할 자격이 있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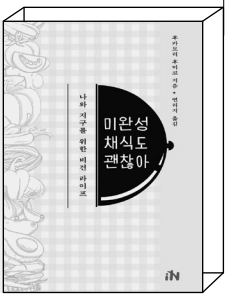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의 영감을 따르는 채식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후카모리 후미코 글, 연리지 옮김 – iN, 2023.

추천대상: 일반
#완전한 비건은 아닐지라도 채식을 실천하고 싶은 이들에게
#아직 비건은 아니지만 비건의 세계가 궁금하거나 초심자인 이들에게
#비건인 주변인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물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채식주의자 인구 추정 숫자는 약 150만 명이며 한국 채식 연합은 올해 200만 명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환경과 건강을 위한 채식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한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에서 페스코테리언 같은 유연한 채식주의로 범위가 확대되며 어느덧 채식은 유행을 넘어 생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의 저자 후카모리 후미코는 안과 의사로 스스로를 '비건 닥터'라고 칭한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먹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는 본격적으로 영양학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병원을 운영하며 식사의 중요성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비건 라이프가 삶의 방식이자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비건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건'이란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이 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비건라이프의 핵심은 지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여러분의 감성을 넘나들기 바랍니다. *(7)*

책은 총 5장으로 1장 '나는 어쩌다 비건이 되었을까?', 2장 '사람과 지구, 동물 친화적인 비건라이프', 3장 '자연, 건강 그리고 음식철학', 4장 '비건생활, 식단은 이렇게 꾸리자', 5장 '비건이 되기 위한 Q&A'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책을 읽기 전, 우선 차례를 먼저 보고 궁금한 부분부터 읽기를 권하고 있다.

이 책은 의학적 지식보다는 저자의 경험과 영양학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환경·동물·역사 등 광범위한 주제를 통해 채식을 다채롭고 쉽게 설명하며, 비건 선배로서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채식을 통해 개인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공유한다.

평소보다 채소를 늘리거나 고기 메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 없는 날을 정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막상 해 보면 식단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채소를 더 늘리고 고기는 더 줄일 수 있다.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드디어 여러분도 비건 동지가 된 것이다. *(81)*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어바흐는 "Der Mensch ist, was er iszt(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했다. 먹는 것이 곧 건강 상태를 드러낼 뿐 아니라 먹는 것에 따라 의식과 정서까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생각보다 비건이 어렵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고 저자도 '미완성이어도 괜찮다'라고 강조한다. 비건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나와 지구를 위한 가벼운 첫걸음으로써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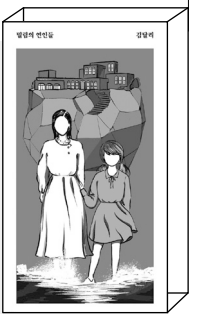
외로운 나를 감추는 방법

손정은 (고양시 도서관정책팀)

밀림의 연인들

김달리 글 – 안전가옥,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가 김달리는 장편소설 《이레》로 데뷔했으며 단편영화 〈한나 때문에〉, 〈양해의 닭 다리〉를 연출했다. 또, 리디 전자책 〈나의 테라피스트〉, 〈플라스틱 세대〉 등의 장르 소설을 주로 썼다. 단편 안전 가옥 공모 당선작 앤솔로지 《빌런》에는 극성팬의 광적인 사랑이야기를 실었던 작가로 이번에도 《밀림의 연인들》을 통해 독특한 장르 소설을 선보였다. 그래서인지 소설도 마치 영화처럼 STAGE.1~3으로 나누어 구성했는데 읽는 동안 영화를 보듯 무대를 옮겨가며 주인공의 넓은 정원, 주인공이 그린 그림, 메타버스 속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

《밀림의 연인들》은 제목만 봐서는 얼핏 달콤한 로맨스 소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전 가옥 시리즈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벌써 안전 가옥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작품의 신선함 그리고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 작가와 PD가 협업하여 독특한 장르, 다양하고 넘쳐나는 상상력을 표현해 내는 안전 가옥 시리즈는 주제가 실로 다양하다. 좀비가 나오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을 법한 혹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인간의 공포심을 또는 호기심을 매우 자극한다. 이번 안전 가옥 쇼-트 시리즈 18번째 책인《밀림의 연인들》은 김달리 작가의 SF적 상상을 통해 '밀림'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중 인물 고다미는 유명한 건축가 아버지 덕분에 풍요롭게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끼지는 못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 그 자체라 믿었던 남편도 결국 밀림이라는 메타버스에서 바람이 난다. 그러면서 그녀는 밀림이라는 곳을 처음 이용해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겉으로는 구원받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자신의 설 곳을 찾지 못한다. 밀림에서 바람이 난 밀림의 직원 남편 김석영, 가정폭력을 일상처럼 행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밀림에서 새 삶을 찾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녀 이초영까지. 메타버스와 현실을 오가며 펼쳐지는 세 명의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과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밀림에서는 나와 닮은 혹은 나를 닮지 않은 허구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만나 외로움, 사랑, 기쁨 등 무엇이든 충족할 수 있다.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아 사랑을 주면서 키울 수도 있고, 실제처럼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도구를 이용해 여러 가지 감각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마약까지 체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밀림을 통해 현실에서는 즐길 수 없는 쾌락, 안정감 등을 느낄 수 있지만 게임이라는 변명 속에서 그 죄책감 및 책임감을 쉽게 놓아 버린다. 게다가 밀림 안에서조차 돈에 의해 사는 지역이 섹터별로 나뉘어 결국엔 현실의 모습과 같이 물질만능주의로 변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하는 미래에도 현실을 아주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쉽고 또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밀림의 연인들》은 남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사람에게 외로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허구 속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본다면 허구를 빠져나와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과 상대방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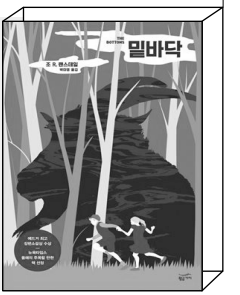
소년이 건져 올린 추악한 현실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밑바닥

조 R. 랜스데일 글, 박미영 옮김 – 황금가지, 2016.

추천대상: 성인
#휴가에 가서 읽을 소설이 필요할 때
#더위에 잠이 오지 않는 여름밤에
#인종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든 요즘,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든 스릴 넘치는 소설을 소개한다. 《밑바닥(The Bottoms)》은 2000년 에드거 상 최고 소설상 수상작, 뉴욕타임스 올해의 주목할 책에 선정되었다. 작가 조 R. 랜스데일은 호러, SF,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저술하였고 그가 저술한 여러 작품이 드라마화, 영화화되었다. 또한, 열 차례에 이르는 브램 스토커상, 에드거상, 그린 제인 카버 문학상 등을 받은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화자는 노인이 되어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13살의 여름을 회상한다. 1933년, 텍사스 동부 작은 마을에 살던 해리는 우연히 깊은 숲속 강의 저지대에서 결박된 흑인 여성의 시체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속하여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평화로운 마을에 파란이 일게 된다. 해리는 지역 경관인 아버지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동행하게 되는데, 백인들은 흑인이자 매춘부의 죽음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고 조용히 덮어두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얼마 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분위기는 일순간 달라진다. 아버지는 한

흑인 노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처단하려 모이게 된다.

작품은 시종 불길한 분위기를 드리우며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이 작품은 소년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며 점점 성숙해 가는 성장 소설의 구조를 띠고 있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당시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조명한다. 흑인과 백인의 죽음을 대하는 인물들의 상반된 태도는 인종에 따라 목숨의 경중을 가리던 당시의 분위기 그대로 재현해 낸다.

'밑바닥'이라는 제목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면서 비밀이 드러난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를 의미하는 듯 중의적으로 읽힌다. 평범해 보이는 개개인이 편견으로 가득 찬 집단으로 모여 죄 없는 이를 마녀사냥하고 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군중의 무지함과 인종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증오는 쉬워, 해리. 흑인이 뭘 했다거나 안 해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진 거라 말하기는 쉽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경관 일을 하면서 최악의 인간들을 여럿 봤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어. 피부색은 선악과 아무 관계가 없어.*** *(189)*

작품보다 90년이 지난 현재도 인종 차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흡입력과 출중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말에 이르면 엄청난 반전 또한 기다리고 있다. 이번 휴일에는 더위를 잊게 만드는 서스펜스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일상에서 만나는 흔한 사람들의 이야기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글, 황국영 옮김 – 모모, 2023.

추천대상: 일반
#삶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일본판 '불편한 편의점'이라 볼 수 있는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다. 기타큐슈 모지항이라는 조용한 항구에 자리한 텐더니스 편의점은 오늘도 시끌벅적하다. 꽃미남 점장의 사소한 몸짓,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의 팬을 자처하는 여성들이 연달아 터트리는 환호성 때문.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르바이트생 옆에서 파트타임 직원 미쓰리는 눈을 반짝이며 남모르게 미소 짓는다. 곧이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가 들어와 편의점을 제집처럼 활보하고, 빨간색 멜빵바지를 입은 할아버지는 시끄럽다며 모두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댄다. 여느 편의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상쩍은 광경.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소설은 텐더니스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서 6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주인공은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편의점 직원 미쓰리, 학원 강사이지만 만화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요시로, 엄마들의

인연으로 강제로 맺어진 소꿉친구가 불편한 아즈사, 퇴직한 후 아내와 멀어진 다키지,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은근히 사랑을 기다리는 고세, 이 책에 전반으로 등장하는 시바와 쓰기의 동생 주에루 등이다.

이 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페로몬을 내뿜는 꽃미남 점장에 '시바'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하지만, 점장이라는 인물을 구실로 언급되는 남녀노소가 실제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내용을 이끌어 간다. 특히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인, 주부, 노인, 학생 등 여러 세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이 시대 구성원들의 꿈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직장과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요시로, 육아하느라 꿈을 잠시 놓았지만 편의점에 일하면서 다시 만화가가 된 미쓰리, 소꿉친구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감추고만 살았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는 아즈사,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웃과 가족이 되는 다키지 부부의 이야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누구나 고민하는 인류의 공통 문제이다.

소설 후반부의 고세와 주에루의 이야기는 소설 전반에 나오는 점장, 무엇이든맨, 빨강 할아버지, 요시로, 미쓰리 등 소설 전반에 등장했던 인물의 이야기가 잘 버무려져 나오면서 소설의 후속편을 예고하는 느낌이 강하다. 책을 읽는 동안 느낄 수 있었던 희망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호응이 좋았던지 바로 후속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을 유쾌하고 읽었던 독자라면 후속편과 《불편한 편의점》도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부동산은 심리다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

박원갑 글 – 메이트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끊임없는 집테크 수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은 복잡한 심리의 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올바른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제시하는 부동산 심리 도서이다. 이 책의 저자인 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현장 경험과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자 유명한 강사이다. 부동산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만큼 글쓰기에도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의 글에 대해 읽기 쉽고 재밌다는 평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저자는 전문성과 글에 대한 애정으로 〈한경닷컴〉의 '올해의 칼럼니스트'로 2011년 선정되었고, 현재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저자의 전문성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부동산시장은 인간 심리의 변주곡이다'에서는 우리는 '영끌 푸어'에 이르기까지 왜 부동산으로 인해 불행한지를, 그 현실을 말해 준다. 2장 '누구나 빠지는 심리적 편향을 경계하라'

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양떼 현상', '행동 감염' 등 심리 현상을 설명해 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장 '남의 성공 스토리에 휘둘리지 마라'에서는 심리를 건드리는 교묘한 마케팅 전략 등을 살펴보며, 4장은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의 복사판이 될까?'에서는 각종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짚어 보고 전문가의 경제 예측을 경계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5장 '부동산을 대하는 접근법부터 바꿔라'에서는 집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아파트 가격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해 주고 했으며, 마지막 6장 '부동산도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에서는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심리의 비중 등을 조언해 주며 마무리를 한다.

오랜 시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며 분석해 온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설명과 함께 설명해 주는 도서이다. 다만 이 책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투자의 기술은 쓰여 있지 않다. 투자 시장에 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심리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저자는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정책 외에도 심리를 함께 읽어야 제대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도서는 확실히 다른 투자서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접근법,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책이기에 부동산 전반에 걸쳐 고민이 많은 사람과 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과 힐링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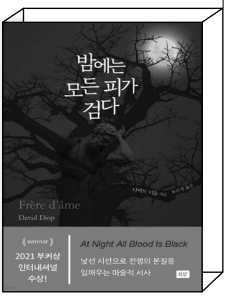
전지적 전쟁 시점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

다비드 디옵 글, 목수정 옮김 – 희담, 2022.

추천대상: 일반
#전쟁의 참상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전쟁 속 인간 심리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흑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였다. 오죽했으면 결승전 직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프랑스 대표팀을 가리켜 '아프리카 팀'이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23명의 선수 중 15명이 아프리카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과언이 아니라 할 만하다. 이렇게 프랑스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은 이유는 제국주의 시대 프랑스가 본토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서아프리카 면적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두었고, 식민시대 이후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프랑스에서 시민권을 얻으려 이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966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세네갈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이 책의 저자 다비드 디옵은 프랑스에서 2018년 출간한 원제 《영혼의 형제》로 2021년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았다. 다비드 디옵은 또한〈아프리카여-내 어머니에게〉라는 시로 아프리카인들이 가진 정신을 찬미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과거를 희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많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프랑스에

국적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뿌리와 정신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이 소설 속에서도 드러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네갈의 간디올 마을 출신 '알파 니아이'는 프랑스 군 소속으로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그의 영혼의 형제인 마뎀바 디옵은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그에게 자신의 숨통을 끊어달라고 간청한다. 알파 니아이는 마뎀바 디옵의 간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는데, 그것을 자책하면서 이 책은 시작된다. 니아이는 '생명의 고귀함'이라는 인간의 율법과 조상들의 율법,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전쟁이라는 지옥에서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복수를 이유로 비인간적 행위자가 되기로 스스로 생각한다. 계속된 비인간적 기행이 계속되면서 전쟁 속에서 야만적 행위로 내몰리는 아군들조차 니아이를 두려워하자, 지휘관인 아르망 대위는 통제를 벗어난 니아이를 후방으로 휴가 보낸다.

후방에서 심리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니아이는 그의 정신적 뿌리인 어머니, 아버지, 사랑했던 여인과 그의 친구 마뎀바 디옵과의 평범한 일상이 있었던 고향에서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 주술사의 길에 이른다.

> ***나는 안다. 난 알고 있다. [중략]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93)*

니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한다. 신은 그들의 뒤에 뒤처져 있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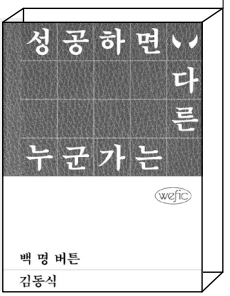
백 명 버튼 당신은 누르시겠습니까

차정아 (파주시 중앙도서관)

백 명 버튼

김동식 글 – 위즈덤하우스,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MBTI N인 당신에게
#한탕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이 걱정되는 당신에게



어느 날 버튼을 들고 방문한 남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백억을 드립니다. 대신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죽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한다. 당신이라면 이 버튼을 누를 것인가?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 버튼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고전적인 이야기다. 쓸데없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다양한 상황을 그려봤을 것이다. 상상력의 귀재 김동식 작가의 《백 명 버튼》은 현실에 이런 도박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일어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담아낸 짧은 소설이다.

김동식 소설가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 10년 동안 공장의 노동자로 지냈다. 그는 일하면서 떠올린 기발한 상상력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괴담으로 올렸고 나중에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 《회색인간》(2017), 《13일의 김남우》 등을 출간했다. 이른바 '초단편괴담'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해온 김동식은 어둡고 찝찝한 분위기와 빠른 전개 속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작가로 유명하다. 《백 명 버튼》 또한 김동식 작풍이 온전히 녹아있어 농담처럼 가볍게 읽히지만, 한참

동안 곱씹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소설에 나오는 악마는 인류에게 계약을 제안한다. 백 명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주겠다고. 그 버튼은 누른 백 명 중 두 명에게는 불행을, 한 명에게는 행복을 주는 버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악마의 제안에 응하고 우리 사회는 백 명 버튼 붐에 빠진다. 버튼을 누르는 아르바이트와 노예공장, 중고 버튼 판매, 무한 백 명 버튼, 백 명 버튼 필승법 등 파멸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을 욕망하는 쪽이 더 많았던 인간들을 점점 더 끔찍한 방법으로 백 명 버튼을 이용한다.

물론 이 백 명 버튼의 확산과 이용에 반대하는 단체 역시 존재하고, 전체적인 플롯은 이 단체가 백 명 버튼 판매를 금지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전개된다.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을 준비가 된 사람들과 불행한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짧은 분량의 소설 안에 인간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이기적인 그리고 이타적인 인간 개개인의 군상이 모두 담겨있다. 특히나 작가가 상상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가 상당히 흥미롭다. 기발한 소재와 개연성 있는 전개가 만나 훌륭한 시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독자는 이야기를 읽는 동안 온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는 내내 씁쓸하고 묵직한 여운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김동식 소설 특유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실제로 나의 행복과 성공은 누군가의 불행과 실패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세상의 물적자원, 인적자원은 무제한이 아니기에 누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성공은 반드시 누군가를 망하게 해야 가능하다면, 인간사회 자체가 백 명 버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야기가 끝나면 이러한 고민을 하며 책을 덮을 것이다.

정답이 없는 고민이지만,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반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이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이다. 타인과의 공존에 관심이 생긴다면, 성공했지만 거만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면서 오만함을 경계하고 주변인들을 겸손한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제안하는 아리투루넨의 책《더 나은 사람들의 역사》를 추천한다. 또한, 번하지 않게 기묘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김동식 작가의 글을 더 읽어보고 싶은 독자에게는 대표작《회색인간》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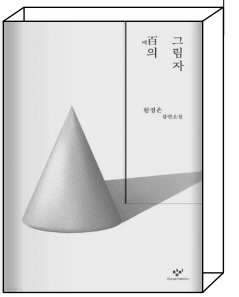
연대의 가능성, 고뇌와 고달픔에 꺾이지 않는 삶을 향한 시선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백의 그림자

황정은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일반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고뇌하고 고달픈 세계에서 우리 삶을 긍정할 이유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연대, 이해심을 말하는 배려 깊은 책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



김연수, 김초엽, 한강……. 내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최근 한국 작가의 명단은 이 세 분뿐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문단에 대한 책은 별반 섭렵하지 않았으며, 내 세계는 고전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문단이 드러낸 식견이 얕고 짧은 성싶어 황정은의《백의 그림자》를 읽을 책으로 선정했다. 황정은은 2005년 신춘문예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백의 그림자》와《계속해보겠습니다》 등 총 86종의 책을 썼다. 다작을 하는 작가였으며, 황정은의 작품에는 연대와 따듯한 시선이라는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다는 평이 많았다. 내면의 따스함과 연대라는 작품을 관철하는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 자체라고 생각하기에 이 책을 읽었다.

'숲에서 그림자를 보았다'는 말로 소설은 시작을 알린다. 우리는 그림자가 빛이 들 때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손을 위로 뻗으면 그림자도 위로 뻗고, 우리가 앞을 척척 걸어가는 시늉을 하면 그림자도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척척 걸어간다. 그림자는

우리를 비추는 현상물이지, 직접 행동하는 능동적인 대상이 아니다. 작가는 이 우리 상식을 비트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림자가 일어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볕이 가득한 공간 전체를 채우는 시간에 유독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한다. 그렇지만 황정은의 이야기에서는 그림자는 참고 견디다가 일어서는 존재로 묘사된다. 피로와 삶을 갉아먹는 고뇌가 쌓인 어둠에서 발현하는 존재로 말이다. 심란함과 고뇌는 인간을 그저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끔 도와주는 거울 같은 존재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자는 삶을 지내오며 만난 삶의 단면을 비춰준다. 주인공은 재개발이 곧 진행될 공간에서 살며,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사는 시간에는 사랑이 있고 성찰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보듬을 미래가 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상을 살아오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에서 짙은 부피감을 느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시를 나란히 나누는 것만 같다. 말은 파도와 같이 기나긴 여운으로 삶에 들어오고, 작은 동네에서 누리는 여러 등장인물의 삶을 긍정하게 만든다.

따듯함, 연대, 이해심이 중요한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고 있다. 황정은의 이야기를 읽으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올랐다. 그들도 역시 재개발될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들이 겪는 삶의 고뇌에서 싹트는 연대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고뇌 속에서 연대를 말하는 작품을 읽고 싶다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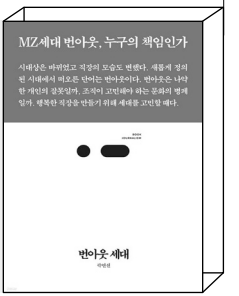
열정페이를 넘어 이제는 다 타버린 MZ세대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번아웃세대: MZ세대 번아웃, 누구의 책임인가

곽연선 글 – 스리체어스, 2022.

추천대상: 일반
#열심을 넘어 지쳐버린 이들에게
#현시대 상황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번아웃세대》는 북저널리즘 시리즈 83번째 도서이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이며,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하며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이번 시리즈의 저자 '곽연선'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LG경영연구원에서 연구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직문화, 리더십, 평가 · 보상, 채용 등 인사 조직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심리학 용어에서 출발한 번아웃 신드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감각으로 자리잡았는지, MZ세대의 번아웃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전한다.

이 책의 본문은 98페이지 분량으로 'MZ세대를 덮친 번아웃'으로 시작해 '오피스 빅뱅에 답하는 조직'까지 여덟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번아웃에 영향을 받는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끼치는 주체인 '조직문화'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MZ세대는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다가도, 계속되는 과로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고 있다. *(9)*

본문에서 인상 깊은 점은 '번아웃 진행단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본문에서 번아웃의 진행단계를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의 4단계로 정의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번아웃을 겪고있다고 여기는 순간은 세 번째 단계인 좌절과 네 번째 단계인 무관심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와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열정이 식은 두 번째 침체 단계 또한 이미 번아웃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어느새 조직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려 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번아웃에 대해 접근하는 본서의 방향성도 강렬한 흥미를 자아낸다. 직장생활을 하며 지치거나 무기력을 겪어봤다면, MZ세대와 번아웃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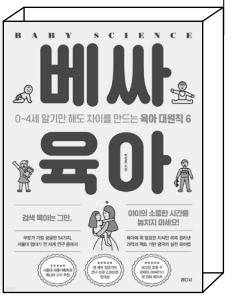
나도 육아를 할 수 있을까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베싸육아

박정은 글 – 래디시, 2023.

추천대상: 일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육아가 궁금한 사람에게



내가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고 기쁘기도 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은 아마도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를 돕기 위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지해 찾아보지만, 결과물들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제대로 알고 적은 정보가 아니라 어디선가 퍼온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함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 책《베싸육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식은 육아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방황하지 않고 부모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일러 주는 지식, 그리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근거 없는 불안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잘 끌어나갈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불안감이 높을수록 좋은 육아를 하긴 어렵습니다.

육아에 대해 잘 모르고 불안한 상태라면 아이의 정상적인 행동에도 전전긍긍하고 불안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뭔가 자책하고 있나 하고 자책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육아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러려면 당연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책은 이러한 과정을 돕습니다.

저자는 육아를 잘하고 부모로서 성장하려면 '방법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백날 방법을 배워봤자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매일매일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저자는 정보를 습득할 때 '출처를 잘 따지라'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 판단력이 부족할 때는 출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접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외부 기준 즉 출처를 살펴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테면 어떤 정보의 출처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이나 논문이라면 조금 더 믿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상당히 정돈된 논리로 육아에 대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육아에 관해 관심 있고 잘하고 싶은 부모에게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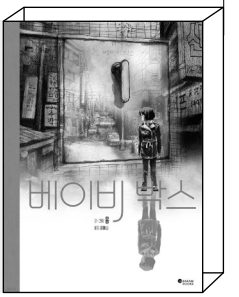
이야기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베이비박스

융 글·그림, 윤예니 옮김 – 바람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삶의 벽을 마주하며 막막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베이비박스》는 표지부터 심상치 않다. 흑백 배경에 정신없는 한국어 간판, 홀로 서 있는 붉은 머리 여자와 한 가운데의 베이비박스라 적힌 네모박스까지.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무거운 배경의 만화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만한데 과연 그 내용은 어떨까?

먼저 이 책은 벨기에 이름 융 헤넨, 한국 이름 전정식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융 작가를 잠시 소개해 보자면, 그는 1965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벨기에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는 위마니떼 클라식, 브뤼셀 생-뤽 아틀리에를 거쳐 브뤼셀 보자르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캉브르 예술학교에서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해외 입양아로서의 정체성과 아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채 애니메이션과 그래픽노블 작업을 한다. 그의 수상내역으로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으로 2012년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관객상과 유니세프상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2013년 PISAF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클레어라는 여자 주인공의 부모에게 사고가 발생해 우연히 클레어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큰 충격을 받은 클레어는 남동생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애쓴다. 자신을 입양 보낸 기관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고 그곳에서 민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어 후에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된다.

이 작품의 큰 장점은 만화로 되어 있어 주인공의 내적인 심경을 자세한 묘사 없이도 캐릭터의 표정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작가 자신이 입양아이기에 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흑백과 붉은색의 컬러를 작품 전체에 사용하여 암울한 느낌을 주기도 하여, 독자가 클레어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에서는 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여 트라우마가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자 아이작 목사, 다리를 절어 누구에게도 입양 가지 못해 결국 목사에게 입양된 민기,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을 입으며 브레이브 하트에 빠져 있는 남동생 등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진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담담하게 다루며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책의 추천대상에 일반 성인 외에도 청소년을 넣었다.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성과 감정에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이 만화가 조금이라도 미혼모, 입양과 입양아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타인의 세계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 열 살에 벨기에에 입양되어 스스로를 외계인 같다 표현하며 불안해 했던 작가는 자기 의심, 불안. 고통을 종이에 적고 휘갈기고 글로 써내고 연출하며 스스로의 길을 결국 만들어 낸다. 융 작가처럼 베이비박스를 읽는 독자들이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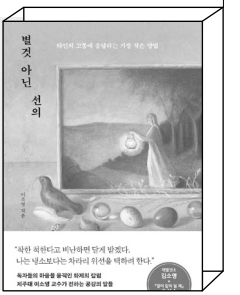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최다원 (포천시 가산도서관)

별것 아닌 선의

이소영 글 – 어크로스, 2021.

추천대상: 일반
#삶이 삭막하다고 느낄 때,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나는 냉소보다는 차라리 위선을 택하려 한다.' 띠지에 적힌 말 한 마디가 독자의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책이다. 저자는 대체 무슨 의도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소영의《별 것 아닌 선의》표지에는 동이 막 트려 하는 어둑한 산길에서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홀로 걷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책을 읽기 전엔 이 그림의 의미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이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건, 작은 희망조차 품기 힘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건네주는 작은 불빛 하나는 동이 다 트고 완전한 아침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환함보다 더 밝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책의 저자, 이소영 교수는 '선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거나 선함의 효용을 설파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라고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에피소드들에는 '선의'에 관한 정의나 개인적 판단을 담은 문장은 한 줄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썼던 일기들에 흔히 나올 법한, 아주 흔한 일상을 담고 있을 뿐이다. 특별한 점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깨달음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채 탑승한 택시에서 울음을 쏟고 있는 저자에게, 듣고 있던 시끄러운 음악을 끄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신 기사님과의 일화, 길거리에서 어미를 잃은 고양이를 맡아 키우게 됐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관계의 애착을 감내하기에는 여린 내면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애착에는 필연적으로 슬픔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관계를 맺기로 한 일화가 특히 인상 깊다.

《별것 아닌 선의》는 처세술에 관련된 그 어떤 책보다도 인간관계에 큰 깨달음을 준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일. 타인과 무작정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간격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일. 그런 일들이 모여 우리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존재들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소하고 작다는 것. 그건 우리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크거나 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다.

'나는 냉소보다는 차라리 위선을 택하려 한다.' 다시, 이 문장을 떠올려본다. 고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자칫 타인을 귀찮은 장애물처럼 느끼기 쉽고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잔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타인의 '별것 아닌 선의'에 다정한 시선을 건네야 한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한 발짝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그대가 책장을 넘기다 어느 구절에선가 자기 삶에 누군가 새겨 넣었던, 혹은 누군가의 삶에 자신이 선물해주었던 그런 반짝이는 한순간을 복기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9)*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은 독자가 삶에서 나 또는 누군가가

내민 작은 등불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러한 저자의 마음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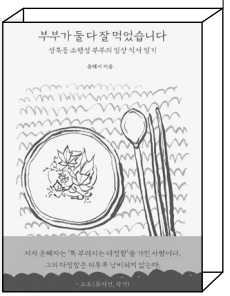
매일 매일의 식사 기록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

윤혜자 글 – 몽스북, 2023.

추천대상: 일반
#내일은 뭐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일상을 보고 싶은 이들에게



매일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외식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먹는다면 더욱 수고롭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벅차 식사를 거르거나 간편식으로 허기만 채우는 게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사진으로 기록까지 남겨 놓은 도서가 있다면 어떤가? 윤혜자의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는 남편이나 지인과 함께하거나 혼자 먹기도 한 일상의 한 끼를 소소하게 기록한 식사 일기이다.

윤혜자는 기자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출판 기획을 하면서 책 쓰기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저자의 요리하는 방식은 '제철의 것을 단순하고 간소하게 그러나 정성으로 차린다.'라고 한다.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에서 나오는 음식들도 화려하기보다 아담하면서도 정갈하다.

제철 재료를 사랑하고 조미료를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는 저자가 장을 직접 담그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장을

담가오고 있는 저자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하자 장이 잘 만들어지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마당이 있는 한옥 집에서 장을 담그고 있다. 물론 편하게 사먹을 수도 있지만 밥을 지어본 사람이 그 과정을 알고 맛있는 밥이 어떤 건지 알기에 장도 손수 만든다고 한다.

장을 담가 먹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장을 담그기 전과 후로 식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자신이 담근 장이 잘 익어 그 장으로 음식을 하기 시작하면 냉장고 포켓에 자리 잡고 있던 다국적 소스병들은 하나둘 줄어 들 것이다. 단순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에서는 끼니마다 새로 요리를 하고 밥을 짓는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이런 모습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힘으로 완성한 요리는 단출하게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온전한 한 끼임에는 틀림없다. 덧붙여 먹는 이에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건 덤이다.

또한, 저자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 각양각색의 채소 요리를 보는 재미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레몬 파스타, 시금치 사과 겉절이, 고수 무침, 애호박 달걀 덮밥 등 독자들이 '맛이 궁금한데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메뉴가 많다. 레시피가 첨부되어 있어 재료가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는 1년 동안의 식사가 나온다. 봄을 지나 겨울까지 쭉 이어진 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독자도 식구(食口)가 된 기분이 든다. 누군가와 밥 한 끼 먹고 싶은 날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의 일독을 권한다.

부의 증식은 부동산과 주식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부의 인문학

브라운 스톤(우석) 글 – 오픈마인드, 2020.

추천대상: 일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방법을 찾을 때,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사람들의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싶을 때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에, 전공자나 연구자가 아니면 이해나 해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 주려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쓰였다.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어쨌거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쳤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

이 책에 실린 내용만 잘 이해해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전망하는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며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브라운스톤은 성은 안 밝혔지만, 우석이라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이라 반가웠다. 우리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현상을 근거로 설명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했으며, 번역서와 달리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작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저서 《부의 본능》,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을 저술했다. 현재는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루어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화폐가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이다.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는 지출을 통해서 통화공급을 늘리게 되면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19로 2020~2021년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재난 기금을 나누어주었다. 재난 기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사업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작가는 대안으로 리얼머니를 보유하라고 한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이 우상향한다고 한다.

부동산은 대도시 위주인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식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하는 종목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다. 최근 10년간 미국 주가를 이끈 주도주가 FANG이라는 종목이다.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이다. 주식을 할 때는 빠른 생각보다는 느린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확률과 기댓값으로 주의 깊게 계산한 다음 투자하라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정세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 시장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는 이유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일 것이다. 노벨 경제학자의 검증된 경제 이론을 쉽게 풀어준 내용을 토대로 경제를 보는 혜안을 높여서, 우리의

미래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money rich, time rich, relationship rich가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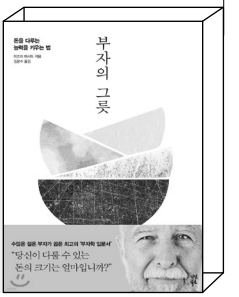
돈에 휘둘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법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부자의 그릇

아즈미 마사토 글, 김윤수 옮김 – 다산북스, 2020.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돈을 다루는 능력을 배우고 싶은 누구나



《부자의 그릇》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아카데미 주식회사의 대표로, 교육·IT·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다섯 개의 회사를 경영 중인 사업가이다. 파이낸셜아카데미는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스쿨을 모토로 경제신문을 읽는 법부터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 폭넓은 분야의 경제지식을 가르친다. 또한 그는 일본생애학습협의회가 인정한 머니 매니지먼트 검정시험을 만들고 경제 분야와 관련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본의 돈 교양 함양에 힘쓰고 있다.

그의 대표 저서인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을 빌린 경제경영의 교양서로 2015년 출간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꼭 읽어야 하는 부자학 입문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봉진, 청울림 유대열 대표, 하정우 배우 등 유명 인사와 40곳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사업에 실패하여 3억 원의 빚을 지고 공원을 방황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한 때는 연 매출 12억의 주먹밥 가게로 꽤 성공했던 사업가지만 현재는 자판기에 따뜻한 밀크티 한 잔도 사 먹을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때, 그에게 수수께끼 노인 한 명이 다가온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밀크티를 사 먹을 돈을 빌려주며 말을 건네게 되고 이를 시작으로 둘은 장장 7시간에 걸쳐 돈의 본질과 돈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되어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다루는 그릇이 작다면 결코 그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제대로 다루고 쓸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한다. 돈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큰돈이 모이며,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의 그릇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의 이름이 부자의 그릇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실질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돈을 불리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돈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독자가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지, 돈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등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다 보면 부자의 그릇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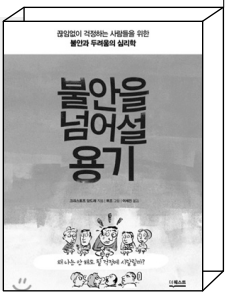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 바로 알기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불안을 넘어설 용기

크리스토프 앙드레 글, 뮈조 그림, 이세진 옮김 – 더 퀘스트, 2015.

추천대상: 일반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



영화 〈베테랑〉(2015)에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대사가 나온다. 영화에서는 이 말이 불의에 대하여 눈을 감으라는 부정적인 대사로 나오지만, 이 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불안을 대하는 자세이다. 우리 현대인들은 걱정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현대의 마케팅은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해서 생기는 이득보다는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피해와 부작용을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 이렇게 불안을 권하는 사회에서는 내 안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책《불안을 넘어설 용기》의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이다. 2006년《나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책으로 프랑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마음 주치의로 떠오른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오랜 의학공부와 임상을 바탕으로 인지행동치료 분과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이 불안에 대한 정의를 잘 습득하고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불안을 넘어설 용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 글만으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그림작가 뮈조의 만화와 함께 불안에 대한 에피소드 등을 함께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더 하는 것에 있다.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내 안의 불안과 마주보기'에서는 불안의 종류와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며, 2장 '타자는 지옥이다'에서는 사회불안을, 3장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서는 여러 가지 공포증에 대하여, 4장 '패닉!'에서는 불안발작,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에 대하여, 마지막 5장 '틱 앤드 톡'에서는 '집착, 강박증, 고정관념'에 관련된 불안증에 대한 설명과 해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는 불안의 원천은 내가 가지는 불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 의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지는 무지에 의한 불확실성의 공포를 확실한 해법이 있는 해결 가능한 문제로 만들어 우리의 불안을 극복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에 떠는 당신이라면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독일의 심리치료 전문가인 도리스 볼프의 《불안하다고 말해요, 괜찮으니까》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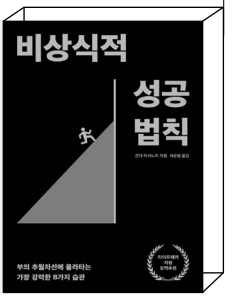
뻔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 글, 서승범 옮김 – 생각지도, 2022.

추천대상: 일반
#뻔한 성공담에 지친 사람에게



솔직히 자기계발서를 꽤 많이 읽었다.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읽은 것도 있지만 재미있어서 읽은 게 더 많은 것 같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자기계발서들이 많다. 많이 읽다 보니 내용이 다 비슷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읽는 걸 그만두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조금 특이하다. 자기계발서로 시작해서 뇌 과학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책이다. 다소 이상한 책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흥미가 생긴다. 어렵더라도 계속 읽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한번 꾹 참고 끝까지 읽어 보았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책도, 정신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책도 아니다. 조금 다른 차원을 건드리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행동을 제안한다.

첫째, 매일 밤 목표를 적는다

정말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인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목표를 적는 것 자체가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적는 과정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뇌가 계속 목표하는 바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다. 무의식중에도 목표를 향해 뇌를 일하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움직여야 일은 이루어진다. 성공으로 가는 장애물도 결국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해결되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적으라는 것이다.

둘째, 내가 바라는 셀프이미지를 구축한다

역시 이것도 뇌를 속이는 작업이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다면 내가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를 바꿔서 뇌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과일을 판다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가격으로는 대기업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가족의 건강 플래너'라는 셀프 이미지를 바꿔보는 것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단 과일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취급하면서 대기업과 경쟁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의 오디오를 듣는다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일을 시작해도 하다 보면 결국 지치기 마련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내가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면 더 그렇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성공한 사람의 오디오'를 들으면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뇌에다가 최면을 거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된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 자기계발서를 넘어 뇌 과학에도 관심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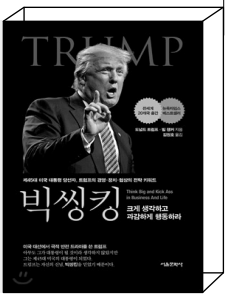
실수로 배운 교훈에 인내심을 더하면 성공!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빅씽킹

도널드 트럼프·빌 쟁커 글, 김원호 옮김 – 서울문화사. 2016.

추천대상: 일반
#삶의 질을 바꾸고 행복해지고자 할 때, 부자가 되고자 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연일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오랜 친구 빌 챙커로, '비즈니스와 삶에 큰 생각을 가져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 세계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위인 중 1인이었다. 그는 부동산 개발로 천문학적 수익을 만든 기업인이며 방송인이자, 현재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다. 1946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 사관학교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을 졸업한다. 아버지를 따라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었으나,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성공했다.

누구든 이미 이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중에게 보이는 모습은 다소 과장되고 강인한 모습이 혼합되어 희화화된 것이 있지만, 이 책을 읽어 가다 보면 성공한 기업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

공동 저자 빌 쟁커는 러닝 아넥스의 설립자이자 사장으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적었다. '빌 쟁커의 이야기'라는 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자칫 도서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놓칠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주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영리한 편집이라고 생각된다. 빌 쟁커는 오랫동안 많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오면서 그들만의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에 인내심을 더하면 성공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열정, 직관, 행운 등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키워드가 많지만,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되 될 때까지 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책 읽기가 어려우면 나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유명세가 있어서 책 읽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좋다, 싫다는 감정을 뒤로하고 그는 '어떤 생각으로 성공적 길을 걸었나' 등과 같은 생각을 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와 같은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6장이 좋았다.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는 격렬하게 맞서라'고 말하고 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해야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공격을 한다면 더 강하게 반격하여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부당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때론 부당한 사회에 부당함에 길들여져 부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한국 사회는 1980~90년도에 비해 많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다. 부당한 처우에 외로운 싸움을 한 작은 영웅들 덕분이라는 조촐한 덕담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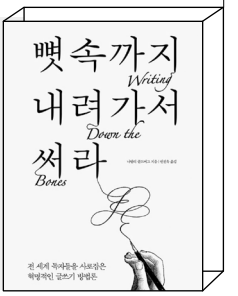
나탈리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뼛 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 골드버그 글, 권경희 옮김 – 한문화, 2018.

추천대상: 일반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인생이 시들해질 때, 열정과 치열함이 뭔지 알고 싶을 때



이 책은 권진욱이 2000년에 번역한 글을 읽길 권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해의 번역본이 나탈리 골드버그의 글쓰기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열열하게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쓴 글은 이 책 외에《구원으로서의 글쓰기》,《버리는 글쓰기》,《글쓰며 사는 삶》 등이 있으며 글의 내용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글쓰기에서 선과 명상의 구도로 이어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찰로 이어진다.

나탈리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연민의 힘을 키워가는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일깨운다. 또한, 글쓰기는 그녀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질기고 단단한 마음속 생각들을 부수어 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거기서부터 우러나온 글이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권한다.

독자는 책을 읽는 내내 그녀의 소소하지만 치열한 열정에 녹아들게 될 것이고,

계속 밑줄을 긋게 될 것이고, 그녀의 글 쓰는 방법을 따라 하고픈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열망을 세상에 풀어 놓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글을 쓸지어다. 그런 글쓰기 훈련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 나가게 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겹겹이 쌓여 있는 마음의 층을 벗겨 내어 진정 깨어 있는 정신으로 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고 요구한다.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으라는 말이다.

진짜로 글을 쓰고 싶은 독자라면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 전체로 이 책을 흡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는 데서 끝내지 말고 계속 쓰며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 나탈리에게 글을 쓴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이며 우리 자신을 더욱 높은 이해의 경지로 끌어 올릴 확실한 과정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글 중에 그녀의 선 스승 가타키리 선사와의 대화가 눈에 띈다. 일상생활에서 먼 듯한 현실 도피적인 도 닦는 이야기인가 싶어 외면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건드리는 선승의 말이 나탈리의 글을 더욱 단단하게 현실에 뿌리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깊숙이 명상 속으로, 선이란 구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도 관찰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녀의 글쓰기 방법과 열정을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세계관을 만나는 장이기도 하다. 내면의 영성이란 세계 속으로 입문하도록 만드는 이 책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진동과 잔향이 너무나 강력하다.

2023 우수작 서평교육부문

따라가야 할 길도, 따라야 할 표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천지영 (前화성시 늘봄이음터작은도서관)

사건

아니 에르노 글, 윤석헌 옮김 – 민음사, 2019.

추천 대상: 일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고 싶을 때
#'임신중절' 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하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참석하고 있는 독서모임에서는 올해 들어 역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있다. 4월에 읽었던 책은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오토 픽션(autofiction. 자전적 소설)'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여성작가 아니 에르노가 쓴 자전적 소설이자 에세이인 대표작《사건》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스물셋 대학생이자 작가 아니 에르노 그녀 자신이다. 1963년 10월부터 1964년 1월까지 임신을 깨닫고 임신 중절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생사를 넘나들었던 경험과 과정, 감정에 대해 담담하고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다 문득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1963년 그 차가웠던 겨울의 낙태 경험을 글로 써 내려간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취득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지방 하층 노동 계급에서 지식인이라는 한 단계 위의

계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을 꿈꾸던 그녀에게 '임신'이란 계급 이동의 방해물이었고 사회적으로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건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당연한 순서로 임신 중절을 택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학교도, 병원도, 가까운 지인도 도움은 주지 않았다. 대신 질책과 멸시, 호기심 어린 조롱만이 돌아왔다. 그 누구에게도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적 압박 속에 임신 중절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개인의 선택마저 사회는 억압했던 것이다. 이 암담함 속에서 그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같은 경험'을 했던 여인 한 명뿐이었다.

'낙태'라는 한 가지 키워드로 정의하기엔 이 책이 던지는 물음과 그 의미가 많다. 당대 사회의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가치관, 신분 계급에 따른 열등감과 무력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논의 등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점들이 이 얇은 책 한권에 생생하게 담겨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마주한 여자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감,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에서 오는 공포와 죄책감은 1960년대 겨울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하다.

올해 상반기 들어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 이유는 담담하지만 세밀하게 고백한 낙태 장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충격에서 나아가 주인공과 같은 일이 누군가에게 또 일어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쉽게 말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나,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여전히 여성 안에 실재한다.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소설은 그녀 스스로 '사회적 글쓰기'로 정의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작가기도 하며 계급과 성별에 따른 억압과 차별을 담은 작품을 주로 출간했다. 그녀의 고백은 감정적으로 호소되지도, 극적으로 치닫지도

않으며 예리하지만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기록되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아니 에르노가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자신의 경험의 묘사이기도 하면서 감춰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루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낙태', '성',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정의하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주제들이기에 더욱 많이 다양하게 읽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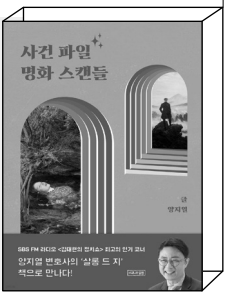
명화 속 숨은 이야기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양지열 글 – 이론과실천, 2023.

추천대상: 일반
#명화 속 이야기와 사회의 여러 사건을 엮어서 보여주는 그림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의 작가는 양지열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이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기 전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이사를 맡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법을 쉽게 전하고 싶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사건 사고를 명화로 풀어보는 코너를 하기도 했고, 「그림 읽는 변호사」와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로 《헌법 다시 읽기》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의 작품을 썼다고 한다.

이 작품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2부는 명화로 세상 읽기, 3부는 세상에 길을 물을 때, 4부는 한 폭의 그림은 한 편의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같이 사건은 벌어지고 그중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정치, 사회적 사건들도 있고, 소소하지만 관련된

이들에게는 큰 고민과 상처를 안기는 작은 사건들도 있다.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명화 작품 해설을 통해 독자에게 그의 마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작가가 그림을 해설하는 시선을 보면 그가 법으로 그리고 싶은 따뜻한 세상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화 속 숨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이 사회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작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를 풍부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명화 풀이로 독자에게 잔잔한 감동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명화 속 이야기를 통해 현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나 현실 등도 솔직한 감정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정치, 사회, 법 등의 이야기와 명화 이야기를 조합하여 어떤 어려운 주제여도 독자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문제와 명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작가는 명화에 담긴 당대에 벌어진 사건들을 읽어 내고 인간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현재 사회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고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옛것을 돌아보며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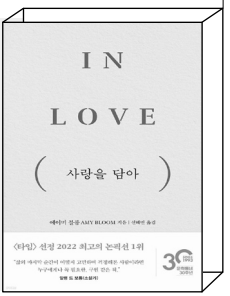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사랑을 담아

에이미 블룸 글, 신혜빈 옮김 – 문학동네, 2023.

추천대상: 일반
#안락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인간은 죽는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우리는 삶과 동시에 죽음을 생각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몽테뉴(1533~1592/르네상스 시기의 프랑스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 '양배추를 심고 있을 때 죽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내가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생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죽음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을 때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그의 말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평범한 중년의 부부가 여행길에 오른다. 목적지는 취리히.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녔던 그들이지만 이번 여행은 평소에 다녔던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이다. 픽업 서비스를 통해 공항에 도착해 소소한 물건을 쇼핑하고 간식을 나눠 먹는다. 평소에 자주 이용했던 이코노미석 대신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승무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유리잔에 담긴 음료로 서로를 위해 건배한다. 원래는 '첸타니'(이탈리아식

건배사로 '백년을 누리세')라고 하지만 이날은 잠시 망설이다가 '위하여'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여정은 천천히 취리히 외곽에 있는 디그니타스 사무실로 향한다.

《사랑을 담아》는 작가이자 심리치료사인 에이미 블룸(1953~)이 남편의 안락사를 도우러 취리히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남편인 브라이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알츠하이머병에 동반되는 '긴 작별'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까지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다. 의사는 몇 년 전부터 이 병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문득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생각난다. 늘 자신의 대본을 제일 먼저 읽어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녀의 대본을 읽어주지 않았던 것, 참여하던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하는 책도 진도가 나가지 못한 채 침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을 때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모든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한다. 그 마지막 여정은 철저하게 현실적이다. 아픈 남편 대신에 디그니타스의 까다로운 절차나 그가 떠난 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는 건 그녀의 몫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해낸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브라이언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일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작가처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인연이나 우리는 결국 헤어진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헤어지게 될까. 그때 헤어지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가는 매 순간 사랑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

잘 모르던 다음을 만드는 기술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사물에게 배웁니다

임진아 글 – 휴머니스트, 2020.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인
#일상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
#새로운 시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분

하루하루 다람쥐 챗바퀴 도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상에 긴장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늘어질 거라 예상되지만 실상은 보이는 것과 반대로 긴장의 연속이다. 긴장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일상이라 더욱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이든 학교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익숙함에 속아 긴장의 끈을 놓는 '어라? 이게 무슨 일이람' 싶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하루하루가 매일 같이 특별하고, 축제 같을 수만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든 인생이라는 길고 지난한 일상에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자신만의 반짝이는 무언가를 찾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을 쓴 임진아 작가는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소재를 발견하고 그 소재에서 작가가 발견한 반짝거리는 부분을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빵 고르듯 살고 싶다》라는 작품은 '어제를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날일지라도 오늘의 나에게는 오늘의 빵이 있다'라는 주제의 책으로 빵집에서 만난 수많은 종류의 빵 중에서

먹고 싶은 빵을 고르듯 평범한 일상 작은 순간, 선택들이 결국 내 삶의 방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의 단어》라는 작품에선 오늘(계절에)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고 그 단어에 얽힌 반려견 키키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반려견 키키를 인격화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아주 참신하다)

《사물에게 배웁니다》는 크고 작은 사물에서 시작된 44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작의, 생활을 키우는, 오늘의 나를 살리는, 행복이 담긴, 시간이 머무는, 우리를 위한 사물들로 총 6가지의 큰 주제 아래 어울리는 사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우리 주변에 놓인 사물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어쩌면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익숙하고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물을 통해 '나'와 '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말한다.

나와 혹은 타인과의 경험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소리 없이 말을 건네는 사물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이 없는 대상의 말을 듣고 배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생활의 단면이 조금씩 너그러워지는 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사물에게서 도움을 받고, 사물 안에 나의 이야기를 수납해 둔다는 사실을요.

사물을 지긋이 바라보면, 어쩌면 오늘의 나에 대해 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하루는 분명 좋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 텔레비전, 책상, 핸드폰, 수첩, 텀블러 등 나의 생활을 지탱하게 해 주는 사물들이 놓여 있다. 작가가 권유하듯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고 지겹다면 주변에 놓인 사물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발견을 통해 생활의 단상을 정리해 본다면 지루한 일상 속 기분 전환의 기술을 배워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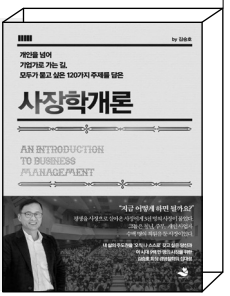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사장학개론

김승호 글 – 스노우폭스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사장의 하루는 매번 다른 하루이기에 매일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한다. -김승호

김승호 회장의 신간이 나왔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그는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영철학 모두를 10년여에 걸쳐 정리해 오고 있었다. 이번《사장학 개론》을 통해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다. 책에는 '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할 법한 화두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화두다. 저자는 내가 하는 일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매출 같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그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친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흥정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 주고 키워 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 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안의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 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 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 줬기에 김 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 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사장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난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서는 1인당 생산량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된 사무직에서는 정답이 없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생각은 이렇다. 그는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또한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분명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초기에는 힘들다고 직원들이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출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왜냐하면 사무직 일은 일의 양 못지않게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원 한 명이 한 달 내내 하던 일을, 새로운 신입 직원이 엑셀의 몇 가지 수식을 활용해 단 이틀 만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더 빨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답은 나왔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추가 고용할 사람이 스스로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경우뿐이다. 그런데 매출을 만들어 오는 건 사장이 직접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이익이 늘었을 때만 직원을 고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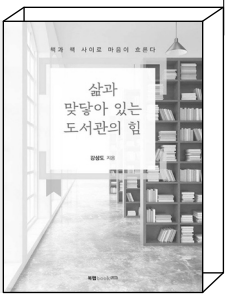
도서관과 사서를 사랑하게 하는 책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삶과 맞닿아 있는 도서관의 힘

강상도 글 – 북랩, 2021.

추천대상: 일반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서들에게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을 덮으면서 부끄럽고, 부러웠다. 도서관을 향한 저자의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도서관 사서로서 저자가 가지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보면서도 부러웠다. 이 책은 학교 도서관 사서의 체험기이자, 도서관 이용자로서 도서관의 선한 영향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삶과 독서, 삶과 도서관, 슬기로운 학교 도서관, 사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네 개의 꼭지로 나누어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는 이 책에는 도서관과 책에 대한 사랑과 사서로서 자부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도서관 사서가 읽어도 좋고,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가 읽어도 좋다.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곳"이라는 보르헤스의 말처럼 도서관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고 빠져 들었다'고 하는 저자가 놀라울 따름이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도서관이 가진 것들, 사서로서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저자에게 도서관은 '도서관만이 가진 문화의 정체성, 책과 공간이라는 무한한 가능성, 모으고 연결하는 곳, 문화가 흐르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장소, 삶에 대해 엉뚱하면서도 진지한 질문을 만들어 내는 물음과 답을 찾기 위한 과정들을 담아내고 풀어내는 곳'인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나는 얼마나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또, 사서의 역할도 생각해 보게 한다. 성장하는 유기체인 도서관 안에서 사서는 도서관이 매일 즐거운 여행의 장소가 되고 호기심의 끌림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치유의 공간, 기댈 수 있는 공간이요, 일상이 힘겹고 지칠 때 도서관을 찾았다는 저자는 도서관이 자신의 품격을 높여 주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도서관이야말로 사람이 만든 것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자가 멋지고 놀랍다.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일하면 편하다는 편견과 도서관 사서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시각에 마음 한 켠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았나 부끄러워진다.

저자는 이 책을 포함《책과 사람, 삶이 머문 공간》과《사서가 떠나는 책 여행》 등 모두 세 권의 책을 썼다. 도서관과 책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그의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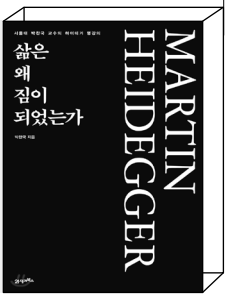
장미는 이유 없이 존재한다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박찬국 글 – 21세기북스, 2017.

추천대상: 일반인
#철학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
#삶의 이유와 권태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



고독사: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

예전부터 '고독사'라는 단어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했을 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고독사라는 단어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추가돼 '청년 고독사'라는 용어로 노인 고독사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청년 고독사의 절반에 가까운 원인은 병사가 아닌 자살에 의한 것이고, 한창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야 할 청년들에게 근 2년 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타격이 청년들의 자살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 한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라는 서명이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삶이 퍽퍽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나 삶이 너무 권태롭다고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짐' 때문이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권태와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비와 오락 등 자극적인 것에 탐닉하거나, 남의 흠을 들추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가십거리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삶을 영위해 나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삶 자체가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인 것이다. '짐' 즉 물질을 사들일 능력이 없어 타인보다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져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다. 저자는 이 시대를 '이성이 아닌 광기'가 지배하는 현상이라 말하고 있다.

장미는 이유 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피기 때문에 필 뿐이다. 장미는 그 자신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지도 묻지 않는다.

우리는 장미처럼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타인의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삶이 왜 짐처럼 느껴지는 건지'와 같은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철학적인 질문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순리대로라면 '생과사' 역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서 온전히 숨을 쉬고 있음을 느끼며 삶의 유한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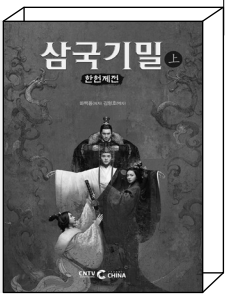
뒤꼍의 역사길에서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삼국기밀: 한헌제전

마보융 글, 김형호 옮김 – CNTV, 2019.

추천대상: 일반
#흥미롭게 역사를 읽어 나가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부단했으나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비하인드를 바라는 이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역사 읽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저자 마보융은 중국에서 '문학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를 주로 썼다. 그가 플롯에서 드러낸 생동감과 생기가 넘치는 이야기는 다채로운 시간을 영상화하기를 좋아하는 현대 시대에 몹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작품을 읽으면, 그가 낸 작품 대다수가 드라마화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 쓰인 문체는 짧으나 흡인력이 넘치며 반전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어 독자가 소설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게끔 한다. 더 간단히 말해 보자. 쉽고 간결한 문체로 대서사극을 완성해 내는 작가, 그러한 짧은 문장을 빗대 마보융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 기밀: 한헌제전》은 우리가 아는 삼국지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어진 이야기다. 조조가 황권을 손에 업고 허수아비처럼 황권을 제 수족으로 부리는 시대에 벌어진 인물의 생애를 조망한다. 우리가 흔히 삼국지를 읽을 때 우리는 삼국을 나눈 인물에게 주목한다. 당연하다. 그들은 주연이고, 맥을 잇는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사람은 그들이기에 그렇다. 우리는 천하를 세 개로 가른

세 영웅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인물은 어땠을까? 그들 또한 생과 시간과 사건이 존재하는 인간이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 초반부에 잠시 다뤄졌고, 이후 허수아비로 묘사된 이름뿐인 황제를 다룬다.

모든 인물은 주요 서사가 있다. 역사에서 조연이 살아온 시간을 드러내는 서사는 승자가 자기 위주로 고쳐 쓰고는 한다. 평이 엇갈릴 수 있는 사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리석게 묘사하고는 하는 것이다. 역사는 승자가 쓴 기록이라는데, 그러면 승자가 쓰지 않은 약자가 말하는 이야기는 어떠할까? 마보융은 약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려 준다.

조연이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조연은 조연대로의 행복이 있고, 고충이 있으며, 무수한 고민을 하며 시간을 살아간다. 역사라는 무대에서 조망되지 않은 조연이 말하는 이야기. 승자가 아닌 약자의 이야기. 역사 뒤꼍의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삼국 기밀: 한헌제전》은 역사에 흥미를 지니기 좋은 책이다. 마보융은 자신이 쓴 데뷔작을 '역사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소설이라 칭했다고 한다. 역사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서술하는 듯한 소설 묘사 방식이 그가 주로 소설을 쓰는 방식이다. 그는 역사적 사료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읽어 내고 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 내려간다고 한다. 이번 소설을 읽고 삼국지에 기반한 역사 소설에 흥미가 생겼다면 그가 참조했다는 역사적 사료를 읽는 것을 추천해 본다. '정사 삼국지' 시리즈를 추천한다.

삼국유사가 품은 우리의 식물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안진흥 글 – 지오북, 2023.

추천대상: 성인

#삼국유사의 아주 색다른 맛을 느껴 보고 싶은 분들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해 온 식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고승 일연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遺事), 즉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다. 이 책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 고대 역사서 중 가장 유명한 책으로, 《삼국사기》가 여러 사관에 의해 저술된 정사인 것과 대조적으로, 《삼국유사》는 일연 혼자의 손으로 저술된 이른바 야사이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의 표현이나 기록 방식이 역사서로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다른 보통의 역사서가 갖지 못하는 특장점이 있으니 바로 당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기록과 증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당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저자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삼국유사》 속에는 다양한 식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당대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식물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물며

대부분의 자재, 의약품, 식량 등을 식물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고대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데 식물의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오북 출판의《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점에 주목한 책이다.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고조선을 비롯한 삼국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각 식물에 관한 생태학적, 인문학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부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편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단군 신화'를 다루면서 쑥과 마늘의 한의학적 약리 효과를 설명해 준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먹는 마늘은 원산지가 이집트로서 11세기경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므로 당시 곰과 호랑이가 먹었다는 마늘은 우리나라의 자생종인 '산마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함께 곁들이는 식이다. 이외에도 밤, 대추, 산수유, 박달나무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물론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함께이다. 어렵지 않게 삼국유사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역사서인 동시에 식물 생태학 서적인 셈이다.

저자 안진흥 교수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식물분류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육상식물을 접하고 대학생들을 지도했다. 캐나다 요크대학교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위싱턴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11년간 재직하며 식물분자유전학의 근간이 되는 형질전환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300여 편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했으며, 분자생물학 분야 여러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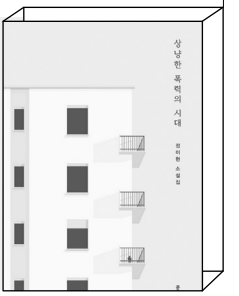
오늘도 '흔적 없는 상처'를 견디는 당신에게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정이현 글 – 문학과지성사, 2016.

추천대상: 일반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상냥한 폭력의 시대》의 작가 정이현(1972~)은 《낭만적 사랑과 사회》로 2002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후 《타인의 고독》으로 제5회 이효석 문학상을, 《삼풍백화점》으로 제51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정이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수성을 글에 잘 녹여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장편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는 대중성을 인정받아 SBS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재된 7개의 단편 모음집이다.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적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미소 없이 상냥하고 서늘하게 예의 바른 악수'를 하는 현대인의 위선과 허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야기들은 소설의 제목처럼 폭력적인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고 어디선가 신문 '사회면' 기사에서 읽었을 법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느낌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 첫 번째 이야기인 '미스조와 거북이와 나' 에서는 노후를 준비할 만큼의 돈은 아니지만 각종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그럭저럭 살 수 있는 벌이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 없는 마흔 살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는 고급양로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층 건물에 딱 하나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오랜 시간 기다린다. 그 외 6개나 있는 입주자용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데, 이유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예의 바른 포장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각각의 단편에서는 딱히 악의를 가진 사람도 없고 크게 상처받은 사람도 없지만 기분이 썩 개운하지 않은 장면이 계속 등장한다.

박이 그녀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었다. 그는 도우미에게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말년의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했듯이 타인에게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태도를 완성 시키는 방법은 오랫동안 몸에 밴 박의 습관처럼 보였고, 번번이 타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136)*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안나'였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은 정이현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전형적인 속물성의 인물이다. 경이 안나에게 느끼는 감정 -미묘한 우월감이 뒤섞인 위안과 입장이 뒤바뀌게 됐을 때 느끼는 불쾌감-은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경이었고, 안나였다.

작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이나 축소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단편집인 《오늘의 거짓말》(2007) 보다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마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듯이 일상 속에 스며든 현대인의 무심함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책 말미에 '친절하고 상냥한 표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닮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소설을 썼노라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웃음으로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처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폭력'에 '상냥함'이 필요한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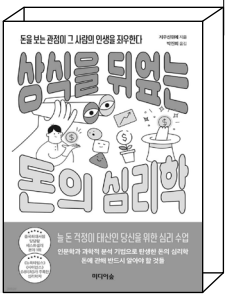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을 읽고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위에 글 – 미디어숲, 2023.

추천대상: 일반
#돈과 심리학의 관계가 궁금한 사람에게



다양한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번아웃이 오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뇌가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책을 읽고 싶어서 집어 든 책인데 생각보다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파고듭니다. 돈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심리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형태로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해부합니다.

이를테면 ‘쇼핑중독’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흔히 명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막무가내가 아닌 실제로 그 제품을 좋아해서 소비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을 파헤쳐 보면, 명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얻게 된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에는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돈에 감정이라는 태그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무생물인 돈에도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의 수술비를 모았는데 채 수술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돈만 보면 죽은 자식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족의 사망 이후 받은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 그런 경우를 봤던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사치품에 관심이 많다는 연구도 인상적입니다. 부자들은 차치하고라도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명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사치품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왜 가난함에도 명품을 구매해 더 빈곤해지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비싼 물건을 사는 행위는 곧 사회적 지위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치품과 명품에 더 집착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만 명품을 들고 다닌다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바로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소비는 사람들의 사치품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작은 허영심을 채워서로 마음속 보이지 않는 평가와 비교를 하게 만들어 무형의 상처를 내게끔 합니다. 빈부격차가 큰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 구매를 통해 '지위를 위한 소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함에도 명품 소비에 집착하다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돈과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연구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교양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심리학이라는 안경으로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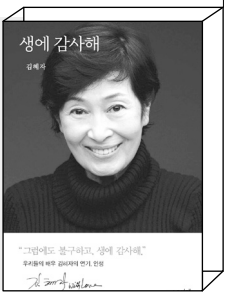
최고의 연기, 최선의 삶

이연수 (수원시 서수원도서관)

생에 감사해

김혜자 글 – 수오서재, 2022.

추천대상: 전연령
#쉬고 싶을 때,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표지에 환하게 웃고 있는 김혜자 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람이 웃을 때 진짜 웃는 것인지 웃는 척하려고 웃는 건인지를 알려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입꼬리가 올라갔어도 눈은 웃지 않는다면 그건 가식, 억지웃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혜자 씨의 눈은 따스하게 웃고 있다. 마치 옛날 그녀가 했던 광고 속에서 '그래 이 맛이야'하고 웃던 그 모습이다. 비록 김혜자 씨에게도 시간이 흘러 눈가의 주름은 보이지만 그 주름마저도 자연스럽다. 오히려 요즘 중장년 연예인들이 젊게 보이려고 의학의 힘을 빌어 시술한 모습이 가끔은 부담스러웠던 차에 세월을 그대로 보여 준 그녀의 주름은 보는 사람에게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처럼 편안해 보인다.

이 책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김혜자와 나눈 인터뷰와 일기,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와 인터뷰 기사 등을 토대로 편집자가 초고를 만들고 김혜자 씨가 다시 수정과 추가를 거친 내용이다. 책의 내용은 그녀의 가족 이야기, 그녀가 드라마, 영화, 연극 등을 출연하며 느낀 이야기, 같이 출연한 배우와 스태프, 작가들과의

기억을 풀어낸다. 그러면서 독자에게 작품에서 몰랐던 에피소드를 알게 하는 재미도 준다.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가 언급이 돼서 시간여행으로 돌아간 듯하며, '그때 난 뭐했더라?' 등 잠시 공상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알 만한 초중고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드라마, 영화 속 그녀는 늘 주인공만 맡았기에 모든 걸 다 가진 복 많은 여자 배우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저세상 사람이라 생각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라는 연예인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의 편견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 그리고 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배우가 되기 전 어린 시절부터 여고생, 대학생 그리고 결혼 후 신혼 때의 소소한 이야기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다. 또, 배우가 되어서 매 작품을 분석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위해 지독하게 몰입하여 자신의 아들로부터 '엄마 주위에 담이 쳐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니 그녀는 아내, 엄마보다는 배우로 더 열심히 산 듯하다.

그녀의 연기는 매작품마다 스틸컷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회자되곤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작품을 분석하고 수없이 연습하며 노력했을까?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뒤의 가족들도 소리 없이 많은 것을 감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니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마음이 찡해진다.

연예인이 쓴 글이라 어떤 이들은 연예인의 신변잡기 이야기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내용이 본인이 출연한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본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짝 흥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무대 속 연예인으로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목차의 첫 번째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를 시작으로 목차 마지막 '커튼콜 할 때까지'로 닫은 것도 배우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커튼콜이라는 순간이라 수미상관의 느낌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최고의 연기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독자에게 현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책을 다 읽고 나니 故 장영희 교수님의 저서《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생각난다. 이 책과 더불어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를 읽고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백승 글 – 알에이치코리아, 2023.

추천대상: 일반
#일본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에게

2023년 7월 31일. 엔화 환율이 900원이 무너졌다. 896원. 내가 경험하기로는 처음 보는 숫자였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여행 가기 좋겠는데……. 정도에서 생각이 머물렀겠지만, 요즘에는 이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일본에 투자할 기회. 엔화 환율이 900원대에 자산을 매입해서 엔화 환율이 1,000원으로만 회복하면 매입한 자산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10%가 넘는 수익이 난다. 그냥 산 가격 그대로만 팔고 나와도 된다는 뜻이다. 이런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

나의 이런 생각을 실제로 옮긴 사람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일본은 비행기로 두 시간 내외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차도 없다. 외국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제약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의 근간 자체가 비슷하다. 반면에 라틴어 문화권인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점은 있다. 일본은 단체보다 개인 생활을

선호한다든지, 개개인의 개성보다 획일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든지 하는 점은 분명히 다르긴 하다.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외모에서부터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다.

저자는 일본 투자에 앞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였는데, 야후 재팬과 네이버카페 '일본맘'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의 맘카페인 '일본맘'을 활용했다는 점에 저자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어차피 한국인인 저자가 일본인의 속마음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현지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한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저자가 일본 현지에 가서 임장하는 내용은 꽤나 흥미진진하다. 일본 서점에 가서 목적에 맞는 지도를 구입하고 한국에서 임장하는 것처럼 주요 업무지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어느 지역의 주택이 가장 가치가 높은지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저자의 투자성과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보다는 투자 목적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다. 미지의 세계인 일본의 부동산을 한국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여행하듯 그리고 모험하듯 하나하나 분석하고 결정해 나가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의 가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정보가 가득하다.

일본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꽤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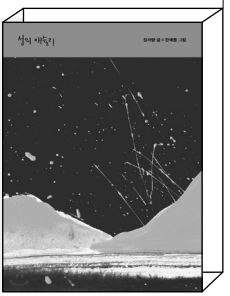
은은한 폭력에 대항하는 법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섬의 애슐리

정세랑 글, 한예롤 그림 – 미메시스, 2018.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짧지만 강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2030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소설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콜라보 「테이크아웃」은 간편히 들고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의 단편 소설 시리즈이다. 《섬의 애슐리》는 이 시리즈의 제1권으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분량의 책이다. 판타지와 SF, 순수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정세랑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책은 매우 재미가 있으며 몰입도가 큰 것이 특징이다. 글과 더불어 중간중간 그림이 있어 마치 어른을 위한 그림동화 같은 느낌이 든다. 한예롤 작가의 영감 넘치는 그림과 대상을 표현하는 신비로운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야기 세계로 진입하는 데 큰 몫을 한다.

이 소설은 외국의 어느 관광지에서 만난 '섬의 애슐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애슐리는 혼혈로 태어나 본토(육지)의 외모를 가졌는데 가족에게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존재다. 섬에 살지만, 원주민에게 속하지도 본토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은 어정쩡한 존재다. 그녀는 관광객을 상대로 전통춤을 추며 생계를 유지하는 단조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큰 재앙이 일어나 본토

사람들이 모두 섬으로 대피한다, 그리고 애슐리의 삶은 바뀌어 버린다.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녀는 오리엔탈리즘을 대변하게 되고, 비극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다.

사진작가 리가 애슐리를 스타로 만든 이유를 설명한 말이다.

애쉬는 모르죠? 저 바깥사람들은 애쉬의 얼굴에서 차별과 화해, 오리엔탈리즘과 세계 시민 의식, 물질적 가난과 정신적 해방, 비극과 희망을 읽어요. 당신이 딱이에요.

소설의 전개가 매우 스펙터클하고 배경이 이색적이라 이 짧은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작가는 책의 마지막 부분 인터뷰에서 '은은한 폭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렵게 껍질을 벗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라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 낸 기발한 이야기의 전개는 정말 매력적이다. 뜻밖의 재앙으로 본토 사람이 섬으로 몰리고, 섬에서만 살았던 그저 그런 애슐리가 사진작가의 사진 한 장으로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되는 구성에서 무한한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에 마구잡이로 희생당하는 애슐리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한예롤의 에너지 넘치는 그림과 함께 강렬하게 마음속에 새겨진다.

예측불허한 상황으로 독자들을 즐겁게 한 이 소설은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 애슐리가 절대 권력자인 아투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섬을 도망치듯 떠나 자신을 감추고 살다가 훗날 섬으로 돌아와 진실을 밝히려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결말 부분은 방대한 상황 전개에 비해 간결하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 진한 여운을 남긴다.

작가는 열대의 섬을 여행하다가 항해하던 선원 한 사람이 무표정하게 전통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관광 산업 종사자의 이야기를 가상 세계로 옮겨 보고 싶었다는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하여 독자들에게 전달될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자라난다.

챗gpt시대 언어는 더 중요해졌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세계의 말들

구로다 류노스케 글, 신견식 옮김 – 유유, 2023.

추천대상: 청소년-일반
#언어에 관심이 많은 분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인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줄리언 제인스는 '의식의 기원'에서 의식이 있다는 것은 '공간화', '유사 나', '언어를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었다. 인류는 언어를 가지게 되면서 의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언어는 인류문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특징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챗gpt 시대에도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해야 할까? 언어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예스'라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언어를 안다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특징들도 언어를 통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다.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서 화자의 정서나 뉘앙스의 다름에서 나오는 미묘한 표현 차이까지 이해하게 되면 문학을 이해하는 깊이 또한 남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그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은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치환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창조적인 능력인 것이다. 《세계의 말들》의 저자 구로다 류노스케는 자칭 언어 덕후이며 언어학자이며 러시아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한 옮긴이 신견식도 15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독하는 언어학자여서 책 내용과 번역에 매우 신뢰가 간다.

이 책은 마오리어, 벨라루스어, 에스키모어와 같이 생소한 언어부터 산스크리트어, 라틴어와 같이 지금은 쓰이지 않는 사어, 그리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와 같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까지 100가지의 언어에 대해 언어의 특징과 저자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 등을 서술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언어에 대한 저자의 사랑과 호기심이 잘 느껴진다. 심지어는 언어의 일반 법칙을 먼저 익히고 그것을 개별 언어에 적용하는 연역적 방법보다 수많은 개별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귀납적 방법이야말로 언어학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구체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책은 학술적인 성격의 책은 아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본인이 경험한 언어에 관한 에피소드들(대부분 언어를 공부하다가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에 관한 교양 상식(예를 들어 인도는 언어의 보고다, 베트남어에는 성조가 있다)을 서술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면 약간은 아쉬울 수 있다. 언어에 대해 깊은 지식을 익히기보다는 자기 비하를 잘하는 언어학자의 유쾌한 언어 공부 경험담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언어학에 관한 새 책이 드물게 나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책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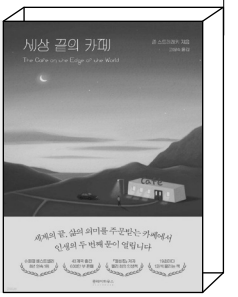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김보람 (파주시 교하도서관)

세상 끝의 카페

존 스트레레키 글, 고상숙 옮김 – 클레이하우스, 2023.

추천대상: 일반인
#가볍게 읽기 좋은 자기계발서를 찾는 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분



누구나 한 번쯤은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본 순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뭐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면 '딸각'하고 스위치가 켜지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와 같은 답이 없는 근원적인 질문을 쏟아내게 된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트레레키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책 속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일하며 많은 돈을 벌다가 서른세 살 때 인생을 바꿔 놓는 여행을 경험했다. 이 여행에서 작가는 자기 존재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았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게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지만 소설과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평소 자기계발서 특유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같다. 반대로 자기계발서 특유의 내용 전달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이다.

책 속 주인공 존이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길을 찾아 헤매다 외딴곳에서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게 된다. 카페의 메뉴는 평범했지만, 메뉴 다음 장엔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는 세 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주인공은 처음엔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여겨 생각하는 것조차 꺼렸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만난 종업원들과 이 황당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라고 시작된 질문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주인공이 깨달음에 다가갈수록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와 같이, 문장의 주어가 '당신'에서 '나'로 변화한다.

일단 마음먹은 일을 행동에 옮기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나니 담장 구멍을 통해 보이는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망설임이 없어졌다. 이제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 지금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이유를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는 저 문 넘어 다른 쪽에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유한함과 고귀함을 깨달은 사람은 한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책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가볍게 읽기는 좋으나 기대했던 이야기를 통한 울림을 얻기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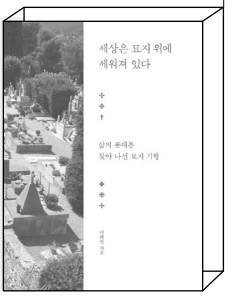
묘지 앞에서 온 몸으로 쓴 위인전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국내편)

이희인 글 – 바다출판사,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여행과 인문학, 역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때 묘지 앞에 감격하며 서 있던 적이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던 2013년, 책으로만 접했던 키에르케고어와 그의 연인 레기네 올센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감격하며 서 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묘지라는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와 같다.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국내편》의 저자 이희인 역시 묘지의 이런 성격에 주목한다. 이 책은 '우리 땅과 우리의 기억과 마음에 묻은 옛사람들의 묘택을 찾아 떠난' 묘지 기행이자, '조선 후기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정치인, 사상가, 예술가, 문인을 다루고 있는 근현대 인물사'이다. 저자는 책의 1부에서 5부에 걸쳐 정약용, 김정희, 유관순, 안중근, 윤동주, 전태일, 김수환 등 실학자, 독립운동가, 시인 성직자 등 우리에게 익숙한 70여 명의 인물들이 묻힌 묘지의 풍경과 그들의 삶의 족적을 그려내고 있다. '묘지'라는 독특한 키워드로 새로운 여행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 이 책은 2019년에 출간한 해외편에 이은 국내편이기도 하다.

묘지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통해 우리는 효율과 경쟁보다는 성찰하는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삶과 세상을 향한 저자의 따뜻한 마음은 이 책의 방향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무덤 안에 잠든 이들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고자 한' 저자의 노력과 '정작 중요한 가치들이 폄하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저자의 마음이 오롯이 책 속에 녹아 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 리영희도 백기완도…없다. 참 쓸쓸한 세상이다. 그리고 또 한 어른, 문익환도 없다."는 구절을 읽을 때에는 가슴이 왈칵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대의 어른이 없음을 안타까워한 저자는 묘지 탐방을 통해 지난 시대의 어른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었던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저자의 그리움을 담은 연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온몸으로 쓴 위인전'을 만든 저자의 정성과 성실함에 박수를 보낸다.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에는 산자가 망자에게 구해야 할 삶의 지혜와 가슴에 품어야 할 가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이 만족스럽다면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해외편》과 90여 개국을 다닌 여행작가로서 여행과 인문학을 접목한 《여행자의 독서 1·2》 등 저자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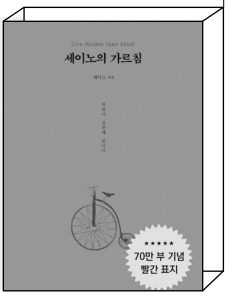
인생 선배의 날카로운 일침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글 – 데이원, 2023,

추천대상: 일반
#말랑말랑한 가짜들에게 질린 사람에게



정식 출간도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PDF 파일로 돌려보는 책이 있다. 그런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그 책은 조금 이상하다. 700페이지가 넘는 종이책이 만원도 안 한다. 저자는 모든 인세를 기부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한다.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바로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이 그렇다.

'세이노'라는 어느 자산가의 이야기가 2000년 초반에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지게 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강렬했고 '진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팬덤이 생기게 되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카페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거기에 세이노의 글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다가 PDF 파일로 만들어 돌려보기 시작하였고 공동 제본집까지 나오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결국 정식 출간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출간을 목적으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은 상당히 허술하고

가독성이 좋지도 않다. 요즘 나오는 세련된 편집을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 내려가면 된다. 형식보다 내용이다. 내용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저자의 글은 상당히 날카롭다. 잘못 만지면 베이기 쉬운 예리한 면도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챕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읽기도 힘이 든다. 50페이지 정도를 읽었다면 잠시 쉬었다 읽거나 다음날 읽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만만한 책은 아니다. 물론 내용이 약간 어렵기도 하다.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소양이 있으면 더 읽기가 편하다. 이를 테면 저자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 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 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 호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 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 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저자의 매우 직설적이면서 문제의 본질을 빗겨 가지 않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돋보인다. 인생 선배의 직설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은 이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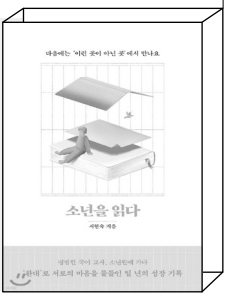
‘그곳’에서 만난 소년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소년을 읽다

서현숙 글 – 사계절,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책으로 말걸기’의 힘을 알고 싶은 모든 선생님과 사서분들에게



이 책은 일 년 동안 소년원에 파견되어 국어 수업을 진행했던 저자가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의 기록이다. 처음 소년원을 방문했던 날 저자는 소년원이 학교와 완벽하게 같은 구조라는 점과 마음의 온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소년원 특유의 냉기에 놀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이라는 형태의 사랑을 건네면서 동시에 일 년 동안 ‘나쁜 행동과 인간의 영혼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어떤 아이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어 준 사람이 되고, 책을 읽는 재미를 알려 준 사람이 되고, 작가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준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책읽기가 어려웠던 아이들이 시를 외우고, 단편소설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고, 초청 작가에게 질문을 퍼붓는 열혈독자가 된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은 저자가 건네는 간식, 작고 예쁜 스티커에 감사해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한다. 이것만 해도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생각거리를 건넨다. ‘이곳’이 소년원이기 때문이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인생은 재판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현재를 "바닥까지 추락한 시간"(24)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수시로 이별하게 될 학생들을 수업에 맞이하고 또 떠나보내면서 저자는 때로는 이별을 슬퍼하고, 수업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을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면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어른의 역할"을 맡는 저자의 모습은 한편 아이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일깨운다.

그곳에서 만난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와 동시에 시를 외울 때면 눈빛이 순해지는 존재이며, 자신이 읽은 책의 작가를 만나기 전에는 설레는 존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맥락을 지닌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저자는 소년원 이후의 아이들의 삶도 생각하고 염려한다. 다르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져도 바깥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안 좋아진 것뿐인 현실을 짚어 내면서 소년들이 '다르게 사는 것'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삶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는 작가의 말은 무척 공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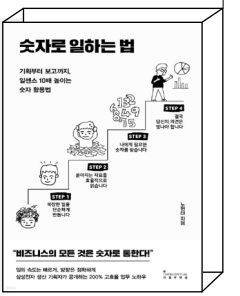
일센스=숫자 활용법

김가인 (시흥시 중앙도서관)

숫자로 일하는 법

노현태 글 – 인플루엔셜, 2022.

추천대상: 일반
#일의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직장인을 위해



《숫자로 일하는 법》에서 업무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숫자'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노현태 작가는 대학에서 정보시스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2007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메모리 제조 기술 센터에서 '생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에 정확성을 더하고, 객관성을 부여하며, 보고를 더욱 더 빛나게 해주는 숫자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라고 말한다. 저자는 후배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며 쌓아온 현장 실전 숫자 노하우를 이 도서를 통해서 공개했다.

이 도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듭니다-숫자 사고력'에서는 집중해야 할 문제와 숫자를 파악하고, 일의 핵심 요소와 숫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2장 '쏟아지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읽습니다-숫자 해석력'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복잡한 업무와 데이터는 통계로 정리하는 등 숫자의 해석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보여 준다.

3장 '나에게 필요한 숫자를 찾습니다-숫자 구성력'에서는 반복되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고 예상되는 것은 시나리오화하며, 일정은 역산해서 계획하는 등의 노하우를 알려 준다. 마지막 4장 '결국 당신의 의견은 빛나야 합니다-숫자 보고력'에서는 보고의 핵심 메시지는 숫자가 완성하며 그래프는 숫자를 전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보여 주며 숫자로 보고를 완성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핵심 메시지는 숫자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로 말하라는 것이다.

이 도서는 "두꺼운 보고서와 장황한 말 대신, 숫자로 일하라!"라고 한마디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을 고효율로 높여줄 '4가지 숫자 활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담당자가 해결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일 것이다.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일의 현 상황과 목표를 수치화하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해결 과정을 숫자를 활용하여 훨씬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효율을 내기 위해 1. 목표와 실적을 숫자로 표현하고, 2. 시간 순서대로 과거-현재-미래를 숫자로 표현하며, 3. 숫자로 비교해 표현하라는 등 실제 사례와 함께 숫자로 일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이해하기 쉽고 업무에 적용하기 편리하다 느껴진다. 저자처럼 일 잘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인 숫자, 우리도 '숫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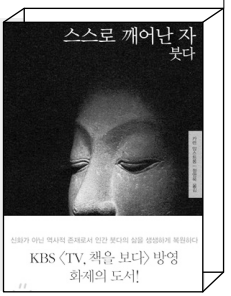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인간 싯다르타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글, 정영목 옮김 – 푸른숲, 2003.

추천대상: 일반
#불교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붓다에 대해 알고 싶은 분
#서양 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동양 종교 불교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의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권위 있는 종교학자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후반에 로마 가톨릭 수녀원에서 생활하다 7년 만에 환속했다. 수녀 시절부터 다니던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운명에 이끌리듯 종교학자로 거듭나게 된다. 종교학자로서 집필한 저서《축의 시대》,《신화의 역사》,《이슬람》,《신의 전쟁》 등은 대중과 지식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종교가 인류에 미치는 중요성과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의 핵심 가치인 공감과 연민(Compassion), 자비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의 본질과 가치에 다가서려 했던 삶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삶은 자서전《마음의 진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종교학을 학문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과 실천을 통해 다루어왔다. 이런 저자가 파악한 붓다, 즉 '고타마 싯다르타'는 어떤 모습일까.

'고타마 싯다르타'. 기원전 560년경 샤카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불교의 창시자. 카렌 암스트롱은 서문에서 "고타마는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구조에 새겨진 하나의 진리에 눈을 떴다고 믿었다. [중략] 삶의 괴로움 한가운데서 평화와 면역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타마는 붓다, 즉 '깨달은 자' 또는 '깨어난 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힌다. '붓다'는 깨달은 자를 통칭하는 단어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통상 부처, 석가모니, 세존이라고 부르는 인물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종교 창시자에 대한 모습은 단일성을 갖고 있지 않다. 종파의 교리와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창시자 싯다르타 또한 각자가 알고 있는 각양각색의 인물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종교 창시자는 숭배의 대상인 신적인 존재가 되기도, 전기(biography)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카렌 암스트롱은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한 인간으로서 붓다 '싯다르타'의 삶과 인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족한 객관적 증거 속에서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찾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를 다루려고 노력한다.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한 이러한 점은 특히 6개의 챕터(버림, 구도, 깨달음, 진리, 전도, 최후의 안식) 중 5번째 챕터 '전도'에서 빛을 발한다.

북방불교뿐 아니라 남방불교에서도 흔히 싯다르타는 홀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은 성인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깨달음을 증득한 뒤에 법을 설하며 무려 45년간 대중과 함께 섞여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카렌 암스트롱은 이 점을 지적하며 싯다르타의 설법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중과 함께 했던 싯다르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뿐 아니라 많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지론인 '종교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삶과 대중 속에서 경험되는 것'임을 고타마 싯다르타의 삶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일간지, 미디어 등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교와 붓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중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한 인간이었던 '고타마 싯다르타'를 알고 싶은 이, 서양 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동양 종교 불교의 이야기가 궁금한 모두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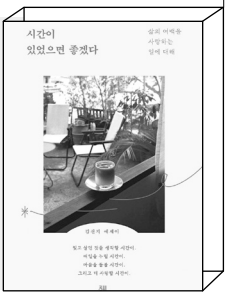
삶의 여백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신지 글 – 잠비, 2023.

추천대상: 일반, 직장인
#퇴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일상이 촉박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 '시간이 너무 없다' 등의 말을 흔히 내뱉는다. 그래서인지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면 시간 관리 책, 일 잘하는 책 등 자기 계발에 관한 책이 많다. 이 책의 서명은《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로 얼핏 보면 시간 관리 책일 것 같지만, '삶의 여백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라는 부제처럼 퇴사 후 시간을 선택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들로 채우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볼 용기가 생기는 글을 쓰고자 했다고 한다.

책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I에게 쓰는 편지'는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편지글로 시작하는 이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친구와 왜 연락도 안 하고 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엄마와 내가 친구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고치고 또 고쳤다는 저자의 글에 눈물이 글썽거려진다. 책 전반에 종종 저자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무뚝뚝하게 내비친다. 이 모습이 우리네 부모님 같아서 저자의 부모님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인숙 씨는 나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 너의 엄마가 되기도 한다. 신파를 종용하지는 않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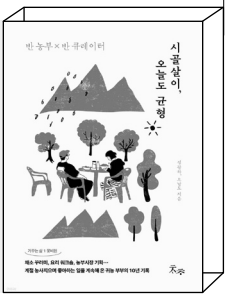
책의 후반부는 저자가 본인의 시간을 위해 퇴사한 후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 에피소드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좋은 조언이 될 것이다. 이후 나만의 "퇴킷" 리스트에 나오는 '신지 생일 평일 프로젝트'는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유쾌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저자의 이름과 같은 '신지도'에 퇴사 후 '생일'인 '평일'에 가서 여행한 이야기를 쓴 에피소드인데 이 글을 읽고 나면 한동안 저자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담백하면서도 편안하다는 점이다. 여행에세이처럼 어느 장소를 특정 시기에 다녀온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 때로는 혼자서 경험했던 일상의 기록이기에 독자 입장에서는 술술 넘어간다. 특히 책의 끝자락의 '자유를 손에 쥔 책 자신의 가능성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이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일상도 특별해진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라면 저자의 다른 책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게 취미》, 《평일도 인생이니깐》, 《오늘부터 300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등도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한다. 특히 공동 저자로 집필한 《요즘 사는 맛 2》는 저자 외에 유명 작가들의 푸드에세이가 펼쳐지니 이 에세이를 읽기 전 맛보기로 읽어 보면 좋을 듯하다.

흙과 식탁 사이에서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정광하·오남도 글 – 차츰,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삶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살고 싶을 때
#건강한 음식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궁금할 때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팍팍하게 지내다 문득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며 유유자적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혹은 동물복지 달걀, 유기농 채소, 농산물 꾸러미, GMO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의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규모의 경제가 장악한 농업 현실에 다품종소량생산을 신조로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는 멋진 농사꾼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던 정광하 씨와 서울 토박이지만 타샤 튜더처럼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었던 오남도 씨는 충남 논산으로 귀향해서 작은 과수원과 텃밭을 꾸린다. 과수원과 텃밭으로 시작된 부부의 세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파머스 마켓, 텃밭에서 얻은 식재료로 요리하는 식당, 제철 식재료의 다채로운 요리법을 선보이는 워크숍, 농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숙박 공간까지 계속 확대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은 농업의 순환 구조를 따르기 위해 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호르몬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원칙을 만들어서 지키고, 키친과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제철 농산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조화"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자연스럽게 얻은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규격화하기 위한 농사'가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을 해치고 있으며 자연·농업·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장과 식탁, 흙과 식탁의 거리가 가까운 게 사람들에게 뭐가 좋을까? [중략] 인간의 몸은 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건강한 땅이 낳은 산물을 우리 몸 안으로 들였을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중략] 땅과 식탁 사이에 다른 과정이 끼어들면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129)*

이 책은 초보 농부의 성장기이면서 현재의 농업에 대해 알려주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품고 있다. '얼굴 있는' 농부들, 주체적인 시골 생활, 농업의 순환 구조, 도시와 농촌의 연결, 건강한 식문화,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조화로운 삶.

이 책을 읽으면서《숲속의 자본주의자》를 떠올렸다. 엘리트로 살아왔던 저자가 앞만 보고 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일과 기쁨을 하나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을 읽으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 조화로운 삶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읽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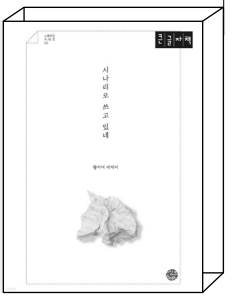
에세이가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는가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시나리오 쓰고 있네

황서미 글 – 씽크스마트, 2020.

추천대상: 일반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재밌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책이 무척 재미있다는 것이다. 에세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본 기억이 있었던가 싶다. 김유정의 《봄봄》을 읽은 이후로, 이 정도 급의 블랙 유머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우석훈 박사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탈모는 병이 아닙니다'라는 카피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네 번 이혼하고 다섯 번 결혼한 사람, 한때는 수녀원에도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람. 작가 황서미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아 엮은 글에는 유쾌한 웃음과 짠한 눈물이 공존한다. 웃기고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론 짠하기도 하다. 이렇게 아프고 속깊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묵직한 이야기지만 쉽게 동정을 구하지 않으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는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그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1장부터 6장까지 작가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와 수녀원에서 포도주를 몰래 훔쳐 먹었다가 쫓겨난 이야기, 아버지가 다른 가족

간에 겪어야 하는 자녀 갈등 등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작가 특유의 유머를 곁들여 우리에게 들려준다. 소주와 수면제를 먹고 자살 기도를 했지만 소변이 마려워서 '숨 쉰 채 발견'되었다는 식이다. 작가만의 유쾌하고 매력적인 글쓰기의 내공이 부러운 지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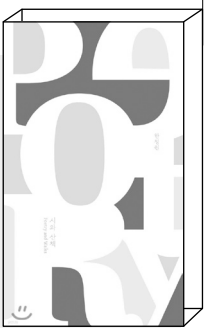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수녀원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녀들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더욱 흥미롭다. 수녀원에서 보내는 일상생활, 수박을 먹다가 다투는 수녀들의 모습, 몰래 화장실에서 뽀또 과자를 먹는 이야기, 포도주를 훔쳐 마시고 수녀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책을 읽으면서 배꼽을 잡게 한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웃음'이라는 우석훈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그마한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 면세점 에이전시 직원, 보험설계사, 프랜차이즈 닭 회사 수퍼바이저, 영어 유치원 선생님 등 작가가 살아온 다양한 이력을 들여다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이다. '재미난 글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친구의 정확한 식견대로 작가가 재미난 글로 돈을 많이 벌길 응원하게 된다.

1974년생인 황서미 작가는 몸도 마음도 알맞은 곳에 정착하여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며, 식당에서 혼밥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서울신문≫에서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무 걱정 없이, 오늘도 만두》가 있으며 곧 《이혼학교》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무엇도 하찮지 않음을 발견하게 하는, 시와 산책

김보라 (화성시 태안도서관)



시와 산책

한정원 글 – 시간의 흐름, 2020.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시와 산책을 즐기는 이들에게 #여행갈 때 챙겨가면 좋을 책
#필사하기 좋은 책 #산책과 관련된 글과 작가의 레퍼런스

〈커피와 담배〉, 〈담배와 영화〉, 〈영화와 시〉, 단어의 끝말을 이어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것들의 정체는 바로 책 제목이다. '말들의 흐름'이라는 한국 작가들의 에세이 연작을 내고 있는 출판사의 이름은 '시간의 흐름'이다. 두 개의 단어, 이전 책과 이어지는 제목을 정하고 각기 다른 작가가 쓰도록 기획하여 '말들'이 계속 '흐름'을 하도록 한 콘셉트이다. 《커피와 담배》에서 시작한 연작은 현재 《그림자와 새벽》까지 총 아홉 권이 되었다.

《시와 산책》은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시와 산책을 좋아하는 작가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있다. 이 책이 첫 책인 한정원 작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책에 담긴 소개로 작가가 오랜 시간 시를 읽고 써왔으며, 영화 연출과 연기 등 여러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면 몇 줄의 이력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가를 잘 알게 된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책은 총 스물다섯 개의 짧은 산문으로, 거기에는 산책에 관한 아름다운

단상으로 가득하다. '산책자는 걸을 때만큼은 자신의 '몸'보다 '몸이 아닌 것'에 시선을 둔다.'(155)는 문장은 책 속 작가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다. 산책의 과정에서 작가는 눈을 바라보거나 언 강가를 서성인다. 좋아하는 계절을 그리워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친구를 떠올리기도 한다. 작가의 '내가 보는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면과 상호작용을 하며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수많은 아름다운 문장이 되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우주, 산책, 시, 푸가, 영원, 바다, 겨울, 저녁, 회색, 고양이 등의 단어들이 등장한다. 대체로 차분한 이 책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또한 책의 초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용에 주목할 수 있다.

>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 겨울에 말을 타고 언 강 위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듬해 봄에 강이 풀리고 나자 그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강이 얼어갈 때 소리도 같이 얼어 봉인되었다가, 강이 풀릴 때 되살아난 것이다. 말도 사람도 진작에 사라졌지만, 그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소리가 남은 것.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 울컥할 만큼 좋았다.*** *(18)*

《시와 산책》을 읽다 보면 문장을 읽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공감각적 경험을 계속하게 된다. 작가의 글도 좋지만, 인생의 여러 면모를 다루는 유명 작가들의 시와 소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페소아, 릴케, 에밀리 디킨슨, 실비아 플라스, 로버트 발저 등 여러 작가들의 문장으로 글의 울림이 자꾸만 커진다.

'그 무엇도 하찮지 않다고 말하는 마음이 시'(24)라면 그 무엇도 하찮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산책일 것이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는 어느 때, 마침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에세이집을 들고 천천히 산책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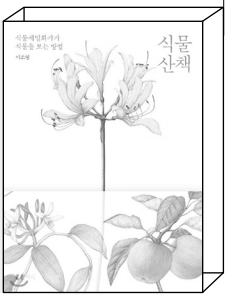
‘자세히 보는 것’의 아름다움을 담은 책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식물산책

이소영 글 – 글항아리, 2021.

추천대상: 청소년 및 성인
#식물세밀화 및 식물세밀화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전문이다. 시인은 풀꽃처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는 것, 오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래했다. 정말 그렇다. 꽃마리의 연청색 겉 꽃잎 안에 숨어있는 노오란 속 꽃잎의 앙증맞은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 있다. 바로 이소영 작가의《식물 산책》이다.

이소영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 세밀화가로,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국립수목원에서 식물학 세밀화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외 식물 연구 기관, 식물학자들과 협업해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식물, 주변에 있으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식물과 나》, 《식물의 책》 등이 있고 그림책 '바질락의 정원'을 감수하였다.

《식물 산책》은 이소영 작가의 이른바 식물 3부작의 하나로서, 식물 세밀화가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식물에 관한 생각을 아주 편안한 문체로 옮겨놓은 책이다. 식물을 그리고 연구하며 보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찾아가 본 여러 식물 관련 시설과, 야생의 품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식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한 기록이 담겨 있다.

생각해 보면 핸드폰 사진의 화소가 수천만을 넘겨, 말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실물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오늘날 과연 식물 세밀화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사랑과 관심'의 문제다. 찰나의 사진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식물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세밀화는 담을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식물 세밀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펴낸 이유도 결국엔 그러한 점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체 하나로 식물 한 종을 그릴 수 있을까? 식물 한 종을 그리려면 식물이 생육하는 전 과정에 걸쳐 뿌리와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등 모든 부위가 필요하고, 나무의 경우엔 수피, 겨울눈 등도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식물은 이 부위를 한번에 보여 주는 법이 없다. 초봄이면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기 시작해 잎이 나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겨울이면 겨울눈을 드러낸다. 한 장의 그림에는 식물의 이 긴 삶이 담긴다.

꽃잎 한 장, 잎맥 한 줄기를 허투루 보지 않고 들여다 보고 기록해 낸 작가의 진한 노력의 땀방울이 잔뜩 배어있는 책이다. 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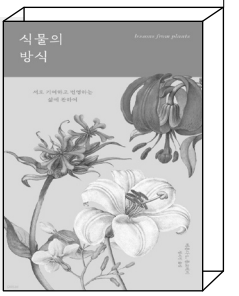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식물의 방식: 서로 기여하고 번영하는 삶에 관하여

베론다 L. 몽고메리 글, 정서진 옮김 – 이상북스, 2022.

추천대상: 일반
#식물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베란다가 있는 공간으로 이사하면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꽃 화분, 선인장을 구입해 키우고, 사과, 감 등 과일을 먹고 나면 씨앗을 심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사과, 감, 아보카도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식물의 생명력과 적응력에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답답하지는 않을까? 식물들도 생각을 할까? 등 식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

식물과 관련된 책들을 검색해 보다가 만난 게 이 책이다. 식물의 방식, '서로 기여하고 번영하는 삶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손바닥 크기만 한 작은 책이다. 저자는 미시간주립대학교 생화학, 분자 생물학과 미생물학, 분자유전학 부문 우수교수상을 받은 교수이며 저술가이다. 그래서인지 책이 학술적이지만은 않으면서 전달력 있게 잘 읽힌다. 이 책을 통해 식물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식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 식물은 정적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식물은 활기가 넘치고 창의적인

삶을 사는 능동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저자도 이 책의 목적을 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되 잠재적 편견은 완화하고, 식물의 지혜와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는 식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식물이 번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경쟁하고 협력하고, 이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대로 겹친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다양성의 호혜적 이익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자매 농법이다. 이 농법은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심는 경작법으로 북미 원주민 부족이 오랫동안 활용한 방식인데, 옥수수는 콩이 수직으로 자라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고, 콩은 모든 작물의 비료 역할을 하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제공한다. 땅 쪽으로 낮게 자라는 호박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해 다른 두 작물에 도움이 된다. 협력의 힘과 호혜적인 관계, 영양소나 자원의 순환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이 책은 식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면서 식물의 삶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추해 보게끔 한다. 프락치 아바스 티 교수는 '이 책에 담긴 통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명료하게 보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식물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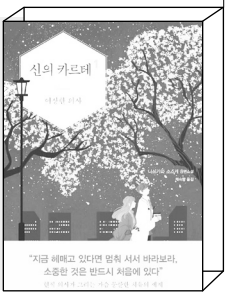
카르테에 담긴 이상한 의사의 기록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신의 카르테 1: 이상한 의사

나쓰카와 소스케 글 – 아르테, 2018.

추천대상: 일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



《신의 카르테》는 실제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레지던트 시절에 쓴 소설이다. 카르테(Karte)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신분과 증세를 기록하는 카드를 뜻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환자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인데, 이 병원은 '24시간 365일 진료'를 모토로 하고 있다.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밤에도 응급의사라는 명찰을 달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야만 한다. 거기다 주인공은 환자를 끌어당기는 의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독 야간에 근무할 때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런 과정 중에 벌어지는 다양한 환자들의 사연들과 주인공이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온타케소'라는 주택의 남작, 학사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1년 365일 내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반복되기에 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읽는 동안 무거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다. 주인공의 독특한 말투나 성격, 주변의 다양하고 특이한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유머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이번에 소개하는 1권은 주인공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 남을 것인지 대학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환자 중 아즈미라는 사람의 병세가 악화되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도와준다. 그 후 환자는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이 병원에 남기로 결정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으로 마법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발밑 흙덩이 아래, 처음부터 묻혀 있는 게 아닐까. 나에게 그것은 최첨단 의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즈미 씨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나아가 아내와 함께 이 발걸음을 계속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처럼, 이전부터 결론은 쭉 거기 있었던 것이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일수록 멈춰 서서 발밑을 쇠망치로 휘두르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거기서부터 소중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257)*

이 책은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서 병원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특히, 주인공이 나쓰메 소세키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쓰메 소세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에 관심이 생긴다면 주인공이 좋아하는 작품인《풀베개》를 같이 읽어 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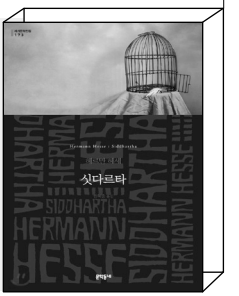
소설 싯다르타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싯다르타

헤르만 헤세 글, 권혁준 옮김 – 문학동네, 2018.

추천대상: 일반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를 더 깊게 알고 싶은 이
#동양 사상에 대한 흥미가 있는 이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는 1922년 소설《싯다르타》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헤세의 동양사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세계관, 그리고 섬세한 문체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데미안》,《수레바퀴 밑에서》와 같은 작품처럼 그는 주로 자전적 경험을 담은 성장소설을 써왔는데, 이 작품 역시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설《싯다르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내용의 특징으로, 소설 속 화자 '싯다르타'는 실존 인물인 고타마 싯다르타(부처의 이름)와는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된다. 작중 '싯다르타'는 구도의 길을 걷는 주인공이며, '고타마'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로 그려진다. 즉, 실존인물 고타마 싯다르타는 한 명이지만 소설에서는 '고타마'와 '싯다르타' 각각 다른 인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구도 과정이나 불교 사상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헤세의《싯다르타》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듯 보인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책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

책은 1부 4장, 2부 8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헤세는 각 장에 맞춰 싯다르타의 어린 시절부터 구도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싯다르타》의 명장면은 노년에 접어든 싯다르타가 친구인 바수데바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장면이다. 싯다르타는 자신이 애착했던 모든 것을 잃고 강물을 바라본다. 그런 그에게 바수데바는 강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그러자 강물은 싯다르타의 과거, 구도의 시간들,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보여 주고는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비가 되어 지상으로, 냇물로, 강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동시에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환희의 소리, 고통의 소리, 삶의 모든 소리를 들려준다.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그리움으로 애태우는 소리와 깨달은 자의 웃음소리, 분노의 외침과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소리가 서로 얽히고설켜 수천 겹으로 엉켜 있었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소리, 모든 목표, 모든 동경,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선과 악,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사건의 강을 이루었고, 삶의 음악을 이루었다.

마침내 싯다르타가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깨달음을 완성하는 장면을 헤세는 자신만의 섬세한 언어로 시적으로 표현해 냈다. 헤세는《싯다르타》를 집필하며 상당히 오랫동안 창작의 위기를 겪었다. 자신의 다른 작품들은 몇 주, 몇 달 만에 완성했지만《싯다르타》는 그러지 못했다. 이 작품의 완성을 앞두고 긴 슬럼프가 찾아왔고, 정신의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나서야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 일기에서 헤세는 '자신의 체험 부족으로 글을 마무리할 수 없었고, 일 년 정도의 자기 체험을 거치고 싯다르타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헤세 역시 '단일성'의 깨달음을 경험했던 것일까?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를 더 깊게 알고 싶은 이, 동양 사상에 대한

흥미가 있는 이에게 추천한다.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의 전기가 읽고 싶은 이에게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부처님의 생애(조계종출판사)》 등의 도서를 추천한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아! 팔레스타인

원혜진 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감수 – 바이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

역사 분야의 우스갯소리 중 하나로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절반은 영국 탓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계사에 있어 영국의 영향력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책의 이야기도 영국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늘 소개할 책《아! 팔레스타인》의 저자 원혜진은 한겨레 출판만화창작학교를 졸업하고《이어달리기》의 〈몸살〉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에 들어선 작가이다. 4년간「아! 팔레스타인」을 작업하며 만화작가로서의 삶에 큰 뜻을 두고 부천국제만화대상 어린이상을 수상하였다. 역사적 진실을 다루는 만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출간한 책으로는《책으로 집을 지은 악어》,《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등 다수가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저자로는 감수를 맡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를 계기로 형성된 시민단체로 그 당시 반전운동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반전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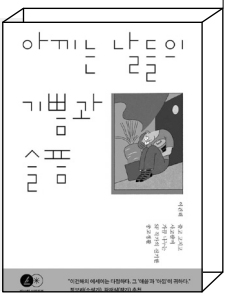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기모임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문제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 책의 내용에 대하여 신뢰도를 더해주고 있다.

칸 만화(cut comics)로 이루어진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책의 페이지는 각 192페이지로 동일하여, 읽는 데 큰 부담이 없다. 이 책은 2권 총 24개의 챕터를 통하여 팔레스타인 역사의 태동에서부터 예루살렘 분쟁 문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야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이야기 등 팔레스타인 땅의 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뉴스에 항상 나오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문제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지금껏 우리가 들어왔던 미국이나 유태인 학살의 원죄가 있는 유럽의 관점이 아닌 중동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마치 일본의 탈아입구론을 생각나게 할 만큼 무척이나 서구중심적이다. 지난 19세기 20세기의 경우 서구중심 사고가 일견 효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계가 다극화 되는 21세기에 이르러 이런 철 지난 서구 중심의 사고는 우리의 위치와 행동을 국제사회의 방관자 혹은 외톨이로 남게 할 공산이 크다. 서구중심의 시각에서 중동과 동양을 바라보는 대신 오늘 소개한 이 책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여러 책을 읽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에 대하여’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아끼는 날들의 기쁨과 슬픔

이건해 글 – 에이치비프레스, 2023.

추천대상: 일반
#물건 아껴쓰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
#중고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을때

중고거래에 관한 책입니다. 이건해 작가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써오며, 그중에는 수필, 영화 리뷰, 보드게임 리뷰, 매거진 칼럼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건해 작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해 작가는 오랫동안 중고거래를 해오면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고거래의 역사와 개념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중고거래의 장점과 단점, 팁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줍니다. 또한 중고거래의 유행과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며,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중고거래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건해 작가의 다양한 글쓰기 경험과 중고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이 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작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조언을 통해 중고거래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중고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은 작가의 글쓰기에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중고거래를 넘어서 물건 고치기, 합리적인 소비의 어려움, 물건 아껴 쓰기 등과 같은 현실에서 일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해 작가는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의 가치를 재고, 보관과 관리, 수리 등을 통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소비에 대한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물건을 고치고 아껴 사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작가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소비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유발하며, 독자들에게 소소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은 독자들에게 중고거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작가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고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소비와 물건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독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10회 브런치북 특별상 수상작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출간되었다는 것은 작가 이건해가 독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더욱 긴밀한 연결과 상호작용을 이루어낸 새로운 형태의 출판 경험을 제공하는 특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도 소비도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산은 왜 가?

김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아무튼, 산

장보영 글 – 코난북스, 2020.

추천대상: 청소년 및 성인
#등산에 대해 한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싶을 때!
#산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싶은 사람!

코로나 이후 등산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산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을 타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양하지만, 아무튼 산, 이라 외치는 장보영 작가는 왜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하는 것일까?

저자 장보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무엇인가 원하지만, 그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을 찾은 저자는 국내 산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고, 그 이후에는 산 관련 잡지사에 취업하는 덕업일치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트레일러너로 수많은 산을 뛰었다. 그렇게 많은 산을 누비고 나서 나온 책이 아무튼 산이다.

산의 입문부터 조금 거창하게는 히말라야 트레킹, 몽블랑 실패 후 교훈, 친근하게는 동네 뒷산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산은 다른 산을 기대하게 했다. 모퉁이를 돌면, 정상에 서면, 다른 산이 보였다. *(30)*

수 많은 산이 있는 것처럼 등산을 하는 이유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을 오르고 보니 다른 산이 궁금해지고, 그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산을 오르게 만든다고 한다. 그게 산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이유로 저자는 산을 기대하고, 다른 산이 보였던 것은 아닐까?

정상을 향한 마음으로는 산에 오를 수 없다. 그렇게 절박하게 오른 산에서 내려와야만 우리는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05)*

등산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시간의 성취감, 무념무상에 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 산을 오르곤 한다. 산을 오르고 나면 결국 내려와서 산에서 얻은 에너지와 성취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산은 결국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산에서 답을 찾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산에서 얻은 어떤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그대로 덮어둔 경우도 많다. *(112)*

어떤 날은 일상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산을 뚜벅뚜벅 걷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한다. 등산은 꼭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산을 타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타는 것이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에 대한 생각을 에세이기에 가볍다면 가볍게 써서,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산에는 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에서 답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이번 주말 아무튼 산을 읽고 등산의 매력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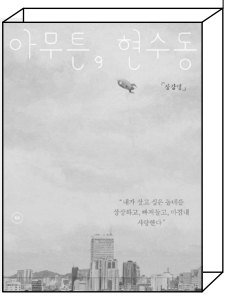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모습은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아무튼, 현수동

장강명 글 – 위고, 2023.

추천 대상: 일반
#광흥창역 일대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에게
#이사를 계획 중인 사람에게



지금껏 '아무튼'으로 시작하는 제목으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다. 소위 이 '아무튼 시리즈'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라는 모토로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단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이다. 장강명 작가는 그 대상으로 '현수동'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동네를 꼽았다. 그는 소설가적 상상력과 전직 기자다운 문제의식을 버무려 세상에 없던 '현수동 유니버스'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작가의 강점을 살린 독보적인 기획으로 《아무튼, 현수동》이 세상에 나왔다.

우선 현수동의 위치는 작가가 실제로 6년을 살았다는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이다. 이 광흥창역 일대에 대한 작가의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책을 읽다 보면 몰랐던 그 지역의 역사와 인물, 전설 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게 된다. 독자는 그렇게 현수동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느끼고, 현수동을 어렴풋이 상상해보며 '현수동'이라는 동네에 차츰 빠져들게 된다. 작가는 이념과 사상보다는 '골목'과 '거리'의 풍경에 집중하며 '살고 싶은' 동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현수동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동의 터가 되는 광흥창역 일대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교통과 상권, 도서관과 같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룬다.

현수동은 고유의 역사와 풍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모른 척하지 않으며, 괜찮은 집과 일자리가 겹쳐 있는 '직주일치' 마을이다. 사람들은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천천히 걸어 다니고 상인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만으로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있다. 말하자면 현수동은 현시대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치로 이루어진 동네이다. 가속, 편리성, 성장을 실천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작가도 이를 알지만 '건강한 저성장'이라는 궁극적인 이상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 비효율을 정당화시킬 가치가 발굴되길 바란다. 현수동은 대충 보면 평범한 척하는데, 그게 참 유별나고 희한한 동네이다. 결국 현수동은 사람으로 치면 좋은 의미의 '꼴통' 같아서 어디 더해봐라 싶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동네이다.

작가는 실제로 자신의 여러 소설에 '현수동'이라는 동네를 등장시켰다고 한다. 그간의 작품들에선 역사와 지리를 설명하고 소개했다는데, 앞으로의 소설에서도 이 책에서 못다 풀어낸 현수동의 모습이 비치길, 현수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작가만의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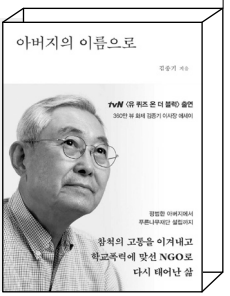
작은 씨앗으로 푸른나무를 세우는 삶

기성수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종기 글 – 은행나무,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전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한 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다. 그 아버지는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었다. 전부이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삶이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원통하기도 했을 것이고 절망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원통과 절망 대신 '푸른나무재단'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 사업을 하는 곳이다. 아들을 잃고 재단을 통해 또 다른 아들들을 돕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김종기의 《아버지의 이름으로》이다.

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책의 저자인 김종기는 어린 시절부터 불같은 성격으로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했고, 넓게 보되 계획은 치밀하게 세웠으며 작은 것도 세심하게 챙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 삼성 재직 중에도 그러한 '불광불급'의 정신으로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지금의 푸른나무 재단이 있었음을 이 책은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성과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시작 단계에서 저자는

큰 어려움과 절망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안일함과 무관심, 그리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관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자는 '단장의 아픔'으로 그 어려움과 극복의 시간을 표현한다. 아들을 잃고 내딘 걸음들은 인간이 잡아간 새끼를 쫓는 어미 원숭이의 심정이었다. 단장, 즉 배 속의 창자가 다 끊어질 것처럼 내달린 어미의 마음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부분은 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새끼를 쫓는 어미와 하인을 꾸짖어 새끼원숭이를 놓아주는 주인의 역할로 세상의 참 어른 역할을 하고자 함이 십분 느껴지기도 한다.

그 걸음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아팠겠지만, 우선 감사했다, 포기하지 않아 줘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인식의 교육을 행해줘서! 더는 아이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를….

또한 책을 읽으며 누구나 그랬겠지만 많은 눈물과 마음에 무언가 물음표와 나의 걸음들을 보게 했다.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들이 자꾸 잠식했다.

하지만, 강경숙 할머니의 말을 담은 내용에 나 또한 위로함을 받았다. "판검사만 있으면 살겠어요?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전기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죠. 공부 싫은 아이들도 세상에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귀하게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꼬옥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저자를 바라보며.. 난 나의 걸음을 걷는 것!

'작은 꽃씨 하나 떨어져 땅 위에 뒹굴다가

싹 틔우고 잎 내더니

어느덧 둥치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넓은 그늘을 드리웁니다.

이제는 푸른 숲- 온갖 새들이 자유롭게 우짖고 노니는 푸르른

숲을 꿈꿉니다.'

빨치산 아버지와 딸, 진정한 화해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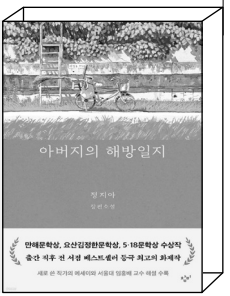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빨치산이라는 근대사를 진한 감동으로 느껴보고 싶을 때
#한국 근대사의 아픔과 이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세대들에게
#뒤늦은 아버지에 대한 소회와 감동이 필요할 때 #분단국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지아의 소설《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우리가 분단국가의 지난한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김유정 문학상, 심훈 문학 대상, 이효석 문학상 등 굵직한 상을 받은 작가로 책은 이념의 실체를 삶에 뭉근하게 묘사하며 역사의 상흔과 가족의 사랑을 엮어냈다.

소설이 30년 전 출간되었다면 판매 금지가 될 번했다. 도덕 교과서에서 반공 사상을 배운 세대에게 소설은 현대사의 아픈 질곡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책의 특징은 역사의 아픔인 '빨치산'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작가만의 필력으로 유쾌하게 창조해 내었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의 딸'로 힘들게 살아온 딸이 아버지 사후,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던 아버지를 추억하는 3일간은 생전 아버지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냉소주의자인 딸은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상처가 이해와 사랑으로 변한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231)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으로부터 알게 된 아버지는 남다른 사람이었다. 생면부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도맡아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보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사회정의를 위해 앞장서는 오지랖이 유난히 넓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평생 따라다니는 가난과 감시, 사회적 편견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빨갱이' 형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평생 원망하던 작은아버지는 형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대꾸도 없이 끊을 만큼 냉담하다. 작은아버지는 등장인물 중 가장 아이러니하고 연민을 품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내내 과연 장례식장에 그가 나타날 것인지 독자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자칭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베트남 여인, 열일곱 살 노란 머리 소녀 등 범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다.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는 걸까?' 조문객들이 추억하는 아버지를 만나며 의문을 품지만. 딸은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장례를 치르는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소설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마다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시종 유쾌 발랄하다. 식사를 담당하는 친척 아주머니들의 톡톡 튀는 대화, 평생의 동지이자 부부로 호흡을 맞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에피소드는 소설을 경쾌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 준다.

정지아 작가의 대단함은 작중 인물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딘가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인물들과 그들의 대화는 소설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마력을 가졌다. 특히 토속적인 사투리는 바로 앞에서 듣는 것처럼 실재적이다. 단지 젊은 독자층이 사투리의 내포된 함축적인 의미를 공감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된다.

소설은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도 아버지와 딸이라는 핏줄, 평생 투덕거리던 친구들과의 우정, 나이와 성별은 달라도 인간의 존엄은 변함없음을 매력적으로

시사한다. 한순간도 세상을 가볍게 살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빨치산의 딸로 손가락질당하는 삶을 살아온 주인공은 진정한 화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설은 묘한 긴장감과 무거움이 전제하기 마련인데 재밌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소설은 드물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돋보인다. 외골수 인간을 아버지로 둔 딸의 담담한 서사가 마음을 울리면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이 소설을 전후세대는 물론 이념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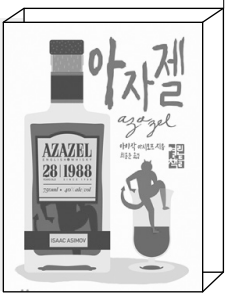
아자젤

이정인 (화성시 목동이음터도서관)

아자젤

아이작 아시모프 글, 최용준 옮김 – 열린책들, 2015.

추천대상: 일반
#단편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설화, 탈무드, 민담을 좋아하는 사람



만약,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악마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안타깝게도 이 작은 악마는 요술램프 속 요정 지니가 아니어서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자신의 크기만큼 제약이 있지만 말이다. 아자젤은 작가 아시모프가 알게 된 조지와 그와 함께한다는 2센치가 안되는 주머니 속 작은 악마 '아자젤'의 이야기들이 담긴 18가지의 단편집으로 작가인 아시모프는 소설 속 화자이자 등장인물로서 우연히 알게 된 조지가 악마 아자젤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사를 마치는 것이 매 단편들의 주요 패턴이다.

아자젤은 성경 속 악마이면서 타락천사인 아자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소설 속에서도 다른 차원의 독특한 존재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는 전능하지 못한 힘과 사람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맞물려서 소원은 항상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만다.

아자젤의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작가이자, 화학박사, 교수로 SF의 거장이라고 불리운다. 영화로도 개봉했던 바이센테니얼맨을 썼고, SF소설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로봇3원칙과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다. 소설이 쓰여졌던 1980년대의 기준으로 창의력이 톡톡 튀는 짧은 단편들의 모음인 아자젤은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일종의 전래동화, 설화집, 민담같아 보인다. 서양 민담이니 일종의 탈무드라 비유할 수 있겠다. SF소설을 주로 쓰는 과학자답게 아자젤에서 악마 아자젤은 소원을 들어주는 환상적인 다른 차원의 존재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갇혀서 소원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못하게 되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결말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된다. 작가는 이 구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은 얼마나 속물적인 모습을 하고있는지 풍자하여 표현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해내는 판타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받고 내 삶의 모습을 상승시키고 싶은 욕망은 고대 시대부터 있어왔다. 아주 옛날에는 산신령이 그 소원을 들어줬고 그 후에는 사또가, 최근에는 도라에몽이나, 드래곤볼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런 소원들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고, 항상 탐욕에는 끝이 있는 법. 남의 손해를 불러오는 소원들은 항상 벌을 받게 되어있다. 트렌디한 소설을 찾다가 고전적인 소설의 매력에 빠진 저처럼 이 책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겠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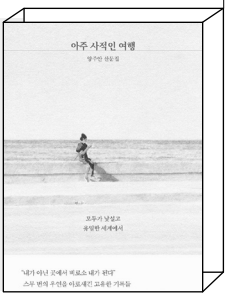
누구나 자기만의 여행을 찾아간다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아주 사적인 여행

양주안 글 – 알에이치코리아, 2023.

추천대상: 일반
#자신만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테마로 하는 에세이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기도 있고, 여행 관련 팁들을 포함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들도 있다. 양주안 작가가 자신의 첫 책으로《아주 사적인 여행》을 쓰기로 작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여행기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호기심과 더불어 무수한 질문을 안고 책을 펼쳤다.

이 책은 작가가 여행을 시작한 아주 사적인 이유, 관찰자로서의 시선, 여행 후의 다짐, 3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서술되고 있다. ARTTRAVEL(아트트래블) 소속 에디터로 활동했던 경력과 창작집단 UNLOOK(언룩)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이력이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각자의 삶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누군가는 고통을 잊고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혹은 잊고 싶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서, 어쩌면 무언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작가는 '여행은 미움이 없는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로 데려다줄 것이다.'(27)라고 말한다. 공항에, 터미널에,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믿음에 한껏 기대어 보곤 한다. 희망은 오롯이 꿈꾸는 자의 것이니까.

'여행'이란 유명한 장소를 섭렵하고 음식에 탐닉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찰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디폴트 값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 작가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사이사이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사랑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아름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숱한 사랑의 모양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다.'(71)라고 사랑의 다양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또다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다. 30대 중반을 통과하고 있는 작가는, 남은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하루하루 상처를 안고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응원의 목소리로서 이 챕터를 헌사한 듯 보인다.

죽은 것과 죽지 않은 것, 실패와 성공, 통과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 사이에서 옅은 쪽에 서 있다면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줄만 알았다. 어쩌면 그 경계가 한 끗 차이일지도 모르는데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숱한 오역과 오해 속에 살았다.

최지인 시인은 추천사에서 '조그만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자는 작은 다짐들이 모이면 제법 괜찮은 다짐으로 점철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독자들은 이 책이 가진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가는 여행의 '장소'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여행기를 써 내려갔다는 점이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내밀한 대화, 그들과 주고받은 눈빛과 체온이 이 책의 맥락을 만들었다. 작가는 삶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경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글이 보이는 노래를 부르는 음악인(이승윤),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슬퍼하는 시인(최지인)이 이 책에 보내는 애정과 신뢰는, 문장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아내는 작가(양주안)가 세상에 진 빚들을 찬란한 빛이 되어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이슬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김설 글 – 위고, 2022.

추천대상: 일반
#가깝거나 먼 사람의 죽음으로 힘든 이들에게
#죽음과 남겨짐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이들에게

사별, 죽어서 이별이라는 뜻의 사별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자살사별이라면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최근 유명 아이돌의 자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살 관련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0대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이들의 자살로 또는 유명한 이들의 자살로 자살사별자가 된 수많은 사람의 슬픔과 허무함을 한 사별자의 경험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아직 이 죽음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는 오빠의 자살로 자살 유가족이 된 여동생의 애도 일지입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은퇴 기념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서 오빠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오빠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책감에 글을 썼다는 저자. 저자의 애도 일지에는 아들, 오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달라진,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과 과로 자살로 먼저 떠난 오빠에 대한 미움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빠가 떠난 뒤 나는 막막했다. 남겨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자살, 죽음 그리고 이별에 대해 닥치는 대로 검색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우리 가족에게 장례 절차를 그야말로 착착 지도해주던 장례 지도사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책에 매달렸다.

애도 일지가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김형경 작가의《좋은 이별》에서 읽고, 저자는 매일 애도 일기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작가의 용기와 배려가 담긴 책입니다.

자살하기 전 적어도 3개월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죽 이어져 온 과로가 없었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과 회사가 오빠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렸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직장 내 사건이 터지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회피하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과로 자살 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생각 끝에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 기업 앞에서 노동자는 한낱 개인에 불과합니다. 저자는 기업과의 긴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 또 한 번 산재 신청을 포기합니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어도 초과근무는 계속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과로 자살도 여전합니다. 성실한 노동자의 결말이 죽음인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로 모아놓은 위고 출판사의《점선면 시리즈》를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점선면 시리즈 1,《다시 내가 되는 길에서》는 학교 안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초등교사가 사회적 폭력으로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써온 4년의 회복 기록을 담았습니다. 시리즈 3,《엄살원》은 진단명이 없는 아픈 사람들에게 비건 밥상을 먹여 돌려보내는 의원으로 초대되는 손님들은 여성, 장애인, 성노동자, 동물, 빈민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는 활동가입니다. 이 책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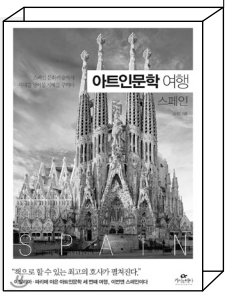
‘돈키호테들’과 떠나는 스페인 예술여행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아트인문학 여행: 스페인

김태진 글 – 카시오페아, 2019.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스페인의 예술과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알고 싶을 때
#조금 특별한 스페인 여행을 계획할 때



‘아트 인문학 여행’, 즉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여행을 결합한 도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술가의 눈을 빌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아트’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진지함을 체험하는 ‘인문학’, 여기에 일상을 벗어난 ‘여행’을 결합해서 현실을 낯설게 보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트인문학 여행》 시리즈 중 〈스페인〉 편을 소개합니다.

‘스페인’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등의 도시, 가우디와 성가족성당, 투우, 플라멩코, 그리고 열정적인 축구 사랑 등이겠지요? 혹시 ‘돈키호테’를 떠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평가받는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1605년 발표한 소설로, 바로 스페인 라만차 지방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오페라 · 영화 · 뮤지컬 등 여러 장르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을 스페인답게 만든 위대한 ‘돈키호테’ 들을 찾아가는 스페인 문화예술 답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김태진은 서양미술의 역사를 독창적 시각으로 다룬 작가이자 강연가로 서울시립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를 시작으로 중부 톨레도, 마드리드, 동북부의 바르셀로나, 피게레스 등 다섯 곳을 여행하며 스페인의 역사 속 인물과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5세기 무렵 스페인 제국의 번영과 이후의 쇠퇴기,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예술의 중흥기를 진지하면서도 흡인력 있게 들려줍니다. 스페인의 예술문화 사진, 그림 도판, 답사 사진 등이 풍부하게 실려있어 직접 여행하는 듯 현장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을 만들어낸 '돈키호테'와 더불어 그의 짝꿍 '산초'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지역 각각의 대표 인물인 이사벨 1세와 콜럼버스, 펠리페 2세와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와 고야, 가우디와 구엘, 달리와 갈라 등이 그들입니다. 책 속에서 그들은 열정적인 기사 돈키호테, 또는 실용주의자 산초가 되어 역사를 살아가고, 덕분에 우리는 스페인 문화예술을 입체적으로 조망해서 보게 됩니다.

"스페인 문화예술에서 시대를 넘어설 지혜를 구하다."라는 부제대로, 스페인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해주는, 스페인의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역사가 조화롭게 버무려진 책입니다. 스페인으로 여행 떠나기 전과 후, 스페인의 미술과 역사를 알고 싶을 때, 치열하게 살다 간 스페인의 돈키호테들을 꼭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글, 권아리 그림 – 스노우폭스북스, 2017.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중용과 행복을 알고자 할 때
#잘사는 길은 부가 있을 때나 없을 때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알고 실현해 가는것임을 깨닫고자 할 때.

자전거는 정지하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며,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되며, 변화하지 않는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가지면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하고 소통한다. *(194~195)*

위 인용문은 이 책의 전체를 소개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책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앞에 적어 보았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란 책은 성공한 경영자이자 작가인 김승호의 회사를 키워낸 경영비법이나 돈버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는 책인줄 알았으나 실상은 인생 경영 및 인생훈에 가까운 인생철학서이다.

작가 김승호(1964~)는 경영자의 경영자로 사업가들의 스승 사업가이다. 소유한 사업체와 투자중인 8개 기업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가난한 이민세대로 성공한 사람이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SNOWFOX GROUP의 회장이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실패를 거듭했으나

2005년, 6억 원에 분납 조건 OWNER FINANCING으로 식당 체인을 인수한 후,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총매출 1조 원을 이루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스노우폭스는 외식 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전 세계 11개국, 총 3000여 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10,000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했다.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과정 교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7년 동안 한국 사장학교를 통해 3,00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는《자기경영 노트》,《김밥 파는 CEO》,《생각의 비밀》과 2023년 4월 300쇄를 돌파한《돈의 속성》등 다수의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다.

책의 내용상 주옥같은 글이 참으로 많으나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단락이 있었다.(이 서평을 읽을 독자들도 분명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는 단락이 한두 개 정도는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쓴 글이며, 누구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되어 휘발성으로 날아갔을 지혜를 다시 일깨워 주는 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중용'의 덕목이 중요하다 하여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동양철학의 특징은 한자의 숨은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내용은 더욱 철학적이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애써 실천적 덕목을 따라야 하는 동양 철학을 찾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서 삶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중용인지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취하는 이념적 중도를 고수하는 건 중용이 아니다.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분배의 불균형이 생길 때 진보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나라가 평화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 때 보수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자산의 원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는 긴축 지출이 중용이다. 경기 성장률이 높고 호경기라면 투자 확대가 중용이다. [중략] 중용은 때를 알고 알맞게 행동함을 뜻한다.'

(354~355)

때와 맞물려 사회와 기업 및 개인의 삶에 균형을 맞추다 보면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하거나 변절자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힘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노력이라고 정당성을 부여 받는 기분이었다. 이렇듯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낯선 골목을 걷다가 귀한 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이 이해의 확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짧은 소개 서평을 읽었을 독자들도 본선으로 입장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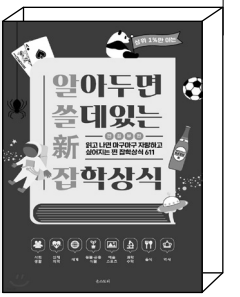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더 좋은 상식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新 잡학상식

온스토리 편집부 글 – 온스토리, 2020.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쉽게 교양이나 상식을 쌓고 싶을 때
#대화의 화제를 풍성히 하고 싶다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시작하고 싶다면



한 분야의 지식을 깊게 알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폭넓은 지식을 두루 갖춘 교양인이 있다. 전자의 경우 많은 시간 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아 어느 장소 누구와 만나도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매력적인 대화의 기술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상식과 교양을 갖추는게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 있다. 온스토리에서 펴낸 《알아두면 쓸 데 있는 新 잡학상식》이다. 이 책은 크게 사회·생활, 신체·의학, 세계, 동물·곤충·식물, 예술·스포츠, 과학·수학, 음식, 역사 8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맞는 흥미로운 상식들을 엄선하여 정리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알아야 하는 정보와 지식은 넘쳐난다. 잠시 한눈팔고 있는 사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한물간 고물이 되어 있다. 평생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함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양조차 쌓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긴 글이나 어려운 인문교양서로 지식을 채우기에

부담스러운 독서 입문자라면 짧고 핵심적인 각 분야의 토막 상식을 알아가며 관심 분야를 좀 더 파헤치는 독서습관을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부담 없이 한 장 한 장 넘겨나갈수록 생활, 문화,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상식의 고리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춰지고, 그로 인해 앎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운전석은 왜 왼쪽일까?

7-SEVEN ELEVEn의 마지막 n은 왜 소문자일까?

결혼반지는 왜 약지에 낄까?

맥도날드의 상징인 M은 무엇을 상징할까?

피곤하면 왜 눈이 충혈될까?

미국 달러는 왜 녹색일까?"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이란 없다. 가볍게 보이는 상식이더라도 알아두면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커진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일부러 책상에 앉아 독서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좋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 안에 넣어 놓았다가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알쓸신잡', '알쓸별잡'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같은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다. 틈틈이 생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와 같은 상식은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고 독자들을 반짝이는 뇌섹남, 뇌섹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또한,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던 주제라도 조금씩 넘기다 보면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호기심의 출발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소에 책을 좋아하지 않던 청소년에게 넌지시 건네줘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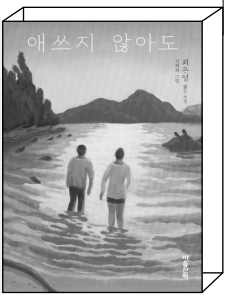
시절인연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글 – 마음산책, 2022.

추천대상: 성인
#짧은 단편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최은영 작가의 전작들《쇼코의 미소》,《내게 무해한 사람》,《밝은 밤》은 순수하고 맑은 서사로 진행되었다. 이런 전작들과는 달리 짧은 단편집인《애쓰지 않아도》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쉽게 놓칠 수 있는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다. 사람간의 미묘한 관계들, 부주의하게 흘려보냈던 행동과 말들로 인한 관계의 비틀림을 담아 어긋난 관계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총 14편의 단편 중《호시절》은 어릴 적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네 서경 언니네와의 일화이다. 어린 시절 고기를 먹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고기 먹기를 강요하고, 전라도라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민성이 아주머니를 피하라고 하는 등,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강요당했던 시절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개장국을 숟가락으로 떠먹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보며 소리 내어 웃던 아저씨,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던 서경 언니와 혹여나 내가 이 일에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날,

나는 그 한 그릇을 다 먹으면서도 울지 않았다.

그때 참 살기 좋지 않았니?

엄마의 질문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51)

마지막 《무급휴가》에서는 아주 친했던 친구 사이인 미리와 현주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싸우고 절교하게 된다. 몇 년 후 미리가 쓴 사과편지로 서로 만나게 되고, 예술과 가족, 친구 관계를 아우르며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공감에 이르는지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현주처럼 말했고 그 말들의 합창은 미리를 예민한 사람이 되게 했다. 미리는 어머니의 말투, 표정, 몸짓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그 당연한 진실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중략]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작은 증거라도 찾으면 그 자그마한 것을 잡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라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220)

진짜를 가질 자신이 없어서 늘 잃어도 되는 관계를 고르곤 했다. 어차피 실망하게 될 거, 진짜가 아닌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조각난 자기 자신을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229)

《무급휴가》는 이 소설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를 속단하지 말 것. 나의 사소한 행동이나 배려 없는 말이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소설은 그 사소한 실수로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어디에도 없는 아이

크리스티안 화이트 글, 김하현 옮김 – 현암사, 2020.

추천대상: 일반
#추리소설을 좋아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소재의 소설은 별로인 사람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 사람

《어디에도 없는 아이》의 저자 크리스티안 화이트는 호주 출신의 소설가 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글을 쓰다 미발표 작품에 주는 빅토리안 프리미어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이 데뷔작 한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으며 두 번째 소설《The wife and the widow》역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데뷔와 더불어 거둔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현재 시나리오 작가로 꾸준히 활동 중이며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전적 덕분인지 소설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부분이 특히 흥미진진하다.

대학에서 사진 강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킴벌리 리미에게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온다. 그는 2살짜리 여자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미국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28년 전에 납치된 새미 웬트라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었던 킴은 결국 1990년에 켄터키 맨슨에서 일어난 여자아이 실종사건을 검색해 보게 되고 어머니의 옛날 앨범을 찾아보면서 점점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게 되는데……. 28년전 '천국의 한조각'이라고

소개되던 맨슨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소설은 1990년 새미의 실종이 있었던 때와 킴이 맨슨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시점이 교차 되면서 진행된다. 킴을 찾아왔던 낯선 남자는 새미의 오빠 스튜어트였고 그녀는 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한다. 미국에서 새미의 실종 이후 뿔뿔이 흩어진 웬트가 사람들을 차례대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고 로드무비처럼 담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한 칸씩 쌓이면서 단서가 하나씩 나타날수록 독자들은 '도대체 왜?'라는 물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새미 이자 킴이 줄곧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이비종교, 어긋난 사랑과 여자아이의 실종은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소재지만 실종사건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졌다는 암시는 왜? 라는 물음과 더불어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힘이다.

그러나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모든 비밀이 밝혀진 순간 사건들의 개연성이 조금 약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하지만 이 소설은 '새미 웬트의 실종사건' 외에도 독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남겨준다. 특히 소설 속에서 묘사된 '빛 안의 교회' 교인들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JMS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또 하나는 인간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새미의 오빠가 자기 누나와 마찬가지로 여동생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면 킴은 진실을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킴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역시 수면 아래 있던 진실들은 미궁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지만 살인사건이 난무하는 자극적인 소재에 지친 독자에게《어디에도 없는 아이》를 추천하고 싶다.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진짜’ 어른의 문장

최미혜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어른의 문장력

김선영(글밥) 글 – 더 퀘스트, 2022.

추천대상: 성인
#글쓰기가 두려운 어른들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 오해는 전달 과정에서 지극히 ‘나’의 입장을 고수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일상생활의 의사전달부터 업무에 필요한 메일 등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다룬 책이 있다. 바로 김선영 작가의《어른의 문장》이라는 책이다.

김선영은 작가는 13년간 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글을 쓰다 자신만의 글과 소통을 브런치에 글을 올리며, 작가로 변신하였다. 방송작가의 희로애락을 담은《오늘 서강대교가 무너지면 좋겠다》를 시작으로 일상 속 문장 능력에 대한 소재를 다룬《나도 한 문장 잘 쓰면 바랄 게 없겠네》를 출간하였다. 현재는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응용해 글쓰기 코치로 활약 중이다. 저자는 강의하며 문장 쓰기가 서툰 사람들에게 깔끔하고 정확한 ‘어른의 문장력’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쟁점이 될 정도로 ‘문장력’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는

요즘이다. 블로그나 SNS, 이메일, 카톡 등에서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로 비난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시대에 저자는 대화와 소통에 있어 정확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유용한 방법을 총 5장으로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저자의 실수담을 경험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며,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1장, 2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실수담을 시작으로 대화와 문장의 습관을 활용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3장과 4장은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모호한 대답과 거절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작은 뉘앙스에도 예민한 사람이 되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문장을 사용하여 세련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른의 문장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어른의 문장'이란 대화 목적, 타깃, 배려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며 대화의 맥락을 놓지 않은 사람은 상대가 오해할 틈이 없다. 이는 성숙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가능하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일부터 비즈니스까지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오해를 부르는 말투와 문장보다는 바르고 정확한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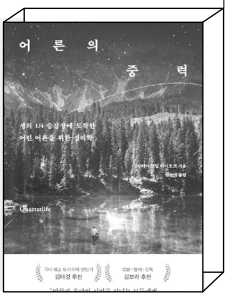
안정과 의미사이 혼란스러운 청년들에게

홍서영 (양주시 덕정도서관)

어른의 중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 글, 임슬애 옮김 – 윌북, 2022.

추천대상: 일반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20-30대에게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는 살로메 융 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융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2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심리연구와 치료를 하는 심리 치료사이다. 여기서 융 심리학은 분석심리학을 일컫는 말로 개인의 무의식 외에도 집단적 무의식도 중요시하는 심리학이다. 저자는 이를 토대로 2030세대 집단의 심리를 해석하는《어른의 중력》을 집필하였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기 다음의 20여 년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을 '쿼터라이퍼(Quarter lifer)'라고 말한다. 이 말은《쿼터라이프의 위기》(Quarter life crisis)의 저자 애비 윌너에게 실마리를 얻어 만들어졌다. 청년의 뜻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쿼터라이퍼는 '좋을 때'라는 주관적인 평가 없이 그저 인생의 1/4를 지나가는 이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편견 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어이다.

책의 구성은 1부 〈생의 1/4, 정의되지 않은 이름 없는 시기〉, 2부 〈어른의 무게를 넘어〉로 되어 있다. 1부에서는 쿼터라이퍼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2부에서는

실제 상담을 변형하여 그들이 하는 고민과 해결 과정을 담고 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 중년에는 갱년기가 있는 것처럼 쿼터라이프 시기에도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은 사회에 떠밀리듯 나오게 되지만 주위엔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만 말할 뿐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도 이 책은 쿼터라이퍼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에 각각이 가진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어 공감과 문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쿼터라이프 맞춤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쿼터라이퍼는 가치관에 따라 의미형과 안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형은 삶에서 정신적인 것(정신적 성장, 삶의 의미 등)을 더 중요시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나 금전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안정형은 실제로 생존하기 위한 것(돈을 버는 것,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둔다. 인생의 과업이라고 불리는 입시나 취직 등에 성실한 유형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자주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여기에서 더 옳거나 틀린 유형은 없다.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을 뿐 쿼터라이퍼는 각각의 면모를 모두 갖고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과 의미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 ***심리적 의미에서 진정한 성인기란 균형을 추구하는 성숙한 탐색의 과정, 공동체의 일원이자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안정과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여정이다.*** *(54)*

예전부터 쿼터라이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안정과 의미 사이에서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결국 행동하고야 마는 그들은 이야기를

이끌기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쿼터라이퍼들이 있다면 이제 삶의 1/4가 시작되는 중이고, 이 시기야말로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얼 원하는지 되돌아볼 기회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여정에 이 책은 훌륭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만난 순간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글 – 클레이하우스, 2022.

추천대상: 성인
#서로 연대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

휴남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출간 즉시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올라 종이책으로 출간된 소설이다. 서점 주인인 영주는 번아웃으로 퇴사를 하고 작은 동네 서점을 차리지만 하루 종일 울다 겨우 눈물을 그치고 손님을 맞는다. 그러길 몇 달째,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서점을 다시 꾸리기 시작한다. 반도 채워지지 않았던 책장을 채우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줄 바리스타 민준을 채용하고, 북토크와 독서 모임, 블로그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게 휴남동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과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가 이 책을 따듯하게 채운다.

> ***마지막 순간에 한 번 행복해지기 위해 평생 노력만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복이란 게 참 끔찍해졌어요. 나의 온 생을 단 하나의 성취를 위해 갈아 넣는 것이 너무 허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행복이 아닌 행복감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237)*

민준은 커피를 내리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실력이 늘었다. 커피 맛이 좋아졌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이런 속도로, 이런 마음으로 성장해도 충분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세계 최고 바리스타가 돼서 뭘 하겠는가. (278)

책 속의 인물들은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만을 생각하는 민준, 커피 로스팅 사업을 하지만 가정에 고민이 많은 지미, 계약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회사를 그만두고 서점에서 뜨개질과 명상을 하는 정서, 무엇이든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민철 등이 서점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한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는 서점에 구비된 책들에 붙인 서평과 작가와 진행된 북토크를 통해 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다.

전 책을 읽을 때 기억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중략] 책은 뭐랄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중략] 기억나지 않는 어떤 문장이, 어떤 이야기가 선택 앞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중략] 전 그 책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 책들은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 기억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57)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산다면 어떨까?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신인류 직장인의 해방 일지

이동수 글 – 알에이치코리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무미건조한 직장생활에 질려버린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전환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는 주옥같은 명언으로 MBC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서 화제가 된 이동수 대리의 에세이이다. 이 책은 20분의 방송 분량으로는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인간 이동수의 생각을 그다운 문체로 유쾌하게 풀었다. 책의 제목은 저자가 악착같이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입사한 대기업의 첫 출근 날 본인의 자리에 제일 먼저 붙여놓았던 문장을 그대로 따왔다. 신입다운 포부와 직장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야 할 입사 첫날, 포부는커녕 누가 봐도 놀랄만한 문장을 당당하게 적어두고 '절대 회사에 뼈를 묻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자의 독특하면서도 유쾌한 생각과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 책의 본문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저자의 생각을 적은 37가지 짧은 생각의 글들을 3부로 묶어놓았다. 3부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 책의 맨 앞을 장식하는 글은 〈아무튼 출근〉으로 저자를 만났던 방송작가의 추천사로 장식했다. 방송작가에게 호기심을 자아낸 직장인이라는 점부터 이미 범상치 않다. 1부 '회사보다 중요한

건 제 인생인데요?'부터 2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를 지나 3부 '찌질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요'까지 읽는 동안 사실 대단한 반전은 없다. 그저 우리가 제목을 보고 예상하는 정도의 '범상치 않은 직장인 이동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마디로 지루할 틈이 없다.

인상깊은 부분은, '어차피 제 회사는 아니잖아요?', '회사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부자의 기준은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라는 세 개의 꼭지였다. 첫 번째 글에서는 '어디에 다니는 나'보다 '내가 어디에 다닐 뿐이다'라는 마인드로 나를 위해 일하라는 저자의 조언이 인상 깊었다. 두 번째 글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비교군 자체도 회사에서 만나볼 법 한 사람들이라서 더욱 흥미롭다. 최연소 임원, 연봉을 팍팍 올리는 프로이직러, 눈에 안 띄고 일은 안하면서 고액연봉은 따박따박 챙기는 짬차장, 회사생활에 초탈하고 항상 여유가 넘치는 부동산 건물주라는 비교군은 모두 부러움을 자아내는 승리자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각 비교군의 장단점과 본인의 가능성 가족과 행복한 사람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역시 대세는 부동산인가보다'라는 위트 있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뭘까? 그걸 알아야 도달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부자에 대해서 적어 봤다.

1. 집이 있을 것,

2. 차가 있을 것.

3. '한턱 쏴'가 아니라. '한잔 살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4.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

5. 삶이 지쳤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있을 것.

6. 굳이 친절할 것

7. '부럽다'보단 '멋있다'고 표현할 것.

8.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할 것.

9. 주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

10. 돈이 두 배가 되어도 두 배 행복하지 않을 것.

아마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럼, 한 번쯤은 나만의 부자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추천한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니 말이다.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책은 다른 일반적인 에세이와 같이 저자의 다양한 생각을 적었지만, 결국 저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2회독을 하고 이 글을 적으며 새삼 깨달은 점은 이 책에는 거창하게 자신의 방식을 따르라는 자신만만함도, 내 방식과 다른 이들을 옳고 그르게 평가하는 잣대도 없다. 그저 이동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담담한 소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굉장히 유쾌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저자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상을 다소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면, 혹 약간의 변주를 주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삶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일 것이다.

늦게 피어난 작가의 시시하고 재밌는 가족향기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엄마를 절에 버리러

이서수 글 – 자음과 모음, 2023.

추천대상: 일반
#가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읽고 싶은 사람
#바쁜 생활속에서 틈틈이 짬을 내 책을 읽고 싶은 사람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종종 못 들어본 작가를 추천받기도 하는데 좋은 작가를 추천받아 읽게 되었고 서평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작가는 이서수로 2014년 등단으로 등단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장편소설 《당신의 4분 33초》로 제6회 황산벌청년문학상을 받아 첫 단행본을 출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서수 작가는 더 많은 작품을 출간하고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2022년 출판된 《엄마를 절에 버리러》라는 단편소설집으로 3편의 단편소설과 1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을 읽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작품들은 깊고 복잡한 내용보다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 재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단편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작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가의 능숙한 문장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이야기가 풀어지며, 독자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단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한 편의 이야기를 완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엄마를 절에 버리러》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독특한 시각과 유머를 담아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상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작가의 글쓰기 기술과 이야기 구성은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단편소설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며, 작가의 글쓰기 재능과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를 절에 버리러》의 첫 번째 단편소설은 행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멀리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다시 가정에 속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아버지를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절에 가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는데, 어머니를 절에 바래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10대 때 콘돔 장사를 한 이야기는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모든 생명 탄생이 아름답지는 않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무엇이 윤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을 유발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독자들에게도 공감과 함께 이야기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독자들에게 일종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가정 환경과 가족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며, 존중과 이해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작가를 알아가는 건 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읽어볼 만합니다.

엄마와 딸, 이제 친구 되기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엄마와 딸 여행이 필요할 때

한명석 글 – 사우,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성인이 된 딸과 엄마, 서로를 이해하고 싶을 때
#성인이 된 자녀와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성향을 가진 엄마와 딸, 여행을 통해 발견한 것들

기질과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낭만파 엄마와 깐깐한 딸이 함께 여행한다. 글의 저자인 엄마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고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여행경비를 모아 여행에 올인하며 사는 중이다. 여행이라는 경험과 추억, 글쓰기를 삶의 일순위로 삼는 모녀의 삶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동경하게 한다. 책의 1부는 주로 여행하는 나라에서의 에피소드를 작가 특유의 유쾌함과 풍성한 묘사로 생생하게 펼쳐 놓는다.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유럽을 돌며 낯선 곳에서 체류하며 삶을 즐기는 이들에게만 있는 DNA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서라기보다 풍부한 작가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여행 에세이에 가깝다. 그 흔한 지도나 사진은 없지만 여행지를 눈에 그려놓은 듯한 작가의 감칠맛 나는 글솜씨는 글만으로도 독자의 마음이 튀르키예의 푸른 바다 위로 날아가게 한다.

내가 눈여겨보기 시작한 부분은 책의 2부 '모녀의 화양연화는 여행에서

시작되었다'이다. 이렇게 반대 성향을 가진 엄마와 딸이 과연 여행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궁금했는데 이 장에서는 엄마와 딸의 '다름'이 위태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빛을 발하는지를 풀어놓았다. 여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금사빠 엄마와 매사에 신중하고 예민한 딸의 모습은 보통의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 보호자처럼 엄마를 이끌고 다니는 딸이 조금 안쓰럽고 매사에 즉흥적이고 조심성 없는 엄마는 철없어 보인다. 10여 년간 20여 개 나라를 누비는 동안 엄마는 오십 대에서 육십 대로 딸은 이십 대에서 삼십 대로 접어든다. 타지에서 부대끼는 여행을 지속하면서 외계인같이 생판 다른 모녀는 서로에게 순응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며 성장한다.

책은 지속 가능한 모녀 관계 유지를 위해 조언한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모녀 사이의 기대가 변함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책임감과 돌봄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은 어려움을 되풀이한다. 딸에게 엄마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동반자요, 친구여야 함을 일깨운다. 그러므로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채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녀가 같이 나이 드는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는 '효'가 아니라 '우정'이라는 것을 피력한다. 세대가 변하면서 관계의 사고가 유연해지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이 책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모색하는 독자들에게 무척 유용하다. 설렘이 가득한 여행기는 성인이 된 딸과 어떻게 심리적 거리 두기와 관계 맺기를 하면 좋은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의 매력은 여행은 하고 싶지만, 자녀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즉흥 여행이 좋은 이유를 속삭인다.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일단, 함께 떠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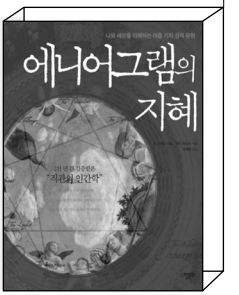
자기 성장의 도구, 에니어그램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에니어그램의 지혜

돈 리차드 리소·러스 허드슨 글, 주혜명 옮김 – 한문화, 2015.

추천대상: 일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기성장의 도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과의 인연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에니어그램이라는 이름도 잘 모를 때 우연히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산 후, 몇 년 동안 읽지 않고 있었다. 서가를 둘러보던 어느 날 많은 책들 사이에서 이 책이 나를 부르는 듯 눈에 확 들어왔고, 그날부터 읽기 시작한 책은 내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책은 내 모습과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9가지 성격 유형'이란 부제처럼 나를 너무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에니어그램이 신기하고 소름 돋기도 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에니어그램의 역사와 본능, 감정, 사고 중심의 세 개의 자아, 그리고 자기 보존적 변형, 사회적 변형, 성적 변형 등 에니어그램의 역동성과 변형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9가지 성격유형을 하나씩 알려준다. 3부에서는 의식의 변형을 위한 도구로서 에니어그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언급한다.

에니어그램은 아홉 가지로 이루어진 인간 성격 유형과 유형들의 연관성을

표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여러 고대 전통의 영적 지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이 이것을 발전시켰다. 에니어그램이라는 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니어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모스grammos에서 왔는데,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이다. 에니어그램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인간 성격의 근간을 장(본능) 중심, 가슴(감정) 중심, 머리(사고) 중심의 3가지 에너지와 생명력의 근원요소로 보고 있고,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성격유형이 있는데, 1번 유형은 개혁가, 2번 유형은 돕고자 하는 사람, 3번 유형은 성취하는 사람, 4번 유형은 개인주의자, 5번 유형은 탐구자, 6번 유형은 충실한 사람, 7번 유형은 열정적인 사람, 8번 유형은 도전하는 사람,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를 나타낸다.

에니어그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많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에니어그램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 경영 및 인사분야, 직업상담, 교육상담, 가족 상담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공동저자인 돈 리차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은 세계적인 에니어그램 지도자로서 함께 에니어그램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십년간 에니어그램에 관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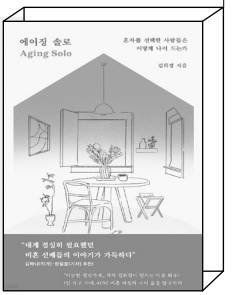
비혼 선배들의 이야기, 에이징 솔로가 온다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에이징 솔로

김희경 글 - 동아시아, 2023.

추천대상: 일반
#비혼을 선택했거나 비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상한 정상가족》의 저자 김희경이 6년 만에 내놓은 신간이다.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9.3%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3.4%로,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시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은 여전하다. 저자는 이런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삶의 모델들과 만날 수 있으며, 이미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 (혹은 비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묘한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결혼의 경험이 있건 없건 스스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선택해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중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들이 에이징 솔로이다.

'나이 듦'은 삶의 기본값이다.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홀로' 살아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책이다.

'에이징 솔로는 외롭고 힘들 것이다'라는 담론의 배경에는 '고립'이라는 디폴트 값이 존재한다. 가족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당연시 여긴다. 함께일 때 느끼는 외로움의 강도가 혼자일 때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정의와 느끼는 정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혼자인 것을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에이징 솔로들이라고 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인 관계를 거부할 뿐이다. 느슨하고 안전한 가족 바깥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의 친밀함을 여러 사람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 사람마다 친밀함의 욕구가 전부 다르듯이 친밀함의 기준을 '가족'으로 한정 짓는 것 또한 편견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고독사가 느는 게 아니라 고립이 고독사를 만드는 것'(245)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혼 여성 대다수는 친구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나이 들어갈 때도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을 '관계'라는 점이다. 사람에 따라 원하는 관계의 밀도와 거리는 제각각이겠지만 말이다. 에이징 솔로가 배우자와 자녀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듯, 노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할 관계는 필요하다.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노년에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돌봄이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는 사회적 인식만 존재하면 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또는 이 사회에 던져 주고 싶었던 화두는, '나이 듦은, 홀로이면서 함께일 때 이상적이다'라는 메시지이다.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서의 영역을 지키되 연결의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나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는 에이징 솔로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서, 사람의 생활에 '경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는 솔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범위가 삶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삶에서 일부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흑백논리처럼 결혼 아니면 솔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아니면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맺은 친밀한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서로 돌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미래 가족의 모습이 되는 걸 보고 싶다(314)는 저자의 바람이(에이징 솔로의 바람이기도 한)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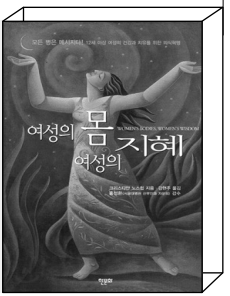
모든 병은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하는 건강과 치유를 위한 여성 의식혁명 전도서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크리스티안 노스럽 글, 강현주 옮김 – 한문화, 2016.

추천대상: 일반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녹색경영, 그리고 ESG를 말하는 이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이제는 직장을 둔 여성,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스스로 대견하고 긴 시간을 잘 버텨준 것 같지만 몸은 여기저기서 고단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수술을 권하는 병원으로부터 도망하여 민간요법, 대체의학 등의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자 애쓰던 그 여름 건강관리사에게 저 역시 추천받은 책입니다.

1부는 '외부 통제로부터 내면의 안내자로'라는 제목으로 가부장적 신화와 중독된 사회구조, 여성의 지적 능력과 새로운 형태의 치유법, 내면의 인도자, 여성의 에너지 시스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중독된 사회의 편견들 앞에 육체와 정신의 연관성, 몸의 요구와 감정의 정화, 지구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연관성을 담았습니다. 이어 2부는 '여성의 지혜 해부' 안에서 자궁과 난소, 생식력과 임신과 출산, 폐경기 등의 보다 물리적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학적인 소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치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치유를 위한 단계별 접근으로 가족력을 살펴보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정돈하고 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뿐 아니라 병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학적 치료를 통한 최대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와 그것의 극대화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의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함이 세상을 치유함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꿈이 지구의 꿈임을 함께 인지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책의 서문을 통하여 저자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무리한 생활을 유지하다가 병이 들어 깨달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다 그 대가로 몸을 바쳐야 했던 경험을 통해 나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즉 몸의 욕구를 무시하면 그 결과가 바로 곧바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칼융은 "신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몸의 메시지에 귀기울일 때 우리는 감정과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게 된다!' 그 전에도 이러한 교훈을 머리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치유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소 체험해야만 했다.

가부장제 사회의 딸로서 나 역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는 일에서는 만족감을 얻으면서 정작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의 몸을 돌보는 일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왜 나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아이들과 놀아줄 30분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왜 허덕여야 하는가? 왜 그러한 시간이 낭비라고 느껴지는가? 동시에 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왜 오직 엄마의 몫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남편과 나는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수입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왜 남편의 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가? 가족이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동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해보았다. 페미니스트가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당함을 부르짖을 때조차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그렇나 차별을 경험 아니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 직장인과 어머니라는 두 가지 역할에서 하나를 선택받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야 내 삶은 허물을 벗게 되었다.

저자는 이책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치유에 있어서 물리적인 처방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솔직하게 느껴보았던 의사, 간호사, 건강관리사와 환자들을 위한 책이며, 우리의 일상을 신성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밝힙니다. 우선 책의 두께에 놀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 아픈 부위를 먼저 읽고 선택적으로 넓혀나간다면, 두려운 분량이 아닐 것입니다. 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여행의 시간

김진애 글 – 사계절, 2023.

추천대상: 청소년/일반
#여행에서 2% 아쉬움을 느낄 때
#여행가기 싫을 때
#인생이 막막할 때

흔히 여행을 가면 꼭 싸운다는 말이 있다. 또 인생의 동반자와는 반드시 여행을 가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인즉슨 여행을 가야만이 사회적 가면 속 나의 참모습이 등장한다는 말과 같다. 나도 몰랐던 나의 참모습을 대면하는 시간이 기대되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여행은 안 그래도 피로한 여행길을 더 피로하게 만드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라고 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 도시건축가 김진애의《여행의 시간》을 추천한다. 이 책을 읽으면 커플여행이 지옥여행이 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또 여행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초보여행자라서 여행을 하는 기준점이 필요한 사람들, 몇 번의 여행을 통해 얻은 건 없고 돈만 쓰고 동행자와 피튀기는 싸움만 한 사람들, 혹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책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여행의 꿀팁'과 '인생의 꿀팁'까지 있어 막막한 여정에 환한 불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여행을 풍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풍족하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또한, "가난한 여행 속에 부리는 사치"처럼 부자의 여행이든 가난한 여행이든 그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을 사라는 조언도, 책이 주는 '여행의 꿀팁'이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쪼들리는 예산으로 가족과 여행을 하느라, 동생이 에코백을 사자는 것을 강하게 말렸었고, 동생과 나 사이에는 여행을 간 지 20년이 다 되어가도 그 일의 앙금이 남아있다. 그것도 여행의 추억이라면 추억이겠지만, 조그마한 기념품을 사서 그것을 볼 때마다 도쿄에서 즐거웠던 자매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코노미석 좌석과 허름한 민박집일지라도 그 도시의 분위기를 한껏 담은 '그럴듯한 식당에서 근사한 디너를 한번 먹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는다'는 작가처럼 풍성한 여행을 풍성하게 즐기는 것이 여유 따윈 하나도 없었던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었다.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라. 동행자가 있다면 그의 여행 스타일도 파악해야 한다. 서로가 즐기는 여행을 받아들이고 접목하는 것은 동행이 있는 여행에 필수적이다. 홀로 여행에는 근력이 필요하고 동행이 있는 여행에는 여유가 필요한 것 아닐까. 《여행의 시간》을 읽고 나니 왠지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은 설렘을 느낀다.

저자는 '여행은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행에 드는 돈이 아까웠고,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쌓일수록 후회가 남았고, 결국 '도시건축가'라는 직업의 특성을 살려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행을 즐기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일과 노는 것이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이 단어에는 일하는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를 하며 만났던 유명인사들에게 일을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일을 하며 회사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즐겁지 않나요?”라고 반문했었다. 말이야 쉽지... 라고 맘 속으로 불평을 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직장에서 버티기는 힘들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다. 여행도 직장도 인생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다. 알지만 실행하기 버겁다. 김진애라는 저자가 여자가 거의 없는 전공분야에서 오랜 세월 전문가라는 자격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해 온 과정, 여행을 대하는 태도를 이 책에서 읽고, 나를 짓누르는 부담을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려 한다. 인생도 여행도 정반합의 연속이다. 책 속에 스며져있는 그 원리를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터득하길 바라며 서평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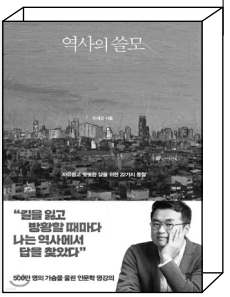
역사의 의의를 묻고 싶은 이들에게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역사의 쓸모

최태성 글, 다산초당, 2019.

추천대상: 일반
#역사의 의의를 묻고싶은 이들에게
#우리 삶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역사를 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역사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저자가 표지에서 독자에게 건네는 문장이다. 우리는 역사를 흔히 연대기표와 문물과 업적으로나마 외운다. 몇 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어떤 문물을 섭렵했고, 어떤 업적을 통해 사회를 이룩했는지를 사회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외운다. 역사는 그저 우리가 점수를 매김하는 하나의 과목으로 그쳐야 할까. 저자는 책 표지에 이르러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왜' 라고 묻고, 그 시대 사람과 가슴으로 대화하며 답을 찾아야한다.라고 강조한다. 역사는 과거와의 소통이다. 특정 신호를 기계 내에 입력할 시에 신호대로 부호를 찍고 읽으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계이다. 역사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며 말하는 이야기이며, 인간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책을 쓴 최태성은 대한민국 역사 강사다. EBS에서 역사를 자문하는 일을 맡았으며, 인터넷 강의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 또한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애정을 담아 말씀해 준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역사는 선택이 모여 나온 결과다. 작가는 첫 문단을 흥미로운 제목을 실어 장식한다. 역사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이라고 말이다. 내 상식선에서 역사란 우리가 알다시피 익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왜 역사가 하나의 모험으로 평가하시는지, 나는 이 점을 의아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사색해보았다. 첫 소제목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에 답이 있었다. 역사는 취사선택된 것이다.

저자는 김부식을 예로 든다. 김부식은 인종이 명한 바를 따라, 삼국사기라 이름붙여진 역사서를 편찬해 썼다. 역사사료로 삼을 역사를 임금의 명을 받아 편찬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유학자라는 한계가 있었고, 왕궐에서 과거의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곰이 마늘을 먹어 사람이 됐다든지, 각 고대시조의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신라가 호국 수단으로 만파식적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부식은 만파식적 이야기를 기이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삼국사기에 편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만파식적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이 삼국유사 기이편에 만파식적 설화를 실은 덕이다. 우리는 이 덕에 '있을 법하지 않은 신화가 섞인 이야기'를 배우며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풍요로히 하고는 한다. 역사는 수백 년과 수천 년 사이를 층층히 쌓아온 문화라고 칭할 수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데에는 구전설화 및 신화도 크나큰 역할을 한다.

저자는 역사의 실용성을 말할 때, 신화를 실은 삼국유사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김부식이 쓸모없다, 현실적이지 않으며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이야기가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에 쓰이고 있어서이다. 또, 신화속 이야기에서는 고대사회의 풍습과 진면목을 살필 단서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사학자가 단서를

표지처럼 읽어내고, 그들이 말한 이야기로 인해 역사는 풍요로워지고는 한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역사를 기록할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아야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속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 수 년, 수십 년, 수백 년을 넘어서 세대를 거듭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역사를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역사인물과 숨쉬며 소통하는 공부로 여겨야하는지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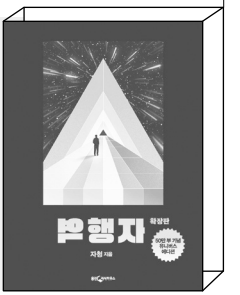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인생 공략집

권정구 (시흥시 중앙도서관)

역행자

자청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22.

추천대상: 일반인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 일반인
#책읽기와 글쓰기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일반인



많은 사람이 살면서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할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그려보기 힘든 삶이다. 많은 이들이 꿈같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이 목표를 《역행자》의 저자는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말한다. 자청의 《역행자》는 흙수저였던 저자가 어떻게 해서 30대에 월 1억을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하여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해진 저자 자청은 10대 때는 외모, 돈, 공부 어떤 점에서도 최하위였다고 한다. 그러다 스무 살 무렵 많은 독서를 통해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깨달음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 20편의 영상으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은 뒤 유튜브를 그만두고 본업인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비롯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이상한 마케팅', '프드프', '아트라상', '큐어릴'부터 지분 투자로 참여한 '라이프해킹스쿨', '유튜디오', 오프라인 사업으로 '욕망의북카페', '인피니' 등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고 정리하여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7단계 요점을 우선 자의식 해체, 정체성 만들기, 유전자 오작동 극복, 뇌 자동화, 역행자의 지식,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역행자의 쳇바퀴로 나누어 설명한다.

저자는 인간은 본래 한번 체득한 지식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본다. 본성과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순리자'들은 어떤 일이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다. 그래야만 본인의 자의식을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의 타고난 원시 본성은 자유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생을 역행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도를 읽으면 독자들은 왜 이 책의 제목이 '역행자'인지 알 수 있다.

책에서는 평범했던 저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비롯하여 주변의 지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을 상황에 맞추어 순리대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당장 무엇이라도 실천하고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와 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이 높여주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실천력을 가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또한 뇌를 복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와 더불어 책에서 소개하는 어떤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여 많은 이들이 인생의 자유를 앞당기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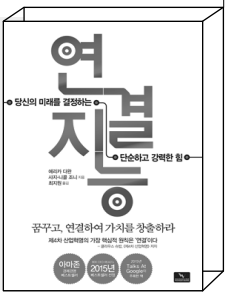
혁신을 향한 일보 후퇴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연결지능

에리카 다완·사자-니콜 조니 글, 최지원 옮김 – 영신문화사, 2016.

추천대상: 일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에 살아남는 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향후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변화와 의미를 창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다. 그 일을 해내는 데는 의욕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다. 《연결지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발생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은 가장 원대하고 무모하며 야심 찬 꿈과 대결하고 싶어질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게 될 것이다. *(마리아 아이텔, 나이키 재단 설립 회장 및 CEO)*

이 책의 저자 에리카 다완(Erica Dhawan)과 사자-니콜 조니(Saj-Nicole Joni)는 연결지능이란 세계의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크, 지식과 경험, 자원 등을 결합하여 연결성을 구축함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하는 재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연결지능은 IQ와 EQ를 잇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량이라고 말한다. 즉 90년대에 EQ라는 급진적인 개념이 등장했던 것처럼 최근 정치, 경제, 스포츠 등에서 연결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발전하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마을의 호박 재배자가 식량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알려지지 않는 한

대학원생이 보편적인 연구결과를 뒤집고, 인지도가 없었던 뮤지션이 국제적인 행복운동을 일으킨다. 또 과학자는 가상현실 게임을 이용하여 화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책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1부는 거대한 물결과 연결지능의 기원이라는 2개의 장으로 전개된다. 2부에서는 의미있는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작으로 반가운 소식까지 총 8개의 장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3부는 당신의 연결지능을 발견하라: 연결지능 천재로 거듭나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연결지능 자질과 역할 모델, 워크플랜, 관리자 가이드, 연결지능 지수, 오리엔테이션과 독서토론 가이드를 정리하였다. 극단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연결지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저자인 우리 중 한 사람 사지-니콜은 1t짜리 호박을 탄생시킨 론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론의 연결지능은 30년 전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날개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연계해 배움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1t짜리 호박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식량 위기에 처한 세상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저자 에리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연결지능을 지니기 위해 대단한 천재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깊이 고무되며 한편으로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모든 마음과 정신, 지력을 다해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는 일, 그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능력을 시험당하는 시대에 살고있음을 안다. 여러 조직과 네트워크,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숙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연결지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단절되고 분리된 채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이들은 고전을 면치못하거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의 부적절함을 시작으로 얼마 전부터 초연결시대를 비판하며 근로자 또는 개인의 온라인 또는 소셜환경에서의 분리의 시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얻게 된다는 사실에는 다수가 수긍하리라. 같은 맥락에서 저자가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는 머리글에서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발전은 연결지능을 발달시키고 활용하였음에 기인한다는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연결 상태에서의 아이디어의 확장, 복합적인 운영 능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해결을 위한 사고가 그것이라 하겠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라는 제목으로 책머리에 12명의 인사가 추천사를 쓰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추천사를 옮긴다.

미래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근무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 재능 있는 모델들이 세대를 거듭해 진화해 왔지만 직원의 일부에게만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접근방식은 그 밖의 직원들에게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연결지능》은 모두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음으로써 돌파구를 얻고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오늘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미래에 그러한 사람이 되려는 열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존 모팟, 딜로이트 컨설팅 LLP 회장 및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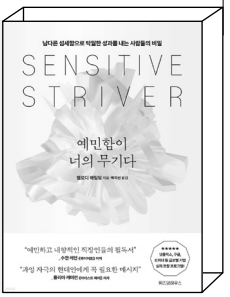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며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예민함이 너의 무기다

멜로디 와일딩 글, 백지선 옮김 – 위즈덤하우스, 2022.

추천대상: 청소년 및 일반
#자신이 예민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성공적인 과업 완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스스로 공부/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자극에 과잉 반응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친 생각이 자기 불신으로 바뀌는 초민감자들. 하지만 예민함은 양날의 검이다. 이 책은 타고난 예민한 성격으로 일에 있어서도 남달리 섬세하게 파고들어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을 예민한 노력가라고 표현하고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파헤쳐 일의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멜로디 와일딩(Melody Wilding)의 책을 국내에 소개한 출판사 추천사를 옮겨 보았다. 저자는 사회복지학 학위와 연구원 커리어를 가지고 현재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인간행동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책은 4부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의 장은 실전연습 편이 더해져 독자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1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는 당신은 예민한 노력가인가, 모범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으로 구성된다. 2부는 '내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 법'에서 감정은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과도한 생각 멈추기, 직감을 믿어라, 나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3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믿어라'는 나만의 핵심 가치를 찾아라, 목표의 골대 세우기,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라이며 궁극적으로 스스로가 진로의 여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4부는 '두려움을 넘어 계속 성장하라'는 현명한 도전을 하라, 자기주장은 단호하게, 일시적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로 마무리하였다.

무엇보다 균형의 바퀴 작성하기를 시작으로 나에게 맞는 그라운딩 기법 고르기, 나에게 딱 맞는 진로, YES 실험, 성장의 다음 단계를 항해까지 13개의 실전연습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또는 실행방법은 다른 자기 계발 책들과 구성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사실 예민함은 불면증, 조급함, 집착 등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과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할 때 완성도라는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물론 저자는 예민한 노력가(STRIVE)는 그것이 유전적인 측면에서는 선물일 수 있으나 예민하다는 주변의 평가가 낙인효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예민한 노력가의 핵심 자질로 예민함(Sensitivility), 사려 깊음(Thoughtfulness), 책임감(Responsibility), 내적 동기(Innter Drive), 경계심(Vigilance), 감수성(Emotionality)을 들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민한 노력가는 상황을 반응하여 복잡한 정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 직관력이 뛰어나다. 또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성실한 면모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거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급기야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기도 한다.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 감정 소모가 크고 정서 반응이 복잡할 수 있다. 즉 긍정적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짜증이나 실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모쪼록 진단을 통하여 스스로 예민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특유의 정교함으로 완성도 있는 성취를 이루어 자존감을 되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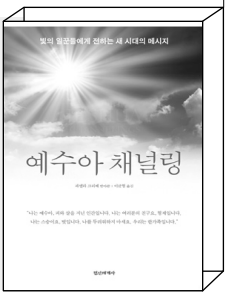
내 아이를 안으며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예수아 채널링

파멜라 크리베 글, 이균형 옮김 – 정신세계사, 2016.

추천대상: 일반
#감정적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당신에게,
#퇴직을 앞 둔 직장인에게
#인간관계에 힘들어할 때, 이별의 고통으로 힘들 때



어떤 분은 서평 도서로서 이 《예수아 채널링》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맞다. 이단적일 것이고 불경스럽게까지도 할 것 같다. 맞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나도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가 한 번 더 읽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채널링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게 된다면 삶을 살게 된 이유와 인생에서 생기는 모호한 온갖 사건들의 발생에 대해서 내로 젖던 고개를 그래도 조금은 '그래그래'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삶의 부분들을 수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존재이면서 그 몸을 그 존재에게 내어 준 실제 인물이다. 그 영을 채널링하는 이 책의 네덜란드 철학 여박사인 파멜라 크리베는 그 존재를 알아버린다. '그냥'! 어떤 특수한 재능, 예를 들면 영이 맑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특별한 소개도 없이 갑작스레 그런 존재를 채널링하게 된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여성의 채널링 이야기는 별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내용을 볼까? 절대적 일체성을 가진 신은 자신을 경험하여 알고자 하는 일념으로 분열을 일으킨다. 여기서 인간의 탄생은 아름다운 창조력과 완벽에의 분리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갖게 되는 이원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원성의 어두운 부분인 불안과 외로움을 겪는 감정체는 상처를 받으며 수많은 윤회와 카르마 속을 헤메게 된다. 이 감정체를 내면아이라고도 부르며 이 어린 아가를 각자가 엄마처럼 보듬어 안게 될 때 카르마는 끝나게 되고 삶은 마침내 온전하게 아름다움 창조력과 통합된 일체성으로 회귀한다. 신과 같은 절대적 일체성을 회복한 한 개체가 맺는 삶은 매우 풍요롭다고 담담히 서술한다. 자웅동체처럼 이미 한 인간의 육신에는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에너지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남녀가 사귀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외로워서 불안해하며 자신의 감정체인 아이를 보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보면 각자가 품고 있는 감정체는 상처를 더욱 깊게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보살피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감정들은 외부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것으로 의식을 그 화나고 자존심 상한 감정에 비추어 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기억할 수도 없는 멀고 먼 전생 어딘가에서 맺어졌던 그 감정의 그늘이 의식의 빛에 환하게 드러날 때 그 감정의 책임이 우리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런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다면 이 세상은 소란을 멈추고 당장이라도 평화로워질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라, 각 개체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내면으로 잦아들게 될 때, 한 사람의 카르마가 해소됨으로써 다시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인생의 생태계도 사라질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천국의 탄생이 진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서 채널링에 대한 불신이 따라 생기는 것을 여러분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보살피고 함께하는 방법을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들려주는 분위기 속에서 채널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 잊을 수 있는 사소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4백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잡은 여러분의 손과 눈이 쉽게 이《예수 아 채널링》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겠다. 그리고 번역의 모호함으로 두 번 이상은 이 책을 정독하길 진심으로 권한다. 감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것-감정의 독립이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야 말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혼자됐다고, 외롭다고 자신을 연민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정말로 정말로 귀한 기회가 찾아왔다. 인생을 정말 멋지게 누릴 완벽한 때가 왔다.

육아에 지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글. 그림은 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

그림에다 글 – 위즈덤하우스, 2022.

추천대상: 일반
#육아로 힘든 독자들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는 여러 SNS 채널에 육아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는 '그림에다'라는 작가의 작품이다.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는 아빠의 육아 기록이다. 아빠의 시선에서 아기의 성장뿐 아니라 아기를 낳은 초보 엄마의 성장 더 나아가 아빠인 자신의 변화를 그림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다.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봐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매일매일 똑같지만 매일 매일 반짝인다. 아기가 성장하는 시간은 어른의 시간과 다르다. 아기들은 하루하루 새로운 세계를 배워나가고 세상을 경험한다. 부모는 아기들이 어서 커서 손이 덜 갔으면 하지만, 한편으로 아기가 커서 부모의 손이 덜 가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느리게 자랐으면 바라기도 한다.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짝이는 아기들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아기들을 돌보느라 잠을 설치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포기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기 전과는 다른 모습(늘어진 티셔츠, 밥풀 묻은 운동화 등)을 하여 환생했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모든 생활과 노력이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는 생생하게 글과 그림으로 담아서 부모들을 위로해준다. 다음은 그 예시들이다.

- 늦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웅얼거리는 아기. 알아들을 수 없지만, 경청의 자세로 들어주는 아빠.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는(?) 선물 같은 시간들.

- 너무 조용한 시간.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정적. 아니나 다를까 로션을 몽땅 짜서 바르고 있는 아기. 조용하면 불안한 아빠의 마음.

- 뭉그적뭉그적 느리게 먹는 아이를 빨리 먹어라 채근한 것이 미안하고, 아이와 놀아주다 10분이면 지쳐서 더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그렇게 지쳐서 많이 웃어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의 마음. 잠든 아이를 보면서 습관처럼 반성하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아 다행인 하루.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을 때가 온다. 그중 하나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일 것이다. 누구나 이번 생은 처음이며 육아 또한 처음이다. 처음이기에 서툴고 때로는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누구나 하는 실수이고 누구나 서툴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내려놔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의미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오늘도 수영

아슬 글 – 애플북스, 2019.

추천대상: 일반
#수영을 시작하고 싶지만 왠지 모를 막막함에 시작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수영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이들에게

마스크가 없는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얼굴을 가리던 때에서 이제는 다시 가꾸는 문화로 돌아온 듯하다. 한창 바디프로필의 유행으로 헬스가 대세였다면, 코로나 종식과 함께 더워진 날씨에 '수영' 열풍이 불고 있다. 요새 수영의 인기가 엄청나 센터에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며 수강신청만큼 치열해서 수영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다.

《오늘도, 수영》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30대 여성인 저자가 '수영'을 취미생활로 접하면서 겪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글과 그림으로 엮은 책이다. 그녀를 3년 동안 매일매일 수영장으로 출근할 수 있게 만든 수영의 매력은 무엇일까. 저자는 "마음껏 물을 때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오늘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물속에서 첨벙이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수영을 취미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며, 어른이 되어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삶에 주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격 수영 부추김'이 부제인 이 책은 귀여운 삽화와 함께 저자가 수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각양각색 사람들이 모인 수영장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마찰 없이 지낼 수 있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영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친절하게 전수해준다.

> ***누구라도 처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처음이기에 두렵고 또 처음이기에 설레는 것이다. 어차피 두 감정이 공존해야 한다면, 나는 긍정적인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21)*

저자는 책 곳곳에서 수영에 대한 예찬을 펼치며 수영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한다. 책의 말미에는 자유형, 배영, 횡영, 접영, 턴, 스타트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도서는 수영 전문 교육서적은 아니므로 수영의 기술을 모두 배울 수는 없지만, 물이 무서워서, 수영복을 입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영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면 첫 발을 떼는 데 이 책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한 저자의 경험을 읽다 보면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삶에 주는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영을 처음 접하기에 막막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나, 수영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취미 만들기에 도전하길 응원하며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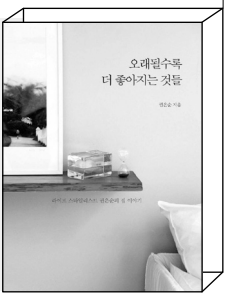
머물고 싶은 집을 위한 아이템

최미혜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

권은순 글 – 더 퀘스트, 북커스, 2022,

추천대상: 성인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물건에 대해 추천받고 싶은 이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편안한 집을 갖고 싶은 이



집이라는 공간은 바쁜 일가를 미치고 돌아와 쉬는 가장 편안한 곳이다. 이런 집에서 오래 쓸수록 가치가 있고 필요한 물건을 추천해 주는 책이 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리스트인 권은순 작가의《오래될수록 더 좋은 것들》이라는 책이다.

권은순 작가는 제일모직에서 패션 디자이너 일하다 홈인테리어 브랜드 '전망좋은방'을 론칭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세련된 안목과 감각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한 1세대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이야기가 있는 인테리어 집》,《프로방스의 집》,《내가 생각하는 집》,《인테리어 스타일북》,《집 안의 물건》이 있다.

오래될수록 더욱 좋은 평가를 받고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소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가를 알아보고 광내어 잘 다듬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오래될수록 더 좋은 것들》은 소중히 가꾼 집에서 작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아끼고 좋아하는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어떤 물건을 처음 집에 들이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물건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집 안 분위기는 정갈하게 잘 정리되고 아름답게 꾸며져 보기에 좋은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머무르면서 한 층 한층 더 기분을 사치스럽게 고조시켜주는 것으로 공간을 채우는 향을 빼놓을 수 없다. *(74)*

나는 르크루제 냄비를 사서 써야 하는 핑계를 만들어냈고 시그니처 냄비 시솔트컬러를 선택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 저녁 식탁에는 안주가 담긴 르크루제 냄비가 인덕션에 올려져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밤까지 곧잘 이어지곤 했다. *(125)*

머물고 싶은 집에서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집을 가꾸고 꾸미는 작가의 삶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집에 있는 작은 소품부터 큰 침실과 거실까지 곳곳을 누비며 그 물건을 칭찬하며 단순한 물건이 아닌 '인생을 함께하는 동지'를 얻는 느낌으로 서술해준다. 침실과 거실, 에그체어, 냄비와 프라이팬 프랑프랑 주걱까지 오래될수록 더욱 좋아지는 물건들에 소소하게 영원을 불어넣어 준다. 머물고 싶은 집에서 작가의 애착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그 물건이 접하게 된 계기, 물건에 대한 역사,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꺼내 독자에게 전해 준다.

잘 들인 물건 하나가 가족의 행복과 삶을 바꿀 수 있다. 집이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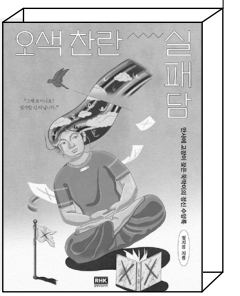
실패하면 뭐 어때

이소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색 찬란 실패담

정지음 글 – 알에이치코리아, 2023.

추천대상: 일반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책의 저자인 정지음은《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책으로 제8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받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오색 찬란 실패담》은 저자가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실패담과 그 실패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엮은 에세이다. 실패도 조명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실패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실패의 색이 잿빛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른 빛을 가진 형형색색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자기계발서나 성공한 사람들의 에세이에서는 실패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고 실패담을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반대로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여러 가지 실패담이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빨갛게 물든 수치심쯤이야', '덮으면 흑역사, 까보면 코미디' 등의 이름을 통해 각각의 색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흑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검은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색깔과 경험을 연결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저자는 좌절을 숨기지 않는 것이 좌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처음 집필한 책부터 ADHD라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ADHD,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감추고 싶을 만한 부분들을 오히려 책에 풀어내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실패한 경험만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들을 아래의 내용처럼 함께 얘기하고 있어서 쉽게 읽다가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

조직은 최고로 우수한 사람만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전제다. 조직원 모두가 최고로 우수한 인재라면, 결국 아무도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놔도 누군가는 낙오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자리를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두한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잠재력이 발휘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업무가 된다. 실수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실수하더라도 괜찮다는, 관용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싶다.

더불어, 실수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실수잖아, 실패도 아니고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들 역시 성공 전에는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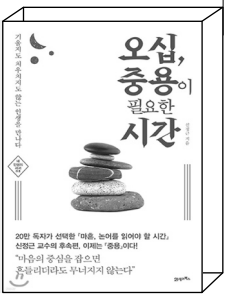
인생 어느 때라도 중용을 만나라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신정근 글 – 21세기북스, 2019.

추천대상: 일반
#중용의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읽어내고 싶다면
#오십에 이른 이들이라면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았다면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교토삼굴의 지혜를 옛 중국의 선현이 전하는 사서(四書)에서 구해보면 어떨까 하여 그 중 중용을 소개한다. 저자 신정근은 2019년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인생의 굽이길에서 공자를 만나다》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다. 이어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인생을 만나다》를 출간하였다. 이후 2020년 《1일 1수, 대학에서 인생의 한 수를 배우다》 그리고 다음 해 《맹자의 꿈: 제왕학의 진수, 맹자가 전하는 리더의 품격》까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대한 해설서를 내놓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동양철학의 대가이다.

사실은 그가 출간한 책의 부서명까지만 들어도 그가 강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어떻게 사서(四書)를 전달하는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며 어느 지점에서 깨달음을 만날 때 책 한 권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정리하고 싶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공유한다. 돌아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만으로 28살, 중원도서관 개관 멤버로 입사해 시간이 지나 이제 50이다. 지천명이라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 겸손해진다는데…. 우스운 이야기로 '지가 천명을 안다고 주장할 뿐이다. 내지는 하이힐에서 내려올 나이라고도 하니 공감이 된다. 우선 목차에서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훑어보자.

1강 극단 치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2강 발각 모든 것은 결국 알려진다

3강 곤란 중용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4강 단순 사실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다

5강 중심 마음근육의 중심 잡기

6강 균형 삶 근육의 중심 잡기

7강 중용 삶에 중용이 들어오는 순간

8강 신실 나와 우리를 움직이는 진실의 힘

9강 정직 진실을 삶의 틀로 담아내라

10강 효성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다

11강 감응 진실하면 이루어지는 것들

12강 포용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중용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자 1강 극단에서 12강 포용까지 이르도록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종교를 전파하는 경전을 읽다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이치는 동서양이라는 지리적인 거리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넘나듦에 이르게 된다. 조금 긴 듯 하지만 12강의 저자의 마음가짐을 소개하며 마치고자 한다.

공자는 열 살 단위로 그 나이에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말했다. 30대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는 이립이라면 40대는 여러 길 중에 헷갈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는 불혹이다. 50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계를 인지하는 지천명이라면, 60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더라도 차분히 듣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이순이다. 공자가 나이마다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50대가 지천명이라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눌러놓았던 것을 꼭 하고 싶은 나이이기도 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 60대의 이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자신과 같은 목소리에 귀가 솔깃하고 다른 목소리에 발끈 화를 내기가 쉽다. 모든 목소리에 귀가 편한 이순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흥분하는 이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즈음에는 포용이 중요한 덕목이다. 포용은 다른 것만을 받아들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포용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즉 나를 비우고 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를 세우고 남을 버릴 수도 있고 나와 남을 모두 버릴 수도 있고 나와 남을 모두 담을 수도 있다. 포용은 나와 남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남만 그른 것도 아니니까. 포용하려면 결국 주위를 편하게 둘러보며 다양한 일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이 없으면 내가 직접 이것저것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남이 있으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처럼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나와 다른 것도 내가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오주석 글 – 푸른역사, 2017.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우리 옛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최근 한국 근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이전의 미술은 아직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 시기의 작품들은 일견 근현대미술에 비해 단촐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산수화만 보더라도 검은 색은 선이요, 흰색은 여백인데 그 선과 여백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한국 옛 그림이 어려웠다면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첫 발걸음을 떼볼 수 있겠다.

이 책은 크게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옛 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그림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서 옛 그림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된 입문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책의 저자인 오주석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은 동양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호암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겸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강의를 펼쳐오다 지난 2005년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저자가 말하는 옛 그림 감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옛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옛 그림이 그려지던 때에는 세로쓰기가 원칙이어서 당시의 글과 그림 모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진행된다. 따라서 옛 그림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감상해야 한다. 현재 가로쓰기의 방향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의 방향으로 옛 그림을 보면 그림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림의 대각선 너비만큼 떨어져서 찬찬히 봐야 한다.

둘째, 옛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선인들은 자연의 음양오행에 기초한 우주관과 인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옛 그림 속에도 이러한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극기 속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조선이 수도 "한양"이라는 명칭, 동서남북 4대문의 이름도 그렇다. 색깔 역시 오행에 맞추어 동은 파랑, 남은 빨강, 서는 하양, 북은 검정, 중앙은 황색이 되고, 맛을 따져도 동은 신맛, 남은 쓴맛, 서는 매운맛, 북은 짠맛, 중앙은 단맛이 되는 등 문화 전체가 오행을 묶여 있다. 따라서 옛 그림들을 풍부하게 감상하려면 그 속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옛 그림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면 문화와 도덕이 굳건했던 조선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것보다 참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조상들의 꼿꼿한 정신을 느끼게 되고, 그림 속 상징으로 은근하게 다정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옛 그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 2》도 읽어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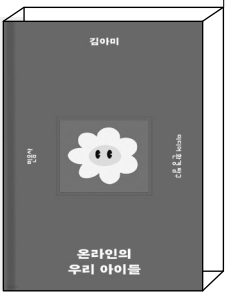
어른들은 몰라요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김아미 글 – 민음사, 2022.

추천대상: 일반
#주변에 어린이들을 둔 이들에게
#온라인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게시할 때마다 아동용 동영상이냐는 질문이 떠서, '아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전체관람가 영상을 묻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예, 아동용 영상입니다.'를 누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올린 영상에는 댓글 창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동용 영상과 댓글이 무슨 관련인가 하며 다시 '아동용 영상이 아닙니다.'로 수정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 책《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을 읽으며 풀리게 되었다.

밀레니엄 세대도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Z세대를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독자들이 그런 편견을 바로 부수게끔 이 책은 Z세대가 마주하는 온라인 환경과 그전 세대가 마주한 환경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저자는 2005년에 처음 미디어 연구자로서 중학생들을 인터뷰하러 나섰고 인터뷰 대상들은 현재 30대가 되었는데, 2005년의 10대들과 달리 현재 10대들은 스마트폰 보급화로 24시간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이 되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온라인 환경을 경험한다. 게다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세대별로

이용하는 행태가 달라져 세대 간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은 마치 정글에 칼자루 하나만 쥐고 풀숲을 혼자 헤쳐나가듯이 온라인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다. 온라인 환경이라는 큰 숲 속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이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뭇잎만을 쳐다보게 된다. 온라인이라는 정글 속에서 아이들은 무지갯빛 동화 속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악플, 갈등의 극대화 등 정신적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온라인 속 세상의 폭력이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식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글이 되어버린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헤매고 있을 때, 어른들은 온라인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유튜브처럼 단순히 아동용 영상에 댓글을 막는 식의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완벽히 마련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을 읽으며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는 그 말. 어린이들에게 무해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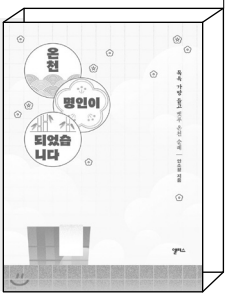
평범한 회사원의 벳푸 온천 순례기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

안소영 글 – 앨리스, 2019.

추천대상: 일반
#일본의 온천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롭고 참신한 그러나 소박한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시이모님께서는 순천 어디 즈음에서 태어나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셨다. 그 분의 유일한 소원은 거동이 가능한 '이일천'이라는 꽤 규모가 있는 동네 목욕탕을 매일 다니는 것이다. 결혼한 후 그 소박한 소원을 듣고는 목욕탕이 그렇게 좋은가? 했다. 그런데 어느덧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되어보니 삶의 어느시간 바람이 있다는 그 자체로 살아있음을 그래서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 또 건강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수 밖에 없어 일정 시간을 할애하거나 큰 돈이 필요한 실천보다는 생활 가운데 어렵지 않은 선택을 둘러보게 되었다.

책은 일본의 온천을 지역별로 묶어 소개한다. 첫 번째 동네에서는 뭉게뭉게 피오나는 지옥 연기를 따라라는 타이틀로 6곳을 소개한다. 온천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탕치(湯治) 문화의 본거지로 불리는 간나와 지역이다. 지고쿠바루 온천을 시작으로 가마도지고쿠, 간나와 무시유, 쇼닌유, 영센터, 스지유 온천까지 숙박과 식사까지 소개하는 정보가 넘친다. 두 번째 동네는 구름도 쉬어가는 마을에서는 묘반의 가쿠주센, 부젠야 료칸, 료칸 와키스기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 속에서 전해지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움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동네에서는 골목마다 온천, 온천 천국 벳부를 담았다. 저자는 가미야 온천을 시작으로 명인의 단골집 고노하나 온천까지 12곳을 소개한다. 여기에 이벤트로 벳푸팔탕 온천축제와 비영리법인 온천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명인회 활동까지를 담았다. 명인회는 벳푸 온천의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인터뷰에 담긴 회원들의 벳푸온천 사랑이 따뜻하다.

다음 네 번째 동네는 개성 넘치는 온천이 가득한 하마와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네 벳푸를 한눈에 바라보는 지역 간카이지에 소재한 온천이 소개된다. 여섯 번째 동네는 호리타이다.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온천 무겐노사토 슌카슈토와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지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진 호리타 온천을 소개한다. 그리고 일곱번째 동네 생활감 넘치는 바닷마을 가메가의 하마다, 게이린, 시노유, 가메가와 스지유 온천이다. 여덟 번째 동네 시바세키의 초센지 야쿠시유와 시바세키온천, 마지막은 이색온천으로 쓰카하라 온천 가코우노이즈미와 히다마리 온천 하나오유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 왜 온천을 좋아하는가, 또 앞으로 어떤 맘으로 온천을 찾을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옮겨 적으며 '온천을 만난 뒤 평범한 매일, 보통의 내가 더 좋아졌다' 는 저자의 마음으로 책에 담긴 벳부의 온천 사진을 눈요기하며 일독을 권한다.

글을 쓰는 동안 계속 떠올렸다. 온천 밖으로 풍기는 향긋한 비누냄새, 조금은 소란스러운 듯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온천탕의 모습,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몸에 끼얹을 때의 짜릿한 그 기분을,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마시는 우유 한 모금의 고소함을. 이쯤 생각하니 아, 참을 수 없다. 온천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목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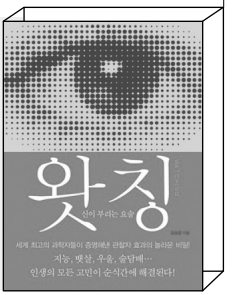
때론 '제3자의 관찰자 효과'가 지금 당신의 문제에 해결 열쇠!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왓칭 1: 신이 부리는 요술

김상운 글 – 정신세계사, 2011.

추천대상: 일반
#걱정, 불안에 잠을 설칠 때
#우주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



우리는 때로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다. 《왓칭》을 읽고, 이해와 수긍을 할 수 있다면, 세상 지혜의 절반은 이해한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도 여전히 아직 책의 절반 밖에 이해를 못 했다고 하는 독자가 있다면 밥이 뜸이 들어야 맛이 나듯이 이해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궁금증을 집중력 있게 가져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집중력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내 삶에 곳곳에서 의문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물음을 갖고 해결책을 찾을 의지가 작동해야 세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 역시 이와 같은 세상에 이해가 될 듯 안되었고, 지혜를 찾을 듯 못찾는 과정속에서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양자역학에 까지 왔다. 이해에 대한 갈급으로 찾던 길목에서 왓칭을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은 15년 전 읽었던 어떤 책과 많이 닮아 있다.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가 쓴《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다. 물이 0°C에서 육각형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못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너 싫어!', '미워'라고 하고 결정체를 보면 그냥 검은 원형이거나 아무런 결정체도 맺지 못하지만, '사랑해~', '고마워'라고 하고 만들어진 결정체를 보면 눈송이같은 아름답운 결정체를 만들어 있다. 물도 인간의 감정을 담은 말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감정이 깃든 단어를 써서 붙여 놓은 결정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긍정의 파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2008년 쓴 책으로 IHM국제파동회 대표로 물과 파동, 그리고 인간관계의 해석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책이다.

세상은 신비한 곳이다. 세상의 원리도 세상의 지혜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집중력 있게 가져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집중력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내 삶에 곳곳에서 의문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물음을 갖고 해결책을 찾을 의지가 작동해야 세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노력의 과정에 《왓칭》은 도움이 된다. 《왓칭》의 저자 김상운은 MBC 보도국 기자이며 국제부, 정치부, 경제부를 거쳐 뉴스 앵커, 워싱턴 특파원, 국제전문기자, 논설위원 실장을 역임했다. 시사프로 〈지구촌 리포트〉, 〈이슈를 말하다〉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라디오 뉴스와 논평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왓칭 2 - 시야를 넓힐수록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리듬》 등이 있다. 김상운이 데뷔작 《왓칭》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상당히 흥미롭다. 그는 20년의 기자 생활을 하던 중 할머니와 연이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보내면서 영적 세계의 진실을 알아갔다고 한다.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기자가 양자역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독특한 관점이 돋보인다.

이 책의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꿰뚫는 시각은 관찰자효과이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한다. 양자물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 실시한 이중슬릿 실험을 실시해 증명했고, 세계적 물리학 전문지인 〈물리학 세계〉는 이 실험을 '인류 과학 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했다. 미립자들이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비국지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성질 물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명한다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가 달나라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다. 사람만 아니라 사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만물이 미립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일 수 있다. 저자는 이 말도 와닿지 않는다면 고통을 그냥 바라보라고 한다. 도무지 무슨 서평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내 삶과 세상이 통하는 해법이 이 책에 있으니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덤으로 양자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멋진 문구가 있어 몇자 적어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한다.

>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하지만 영혼에 눈을 못뜨고 살다보니 사랑은 뒷전이 되어 버렸다. [중략] 아이슈타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게 뭔지 알고 살다 죽었다. 우주를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다."***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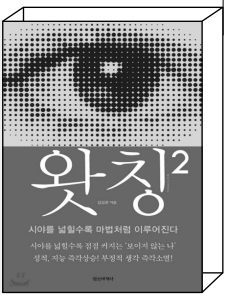
나의 실체가 허상이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왓칭 2: 시야를 넓힐수록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김상운 글 – 정신세계사. 2016.

추천대상: 일반
#화를 다스리는 법, 역경을 극복하는 법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



왓칭 1~2권의 저자 김상운은 MBC 30년 된 기자이며, 앵커이며, 현 논설위원이다. MBC의 2000~2013년까지 611부작 〈지구촌 리포트〉는 지구촌의 소식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국제뉴스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그 외 2017년부터 운영중인 〈이슈를 말하다〉도 초기 진행을 맡았었다. 2014년 한국언론인연합회 논설부문 참언론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왓칭 외 저서로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리듬》 등이 있다.

서평 제목을 '나의 실체가 허상'이라고 했다! 왜일까? 이해가 될 듯, 안 되는 내용이다. '허공'이라는 있으나 있지 아니한 空, 비어 있음을 말하고 싶어서다. 고등학교 교과서 '님의 침묵'을 배울 때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왓칭을 읽고 어렴풋 이해가 간다. 형상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 실체는 없다는 뜻일 것이다.

왓칭은 내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

하고 있었던 말, 과학, 철학, 성경 등에서 말하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이해와 해석이 되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도 자신이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이 책을 쓴 저자 만큼 많은 부분을 이해와 해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흥미롭고, 읽기 쉬울 뿐 아니라 재밌게 쓰였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빛의 공간은 영혼의 공간을 품고 있다

영혼의 공간은 생각의 공간을 품고 있다

생각의 공간은 감정의 공간을 품고 있다

감정의 공간은 육신의 공간을 품고 있다. *(225)*

일이 안 풀리고 안 될 때, 내 팔다리의 힘도, 내 몸뚱이의 열정도, 내 두뇌의 생각도, 나를 휘감는 온갖 감정도, 사실은 바깥세상에 속한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마라. 바깥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건 내 마음속에 들어 있다. 바깥세상은 착각의 세계이다. 일이 안 풀린다면 몸부림을 멈추고, 대신 마음속을 들여다 보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무한한 공간이 열린다. 명상이나 멍때리기, 기도 등으로 내 내면을 계속 들여다 보고 빛의 공간까지 나아가는 연습을 하다보면 무한해진다. 그토록 매달리던 것도, 붙들고자 했던 것도, 얻으려 애쓰던 것도, 죄다 스쳐 가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무한한 공간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존재가 들어 있다. 그 존재와 하나가 될수록 나는 점점 커진다. 그러나 빛으로 가는 존재와 분리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진다.

독자분은 어떤 존재 혹은 신이라고 표현되는 무엇 앞에서 마음껏 울어 본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어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짐을 느낀 적이 있다. 이것이 무한한 존재인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된다. 참다운 안식 속에서 새로움이 태어난다.

과거 큰 죄를 현재 진심으로 뉘우치면 나의 미래도 바뀔 것이다. 후회가 되는 과거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재 한 치 앞을 뚫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왓칭을 읽되 이해가 되면 2권도 읽어 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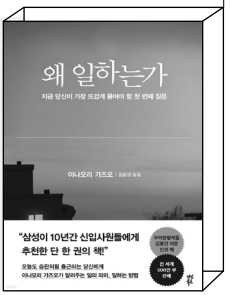
일을 하는 이유.
오직 '생계'만은 아닐 것이다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글, 김윤경 옮김 – 다산북스, 2021.

추천대상: 일반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좌절하고 있다면



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활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행복함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일'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일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의 부속품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일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일 때문인 것인가?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까? 평생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일'을 바라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일본의 전설적인 대기업 창업주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다.

《왜 일하는가?》의 작가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현재 세라믹 패키지 점유율 세계 1위 대기업 교세라의 창업주이다. 그는 세라믹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창업했다. 다양한 경영 전략으로 교세라를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2010년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의 회장으로 부임, 자신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켰다. 그랬던 그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의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차가운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해야만 했다. 신입사원에서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아흔이 될 즈음 그는 지난 회사생활을 되돌아보며 《왜 일하는가?》를 썼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에게 '당신은 왜 일하는가?'에 대해 묻는다. 작가는 청년들에게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왜 일하는가?'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 '일을 사랑하는가'에서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성공과 연결되는지 작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3장 '무엇을 꿈꾸는가'와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에서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과 성취를 위한 간절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고 5장 '현재에 만족하는가'에서는 작가 나름의 인생과 일에 대한 방정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6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에서는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주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262)*

작가는 60여 년간의 자신의 일과 인생을 굉장히 담담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성공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 역시 솔직하고 겸허하게 독자와 공유한다. 작가는 잘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천부적인 재능도 없었다. 세라믹 분야의 전공자도 아니었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다.

'인간은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41)*

이나모리 가즈오는 사업가로서 명성을 얻을 즈음 자신의 사재를 털어 '교토상'을 설립했다. 이 상은 매년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노력을 일생 동안 해내는 것. 그렇게 자기 내면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토상'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과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다니고 있는 회사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며 일을 하는 이유와 목표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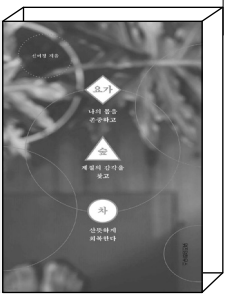
균형 있는 삶의 미학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요가 숲 차

신미경 글 – 위즈덤하우스, 2023.

추천대상: 일반
#균형 잡힌 웰니스의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나를 잘 대접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건강을 지향하게 되면서 웰빙이 웰니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요가, 숲, 차》는《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로 잘 알려진 신미경 작가의 신작으로 소소한 웰니스 생활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언제나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을 꾀하며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실천과 철학이 담긴 글을 주로 쓰는 신미경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는 유해한 것들을 더 최소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일상을 지켜주는 3가지 '요가, 숲, 차'를 매개로 자신만의 복지 생활을 꾸려나가는 작가의 일상 기록을 담았다. 몸과 마음을 잘 보듬는 시간을 갖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관리하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며 나를 되돌아보며 반성과 나아감이 있는 나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이 책은 크게 요가/ 숲(식물)/ 차(tea)를 주제로 일상 속 웰니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은 구성은 크게 4부로 나뉜다. 프롤로그 '나의 골드락스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내 몸에 대한 존중을 다룬 1부 '요가', 치유의 공간 2부 '숲', 일상의 위안 3부 '차', 나는 내게 좋은 사람 4부 '느슨하게 산다'', 에필로그 '일과 휴식 사이에서'로 구성되며, 나의 몸을 존중하고, 계절의 감각을 찾고, 산뜻하게 회복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행복은 당신만의 여름 별장과 감자밭을 갖는 것'이란 핀란드 속담이 있다. 소박하면서도 어쩐지 부유한 이 문장에서 언젠가 내가 가질 행복의 여름 별장에서 보낼 매일을 상상한다. 아직 실재하진 않지만 고된 업무를 마친 어느 날이 지나고 한가롭게 여름 산을 오를 때 그와 가까워진 듯도 싶다. 미래에 가질 행복은 지금부터 예습한다. *(78)*

신미경 작가의 글은 본인처럼 정갈하며, 항상 자신만의 삶을 단단하게 가꿔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와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드는데, 중간 중간 작가가 인상 깊었던 글귀들을 기록해 두어 재미를 더한다.

라곰(Lagom)은 적당히 균형 잡힌 생활을 추구하는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행복을 추구하며 쉴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 '셀프 복지'로 충만한 자기만의 휴식법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탐독하며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찾아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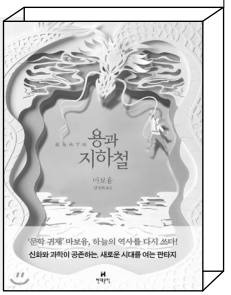
삶의 활력소, 속도감이 실린 영화같은 이야기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용과 지하철

마보융 글, 양성희 옮김 – 현대문학, 2018.

추천대상: 일반
#우리, 안녕. 존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이들에게
#역동적인 영화를 활자로 경험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삶에 즐거움을 더할 활력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재를 신선하게 조합했다고 생각했다. 타임머신과 문명이 지고히 발달한 현대시대, 배와 뱃사공, 우주탐사선과 외계인등 우리는 뭉치면 척인 많은 소재거리를 알고 있다. 쓰는 사람이 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뻔한 전개가 될 수도, 반전 어린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 말이다. '뭉치면 척'인 소재거리에서 우리는 작가의 역량을 기대한다. 작가가 소재를 다루는 능력이 내용적 즐거움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마보융은 흔히 쓰이는 소재를 즐겁게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작가다. 더하여 소재의 조합이 신선하기까지 하다.

용이 나오는 시대에 현대적 배경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흔히 대중매체에서 용은 상서로운 존재로 비늘을 갑주처럼 두르고 인간의 삶에 신화적인 상상력을 더하는 존재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천벌을 내리는, 고대시대의 권선징악이 어울리는 시대에 어울리는 존재가 용이다. 용은 인간사를 초월한 존재였다가 인간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존재로 나오고는 한다. 고대사 용과 지하철은 현대적인 배경을

차용하고 있다. 비행기가 뜨고, 지하철이 있는 등 인간의 삶에 속도감을 실어주는 매체가 발달해있다. 특이하게도, 용과 지하철의 용은 인간과 인접하게 위치해있다. 인간은 지하철인 용을 타고 다니며, 용은 불만 없이 인간을 태우고 다닌다. 용이 하늘이 아닌 지하를 거닐며 인간을 태우고 다닌다는 설정이 신선했다.

용을 그저 교통수단이라는 소재로 썼다면 작품 배경 중 하나로 이야기가 끝냈을 것이다. 작중 등장인물들은 지하철 대신 용을 타고 다닌다는 설정으로 말이다. 마보융은,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용에서 읽어내고는 하는 상서로움을 부여해준다. 고요하면서 우아하고, 인간의 짧은 식견을 이용해 읽을 수 없는 사연이 축적된 존재로 말이다. 용은 대중매체에서 흔히 묘사되듯이 비밀을 지닌 존재다. 신화적인 상상력과 작가가 글을 풀어나가는 글 솜씨가 놀라웠다.

접근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썼다. 마보융이 자연스레 풀어가는 필체에 글을 술술 읽었다. 그의 오랜 글밥에서 나오는 습벽일까.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영화를 보듯이 장면이 스틸컷처럼 이어지는 장치를 심는 것을 그는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자료조사를 꼼꼼히 하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정보자료를 습득하는 것을 즐겨한다고 한다.

가벼워야 할 곳에서는 작품의 몸집을 가볍게 하며 작을 진행해나가고, 작품에 부피감을 담아 무게감 있는 필체로 주제를 말해야 할 때는 그는 문장에 심도 있는 고찰을 담는다. 삶에 활력소가 필요한 현대인, 역동적인 영화를 활자로 읽고 싶은 우리들, 그리고 다른 존재에 귀 기울이기는 인간애적인 시선을 발견하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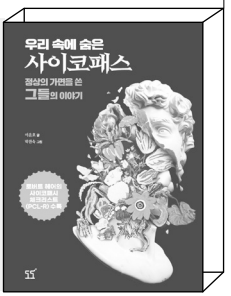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

이윤호 글, 박진숙 그림 – 도도,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알고 싶은 이들에게
#직장 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부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반 행태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하나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시대에 우리는 왜 사이코패스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영화와 소설 속에서만 보아왔던 사이코패스, 그들이 저지른 끔찍하고 잔혹한 살해 수법이 대중매체의 발달로 현실에 여과 없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17명을 살해한 이판능, 1982년 62명을 연달아 살해한 우대곤,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알려진 김대두, 사이코패스 논쟁을 불러일으킨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의 롤모델이었던 정두영과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정남규, 언변이 남다르고 피상적 매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다.

이들의 극악무도함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나, 이 책의 저자이자 범죄학 박사인 이윤호 교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도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즉,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잘못된 통념, 오해, 왜곡된 정보와 지식, 현상을 비뚤게 바라보는 인식이 만연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박감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를 '개인주의를 권장하는 사회'로 꼽고 있으며, 이들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기질이 발현되지만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팰런의 사례를 들어 폭력 범죄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연계되는 신경 화학물질 모노아민 산화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주변인의 영향으로 친사회적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들이 언제 어떻게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들과 직면했을 때 침묵이 최선의 반응이자 대응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처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말라. *(223)*

두 번째로 그들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라. *(224)*

이 책에는 사이코패스 측정 도구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를 수록하여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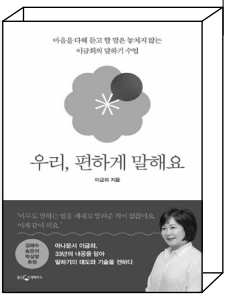
마음을 여는 말하기를 위해서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22.

추천대상: 말하기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사람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사람



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능력은 늘 일정하지 않아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선에서 이용자들을 자주 만나는 사서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는 아침마당으로 유명한 이금희 아나운서가 쓴 책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화가 나의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전제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말하기가 시작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의 제목에서도 작가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잘 듣는 것만으로도”, “2장 말을 이해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 “3장 때로 작은 구원이 되”,“4장 말하기를 제대로 배운 적 없기에” 등의 소제목은 말하기에 필요한 본질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 대해 공감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듬는 방법,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쉽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대화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것, 불필요한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실수들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피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에서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립되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글씨와 말투에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에서 성품이 묻어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따뜻한 말하기를 하려는 저자의 속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인 만큼 말하기에 대한 책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많은데 이 책은 가술보다 성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화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 외에 말하기에 있어서 어휘에 대해 쓴 책을 찾고 싶다면 유선경 작가의 “어른의 어휘력”, “감정 어휘” 등을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민폐녀'는 없다

정지연 (안양시 평촌도서관)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김이삭 외 글 – 한겨레출판, 2022.

추천대상: 일반
#한국 장르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기발하고 참신한 이야기를 찾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호러나 스릴러 작품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남성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여성들은 가장 먼저 살해당하는 희생자나 주인공 옆자리의 조연, 아니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로맨스 요소의 일부로만 그칠 뿐이었다. 억울하게 살해당해 귀신으로 등장하는 그들의 사연이나 서사는 항상 자세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단편집《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는 여성들을 주연으로 내세운 미스터리 호러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지금까지 호러라는 장르에서 소외되어 한 발자국 물러났던 여성들을 내세워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서사를 다루는 데 집중한다.

소위 '묻지마 살인', 가스라이팅 및 데이트 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 혐오 범죄는 지난 몇 년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단편 〈창귀〉, 〈성주 단지〉, 〈그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마법〉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주요 소재로 나온다. 귀신이나 심령현상 같은 미지의 소재보다는 범죄라는 현실적인 공포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여성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겪은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창귀〉에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한 여성이 ptsd를 겪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로 서울의 한 역에서 있던 묻지마 살인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그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마법〉의 마지막에는 짝사랑하던 남성의 꼬임에 넘어가 불법 촬영을 당할 뻔한 자존감 낮은 여성의 복수극이 나오는데, 항상 약자와 피해자로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던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통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사회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반문을 던지는 내용의 단편도 있다. 단편 〈매혹〉은 농촌 외진 시골마을로 내려온 젊은 부부가 마을 내 종교에 얽히는 이야기이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의 밑에서 주눅 들어왔던 아내는 여성들에게만 허락된 마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발을 디디고 그곳에서 매혹적이고도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며 해방감을 느낀다. 단편 〈너의 자리〉는 회사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20대 여성의 시각에서 회사의 남자 정직원들이 점차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계약직이자 여직원인 주인공의 업무는 남자 정직원들의 커피를 타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심 시간에 회사에서 밥을 짓고 반찬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늘어난다. 매일 점심 진한 통뼈 사골국을 먹으면서도 남자 직원들은 옆자리 팀장과 대리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 둘 실종되는지 짐작하지 못하고, 사무실 자리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계약직 여직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기발하고 참신한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 그리고 기존 호러 미스터리 장르에서 약자나 피해자 또는 '민폐녀'로 낙인찍히고 퇴장하는 여성들을 안타까워했던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10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각인각색의 다채로운 단편을 읽으며 독자들은 호러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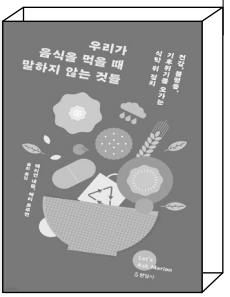
군침 돌지 않는 음식의 진실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

매리언 네슬·케리 트루먼 글, 솝희 옮김 – 현암사, 2022.

추천대상: 성인
#음식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가 궁금한 분들에게
#건강한 음식과 식단에 대해 궁금할 때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그 음식이 당신의 몸과 사회에,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나요? 이번에 소개할 책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에서는 현 시대의 식품 산업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식품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부 되어 있는지, 또한 푸드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음식 안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군침 돌지 않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챕터 〈식탁 위의 고민들〉에서는 식품 산업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충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를 매일 챙겨 먹지만, 우리 몸은 균형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에 관한 의학적 이점들은 관련 사업체가 지원한 연구에서 도출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두 번째 챕터 〈대체 음식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에요?〉에선 높아지는 비만률을 걱정하는 한편 다른 곳에선 기아가 사라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회 문제를 꺼냅니다. 원인으로 품질과 지속가능성이 아닌 생산량에만 집중되어 자본을 축적하는 식품과 농업 정책에 문제점들을 꼬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울트라 가공식품'은 설탕, 지방, 소금이 잔뜩 첨가되고 인공 향과 색소를 사용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을 지칭합니다. 저소득층이 이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개인만의 문제인지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챕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에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치, 기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매리언 네슬은 오래도록 공중보건 영향학자이자 식품학자로서 활동하며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정치가 푸드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왜곡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 알리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저자는 환경운동가 케리 트루먼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하고 정치적인 음식의 이면을 알리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전체 시스템의 맥락을 쉽고 친근한 말투로 설명하며, 다소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인류와 지구를 위해 더 건강한 푸드 시스템을 지지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에겐 매리언 네슬의《식품 정치》,《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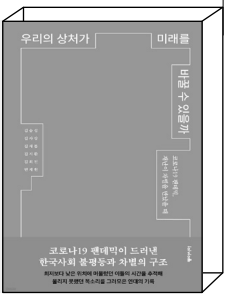
재난의 비용을 치르는 이는 누구인가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김승섭 외 글 – 동아시아, 2023.

추천대상: 일반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코로나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사회 속 불평등이 드러나는 순간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코로나19 발생 후 답답했던 3년 여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드디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치명률도 낮은 나라로 주목받아 세계적으로 K-방역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코로나19 기간의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의학과 역학을 통해 차별 경험과 고용불안 같은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 김승섭을 비롯한 총 5명의 필진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집단에 주목하면서 책은 시작한다.

> ***그러나 감염병 재난은 모든 상황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한 인간과 바이러스가 만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정치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고유한 역사 위에서 인간은 바이러스와 만난다. 전 세계 어디에서건, 팬데믹의 모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사회가 만나 생겨난 풍경이었다.*** *(9)*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추방이 두려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이주민들에게 내국인 중심의 방역 수칙 안내문만이 배포되어 제대로 된 방역 정보를 전달받는 것조차 어려웠다. 장애인은 불편한 몸으로 코로나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버거운데 비장애인이 쓰는 자가격리 물품을 받고 홀로 격리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또한 숱한 감염 노출에도 제대로 된 방역물품을 받지 못하는 의료계 노동자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전적으로 도맡은 가정 내 여성들은 과도한 업무나 일상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어른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부모들의 가정 내 돌봄 시간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 사고 건수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성인 대상으로 권장되었던 백신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방역 수칙이 아동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 책은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어쩌면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이 가닿지 않는, 사각지대 속 개인에게 의무감을 발휘하게끔 하여 방역을 외주화한 면이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방역 정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인지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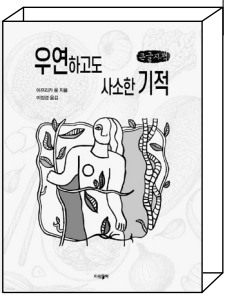
K-푸드로 삶을 치유하다

신가인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우연하고도 사소한 기적

아프리카 윤 글, 이정경 옮김 – 파람북, 2022.

추천대상: 성인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에세이를 읽고 싶을 때
#음식과 체중감량에 관련된 에세이를 찾을 때



저자인 아프리카 윤은 카메룬계 미국인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이다. 미디어를 통한 HIV/AIDS 인식을 제고한 공헌으로 로마에서 'Golden Graal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으며, MTV에서 선정한 '젊은 활동가 4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인 입양 가족이나 아프리카 고아를 돕는 활동도 펼쳐왔으며 현재는 한국을 알리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업 '블랙유니콘'의 CEO이다. 일찍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유명 인사와 어울리는 화려한 삶의 이면에서 저자는 몸과 마음의 불건강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만나 변화하기까지의 작지만 큰 기적의 여정을 들려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서사를 풀어내었다. 일찍이 한국과 연이 닿게 되었고,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어두웠던 시기에 다가온 한국 할머니는 음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한국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 세 아이를 낳고 부산에서 잠깐 살기도 한다.

현재는 한국을 알리는 기업을 운영하며 깊은 연을 이어오고 있다.

다짜고짜 "자넨 너무 뚱뚱해"라고 말한 한국 할머니의 잔소리에서 시작된 한국 음식과의 인연이 50킬로그램을 감량하게 만들었고, 더욱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저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애정으로 받아들여 조언을 구했고, 한국 마트에서 만나 같이 식재료를 사며 한식을 배우게 된다. 책에서는 김치, 된장찌개, 미역냉국, 삼겹살, 시금치 무침까지 수많은 레시피와 설명이 등장한다. 한국인보다도 한식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식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잘 모르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저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이타심'의 가치가 재조명한다. 카메룬 UN 대사로 평생 남에게 헌신했던 아버지와 에이즈 관련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저자 또한 사회문제를 알리고 후원받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이로운 영향력을 퍼뜨렸다. 그런 그가 어려운 시기에 빠지자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남을 돕는 것을 손해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요즘의 세태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선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다.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겨내었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 책을 통해 주변에 먼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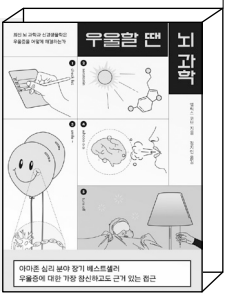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우울 탈출 매뉴얼

백송이 (가평군 청평도서관)

우울할 땐 뇌 과학

앨릭스 코브 글, 정지인 옮김 – 심심, 2018.

추천대상: 일반
#이유를 불문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자신의 뇌와 감정처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우울의 제국에서 살고 있다.

현대 한국인 기준, 10명 중 4명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자살률 1위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생화학적 문제부터 인간관계 같은 환경적 문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까지. 복잡하게 얽힌 현대인의 삶은 가히 우울 지뢰밭이다. '우울증 까짓 거, 감기같이 단순한 병'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다. 주위의 시선은 아직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듯싶다. 간단한 방법으로 우울과 맞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보았으리라. 그런 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바로《우울할 땐 뇌 과학》이다.

왜 하필 뇌 과학일까. 저자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저자 엘리스 코브는 저명한 뇌 과학자인데, 본인이 우울증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과학을 도구 삼아 15년 동안 우울증만을 파고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열정과 집념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시중에는 이미 많은 우울증 대처 서적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뇌 과학이라는 첨단 학문과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실천적으로' 우울증과 맞설 수 있게 해준다.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 표현하는데, 그 때문인지 우울함에 대한 책을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어딘가 모호한 조언이 많이 나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거나. 그게 그렇게 뚝딱 되면 책을 뒤져보고 있겠는가.

그러나 《우울할 때 뇌 과학》에는 읽는 도중에라도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방법과 그것의 최첨단 학문근거가 실려 있다. 예컨대 "선글라스를 쓰자", "스포츠 팀을 응원하자" 같은 종류다.(근거는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이 정도는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다. 두루뭉술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 책은 일종의 범용 우울 탈출 매뉴얼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장점만 있는 책은 아닐 수 있다. 뇌 과학을 기반으로 삼다 보니 도입부가 갑자기 생물수업시간이다. 그러나 그런 건 대강 넘겨가며 보아도 된다. 저자가 그래도 된댔다. 게다가 가볍고 유쾌한 문체 덕분에 어려운 내용도 꽤 즐겁게 읽을 수 있으니,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이 책을, 우울함에 시달리는 독자들이 발견하고 집어 들어, 긴 터널 탈출의 실마리를 발견하면 좋겠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 읽고, 좀 더 자신의 뇌와 사이좋게 살아갈 방법을 얻게 되면 좋겠다. 손해 볼 것이 없는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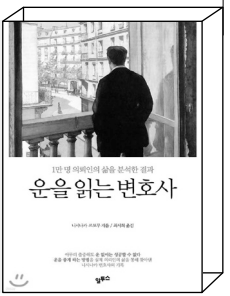
다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운을 부른다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운을 읽는 변호사

시나카 쓰토무 글, 최서희 옮김 – 알투스, 2017.

추천대상: 일반
#운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을 알고 싶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순 방향이 운이라는 사실을 깨닫을 때



니시나카 쓰토무는 194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오사카대학 법학부 졸업 후, 5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민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큰 명성을 얻은 그는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현재 에토스(좋은 논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생명의 전화' 상담원뿐 아니라 자기 집 주변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매년 손 글씨로 쓴 2만 장이 넘는 편지와 연하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다. 저서로는 《베테랑 변호사는 다투지 않는 삶이 길을 개척한다》-국내 미출판- 이 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일본 저자의 글은 쉽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얻은 삶의 지혜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 현란한 수사 어구도, 어렵고 대단한 논리도 아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꽈배기처럼 꼬거나 엮지 않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가 에세이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삶의 엑기스(진리)는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저자 니시나카 쓰토무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분쟁 -사람들 간의 이익의 불일치, 관계의 불평등, 의심, 욕심, 사기 등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불행 중에 행운은 무엇이고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본질적 물음에 답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나만 위하는 이익은 나중에 나를 위하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그러니 일상에 소소한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고, 친절하고 정중하면 사업은 절로 번창한다고 한다.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이유는 200만 명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1.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마음.

2. "네"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라는 반성하는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라는 겸손의 마음

- 일상의 여섯 가지 인덕의 마음 *(168)*

또한 내 안에 운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 보은, 이타, 자비, 겸손, 인덕, 천명이라 했다. 가장 좋은 수는 다툼과 분쟁을 미연에 막고 원만한 해결만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길이라 한다.

분쟁으로 먹고사는 직업인 분이 50년 변호사로 살면서 운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타협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순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순리를 감사와 이타심 등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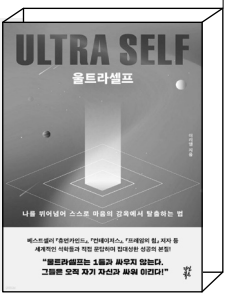
나를 넘는다.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울트라 셀프

이리앨 글 – 다산북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스스로를 뛰어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울트라셀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통찰을 전하는 지식큐레이터이자 3,000만 조회 수, 35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리앨'(이상한리뷰의앨리스)의 저서이다. 미국 생활을 하던 저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 본인의 귀국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로 여기게 되었다. 그 후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성공의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자는 《휴먼카인드》의 저자 뤼트허르 브레흐만, 《컨테이저스》의 저자 조나 버거 등 25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직접 문답하여 성공의 본질은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계속 거하는 울트라셀프에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동물적 본능에 굴복당한 채 비스트셀프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울트라셀프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보고 확신을 얻은 저자는 울트라셀프와 울트라셀프 명상법을 정립해 세상에 알리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 책은 그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의 본문은 270페이지 분량으로 '울트라셀프

OFF'와 '울트라셀프ON'의 두 장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비스트셀프'와 '울트라셀프'라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한 후 '울트라셀프'로 살아갈 것을 권한다. '비스트셀프'는 동물적인 본능에 지배당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반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을 저자는 초자신이라는 뜻의 '울트라셀프(Ultra-self)'라 명명했고, 본인 스스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 후 쏟는 노력이 얼마나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비스트셀프에서 벗어나 울트라셀프로 재탄생되기를 바란다.

자기계발을 위해 아무리 지식을 쌓고 책을 읽어도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자기계발에 '자기'가 빠졌기 때문이다.

'계발'이 효과로 이어지려면 변화의 주체인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한다. *(54)*

본문에서 인상 깊은 점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에 집중한 것이다. 또 독자의 몰입을 돕기 위해 저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지 전개 방식은 기존 자기계발서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뇌과학,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학, 영양학 등의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며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 근래 실질적으로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명상과 긍정 확언 등 자기 계발 실천 과제들의 실제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본문 요소마다 시의적절하게 잘 배치한 점도 흥미롭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의 실천 과제를 간단하게 따라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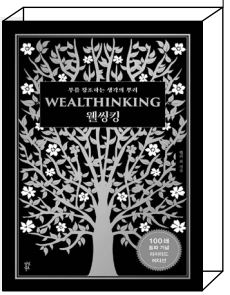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웰씽킹

켈리 최 글 – 다산북스, 2022.

추천대상: 일반
#삶의 질을 바꾸고 행복해지고자 할 때, 부자가 되고자 할 때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고자 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았으면 한다. 켈리 최는 전북 정읍에서 서울에 상경하여 한성실업에 다니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갔고, 이후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파리로 가서 대학을 마쳤다. 전시사업을 하다가 30대 후반에 10억의 빚만 지고 처절하게 실패를 겪었다. 2년의 방황 끝에 다시 시작하여 현재는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에 6,000억의 연 매출을 이루는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kellyDeli)를 일궈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선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켈리 최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공생의 철학으로 오늘도 많은 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2021》 저서가 있다.

웰씽킹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부를 창조하는 삶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라고 한다. 그 첫 번째 뿌리는 핵심 가치를 찾고(148), 두 번째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뿌리는 선언(declaration) 할 것을 말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6,000억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 따르는 말이기에 중간에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이미 선언했기에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 외 믿음, 신념, 확신, 질문 등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질문'이라는 단어가 생뚱맞았다. 작가는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만큼 질문이 깊고 많아진다고 한다. 질문은 몰입의 결과이므로 생각지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 결국 질문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창조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질문하느라 뜻이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대안은 무엇일까? 등등 모든 난관은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 켈리 최는 현재 동기부여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삶을 나아지려는 세상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 역시 평범하다 못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글로벌 기업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멘토, 그루(Guru: 산크리스트 어로 스승)있었기 때문이다. 1,000명의 스승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만난 것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스승을 찾기도 했다고 한다.

부자들의 마인드를 알기 위해 노력했고, 부자들의 생각에 공통점을 찾았다고 한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따라왔기에 지금의 자리에 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무엇보다 웰씽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의 작용한다. 꿈을 믿고 믿음이 신념이 된다. 건강한 루틴을 형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명상과 독서이다. 그 외에도 부자가 되기 위한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생각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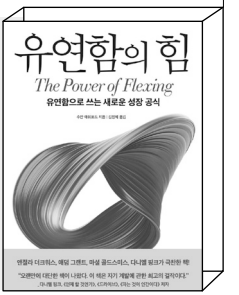
다시 필요한 힘, 유연함

장주선 (성남시 중원도서관)

유연함의 힘

수잔 애쉬포드 글, 김정혜 옮김 – 상상스퀘어,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자신감이 떨어질 때
#마인드셋이 필요할 때
#유연한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수십 년 경력의 조직 행동 전문가 수잔 애쉬포드는 일과 삶에서 성장하게 하는 일상 속 실험 '유연함의 기술'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리더가 된 사람,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받는 사람, 프로젝트에 성공하려는 사람, 자녀 양육 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 등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평범해 보이는 기술 '유연함의 힘'을 소개한다.

책의 핵심 포인트는 '유연함'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누구나 성장과 자기 계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연함이란 어느 환경에서도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마인드셋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상황을 맞이한다는 자세이다. 저자가 안내하는 성장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유연성 강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다음 실험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그 실험에 관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백미는 자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유연함의 힘》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 열 가지의 실험훈련법을 소개하는 내용 중 마지막 열 번째 문장 "이것은 연습이다."이다. 당장 빚어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할 수는 있다. 인생은 연습의 연속이고 배움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성장'이어야 함을 일깨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는 늘 어렵고 두렵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어떻게 도전하느냐, 얼마나 도전하느냐에 따라 성장 여부와 정도가 달라진다. 수잔 애시퍼드는 행동하면서 배우라고 한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하지만 "경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의식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내부의 적이 된다. 이런 상태로는 유연함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어째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경험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감정을 관리하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상황에 말려들지 말고 상황을 선택하는 것, 맥락을 바꿔보며 상황을 변경하는 것, 밝은 면을 보면서 상황을 재배치 하는 것, 감정을 인지적으로 재평가 하는 것인데 매우 지혜롭게 느껴진다.

유연함의 기술은 무겁고 비장한 개념이 아니며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유연함의 기술의 핵심은 '실험'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실패와 실수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한다. 유연함의 기술은 삶과 일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다. 육상에 비유하자면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경주를 반복하는 기법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역량을 계발하고자 할 때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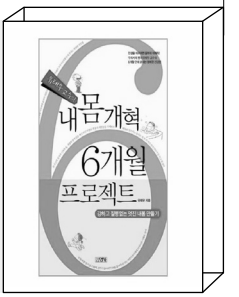
6개월만 투자해 보자, 건강해지리라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유태우 교수의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유태우 글 – 김영사, 2005.

추천대상: 일반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장기복용 중인 약을 끊고 건강한 내 몸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건강관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사와 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라 착각한다. 의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병원에는 언제나 환자로 북적이고, 약의 종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정작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명의라는 유태우 교수가 알려주는 6개월 안에 끝내는 명쾌한 건강법으로 강하고 질병 없는 멋진 내 몸 만들기란 부제가 붙어 있다.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는 우리 몸을 가장 약하게 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6개월 사이에 개혁시켜 '강하고 질병 없는 멋진 몸'을 만들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사람들을 늙고 병들게 하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인데, 몸의 예민함, 음주, 운동 부족, 흡연, 비만, 약물의존이 그것이다. 내 몸 개혁은 이 여섯 가지를 바꾸자는 것이다.

첫 달에는 내몸의 예민성을 지배하는 훈련, 금주 6개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다.

둘째 달부터는 2개월에 걸쳐 담배끊기를 성취하고, 3개월 후부터는 체중조절을 시작한다. 둔감해지고, 음주를 지배하고, 숨찬 운동을 하며, 담배를 끊고,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으로 건강 관리의 개혁적인 구조조정 프로젝트다. 모두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다.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운동과 음식, 만성질환과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있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동기부여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은 남기는 것을 통해 국물 중심의 식문화를 바꾸라는 제안이나,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점점 스스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상실하고, 소화운동이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는 지적은 음식과 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내 몸 바꾸기를 바라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만성질환을 약물 없이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현대의학의 주류를 이루는 질병의학만으로는 만성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현상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건강법을 제시하는 저자의 접근법이 신뢰감을 준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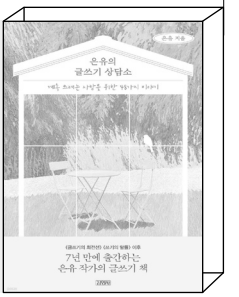
계속 쓰려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계속 쓰려는 사람을 위한 48가지 이야기

은유 글 – 김영사,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들'에게



'계속 쓰려는 사람을 위한'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는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과 함께 은유 작가의 글쓰기 3부작이다. 산문집과 르포 작가로, 글쓰기 강의로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가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깊이 있는 사유를 담았다.

'상담소'라는 책 제목은 쓰기에 대해 사람들이 던진 그간의 고민에 저자가 대답하는 형식임을 말해준다. 저자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익숙할, 과한 표현이 없는 소탈한 문장이 편안함을 준다. '혼자 글 쓰는 사람의 시기를 꽤 길게 보낸' 작가는 섣불리 단정하거나 겁주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이 가진 약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글쓰기에 공들여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떠올렸을, "재능이 없으면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요?"란 질문의 답이 인상 깊었다.

"고백하자면, 스스로 재능을 의심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글쓰기 천재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 글쓰기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낭비하기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만약 제가 글쓰기를 그만둔다면 재능 없음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없음을 비관해서일 거예요."

더이상 어떤 추가 질문을 할 여지가 없는, 본질에 가닿은 답변이다.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잘 쓸 수 있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은 더욱 도저하다.

겸양이나 자기 비하의 외피를 쓴 질문이자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자기 정리가 선행되어야 답할 수 있는 실존의 물음이고, 글 쓸 권한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권력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위계를 나누어 어떤 일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격을 묻고 서열을 매기는 식의 사고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중략] 저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누구나 다 써도 돼요. 만약 글을 '잘' 써야 할 것만 같아서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안 쓰기 위한 핑계를 대거나 '못 쓰는 나'의 상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담담하게 본질을 꿰뚫는 진단과 처방으로 핑계와 변명 거리를 잘라 버린다. 어떤 것도 소외시키길 원하지 않는 저자의 조곤조곤하고 사려 깊은 글들에 '잘라 버린다'는 단어를 쓴 건 그 진단과 처방의 간명함 때문이다.

책을 계속 집어 드는 사람들이라면 높은 확률로 스스로 쓰고 싶은 소망을 품고 살지 싶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작을 미루거나 어쩌다 쓴 자기 글에 실망하며 놓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글을 잘 쓰려하기 전에 '쓰는 행위만이 목적'인 시기를 충실히 통과하면서 자신만의 쓰기 방식과 그 이유를 찾으라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어떤 조바심도 열등감도 가질 필요 없이, 쓰기의 즐거움과 효용을 즐기다보면 얻는 것이 '잘 쓰기'라는 생각은 조급함과 부담을 덜어준다. 일단 써야, 잘 쓰든 아니든 할 테니까 말이다.

용의자 '준야'의 헌신

이강윤 (안양시 비산도서관)

음의 방정식

미야베 미유키 글, 이영미 옮김 – 문학동네, 2016.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불합리한 교사에 대항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영화 한편을 보는 듯한 긴장감 있는 추리소설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

2015년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떠돌며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영상 속 학생들이 빗자루로 십여 차례 교사를 때리며 침을 뱉는 행위를 자행하여 영상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교육부는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무려 5만 6천여 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에서 2021년 자살한 교원의 수가 76명에 이르며, 이것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기사가 나왔다. 필자는 먼저 이 소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앞서 2023년 대한민국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교권을 상실한 교사들이 설자리를 잃고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의 극심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육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을 밝혀 두고 싶다.

이러한 현상은 옆 나라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10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본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약 12%인 9,426건이 '학생의 교사 폭행'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도 볼 수 있었다.

이 소설은 2016년 일본에서 발행되었으며 범죄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사회파 추리소설로 유명한 미야베 미유키 작가가 썼다. 일본의 교권 침해 사례보다는 강압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교사의 개인적 인간 범죄 심리와 학업 등급에 따라 차별을 자행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음(陰)의 방정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선생과 학생,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 이끄는 쪽과 따르는 쪽, 억압하는 쪽과 억압받는 쪽의 조합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니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마이너스 답만 나온다.*** *(116)*

선생과 학생 즉,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간극, 가르치는 교육자 쪽과 배우는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 측의 이견, 그들을 이끄는 무리와 따르는 무리의 서로를 향한 억압과 분노. 이러한 조합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마이너스 답만 나오기에 우리는 양극 간의 조화와 상호 존중, 이해 방향을 사회적 차원에서 올바로 확립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서민갑부 고명환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

고명환 글 – 라곰, 2022.

추천대상: 일반
#고명환의 인생과 돈이 궁금한 사람에게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좋다.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실패하고 마침내 성공을 한 고명환의 말에는 울림이 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은 항상 관심이 간다. 특히 네 번의 실패를 겪고 지금의 가게를 통해 마침내 성공한 고명환은 이번만큼은 시작할 때 책을 통해 트렌드를 공부하며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저자는 업종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책을 읽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웠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자.

인건비가 점점 오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자.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업종을 하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겨울 장사보다는 여름 장사를 하자.

평범해 보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업종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에 대비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업종은 코로나 시국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20% 넘게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저자가 강조하는 창업 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에게 물어보는 것도 습관이다. 특히 자기보다 돈이나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교차 검증하고 확인해 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 어쨌건 자기 사업이기 때문이다. 성공도 실패도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실패를 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게 남의 말을 듣고 사업하다 실패한 후 모든 것을 남들 탓으로 돌리는 자세다. 이러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게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믿는 마음은 실력을 쌓아야 생긴다. 끊임 없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실력이 쌓인다. 하나씩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통해 실력이 쌓인다. 떨리고 무섭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것이 강하다. 저자는 장사를 할 때 단순화해서 시스템화로 연결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메뉴가 늘어날수록 복잡해진다. 재료도, 사람도, 일도 복잡해진다. 복잡하다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시스템이 단순해야 확장할 수 있다. 복잡하면 쉽게 확장할 수 없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실패를 극복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저자가 스스로 풀어내는 이야기라서 꽤나 울림이 깊다. 방황하고 있거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일독을 권한다.

돈과 생각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방법!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서민갑부 고명환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

고명환 글 – 라곰, 2022.

추천대상: 일반
#현재 생활에 지쳐버린 이들에게
#책의 힘으로 부를 쌓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만드는 '골목 장사의 고수'이자, 장사-집필-강연-진행-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불리는 고명환의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하루라도 일찍 들으면 좋은 이야기'라는 강연 후기에 힘입어, 더 많은 이들과 삶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쓴 책이며 지난 20여 년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천하며 깨달은 이야기, 돈을 버는 마음가짐에서부터 건강한 돈을 불러 모으는 습관,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까지 담아냈다. 장사 권 프로, 월급쟁이 부자들 TV, 스터디언 등 320만 채널이 추천하고 송은이, 홍석천, 이랑주가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추천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본문은 230페이지 분량으로 인생, 장사, 독서, 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4부로 묶어놓았다. 부록으로 돈이 되는 창업 아이템, 세금 상식, 추천 도서를 수록하고 있다. 서문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이야기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4번째 창업에서 마침내 성공한 자신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풀어내 흥미를 자아낸다. 본문의 모든 글은 편의상 인생, 장사, 독서, 부라는 구분을 지어놓았지만, 본질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책을 읽고 질문하는 저자의 태도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
>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
>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라도 생각을 했다.***
>
> ***'왜 나는 아직 자가용도 없이 이런 숨 막히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까?***
>
> ***어떻게 하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이 2배가 될까?***
>
> ***이런 질문이라도 던져야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 *(24~25)*

저자는 지금도 위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책 읽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앞서 소개한 부의 선순환을 이룩했던 방법론과 더불어 생각-질문-답-실천-반성-학습이라는 생각의 선순환구조 또한 함께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지점은 이 모든 선순환구조가 저자가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듯 특별한 재능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한 성장'의 결과라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인용의 첫 질문처럼 시작은 단순한 푸념일 수 있다. 더 나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위해 학습하고 실천하며 다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질문과 방법을 찾아가며 질문은 분명히 변화해 나간다. 이런 저자의 생각 구조를 반영하여 본문의 수록된 모든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해 논할 때도 모두 상세하게 방법을 소개하고 파고들어 당장 실천하기 좋은 방식을 추천하며 독자를 독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특징에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지금 당장 구매해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하는 이유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든지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당장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겁이 난다면,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서두르지 않아도 꽃은 핀다.

황선영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리틀타네(신가영)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23.

추천대상: 일반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은 시골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연령대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한 초로에 진입한 어른들로 짐작한다. 하지만 여기 오늘 소개하는 에세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는 30대의 미혼 여성이다.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저자지만, 20대 중반쯤에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공인된 이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지, 잘!”이란 말에 레이스에 올라간 경주말처럼 전력 질주하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10년을 달렸지만 결국 골병이 든 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공적인 삶을 향한 모든 욕망을 놓기로 했다. 그 치열했던 순간은 사라지고 십 년 후 결국 남은 건 꽉 찬 이력서가 전부였다. 그 뒤로 별 일없이 지내고 있는 저자에게 엄마가 던진 “시골에 집 사서 전원생활을 하면 어때? 너 어차피 백수잖아!”라는 말 한마디에 집을 사서 전원생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전원생활을 시작한 저자, 시골 생활은 돈이 얼마 안 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첫 달 무려 사백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된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려면 누렸던 공과금, 전기세, 난방비, 생필품, 식비 등과 같은 고정지출을 무시하지 못했다. 저자는 나이 30이 넘어 독립하면서야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독립하면서 또한 얻게 된 것은 시골 생활 덕분에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니 그동안 잔병치레했던 몸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이다.

책의 두 번째 파트는 "넘어졌으니 잠시 누었다 갑니다."이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이력을 삶을 살았던 저자의 학창 시절부터 스무 살 초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삽질에 강했던 저자는 역시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정원 공사를 스스로 해보기로 결심한다. 저자는 힘들었겠지만 읽는 독자는 웃음이 절로 나온다. 전원생활을 하니 슬슬 첫 농사도 시작하는데, 역시나 잘될 턱이 없다. 책은 후반부로 가면서 귀촌의 즐거움보다는 왜 귀촌에서의 삶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열한다. 나잇값을 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고, 시골 인간의 노후 준비도 쉽지 않지만 삶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과 형태로 계속되지만, 내 삶을 믿고 그저 오늘을 살아간다는 저자의 가치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살아보지 않은 내일보다는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저자의 말이 인상 깊다.

나와 내 인생을 의심했던 모든 '나'에게. 이렇게 살면 큰일 날 줄 알았지? 라는 책 속 문장처럼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자존감이 떨어진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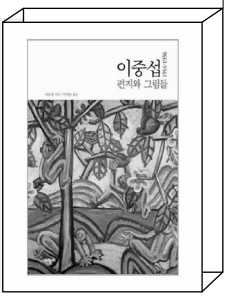
님은 가고 편지만 남아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글 – 다빈치, 201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이중섭 화가의 생애와 그림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때
#20세기 비극의 한국역사와 그 속의 한 명의 예술인의 삶을 알고 싶을 때



2022년 8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이중섭 전시회"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화가의 대표작인《황소》외에도 편지와 엽서화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렬한 색과 선으로 그려진《황소》와는 사뭇 다른 간결하고 귀여운 선과 색으로 가득한 편지는 화가가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마사코)여사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리고 이 책은 그 편지들과 아내의 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화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6·25 전쟁으로 가족과 함께 원산을 탈출해서 부산과 제주도를 전전하다 생활고 때문에 부인과 두 아들은 친정인 일본으로 가고, 화가는 홀로 남아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작품에 매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56년 40세가 되던 해에 정신이상과 영양실조로 적십자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책은 헤어진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대향(이중섭의 호)이 반년간이나 사흘에 한 통씩의 편지를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그래 몇 번이나 내 소원대로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오?"(33)라고 책망하고, "일할 때는 노동이라도 사양 안 하고 열심히 할 거요. 예술과 우리들의 아름다운 생활 때문이라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요."(67)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시에 이 책은 "화가" 이중섭이 추구하는 예술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어디까지나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 속에서 올바르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오. 나는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으로 자처하오."(99)라며 한국을 담은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참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1950년에 월남해서 6년 뒤 사망할 때까지 화가는 캔버스나 스케치북이 없으니 합판이나 맹종이, 담뱃갑, 은종이에 연필이나 못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화가의 위대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책의 끝부분에는 화가의 예술세계와 작품의 가치, 인품과 생애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전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의 미술평론과 시인 구상의 글이 실려 있다. 6·25 전쟁과 일본과의 국교 단절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고통받았던 화가와 가족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평소 이중섭 화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었던 독자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에 나타난 화가의 사랑, 고통, 그리움, 괴로움, 예술에의 추구를 읽으며 새삼 화가의 위대함을 느끼고, 작품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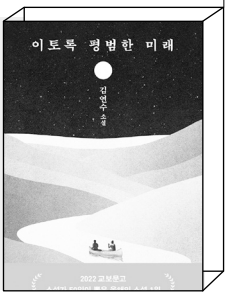
이토록 평범하여 소중할, 미래를 잊지 말기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연수 글 – 문학동네, 2022.

추천대상: 일반
#지금 처한 상황이 버겁고 외로운 이들에게



김연수는 1993년 등단하여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장단편과 산문집 수십 권을 펴내며 문단뿐 아니라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2012)부터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2020)까지, 김연수의 글은 늘 다시 삶으로 돌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진 것은 아니라는, 무언가를 끝끝내 원하면 우주도 우릴 도울 것이라는. 그건 힘찬 파이팅이라기보단 눈물 어린 격려였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2022)도 이런 '응원'의 연장선 위에 있는 단편 소설집이다.

책의 제목을 따온 단편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배경은 1999년 세기말. 불가사의한 현상과 암울한 예언에 매료된 주인공과 곧 죽을 생각인 짝사랑 여자는 그 여름 동반자살을 계획한다. 그러나 평범하게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고 둘은 결혼하여 20년째 살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라는 모순된 말은,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언젠가 실현될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남을 용서할 수도, 고난을

견뎌낼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였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퍼센트에 수렴한다는 것을.(34)

다른 단편들도 이런 세계관 안에 있다. 조선 후기 천주교인으로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정난주의 삶을 액자처럼 구성해 살아남기를 격려하는 이야기 〈난주의 바다 앞에서〉. '자신은 비관주의자이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자' 던 아내의 죽음 후 '카타무 호갸(모두 지나갔어)'라는 인도 말을 좇는 남편의 이야기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에선 사랑의 종말과 종말의 이후를 이야기한다. 2004년 4월, 그러니까 세월호가 가라앉기 10년 전 도쿄에서 10년 후의 프러포즈를 받았음을 주인공은 2014년에야 알게 된다. 〈사랑의 단상 2014〉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에게 보내는 아쉬운 소원의 말들로, 한번 시작한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다만 잊힐 뿐이니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눈물겨운 메시지를 전한다.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는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든 남자를 44년 후 맞닥뜨린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앞 세대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개인의 존재는 그만큼 확장될 수 있으며,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비관이 깃들 여지는 없다는 아픈 희망을 말해준다. 그 외에도 〈진주의 결말〉, 〈엄마 없는 아이들〉이 실려 있다.

계절, 장소, 물건 같은 매개물을 통해 다양한 시점의 과거로 빈번히 오가는 작가 특유의 서술은 아름다운 문장에 빠져 읽는 와중 수고로움과 뿌듯한 재미를 함께 선물한다. 동시에 김연수는 이번에도 역시, 살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부닥치게 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삶의 의미 찾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세월호와 코로나19 같은 잊힐 수 없는 사건을 접한 작가의, 세상과 자신을 향한 위로로 느껴졌다. 그의 글에서 늘 기대했고, 얻어온 미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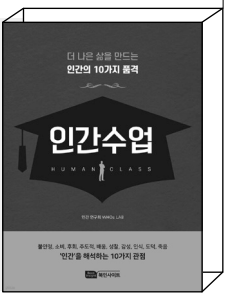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인간 수업

WHO's LAB 글 - 북인사이트, 2022.

추천대상: 일반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싶을 때, 인생이 답답할 때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생각과 태도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인간에게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인간을 해석하는 10가지의 관점(불안정, 소비, 후회, 주도적, 배움, 성찰, 감성, 인식, 도덕, 죽음)과 10명의 저자로 구성되어 있다. 추상적 단어들로 되어 있는 추상적이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들로 에세이로 풀어 쓴 책이다.

저자들은 민현기, 주충일, 서정현, 홍종윤, 박정우, 권인아, 최영조, 전지영, 이한나, 김관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학 박사이거나 연구원 또는 소장 등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기업, 기관 등에 적어도 10년 이상 강의를 한 베테랑이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저술한 작가 등으로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1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을 읽을 예비 독자들은 모두 개개인이기에 10가지 주제가 각각 다른 색채를 띠겠다고 생각한다. 나도 10가지의 내용 중에 익히 사유하고,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그냥 쉽게 읽었으며, 요즘 내가 주로 생각하고, 화두의 단어가 된 단락은

마치 인스타나 SNS처럼 공감 100개를 누르고 심정이 되곤 했다. 책이라서 색띠지를 여기저기 붙였다. 두 번 읽을 마음과 잊지 않겠다는 액션이었다. 그러나 책을 다 읽어 갈 때(바빠서 한 달가량 읽음) 쯤 공감 색 띠는 잊어져 갔다. 독서한다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 않다. 그 순간 공감해서 잊지 않고 찾겠다는 심정으로 눈도장을 찍고, 마음 도장 다 찍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다 보면, 앞부분은 모두 잊힌다. 마치 우리 내 삶처럼. 그래서 책을 읽어간다는 건 내용을 새기는 일이기보다는 습관을 새기는 일인가 보다. 습관을 새기는 과정으로 머리와 가슴에 모두 담겠다는 포부를 그리지만, 어느새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사귀는 일이 좀 빨라질 뿐이다. 빨라진 이유를 딱히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전 지식이 세포, 뇌파 혹은 DNA 어딘가의 전에 읽은 책의 지혜의 찌끄래기라도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더 놀라운 것은 책을, 글을 읽는 일을 계속했을 뿐인데, 내가 쓰고자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조금은 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독서하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라고 생각한다. 질적 향상으로 차원을 변형한 것이다.

지금 나는 성찰을 했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성찰'이라는 화두가 지금 이 시기에 나라는 인간은 그것에 꽂혔다. 권인아 작가는 149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타고난다.

2. 다중지능은 언어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 지능, 자연주의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성찰 지능의 8가지이다.

3. 개인마다 지니고 태어나는 지능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4. 여러 가지 지능은 개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작동된다.

5. 자기성찰 지능은 다른 지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성찰만 잘해도 인간의 덕목을 갖추고 나이스(Nice)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급적 나도 너무나 쉬운 영어는 안 쓰고 싶었으나, 위 문장에서'나이스(nice)'와 같은 적절한 단어를 한글에서 찾을 수가 없던 것도 나의 한계인 듯하다. 달리 말하자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나도 '성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본 적이 있다. 나는 '물질적 풍요를 비롯하여 건강, 가정적, 대인관계의 풍요와 균형과 중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p.154에 나와 같은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성장, 행복, 긍정적 변화 등의 다양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 자기성찰이 시작이라고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화폐라는 가치를 주고 만들어 내거나, 나타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가슴과 뇌리에 혹은 생각과 습관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에 두 번 읽거나, 그럴 시간이 없으면,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조심스럽게 권해 본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지적인 성찰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민 글 – 사회평론, 2022.

추천대상: 일반
#인생이 허무한 사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사람

올해 초부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많다. 그리고 단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끝나 버린 다른 사람의 생(生)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조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비집고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인생의 허무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쓴 책이다. 저자인 김영민 교수는 사상자 연구자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가 재치 있는 칼럼 모음집이라면 이 책에서는 허무에 관련된 각종 책과 그림, 영화 등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삶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책 서두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주제로 다룬 소식의 '적벽부'의 흐름에 맞춰 구성하였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 흐름이란 인생의 허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검토하고, 마침내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똑같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신곡》을 쓴 단테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긴 저승 세계 여행을 통해 어떤 확고한 결론에 도달한다. 신앙이 없었던 소식은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 작가는 프롤로그에 이 책에 대한 주제를 적어놓았다.

> ***인간에게는 희망이 넘친다고, 자신의 선의는 확고하다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해맑게 웃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 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10)*

이 책은 크게 8개의 단락으로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허무라는 무겁고 답답한 주제에 대한 무게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영화와 그림, 소설 등이 폭넓게 활용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을 만나게 되더라도 작가는 허무라는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통찰과 특유의 역설적이고 잔잔한 유머 감각이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독자들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산책 찬양론과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동양의 논어에 나오는 '중용(中庸)의 덕(德)'이 생각난다. '행복'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작가처럼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들은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하는 물과 달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꼭 부록으로 실려있는 '적벽부'까지 읽어보길 추천한다. 이 책에서 감상했던 작품들에 대한 여운이 길게 남을 것이다.

재밌게 일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혜진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일놀놀일

김규림·이승희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22.

추천대상: 일반
#번아웃으로 일과 사람에 지친 직장인에게 추천

《일놀놀일》은 일하듯이 놀고 놀 듯이 일하다의 줄임말로 스스로를 문구인이라 칭하는 김규림 작가와 기록자라 칭하는 이승희 작가 두 명이 함께 만든 책이다. 두 사람은 직장 퇴사 후 백수 듀오 두낫띵 클럽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일놀놀일》 외에도《뉴욕규림일기》,《아무튼 문구》,《기록의 쓸모》,《별게다 영감》 등의 작품을 통해 독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김규림, 이승희 작가는 '일이 재밌으면 왜 안돼?'라는 주제로 25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김규림 작가는 그림을 이승희 작가는 글을 써 책을 구성하였다.

《일놀놀일》 도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이 좋다는 점이다. 한번 손에 책을 잡으면 순식간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만큼 내용이 편안하고 공감하기 쉽다. 일하는 것이 지루하고 회사에 나가기 싫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대하는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읽기 좋을 것이다. 특히나 이 책은 쓸데없이 독자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일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데 당신들은 일을 왜 이렇게 싫어하지? 라는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김규림과 이승희라는 친구 두 명이 맥주 한잔하며 일에 대해 낄낄거리며 수다를 떠는 느낌이 연상되어 친근함이 더해진다.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솔직하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키워드를 통해 풀어나가는 이야기 방식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도 젊은 작가답게 스스럼없이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어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덕질'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명 아이돌인 'BTS 슈가'에 대한 내용, 가수 박재범의 소주 사업 이야기 등 젊은 독자라면 더욱 공감 갈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작가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영감을 얻는 방법,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생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낸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번 아웃을 겪고 일에 지칠 때가 있을 것이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일놀놀일》을 읽어보면 좋을듯싶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냥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 일하듯 놀고 놀 듯이 일하는 몰입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 척하면 척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대해보는 건 어떨까? 유명 만화 《원피스》에 나온 '너 내 동료가 되라'라고 말할만한 믿음직한 동료가 생길지도,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운을 줍는다는 야구선수 오타니처럼 주변 곳곳에서 일에 대한 영감을 줍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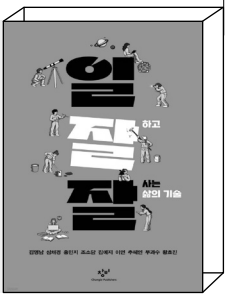
10번째 기술자가 되고 싶어지는 마법

이채원 (시흥시 배곧도서관)

일잘잘: 일 잘하고 잘 사는 삶의 기술

김명남 외 글 – 창비, 2023.

추천대상: 일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
#스스로의 납득이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함에서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일잘잘》이라고 축약된 제목의 원래 의미처럼, 이 책은 '일 잘하고 잘 사는 삶의 기술'을 담은 책이다.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모인 기술자는 총 9명으로, 공통점은 모두 여성이라는 것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삼을 수 있지만, 여성이기에 업계에 몸담고자 할 수 있었던 일, 여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 나가는 일들도 소개하고 있어 여성 직업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 각별함이 있다.

기술을 전수하는 책답게, 당연히도 이 책에 소개된 기술들은 직업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40분간 집중해서 일한 뒤 20분간 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KMN 작업법은 물론, 하기 싫은 일 해 내는 법, 혼자 일하는 사람이 동료 만드는 법 등이 그렇다.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기술들을 소개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프리랜서이든 직장인이든, 자신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소개된 방법들을 취사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유용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충족된 것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까지의 서사가 돋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의 '기술'과 그 일을 자기답게 하기까지의 '서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잘 모르는 길에 몸을 내던진 상태로 분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일과 삶의 내공이 쌓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의사로서 '페미니스트 의료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 20대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청소 일을 해온 덕분에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창작 일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청소노동자 겸 창작자 등, 귀감이 되어 주는 행보는 일일이 다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들이 쌓아온 삶은 그 자체로도 멋지고 대단하지만, 익숙한 세계에서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일의 세계, 직업인으로서의 태도, 산업의 가능성을 알게 하고, 결국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새삼스러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해준다.

필자들이 벼려온 일과 삶의 기술을 독자들은 책 한 권에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전수한 기술 중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자기답게 적용할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이 저마다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닿을 파급력이 기대된다. 여성 직업인들이 보내는 응원과 용기를 받은 이들이라면, 황선우 작가의《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를 함께 읽어 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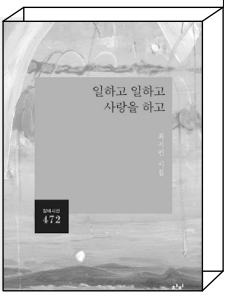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슬프다고 말하자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글 – 창비, 2022,

추천대상: 일반
#꿈이 무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고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방황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최지인 시인은 2013년 제7회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학계에 데뷔했으며 2022년 제40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젊은 작가이다. 신동엽 문학상은 시인 신동엽(1930-1969)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시인 유족과 창비가 공동 제정했으며 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작가의 최근 2년간 작품으로 심사하는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최지인 시인의 시를 '동시대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비애와 항의를 독특한 다변(多辯)의 시적 어법과 리듬'으로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최지인 시인은 현재 창작 동인 '뿔', 잊히고 사라지는 것을 예술로 기억하는 창작집단 'unlook'에서 활동 중이다. 'Unlook'은 싱어송라이터, 시인, 에세이스트, 콘텐츠 기획자가 서로의 작업으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장르의 장벽을 허문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다.

최지인 시인의《일하고 일하고 사랑하고》는《나는 벽에 붙어 잤다》(민음사, 2017) 이후 두 번째로 출판된 시집이다. 동 시집은 출간 2주 만에 1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뮤지션 이승윤이 이 시집에 "그동안 수도 없이 쓰이고

버려진 시들 가운데에서 끝끝내 완성된 이 시집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끝내 살아낸 최지인 시인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최지인 시인은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책이 팔리는 것도, 상 받은 것도 한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때가 지나면 또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가 찾아오겠죠. 한때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요."라고 겸손하게 말하기도 했다.

최지인 시인은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인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빗대어 이 시대의 청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일과 사랑과 꿈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내기를 바람으로써 색다른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그의 시는 현실적인 언어들, 지극히 평범한 언어들, 그렇지만 가슴에 깊이 꽂히는 적확한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기에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집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2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3부는 '우리는 죽지 말자 제발 살아 있자'이다. 하나의 맥락으로 끊임없이 일, 사랑,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최지인 시인의 시는 우리가 보편인 시의 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운율이나 동어 반복 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에세이의 형식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최지인 시인의 시를 접한 독자들은 다소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최지인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적 허용과 감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의 시가 더 자연스럽고 깊게 다가올 것이다.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지만 결코 장황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최지인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애들은 뭔 할 말이 그리 많으냐, 자고로 시는 함축적이어야 한다 말한

교수에게 우리는 장황하게 말할 것이다

계속 여러 명의 목소리로 떠드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과 바다, 인간이 파괴한 자연, 인간이 파괴한 인간,

우수한 여백과 무수한 여백 *(136)*

최지인 시인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매우 아프다. 죽음과 이별과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지인 시인의 시는 그가 조준했던 독자들의 마음에 정확히 와서 꽂혔다. 그의 시는 현재의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 또한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내가 다가와 '이대로 괜찮아. 너무 애쓰지 마. 힘들면 잠시 쉬었다 다시 일어나면 '라고 토닥여 주는 느낌이 든다.

이경수 평론가가 '최지인 시인은 요즘 젊은 세대의 시인들과는 별다르게 현실에 발붙이고 시를 쓰는 시인이자 폐기되어가는 리얼리즘을 자기 세대의 어법으로 갱신하고 있는 시인이다. 최지인의 시에 이 시대의 청춘들이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최지인 시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여러 명의 목소리로 장황하게 떠드는 것. 다성적인 목소리로 이 구제 불능의 세상을 향해 다른 목소리를 왁자하게 들려주며 우리들의 비명과 울음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지인 시인이 계속 장황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세계와 말의 통로를 확장하고 다양화시키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일과 사랑과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많은 삶의 접점에서 그의 시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지인 시인은 쓰는 일과 더불어 강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말이 저를 앞선다. 작은 그릇에 말이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일을 조금 자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독자이자 팬으로서 다양한 공간에서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크고 뜨겁고도 장황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

꿈이 무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방황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이 시를 권한다.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이 시를 오래 붙잡고 있기를 바란다. 최지인 시인의 시를 통과해 가면서 아름다운 삶의 풍경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가져야 돼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자본주의의 적

정지아 글 – 창비, 2021.

추천대상 : 성인
#《빨치산의 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푹 빠진 이에게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책을 찾는 이에게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프레드릭 제임슨, 1934~)라는 말에 저절로 수긍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문하듯 던지는 물음. 자본주의에 적이 있나?

정지아의 《자본주의의 적》은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즉,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대한 사유하고 고찰하며 경제학적·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9개의 이야기가 담긴 단편 소설집이다. 1990년 빨치산이었던 부모님의 삶을 다룬 《빨치산의 딸》을 세상에 선보인 이후 2022년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빨치산인 부모님의 이야기를 실재적인 리얼리즘으로 때론 고향 구례의 향토어에 담긴 정감으로 구수하게 표현해 왔다.

소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와 아름다움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저자의 어느 인터뷰에서 말처럼 이 책 《자본주의의 적》은 소설이 어떻게 소외와 차별을 따스하게 풀어내는지 아홉 편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도대체 자본주의의

적이 무엇인데!'라는 질문에 화답하는 표제작인 《자본주의의 적》은 소설 속 화자인 저자의 친구 방현남 가족의 핵심 키워드 '소심'과 '무관심'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며 자본주의의 적으로 거듭나는지 보여 준다. 현남이 안기부에 끌려갔다 풀려난 이야기와 야쿠르트 아저씨가 꿈인 현남의 아들 이야기 등은 자본주의의 적이라기에는 소소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나오는 다음의 문장은 읽는 이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자본주의의 오래된 적이었던 사회주의는 새것을 갖기보다 낡은 것이라도 다 같이 나눠 갖자는 주의였다. 그런데 자폐가족은 심상하게 묻는다. 왜 가져야 돼? *(43)*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은 정지아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진 '소유'에 대한 원초적이면서 핵심을 관통하는 의문이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자세는 다른 것에 대한 동경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 동경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동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은 화자인 정지아가 언론에 진정한 은둔자로 오해받으며 겪는 상황을 코믹하게 , 《검은 방》은 노모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는 암에 걸린 사촌 동생 기택이를 통해 평소 은근히 무시하던 화자가 기택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정지아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자본주의의 적》에 담긴 9편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우리는 진정성이 고리타분함이 되어버린 시대에 진정성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느낄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건너 기태에게서 지아에게로 건내는 "짝은어매헌티 쫌 전해주소. 짝은어매 땜시 이때꺼정 나가 살았네"(235)처럼 삶을 흔드는 아픔에 대해 우리는 소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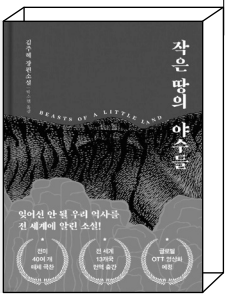
야만의 시대, 억압과 싸운 평범한 야수들의 이야기

박치영(화성시 진안도서관)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글 – 다산북스, 2022.

추천대상: 일반
#근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이 궁금할 때
#사랑과 연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때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지금, 그 시절을 정면으로 다룬 역사 대하소설 한 권이 시선을 끌었다. 이 책은 이미 미국 40여 개의 매체에서 추천한 도서이며 전 세계 1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 출간되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배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랑, 욕망과 고통을 다루는 이야기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주혜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김구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조부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6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 작가는 이런 가족의 내력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근대사와 깊이 연결되어 본인 현실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전쟁, 기아 등 고통스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소설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1917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의 무단통치기의 한국. 평안도의 한 야산에서 길을 잃고 해메던 일본군 한 부대가 한국인 사냥꾼의 도움으로 무사히 호랑이를 피해 산을 내려오면서 1964년까지 사냥꾼, 혁명가, 기생, 양반, 친일파, 일본군 장교 등 등장인물 간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되는데 3.1운동 이전까지의 무단통치기, 1920년대의 문화통치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1930년대와 4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기가 그것이다.

소설은 무단통치기 인권이 유린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부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군의 무수한 총알 세례를 받으면서도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3.1운동의 묘사장면을 보고 나면 고르지 못한 한숨과 함께 잠시 책을 덮을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친일파를 양성하는 일본의 지배전략으로 변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반대로 정의로움과 이타심의 의미도 되새기게 한다. 집의 쇠붙이와 재물 등을 모두 태평양전쟁 보충 물자로 뺏겨 경제적 고통과 굶주림에 맞닥뜨린 1940년대의 한국인들과 전쟁으로 지쳐가고 점차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일본군들의 모습도 생생히 전달한다. 각 시대마다 인물들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마침내 이야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완성된다. 준비되지 않았던 해방과 혼란, 극심했던 좌우의 대립은 끝내 1960년대 등장인물 간의 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삶은 견딜만한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삶을 살아볼 만한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603)*

이 책의 등장인물은 홍길동전과 같이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담은 아니지만 191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야만의 시대에서 사랑과 연민을 잊지 않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투쟁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듬으며 하루하루 삶의 발을 내디딘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을 작가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야수"라고 했다.

소설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배경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절 사람들의 실제 생활상을 생생히 감상할 수 있다. 소설 곳곳에 펼쳐지는 자연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매우 이색적이고 아름답다. 그러나 기억에 강렬히 남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힘든 시대를 관통해 펼치는 사랑, 우정, 연민, 정의, 자연과 공존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잘 자고 잘 먹는 아기의 시간표

정재호 글 – 한빛라이프, 2014.

추천대상: 일반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에게

열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던 아이가 하루하루 점점 이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하면서 부담감도 같이 다가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구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키우고 싶은데…….'

다른 부모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대충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 좌충우돌이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테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시작할 때 항상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으로 겪고 싶습니다.

그런 '멘토'를 찾아 헤메다가 육아에 대해 진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게 바로 이 책인데 저자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강사는 아니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동시에 두 아이의 육아를 직접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 상당히 깊은 신뢰가 갑니다.

저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수준에서 육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아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경우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비슷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영양보충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식습관 교정을 하지 않고 영양보충제에 의존하다보면 아이는 맛있는 영양보충제로 인해 더욱 식욕을 잃고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못 잤다면 조금 안쓰럽더라도 낮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어야 돌아오는 밤에는 잘 잘 수 있을 텐데, 낮에라도 재우려고 두면 다음날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 월령과 체중이 되었다면 밤중 수유는 필요 없고, 이것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며칠 정도는 아이의 울음과 보챔을 감당해야 하는데, 당장 울음소리 듣는 게 안쓰러워서 참지 못하고 젖을 물린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에게 더 해로운 행위를 하는 셈입니다.

저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육아에 정답이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지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를 책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조기 교육 광풍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집니다. '교육' 이전에 0~2세 아이를 키울 때 먼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훈육은 복종에서 시작되며, 복종은 '안 돼'라는 부모의 제한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생각보다 일찍 훈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조금만 울어도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훈육'은 아이의 기를 죽이는 일도 아니고 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적도 아닙니다. 아이를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약한 자신을 자신보다 강한 부모가 충분히 잘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복종을 배워야 안전을 가르칠 수 있고, 글자와 숫자를 세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육아에 관심이 많은 초보 부모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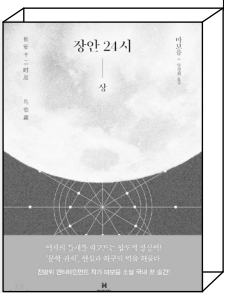
추리, 추리, 추리,
각 인물의 마음 속 심지 속에 있는 진실은 어떤 것일까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장안 24시

마보융 글, 양성희 옮김 – 현대문학, 2018.

추천대상: 일반
#첩보극을 읽고싶은 이들에게
#추리를 거듭하며 두뇌에 활력소를 더하고 싶은 이들에게
#시간 가는줄 모를 소설을 읽고싶은 이들에게



소설가 마보융은 '중국 역사 엔터테이먼트 소설의 정점'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 한번 읽으면 마보융식 '역사의 엔터테이먼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장안 24시》는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극이다. 사실상 첩보란 현대 대중문화의 주요 소재다. 첩보영화는 세계 영화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장르이고 영국에서는 드라마며 영화며 할 것 없이 첩보극 시리즈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첩보 장르에서는 암호나 발명품을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현대 첩보물에서야 기기로 암호를 보낸다고 해도 기기가 없던 시대에 첩보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마보융은 바로 이 지점을 신선하게 풀어낸다. 당나라에 동력 기계가 없었다는 전제를 놓고 그 기계를 대체할 소재를 찾는 것이다. 《장안 24시》에 보이는 그의 소재 차용은 예사롭지 않다. 길을 훤히 아는 인간이 스스로 붓을 들어 기밀 지도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작품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대사는 그가 묘사한

첩보물의 등장인물만큼이나 예리하다. '부귀는 위기에서 나온다.'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 등 우리 기억에 잊히지 않을, 의표를 찌르는 대사를 곳곳에 배치해놨다. 장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재치 넘치는 대사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다. 인물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 또한 역동성이 활개 치는 것 같다. 《장안 24시》는 장장 6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다. 그러나 작품을 추리하는 재미가 있고, 진행 속도 자체가 빨라 작품을 읽다 보면 시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다.

이 책을 즐겁게 읽은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 《장안 24시》가 장안 배경의 첩보극이라면 《풍기 농서》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물이다. 《풍기 농서》는 유비가 죽은 다음, 제갈량만 남은 촉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촉나라가 위나라로 진전하는 북벌을 하는 시대에 둘 간의 물밑 첩보 경쟁이 치열했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덧붙여 쓴 소설이다. 오만 장병으로 십만 장병을 꺾고, 신무기를 든 몇천 명의 장병이 주요 인물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 틈에 첩보가 있었다는 상상력을 붙인다. 독자들은 여기에서도 마보융의 특기, 놀랄만한 반전을 작품 곳곳에 숨겨놓는 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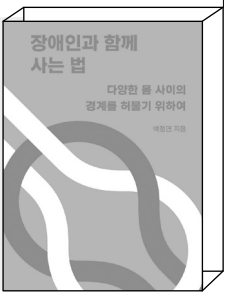
타인과 함께 사는 법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백정연 글 – 유유, 2022.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 이들에게
#출근길 장애인 시위가 불편했던 이들에게
#장애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들에게



성격유형검사 MBTI가 유행한 지 꽤 되었는데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어떤 점이 MBTI의 인기를 끄는 것일까? 아마도 나와 다른 성향의 MBTI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평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의 행동을 MBTI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은 MBTI가 그러하듯 우리가 평소 이해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에 대한 하나의 '이해의 창'을 마련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발달장애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0년 넘게 일했다.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을 많이 접할 기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다고 한다. 같은 장애를 지녔어도 정도의 차이가 다르고 발현되는 증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자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발생한다. 척수장애인인 남편을 만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좀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그 역에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집을 살 때는 지하철역과 집 사이의 길의 경사를 파악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두어야 한다. 식당을 고를 때에는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게 문 앞에 계단이 있는지, 내부에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소통하기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들은 흔히 자신들이 장애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장애 혹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 우리는 똑같이 모두 다르며 서로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 당신과 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35)" 이 책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사실들을 말하고, 저자가 장애인과 가족이 되어 경험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기술한 뒤 좀 더 장애인들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타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 착각하고 있고, 타인과 가족이 되어 겪는 새로운 일들이 있으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더 잘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책은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 같지만 단지 타인을 좀 더 이해하며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쓴 것이다.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나니 그 사람이 단지 장애가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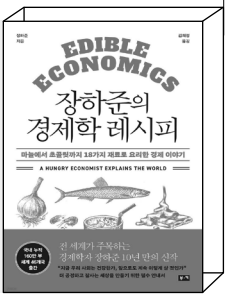
장하준이 들려주는 맛있는 경제학 이야기

이아영 (시흥시 중앙도서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 글 - 부키,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장하준의 10년 만의 신작《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는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레온티예프 상을 수상하고,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국제노동기구, 유엔 산하 기구와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여러 정부 기구 및 민간 조직에서 오랫동안 경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총 18가지의 다양한 음식 재료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각 재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추억이나 재료의 탄생, 역사, 특징 등을 가볍게 풀어내다 자연스럽게 재료에 얽힌 경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경제학자도 아닌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동화가 정말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가는지 등 복잡하고 어려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제 이슈들을 다룬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코코넛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학의 편견을 깨트리고 국제적 힘의 불균형,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개혁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코코넛은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열대 지방 천혜의 풍부한 자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기후대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설명하는데도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다. 잘사는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흔히들 추정하곤 한다. 가난한 나라 중 많은 수가 열대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근로 윤리가 부족한 이유가 열대 지방에는 천혜의 자원이 풍부해서 쉽게 먹고살 수 있어서 일 것이라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역사적·정치적·테크놀로지적 문제 때문이고 이는 그들이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으며 살아왔다. 다양한 식재료를 발견하고, 새롭게 시도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구해왔다. 저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 경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배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시작을 도와줄 것이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가 경제학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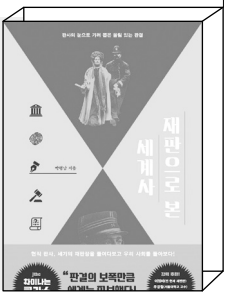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글 – 휴머니스트, 2018.

추천대상: 일반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머릿속이 복잡한 이들에게



법정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실정법에 따른 '현실의 법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민의 법감정' 혹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 '역사의 법정'이다. 우리는 법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법이 인류역사의 변곡점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알아보자.

이 책의 저자 박형남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30년이 넘도록 재판을 해왔고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의 원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어서 평소에도 인문학서적과 역사서적을 탐독하였다고 하며, 특기할 만한 이력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법조문의 문구보다는 그 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이 책에도 잘 묻어나 있다.

이 책은 세계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재판 15개를 추려 각각의 의미와 저자가 생각하는 쟁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제목', '시간과 법정', '사건 당사자', '재판의 쟁점', '재판의 결론', '역사적 질문'등으로 요점 정리하듯이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본 재판의 도입부, 사건내용, 재판전개 서술,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만한 것으로 각 챕터를 이어나간다.

이 열다섯 개의 재판 하나하나가 각각의 재미가 있으나 특별히 볼만한 재판은 '로크너 재판'이다. 로크너 재판은 190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으로 조셉 로크너와 뉴욕주정부 사이의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주 정부가 제과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가?'이다. 참으로 익숙한 문장이지 않은가? 마치 얼마 전까지 우리의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던 52시간, 69시간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재판에서는 주 정부가 제과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4,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3으로 해당 내용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런데 홈스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아직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홈스 대법관은 "법의 공식에 의존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고 잠이 깊어지면 죽음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미 만들어진 법의 글자에만 함몰되어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현실과 발맞추어 판결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책과 더불어 법의 비합리성을 다루고 있는 레오 카츠의《법은 왜 부조리한가》도 함께 읽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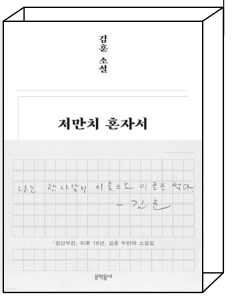
말없는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건네는 순간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저만치 혼자서

김훈 글 – 문학동네, 2022.

추천대상: 일반
#문득 '혹시 나만 힘든 건가'하는 마음이 들 때



김훈 작가는 1973년부터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여러 언론사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기사와 칼럼을 썼다. 1994년에 첫 소설집 《빗살무늬토기의 추억》을 발표한 이래 2001년에 《칼의 노래》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남한산성》, 《강산무진》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삶을 깊이 탐구해왔다. 《저만치 혼자서》는 김훈 작가가 《강산무진》이후 16년 만에 펴낸 두 번째 단편 소설집이다.

그간의 김훈 작가의 문장은 건조했다. 사실적이고 간결하게 인간 세상의 허무함을 가감 없이 꼬집곤 했다. 하지만 글이라는 수단으로 한 인간의 특징을 정의한다는 것이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번《저만치 혼자서》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닿는 작가의 시선은 이전보다 너그럽고 애틋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 책은 문학동네 계간지에 발표한 6개의 단편과 1개의 미 발표작으로 엮여 있다. 〈명태와 고래〉는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한 월남 어부의 비극적인 삶을 다뤘다. 남북 각 체제의 제도화된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손〉에서는 이혼 후 홀로 키운 아들이 성범죄로 수감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다. 작가는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소방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 글을 썼다고 한다. 〈저녁 내기 장기〉는 각자의 삶에 위기가 닥친 두 노인이 공원에서 만나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나가는 무수한 삶의 흔적들,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삶의 아픔이 느껴진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한 중년 남성이 그동안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시 현실을 살아보려 한다. 〈영자〉에서는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두 남녀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나온다.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젊은이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방황한다. 〈48 GOP〉는 과거의 이념 갈등과 분단이 현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가를 제대를 앞둔 군인의 눈으로 표현했다. 이 책의 표제작인 〈저만치 혼자서〉는 임종을 앞둔 수녀들이 호스피스 수녀원에 모이고 그들을 위해 성심껏 봉사하려 노력하는 젊은 신부의 고뇌를 보여준다.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

작가는 이 소설의 뒤편 '군말'에 이러한 문장을 썼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우리 이웃에 존재할 법한 사람들이다. 실제 작가의 경험과 관찰, 취재를 바탕으로 글을 썼기에 무거운 현실이 작가의 상상력과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더 와 닿는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덤덤한 수준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인물들의 감정을 직접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흥미롭다.

소설의 제목 《저만치 혼자서》는 김소월의 시 〈산유화〉 중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구절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 시는 생명이라는 존재(꽃)가 가져야 하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노래한다. 김훈 작가가 이 소설에서 인간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이 운명에만 머물지 않는다.

《저만치 혼자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작가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충실히 자신의 삶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이웃에 동정하고 연대한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얻고자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섬'에만 있으려 한다. 고개를 조금 돌려 내 주변을 살펴보자. 각자의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그마한 연민을 가질 수 있다면 결국 내 삶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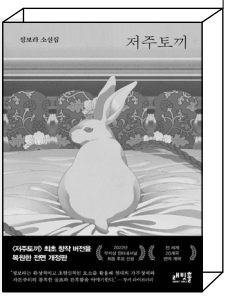
삶의 괴로움을 대담하게 마주하다

성경희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저주 토끼

정보라 – 래빗홀, 2023.

추천대상: 일반
#지금 처한 상황이 버겁고 외로운 이들에게
#'평범'하게, 편안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현실에 흔히 존재하는 불행을 극대화한 소설의 장치와 상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주 토끼》는 10개의 단편소설이 담긴 정보라의 소설집이다. 작가 정보라는 러시아 지역학과 슬라브 문학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자로 러시아와 SF에 대해 강의하며 SF 환상문학의 작가이며 번역가이기도 하다.

이 책 속 10편의 단편 역시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공간이 배경이다. 현실에서 벗어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주의 소설보다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에 더 집중하게 한다. 이야기꾼으로서의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면서 몰입해서 줄거리를 읽어내는 도중에도, 그래서 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창조해 낸 건지 줄곧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저주 토끼》는 저주용 물건을 만드는 가족의 이야기다. 대대로 이어져 온 이 가족의 불문율, '개인적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게 한 세상의 부조리함, 그래서 맞이한 할아버지의 죽음과 떠돎, 가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이상은 이 일을 이을 후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위안하는 화자의 모습이 씁쓸하다.

《머리》는 변기에 버린 자신의 배설물과 머리카락을 재료로 생겨난 덩어리인 '머리'가 점차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이야기다. 어느 날 변기에서 불쑥 나타나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머리'를 그녀는 냉정하기 그지없게 외면하며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한다. 나에게서 배설되어 나를 어머니라 부르는 존재, 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 나를 이해하고 돌보지 않고 그저 남들처럼 사는 데 만족하는 삶을 반성하게 한다.

《차가운 손가락》에서 주인공은 늪지에 가라앉고 있는 차 안에서 정신이 들고, 암흑 속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이끄는 손에 자신을 의지한다. 친절했던 목소리는 점차 상황과 톤을 바꾸며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목소리를 따르는 주인공을 조롱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 남을 함부로 믿는 어리석음도 죄가 되는 세상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다른 단편들도 재미와 함께 의문을 던지는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몸하다》의 여자는 피임약을 먹었지만 임신을 하게 되고, 《안녕, 내 사랑》에서 인간은 로봇 '인공 반려자'를 폐기하려다 먼저 배신당한다. 《덫》은 황금 피를 흘리는 여우와 인간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 《흉터》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제물로 바쳐진 소년의 이야기다. 《즐거운 나의 집》,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는 인간의 다양한 이기심과 그에 대한 응징을 다룬다. 《재회》는 생존을 위협받던 과거에 갇혀 살아서도 죽은 듯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단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지만 이 소설은 곳곳에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리들을 품고 있다. 내가 처한 상황의 불합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남들을 따라 또는 살던 대로만 반성 없이 사는 것, 내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형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작가는 '죄'와 '벌'로 세상사를 단순화하려 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삶이 가진 필연적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이 "쓸쓸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이 복수나 응징을 다루지만 그런 의도로 쓴 글은 아니라고 한다.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이며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혹은 복수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일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우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 책은 다양한 인간의 악행, 어리석음, 약함, 한계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고 인간은 결국 외롭다는, 허무하지만 대담한 결론으로 작가는 제각기 고군분투하는 독자들을 위안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 이런 위안은 삶의 괴로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 데에서 올 것이다. 짧은 글에 주제를 담아내는 단편소설의 흡입력과 임팩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단편집이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K-축제 속으로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전국축제자랑 :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

김혼비·박태하 글 – 민음사, 2021.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유머러스하고 재기발랄한 에세이를 읽고 싶을 때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어느 날부터인가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의미도 없고, 내 취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평소 넘치는 유머와 재기에 약간의 신랄함을 양념처럼 곁들여 맛깔난 에세이를 써왔던 김혼비 작가와 박태하 작가가 몸소 국내 열두 곳의 지역축제를 다니며 건져온 생생한 감상이 가득하다.

의좋은형제축제로 시작해 영암왕인문화축제, 영산포홍어축제, 의병제전, 밀양아리랑대축제, 음성품바축제, 강릉단오제, 젓가락페스티벌을 지나 완주와일드푸드축제로 접어들면 그 박력에 숨이 막히고 양양연어축제, 벌교꼬막축제와 지리산산청곶감축제까지 언어유희와 지적 즐거움이 급류처럼 흐른다. 이를테면 영산포홍어축제에서는 "어느 순간 꽃향기의 틈새를 비집고 홍어 향이 진하게 풍겨"오고, 강릉단오제에서는 "약간 '창포물 세발(洗髮)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오른 기분"으로 머리를 감으며, 지리산산청곶감축제에서 곶감양갱, 곶감마카롱, 곶감육포 등등을 만나 "이쯤 되니 약간 곶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다이나믹하고 유쾌한 지역축제 체험이 펼쳐진다.

사실 이 "지역축제기행문"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이라는 공간은 왜 이럴까'라는 것, 즉 최근 화두가 된 "K-"(한국의 특징적인 그 무엇)의 의미를 축제에서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산업화 이전 농업이 생산활동의 주축이었던 때에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동이 필요했고,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는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같은 명절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시작해서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그저 비슷비슷하고, 가끔은 눈살 찌푸려지는 천박을 고루 버무린 괴기한 무엇이다.

그럼에도 그 축제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과 축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곳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를 느끼며 작가들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예의를 보여준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K-축제"는 그렇게 탄생한다. 축제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참견과 무뚝뚝한 진심, 그 모두를 아우르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얽히고설켜서 이 혼란한 축제의 장을 '어쨌든 좋았던' 결말로 이끈다.

끝으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올해 방문하고 싶은 축제를 골라보기를 권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가서 보고 느끼고 자신의 감상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이 책을 가장 깊게 읽는 방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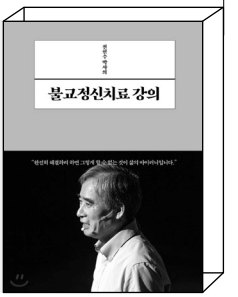
생각 내려 놓기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미친다.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전현수 글 – 불광출판사, 2018.

추천대상: 생각을 중요시 하는 사람, 매사에 완벽을 기하려는 사람
#불안할 때, 걱정이 많을 때



주변의, 잠을 못 잘 못자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너무 많았다.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선 보통은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일 뿐, 보통은 그 짧은 순간마저도 짜증 내거나 악을 써 가면서 주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미래에다 현재의 문제까지 겹치니 그 사람은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을 비틀어 짤까? 한껏 진을 빼버린 그 마음의 허탈함이 후회와 사과로 이어지지만, 그마저도 억울한 후회로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과거와 미래에 얽힌 생각에 서로 잡혀서 현재를 놓치고, 심지어 잠까지 설치고 건강도 해치기도 한다.

저자 전현수 박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생각의 길로만 다니게 되므로, 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보통, 생각이란 것은 과거와 미래로 돌아다니며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삶,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는다고 한다. 그 어리석음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에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이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에 성실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치 불교 교리 같지만, 독자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만한 내용이다.

저자 전현수 박사는 정신과 전문의이다. 전공의 2년 차 때 불교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고, 여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개원한 의원 문을 닫고 2003년에 미얀마로 가서 직접 불교의 수행 방법 중 하나인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불교 집중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왔다.

'불교와 정신 치료연구회'를 만들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스님, 불교 수행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학과 불교, 두 분야를 공부했고 2007년에 한국 불교 심리치료학회를 세워 불교 정신 치료의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렇게 30년을 넘게 터득한 공부의 결과를 정신 치료에 적용하고 자신이 직접 진행한 불교 정신 치료 워크숍을 모태로 《불교 정신 치료 강의》을 출간했다. 그 외의 저서로는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 사용 설명서》, 《울고 싶을 때 울어라》 등 다수가 있다.

저자 전현수 박사는 '유익한 마음'을 강조한다. 이는 단지 현재에 집중하기만 해도 터득된다고 한다. 현재에 집중하다가 과거 생각이 나면 '과거는 지나갔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미래 생각이 나면 '미래는 모른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유익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 말로는 쉽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 것이다. 그러나 과거

생각이 날 때 '그때 그가 나에게 왜 그랬지? 나는 또 왜 그랬을까?'와 같은 생각이 이어지면 해로운 마음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 겪을 만한 생각의 흐름으로서, 독자들은 '어떻게 멈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내용이 고차원적이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불교 경전을 원문으로 읽기위해서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를 배워 불교의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공부하는 대목에 이르면 '아! 이 책 진짜구나!' 하고 진심으로 이 책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읊어주는 불교의 초기 경전인니까야 속의 부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대하고 보면 그 단순함과 지혜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공간에 대한 결핍을 세계를 향한 발돋움으로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원지 글 – 상상출판, 2019.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여행을 좋아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취업, 일, 퇴사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진 2~30대 청춘에게

코로나19가 점차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그동안 주춤했던 뷰티, 패션, 음식, 동물 등 다양한 분야들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는 단연 '여행'이다. 그간 여행 유튜버들은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격리 기간을 감수하며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국내 여행을 하며 대안을 찾아 여행에 대한 대리 만족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들은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TV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제 마음대로 살아 보겠습니다》는 구독자 수 69.2천 명의 '원지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여행 유튜버 이원지의 피땀 눈물의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현재 유튜브 이외에도 강연과 방송 출연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17세 때부터 2019년 집필 당시 나이였던 31세까지 본인의 나이순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엮은 여행담으로, 제목만 볼 때는 다소 당차 보인다. 그러나 사실 제목 앞에는 "(현실은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붙어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던 저자는 전공을

건축학으로 선택할 만큼 공간에 대한 갈증이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다큐멘터리를 본 순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확신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피땀 눈물의 자금을 모아 아프리카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91일 동안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순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였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에는 생생한 여행기와 함께 누구나 2~30대를 지나면서 겪는 청춘의 고민이 함께 담겨 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야근과 박봉이 필수였던 직장인 시절, 서른이라는 나이의 압박,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 고민들, 회사를 박차고 나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으로 덤벼들던 스타트업 창업, 우간다에서 벌인 또 다른 스타트업, 미국으로 훌쩍 인턴을 떠나버린 일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이 다른 여행 에세이 도서와 다른 점은 마냥 아름다운 여행기가 아니라 여행의 진짜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혼자 떠난 아프리카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덤덤히 적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상황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걸어간다. 저자는 책의 끝자락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다고 말한다. 참 솔직하고 친근한 저자의 원래 성격이 글에서도 아주 잘 드러난다.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어려움들에 대해 담담하게 집필한 것이 인상적이며 그렇지만 자기 삶의 여정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 책을 썼던 2019년에는 '원지의 하루' 채널의 구독자가 6만 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는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채널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 책을 보는 독자는 그녀의 성공을 알고 있지만 집필할 당시의 저자는 매우 고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저자 역시 매번 현실의 벽 앞에 불안해하면서도 마음의 소리를 따라 흘러가듯 살았더니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진솔하게 풀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은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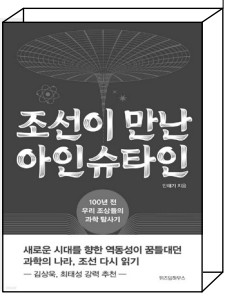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천체망원경으로 올려다본 하늘

김형옥 (파주시 월롱도서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글 – 위즈덤 하우스, 2023.

추천대상: 일반, 청소년
#과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고 싶은 사람



'구한말'은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시기로, 보통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부터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 8월 29일까지를 말한다(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그래서 보통 구한말을 떠올리면 나라의 주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암울한 시대가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시대였으므로 아마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두운 시대에 과학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까?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의 저자 민태기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현재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으로 누리호 및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미국 참전용사들이 눈부시게 발전한 서울에 감탄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문득 개화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이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500여개에 달하는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1895년 서울, 미국에서 서재필이 귀국한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하여 미국 명망가 집안 딸과 재혼하였지만 혼란스러운 조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돌아와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며 개화에 앞장섰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를 기반으로 개화파가 뻗어나가는 큰 줄기가 되지만 보수적인 관료들과 정부의 방해로 출간이 좌절되고 만다.

이 책은 18개의 이야기로 개화기부터 한국전쟁이 휴전할 때까지의 조선 과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경술국치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민중 개화운동이, 이후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끝없는 활동이 바탕에 깔려있다. 1920년대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언론들은 아인슈타인의 방문 일정을 시시각각 보도하였고 민립대학 건립 세력들은 사람을 파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인다. 비록 조선에 초청하려던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100년 전,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과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무래도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 배경지식 없이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은 약간 아쉽다. 그리고 근대사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심적으로도 배우기 어려운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와이 노동자들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 모금한 돈으로 인천에 세워진 인하대학교나, 물리학자가 된 야구 스타 최규남 이야기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과 관련된 숨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암울했던 현실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과학을 통해 조국 해방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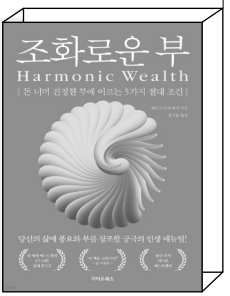
양자역학으로 바라 본 조화로운 삶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조화로운 부

제임스 아서 레이 글, 홍석윤 옮김. – 라이온북스. 2021.

추천대상: 일반
#영적 행복과 세속적 행복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싶을 때



《조화로운 부 Harmonic Wealth》는 고전이다. 2008년에 출간된 《조화로운 인생》(국내 출판 제목, 2009)을 2019년에 전면 개정하여 번역 출간한 책이다. 번역을 한 책들은 읽는 데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긴 하나, 내용을 전달받는 데 있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생각하면 하등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 책은 양자역학에 대해 궁금하여 유튜브 썸네일을 뒤지다가 얻어 걸린 책이었다. 사람도 책도 필요하다면 운명처럼 자신에게 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사함과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었고. 역시나 유익함을 주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밥 프록터(위대한 발견), 선사 데니스 겐포 메르젤(빅 마인드), 스콧 마티노(당신의 잠재력!), 브라이언 트레이시(부자의 길) 등 많은 저자들의 찬사가 인용되어 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등극되기도 했다.

제임스 아서 레이는 이 책 외에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5권이나 더 쓴 작가이다. 《시크릿 The Secret》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이다. 이 책은 〈피플〉지가 선정한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이다. 그는 20여 년간

전세계를 돌며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습관을 연구해 왔으며, 수천명의 개인과 기관들의 코치이자 멘토로 삶과 사업. 모든 분야에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가르쳐 왔다. 제임스레이인터내셔널의 CEO를 맡아 사람들에게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기업인으로 2009년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삶을 재건한 그의 인생 스토리가 2016년 CNN에서 방영되었고, 넷플릭스에서 CNN 다큐멘터리 영화 《구루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최소 10억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사명으로, 실패로부터의 회복력, 강한 적응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양자물리학 회의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밖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 즉, 외부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338쪽)*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최종 목적지가 진정한 마음의 열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312쪽)*

'우리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모든 종교는 말하고 있다(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신, 즉 우리가 하늘의 위대한 '그분'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제한된 마음의 투영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할까? 당신이 투영한 것이 신이 원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얘기다. 마음의 이미지(心象, mental construt)를 가지고 느낌 혹은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이때, 감사의 감정이나 느낌이 끌어당김에 필수요소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3박자 법칙이 바로 '생각- 감정(느낌)- 행동'이라는 것이다. 감정이나 느낌에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DNA를 압박해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변명을 일삼아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화를 내어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우리의 생각은 천둥이고, 우리의 말은 법이다. 그만큼 강력하다. 마더 테라사는 '오직' 예수의 고통 성배만을 마시고 싶다고 편지글을 썼다고 한다.

나는 웃는 예수의 표정처럼 기쁨의 성배만 마시고 싶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람다스는 선택의 방황 끝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한다고 했다. Harmonic Wealth는 삶이 양자역학의 법칙으로 5가지 기둥(재물적 기둥,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 영적 기둥)으로 조화로운 부를 이룰 수 있음을 풀어내고 있다. 외부의 환경에 저항을 받으며 균형(동양적 사고로는 중도, 중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한 균형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영적으로도 창조자와 창조물을 모두 포용하라고 한다. 영적 영역의 거대한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한편 모든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는 세계에서 그 문제들을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은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 작가는 우리가 훨씬 나은 그 이상의 존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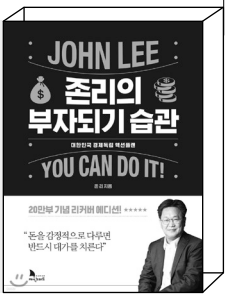
금융문맹률로 본 나의 경제 지식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글 – 지식노마드, 2020.

추천대상: 일반
#자녀의 경제교육과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고자 할 때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 즉 돈에 대한 진솔한 대화나 지식을 나누는 책이다. 노년에 경제 독립을 해야 한다면 유대인들의 방식을 배워, 이를 우리 자녀와 가정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살아온 땅을 빼앗기고 유럽과 서구사회 속에 녹아 살아가는 수단으로 금융을 탄생시키고 키운 민족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사 시간에 대화를 금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해 현대인의 삶은 가족 구성원 모두 매우 바쁘고 각자 생활하기에 바빠서 식사도 함께 할 엄두도 못 내기 쉽다. 그러나 모래알처럼 흩어진 생활을 하다 보면 통제 불능의 재정 상태를 마주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가족끼리 식탁에 마주 앉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단기 투자의 폐해 때문이다. 즉 빠른

시간 안에 큰 성과를 갖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단기 투자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 투자는 투기 목적이 큰 것들이다. 이러한 주식 투자가 아닌, 원칙과 철학에 바탕을 둔 장기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식을 쌓아간다면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사가 2014년 7~8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여성 1만 2,574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58.6%로 끝에서 두 번째로 금융문맹률이 높은 국가이다. 최하위는 일본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한국에서 만난 인상 깊은 CEO를 언급하며 문맹 탈출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는 꽤 인상적인데, 그가 만난 CEO는 남이 부러워하는 의사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을 맡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금융을 이해할 줄 알았고, 이를 통해 부자가 된 것이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도 자본은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작가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자녀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도 일관성 있게 이러한 생각을 펼치는데,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은지, 학벌 좋은 가난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를 묻고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 졸업선물이든, 어떤 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면 주식을 선물하며 금융 지식을 키워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유자금과 관련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언급이 있다. 여유자금은 소비하기 전에 떼어 놓은 돈이 여유자금이라고 한다.

죽기 전까지 필요한 금융 지식이기에 모두에게 있는 은퇴자금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다. 윌리엄 벤젠 재무관리사가 주장한 은퇴자금 마련 계획수립 원칙 중에는 4%룰이 있다. 은퇴 시 보유 원금의 4%를 연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000만 원이 연간 생활비로 쓸 돈이 된다. 매달 33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셈이다. 60세에 은퇴하고 5억 원을 보유했다면 4%룰을 적용할 때 자산은 85세에 소진된다. 5억 원의 4%룰은 월 166만 원인데 최저생활비 수준이다. 보다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는, 투자를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저자 존 리는 한국계로,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부터 메리츠자산운용의 대표이사다. 저자가 운용한 코리아펀드는 1991년에서 2005년까지 15년간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수익을 달성한 전적이 있는 기업가이다. 현재 1,000여 건의 강의를 통해 금융문맹 탈피를 설파하고 있다. 주니어펀드 투자클럽을 운영하며 월가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다.

2023 우수작 서평교육부문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하게 될 질문, 들여다보다

박윤정 (성남시 중원도서관)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글, 김연경 옮김 – 민음사, 2012.

추천대상: 일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을 때
#고전을 읽어보고 싶을 때
#러시아 이름을 멋지게 발음해보고 싶을 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죄와 벌》을 소개합니다. '죄'와 '벌'이라니, 제목부터 무겁고 부담스럽죠.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작 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데 또 적잖은 사람들이 '인생 책'으로 꼽는《죄와 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소설의 배경은 1860년대 후반 러시아의 대도시 페테르부르크, 주인공은 지방 출신의 대학생 '라스콜니코프'입니다. 꽤 영민하고 우수한 법대생인데 학비를 내지 못해 휴학중입니다. 숨막히게 비좁은 골방에 살며 넝마같은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7월 어느 날, 이 청년은 나름 치밀하게 살인계획을 세우고 예행연습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결국 전당포 노인을 죽이고 엉겁결에 다른 사람까지 살해한 라스콜니코프. "그저 이[蝨]를 죽였을 뿐이야!"라고 정당화해봐도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이야기는 여러 인물과 다양한 사건이 얽혀가며 전개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궁극적 구원의 여인상인 '소냐', 심리를 꿰뚫어보며 자수를 권하는 예심판사

‘포르피리’, 그리고 외모도 내면도 아름다운 여동생 ‘두냐’와 주변 인물들,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살인사건이나 범인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범죄소설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죄를 저지른 후 겪는 심리적 상태에 집중하고, 고뇌를 거듭한 끝에 벌을 받고 결국 속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 “이 책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다.”라고 밝혔듯이, 탁월한 심리묘사는 이 책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또 역시 고전답게, 시대와 배경을 초월하여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인물의 모습, 물건의 가격, 집이나 거리 풍경 등 고통이 가득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범죄자와 판사간의 심리게임에 덩달아 긴장하게 되고, 예상 못한 인물이 뜻밖의 시간대에 등장하여 의외성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에는 빈곤과 계급과 가치관의 문제로 고뇌하고 갈등하는 일이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러다 자신만의 철학과 사명감을 지닌 ‘우월한’ 인간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할 것입니다. 살인처럼 중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옷자락이 바퀴에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든 휘말릴 수도 있겠죠. 라스콜니코프가 외쳤던 질문이 누구에게나 변형되어 쏟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누군가와 공감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 일들을 겪어낸 후 마주할 참 기쁨의 순간도 기대하세요. 나에게도 인생 책이 될 수 있을《죄와 벌》, 일생에 한 번은 꼭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2023 우수작 서평교육부문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에게 남겨진 것은?

구진영 (파주시 중앙도서관)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글 – 김영사, 2020.

추천대상: 일반
#죽음 이후 남겨진 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 죽음으로 한걸음씩 다가선다. 죽음이 삶과 맞닿아 있는 걸 알게 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웰다잉(well-dying)"을 꿈꾼다. 웰다잉(well-dying)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두산백과)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 강렬하고 처참한 현장, 모든 것을 쏟아낸 마지막 순간에 남은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저자 김완은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의 대표이자 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시를 전공하고 출판과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저자는 집필을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을 겪으며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귀국 후에는 인간 존엄성 회복을 모토로 고독사나 자살, 범죄현장을 청소하고 유품 정리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죽음의 현장에서 드러난 인간의 삶을 실제 현장을

들여다본 듯이 선명한 인상을 남긴다는 점이다. 저자는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마주한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젊은 청춘들과 노인들의 고독사, 동반자살.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곳에서 저자는 가난과 빈곤, 고독과 외로움의 그림자들을 발견한다. 비록 남겨진 유품들만으로는 머물다 간 이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 보며 자신 안에 있는 짙고 깊숙한 고독을 마주하며 인간의 삶을 재조명해본다. "인생이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먹고 살려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비록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직 생애 단 한 사람을 위한 한 번뿐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직업"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생애 모든 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기에 '당신이 하는 일처럼 내 일도 특별하다'고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저마다 떠나는 이유도 다양하고, 남겨진 흔적도 모두 다르지만, 남은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누구든 그저 자주 만나면 좋겠다. 만나서 난치병 앓는 외로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면 좋겠다."

특히,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죽음의 현장에서 "인간은 애초에 자신을 쉽게 죽일 수 있도록 탄생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도구나 보조물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 호흡을 멈출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 그 도구들은 죽은 이의 일상과 생계를 알게 해주는 수단인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날, 과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될까.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들, 또는 남겨진 흔적에서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특수청소업자 "사사가와씨"를 주인공으로 한 마에카와 호리에 작가의 소설《흔적을 지워드립니다》도 함께 읽어볼 만하다.

누가 불행해져야만 행복의 기회가 오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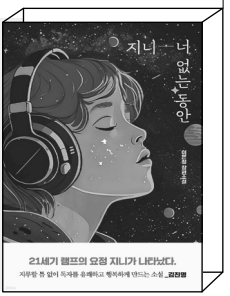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지니, 너 없는 동안

이은정 글 – 이정서재,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마음속에 선물 같은 존재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은정 작가는 단편소설 《개들이 짖는 동안》으로 2018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대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에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읽고 쓰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작가이며 심지어 《쓰는 사람, 이은정》이라는 산문집을 펴내기도 했다.

장편소설 《지니, 너 없는 동안》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놀라운 상상력으로 재창조해서 그려낸 판타지 성장 소설이다.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지만, 작가는 이 소설을 어른들이 많이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등단 후 줄곧 폭력에 관한 소설만을 쓰던 작가는, 재미있고 쉽게 읽히고 여운도 남는 밝은 소설을 쓰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90년대 가수 하이디가 부른 '진이'라는 곡을 기억해냈고, 램프의 요정 지니를 소환해내는 데 성공한다.

주인공 '동안' 앞에 나타난 램프의 요정 지니, 지니는 다섯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든, 그게 무엇이든, 불행만, 딱 다섯 번이라고 강조한다.

'동안'은 비씨맨 갱생, 마주공(아버지)의 사망, 아쿤드자다의 불행(세계 평화), 강미애와 윤재태의 결별, 부단과 생모의 만남까지 다섯 가지 소원을 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섯 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후 '동안'은 지니와 이별을 고한다.

완벽하게 불행한 삶도, 100% 행복한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행과 행복의 총량에서 때로는 한쪽의 무게가 커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가벼워지기도 한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내 행복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불행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불행해져야만 나에게 행복의 기회가 오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과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 소설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행복은 뭐고 불행은 뭘까? 그건 정말 상대적인 걸까?

반드시 누가 불행해져야만 행복의 기회가 오는 걸까?

행복해지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어쩌면 불행을 외면하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
(115쪽)

《지니, 너 없는 동안》은 내가 추구했던 행복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었는지 반성하게 하고, 행복이라는 목표만을 쫓다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일(134쪽)"이라고 갱생을 부추기는 판타지 소설은 흔치 않은데, 이 소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불행을 바랐던 무서운 마음,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싶다는 악한 마음, 어떻게든 나의 행복을 얻어 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던 어느 시절의 나를 소환해 내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이 이 소설이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한다.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이야기의 구성과 이은정 작가의 안정된 문장력만으로도 이 소설을 꼭 읽어야 할 이유는 있다. 또한 이은정 작가가 그동안 써왔던 글들과 완벽하게 다른 장르의 소설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반갑고 흥미롭게 이 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묵직한 감동을 주는 반전의 소설을 많은 독자가 펼쳐보기를 바란다.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마음속에 선물 같은 존재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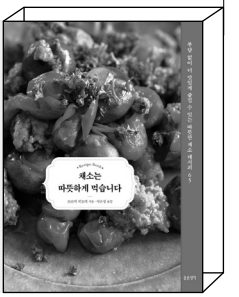
그래서, 더 맛있는 채소 레시피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채소는 따뜻하게 먹습니다

쓰쓰미 히토미 글, 이은정 옮김 – 좋은생각, 2021.

추천대상: 일반
#식생활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식탁을 꾸리기 위한 야채와 채소 레시피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채식주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저자 쓰쓰미 히토미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요리연구가 어시스턴트를 거쳐 프리랜서로 독립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나아가 최근에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거나 광고의 요리 제작, 기업의 레시피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의 특별 메뉴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책장을 넘기면 식재료의 참신한 조합과 쉬운 조리법이 예쁘게 담아낸 플레이팅 사진들과 함께 제공되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책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부 '오일이 채소를 맛있게 만든다', 2부 '맛국물이 채소를 맛있게 만든다', 3부 '걸쭉함이 채소를 맛있게 한다', 4부 '한 그릇 뚝딱, 채소 가득 면 요리'가 그것이다. 이 책을 만나고 낯설었던 올리브유와 발사믹의 세계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현미식초, 사과식초 등과 닮았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이 책이 결국은 어렵지 않은 익힌 채소 요리 레시피일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전 어릴 적에 채소를 주로 조리거나 볶아서 먹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채소는 무조건 익혀 주셨거든요. 이런 반찬이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왔기 때문에 '햄버거 먹고 싶어! 튀김을 먹고 싶다고!'라며 혼자 툴툴거리기도 했어요. 한데 막상 제가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매일 주방에 서게 되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의 요리를 만들게 되더군요. 따뜻한 채소 요리를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조리할 때 나는 하얀 김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요리, 바로 제가 꿈꾸는 채소 요리예요. 전 말이죠, 채소를 아주 많~이 먹고 싶어서 따뜻하게 먹어요!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비건을 주제로 한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하여 관련한 출판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가족이 체질을 바꾸어 건강을 회복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 책을 비롯하여 유사한 책들을 찾아 읽게 되었다. 나아가 실제로 그동안 당분 함량이 높다거나 튀기거나 맵거나, 짠 음식 등 강렬한 미각을 자극하는 식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배추와 시금치 등 생활 가운데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채소를 데치거나 쪄서 먹어보았다. 요리라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또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재료 자체가 만들어내는 고소함과 단맛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놀라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말에는 싱싱한 야채와 채소를 사서 저자가 소개하는 단순한 레시피에 하나씩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을 만남으로 작지만 놀라운 삶의 변화와 건강회복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

천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김준기 (광명시 하안도서관)

천 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글 – 쌤앤파커스, 2022.

추천대상: 일반
#45세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는 과정이 궁금한 사람에게

다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이소가 없는 동네도 별로 없을 것이다. 다이소에 가면 가끔 인플레이션을 잊게 된다. 신기한 일이다.

책을 읽고나서 다이소가 일본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에는 이처럼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반드시 검증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이소, 즉 아성다이소는 국내기업이고 일본의 다이소산교는 일부 지분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기업이 일부 지분에 투자한 국내 기업을 아무도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아성다이소는 한국 기업임이 분명하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박정부 회장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처음 창업하던 때를 그린다. 1부에는 창업초기의 어려움이 담백하게 담겨있어서 읽는 맛이 가장 좋았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다.

돌이켜보니 창업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직장에서도 죽을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며 '내게 아직 열정이라는 게 남아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물론 20대의 거침없는 열정과는 다를 것이다. 자식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게 만들었다. 참 신기한 것은 집중하면 할수록, 그리고 간절할수록 더 크고 대단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19)

상당히 고생한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게 풀어내는게 아니라 이미 지난일이니 담담하게 기술하면서 어떻게 버텨내었는지 가슴속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성공한 경영인이 성공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들 말이다. 도대체 책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는단 말인가. 오로지 책이기에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은 상품 개발과 소싱의 달인이다. 국내에서 다이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본에 납품하면서 열심히 발품을 팔던 시간 덕분일 것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익힌 유통구조와 상품개발 과정, 그리고 스페인에서 본 저가상품의 소비패턴과 다양한 샘플제품들.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찾아다닌 생산라인까지. 그야말로 박정부 회장에게는 성숙의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 국내시장을 석권했다고 본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기에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 왔다는 것은 분명 남과 격차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박정부 회장의 철학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다이소를 경영한다.

비용 〈 가격 〈 가치

비용은 가격보다 높을 수 없고, 가치는 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가성비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이소는 20년 넘게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1,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정해놓은 가격은 물가나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도 한결같이 지켜낸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직후 환율 악화로 해외 수입제품 가격이 대폭 올랐을 때도 그랬다. 제품 공급선을 환율 영향이 적은 국내 제조업체로 교체한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류에 따라 적당히 이윤을 좇으려 했다면 이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사업은 마진을 좇는 순간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이소는 어떻게 이윤을 만들어왔을까?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지만 다이소는 반대였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어떻게든 상품을 개발했다.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상품이 싸고 좋으면 고객은 반드시 온다는 것. 이윤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싸고 좋은 물건으로 많은 고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매출을 일으키자는 전략이었다.

원가가 올랐다고 덩달아 상품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그럴수록 유통과정의 거품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해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자는 것이 다이소의 전략이다. 차라리 제품의 질은 유지하면서 포장을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단순화해 원가를 절감하자는 것이 다이소의 전략이다. 나는 이러한 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유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강력하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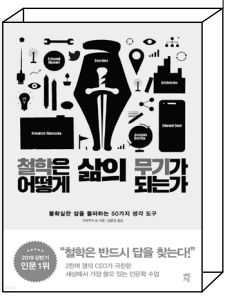
철학이라는 삶의 등대

최경규 (포천시 일동도서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글, 김윤경 옮김 – 다산초당, 2019.

추천대상: 일반(성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철학책'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어느 유명 대학의 교수가 쓰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머리 아픈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루어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르다. 이 책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게이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광고회사 덴쓰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보스턴컨설팅 그룹과 AT커니, 콘페리헤이그 그룹 등 경영·인사 컨설팅 기업에서 활약한 조직 개발,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저자는 각종 컨설팅 현장에서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다.

제목부터 보통의 철학책과는 다른《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1부 '무기가 되는 철학'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왜 사람들이 현실에서 철학을 외면하는지를 설명하고, 2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50가지 철학·사상'

에서는 '사람', '조직', '사회', '사고(思考)' 4가지 장으로 나누어 50가지 철학사상을 대입하여 현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특히 인상적인 구절은 요 몇 년 사이 불거진 '공정 논란'에 대한 구절이다. 이는 2부 34장의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에 의한 상처가 깊다'에서 나오는데 이 장에서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고자카이 도시아키, 알렉시 드 토크빌을 인용하여 인상적인 논점을 제시한다.

불평등이 사회 공통의 법일 때는 최대의 불평등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거의 평준화될 때 인간은 최소의 불평등에 상처받는다. 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평등의 욕구가 더욱 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미국의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안개 속에서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럽지만, 안개를 벗어나면 그렇게 명확해 보일 수가 없다. 이 책은 등대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듯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혀주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걷기의 즐거움이란 목적 없음을 향유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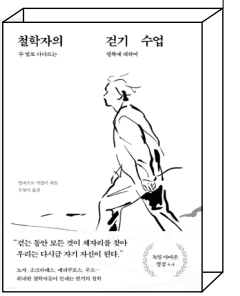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철학자의 걷기 수업

알베르트 키츨러 글, 유영미 옮김 - 푸른숲, 2023.

추천대상: 일반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이 책속 철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잠깐이라도 좋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책에서 마주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가만히 곱씹다 보면 어느덧 고요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변호사였던 알베르트 키츨러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서른한 살의 나이에 돌연 남미로 1년간 도보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영화제작에 대한 열망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코르시카섬으로 떠난 도보여행에서 다시 한 번 삶의 행로를 바꾸게 된다. 이 책은 그가 도보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총망라된 걷기 철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행복해지고 싶다면 걸어라."

하루 종일 네모난 사무실, 네모난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하루에 5천보를 걷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서 반복하는 루틴 중에 '걷기'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걷는 일의 즐거움은 바로 목적 없음을 향유하는 것"임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일상의 멈춤, 목적 없음을 향유하기, 이것이 바로 걷기의 본질이다. 걷는 동안 생각을 멈추고, 신경을 끄고, 속도를 늦추면서 걷는 동안 모든 내적 시선은 오롯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책은 “자연 속에서 걷는 일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소풍이면서 자신만의 은신처를 소유하는 것과도 같다.(17쪽)”라고 말한다.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걷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작가의 간절함이 읽힌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걷기’는 사색과 명상을 동반한다.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음악을 들으며 걷는 순간이 아니라면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걷는 일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밝혀준다. (38쪽)” 걷기가 주는 선물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생각과 어지러운 마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멈추고 비워내는 고요의 순간도 찾아온다. 생각하기, 말하기, 비난하기, 판단하기, 결정하기 등 뇌의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 또한 걷기의 효용이지 않을까 싶다. 결국에는, 걷는 동안 정돈되고 명료해진 정신으로 더 나은 통찰을 얻어내고 힘과 활기를 얻어내는(136쪽)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작가는, 걷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자연에 대한 경험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걷다 보면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 덧없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릴 용기가 생긴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파한다. 모두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의연해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살아 있는 동안 초연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차분하고 고요하게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걷기는 우리를 더 선하고, 더 온화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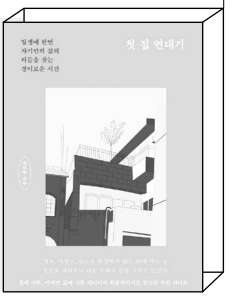
만들어준다.(241쪽)"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자연을 곁에 두고 걷기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 지금 바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자. 따듯한 햇살이, 별 박힌 밤하늘이, 선선한 바람이, 포근한 온기를 담은 다채로운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행복에 이르는 충만한 삶이 덤으로 찾아온다고 믿어보자.

우리는 행복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이며, 자연과 간소한 삶의 방식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경험한다. 걷는 동안에는 그저 걸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 깃든다. 걷기의 즐거움을 "목적 없음을 향유" 하는 것이라고 열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은 도보여행의 가장 높은 단계다. (181쪽)

매력적인 캐릭터가 존재하는 방구석 남의 집 탐험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첫 집 연대기

박찬용 글 – 웨일북, 2021.

추천대상: 일반
#집 또는 방을 가진 모든 사람
#이사가며 새로운 집꾸미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기자기한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

샷시까지 바꾸는, 남들은 평생 한두 번 해볼까말까 한다던 반셀프리모델링을 결혼 생활 6년 동안 두 번이나 한 만큼, 나는 '리모델링'에 매료되어 있었다. 우리 도서관 KDC 818에는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류의 수필이 잔뜩 꽂혀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니아 연대기도 아니고《첫 집 연대기》라니. 저자는 분명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을 집어든 나는 제목보다도 휘리릭 넘긴 책장 속 언뜻언뜻 보이는 굉장히 솔직한 '심경'에 눈이 갔고, 결국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부분은 셀프 리모델링 후기가 아니라, 저자가 처음 집을 얻을 때 만났던 다소 이상한 집주인 묘사였다.

누구나 '내 집 마련'에 열광한다. 저자 역시 가족과 오래된 주택에서 살면서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정확하지 않다.) 자신의 방에 다른 가족들의 커다란 가구들이 침범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다. 여러 제약을 고려하여 처음 독립할 집이 위치할 동네를 고르는 부분부터 아주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재미있었다. 마침내 동네를 고르고 주인 할머니를 대면하는 순간! 우리도 한 번쯤 마주쳤던 순간!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피할 수는 없을 때, 심지어 오래오래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안 순간이 작가에게 닥쳤다. 책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뎠다는 걸까?

이미 몇 번의 집을 계약해본 나로서는 저자가 보증금을 너무 쉽게 송금해 버린 부분에서, 그리고 주인 할머니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마저 있었을 때에는 마치 내 일처럼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로움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상황을 '양보'와 '체념'을 통해 잘 대처해간다. 마치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양보'와 '체념'이 필요한 것처럼.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을 읽으며, "아니, 싸구려 셋집에 임차인이 무슨 대공사를 해주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리모델링 순서도 엉망이었다. 저자는 그냥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순서도 없이 고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집 계약도, 리모델링도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우당탕탕 집 구하기 과정을 보는 중간에서야, 이 책의 제목 '첫 집 연대기'가 마음속에 와닿았다. 이것은 정말 연대기였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독립, 리모델링이지만 어찌 보면 무계획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작가의 첫 집 구하기야말로 연대기라는 말이 꼭 어울렸다.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도 저자가 가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구나 그릇을 살 때에 가격, 색깔, 내구성 등에서 그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타협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니면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정돈을 못하면서 예쁜 집을 갖고 싶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명 잡지 에디터답게 그가 구매한 집을 꾸미기 위해 구매한 물건들은 내 마음도 뺏어 버렸고, 나는 그가 언급한 브랜드들을 네이버와 직구 사이트에 검색하고 있었다. 역시 다른 사람의 집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다. 특히, 가족

집에 얹혀살면서 '빨리 내 집이 있었으면' 하는 나에게는 대리 만족을 주기도 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셀프 집 시공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온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자신이 시공한 집 사진이 단 한 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을 이렇게 예쁘게 고쳤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을 고치게 된 연유와 과정만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유명 잡지의 에디터답지 않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그가 말한 하얀 침대와 스위스산 의자를 검색해보며 내 머릿속에 저자의 방과 거실을 상상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책 읽는 재미'를 느꼈다.

아직 리모델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꿀팁을 전수해주는 책이자, 나처럼 리모델링을 이미 해 본 사람에게는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회상하게 하는 재미있는 책이다. 특히,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나도 모르게 저자의 삶 깊숙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재미있다. 방구석 세계여행이 아니라 '방구석 남의 집 여행'을 해보고 싶은 분께 추천한다.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청춘의 독서

유시민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17.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비판적 책 읽기의 한 예를 보고 싶을 때
#인간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시대 문인 유한준 선생의 문장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소개해 유명해진 글귀이다. 그리고 이 책 《청춘의 독서》에 꼭 맞는 표현일 듯하다. 문명사에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책들을 읽고, 그 책에 기대어 나름의 행로를 걸었던 저자가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책들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쓴 기록이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도 같은 책을 두 번 읽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저자는 1980년대 대학생의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개혁성향 정당을 창당한 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으며, 정계 은퇴 후 작가 겸 방송인으로 살고 있다. 대표작으로 《거꾸로 읽는 세계사》(1988), 《어떻게 살 것인가》(2013),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2021) 등이 있다. 그가 학생운동가, 경제학자, 정치인, 작가, 방송인이라는 얼핏 보면 서로 아주 다른 직업들을 망라하는 삶을 살아온 데는 이 《청춘의 독서》에서 소개하는

책들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젊은 날의 저자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던《죄와 벌》,《전환시대의 논리》,《공산당 선언》,《대위의 딸》,《맹자》,《사기》,《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종의 기원》등은 지금도 많이 읽히는 고전들이다. 그리고 이 빛나는 책들을 젊은 저자의 시선으로 한 번, 완숙한 저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읽어냄으로써 더 깊고 넓어진 통찰을 통한 해석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테면《죄와 벌》에서는 처음 읽을 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두냐'라는 인물이 가진 반듯한 가치관과 인간적 품위를 발견하고,《맹자》에서는 30년 전에는 흘려 버렸던 말들에서 측정할 수 없는 사유의 깊이를 느끼며 인간 맹자가 좌절마저 아름다웠던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대장부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독서는 책과 대화하는 것이다. 책은 읽는 사람의 소망과 수준에 맞게 말을 걸어주고 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 준다. *(313)*

긴 세월이 지나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음으로써 저자는 과거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척 흥미롭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현재 다시 읽어볼 만큼, 과거에 가치 있는 책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읽어 왔는지 자문하게 된다. 올해의 독서 목표로 '미래의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독서'라는 커다란 목표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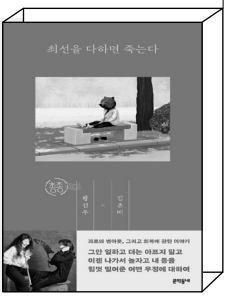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법도 알아야

김은미 (이천시립도서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글 – 문학동네, 2023.

추천대상: 일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 이슬아, 남궁인 작가의 서간 에세이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시리즈의 맥을 잇는 작품이다. 최근 여성 독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멋있으면 다언니》,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를 쓴 황선우 작가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다정 소감》을 쓴 김혼비 작가의 글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자들은 환호했다. 출판 전부터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술렁였다.

황선우 작가와 김혼비 작가가 서로에게 보냈던 이 서간문은 '과로와 번 아웃,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쉬라고, 나가서 같이 놀자고 권하는 우정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들은 이 책을 기꺼이 펼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페이지가 줄어들수록 초조해지고, 제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

100통쯤 편지가 이어지기를 바랐다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작가들은 고백했다. 그래서였을까. 편지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의 모습 같기도 하고, 펜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같기도 하고, 친구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같기도 해서 읽는 내내 기분이 산뜻해졌다.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훗~' 하고 웃음이 삐져나오기도 하면서, 너무나 다정한 인사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

서간문 안에서 두 사람을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씨'로 정했다. 대등한 관계를 표방한 그들의 선택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 독자들이 롤 모델로 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 시대를 힘 있게 대변하는 작가들임에 틀림없다. 작가들 특유의 호쾌함과 다정함 그리고 당당함이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선우씨의 책을 읽고 비로소 '뒤에 올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일'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22쪽)*

김혼비 작가는 번 아웃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물미역처럼 꾸역꾸역 계속하다가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된다. 황선우 작가는 그런 김혼비 작가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을 거절하는 데 성공하기를, 잘 먹고 잘 자는 생활을 쟁취해 내기를, 그래서 마침내 더 많은 쉼을 사수하기를 바란다(75쪽)."라고 대차게 위로를 건넨다. 작가에게 건네는 묵직한 토닥임이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로 읽힌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선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74쪽)*

황선우 작가는 동거인 김하나 작가와 '서울사이버 음악대'를 결성해서 리코더와

우쿠렐라로 합주를 하곤 한다. 두 사람의 연주 틈으로 타악기 하나가 끼어들었다. 맑은 소리를 가진 김혼비 작가의 목탁 연주이다. 최근 북토크에서 세 명이 연주한 합주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마음의 소리로 들어보니 매우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불협화음에서 시작해 결국 끝음을 정확히 맞춰내는 과정에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순간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는 듯 보였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일,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시도들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덮으며 사소한 이야기도 사려 깊게 읽어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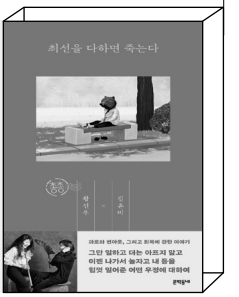
최선을 다하지 않는 최선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글 – 문학동네, 2023.

추천대상: 일반
#편지가 주는 다정함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번아웃이 온 이들에게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 피곤한 이들에게
#일상 속 작은 재미를 찾고싶은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 황선우, 김혼비 작가 둘이 1년 동안 주고받은 글들을 담은 서간문이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멋있으면 다 언니》의 저자 황선우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아무튼, 술》의 저자 김혼비 두 작가의 만남만으로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글들이 가득할까?'하고 기대하며 읽게 되는 책이다.

서로 작품을 통해 잘 아는듯하지만 막상 호칭은 '~작가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두 저자는 작품 속 서로의 모습을 짚으며 서로가 아는 상대방의 모습들을 나열하며 곧 '혼비 씨', '선우 씨'하며 다정하게 상대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자신의 일상 속 인상 깊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황선우 작가의 'I hope it helps you sleep and rest'라는 문장을 본 김혼비 작가가 자신의 번아웃 상태에 대해 토로한다. 언젠가부터 회사 일과 글쓰기 병행이 무거운 짐이 되어 김혼비 작가를 짓누르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고백을 시작으로 두 저자는 보다 세심하게 서로의 일상 속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하며 상대를 다독이는

말들을 건넨다.

담배를 피우기 전 손을 씻는 김혼비 작가의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담배 피우기'를 하기 위해 손에 묻은 담배만치 해로운 균들을 제거한다. 어찌 보면 '담배 피우기'가 더 해로운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김혼비 작가는 자신이 '담배 피우기'를 안 할 뿐 야근을 통해 누적된 피로는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운가 따지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 해로움을 잘 덜어내야 함을 생각한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두 저자는 시시껄렁한 말 농담으로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휴식계의 대가'라 써야 하는데 '휴식계의 대갈'이라고 쓰거나, 축구 감독 '무리뉴'를 '부조리', '무리수'라고 부르는 등의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이 편지를 읽으며 웃음을 띨 수 있게 신경 쓴 것이 눈에 띈다. 말 농담만이 넘치는 편지가 아니라 일상 속 희로애락이 녹아내린 일화들을 나누면서 편지는 한층 더 따스해진다. 탁구 2년 차 황선우 작가의 탁구 선배들의 후배를 대하는 느긋한 모습,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 좌석에 앉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는 김혼비 작가, 옛말은 모두 진리인 것 같지만 별로인 말에 대해서도 산뜻하게 '군자 비추'라고 말하거나, 그래도 24절기는 과학적이라며 매 절기마다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음'에 최선을 다하는 두 작가의 편지를 통해 일상에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시간을 되돌리다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칵테일, 러브, 좀비

조예은 글 – 안전가옥, 2020.

추천대상: 성인
#신선한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조예은 작가의 소설집 《칵테일, 러브, 좀비》는 짧지만, 인상 깊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가의 작품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포착되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는 존재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주인공들이 무기를 든다는 사실이다. 기이한 배경 위에 펼쳐지는 작가의 신선한 발상들은 이 소설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첫 번째 작품 〈초대〉에서는 오랜 기간 목 안에 든 가시같이 교묘하게 억압하고 가스라이팅 하던 남자친구에게 해방되기 위해 반격하는 채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정체 모를 여자를 쫓아간 채원에게 그녀는 채원을 괴롭히던 가시를 뱉게 한다. 평생을 괴롭혔던 가시에서 해방된 채원은 되돌아와 가시처럼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친구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습지의 사랑〉은 주인공이 물귀신인 독특한 소설이다. 강의 물귀신인 '물'과 숲의 귀신인 '숲'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숲이 물을 찾아와 만남을 지속하며 우정을 쌓는다.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그들을 해치는 물을

개발하기 위해 찾아온다. 인간들은 숲을 개발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산사태가 나면서 둘은 만나게 된다.

〈칵테일, 러브, 좀비〉에는 엄마, 딸, 그리고 갑자기 좀비로 변해버린 아빠가 등장한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주사로 가족들을 괴롭히던 아빠가 어느 날 좀비가 된다. 살아있는 뱀으로 담근 술을 마셨더니 기생충이 뇌를 잠식한 것이었다. 그동안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아빠지만 모녀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집 안에서 함께 산다. 그러나 사람 고기를 먹지 못해 굶주린 아빠는 결국 딸을 물려고 시도한다. 엄마는 그 순간 아빠에게 총을 겨누어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을 끝낸다.

마지막 소설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는 복잡하게 얽힌 타임리프물이다.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하던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과거로 되돌아 가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아들을 스토커로 오인한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살해한다. 스토커가 사라진 후 세월이 지나 그 스토커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결국 모든 일은 벌어지고 만다. 짧지만 인상적인 반전을 가진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는 오싹하면서 깊은 여운을 준다. 조예은 작가의《칵테일, 러브, 좀비》는 흔치 않은 소재들과 입체적인 인물들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풀어나간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강렬한 전개에 독자들은 그 이야기 속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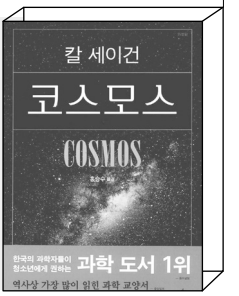
우주의 바다에서 인류가 살아남는 법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코스모스

칼 세이건 글, 홍승수 옮김 – 사이언스북스, 2006.

추천대상: 일반
#문득 밤하늘의 별들이 이뻐보일 때
#영겁의 시간과 공간을 간접 체험하고 싶을 때



스페이스X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이다. 이 기업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 등의 업적들을 달성했다.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목표는 인류의 우주 이민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2년 8월에 쏘아올린 다누리 호가 그 해 12월 달 궤도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가 왜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지구의 기후, 에너지, 통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인류는 우주를 연구하며 인공위성, 화상기기, 원자력 시스템 등의 기술들을 발명해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고 인류의 생존과 발전은 향후 우주를 얼마나 연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천문학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칼 세이건의《코스모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칼 세이건은 현대 천문학의 상징이다. 미 항공우주국 NASA

에서 바이킹, 보이저, 패스파인더 등 수많은 우주탐사선 계획에 참여했다. 1996년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대중에게 우주에 관해 알리는데 헌신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는 동명의 우주 과학 다큐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바 있었는데 이 책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실험과 사상들을 소개한다. 2장 《우주 생명의 푸가》 에서는 다른 행성에서 존재 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보고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에서는 인류의 위대한 천문학자 케플러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4장 《천국과 지옥》 에서는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을 소개하고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에서는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던 화성의 진실을 밝힌다.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주 먼 곳을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 호에 관한 이야기다. 7장 《밤하늘의 등뼈》에서는 인류가 생각해 온 우주관의 역사를 다루며.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에서는 제목 그대로 우주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9장 《별들의 삶과 죽음》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알려준다. 10장 《영원의 벼랑 끝》에서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관한 비밀을 풀어보고,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와 12장 《은하 대백과사전》에서는 외계 생명과 교신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존재 가능성을 추산해본다. 마지막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에서는 다시 지구로 눈을 돌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를 고찰해본다.

이 책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단순하게 천문학 정보서가 아닌 한 편의 문학작품이다. 독자의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해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 천문학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자 문장이 쉽게 쓰이기도 했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한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가 지구를 떠난지 46년이 지났다. 이 두 탐사선은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고 이제 태양계 밖을 벗어나 성간우주(인터스텔라)에 진입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이외에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칼 세이건은 금성, 화성의 가혹한 기후 환경을 살피며 핵전쟁, 환경오염으로 인한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등 인류의 지구 파괴적 행동을 경고한다. 먼 미래 인류가 또 다른 발견을 해내기까지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이다.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코스모스》의 또 다른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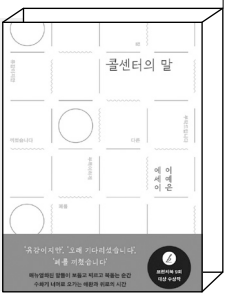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재훈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콜센터의 말

이예은 글 – 민음사, 2022.

추천대상: 모든 연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때
#관계와 소통에 대해 고민할 때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이다. 웬만한 곳에 전화를 걸면 나오는 감정노동근로자에 대한 음성안내와 통화가 녹음될 것임을 고지하는 안내는 이제야 그들에 대한 작은 방안이나마 마련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요즘 현실이 반영된 것만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콜센터의 말》은 낯선 타국에서 520일간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스물세 개의 말로 풀어낸다.

저자 이예은은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취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카마쓰를 만나러 갑니다》(2019), 《일본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2018)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1장 '콜센터 상담원의 말', 2장 '코로나 시대의 말', 3장 '고객의 말', 4장 '콜센터를 넘나드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을 통해 코로나 시대 여행업체 콜센터 직원이 겪는 애환을 읽는 사람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눈앞에 선명하게

전달한다.

스물세 개의 다양한 에피소드 가운데 다음의 장면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재일교포 할아버지와의 상담이 끝나면서 그 할아버지는 저자에게 또 상담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상담원 지명은 안된다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치고이치에 같은 거구먼." *(114)*

이치고이치에, 한자로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이며 풀이하자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을 뜻한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단 한 번뿐인 만남.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며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적이 있느냐는 어느 시의 구절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자. 그것이 내가 존중받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말'은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준다. 말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형성한다. 저자는 다음의 말로 '말'이 가진 의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란 것 아닐까?

이 세상에 누군가를 상처 주려는 말보다 보듬고 북돋아 주려는 말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때로는 회상하는 일조차 버거웠던 기억을 모아 기어코 책 한 권을 완성한 것은, 단지 이 말이 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196)*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 '관계'와 '소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에세이 《매일 갑니다, 편의점》(2018)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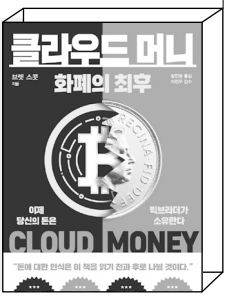
암호화폐와 핀테크의 민낯!

오세원 (화성시 삼괴도서관)

클라우드 머니 : 화폐의 최후

브렛 스콧 글, 장진영 옮김 – 쌤앤파커스, 2022.

추천대상: 일반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암호화폐와 금융시스템에 관심있는 사람



《클라우드 머니》는 영국 최고의 금융 저널리스트. 영국 금융혁신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독일 사회은행 협회의 회원이며 영국 브릭스턴 파운드 지역통화의 자문 그룹, 비트코인캐시 협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브렛 스콧의 저서이다. 저자는 30개국의 250개가 넘는 행사에서 각종 금융계 현안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UNRISD · UNPRI · EU의회 · EU위원회 · IMF 등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설했다. 〈가디언〉 · 〈뉴사이언티스트〉 · 〈허핑턴포스트〉 · 〈와이어드 매거진〉 · 〈CNN.com〉 등에 글을 기고하며 다양한 뉴스채널 · TV 쇼 · 라디오채널 ·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였으며 실리콘밸리의 학제 간 연구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해서 누구도 쉽게 설명해내지 못한 금융산업의 구조를 뿌리부터 파헤치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 참사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또 우리가 화폐에 대해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의도적 왜곡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의도적 왜곡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지,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그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핀테크가 대변하는 '현금 없는 사회'가 시장과 우리 삶 전반에 불러일으킬 변화를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한다.

이 책의 주제는 거대한 세력 간의 합병과 인수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병은 금융권의 거대한 세력인 빅파이낸스와 IT기술 중심의 빅테크 사이의 융합을 의미하며 인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권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런 합병이 마무리되면 빅파이낸스와 빅테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큰 영향력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8-9)*

이 책은 429페이지 분량으로 각 장과 동일한 볼륨을 지닌 서문과 결론을 포함한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인 '거대한 힘의 결합'으로 시작해 '신경계', '뱅크칩 사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을 거쳐 결론인 '현금이 대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은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쾌하게 함의하고 있다. 저자는 각 장의 주제와 소주제들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금융산업의 구조를 파헤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본질과 발전양상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먼저 책의 주제와 목적성이 핀테크를 넘어 '클라우드 머니'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금융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세로 일컬어지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것으로 흥미를 자아낸다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을 하는 저자가 누구보다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 일컬어지고, 또 수많은 긍정적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세계 정상급 디지털금융 전문가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흥미를 이끌어낸다. 또 저자는

최종적으로 디지털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물리적 화폐의 사용을 촉구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흥미롭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산업혁명을 거부하던 '러다이트 운동'의 현대금융버전으로 인식 할 수 있으나, 저자는 이런 우려를 예측하고 본문에 반박논리와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한다.

금융, 단순하게 말해서 '돈'에 관심있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재테크 서적을 깊이 읽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돈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부터 금융의 태동과 현재 금융시스템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역할이 지니는 양면성까지 포함한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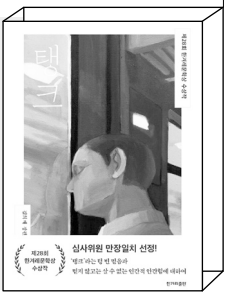
믿는 인간

신유정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탱크

김희재 글 – 한겨레출판, 2023.

추천대상: 일반
#종교와 믿음에 대해 고민해본 이
#영화 같은 소설을 원하는 모든 사람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는 한 프로그램 대담에서 로버트 마렛(Robert Ranulph Marett)의 말을 인용하여 종교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얘기한다.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마렛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종교'이고, 따라서 인간을 호모 릴리지우스(homo religious)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은 굳이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을 잠깐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내일이 있다는 믿음, 내가 존재한다는 믿음, 사회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믿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믿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보이는 세상의 근원에는 믿음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숨 쉬듯 믿고 있는 그 믿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

소설《탱크》는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믿음의 근원지인 '탱크'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탱크'는 어느 조용한

한적한 마을 야산에 놓인 텅 빈 컨테이너다. '믿고 기도하여 결국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온다'는 기적의 체험을 위해 마련된 이 작은 기도실에 탱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온다. 탱크는 교주도 교리도 없이 오직 공간만 존재하는 '예약제 자율적 기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일도, 서로의 믿음을 강요하는 일도 없다. 오로지 자아 성찰과 자기 신념만 있다.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난다. 탱크로 가는 입구 '신성한 구역' 근처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화마에 휩싸인 탱크 안에서 한 남자가 죽는다.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찾아오기를 누구보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던 그 남자는 왜 죽게 된 걸까. 소설은 4부에 걸쳐 각각의 사연으로 탱크에 모인 등장인물과 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죽음 뒤 남겨진 사람들과 새로운 탱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불에 타버린 기존의 탱크 대신 새롭게 등장한 탱크는 '탱크'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탱크》의 저자 김희재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믹싱 엔지니어로 영화와 음반에 소리를 입히는 일을 10여 년간 했다.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해서일까, 탱크와 연관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사연이 하나둘씩 전개될 때마다 이야기는 입체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흡입력이 대단하다. 총 229편의 경쟁작을 뚫고,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한겨레 문학상에 선정된 소설답게 완성도가 있다. 심사를 맡은 김금희 소설가는 "신인 작가의 첫 장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흡인력 있게 진격하는 소설"이라고 격찬했는데 '빠르기'와 '흡인력'에서 만큼은 만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마지막 4장에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마무리된 느낌이라 '믿음'의 실체에 대해 더 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학상 공모 소설이라 분량의 한계가 있었다면 작가의 다음 소설에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바람이다.

종교와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소설《탱크》를 보며 희열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주제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 같은 소설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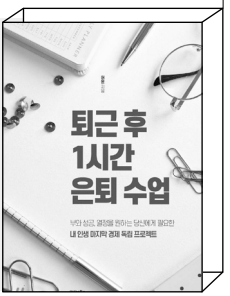
영원하지 않은 월급이 걱정되는 당신에게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퇴근 후 1시간 은퇴 수업

허윤 글 – 미다스북스, 2019.

추천대상: 일반
#늘 돈에 대한 걱정만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저자의 삶의 원동력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저자 허윤은 소위 안정적인 직장인 은행에서 근무하다 교육 관련 사업체를 꾸린 사람이다. 책을 읽어보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그의 삶의 원동력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인 듯하다.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난한 어머니"와 "우아한 어머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며, 두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자 주변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례와 반면교사 삼을 사례를 펼친다. 또한,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행할 행동강령을 적어두어 재테크 서적의 딱딱한 문장에 질려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움직이자

일을 즐기면서 해라, 적은 돈을 사랑해라, 방은 늘 깔끔하게 정리해라, 직업에 귀천을 따지면서 노후에 돈 벌 기회를 날리지 말라 등 이제는 상식이 된 이야기들도 많이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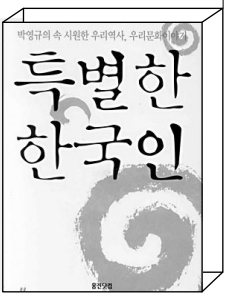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렇게 상식이 되어버린 명제들 속에서 '그래,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나에게 다시 의지를 심어주는 표현들도 있다. 기억나는 재미있는 표현은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는 말이었다. 가끔 13,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내가 70세에도 현재 13,000원 가치의 외식을 이렇게 매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 13,000원 이상의 일당을 벌고 있으니 '이렇게 노력하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만 삼천 원, 이만 원, 이만 오천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을 칠십 대 노인이 된 미래의 내가 그리워하는 모습이 상상이 됐다.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곧 돈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말과 다름없다. 돈이 있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동안 불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이 명제를 잊고 살기에 한 번씩 자신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수익률이 -33%인 주식 사이트를 오랜만에 켜보았다. 4일 전부터 어질러져 있는 방처럼 회생 불가능한 종목들이 쓰레기처럼 주식 잔고에 쌓여있었다. 손절할 종목들을 일부 정리하고 주식 관련 책을 최소 3권은 보자고 메모했다. 한 달간 방치되었던 블로그에 글도 썼다. 늘 해야겠다고 마음먹던 것들을 방 청소하듯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 책의 저자처럼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하면서 자식 키우고 사업 일구고 투자하는 그 치열한 삶을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디고 즐길 자신은 들지 않는다. 다만 책을 읽은 그 한 주만큼은 비슷하게 살아보고 싶었다.

《퇴근 후 1시간 은퇴 수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방법을 쉽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재테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뒀던 습관과 부산물을 치울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이 작은 목표들과 작은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영원하지 않은 월급이 걱정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특별한 한국인?
특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

최병윤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



특별한 한국인

박영규 글 – 웅진지식하우스, 2000.

추천대상: 일반
#한국인의 특별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특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즘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당파싸움이 심해 조선도 당쟁으로 망했다든지,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너무나 심해서 남북통일 못지않게 지역통합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든지 하는 등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비하하고 자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별한 한국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왜곡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반박하며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책은 3부로 나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문화가 보인다.'라면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받아들인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지역감정과 관련해 저자는 "세계를 한번 둘러보라. 지역감정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라고

하면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오히려 지역 특색을 살려 지역 간 무한 경쟁을 유발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것 또한 붕당이 아니라 독재라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2부 '우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심마니, 보부상, 개성부기, 앙부일구, 신명 등이 그것이다. 벤처와 연결된 심마니, 보부상과 개성부기의 활약상을 읽으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자산들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3부 '문화 대국을 꿈꾼다'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자산과 가능성을 살펴보며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00년도에 발행되어 23년의 시간이 지났기에 통계상 수치가 달라진 것도 있고, 책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고창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엿볼 수 있는데, 효 문화의 세계화, 선돌의 관광 자원화, 한글의 세계화 등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저자는 역사 대중화 열풍을 불러일으킨 역사 저술가로 아홉 권의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 등 30여 권이 넘는 역사서를 저술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만의 특별함과 저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라

신선희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글 – 동아시아, 2019.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기후변화와 지구시스템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고 싶을 때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인간에게 알맞은 기후 환경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연의 누적 끝에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적합한 기후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고, 이 영향이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대기과학자로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변화를 굼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책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글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저자는 1장에서 현재 인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2장, 3장, 4장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의 원리와 지구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알려준다. 지구온난화가 호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극한 기상현상을 동시에 일으키는 원리, 북극 해빙이 해양 순환과 지구촌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 지구의 정교한 매커니즘에 대한 경이의 감정과 앞으로의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그 이유는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정의와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의 비용을 미래세대와 가난한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구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류가 참여해 기후 변화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가 총체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자는 기후변화의 지식을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우리는 군주가 잠을 자는 동안에 왕좌를 빼앗은 머슴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생물권은 인류보다 심한 격변을 견뎌왔으며, 멸종 위기에서도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번성했다. 다섯 번의 대멸종조차 새로운 생물권 탄생을 위한 기회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지구 위기와 기후변화 속에서도 생물권은 새로운 판을 벌일 것이다. 지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 자연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한다.(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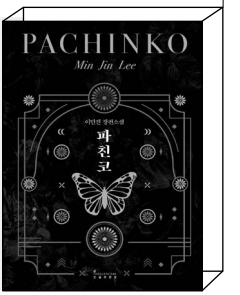
삶의 연대기,
4세대를 이은 그들의 삶

정혜수 (구리시 갈매도서관)

파친코

이민진 글, 신승미 옮김 – 인플루엔셜, 2022.

추천대상: 일반
#삶의 연대기, 세대를 연이은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구한말 민간인의 삶을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교포의 삶을 말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소설《파친코》는 드라마화되어 우리에게 유명해졌다. 1910년부터 1945년, 그리고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루며, 그들의 시간과 세대가 어떻게 삶을 이룩해왔는지를 쓴 책이다. 작가는 무려 삼십 년 동안이나 작품을 꼼꼼히 조사하고 취재해 이 책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작품 내내 현장성과 실제성이 자리잡고 있다. 작가가 그린 훈이가 살아온 인생 내력은 무척이나 현실적이다. 그 시대를 살아온 이야기를, 증조부때부터 시작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작가가 수필로 삼아 실제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파친코는 드라마화되어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상 외국어 TV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본 및 미국 이민사를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 작가는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을 잇는 작가라는 잇는 작가'라는 평을 받을 만큼 시대상을 날카롭게 고찰하고 통찰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2007년에 이민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쓰기도 했으며, 파친코는 또 다시금 이민자의

삶을 표현하고 고찰한 소설이다.

시대를 살아온 삶을 연대기적으로 구상했다는 점은 마치 《토지》를 생각나게 한다. 《토지》 또한 세대를 거듭해 인물들이 살아온 삶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들의 세심한 성격적 면모, 그들이 말하는 기억 속에 새심하게 녹아드는 대사 역시 대하소설 《토지》를 생각게 한다. '선자'역을 연기한 김민하 역시, 선자라는 인물의 행간을 제대로 읽고 판단키 위해서 박경리 문학관을 방문했으며, 《토지》를 수어 번 읽었다고 한다. 《파친코》 역시 인물들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다. 《토지》는 주연 인물이 속내에 품은 비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되지만, 《파친코》는 그 비밀을 해소한 상태에서, 인물이 겪는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토지》와 구별된다. 게다가 작가는 인물들이 겪는 내면심리에 더욱이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가는 그들의 삶이 시작된 고향을 말한다. '고향'은 이름이자 단어이며, 강한 힘을 지닌다. 마법사가 외는 어떤 주문보다도 혹은 영혼이 응하는 어떤 주술보다도 강하다. 작가는 디킨스가 쓴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한다. 《파친코》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산, 영도라는 작은 도시가 이 작품이 자리잡은 배경이 된다. 작가는 담담히 이야기를 전개하나 실상 일어난 일은 적이 슬프다. 작가는 한두 줄로 이 비극을 다루어서, 더욱더 슬픔을 가중하게 한다. 드라마화 되고, 도서관에서 날개 돋힌 듯이 읽히는 책이 었다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읽은 계기이다. 구한말 인물들의 삶, 그들의 삶의 연대기를 읽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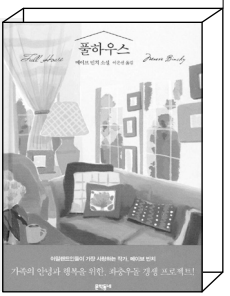
당신은 존중과 배려로 가득 채워진 '진짜' 집에 살고 있나요?

정지은 (시흥시 능곡도서관)

풀하우스

메이브 빈치 글, 이은선 옮김 – 문학동네, 2022.

추천대상: 일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에게
#캥거루족에게



저자 메이브 빈치는 브리티시 로상어워드 평생공로상, 아이리시 펜/A. T. 크로스 상, 밥 휴즈 평생공로상, 아이리시 북 어워드 평생공로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2012년 세상을 떠났지만 40여 개국에서 그녀의 작품이 출간되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후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인 《그 겨울의 일주일》은 출간되어 '아이리시 북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기획된 퀵 리드(Quick Reads) 시리즈 중 한 편에 짧은 분량의 《풀하우스》가 독자에게 소개되었다. 퀵 리드 시리즈는 책 읽기가 낯설고 힘든 사람도 누구나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128쪽 이하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된다.

《풀하우스》는 다섯 가족이 사는 집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현실적이고 재미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청소대행 대표로 청소일을 하는 엄마 디는 퇴근 후 집에 와도 어딘가에 다리를 올려놓고 차를 마실 시간이 없다. 어른이 되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삼 남매와 남편 리엄이 먹을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첫째 로지, 교사로 일하지만 독립할 생각이 없는 둘째 헬렌, 일은 안 하고 집에서 기타나 치는 막내 앤서니. 이들 모두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집에 돈을 주지 않고, 집안일을 돕지도 않으며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다. 디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리엄이 직장에서 해고되자 엄마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철없는 세 남매가 이 집에서 계속 지내려면 생활비를 내야하고 요리, 빨래 등 집안일도 분담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완강한 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결국 차례로 집을 떠나게 된다.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디가 변하게 되면서 이제야 가족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22년 정부 최초의 공식 청년 통계 '청년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57.5%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20-30대가 늘고, 동시에 50대가 되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만의 변화인 줄 알았던 '20-3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미 2012년 전 영국소설에 등장한 걸 보면 이미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보알 수 있고, 그런 만큼 이 책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게 다가온다.

그런데 세 남매의 생각과 태도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설정을 보면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몫에 맡는

생활비를 내며 집안일도 분담하는 등 각자의 의무는 실천해야 한다. 아직 철없는 자식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생각하면 점차 잃게 될 수도 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관계는 꼭 필요하다.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은 함께 나눠가지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족 간 생활 습관에 불만이 있거나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딘이 세 남매에게 했던 변화처럼 나아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작은 변화였고 앞으로 다른 작은 변화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작지만 효과가 있는 변화들이.'

플라멩코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은퇴도전기

김경욱 (구리시 토평도서관)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글 – 다산책방, 2021.

추천대상: 일반

#부모님과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노년이라는 삶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카페에서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할 때

소설가 허태연의《플라멩코 추는 남자》는 제11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이다. 작가의 유년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창작한 소설이지만 이 소설은 마치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작가는 아버지가 느꼈을 고뇌, 외로움, 행복을 간결하고 일상적인 문체로 잔잔하게 담아냈다.

주인공 남훈은 60평생을 일만을 위해 살아온 외골수 굴착기 기사이다. 오랜 세월 끝에 은퇴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기 중고 거래 상대에게 면접 보는 듯이 행동하는 아집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로 인해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마저 단절되고 집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일지'란 자신의 소싯적 일기를 발견하며 열정 가득했던 모습과 몇 가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떠올린다. 흥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번복한다는 자신만만한 선언을 외치며 제2의 인생을 위한 스페인어와 플라멩코에 도전하게 된다. 인고의 노력

끝에 스페인에 직접 가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달리 '청년일지'는 잊어버렸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소중한 딸 선아가 오래도록 자기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면서도, 젊은 시절을 짜릿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길 바라기도 했다. 카를로스는 빠른 손놀림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겨 플라멩코 추는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래, 저거다!'

[중략]

수업이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온 남훈 씨는 곧바로 '청년일지'를 폈다. 그는 '과제3, 외국어 배우고 해외여행 하기'에 세모 표시를 하고 네 번째 과제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과제4. 건강한 체력 기르기'라고 적혀있었다.

'그래, 춤을 배우는 거다! 바로 플라멩코를!' (62)

은퇴 후 삶의 과제로 남훈은 플라멩코라는 돌파구를 찾는다. 6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에 변화란 기쁨일까? 두려움일까? 해당 장면은 외골수로 살아온 '아버지'란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외로운 노년의 아버지가 소년처럼 탄성을 지르며 굳센 얼굴을 하는 모습은 미래와 과거를 엮어 보여줌으로써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소설《플라멩코 추는 남자》는 우리 현실의 한 켠을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 남몰래 보듯 현실감이 넘친다. 코로나 시대가 막 끝난 시기, 우리는 막혔던 소통의 창구가 트임에 따라 잊었던 관계를 떠올리며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소원해진 인간관계,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두려움, 기침 소리마저 조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남훈이라는 노년의 안경을 씌워 '위로와 응원'이라는 길을 찾도록 이끌어준다. 삶에 너무 지쳤거나 예전의 열정적인 모습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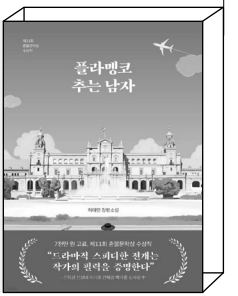
나의 버킷리스트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글 – 다산책방, 2021.

추천대상: 성인
#가독성 좋은 책,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을 읽고 싶을 때



제11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인 허태연의 장편소설《플라멩코 추는 남자》는 작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소설의 주인공 중장비 기사 67세 남훈은 은퇴를 결심한 뒤 잊고 있던 청년일지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첫 번째 이혼 후 혼자 살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뻔했던 남훈은 '청년 일지'를 작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과 그만의 과제에 대해 남겨두었다.

> ***건강이란 육체의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며, 정신의 것도 포함되어야 온전하다. 오늘부터 내 삶의 목표는 늙어서 죽는 것이며, 멋지게 늙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화내기 전에는 결단코 화내지 말자.*** *(27)*

자식같이 아끼던 굴착기를 늙다리 청년에게 판매하면서 화를 내지 않기로 하고, 또 다른 과제인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선택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변변한 양복도 없이

작업복만 입던 남훈은 양장점으로 가 자신을 위한 맞춤 양복도 구매한 뒤 그 양복을 어디에서 입을까 고민하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또한 건강한 신체를 위해 스페인 춤인 플라멩코까지 배우며 자신의 과제를 하나씩 수행해 간다.

우리나라의 여느 부자 관계가 그렇듯 남훈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자기 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자신이 잊고 있었으나 잊을 수 없었던 첫째 딸 보연을 찾아 그녀와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난다.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는 현실적이면서도 소설적인 면을 담고 있다. 전개도 빠르고 문체도 간결하여 쉽게 읽을 수 있다. 초반에 남훈은 소위 '꼰대'처럼 행동하지만,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완수하면서 점차 변화해간다. 요리를 시작해서 손님을 대접해보고 젊은이들의 조언도 들으며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오랜만에 만난 딸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소설 끝에 나오는 보연과의 스페인 여행은 동화 같은 묘사로 다가온다. 가고 싶었던 스페인 광장에서 플라멩코를 추는 남자. 《플라멩코 추는 남자》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는 어떻게 늙고 싶은가 생각할 기회를 주는 작품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독자가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각자의 노년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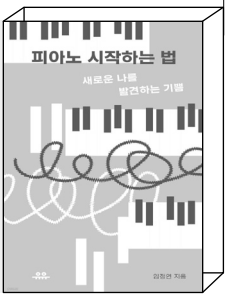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피아노

랑윤지 (파주시 술이홀도서관)

피아노 시작하는 법

임정연 글 – 유유, 2023.

추천대상: 일반
#피아노가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취미 악기를 배워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릴 적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이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학원에 등록하면 곡을 연습할 때마다 횟수를 색칠하는 진도 카드가 있는데, 치기 싫은 곡을 1번만 치고 5번 다 쳤다고 거짓말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네가 이걸 이렇게 빨리 다 했을 리가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속아주셨다. 바이엘, 체르니를 거쳐 체르니 30정도 치고, 콩쿠르에 몇 번 나가고 나면 이제는 갈림길에 서는 듯하다. 피아노를 계속 곁에 두는 자와 그쯤 그만두는 자. 나 역시 예술중고등학교 진학,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시절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지속이 되진 않았다. 그 이후 수년이 지나서 어른이 된 이들은 어릴 적 품었던 피아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피아노 시작하는 법》의 저자 임정연 피아니스트는 5살부터 피아노를 쳤고 왕성한 연주회 활동을 하면서 전공생과 취미생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연피아노' 채널을 운영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피아노를 치도록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어릴 적 배웠던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하는 일은 옛날에 배웠던 피아노 책을 펼쳐보는 것이다. 빛바랜 책을 펼치면 어렴풋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지만 정작 자신이 그 곡들을 연주했던 기억은 나질 않는다. '좀 더 이어서 열심히 할 걸'이라고 후회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피아노를 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한다. 피아노를 배우기에 늦은 나이란 없으며, 피아노를 꼭 배웠으면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취미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의 기준, 독학으로 공부해도 괜찮은지, 기본기 교재인 바이엘과 체르니를 쳐야 하는지,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해도 괜찮은지와 같은 궁금증부터 손이 작은 사람, 악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페달 사용법이 어려운 사람 등 단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어떤 악기든 배우기 시작하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음악을 감상하는 일과 직접 온몸으로 참여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연주에는 노랫말이 없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친한 이들에게도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운 나에게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일기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는다. - 들어가는 말

또한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5분 워밍업, 15분 본연습, 5분 완주연주, 5분 초견 등으로 세부적으로 소개하며, 어떤 곡을 쳐야 하는지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수준별 추천곡 리스트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려는 성인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한 성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따뜻하고 알찬 조언이 가득한 책을 통해 피아노를 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던 질문에 대한 거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먼지가 쌓인 피아노의 뚜껑을 열게 될 듯하다. 위로가 되고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 피아노를 마음속에 간직한 이들이라면 한 번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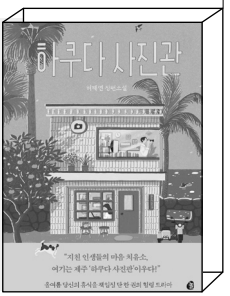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사진관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하쿠다 사진관

허태연 글 – 놀, 2022.

추천대상: 성인
#책으로 힐링받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하쿠다 사진관》과 같은 플롯을 좋아한다.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하쿠다 사진관이라는 배경에 주인공인 제비가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구성. 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특별하게 와 닿는다. 전작《플라멩코 추는 남자》로 제11회 혼불 문학상을 받은 허태연 작가는 유년 시절 살았던 제주의 여름을 회상하며《하쿠다 사진관》을 집필했다고 한다. 유년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담아서일까,《하쿠다 사진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인간적이며 따스하다.

강압적인 사진관에서 일하며 서울살이에 지친 제비는 제주로 여행을 떠난다. 낯선 인물과 부딪히고 핸드폰도 고장이 나 찾은 곳은 '하쿠다 사진관'. 제비는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아기와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석영을 도우며 하쿠다 사진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다. 상을 받을 만큼 사진을 잘 찍는 전문 사진가지만 홍보에는 영 솜씨가 없는 석영을 대신해 SNS로 하쿠다 사진관을 홍보하며 손님들을 만난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 1년에 한 번씩 만나 라이딩을 하는 여고 동창생들. 파혼을 고민하며 웨딩 사진을 찍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 시험과 취업 준비에 지쳐 쉬러 온 20대 남녀들. 그리고 우연히 '하쿠다 사진관'까지 오게 된 인생 마지막 여행을 떠나온 70대 노 형사. 무안구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으나 더없이 행복한 가족인 혜용의 가족사진까지. 제비는 손님들을 만나고 사진관을 도우며 성장하고, 하쿠다 사진관이 있는 대왕물꾸럭마을에서 해녀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제주의 삶에 익숙해진다.

주차된 SUV에 오르며 석영과 제비는 행복했다.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세상 사람 모두가 불행한 줄로 알았다.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하쿠다 사진관에서 일하며 그들은 깨달았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조금쯤 행복할 때가 있다. 슬픔도 원망도 그럴 땐 잊어버린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랑할수록 사랑스럽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면 더욱더 소중해진다. *(356)"*

《하쿠다 사진관》은 한 편의 동화 같은 장편 소설이다. 한 번 책장을 펼치면 쉬지 않고 읽을 수 있다. 현실에 지친 직장인들, 학생들이 한 번쯤 이 책을 읽으며 제주와 그 속의 인물들과 마주하길 바란다.

‘조금은 특별한 7살 아이’와 ‘괴짜 할머니’, ‘완벽주의 엄마’ 여성 삼대의 감동적 화해기

이병희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프레드릭 베크만 글, 이은선 옮김 – 다산책방, 2016.

추천대상: 청소년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와 감정적 교류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동서고금의 불변의 진리에 대하여

《오베라는 남자》(2012)로 전세계의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또 다른 명작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가 읽어도 좋을 만한 소설이다. 여러 연령대의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얽어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손녀 ‘엘사’까지 여성 삼대가 그려내는 따뜻한 화해기가 순수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 ***세상의 모든 일곱 살짜리에겐 슈퍼 히어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11)*

소설은 다짜고짜 이런 말로 시작한다. 이 말은 주인공 엘사의 할머니가 엘사에게 들려준 말이다. 엘사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다. 7살(엘사는 항상 조금 있으면 여덟 살이 되는 나이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로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아니다 싶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고집 등 평범한 주변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곳저곳에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엘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아이들부터, 항상 엘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들.

심지어는 엄마마저도 엘사에게 좀 평범하게 굴 수 없겠느냐는 말을 할 정도다. 이런 엘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다. 엘사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교장 나부랭이에게 지구본을 던질 수도 있고, 문 닫은 동물원을 담을 무단으로 넘고 들어갈 수도 있다. 할머니는 엘사에게 존재 자체로 슈퍼 히어로인 것이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어버린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며 의문의 편지들을 남겨둔 채. 할머니는 부탁했다. 편지를 전해주며 꼭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길. 할머니의 죽음으로 완전한 외톨이가 된 엘사는, 할머니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비로소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셋은 케케묵은 원망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된다.

프레드릭 베크만은 평범한 블로거였다가, 앞서 말한 《오베라는 남자》(2012)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작가다. '이 시대의 디킨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베크만은 《베어 타운》, 《불안한 사람들》, 《브릿마리 여기 있다》 등 총 8편의 장편을 발표했는데, 특유의 감성과 유머로 일관되게 '사랑'과 '약한 자들의 연대'를 노래하고 있다. 그의 조금은 이상하지만, 따뜻한 유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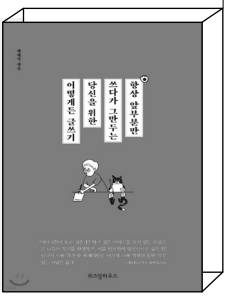
‘글쓰기를 완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

오치호 (시흥시 월곶도서관)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곽재식 글 – 위즈덤하우스, 2018.

추천대상: 일반
#신춘문예 등 글쓰기 응모에 제출하고 싶은 사람
#시간 내에 글쓰기를 완성해서 제출물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글쓰기를 꿈꾼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한때 글쓰기를 꿈꾸었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개인 SNS에 영화, 독서 감상평을 적곤 한다. 이 책도 글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선정해서 읽었고 긴 글을 쓰기를 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곽재식 작가는 카이스트에서 한 학기에 평균 26학점을 수강하여 카이스트를 5학기 만에 졸업한 한국의 헤르미온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간 관리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출간 예정인 작품을 포함하면 4권의 책을 썼고,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곽재식 작가가 쓴 책은 읽는 속도보다 출간 속도가 더 빠르며, 책이 출간되는 속도보다 책을 집필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책들은 독자들 사이에서 높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글쓰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을 설명한다. 책은 좋은 글감을 찾는 방법,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방법, 꾸준한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작가는 충분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주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책의 내용 중 '일단 쓰고 보기 vs 찬찬히 짜놓고 쓰기'에 대해 다룬 부분은 특히 인상깊다.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일단 쓰고 보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수습이 잘 안 되는, 용두사미라고 느껴지는 책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량을 채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가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글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작가는 자신이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 한 문장을 완성하면 바로 옆에 있는 펜으로 선을 긋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는 것이 글쓰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효과적인 점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면서,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글쓰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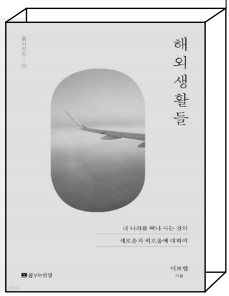
해외생활...해외여행 아님!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해외생활들:
내 나라를 떠나 사는 것의 새로움과 외로움에 대하여

이보현 글 – 꿈꾸는인생, 2022.

추천대상: 일반
#해외생활을 계획하거나 시작한 이들에게



《해외생활들》은 제목 그대로 저자가 십여 년을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겪은 해외 생활들에 대한 단상이다. 해외 생활에 대한 팁이나 실용적인 매뉴얼 같은 글은 아니며, 그렇다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고생을 극복한 슬기로운 해외 생활 경험담도 아니다. 해외 생활 중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그때 느꼈던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단언하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독자들의 마음에 은근히 스며들게 한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결국 저자가 해외 생활을 하며 힘들고 고생스러워했던 일들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해외'라고 하면 물 건너 이국땅을 여행하며 즐기는 관광과 휴양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런 단기간의 여행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시간이다. 하긴 누가 여행 중에 현지 생활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알고 싶겠는가? 그럴 시간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할 따름이다. 반면에 해외

여행이 해외 생활로 바뀌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음식, 언어, 생활양식, 문화의 차이는 단기 여행 시에는 새롭고 쿨하게 느껴지지만 정착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장애로 느껴질 것이다. 외국에서 10일 정도만 나가 있어도 한국의 김치와 고추장이 그리운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언어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단어의 뉘앙스와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정서와 감정들은 소통할 수 없다.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 지리적, 기후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양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것들은 교과서나 책에서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고선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을 단기 여행해 본 독자들이 그 나라 내면의 모습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 나라들의 역사 문화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이방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직접 부딪치며 느낀 부분들을 담담하게 묘사한 책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나라에서 수십 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아예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인의 관점으로 비교하거나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여행에서 보는 그 나라 사람들의 겉모습 너머에 그들만의 가치관이나 사회 문화양식들을 좀 더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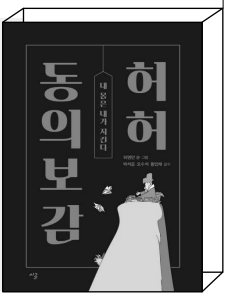
허영만 선생님이 그린 동의보감으로 모두의 건강주권 회복을 기원합니다

김효숙 (성남시 중원도서관)

허허 동의보감 1-2

허영만 글 - 시루, 2013.

추천대상: 일반
#동양의학의 기초를 어렵지 않게 단시간 읽어내고 싶은 이들에게
#선조들의 지혜를 통하여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입원 예정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을 때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하의 보물 허준의 《동의보감》은 허준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만화가 허영만에 의해 2권의 만화책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세상과 조우하였다. 개인적으로 동양의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비슷한 모양의 어려운 약초 이름들과 한문 구성이 사실상 벽이 되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자 많이 낡은 감이 있지만 이 책을 서가에서 골랐다. 이것은 가족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이 개인적으로는 중년을 맞으며 새로운 미션이 된 영향이 컸다. 1권 뒤쪽의 취재일지를 통하여 저자가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리기 위하여 참고한 최철한 원장(본초학 전공)의 강의 가운데 감탄한 부분이 나에게도 강렬하게 다가와 소개한다.

"식물은 잎 하나, 가지 하나까지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식물이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잎이나 가지를 가졌다가는 곧바로 죽는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식물만 그렇겠는가?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더라도 전력을 기울인다고 하지 않던가? 약성은 자연 앞에 사치를 부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생겨난다고 한다.

설악산 대청봉 1,600m 산등성이에는 눈잣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잣나무가 산다.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곧게 자라는 대신 누워서 자라 눈잣나무가 된 것이다. 천 리를 기어간다고 해서 천리송이라고도 부른다. 눈잣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택한 생존전략은 눕기다. 그 전략이 그대로 약성이 되어 눈잣나무의 잎과 가지는 바람에 의해 생기는 기침, 천식에 효과가 좋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잣나무를 캐서 바람이 없는 저지대에 심어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있던 나무가 똑바로 서버린다. 곧추선 잣나무에서는 기침, 천식에 효과를 나타냈던 약성도 함께 사라져버린다. 같은 종의 약재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가 달라진다니 신기하다.

책은 《허허 동의보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허허'의 3가지 의미를 허영만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양천 허씨 20대손 허준과 31대손 허영만 두 작가의 작품임을 표하고 호방하게 웃는 의성어로 긍정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허허러움은 도가에서 신선의 경지에 이른 것을 뜻한다고.

또 서문에서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강을 지키는 지혜서이자 안 아프고 오래 사는 비결'을 서술한 실용적인 책이라고 평한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내려놓더라도 건강에 욕심을 부리라고 충고한다. 과거 《식객》을 그리며 만난 한의사가 '섭생이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하여 저자는 《동의보감》을 품고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벗이 '양천 허씨인 허준 선생님의 작품을 양천 허씨인 허영만 선생님께서 그려주시면 안성맞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 2년여 걸쳐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1권 《죽을래 살래》는 1화 '같은 병이라도 처방은 가지가지'를 시작으로 67화 '

오래 살게 하는 단방'으로 마치고 있다. 이어 2권《기통차게 살자》는 '기, 너는 누구냐'를 시작으로 86화 '죽력은 가정 상비약'까지 있는데 모두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책상 앞에 두고 조금씩 짬을 내어 읽어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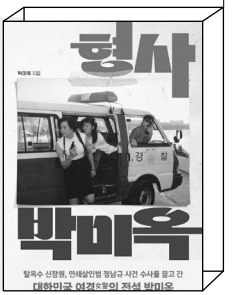
형사 ; 사람이 하는 일, 사랑으로 하는 일

김은아 (안양시 박달도서관)

형사 박미옥

박미옥 글 – 이야기장수, 2023.

추천대상: 청소년, 일반
#매너리즘에 빠진 성인에게
#미래의 방향을 찾고 싶은 청소년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형사를 만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평소에 주로 접하는 형사는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사건이거나 영화, 드라마로 각색된 흥미진진한 이야기 정도이지 않을까. 반면 이 책의 제목이자 저자인 형사 박미옥은 23세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되어 무려 30여 년을 형사로 일했다. 그간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건만 추려도 숭례문 방화사건, 탈옥수 신창원 검거 등을 들 수 있고, 드라마 〈시그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괴물〉 등 수많은 작품에서 극의 모티브가 되거나, 현장과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이 책은 무려 '여경의 전설'이라고 불리던 저자가 형사생활을 마무리 지으며 출간했다.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걸고서.

그렇다고 영화같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고 책을 읽으면 곤란하다. 화려한 업적과는 달리 써내려간 글은 담백하기 그지없다. 〈탈주범은 알았고 우리는 몰랐다〉라는 챕터는 그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을 검거하는 이야기지만 저자는 그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주범이라고 표현할 뿐이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을 맡아서 해결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다. 저자의 이런 글쓰기 방식은 사건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분명히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함으로써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지켰을 것이다. 반면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떤 형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생각으로 사건에 임해야할지 마음을 다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인다. "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한다. 사람들의 욕망과 슬픔이 버글거렸던, 사람의 이야기이자 철학, 거대한 인류학이자 인문학의 산실이었던 현장 속에서 결코 이기적일 수 없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타고난 형사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처음부터 형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착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인 경찰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교통사고'처럼 형사가 되었다고. 사고처럼 시작했을지언정 '여경의 전설'로 마무리 지은 것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저자의 부단한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때론 어렵다. 이익에서 물러나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강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마음은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형사 박미옥의 강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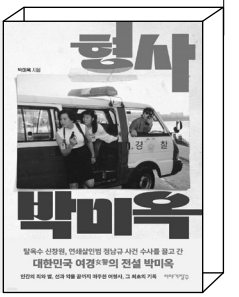
진정한 의미의 회고록

조윤주 (안양시 석수도서관)

형사 박미옥

박미옥 글 – 이야기장수, 2023.

추천대상: 일반
#직업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이들에게
#멋있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 판단의 순간 자신감을 잃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형사 박미옥》은 경찰이 된 저자가 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퇴직 후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1991년 여자형사기동대를 창설할 때 얼떨결에 선발되어 강력계 여형사가 되었는데, 출중한 검거 실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다. 탈옥수 신창원을 잡는 것부터 숭례문 방화사건 현장의 화재감식 총괄 지휘,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등의 대중들이 알만한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공을 세웠고, 수많은 사건을 거치고 2021년에 퇴직했다.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냥 '이 사건이 이 사건이겠구나.' 정도의 짐작과 저자 소개로만 가늠이 가능할 뿐, 사건이 가져다주는 자극적인 묘사는 없다. 이 책은 추리소설 같은 극적인 전개를 가진 책이 아닌, 무수한 사건 속에서 저자가 마주한 결단의 순간들을 담백하게 써 내려간 책이다. 소란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형사의 고민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차분히

알려준다. 성폭행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가 했던 힘겨운 노력을 듣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의 다짐이라든지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받았던 주변의 시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등, 대중들은 알 수 없는 사건 관련자들을 대하는 저자의 끊임없는 고민은 사건을 더 현명한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다.

저자가 끊임없이 고민한 이유는 결국 경찰은 사람을 위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 대한 편견을 지워가며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생각의 틀을 제거하여 진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것이 비단 경찰만의 고민일까? 모든 직업은 결국 '사람을 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닐까? 순간의 가벼운 가치 판단으로 다른 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치열한 고민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혜안이 있다는 것을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책 한 권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다들 자기 생의 찬란한 순간을 적기에 바쁠 것이다. 힘든 순간은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듬어주듯 글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회고록은 달랐다. 자신의 책에 모든 판단에 대한 다행과 후회를 기억하고, 이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담았다.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가감 없는 서술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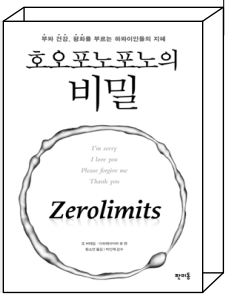
이슬방울 톡! 톡! 톡!

양승연 (시흥시 군자도서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이하레아카라 휴렌, 조 비테일 글, 황소연 옮김 - 판미동, 2011.

추천대상: 반복되는 인간관계와 재정문제에 봉착한 분들에게
#정체된 인생의 변화를 꾀하고 싶을 때



한때 노숙자이기도 했고 '영혼 마케팅'의 창시자로 불리는 조 비테일이 정신질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도 하와이 고유의 독특한 치료법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원 전체를 따뜻한 분위기로 탈바꿈시킨 심리치료사 이하레아카라 휴렌 박사에 대한 소문을 쫓아가는 이야기로 이 책은 시작한다. 제목의 '호오포노포노'란 하와이에서 대대로 전해 온 고대의 정화 방식이다.

조 비테일이 쫓던 그 심리치료사는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적 고도 의료(정화) 전문가이자 호오포노포노의 전통을 발전시킨 트레이닝법을 고안해 낸 고 모르나 날라마쿠 시메오나 여사의 제자이자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였다. 이 현대의 권위자 이하레아카라 휴렌 박사 또한, 2022년 초에 타계하였지만 오늘날에도 그 뜻을 잇는 정화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의 푸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나는 누구인가'와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정화 프로세서'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몸이나 세상이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의 관점이라면,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당사자의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나 영향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 아닌 그 무의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나', '본인', '당신'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점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진실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 이 책을 쭉 읽게 만든다.

또한, 그 문제를 일으킨 '나', '본인', '당신'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로 내면에 고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로, 내가 없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내가 인지함으로써 발생했으니, 책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된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며 내가 치유의 근본인 셈이다.

이 책에서는 최근에 심리 치료의 이슈가 되었던 '내면 아이'의 원조격이랄 수 있는 '우니히피리' 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계도서 '우니히피리 실천법'에서 언급하는 동일한 호오포노포노의 치유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 같으나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내면까지도 보듬어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고대 하와이언식의 치유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화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시크릿'은 유사한 생각과 감정, 느낌들이 끌려오는데 부와 명성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끌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절대 모두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결과를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에 허점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자신의 반복된 무의식의 정체된 에너지를 정화하여 제로 상태로 만들었을 때, 신성의 풍요로운 '시크릿'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크릿'의 어드밴스 격인 듯 싶기도 하다. 그냥 '시크릿'에 실망했다면, 다시 한번 이 고대의 하와이언 정화 방식을 접목해서 '시크릿'에 도전하여 부와 명성을 얻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게도 한다.

이 책을 읽고 변화된 독자들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예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령,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다가오면 "○○번 버스야 날 태워주러 왔구나, 고마워." 하면서 버스에 오를 수 있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문을 들어서면서 "안녕!, 내가 네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네 이름은 뭐니?"하면서 열리는 자동문 앞에서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을 것이다.

또,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앞에서 중얼중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라고 읊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대고 '이슬방울 톡! 톡! 톡하고 두드리며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 모든 것들이 글 속의 매력적인 주인공 이하레아카레 휴렌 박사가 정화하는 모습이니까 말이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나면 분명 지루했던 일상과 장소들이 생동감 있고 살아 숨 쉬는 시공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화의 유머와 기적을 만나게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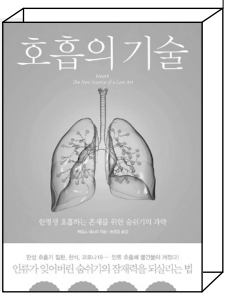
다시는 '숨쉬기 운동'을 무시하지 마라

박치영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호흡의 기술

제임스 네스터 글, 승영조 옮김 – 북 트리거, 2021.

추천대상: 일반
#폐, 코와 관련된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다면



평균적으로 인간은 평생 6억 7,000만 번의 호흡을 한다고 한다. 인간은 탄생 이래 수백만 년 동안 호흡을 해왔지만, 산업화 이후 인간은 역사상 최악의 호흡을 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자가면역질환, 천식, 폐기종, 폐암, 공황, 불안장애 등 호흡으로부터 파생된 각종 질환은 꾸준히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다. 오래전 조상들은 현재의 우리와 호흡법이 어떻게 달랐을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호흡법이 있을까? 우리는 호흡법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 호흡과 관련하여 수천 년에 걸친 연구자료와 올바른 호흡을 찾기 위한 수많은 실험이 망라된 책이 있다.

《호흡의 기술》의 저자 제임스 네스터는 꼬박 10년에 걸쳐 이 책을 썼다. 그 역시 호흡에 관해 연구하기 전 천식, 알레르기 등 만성질환을 앓던 전형적인 현대인이었다. 질환이 심해지던 여느 날을 보내고 있던 그는 의사의 권유로 명상 호흡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30여 분간의 "느린 호흡"의 반복으로 탈진 상태에 다다른 그는 그 어떤 날 보다 평화로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마침내 숨쉬기란 저절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문을 익히듯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하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Part1 '실험'에서는 작가가 스탠퍼드 대학의 이비인후과 의사의 직접 참여한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작가는 일정기간 동안 입으로만 숨을 쉬며 생활하고 다음 일정 기간에는 코로만 숨을 쉬면서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이 실험을 통해 입 호흡이 고혈압, 코골이, 수면무호흡, 불면증 등의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코호흡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Part 2 '잃어버린 호흡의 기술과 과학'에서는 작가가 현대 인간의 호흡이 왜 비효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가를 연구하기 위해 고대인의 머리뼈와 입안 구조를 알아본다. 불의 발견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식습관이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 행위로 바뀌면서 얼굴이 좁아지고 턱이 작아져 코호흡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인간은 의식적으로 다시 코호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가는 이와 더불어 호흡의 속도와 깊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분당 5~6회 정도의 느리고 깊은 호흡이 우리의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내고 반대로 분당 20회 정도의 빠르고 얕은 호흡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염증, 감염 등 건강 문제를 초래함을 알게 된다. 마지막 Part 3 '숨쉬기 플러스'에서는 한쪽 코로만 숨쉬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비율 바꾸기, 의도적으로 격한 호흡 행위를 통해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음식의 가짓수만큼이나 많은 호흡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16)*

여기 책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호흡법 중 하나를 소개한다.

1. 곧바르게 앉아 어깨와 배를 이완시키고 숨을 내쉰다.

2. 5.5초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공기를 폐 밑바닥까지 가득 채우면서 배를 부풀린다.

3. 멈춤 없이 5.5초간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폐를 비우면서 배를 홀쭉하게 한다.

4. 가능하면 10회 이상 반복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잊어버린 숨쉬기의 기술을 되살리고자 했다. 호흡에 대해 새삼 새롭게 배울 기회가 될 것이다. 호흡.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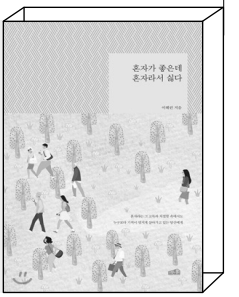
혼자

김누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서 싫다

이혜린 글 – 프레너미, 2017.

추천대상: 성인
#솔직한 에세이를 읽고 싶을 때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서 싫다》의 저자는 누구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혼자의 순간을 초라하지 않게 보낼 수 있게 응원을 던진다. 혼자의 시간이 불안하지 않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를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의 외로웠던 경험과 생각을 보여준다.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저자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완벽한 혼자가 되는 법이 아닌 혼자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한 문체로 풀어낸다.

> ***네게는 그들이 제일 소중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보다 더 소중한 이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맘이 편하다. 내가 베푼 건 최대한 빨리 잊는 거다. 나는 열 일 제치고 그들을 만나러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 *(119)*

> ***뭐든지 적정선을 지킬 것. 다른 사람의 사정도 살필 수 있을 것. 오랫동안 외롭다 보면 의외로 지키기 힘든 덕목들이다.*** *(122)*

그 어떤 길을 택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도모하는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인 게 결혼이라면 굳이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불안을 잘 다스리는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그게 정답 아니겠나. (94)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한다. 가장 효율적인 노후 대책은, '난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난 평생 젊을 거라는 착각이다. 그래서 미리 불안해하지 않고, 쓸데없이 걱정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보면 또 나름의 노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즐겁게 사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성공의 기회도 분명 있다. 당장 라스베이거스로 달려가서 재산을 탕진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후 걱정만 하면서 당장의 젊음을 내다버리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171)

이 책 속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외로움을 내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한다. 저자의 솔직한 생각들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살 수도, 또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상황들을 들려주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그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혼자에 익숙하지 않고 외로움을 다스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혼자의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켜 주는지, 또 아이러니하지만 혼자가 아닐 때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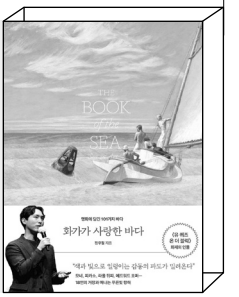
화가의 감성으로 풀어낸 바다

남현정 (성남시 중앙도서관)

화가가 사랑한 바다

정우철 글 – 오후의서재, 2023.

추천대상: 청소년~일반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우리는 일상의 괴로움과 때를 씻어내고 싶을 때 멋진 풍경을 찾으러 떠난다. 그곳이 바다라면 일탈(?)을 위한 장소로 좀 더 효과적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세파에 시달렸을 때 바다는 우리에게 산이나 나무만큼, 아니 그 이상의 위로를 준다.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바다 끝에 보이는 수평선은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있으면서 지구의 끝을 궁금하게 하고, 파도는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인생은 항상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것 같다. “신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잊게 될 때, 나는 바다를 본다.”라고 우피 골드버그는 말했다. 운 좋게 노을이 질 때나 해가 뜰 무렵에 바다를 본다면 다들 그 멋진 색감과 무늬의 아른거림에 감탄을 하게 된다. 어떤 예술작품이 이보다 아름답고 황홀할까? 시시각각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의 색깔들은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일반인들도 그러한대 예술적인 감각이 대단한 화가들은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창조적인 감각이 번뜩이겠는가?

에드워드 호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의 소외나 고독을 주로 그리는 화가인줄 알았다. 이 책에 나오는 '바다 옆의 방'이라는 그림을 보면 화가가 누구인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어쩌면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인간의 고독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라울 뒤피의 바다는 리듬과 행복이 충만한 바다이다. 색상도 다채롭고 그림에 나오는 소품들도 아기자기하다. 고독과 절망의 화가 뭉크의 바다는 바다도 그러한 화풍이다. 에드워드 호퍼의 고독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에드워드 호퍼가 절제된 고독이라면 뭉크는 고독과 외로움의 감정을 응축하여 풀어낸 바다이다.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그림들도 추천하고 싶다. 어린 시절 말이 물건을 배달하던 모습을 자주 보던 화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말을 그렸다. 그는 지금도 하얀 캠퍼스에 파란물감을 얹을 때가 삶의 기쁨이라고 한다.

《화가가 사랑한 바다》는 캔버스에 담은 바다 101가지의 그림들을 모은 책이다. 누구나 바다를 보면서 시름을 잊거나 무아지경에 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이 책에서도 할 수 있다. 실물의 바다를 봤을 때만큼의 감동과 그 이상의 것이 느껴진다. 에드워드 호퍼, 몬드리안, 고흐와 같이 흔히 알려져 있는 화가들뿐만 아니라 라울 뒤피, 브라질리에, 장 피에르 카시뇰과 같이 (필자의 기준에서) 잘 모르는 화가이지만 그림을 보면 반할 만한 화가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 아마 그림을 보면 '아아~ 어디서 본 그림이다.' 싶은 것들도 꽤 될 것이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화가마다 다른 감성으로 풀어낸 그림들을 비교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바다와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기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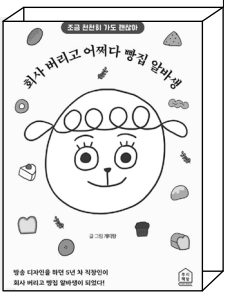
회사 나간다고 꼭 추운 것은 아니지만 덥지도 않다

류정옥 (성남시 위례도서관)

회사 버리고 어쩌다 빵집 알바생

개띠랑 글·그림 – 루리책방, 2021.

추천대상: 직장인
#프로 이직러 또는 프로 면직러
#백수를 꿈꾸는 이



《회사 버리고 어쩌다 빵집 알바생》을 요약하자면 '지금 나를 구속하는 직장이라는 곳을 탈출하고 싶은 만인의 꿈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은 많지만 특별히 이 책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작가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 본인의 인스타 웹툰과 글을 함께 실어서 독자가 책을 읽어가는 데 지루하지 않는다. 둘째로, 이 책은 실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인 '알바'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일을 아주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한마디로 '퇴사 뒤의 일상이라 읽어봤더니 완전 능력자네? 나랑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었어!' 하면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는 싶은데 막상 뭘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는 막막하고 참담한 당신이 간접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작가 개띠랑이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빵집이다. 책을 다 읽어보면 이 빵집의 사장은 아주 못되지도 아주 착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작가가 아르바이트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빵집 사장님 역시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직장의 팀장 또는 동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부정하고 싶은 그런 진실이다. 물론 알바를 하면 직장에서 오는 '눈칫밥'이라는 것이 좀 약할 수는 있다. '스트레스의 총 양'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지금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의 크기는? 그래서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늘 사직서를 가슴 한켠에 품게되는 것일까?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과 278페이지를 읽는 것은 다르다. 책을 읽은 뒤 회사를 그만둔 나의 미래가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기에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한다.

매달 받는 돈,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 그래도 다닐만한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 소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들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장점으로 존재한다. 기왕이면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으며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정규직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알바든 직장이든 그만두고 싶다면, 정규직이 더 낫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작가 개띠랑 역시 마음이 조금 더 편한 쪽인 '알바'를 하지만 순간 순간 불안정적인 자신의 미래에 불안해진다. 내 인생은 이대로 알바생으로 끝나는 것일까? 라는 두려움도 책에도 담겨져 있다. 정규직으로서 다니는 직장의 장점은 그것을 잃었을 때 더욱 명확하다. 이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답답함이라면 우리는 이대로 정년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걸까.

그러나 이 책에서는 퇴사해보니 바깥도 똑같더라, 하는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5년여의 직장생활과 또 장기 아르바이트로 자신이 무얼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든간에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변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퇴사'는 옳은 결정이 아닐까? 퇴사라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동적 변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침내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는 '직장을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단순하고 결과론적 문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겨준 책이었다.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프로 이직러이자 프로 면직러였던 나는 조만간 이에 답해줄 다른 책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위해 서평도 꼭 쓸 생각이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혹은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책을 계속해서 발견하여 소개하는 것이 사서로서의 직업적 소명 중 하나로 굳어지는 것 같다. 그 소명을 생각하며, 나 역시 저자 개띠랑처럼 퇴사를 하루 하루 늦춘다.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사서들의 책 이야기 색인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2023**

※ 서평 전체가 수록된 확장판으로(357편 수록), 전체 서평과 추천도서 목록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북매직 누리집 (www.bookmagic.kr) '사서, 책을 말하다'를 통해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14마리의 이사하기	이와무라 카즈오	이와무라 카즈오	박지석	진선아이	2022	9791190779562
2	9킬로미터	클라우디오 아길레라	가브리엘라 리온	김정하	뜨인돌어린이	2022	9788958079040
3	건전지 엄마	강인숙, 전승배	강인숙, 전승배		창비	2023	9788936429010
4	겨울이불	안녕달	안녕달		창비	2023	9788936455965
5	구름이	딜런 글린	딜런 글린	김세실	나무말미	2022	9791191827095
6	깜장이	다나카 기요	다나카 기요	김숙	북뱅크	2022	9788966351510
7	꿈같은 하늘 아래에	에런 베커	에런 베커	루시드 폴	웅진주니어	2023	9788901269108
8	나만 없어 토끼!	토베 피에루	마리카 마이럄라	기영인	블루밍제이	2023	9791197525353
9	내가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히도 반 헤네흐텐	히도 반 헤네흐텐	김여진	미운오리새끼	2023	9791165182380
10	내가 예쁘다고?	황인찬	이명애		봄볕	2022	9791190704564
11	네가 사라진 날	산드라 디크만	산드라 디크만	김명철	요요	2023	9791130696591
12	노는게 좋은	전정숙	김지영		올리	2022	9791165344498
13	다이빙	호아킨 캄프	호아킨 캄프	김여진	노는 날	2023	9791198000088
14	달그락 탕	이영림	이영림		웅진주니어	2023	9788901269221
15	마음버스	김유	소복이		천개의 바람	2022	9791165732257
16	반짝이는 섬	장준영	장준영		계수나무	2022	9791192056524
17	별국	공광규	연수		바우솔	2023	9788983891150
18	붉은 신	오승민	오승민		만만한 책방	2022	9791189499488
19	붉은 신	오승민	오승민		만만한 책방	2022	9791189499488
20	비법: 하늘을 나는 법	전민걸	전민걸		한림출판사	2023	9791192697048
21	빌려준다고 했는데	가사이 마리	기타무라 유카	김소연	책읽는곰	2023	9791158363970
22	빗방울 이야기	입 스팡 올센	입 스팡 올센	황덕령	진선아이	2022	9791190779685
23	사라지는 것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김윤진	비룡소	2021	9788949119106
24	사라진 저녁	권정민	권정민		창비	2022	9788936455941
25	사랑은 달아	박세연	박세연		난다	2023	9791191859430
26	사자마트	김유	소복이		천개의바람	2023	9791165734091
27	색색의 꿈을 꾸고 싶다면	미셸 피크말	에릭 바튀	이세진	웅진주니어	2022	9788901263755
28	선을 넘지마!	피야 린덴바움	피야 린덴바움	김상미	베틀북	2022	9788984889989
29	시작의 이름	셸리 무어 토머스	멜리사 카스트리욘	이상희	소원나무	2023	979117044153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30	아빠와 차곡차곡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	이현아	책연어린이	2022	9791197609848
31	에이해브와 흰고래	마누엘 마르솔	마누엘 마르솔	김정하	밝은 미래	2022	9788965465430
32	여름의 루돌프	김성라	김성라		사계절	2023	9791169811477
33	왜요?	린제이 캠프	토니 로스	창작집단 바리	배틀북	2002	9788984881846
34	이 집은 나를 위한 집	마리 앤 호버맨	베티 프레이저	엄혜숙	우리학교	2022	9791167550453
35	자란다	심예진	심예진		노란상상	2022	9791191667523
36	작은 조각 페체티노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이상희	보림	2023	9788943315580
37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	의자	의자		한솔수북	2022	9791170289456
38	태양왕수바	이지은	이지은		웅진주니어	2023	9788901271323
39	하루거리	김휘훈	김휘훈		그림책공작소	2020	9791186825242
40	할머니의 뜰에서	조던 스콧	시드니 스미스	김지은	책읽는곰	2023	9791158364007
41	홈런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너에게	하세가와 슈에이	하세가와 슈에이	김소연	천개의 바람	2021	9791165731656

어린이 문학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모차		사계절	2023	9791169811514
2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김혜진	모차		사계절	2023	9791169811514
3	기소영의 친구들	정은주	해랑		사계절	2022	9791160949797
4	내 친구가 마녀래요	E.L.코닉스버그	윤미숙	장미란	문학과지성사	2000	8932011516738
5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	권삼중	현숙희		키큰도토리	2022	9791192762005
6	리루다네 통일밥상	박경희	남수		한솔수북	2021	9791170289357
7	무적말숙	김유	최미란		책읽는곰	2021	9791158362188
8	복수의 초짜	임근희	남수		책읽는곰	2021	9791158362317
9	비밀전학	정란희	신슬기		현암주니어	2022	9788932375625
10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전경남	지우		그린북	2021	9798955883862
11	윤초옥 실종사건	전여울	가지		사계절	2023	9791169811217
12	하하 자매 떡집	김리리	김이랑		비룡소	2023	9788949162539

어린이 비문학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끝없는 우주 이야기	에드비제 페출리 외	알리체 베니에로	신동경	아울북	2023	9788950910914
2	법 따라 나이 따라	이순혁	송진욱		사계절	2023	9791169811187
3	상처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김윤나	유영근		북라이프	2023	9791191013498

청소년 도서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10대를 위한 나의 첫 건축 수업	대니얼 윌킨스		배상규	시프	2021	9791197563836
2	1의 들러리	김선희			소원나무	2019	9791186531969
3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	케이틀린 도티		이한음	사계절	2021	9791160947144
4	극복하고 싶지 않아	김혜정 외			마음이음	2022	9791192183268
5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정유정			비룡소	2007	9788949120768
6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	타니아 로이드 치		이계순	별숲	2020	9788997798889
7	느티나무 수호대	김중미			돌베개	2023	9791192836072
8	다이브	단요			창비	2022	9788936457112
9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예바 스칼레츠카		손원평	생각의힘	2023	9791190955874
10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꽃님			우리학교	2023	9791167550972
11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장 뤽 포르케	야체크 워즈니악	장한라	서해문집	2022	9791192085371
12	드림레코드	이혜린			다림	2022	9788961773027
13	마리오네트의 춤	이금이			밤키	2022	9791191826197
14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도나 바르바 이게라		김선희	위즈덤하우스	2022	9791168124295
15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이순희	열린책들	2022	9788932922058
16	벼랑	이금이			밤티	2022	9791191826227
17	붉은 무늬 상자	김선영			특별한 서재	2022	9791167030511
18	사라진 소녀들의 숲	허주은		유혜인	미디어창비	2022	9791191248913
19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공주영	공인영		주니어태학	2023	9791168101418
20	소희의 방	이금이			밤티	2021	9791191826029
21	양아치의 스피치	네온비	김인정		문학동네	2023	9788954690546
22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	마쓰모토 도시히코			우리학교	2023	9791167550941
23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황효진			창비	2023	9788936452421
24	어쩌다 시에 꽃혀서는	정연철			위즈덤하우스	2021	9791191119947
25	위대한 철학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	이준형			빅피시	2023	9791193128183
26	저스트 어 모멘트	이경화			탐	2011	9788964960202
27	질라래비 훨훨	김종록	은섬		다슬기	2019	9791196765309
28	청소년 비건의 세계	박소영			휴머니스트	2022	9791160809121
29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치도	시미씨		주니어RHK	2023	9788925576862
30	클로버	나혜림			창비	2022	9788936457136
31	페퍼민트	백온유			창비	2022	9788936457129

일반 성인도서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신익수			생각정거장	2019	9791164840182
2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최은아	부키	2023	9788960519947
3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강주헌	메이븐	2023	9791190538534
4	300개의 단상	세라 망구소		서제인	필로우	2022	9791197559686
5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			아울북	2023	9788950978907
6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은경			아워미디어	2023	9791197667312
7	8일째 매미	가쿠다 미쓰요		장점숙	Media2.0	2009	9788990739773
8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가나출판사	2013	9788957365793
9	FBI 사람예측 심리학	로빈 드리크, 캐머런 스타우스		고영훈	코리아닷컴	2020	9791190488129
10	GV빌런 고태경	정대건			은행나무	2020	9791190492430
11	ICS 정화와 소통 : 영혼의 매트릭스	이영현			렛츠북	2023	9791160545975
12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지와인	2023	9791191521221
13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손재일, 전기영			21세기북스	2023	9788950921002
14	가능한 불가능	신은혜			제철소	2022	9791188343577
15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2021	9788960518636
16	거의 모든 IT의 역사	정지훈			메디치미디어	2020	9791157062157
17	거의 정반대의 행복	난다			위즈덤하우스	2018	9791162203002
18	거인의 노트	김익한			다산북스	2023	9791130697529
19	결혼기담	아키요시 리카코		장혜영	대원씨아이	2021	9791136264060
20	경우 없는 세계	백온유			창비	2023	9788936439026
21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이소연			다산북스	2021	9791130678221
22	고래	천명관			문학동네	2014	9788954623414
23	고양이를 버리다	무라카미 하루키	가오 옌	김난주	비채	2020	9788934992097
24	공감의 시대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민음사	2010	9788937426896
25	공공디자인 시대	김주연			스리체어스	2023	9791192572772
26	공룡의 이동경로	김화진			스위밍꿀	2023	9791196074470
27	공부의 기술	이상욱			웅진지식하우스	2021	9788901248752
28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개빈 프레터피니		김성훈	김영사	2023	9788934943419
29	그곳은 따뜻한가요	윤여준			쥬쥬베북스	2023	9791197831317
30	그렇게 죽지 않는다	홍영아			어떤책	2022	9791189385354
31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이나가키 에미코		김미형	엘리	2018	9788956057682
32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창비	2022	9788936479220
33	글로벌 거지 부부	박건우			태일소담출판사	2014	9788973817443
34	글쓰기는 처음이라	안광국	임지이		빨간소금	2018	9791195963874
35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김미리			휴머니스트	2022	9791160808773
36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정성묵	두란노	2005	9788996210429
37	기묘한 괴담하우스	사와무라 이치		남소현	북플라자	2022	9791190157742
38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빌 맥과이어		이민희	양철북	2023	9788963724195
39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	김경일			김영사	2023	9788934975618
40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김경일			저녁달	2022	9791189217136
41	꽃들의 말	장 프랑수아 샤바	요안나 콘세이요	김지희	오후의 소묘	2021	979119648419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42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2022	9788954686266
43	꿀잠의 과학	김유겸, 이유진, 최승홍			위즈덤하우스	2023	9791168125827
44	끝내주는 인생	이슬아	이훤		디플롯	2023	9791198278227
45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하재영			휴머니스트	2023	9791160809664
46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박건우			길벗	2022	9791140701858
47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문요한			해냄	2022	9791167140401
48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박중철			홍익출판미디어그룹	2022	9781191420746
49	나도라키의 머리	사와무라 이치		이선희	아르테	2023	9788950927417
50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부크럼	2020	9791162143056
51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강형근			흐름출판	2022	9788965965398
5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비	2022	9788936479190
53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양정무			사회평론	2023	9791162732977
54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	박승준			청아출판사	2022	9788936812065
55	내 아이를 위한 정화	이영현			렛츠북	2016	9791186836682
56	내 일로 건너가는 법	김민철			위즈덤하우스	2022	9791168124363
57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우리학교	2022	9791190337687
58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박여진	토네이도	2022	9791158511432
59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박여진	토네이도	2022	9791158511432
60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 데블라드	토마스 산체스	박미경	다산초당	2022	9791130689890
61	너의 하루가 따숩길 바라	고은지			북라이프	2022	9791191013474
62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전한길			21세기북스	2023	9788950920043
63	넬라의 비밀약방	사라 페너		이미정	하빌리스	2022	9791168949751
64	눈의 무게	크리스티앙 게-폴리캥		홍은주	엘리	2020	9791196914875
65	다윈지능	최재천	윤호섭		사이언스북스	2022	9791192107318
66	다정소감	김혼비			안온북스	2021	9791197504136
67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이민아	디플롯	2023	9791197413025
68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임홍빈	문학사상	2009	9788970128337
69	당신께	오지은			김영사	2023	9788934966012
70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더퀘스트	2023	9791140702589
71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			더퀘스트	2023	9791140702589
72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엘 코시마노		김효정	인플루엔셜	2023	9791168341050
73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명			문학동네	2023	9788954694148
74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2018	9788965746669
75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014	9788998439118
76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마이클 슈어		염지선	김영사	2023	9788934971689
77	더티워크	이얼 프레스		오윤성	한겨레	2023	9791160409963
78	덕질로 인생역전	대학내일20대연구소			중앙북스	2016	9788927807391
79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어크로스	2023	9791167740984
80	도서관은 살아있다	도서관여행자			마티	2022	9791190853361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81	도파민네이션	애나 렘키		김두완	흐름출판	2022	9788965965046
82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황금부엉이	2023	9788960306134
83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뽕글이			황금부엉이	2023	9788960306134
84	돈의 사이클	이재범			위즈덤하우스	2022	9791168124257
85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2020	9788925556253
86	또 못 버린 물건들	은희경			난다	2023	9791191859591
87	라틴어 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2017	9788965962205
88	랑과 나의 사막	천선란			현대문학	2022	9791167901354
89	럭키	김도윤			북로망스	2021	9791191891027
90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크리스토스 H. 파파디미트리우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애니 디 도나	전대호	랜덤하우스 코리아	2011	9788925541648
91	마음의 지혜	김경일			포레스트북스	2023	9791192625508
92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김선호			서사원	2022	9791168220911
93	마침내 운전	신예희			애플북스	2023	9791192641126
94	마케터의 글쓰기	이선미			앤의 서재	2022	9791190710473
95	마흔에 읽는 니체	장재형			유노북스	2022	9791192300245
96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메이븐	2022	9791190538510
97	만지고 싶은 기분	요조			마음산책	2023	9788960907935
98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		허진	다산책방	2023	9791130698199
99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	마스다 미리		이소담	티라미수 더북	2023	9791169518352
100	매일을 헤엄치는 법	이연			푸른숲	2022	9791156759720
101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국일미디어	2021	9788974259938
102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			수오서재	2021	9791190382502
103	몸과 삶이 만나는 글, 누드 글쓰기	고미숙 외			북드라망	2022	9791192128238
104	물 만난 물고기	이찬혁			수카	2019	9791130625904
105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글항아리	2023	9791169091060
106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후카모리 후미코		연리지	In	2023	9791159923784
107	밀림의 연인들	김달리			안전가옥	2023	9791193024102
108	밑바닥	조 R. 랜스데일		박미영	황금가지	2016	9791158881580
109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황국영	모모	2023	9791192579504
110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수업	박원갑			메이트북스	2023	9791160024067
111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	다비드 디옵		목수정	희담	2022	9791195879434
112	백명 버튼	김동식			위즈덤하우스	2023	9791168127081
113	백의 그림자	황정은			창비	2022	9788936438715
114	번아웃세대	곽연선			스리체어스	2022	9791192572390
115	베싸육아	박정은			래디시	2023	9791198129109
116	베이비 박스	융		윤예니	바람북스	2023	9791197381775
117	별것 아닌 선의	이소영			어크로스	2021	9791190030946
118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	윤혜자			몽스북	2023	9791191401684
119	부의 인문학	우석 (브라운 스톤)			오픈마인드	2022	9791196851200
120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김윤수	다산북스	2020	9791130633619
121	불안을 넘어설 용기	크리스토프 앙드레	뮈조	이세진	더 퀘스트	2015	9788966189557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22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		서승범	생각지도	2022	9791187875239
123	빅씽킹	도널드 트럼프, 빌 쟁커		김원호	서울문화사	2016	9789826396971
124	뼛 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골드버그		권경희	한문화	2018	9788956993409
125	사건	아니 에르노		윤석헌	민음사	2019	9788937429583
126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양지열			이론과실천	2023	9788931360783
127	사랑을 담아	에이미 블룸		신혜빈	문학동네	2023	9788954694131
128	사물에게 배웁니다	임진아			휴머니스트	2020	9791160804546
129	사장학개론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2023	9791188331888
130	삶과 맞닿아 있는 도서관의 힘	강상도			북랩	2021	9791168360358
131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박찬국			21세기북스	2017	9788950971991
132	삼국기밀	마보융			CNTV	2019	9791196635312
133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안진흥			지오북	2023	9788994242873
134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정이현			문학과 지성사	2016	9788932029092
135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위에		박진희	미디어숲	2023	9791158741938
136	생에 감사해	김혜자			수오서재	2022	9791190382915
137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백승			알에이치코리아	2023	9788925577111
138	섬의 애슐리	정세랑	한예롤		미메시스	2018	9791155351314
139	세계의 말들	구로다 류노스케		신견식	유유	2023	9791167700575
140	세상 끝의 카페	존 스트레레키		고상숙	클레이하우스	2023	9791198173812
141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이희인			바다출판사	2022	9791166891304
142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데이원	2023	9791168473690
143	소년을 읽다	서현숙			사계절	2021	9791160947083
144	숫자로 일하는 법	노현태			인플루엔셜	2022	9791168340473
145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정영목	푸른숲	2003	9788971843925
146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신지			잠비	2023	9791198068408
147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정광하, 오남도			차츰	2023	9791198118110
148	시나리오 쓰고 있네	황서미			씽크스마트	2020	9788965292470
149	시와 산책	한정원			시간의 흐름	2020	9791196517199
150	식물산책	이소영			글항아리	2018	9788967355159
151	식물의 방식	베론다 L. 몽고메리		정서진	이상북스	2022	9788993690552
152	신의 카르테 1	나쓰카와 소스케		채숙향	아르테	2018	9788950974275
153	싯다르타	헤르만 헤세		권혁준	문학동네	2018	9788954654418
154	아! 팔레스타인	원혜진			바이북스	2023	9791158773342
155	아끼는 날들의 기쁨과 슬픔	이건해			에이치비프레스	2023	9791190314244
156	아무튼, 산	장보영			코난북스	2020	9791188605149
157	아무튼, 현수동	장강명			위고	2023	9791186602928
158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종기			은행나무	2022	9791190492256
159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2022	9788936438838
160	아자젤	아이작 아시모프		최용준	열린책들	2015	9788932917009
161	아주 사적인 여행	양주안			알에이치코리아	2023	9788925576404
162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김설			위고	2022	9791186602911
163	아트인문학 여행:스페인	김태진			카시오페아	2019	9791188674558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64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권아리		스노우폭스북스	2017	9791195963300
165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 잡학상식	온스토리 편집부			온스토리	2020	9788998934378
166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김세희		마음산책	2022	9788960907348
167	어디에도 없는 아이	크리스티안 화이트		김하현	현암사	2022	9788932321004
168	어른의 문장력	김선영			더 퀘스트	2022	9791140701520
169	어른의 중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		임슬애	월북	2022	9791155815632
170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2022	9791197377143
171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동수			알에이치코리아	2022	9788925577807
172	엄마를 절에 버리러	이서수			자음과 모음	2023	9788954448864
173	엄마와 딸 여행이 필요할 때	한명석			사우	2023	9791187332862
174	에니어그램의 지혜	돈 리차드 리소, 러스 허드슨		주혜명	한문화	2015	9788956992129
175	에이징 솔로	김희경			동아시아	2023	9788962624885
176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크리스티안 노스럽		강현주	한문화	2000	9788956992853
177	여행의 시간	김진애			창비	2023	9788936479251
178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2019	9791130621968
179	역행자	자청			웅진지식하우스	2022	9788901260716
180	연결지능	에리카 다완, 사지-니콜 조니		최지원	위너스북	2016	9788994747668
181	예민함이 너의 무기다	멜로디 와일딩		백지선	위즈덤하우스	2022	9791168125087
182	예수아 채널링	파멜라 크리베		이균형	정신세계사	2016	9788935704026
183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	그림에다			위즈덤하우스	2022	9791168123939
184	오늘도 수영	아슬			애플북스	2019	9791190147057
185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	권은순			북커스	2022	9791190118460
186	오색 찬란 실패담	정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23	9788925576930
187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2019	9788950984847
188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푸른역사	2017	9791156120964
189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김아미			민음사	2022	9788937492051
190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	안소정			앨리스	2019	9788961963473
191	왓칭 1	김상운			정신세계사	2011	9788935703463
192	왓칭 2	김상운			정신세계사	2016	9788935703975
193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김윤경	다산북스	2021	9791130637037
194	요가 숲 차	신미경			위즈덤하우스	2023	9791168126398
195	용과 지하철	마보융		양성희	현대문학	2018	9788972759447
196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	이윤호	박진숙		도도	2022	9791191455717
197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			웅진지식하우스	2022	9788901264776
198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김이삭 외			한겨레출판	2022	9791160405101
199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	매리언 네슬, 케리 트루먼		솝희	현암사	2022	9788932322407
200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김승섭			동아시아	2023	9788962624991
201	우연하고도 사소한 기적	아프리카 윤		이정경	파람북	2022	9791192265704
202	우울할 땐 뇌과학	앨릭스 코브		정지인	심심	2018	979115675734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203	운을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쓰토무		최서희	알투스	2023	9791186116449
204	울트라 셀프	이리앨			다산북스	2023	9791130655550
205	웰씽킹	켈리 최			다산북스	2023	9791130677774
206	유연함의 힘	수잔 애쉬포드		김정혜	상상스퀘어	2023	9791192389073
207	유태우 교수의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유태우			김영사	2005	9788934918073
208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은유			김영사	2023	9788934942948
209	음의 방정식	미야베 미유키		이영미	문학동네	2016	9788954639606
210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라곰	2022	9791189686536
211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라곰	2022	9791189686536
212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리틀타네(신가영)			웅진지식하우스	2023	9788901273556
213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박재삼	다빈치	2011	9788990985767
214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연수			문학동네	2022	9788954680004
215	인간수업	민현기 외			Book Insight	2021	9791197097195
216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민			사회평론	2022	9791167070791
217	일놀놀일	김규림, 이승희			웅진지식하우스	2022	9788901266503
218	일잘잘: 일 잘하고 잘 사는 삶의 기술	김명남 외			창비	2023	9788936479350
219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창비	2022	9788936424725
220	자본주의의 적	정지아			창비	2021	9788936438432
221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박소현	다산책방	2023	9791130642574
222	잘 자고 잘 먹는 아기의 시간표	정재호			한빛라이프	2014	9791195153886
223	장안 24시	마보융		양성희	현대문학	2018	9788972759249
224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백정연			유유	2022	9791167700261
225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		김희정	부키	2023	9788960519794
226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휴머니스트	2018	9791160801484
227	저만치 혼자서	김훈			문학동네	2022	9788954686921
228	저주토끼	정보라			래빗홀	2023	9791168340947
229	전국축제자랑	김혼비·박태하			민음사	2021	9788937413711
230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전현수			불광출판사	2018	9788974793838
231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원지			상상출판	2019	9791189856540
232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위즈덤하우스	2023	9791168126855
233	조화로운 부	제임스 아서 레이		홍석윤	라이온북스	2021	9788994643854
234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지식노마드	2020	9791187481720
235	죄와 벌 1,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김연경	민음사	2012	9788937462849
236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김영사	2020	9788934992493
237	지니, 너 없는 동안	이은정			이정서재	2023	9791198202413
238	채소는 따뜻하게 먹습니다	쓰쓰미 히토미		이은정	좋은생각	2021	9791187033738
239	천 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쌤앤파커스	2022	9791165346485
240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김윤경	다산초당	2019	9791130620459
241	철학자의 걷기 수업	알베르트 키츨러		유영미	푸른숲	2023	9791156754145
242	첫 집 연대기	박찬용			웨일북	2021	9791190313759
243	청춘의 독서	유시민			웅진지식하우스	2017	9788901218151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244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문학동네	2023	9788954693509
245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문학동네	2023	9788954693509
246	칵테일, 러브, 좀비	조예은			안전가옥	2020	9791190174756
247	코스모스	칼 세이건		홍승수	사이언스북스	2006	9788983711892
248	콜센터의 말	이예은			민음사	2022	9788937455896
249	클라우드 머니	브렛 스콧		장진영	샘앤파커스	2022	9791165344733
250	탱크	김희재			한겨레출판	2023	9791160405422
251	퇴근 후 1시간 은퇴 수업	허윤			미다스북스	2019	9788966377435
252	특별한 한국인	박영규			웅진지식하우스	2000	9788901029245
253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동아시아	2019	9788962622713
254	파친코	이민진		신승미	인플루엔셜	2022	9791168340510
255	풀하우스	메이브 빈치		이은선	문학동네	2022	9788954688208
256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다산책방	2021	9791130641225
257	플라멩코 추는 남자	허태연			다산북스	2021	9791130641225
258	피아노 시작하는 법	임정연			유유	2023	9791167700605
259	하쿠다 사진관	허태연			놀	2022	9791130692258
260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프레드릭 배크만		이은선	다산책방	2016	9791130607887
261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곽재식			위즈덤하우스	2018	9791162205778
262	해외생활들	이보현			꿈꾸는 인생	2022	9791191018196
263	허허 동의보감 1-2	허영만			시루	2013	9788998480141
264	형사 박미옥	박미옥			이야기장수	2023	9788954692519
265	형사 박미옥	박미옥			이야기장수	2023	9788954692519
266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이하레아카라 휴렌, 조 비테일		황소연	판미동	2011	9788960172845
267	호흡의 기술	제임스 네스터		승영조	북 트리거	2021	9791189799366
268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서 싫다	이혜린			프레너미	2017	9791187383185
269	화가가 사랑한 바다	정우철			오후의 서재	2023	9791198146113
270	회사버리고 어쩌다 빵집 알바생	개띠랑			루리책방	2022	9791197333729

사서들의 책 이야기 **색인**

도서명별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 216
10대를 위한 나의 첫 건축 수업 – 138
10배의 법칙 – 219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 222
14마리의 이사하기 – 10
1의 들러리 – 140
300개의 단상 – 224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226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 229
8일째 매미 – 231
9킬로미터 – 12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233
FBI 사람예측 심리학 – 235
GV빌런 고태경 – 238
ICS 정화와 소통: 영혼의 매트릭스 – 240
k-배터리 레볼루션 – 243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 245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 100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 – 102
가능한 불가능 – 247
가족의 두 얼굴 – 250
거의 모든 IT의 역사 – 252
거의 정반대의 행복 – 255
거인의 노트 – 257
건전지 엄마 – 14
겨울 이불 – 16
결혼기담 – 259
경우 없는 세계 – 261
계속 쓰려는 사람을 위한 48가지 이야기 – 694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 264
고래 – 266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 – 142
고양이를 버리다 – 268
공감의 시대 – 271
공공디자인 시대 – 273
공룡의 이동 경로 – 275
공부의 기술 – 277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 279
구름이 – 18
그곳은 따듯한가요 – 281
그렇게 죽지 않는다 – 283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 285
그림값의 비밀 – 287
극복하고 싶지 않아 – 144
글로벌 거지 부부 – 289
글쓰기는 처음이라 – 291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 293
긍정의 힘 – 296
기묘한 괴담 하우스 – 299
기소영의 친구들 – 104
기후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 301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 – 304
깜장이 – 20
꽃들의 말 – 309
꽤 괜찮은 해피엔딩 – 311
꿀잠의 과학 – 313
꿈같은 하늘 아래에 – 22
끝내주는 인생 – 315
끝없는 우주 이야기 – 128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 317
나는 미니멀유목민입니다 – 320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 322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 324
나도라키의 머리 – 326
나를 사랑하는 연습 – 328
나만 없어 토끼! – 24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 330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1: 서울편(3) – 332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 334
내 나라를 떠나 사는 것의 새로움과 외로움에 대하여 – 823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 – 336
내 아이를 위한 정화 – 338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 147
내 일로 건너가는 법 – 341

내 친구가 마녀래요 – 106
내가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 26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 343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345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347
내가 예쁘다고? – 28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349
너의 하루가 따숩길 바라 – 351
네 인생 우습지 않다 – 354
네가 사라진 날 – 30
넬라의 비밀약방 – 357
노는게 좋은 – 32
누가 내 모습을 훔쳤을까 – 149
눈의 무게 – 359
느티나무 수호대 – 151
님을 위한 행복한 인간관계 지침서 – 307
다윈지능 – 361
다이브 – 153
다이빙 – 34
다정소감 – 364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366
달그락 탕 – 36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 370
당신께 – 372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 377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 374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 155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 380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 382
당신이 옳다 – 384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 157
대한민국 치킨展 – 386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 388
더티워크 – 390
덕질로 인생역전 – 392
도둑맞은 집중력 – 394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 : 꼬비와 함께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법 – 108
도서관은 살아 있다 – 397
도파민네이션 – 399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 401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 403
돈의 사이클 – 406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 159
두 번째 지구는 없다 – 409
드림 레코드 – 161
또 못 버린 물건들 – 412
라틴어 수업 – 414
랑과 나의 사막 – 417
럭키 – 419
로지코믹스 – 422
리루다네 통일밥상 – 110
마리오네트의 춤 – 163
마음버스 – 38
마음의 지혜 – 424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 427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 165
마침내 운전 – 429
마케터의 글쓰기 – 431
마흔에 읽는 니체 – 433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 436
만지고 싶은 기분 – 438
맡겨진 소녀 – 440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 – 443
매일을 헤엄치는 법 – 445
맨발로 걸어라 – 447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 450
몸과 삶이 만나는 글, 누드 글쓰기 – 453
무적말숙 – 112
물 만난 물고기 – 456
물건이 아니다 – 458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 168
미완성 채식도 괜찮아 – 460
밀림의 연인들 – 462
밑바닥 – 465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 467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 – 469
반짝이는 섬 – 40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 – 471
백 명 버튼 – 473
백의 그림자 – 476
번아웃세대 – 478
법 따라 나이 따라 – 130
베싸육아 – 480
베이비박스 – 482
벼랑 – 171
별것 아닌 선의 – 484

별국 - 42
복수의 초짜 - 114
부부가 둘 다 잘 먹었습니다 - 487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 832
부의 인문학 - 489
부자의 그릇 - 492
불안을 넘어설 용기 - 494
붉은 무늬 상자 - 173
붉은 신 - 45
붉은 신 - 47
비밀전학 - 116
비법 - 49
비상식적 성공 법칙 - 496
빅씽킹 - 498
빌려준다고 했는데 - 52
빗방울 이야기 - 54
뼛 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 500
사건 - 502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 505
사라지는 것들 - 56
사라진 소녀들의 숲 - 175
사라진 저녁 - 58
사랑은, 달아 - 60
사랑을 담아 - 507
사물에게 배웁니다 - 509
사자마트 - 62
사장학개론 - 511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 177
삶과 맞닿아 있는 도서관의 힘 - 514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 516
삼국기밀: 한헌제전 - 518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 520
상냥한 폭력의 시대 - 522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 524
상처주는 말 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 132
색색의 꿈을 꾸고 싶다면 - 64
생에 감사해 - 526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 529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 118
선을 넘지마! - 67
섬의 애슐리 - 531
세계의 말들 - 534
세상 끝의 카페 - 536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국내편) - 538
세이노의 가르침 - 540
소년을 읽다 - 543
소희의 방 - 180
숫자로 일하는 법 - 545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 547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550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 552
시나리오 쓰고 있네 - 554
시와 산책 - 556
시작의 이름 - 69
식물산책 - 558
식물의 방식 - 560
신의 카르테 1 - 562
신인류 직장인의 해방 일지 - 606
싯다르타 - 564
아! 팔레스타인 - 567
아끼는 날들의 기쁨과 슬픔 - 569
아무튼, 산 - 571
아무튼, 현수동 - 573
아버지의 이름으로 - 575
아버지의 해방일지 - 577
아빠와 차곡차곡 - 71
아자젤 - 580
아주 사적인 여행 - 582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 585
아트인문학 여행: 스페인 - 588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 590
알아두면 쓸 데 있는 新 잡학상식 - 593
애쓰지 않아도 - 595
양아치의 스피치 - 182
어느 날 내가 중독에 빠진다면 - 184
어디에도 없는 아이 - 597
어른의 문장력 - 599
어른의 중력 - 601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 187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604
어쩌다 시에 꽂혀서는 - 189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 609
엄마와 딸 여행이 필요할 때 - 612
에니어그램의 지혜 - 614
에이징 솔로 - 616
에이해브와 흰고래 - 74

여름의 루돌프 – 76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 619
여행의 시간 – 622
역사의 쓸모 – 625
역행자 – 628
연결지능 – 630
예민함이 너의 무기다 – 633
예수아 채널링 – 636
오늘도 반짝이는 너에게 – 639
오늘도 수영 – 641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 – 643
오색 찬란 실패담 – 645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 647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 650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 652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 – 654
왓칭 1 – 656
왓칭 2 – 659
왜 일하는가 – 662
왜요? – 78
요가 숲 차 – 665
용과 지하철 – 667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 – 669
우리, 편하게 말해요 – 671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 673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것들 – 675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 677
우연하고도 사소한 기적 – 679
우울할 땐 뇌 과학 – 681
운을 읽는 변호사 – 683
울트라 셀프 – 685
웰씽킹 – 687
위대한 철학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 – 191
유연함의 힘 – 690
유태우 교수의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 692
윤초옥 실종사건 – 121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 696
이 집은 나를 위한 집 – 81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 698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 700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 703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 705
이토록 평범한 미래 – 707
인간 수업 – 709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712
일놀놀일 – 714
일잘잘 – 716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 718
자기치유와 자기돌봄을 위한 자기관계 심리학 – 322
자란다 – 83
자본주의의 적 – 722
작은 땅의 야수들 – 724
작은 조각 페체티노 – 85
잘 자고 잘 먹는 아기의 시간표 – 727
장안 24시 – 730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 732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 734
재판으로 본 세계사 – 736
저만치 혼자서 – 738
저스트 어 모멘트 – 193
저주 토끼 – 741
전국축제자랑 – 744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 746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 749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 751
조화로운 부 – 753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 756
죄와 벌 – 759
죽은 자의 집 청소 – 761
지니, 너 없는 동안 – 763
질라래비 훨훨 – 195
채소는 따뜻하게 먹습니다 – 766
천 원을 경영하라 – 768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771
철학자의 걷기 수업 – 773
첫 집 연대기 – 776
청소년 비건의 세계 – 197
청춘의 독서 – 779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 781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 784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 200
칵테일, 러브, 좀비 – 786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 – 87
코스모스 – 788
콜센터의 말 – 791
클라우드 머니 – 793

클로버 - 203
태양 왕 수바 - 91
탱크 - 796
퇴근 후 1시간 은퇴 수업 - 799
특별한 한국인 - 801
파란하늘 빨간지구 - 803
파친코 - 805
페퍼민트 - 205
풀하우스 - 807
플라멩코 추는 남자 - 810
플라멩코 추는 남자 - 812
피아노 시작하는 법 - 814
하루거리 - 89
하쿠다 사진관 - 817
하하 자매 떡집 - 124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 819
할머니의 뜰에서 - 93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 821
해외생활들 - 823
허허 동의보감 1-2 - 825
형사 박미옥 - 828
형사 박미옥 - 830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 832
호흡의 기술 - 835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서 싫다 - 838
홈런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너에게 - 95
화가가 사랑한 바다 - 840
회사 버리고 어쩌다 빵집 알바생 - 842

저자별

E.L.코닉스버그 - 106
WHO's LAB - 709
가사이 마리 - 52
가쿠다 미쓰요 - 231
간다 마사노리 - 496
강상도 - 514
강인숙·전승배 - 14
강형근 - 330
개띠랑 - 842
개빈 프레터피니 - 279
고명환 - 698, 700
고미숙 - 453
고은지 - 351
공광규 - 42
공주영 - 77
곽연선 - 478
곽재식 - 821
구로다 류노스케 - 534
권삼중 - 108
권은순 - 643
권정민 - 58
그랜트 카돈 - 219
그림에다 - 639
김경일 - 304, 307, 424
김규림·이승희 - 714
김달리 - 462
김도윤 - 419
김동식 - 473
김리리 - 124
김명남 - 716
김미리 - 293
김민철 - 341
김상운 - 656, 659
김선영 - 173
김선영(글밥) - 599
김선호 - 427, 40
김설 - 585
김성라 - 76
김승섭 - 677
김승호 - 511, 590
김신지 - 550
김아미 - 652
김연수 - 707
김영민 - 712
김완 - 761
김유 - 38, 62, 112
김유겸 - 313
김윤나 - 132
김이삭 외 - 673
김익한 - 257

김종기 – 575
김종록 – 195
김주연 – 273
김주혜 – 724
김중미 – 151
김진애 – 622
김태진 – 588
김혜남 – 436
김혜자 – 526
김혜정 – 144
김혜진 – 100, 102
김혼비 – 364
김혼비·박태하 – 744
김화진 – 275
김훈 – 738
김휘훈 – 89
김희경 – 616
김희재 – 796
나쓰카와 소스케 – 562
나오미 클라인 – 168
나탈리 골드버그 – 500
나혜림 – 203
난다 – 255
네온비 – 182
노현태 – 545
다나카 기요 글 – 20
다비드 디옵 – 471
단요 – 153
대니얼 윌킨스 – 138
대학내일20대연구소 – 392
도나 바르바 이게라 – 165
도널드 트럼프·빌 쟁커 – 498
도서관여행자 – 397
돈 리차드 리소·러스 허드슨 글 – 614
딜런 글린 – 18
레오 리오니 – 85
로빈 드리크, 캐머런 스타우스 – 235
리틀타네(신가영) – 703
린제이 캠프 – 78
마누엘 마르솔 – 74
마리 앤 호버맨 – 81
마보융 – 518, 667, 730
마스다 미리 – 443
마쓰모토 도시히코 – 84
마이클 슈어 – 388
마치다 소노코 – 467
매리언 네슬·케리 트루먼 – 675
메이브 빈치 – 807
멜로디 와일딩 – 633
무라카미 하루키 – 268, 370
문요한 – 322
미셸 피크말 – 64
미야베 미유키 – 696
민태기 – 751
박건우 – 320, 289
박경희 – 110
박동창 – 447
박미옥 – 828, 830
박세연 – 60
박소영 – 197
박순혁 – 243
박승준 – 336
박영규 – 801
박원갑 – 469
박정부 – 768
박정은 – 480
박주연 – 458
박중철 – 324
박찬국 – 516
박찬용 – 776
박형남 – 736
백승 – 529
백온유 – 205, 261
백정연 – 732
베론다 L. 몽고메리 – 560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 56
브라운 스톤(우석) – 489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 366
브렛 스콧 – 793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 349
빌 맥과이어 – 301
뽕글이 – 401, 403
사라 페너 글 – 357
사와무라 이치 글 – 299, 326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 글 – 601
산드라 디크만 글 – 30

서현숙 글 – 543
세라 망구소 글 – 224
세이노 글 – 540
셸리 무어 토머스 글 – 69
손웅정 – 450
손재일, 전기영 – 245
수잔 애쉬포드 – 690
시나카 쓰토무 – 683
신미경 – 665
신예희 – 429
신은혜 – 247
신익수 – 216
신정근 – 647
심예진 – 83
쓰쓰미 히토미 – 66
아니 에르노 – 502
아슬 – 641
아이작 아시모프 – 580
아키요시 리카코 – 259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외 글 – 422
아프리카 윤 – 679
안광국 – 291
안녕달 – 16
안소영 – 654
안진흥 – 520
알베르트 키츨러 – 773
애나렘키 – 399
앨릭스 코브 – 681
야마구치 슈 – 771
양정무 – 334, 287
양주안 – 582
양지열 – 505
에드비제 페출리 외 글 – 128
에런 베커 – 22
에리카 다완·사지-니콜 조니 – 630
에이미 블룸 – 507
엘 코시마노 – 380
예바 스칼레츠카 – 155
오승민 – 45, 47
오주석 – 650
오지은 – 372
온스토리 – 593
요조 – 438
요한 하리 – 394
원혜진 – 567
유시민 – 779
유태우 – 692
유홍준 – 332
윤여준 – 281
윤혜자 – 487
융 – 482
은유 – 694
은희경 – 412
의자 – 87
이건해 – 569
이경화 – 193
이금이 – 180, 163, 171
이금희 – 671
이꽃님 – 157
이나가키 에미코 – 285
이나모리 가즈오 – 662
이동수 – 606
이리앨 – 685
이민진 – 805
이보현 – 823
이상욱 – 277
이서수 – 609
이서윤 – 226
이선미 – 431
이소연 – 264
이소영 – 558, 484
이순혁 – 130
이슬아 – 315
이얼 프레스 – 390
이연 – 445
이영림 – 36
이영현 – 338, 240
이예은 – 791
이와무라 카즈오 – 10
이원지 – 749
이윤호 – 669
이은경 – 229
이은정 – 763
이재범(핑크팬더) 글 – 406
이준형 – 191
이중섭 – 705

이지선 – 311
이지은 – 91
이찬혁 – 456
이하레아카라 휴렌, 조 비테일 – 832
이혜린 – 838, 161
이희인 – 538
임근희 – 114
임정연 – 814
임진아 – 509
입 스팡 올센 – 54
자청 글 – 628
장 뤽 포르케 글 – 159
장 프랑수아 샤바 – 309
장강명 – 382, 573
장보영 – 571
장재형 – 433
장준영 – 40
장하준 – 734
저우신위에 – 524
전경남 – 118
전민걸 – 49
전여울 – 121
전정숙 – 32
전한길 – 54
전현수 – 746
정광하·오남도 – 552
정대건 – 238
정란희 – 116
정보라 – 741
정세랑 – 531
정연철 – 189
정영욱 – 328
정우철 – 840
정유정 – 147
정은정 – 386
정은주 – 04
정이현 – 522
정재호 – 727
정지아 – 722, 577
정지음 – 645
정지훈 – 252
정혜신 – 384
정희원 – 374, 377
제러미 리프킨 – 271
제임스 네스터 – 835
제임스 아서 레이 – 753
조 R. 랜스데일 – 465
조던 B. 피터슨 – 222
조던 스콧 – 93
조엘 오스틴 – 296
조예은 – 786
조천호 – 803
존 리 – 756
존 스트레레키 – 536
천명관 – 266
천선란 – 417
천종호 – 343
최광현 – 250
최은영 – 595
최재천 – 361
최지인 – 718
최태성 – 625
치도 – 200
카렌 암스트롱 – 547
칼 세이건 – 788
칼 필레머 – 347, 345
케이틀린 도티 – 142
켈리 최 – 687
크리스토프 앙드레 – 494
크리스티안 노스럽 – 619
크리스티안 화이트 – 597
크리스티앙 게–폴리캥 – 359
클라우디오 아길레라 – 12
클레어 키건 – 440
타니아 로이드 치 – 149
타일러 라쉬 – 409
토베 피에루 – 24
파멜라 크리베 – 63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759
프레드릭 베크만 – 19
피야 린덴바움 – 7
하세가와 슈에이 – 95
하이디 우드워드 셰필드 – 71
하재영 – 317
한동일 – 414
한명석 – 612

한정원 – 56
허영만 – 825
허윤 – 799
허주은 – 175
허태연 – 817, 810, 812
헤르만 헤세 – 564
호아킨 캄프 – 34
홍영아 – 283
황보름 – 604
황서미 – 554
황선우, 김혼비 – 781, 784
황인찬 – 28
황정은 – 476
황효진 – 187
후카모리 후미코 – 460
히도 반 헤네흐텐 – 26

서평자별

공정자 – 12, 20, 32, 52, 56, 81
구진영 – 761
권정구 – 628
기성수 – 205, 343, 575
김가인 – 138, 163, 171, 180, 233, 243, 266, 469, 505, 545
김경욱 – 810
김누리 – 140, 364, 380, 417, 595, 604, 786, 812, 817, 838
김보라 – 224, 556
김보람 – 187, 191, 255, 311, 392, 438, 443, 509, 516, 536
김은미 – 110, 317, 366, 374, 582, 616, 718, 763, 781, 773
김은아 – 100, 828
김이슬 – 177, 226, 261, 293, 409, 585
김주미 – 245, 257, 370, 382, 388
김준기 – 216, 354, 431, 480, 496, 511, 524, 529, 540, 698, 727, 768
김태영 – 95, 345, 571
김형옥 – 147, 231, 334, 357, 414, 507, 522, 597, 712, 751
김효숙 – 271, 277, 301, 330, 390, 447, 619, 630, 633, 654, 766, 825, 647
남현정 – 10, 22, 26, 377, 397, 436, 534, 639, 823, 840
랑윤지 – 279, 429, 450, 456, 460, 641, 665, 749, 814
류정옥 – 622, 776, 799, 842
문정희 – 108
박윤정 – 128, 588, 759
박지원 – 40, 42, 60, 64, 71, 74, 85
박치영 – 252, 361, 433, 662, 724, 738, 788, 835
백송이 – 326, 681
성경희 – 93, 102, 142, 165, 197, 694, 707, 741
손정은 – 67, 462
신가인 – 18, 36, 104, 238, 285, 465, 675, 679
신선희 – 250, 315, 324, 543, 552, 650, 705, 744, 779, 803
신유정 – 247, 264, 422, 547, 564, 796
안여진 – 182
양승연 – 240, 338, 453, 500, 636, 746, 832
엄정란 – 24, 34, 54, 58, 87, 132, 427
오세원 – 35, 235, 304, 307, 424, 478, 606, 685, 700, 793
오치호 – 569, 609, 671, 821
유향숙 – 168, 219, 296, 419, 489, 498, 590, 656, 659, 683, 687, 709, 753, 756
이강윤 – 28, 38, 62, 112, 161, 281, 471, 669, 696
이병희 – 149, 151, 153, 173, 175, 193, 195, 203, 520, 558, 819
이선희 – 16
이소정 – 372, 562, 645
이아영 – 69, 222, 328, 347, 399, 401, 492, 734
이연수 – 89, 118, 121, 130, 526
이재훈 – 30, 83, 189, 440, 722, 791
이정인 – 259, 580
이채원 – 45, 114, 573, 716
임지혜 – 106, 155
장미란 – 47, 78
장주선 – 157, 322, 332, 531, 577, 593, 612, 690
정지연 – 116, 144, 673
정지은 – 14, 807
정혜수 – 159, 349, 359, 476, 518, 625, 667, 730, 805

정혜진 – 268, 299, 309, 482, 714
조연수 – 287
조윤주 – 76, 273, 275, 283, 458, 652, 677, 732,784, 830
차정아 – 473
천지영 – 502
최경규 – 291, 386, 494, 567, 736, 771
최다원 – 445, 484
최미혜 – 599, 643
최병윤 – 289, 320, 384, 514, 538, 554, 560, 614,
692, 801
홍서영 – 184, 200, 313, 336, 394, 403, 406, 487, 601
황선영 – 49, 91, 124, 229, 341, 412, 467, 550, 703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이야기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글쓴이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기획운영 여민혜

교정·교열 최준호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 (신풍동 123-69)

TEL.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 www.Bookmagic.kr

제작 디자인펌킨

ISBN 979-11-91875-56-0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23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비매품
ISBN 979-11-91875-56-0

05010